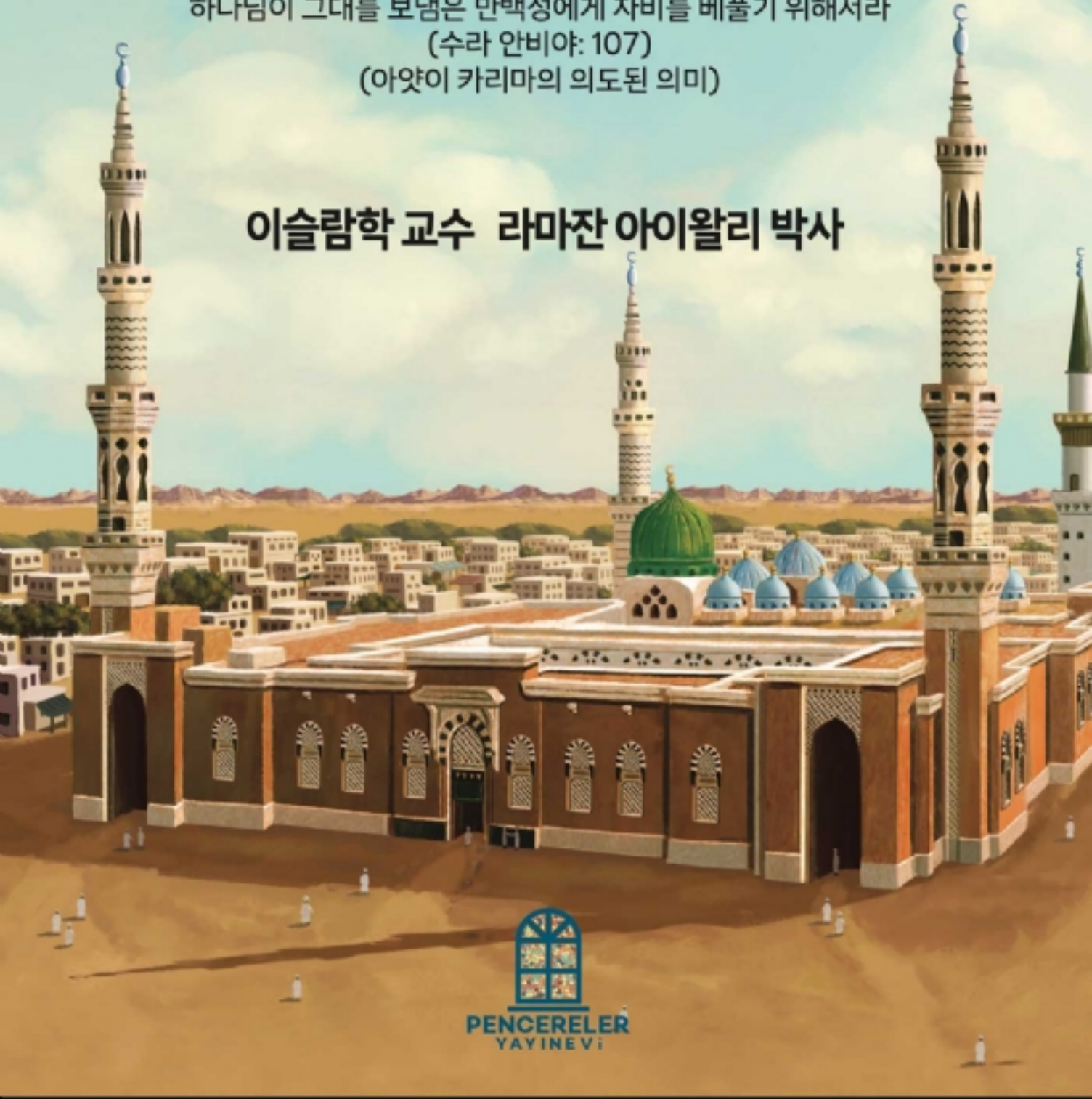
나의 사랑하는 선지자

(살알라후알라이히와살람)

하나님이 그대를 보냄은 만백성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라
(수라 안비야: 107)
(아얏이 카리마의 의도된 의미)

이슬람학 교수 라마잔 아이왈리 박사

PENCERELER
YAYINEVİ

나의 사랑하는 예언자

살 알라후 알라이히 와살람

이슬람학 교수 라마잔 아이왈리 박사

‘”마스지드 안 나바위 - 메디나 알 무나와라”

'모든 예언자(살라왓툴라히 타알라 알라이힘 아즈마인)는 자신의 시대와 장소에 있는 모든 백성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합니다. 반면에 무함마드 '알라이히스 살람'은 세상이 창조된 날부터 부활의 날까지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 즉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 올 모든 존재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도 그분보다 우월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행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창조하시는 분께서 그분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분을 찬양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분을 비판 할 힘이 없습니다.

사이드 압둘하킴 아르바시
(카데살라후 타알라 시레훌아지즈)
마드라사-툴-무타하시인의 종신 교수

나의 사랑하는 예언자

살 알라후 알라이히 와살람

작성자
교수 박사. 라마단 아이발리"

페이지 레이아웃 - 그래픽 디자인
아흐메트 뒤제르텐 / 무스타파 벡타스
무라트 디를릭 / 아메트 카트메를리카야

인쇄
2023년 6월

www.mybelovedprophet.com
info@mybelovedprophet.com

표지 및 지도 일러스트
에미르 외케

인증서 번호: 45103

'인쇄 및 제본:
츠나르 인쇄
위즐 마할레시 마트바아즐라르 자디데시 아타한 번호: 34
층: 5 바츨라르 / 이스탄불
전화: (0090) 212 628 96 00
www.pencereleryayinevi.com
info@pencereleryayinevi.com
www.gofreebooks.com

도서수요
전화: 0212 876 09 67 휴대전화: 0536 399 95 31

소개말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를 찬미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총과 축복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알라후 테알라의 사랑의 예언자, 모든 면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탁월한, 예언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무함마드 알라히살람과 예언자를 보고 듣고 따르던 에샵 교우들과 또한 이들을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이슬람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며 알라후 테알라의 문안이 있기를 기원한다.

역대에 '무지의 시대'라 불리는 시대가 있었으니, 아라비아 반도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술을 마시고, 도박이 성행했다. 힘이 정의를 누르며, 매춘이 공공연했으며, 어린 여아를 생매장하였다. 아라비아 반도뿐만이 아니라 전세계가 암흑에 빠져있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또한 유사 상황에 놓여있었다. 의심할 바 없이, 이러한 상황을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소수의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 창조주 알라후 테알라께 이 암흑의 시대가 물러가도록 애원하였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여러 세대에 걸쳐 여러 다른 지역에 수 차례에 걸쳐 예언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최후의 사도, 최후의 예언자로 '무함마드'를 보내시어 암흑의 세계를 밝히는 소명을 주셨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시어 우리를 예언자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커다란 축복을 선사하셨다. 예언자를 받들고, 따르는 것이 불가피함을 확연하게 알려주셨다. 헤아릴 수 없는 이 큰 은총에 알라후 테알라께 아무리 감사를 드려도부족하다 하겠다.

참 이슬람 신앙인 종교 지식인들은 "모든 예언자들은 그 시대의, 그 지역의, 그 민족의 가장 월등한 사람이었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은 역대의, 전 세계의, 즉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 최후의 날까지, 모든 창조물 중 가장 훌륭하다. 그 어떤 누구도 우리 예언자 보다 그 어떤 면에서도 앞서지 못 한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모든 것에 앞서, 우리 예언자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의 빛을 창조하셨다. 성서 꾸란에 알라후 테알라께서 우리 예언자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그대를 보냄은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라." 또 하디스 쿳시에 "그대가없었더라면, 그대가 없었더라면 이세상 그 어떠한 것도 창조하지 않았으리라." 라 하셨다

믿음의 원리는, "흡비 필라와 부우드 필라" 즉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를 믿는 자를 사랑하고, 적대시 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그 어떤 믿음도 수락되지 않으며 결국 그 결과와 대면하게 된다. 이 이유로 "세상의 귀감"에 대한 사랑은 필연적이며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훌륭한 품성을 본받아 우리의 품성을 다듬을 것을 명령 받았다.

그분의 말씀을 전승하기 위해, 수 세기에 걸쳐 우리 예언자의 축복받은 삶에 대한 책들이 쓰였으며 또 여전히 쓰이고 있다.

우리의 마음에 예언자의 사랑을 가득 채워 넘치게 하기 위하여 참 신앙인 종교 지식인들의 참된 길을 추구하는 이슬람 전문서적들로부터 -심사숙고를 한 끝에- 만물의 귀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축복받은 생애를 쓰기 위해 노력했다. 알라후 테알라께,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예언자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참 이슬람 신앙인 종교 지식인들이 밝히는 진정한 종교의 길로 이끄시기를 기도한다.
아민

이슬람학 교수 라마잔 아이왈리 박사

카바 이 무아자마와 마스지드 이 하람
마카 알 무카라마

아라비아 반도

동로마(비잔틴)제국
카스피 해
안타키아
다마스커스 지역
마데인
아크데니즈
다마스쿠스
이라크
예루살렘(알쿠드스)
사산이도 제국
뒤마트 알 잔달
아일
시내산
카지미
다바
바레인 만
바레인 나지드
이집트
암라지
알 메디나투엘무나와라
(빛나는 도시)
아라비아 반도
오만 만
안누바이트
히자즈
오만
마카 알 무카라마 (성 메카)
사와킨
홍해
티하마
나즈란
아르 루브 알 칼리 사막
주파르
하드라마우트
사나
알 무칼라
무사와
수 족
아라비아해
아 비 시 니 아
인도양

알라의 메신저여,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안녕하세요, 하비불라!
전후의 주님, 당신께 인사드립니다.

예언자의 축복의빛

예언자 무함마드 알라히살람[1]는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인류와 모든 온갖 피조물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이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를 고귀하게 높이셨으니, 가장 권위가 높은 마지막 예언자로 알라후 테알라께서 인류와 진[2]들을 위하여 보내신 분이다. 그분은 전체 우주에 대한 자비로 이 땅에 보내진 것이며,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분의 축복받은 이름은 '무함마드'인데, 이는 '거듭하여 칭송 받는 자', '무수히 칭찬받는 자'라는 뜻이다. 또 '아흐마드', '마흐무드', '무스타파'등의 다른 축복된 이름들을 가졌다. 그분의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만약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생물 나는 창조하지 않을 것이다".

하디스-아이 쿠드시

아버지는 압둘라이고 어머니는 아미나 부인이다. 예언자는 히즈라력(이슬람력) 53 년 전 세 번째 달 11 일과 12 일 월요일 잇는 밤을 지나 새벽녘에 메카에서 태어났다. 역사가들은 이 날이 서기 571 년 4 월 20 일에 해당한다고 한다. 아버지 압둘라는 그분이 태어나기 몇 달 전에 세상을 뜨셨고, 어머니 아미나 부인은 그가 여섯 살 때 돌아가셨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예언자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인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홀로된 진주(두리 야틈)'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그분은 여덟 살 때까지 할아버지 압둘 무탈립의 보살핌을 받았으며,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삼촌 아부 탈립에게로 갔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은 25 세 때 하티제 카디자 성인과 결혼하여 첫 아들을 얻자 '카심'이라고 이름 지었다. 아랍인들은 누구를 부를 때 첫 아들의 이름을 따 '누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습이 있었으므로 예언자는 '아불 카심' 즉 '카심의 아버지'로 불리게 된다.

예언자가 40 세가 되었을 때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그분이 모든 인류와 진들을 위한 예언자임을 알려주셨다. 그로부터 3 년이 지난 뒤, 모든 사람들을 신앙으로 초대하기 시작하였다. 52 세가 되었을 때 알라후 테알라께서 계신 곳으로 승천(昇天)이 이루어졌다. 53 세 때인 서기 622 년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를 단행하였으며, 그 후 27 회에 걸처 전쟁에 참여하였다. 예언자는 63 세가 된 서기 632 년, 히즈라력(이슬람력) 11 년 셋째 달 12 일 월요일 정오 조금 전에 메디나에서 세상을 떠났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모든 사도(使徒)들에게 그들의 이름으로 호명하셨지만,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에게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며 특별하게 사랑하셨다. 꾸란의 한 구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알라후 테알라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에게 깃들기를.
[2]정령, 인간하고는 달리 육체가 없이 가스와 불로 창조되었다.

‘내가 그대를 보냄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엔비야 장 107의 해석)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하디스 쿳시[3]에
‘만약 그대가 없었다면, 나는 이세상 그 어떠한 것들도 창조하지 않았으리라’라 하셨다.

모든 선지자는 각자 그 시대와 장소에 따라 백성들 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의 예언자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은 시대를 초월하여 이 세상이 만들어진 날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 예언자보다 더 우월한 사람은 없으니, 전능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축복의 빛이 창조됨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예언자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에게 내린 축복의 빛을 창조하셨다대부분의 꾸란 해석 학자들과 예언자의 어록인 하디스 셰리프4 연구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전능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자신의 빛으로부터 영묘하고 위대한 물질을 만드셨으며,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이 물질을 가지고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 물질은 ‘무함마드의 빛’이라고 불린다. 모든 사람과 물건의 기원과 근본은 바로 이 물질이다.”

어느 날 예언자의 교우인 자비르 빈 압둘라가 물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모든 것에 앞서 무엇을 만드셨나요?”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이 대답하기를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선지자, 즉 나의 빛을 그분 자신의 빛으로 창조하셨다. 그때까지 서판(書板)이나 펜, 천국과 지옥과 천사, 하늘과 땅, 해와 달, 그리고 사람이나 진도 없었다.”

아담 알라히살람의 축복받은 심장과 몸이 만들어졌을 때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의 빛이 그의 양미간 사이에 놓였다. 아담 알라히살람에게 영혼이 주어지자 그는 샛별처럼 번쩍이는 빛이 자신의 이마에서 빛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아담 알라히살람을 창조하셨을 때, 진리의 알라후 테알라께서 자신을 ‘아부 무함마드’, 즉 ‘무함마드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영감으로 알게되었다. “오 알라후 테알라! 왜 저에게 아부 무함마드라는 이름을 주십니까?” 아담 알라히살람이 이렇게 묻자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담이여, 그대는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일으키자 아담 알라히살람은 하늘 끝 허공에 빛으로 쓰여진 아흐마드라는 우리 예언자의 이름을 보았다. 그 때 아담 알라히살람이 물었다. “알라후 테알

[3] 알라후 테알라께서 천사를 매게로 하지 않고 예언자에게 직접 계시하신 말씀을 예언자가 풀은 것을 기록한 어록. 꾸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계시들이다.

라,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알라후[4] 예어자 무함마드 알라히 살람의 경험담, 문제에 대한 해결책, 꾸란의 해설을 포함한 예언자의 어록.

테알라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후손에서 나올 예언자이다. 그의 이름은 하늘에서는 아흐마드이며, 땅에서는 무함마드이니라. 만약 그를 창조하지 않을 것이었다면 하늘이나 땅, 그리고 너 또한 창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대의 빛은 엎드려 예배에 몰두하던 순결한 선조을 거쳐서 그대에게 선사되었음이다.'

(수아라 장 26: 219 의 해석)

알라후 테알라의 빛이 순수한 이마를 통해 이동함

아담 알라히살람이 창조되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예언자의 축복받은 빛이 아담 알라히살람의 이마에 놓였다. 그 빛은 그의 이마 위에서 빛나기 시작했다. 꾸란에 분명히 기록되었듯이 이 빛은 고결한 아버지들로부터 순결한 어머니들을 거쳐 우리의 예언자에게 도달하였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말씀하셨다.

예언자의 말을 담은 하디스 세리프에도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들의 가장 좋은 부분들을 취하여 나를 만드셨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아라비아의 사람들을 가장 훌륭하게 만들어 내셨으며, 그들로부터 나를 창조한 것이다. 가장 좋은 가문의 훌륭한 가족을 선택하여 그들로부터 나를 만들어 내셨다. 그러므로 나의 영혼과 육체는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다. 나의 혈통과 조상은 인류 최상인 것이다."

다른 하디스 셰리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모든 것들 중에서 특히, 사람을 좋아하셨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셨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중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아라비아에 정착시키시고, 그 아라비아의 출중한

사람들 중에서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나를 선택하셨다. 모든 세대의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 가운데 나를 있게하셨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아라비아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함이라.그들을 적대시 하는 자들은 나를 적대시 함이라."

성스러운 빛은 맨 처음으로 창조된 사람인 아담 알라히살람의 이마 위에서 빛났다. 왜냐하면 그가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의 소자를 몸에 지녔기 때문이다. 이 소자는 첫 번째 어머니인 하와 성인에게 전해졌고, 다시 쉬스 알라히살람에

[4] 예어자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의 경험담, 문제에 대한 해결책, 꾸란의 해설을 포함한 예언자의 어록.

게로 이어졌으며, 이런 식으로 순결한 남자로부터 순결한 여자에게로, 순결한 여자로부터 순결한 남자에게로 계속 전해졌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의 빛은 그 소자와 함께 이마에서 이마로 전해졌다. 천사들은 아담 알라히살람을 볼 때마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의 빛을 볼 수 있었으며, 그래서 아담 알라히살람에게 알라후 테알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담 알라히살람이 죽음에 임박하였을 때 그의 아들 쉬스 알라히살람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너의 이마 위에 빛나는 이 빛은 마지막 예언자인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의 빛이니라. 이 빛을 알라후 테알라를 믿는 맑고 순결한 여인을 선택하여 전하고, 너의 아들에게도 유언으로 이같이 당부하도록 하라." 이로써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에 이를 때까지 모든 아버지들은 그들의 아들에게 이같이 전하도록 일렀다. 그들 모두는 가장 고귀하고 순결한 처녀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빛을 전승해왔다. 순수한 남자와 여자들을 통해 전해진 이 빛은 마침내 그 주인에게 이르렀다. 예언자의 선조들이 두 아들을 가졌거나 또는 한 부족이 둘로 나누어질 경우,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의 빛은 언제나 가장 우월한 쪽으로 이어졌다. 오랜 세대에 걸쳐 누가 예언자의 혈통인지를 이마 위의 빛으로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어느 시대에나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의 빛을 이어오는 명문 혈통이 있었으며, 여기에 속한 사람의 얼굴은 매우 아름답고 환히 빛났다. 이 빛으로 인해 예언자는 형제들 중에서 두드러지게 되며, 그분이 속한 부족은 다른 부족에 비해 더욱 더 존경과 영예를 받게 되었다.

예언자가 남긴 한 하디스 셰리프에 따르면, "나의 할아버지들 중에서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이 없다.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아름답고 훌륭한 아버지들과 순수한 어머니들로부터 나를 만드셨다. 할아버지들이 두 아들을 가지게 되었을 경우, 그 중 더 훌륭한 아들 쪽으로 이어지도록 하셨다." 자손에서 자손으로 전해져 온 이 빛은 아담 알라히살람으로부터 타루에 이르렀으며, 그로부터 아들 이브라힘(아브라함) 알라히살람에게로, 다시 그의 아들 이스마일 알라히살람에게 전해졌다. 태양과 같이 빛나는 이 빛은 그의 아들 중 아드난에게 전해졌으며, 그로부터 마아드에게, 다시 니자르에게 이어졌다. '니자르'는 '조금'이라는 뜻이다. 그의 이름이 니자르로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일화에 기인한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 마아드는 아들의 이마 위 빛을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베풀고는 "이렇게 고귀한 아들이 태어난 데 대한 그저 '조금'의 성의 표시일 뿐" 이라고 말했으며, 그런 까닭으로 아들의 이름은 조금이라는 뜻의 '니자르'가 되었다. 그의 뒤를 이어 그 빛은 순조롭게 전해져 왔으며, 마침내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에게 이르게 된 것이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 계보(역순)
압둘라
압둘 무탈립
하심
압두 마나프
꾸사이
킬랍
무라
카브
루와이
갈립
피르
말리크
나드르
키나나
쿠자이마
무드리카
일리야스
무다르
니자르
마아드
아드난

"아기!
이건 이마에 있어요
빛나는 빛,
마지막 선지자
모하메드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것은 빛이다. 이만큼,
신자이고 진실한 사람,
깨끗한 숙녀분들
배달하고
당신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지를 굳건히!"
아담 "알라의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우리 예언자의 영광스러운 계보, 예언자로부터 아드난까지. 세상의 귀감이신 예언자는 하디스 셰리프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는 압둘라의 아들 무함마드이며, 나의 아버지는 압둘 무탈립의 아들이고, 그 위에 차례로 할아버지들이 계보를 이루는데 곧 증조부 하심, 그 위로 압두 마나프, 꾸사이, 킬랍, 무라, 캅, 루와이, 갈립, 피르, 말리크 할아버지의 순이다. 다시 그 위로 나드르, 키나나, 쿠자이마, 무드리카, 무다르, 니자르, 마아드, 아드난에 이르니라. 내가 소속된 부족이나 가족이 둘로 나누어질 때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항상 나를 고귀한 혈통에 속하게 하셨다."

다른 하디스 셰리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이브라힘의 아들 중에서 이스마일을 선택하셨다. 이스마일의 아들 중에서 키나나 족속을 선택하셨고 키나나 족속 중에서 꾸라이쉬 족속을 선택하셨다. 꾸라이쉬 족속 중에서는 하심의 아들을 선택하셨고, 하심의 아들 중에서 압둘 무탈립의 아들을 선택하셨다. 압둘 무탈립의 아들중에서 알라후 테알라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다.

그 빛이 창조되어, 이마에 자리 잡았으니,
오랫동안 이마에 함께 머물도다.
이후 빛이 하와의 이마에 전해지고,
빛은 그녀에게도 몇 년간 머물렀도다

쉬스가 태어나자 그에게로 옮겨졌고,
그의 이마 위에서 그 빛이 보이네.
이브라힘과 이스마일에게도 닿았고,
내가 모두를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리니

이러하게 연결되고 전달되어,
최후에 그 빛이 무함마드에 이를 때까지.
온 세상을 위한 은혜가 내려졌으니,
빛이 그에게 이르러 그에게 머물도다.

할아버지 압둘 무탈립

우리의 예언자는 꾸라이쉬 부족의 하심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압둘라이다. 압둘라의 아버지는 샤이바이다. 예언자의 할아버지 샤이바는 메디나에서 태어났다. 샤이바는 아버지 하심이 세상을 떴을 때 아직 어린 나이였다. 어느 날 그는 친구들과 함께 외삼촌 집 앞에서 활쏘기 연습을 하고 있었다. 주위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어른들은 샤이바의 이마 위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어느 지체 높은 사람의 아들일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그들은 탄복하며 바라보았다. 샤이바의 차례가 되어 활을 힘껏 잡아당겨 화살을 날렸다. 화살이 표적에 명중하자 그는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나는 하심의 아들이야. 내 화살이 표적에 명중하는 건 당연하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 아이가 메카의 하심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심은 이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 압두 마나프의 가족 중 한 사람이 메카로 돌아와 하심의 형제인 무탈립에게 말했다. “메디나에 있는 당신 조카 샤이바는 매우 영리한 아이더군요. 또한 그의 이마에는 모두가 찬탄해 마지않는 빛이 있어요. 그런 소중한 아이를 당신 곁에서 떼어두는 게 온당한 일인가요?” 그리하여 무탈립은 서둘러 메디나로 향하였으며, 조카 샤이바를 데리고 메카로 돌아왔다. 사람들이 이 아이가 누구냐고 물을 때면 무탈립은 “내 종이라오.” 라고 대답하곤 했다. 그 이후로 샤이바의 이름은 압둘 무탈립으로 불렸으니, 이는 곧 ‘무탈립의 종’이라는 뜻이다

Zamzam 우물은 Hacer-i Esved 모퉁이 맞은편 Masjid al-Haram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녀는 돌팔찌를 갖고 있었어요 바닥은 대리석 타일로 마감 그리고 벽쪽으로 경사가있었습니다. 압둘하미드 칸 그는 물이 새지 않도록 우물을 건설했습니다. 귀중한 역사의 유산인 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은 1963년에 철거되었습니다. 우물의 입구와 그 주변의 몇 미터는 땅에서 몇 미터 아래로 낮아졌습니다. 그런 다음 완전히 덮고 대리석 바닥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이 우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압둘 무탈립은 숙부가 사망할 때까지 함께 지냈다. 그의 몸에서는 향기로운 사향냄새가 풍겼다. 이마 위에는 알라후 테알라께서 가장 사랑하는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의 빛이 비치고 있었다. 기근이나 가뭄이 들 때마다 메카 사람들은 그를 타비르 언덕으로 데려가 알라후 테알라께 탄원 해주도록 청하였다. 그는 누구에게도 거절하는 법이 없었으며 알라후 테알라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의 빛을 보고 그의 기도를

받아들여 비를 내려주셨다. 이런 까닭으로 압둘 무탈립에 대한의 존중과 신뢰는 날이갈수록 깊어졌다. 메카 사람들은 압둘 무탈립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선택하였다.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평안을 찾을 수 있었다. 예외적으로 페르시아 사람인 호스로우가 그를 시샘하여 고의적으로 적대심을 드러낸 것을 제외하고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 모두가 압둘 무탈립의 미덕과 위대함을 인정하였다.

압둘 무탈립은 이브라힘의 하니프 종교를 믿었고, 하니프는 이슬람교로 전해내려오니, 압둘 무탈립은 무슬림이였다. 압둘 무탈립은 결코 우상을 숭배하지 않

앉으며,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그는 카바 주위에서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기도하고 예배를 올렸다.
어느 날, 그는 꿈에서 누군간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오, 압둘 무탈립이여! 일어나 타이바를 파라." 그 다음 날에도 꿈에서 "일어나 바라를 파라" 고 말했다. 셋째 날에도 똑 같이 꿈에서 "일어나 마드누나를 파라." 고 명령하였다. 그 꿈에서 넷째 날에도 "압둘 무탈립이여, 일어나 잠잠 우물[5]을 파라" 고 말했다. 압둘 무탈립은 "잠잠이 무엇이며, 우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잠잠은 결코 줄지않는 물이며, 그 원천을 볼 수 없느니라. 온 세상에서 오는 순례자들이 사용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니 대천사 지브릴이 날개로 내려친 그곳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이스마일을 위하여 그 물을 만드셨으니 목마름을 충분히 만족시킬 것이다. 그 물은 배고픈 자에게 양식이 되고, 병든 자에게는 약이 된다. 내가 너에게 그 장소를 알려줄 것이다. 사람들이 희생제를 지내고 폐기물을 버릴 때, 그곳에 빨간 부리를 가진 까마귀 한 마리가 올 것이다.

그 까마귀가 땅을 후벼 긁으면 개미집이 나타날 것이다. 그곳이 바로 잠잠 우물이니라." 라 했다.

아침이 되어 압둘 무탈립은 그의 아들 하리스와 함께 카바로 가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자니, 빨간 주둥이를 가진 까마귀 한 마리가 다가와 어떤 구덩이 위에 앉더니 그곳을 부리로 쪼기 시작했다. 그러자 개미집이 나타났다. 압둘 무탈립과 그의 아들은 곧 그곳을 파기 시작했다. 얼마 후에 우물의 입구가 보였다. 압둘 무탈립은 그것을 보고 외쳤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 하시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 하시다!"
우물을 발굴해 내는 것을 지켜보던 꾸라이쉬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오, 압둘 무탈립! 이것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이스마일 알라히살람의 우물이구려. 우리 역시 우물에 대한 권리가 있지. 이 일에 우리도 참여시켜 주지 않겠는가?" 압둘 무탈립은 즉시 이를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아니오! 이 일은 오직 나에게만 주어진 의무입니다." 꾸라이쉬 사람들이 말했다. "당신은 혼자뿐이지 않는가. 오로지 아들 하나뿐인 당신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그들이 추방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압둘 무탈립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 그는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빌었다. "오, 알라후 테알라! 저에게 열 명의 아들을 허락해 주소서. 알라후 테알라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 중 한 명을 카바에 제물로바치겠나이다."

압둘 무탈립은 이 발굴작업이 매우 위험하고 자칫하면 격렬한 싸움으로 치달

[5] 알라후 테알라의 명령에 따라 이브라힘 알라히살람은 아들 이스마일과 부인 하제르를 메카에 남겨 두었는데, 아들에게 먹일 물을 찾아 헤메고 있을 때, 지브릴 천사가 내려와 날개(또는 발)로 친 자라에 물이 솟아났다. 이르길, '이 아이와 그 아버지가 이곳에 카바 신전을 세울 것이다.'라 하였다. '잠잠'은 멈추라는 뜻으로 하제르 부인이 물이 넘쳐나자 그치라는 뜻으로 '잠잠'이라 하여 지금까지 명명되고 있다.

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발굴을 멈추고 평화적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중재인을 통해 해결하기로 상대방과 의견을 모았다. 마침내 그들은 다마스커스의 통찰력이 있는 한 사람을 지목하고 찾아가기로 결정했다. 꾸라이쉬 부족의 명망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은 여정에 올랐다. 물이 부족하고 기온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일행은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직 물을 찾는 것이었지만, 사막 한 가운데서 물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버렸을 때 압둘 무탈립이 소리쳤다. "오시오!

오시오! 이리 모이시오! 내가 물을 찾았소. 당신들과 타고 있는 짐승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물을…"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의 빛을 지닌 압둘 무탈립이 물을 찾고 있을 때 그의 낙타의 발이 커다란 돌에 걸려서 흔들리자 돌 밑에서 물이 솟아났던 것이다. 모두가 뛰어와 물을 마셨다. 갈증이 해소되자 모두들 정신을 차렸다.

꾸라이쉬 사람들은 압둘 무탈립의 위대함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오, 압둘 무탈립! 이제 당신에게 반대할 이유가 없군요. 당신이야말로 잠잠 우물을 발굴할 가장 적합한 인물이오. 이 일로 다시는 우리가 당신과 다투지 않으리다. 이제 중재자를 찾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졌으니 그만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메카로 되돌아왔다. 압둘 무탈립은 이마 위의 지니고 있던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의 빛 때문에 잠잠 우물을 발굴하는 영예를 수여받게 된 것이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가장 사랑하는 이여! 가장 훌륭한 인간이여! 나는 즐거이 당신을 기다리리라, 목마른 자가 언제나 물을 구하듯이.

압둘라를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서약의 이행

잠잠 우물을 발굴한 뒤에 압둘 무탈립의 명성은 더욱 더 높아졌다. 몇 년이 지났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 하리스 이외에 열 명의 아들을, 아울러 여섯 명의 딸도 얻었다. 아들들의 이름은 꾸삼, 아부 라합, 하질, 무까윔, 디라르, 주바이르, 아부 탈립, 압둘라, 함자, 그리고 압바스이다. 딸들은 사피야, 아티까, 움무 하킴 바드야, 바라, 우마이마, 아르와이다. 그의 자식들

중에서 압둘 무탈립은 압둘라를 가장 사랑하였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마 위 빛이 압둘라 이마에서 비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압둘 무탈립은 꿈에서 어떤 목소리를 들었다. "오, 압둘 무탈립! 너의 서약을 이행하라!" 아침이 되어 압둘 무탈립은 숫양 한 마리를 희생물로 바쳤다. 밤이 되자 다시 꿈 속에서 "숫양보다 더 큰 제물을 바치라" 는 명을 받았다. 아침이 되어 암소 한 마리를 희생하였다. 밤이 되어 또 꿈 속에서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바치라" 는 명령을 받았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네 아들 중에서 한 아이를 희생으로 바치겠다고 서약하였느니라. 약속을 이행하라!"

다음날 압둘 무탈립은 아들들을 모은 후에 자신이 몇 년 전에 알라후 테알라께 올린 탄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런 뒤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희생시켜야겠다고 말했다. 아들 중 누구도 그에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이에 동의하며 말했다. "오, 아버지! 당신의 서약을 이행하소서! 당신이 원하신다면 개의치 마시고 어떤 일이라도 이행하십시요." 압둘 무탈립은 제비를 뽑기로 하였다. 뽑힌 사람은 압둘 무탈립의 가장 소중한 아들, 알라후 테알라께서 가장 사랑하는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의 빛을 지닌 압둘라였다. 압둘 무탈립은 충격에 빠졌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다. 그는 알라후 테알라께 언약을 지켜야만 했다. 그는 칼을 챙겨들고 그의 가장 소중한 아들 압둘라와 함께 카바에 도착했다. 그는 압둘라를 희생물로 바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
상황을 지켜보던 꾸라이쉬 부족의 유력자들이 놀라움을 금치못하며 몰려왔다. 그 중의 한 사람인 압둘라의 외숙부가 말했다. "오, 압둘 무탈립! 그만 두시오! 우리는 당신이 아들을 죽이는 일에 결코 동의할 수 없소. 만약 당신이 그런 일을 한다면 그것이 꾸라이쉬 부족의 관습이 될 것이오. 모든 사람이 아들을 희생하겠다고 서약하고 아이를 죽일 것이오. 그런 일의 선례를 남기지 마시오. 다른 방식으로 알라후 테알라를 기쁘게 할 방도를 구하도록 하시오." "통찰력을 갖춘 이를 청하여 그가 당신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합시다." 라고 제안했다.

이 말을 들은 압둘 무탈립은 하이바르에 살고 있는 쿠트바(또는 사자크)라는 현자를 찾아갔다.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현자가 물었다. "한 사람의 몸값은 얼마지요?" 낙타 열 마리라는 대답이 돌아오자 그가 말했다. "낙타 열 마리와 당신 아들 중에서 제비를 뽑으시오. 만약 당신 아들이 뽑히게 되면 몸값에다 낙타 열 마리를 더 얹어 제비를 다시 뽑으시오. 이렇게 계속 몸값을 불려 마침내 낙타가 뽑힐 때까지 제비뽑기를 하시오."

압둘 무탈립은 그 즉시 메카로 돌아왔으며 그 현자가 말한 대로 시행하였다. 낙타 열 마리씩 늘려가며 제비를 뽑았는데 언제나 압둘라가 선택되었다. 그러나 낙타의 숫자가 꼭 백 마리가 되었을 때, 마침내 제비는 낙타의 몫으로 돌아갔다. 이미 결과가 나왔지만 그는 혹시나 하여 두 번 더 제비를 뽑아 보았다. 그 결과 모두 낙타가 제비로 뽑혔다. 압둘 무탈립은 낙타들을 희생물로 바치며 외쳤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그와 그 아들들은 바친 제물에 손도 대지 않았으며,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아담 알라히살람 이후, 이스마일 알라히살람과 예언자의 아버지 압둘라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두 희생물의 아들이니라."

그분의 아버지 압둘라

이 세상과 사후 세상의 귀감인 예언자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의 빛을 지닌 압둘라가 태어났을 때, 성서의 사람들(성서를 따르던 유대인과 그리스도교인들)은 마지막 예언자의 아버지가 메카에서 태어났음을 서로에게 알렸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야흐야(세례 요한) 알라히살람이 입었던 양털 옷을 보관하고 있었다. 야흐야 알라히살람은 순교시 그 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축복받은 피가 옷 위에 묻어 있었다. 그들의 성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옷의 피가 다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면 최후의 예언자의 아버지가 태어나리다.'
성서의 사람들은 이것이 현실화 되자 예언자의 아버지 압둘라가 태어났음을 알게 되었다. 이들이 질시하여 여러 차례 압둘라를 살해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이마의 빛을 지닌 압둘라를 보호하셨다.

압둘라가 결혼적령기에 이르렀을 때, 훌륭한 윤리와 좋은 풍채를 갖춘 뛰어난 젊은이로 성장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딸이 압둘라의 아내가 되었으면 했다. 많은 통치자들도 압둘라를 사위로 삼으려고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고 압둘 무탈립에게 말했다. 그러나 압둘 무탈립은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 제안을 거절하였다.

압둘라가 열 여덟 살이 되었을 때, 아름다운 성품과 외모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태양처럼 빛나는 그의 이마 위 빛을 본 처녀들은 예외없이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의 명성은 이집트까지 알려졌다. 이백 명 가까운 처녀들이 그와 결혼하기 위해 메카로 와서 청혼하였다. 그러나 압둘 무탈립은 선조인 이브라힘 알라히살람의 시대부터 그들이 지켜온 하니프 종교를 믿는 처녀들 중에서 가장 예의바르고 순결하며 아름다운 배우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성서가 인정하는 최후의 예언자가 자신의 민족이 아님을 알고는 질투심에 빠져 압둘라를 죽일 것을 맹세하였다. 그들은 이를 위해 70 명의 전사들을 메카로 파견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마침내 압둘라가 마을 밖으로 벗어났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칼을 빼어들고 압둘라를 공격하였다. 마침 그날 압둘라의 친척인 와브 빈 압디 마나프가 친구 몇 명과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압둘라를 공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들은 와브의 친척인 압둘라를 돕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너무나 숫자가 많았으며, 압둘라를 도우려다가 오히려 패배할

코끼리 사건

메디나
옌부
바드르 바드르
나 지 드
쿠라이시
무감마스
하와진
제다
마카 알 무카라마
(성 메카)
타이프
타키프
아라비아 반도
샤바
벨하리스
바드르 전투 경로
알리트
도스
테발라
비샤
가미드
에즈디 사라트
홍해
사와킨
알쿤푸다
티하마틀 아시르
압둘메단의 아들들
나즈란
파라산 제도
지잔
덕흘룩
캄란
무사와
사나
알 후다이다
예 멘
타이즈
샤크라
알 무카
아덴
아 비 시 니 아

것이 너무도 명백하였다. 고로, 상대방에게 권고를 해보기로 하였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다가가고 있을 때, 어디선가 말을 타고 칼을 지닌 많은 병력이 나타나 재빨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병력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공격하여 전부 몰살시켰다. 와브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압둘라가 알라후 테알라의 보호를 받고 있고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를 소중히 여기시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와브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러한 상황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와브 부부는 딸 아미나의 배필로 압둘라가 적절하다고 보고 이들의 혼인을 추진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압둘 무탈립은 바니주흐라 부족의 유력자인 와브에게 아름답고 순결하며 신앙심이 깊은 아미나라는 딸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있었다. 그들은 또한 먼 친척으로 몇 세대 전부터 공동체의 일원으로 좋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압둘 무탈립은 이 처녀를 아들 압둘라의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 와브의 집을 방문하였다. 그가 와브에게 딸 아미나를 자신의 며느리로 삼고 싶다고 요청하자 와브가 말했다. "오, 내 숙부의 아들이여! 우리는 당신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지난번에 목격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 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아미나의 어머니가 꿈을 꾸었다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 줄기 빛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 땅과 하늘을 환히 밝혔답니다. 또한 나 역시 어젯밤 꿈에 우리들의 조상 이브라힘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내가 압둘 무탈립의 아들 압둘라와 너희 딸 아미나와의 결혼문제를 마무리 짓고자 하니 너도 또한 승낙하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침부터 이 꿈 생각만 하고 있었지요. 당신이 언제나 우리 집에 올까 하고요." 이 말을 들은 압둘 무탈립은 감격에 겨워 외쳤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참으로 위대하시다!" 마침내 그의 아들 압둘라와 와브의 딸 아미나가 결혼하였다. 아미나와 압둘라의 결혼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들도 전해진다.

그분의 축복의 빛이 어머니에게 옮김

우리들의 예언자의 축복받은 빛이 그의 어머니에게 전해졌을 때, 들 짐승과 날 짐승이 '세상의 귀감이 오실날이 가까워 졌네. 그분은 이 땅의 믿음이요, 이 시대의 태양이라.'라며 기쁜 소식을 알렸다. 그날 밤 카바에 있던 모든 우상들이 땅위에 쓰러졌다. 그때까지 메카에는 기근이 들어 있었다. 몇 년째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이다. 나무 위에는 푸른 잎 조차 찾아 볼 수 없고 수확의 조짐도 없었다. 사람들은 고난에 직면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성인 압둘라를 거쳐 우리들의 사랑하는 예언자의 빛이 그 어머니 아미나 성인에게 전해진 후, 그토록 흠뻑 비가 내리고 농작물이 많이 수확되었으므로 사람들은 그 해를 '풍년'이라 이름 지었다.
아미나 부인이 잉태를 했을 때, 남편 압둘라 성인은 장사일로 다마스커스에 갔다

아라비아와 그 주변의 문화 중심지

비잔틴 제국
안타키아
마데인
다마스커스 지역
아크데니즈
다마스쿠스
이스파한
사 산 제 국
예루살렘(알쿠드스)
옘부
아라비아만
시라즈
뒤마트 알 잔달
시내산
타북
타이마
이집트
카이바
알울라
바레인
아라비아 만
알 메디나투엘무나와라
(빛나는 도시)
야마마
오만 만
아라비아 반도
안누바이트
히자즈
알 카르마
오만
마카 알 무카라마
(성 메카)
라니야
사와킨
타이프
홍해
티하마
나즈란
하드라마우트
무사와
사나
아라비아해
아 비 시 니 아

가 돌아오던 중, 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는 메디나에 도착한 후 외숙들인 나자르 족속 곁에서 숨을 거두었다. 열 여덟 또는 스물 다섯의 젊은 나이였다. 이 소식이 메카에 전해지자 온 도시가 슬픔에 잠겼다. 예언자의 교우 중 한사람인 압둘라 빈 압바스는 다음과 같이 알렸다. "우리들의 예언자의 아버지 압둘라가 그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뜨니 천사들이 "오, 알라후 테알라! 당신의 사도가 고아가 되었나이다." 하니 알라후 테알라께서 "내가 그를 보살피고 돕노라." 하셨다."

코끼리 사건

우리들의 예언자가 태어나기 2 개월전, 이 무렵에 그 유명한 '코끼리 사건'이 발생한다. 예멘 총독인 아브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카바로 참배하러 가는 것을 시기하였다. 그는 비잔틴제국 황제의 도움을 받아 '사나'에 큰 교회를 지었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찾아와 예배드리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아랍 사람들은 오랜 옛날부터 카바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총독이 지은 교회를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생각했다. 어떤 사람이 그 교회를 더럽히자 아브라하 총독은 화가 치솟아 카바를 부셔버리려고 결심했다. 그는 대규모 군대를 준비하고 메카로 전진했다. 아브라하의 군대는 메카 가까이 접근하여 꾸라이쉬 부족의 재산을 노략질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압둘 무탈립의 낙타 2 백 마리를 약탈했다. 압둘 무탈립은 아브라하에게 가서 자신의 낙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아브라하가 말했다. "나는 너희들의 카바를 쑥대밭으로 만들기위해 이곳에 왔다. 그곳을 지키기를 원하지 않는가? 너는 네 낙타만 돌려받기를 원하는가?" 압둘 무탈립이 대답했다. "나는 이 낙타들의 소유자입니다. 카바 또한 그 주인이 있지요. 그곳은 알라후 테알라께서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하가 말했다. "아무도 카바를 우리로부터 지킬 수 없다." 총독은 압둘 무탈립에게 그의 낙타를 돌려주었다. 그런 뒤 그는 군대에게 메카로 진군하라고 명령했다. 아브라하 군대의 전방에는 마무드로 불리는 코끼리 한 마리가 배치되어 있었다. 그 코끼리가 내세우고 전진하면 언제나 승리한다고 믿었다. 아브라하의 군대가 카바를 향하자 코끼리가 땅에 주저앉더니, 걷지를 못하였다. 어쩌다 행군방향이 예멘 쪽으로 바뀌자 코끼리는 뛰는 듯이 달아났다. 그리하여 아브라하의 군대는 메카에 진입하지도, 그곳을 공격하지도 못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아바빌'이라 불리는 산제비 무리들을 보내셨다. 이 새들은 각각 세 개씩의 콩 알만한 돌을 부리와 양쪽 발로 운반하여 아브라하의 군대 위에 떨어뜨렸다. 돌은 군인들의 머리부터 수직으로 뚫고 발로 나오니, 그 돌을 맞은 군인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꾸란의 한 장에 수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군대는 다 갉아 먹어버린 마른 잎과 같았다. 이 광경을 지켜본 아브라하는 달아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 돌의 진짜 표적은 바로 아브라하였던 것이다. 아브라하는 온몸이 처참한 상처투성이가 된 채 죽었다. 이 사건은 꾸란 '코끼리 장'에 잘 서술되어 있다.

기쁜 소식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이 올 것이라는 사실은 아담 알라히살람 이래 모든 예언자들과 그들의 공동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의 탄생이 가까워지자 많은 예고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무사 알라히살람의 율법 태브랏의 왜곡되지 않은 원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가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라, 관대함이 그처럼 높고 호의로움이 그리 넓더라. 가난한 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며, 세상을 위해 부를 탐하는 자들을 치료하는 자들의 의사이다. 그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결한 사람이다. 말할 때는 매우 다정다감하며, 배분함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매사에 옳은 결정을 한다. 그는 불신자들에 대하여서는 강하고 엄하며 노인들을 공경하며 젊은이들에 대하여 애정과 동정심을 표하고 포로를 불쌍히 여긴다. 그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알라후 테알라께 감사한다. 언제나 기운이 넘쳐 흐르고 얼굴은 미소를 머금고 있으며, 큰 소리로 웃는 일이 없다. 글을 배우지 않았으며 어떠한 것도 읽거나

쓰지 않고도 알라후 테알라의 뜻한 바들을 그가 전달할 것이다. 그는 나의(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이다. 나쁜 습관이 전혀 없으며 냉담하지도 않고, 공공연히 큰 소리를 내지도 않는다. 그의 공동체는 훌륭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다. 그들은 첨탑(미나레트) 위에서 알라후 테알라를 부르며, 기도하러 오라고 알리는 소리를 크게 외친다. 예배 전에 몸을 깨끗이 씻는다. 예배시 교도들은 줄을 앞, 뒤, 옆으로 가지런히 맞춘다. 밤이 되면 알라후 테알라를 예찬하는 소리가 꿀벌들이 윙윙거리는 소리처럼 들린다. 그는 메카에서 태어난다. 메디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모든 땅이 그의 통치하에 들어갈 것이다. 그의 이름은 무함마드이다. 나는 그에게 무타와킬(모든 것을 알라후 테알라께 맡긴 자)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나는 그가 거짓된 종교를 물러가게 하고 진실한 종교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그의 목숨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사람들을 진리로 초대할 것이다. 그의 축복으로 눈먼 자들은 볼 수있게 될 것이며, 귀머거리는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태만이 떠날 것이다.'

다우드(다윗) 알라히살람에게 계시된 왜곡되지 않은 원래의 시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관대한 사람으로 결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그는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으며 말이 부드럽고 얼굴이 빛난다. 그는 인간을 다루는 의사이다. 그는 눈물을 많이 흘리며 적게 웃는다. 그는 적게 자고 생각을 많이 한다. 그가 만드는 것은 훌륭하며 아름답다. 그의 말은 마음을 감동시키며 영혼을

어루만진다. 오,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여! 열정의 칼을 뽑아 용기의 들판에서 이단자들에게 댓가를 치루게 하라. 아름다운 말들로 나에 대한 찬미와 영광을 온 누리에 퍼뜨리라. 모든 불신자들은 그대의 축복된 손 앞에 항복하리라.'

이사(예수) 알라히살람에게 계시된 왜곡 이전의 원래 성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는 많이 먹지 않으며, 욕심이 전혀 없다. 그는 남을 기만하지 않으며, 남을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위해 보복하지 않으며, 나태하지 않다. 그는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
성경에는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알라후 테알라로부터 오게 될 그 문함만나, 그 예언자가 왔다면 그는 나(이사)에 대하여 증언했을지라. 그대들은 나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으니, 내가 한 이 말을 증언하라. 이를 그대들에게 일러줌은 내가 그대들이 의심에 빠지거나 탈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문함만나'는 히브리어로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을 의미한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코끼리를 내세운 자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소식이 이르지 아니 했느뇨? 그들의 음모를 파멸시켜 버리지 아니했더냐?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그들에게 새떼를 보내어 모래와 흙으로 만든, 불로 구운 돌멩이들을 던지셨느니 그들은 다 갉아 먹어버린 마른 잎과 같았더라.'
(105:1-5 의 해석)

무지의 시대

우리의 예언자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세상은 극도의 정신적 고통과 암흑에 빠져 있었다. 인간은 무절제 상태에 있었고, 알라후 테알라의 종교는 잊혀졌다. 알라후 테알라의 종교 교리를 저버리고 인간의 관념과 생각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의 잔악함과 압제에 시달렸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를 잊게 되었으며, 휴식과 평안과 행복의 원천인 타우히드(알라후 테알라의 유일성)에 대한 믿음은 사라졌다. 불신의 폭풍이 마음 속으로부터의 믿음을 쫓아내었다. 알라후 테알라에 대한 믿음을 대신하여 우상 숭배가 마음 속에 뿌리 내렸다.
무사(모세) 알라히살람이 가지고 온 종교는 잊혀지고, 토라(율법)는 거짓되게 변질되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분쟁에 휩싸였다. 그리스도교는 전체적으로 마구 뜯어 고쳐져 원래의 종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었다. 세 가지 신의 관념인 삼위일체가 수용되었다. 진정한 성경은 사라졌으며, 성직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내용을 바꾸었다. 구약과 신약의 두 성서는 더 이상 알라후 테알라의 말씀이 아니었다.

이집트에서는 율법이 왜곡되어 오류로 가득찬 토라가 널리 퍼졌으며, 동로마 제국에서는 변질된 그리스도교가 널리 행해졌다. 페르시아에서는 불을 숭배하였다. 숭배자들의 불은 천 년 동안이나 꺼지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유교, 인도에서는 불교 같은 잘못된 종교가 성행하였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보다 더 이상한 성향에 빠졌다. 그들은 알라후 테알라께서 높은 가치를 부여한 카바 지역에 360 개의 우상들을 세웠다. 카바 신전은 하늘 위에서 천사들이 방문하는 '바이티마무르(자주 방문하는 집)'를 모방하여 그 크기 그대로 지은 것이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카바를 향해 불경스러운 짓을 하는 자들이면 누구든지 파멸시켰다.

주르훔 부족은 간통과 간음의 사악함이 도를 지나쳤다. 그들의 통치자는 부족 사람들의 불경스러움과 추잡한 행동을 목격하고 그들에게 경고했다. "오, 주르훔 사람들이여!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거룩한 성전의 안전에 신경을 기울이고 모두 제 정신을 차리시오. 당신들 이전의 성인 후드와 살리, 그리고 쇼아이브의 공동체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으며, 그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서로에게 권장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서로에게 타이르시오. 당신의 일시적인 힘에 속아 넘어 가지 마시오. 메카에서 진리를 외면하는 것과 잔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억제하시오. 왜냐하면 잔악함은 사람들의 멸망을 초래하기 때문이오. 내가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하거니와 이 곳에 살면서 진리를 외면하고 사악함을 저질러 알라후 테알라께서 우리를 멸종시키고 뿌리까지 없애시어 이 자리에 다른 종족들을 세우지 않게 합시다. 메카 사람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계명을 일탈하고 진리를 외면하면서는 절대로 이 곳에서 살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여러분보다 앞서 이 지역에 정착했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타슴, 자디스, 그리고 아말리까 사람들은 당신들보다 더 긴 수명을 누렸고, 더 강력하였으며, 더욱 부유하였습니다. 그들은 카바의 신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으며, 올바른 길을 벗어나사람들을 핍박하였기 때문에 이 축복된 곳에서 추방되었지요.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개미 떼를 보내시거나, 굶주리게 하시거나, 또는 칼로 그들을 쫓아냈음을 당신들은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에는 사악한 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들에게 커다란 곤경을 격게 하시니…

이러한 와중에서도 축복받은 메카는 불신자들로 넘쳐났으며, 거룩한 성전에는 라르, 우라, 메나트 같은 수백 개의 우상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잔악함은 극에 달하여 부도덕함이 자랑거리의 원천이 되었다. 아라비아는 종교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암흑에 휩싸였으며, 무지와 상식에서의 일탈에 눈을 감은 상태였다. 이 시대를 '무지의 시대'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목민 생활

을 하였으며, 부족들은 서로 나뉘어졌다. 늘 분쟁 상태에 있던 아랍 부족들은 습격과 약탈을 생존의 한 방편으로 간주하였다. 아라비아 반도에 정치적, 사회적 통합이란 없었다. 더욱이 음주, 도박, 간음, 절도, 잔혹행위, 거짓말, 그리고 부도덕적 행위가 만연하였다. 강자들의 약자들에 대한 학대에는 가장 무자비하고 지독한 수단들이 동원되었다. 여성들은 단순한 물건처럼 매매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딸이 태어나는 것을 재앙이나 수치로 여겼다. 이러한 끔찍한 생각 때문에 딸이 "아버지, 아버지" 하고 울면서 매달려도 불쌍한 그들을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 넣고 흙으로 파묻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행동에 양심의 가책은 커녕, 오히려 씩씩한 무용담으로 간주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애로움이나 동정심, 선행심이나 공정함에 대한 인식을 거의 갖추지 못했다.
이러한 반면에, 아랍 사람들은 문학적 재능이 뛰어나 웅변술과 수사법, 그리고 명료한 표현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다. 그들은 운문과 시심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겼으며, 이를 명예의 원천으로 생각했다. 재능이 있는 시인은 그와 그 부족의 평판을 좌우하였다. 어떤 때에는 축제장이 세워지고 시와 웅변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 무지의 시대에 카바 벽에 걸었던 가장 훌륭한 7 편의 시들을 '아르 무아르라카투스 세바' 즉, '일곱 개의 벽걸이'로 불렀다.

이 시대의 아라비아 사람들의 종교적 믿음은 주축이 없이 제각기였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믿음이 없었으며 속세의 삶을 제외한 그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와 심판의 날은 믿었지만, 사람 중에 누군가가 예언자가 되리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알라후 테알라께서 믿었지만 사후 세상이 있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 대다수 사람들은 우상들을 숭배하였다. 다신교 숭배자들은 각자 자신의 집에 우상을 세워두고 있었다.

이들과는 다르게 예언자 아브라함의 믿던 종교를 따르던 '하니프 교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를 믿었으며, 결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 예언자의 아버지인 압둘라와 할아버지인 압둘 무탈립, 어머니와 몇몇 다른 이들도 이 종교를 믿었다. 하니프 종교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악덕의 길로 들어서서 가혹한 박해에 빠져 깊은 암흑에 휩싸여 있었다.

당신은 우주의 빛이요, 알라후 테알라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
당신의 축복받은 이름이 항상 내 혀끝에서 떠나지 않으니

나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내 영혼이 행복을 찾네..
당신의 이름들이 제 각기 나를 중재하기를 바라니,

예언자가 태어난 집의 옛 장소 (현재는 메카 도서관으로 사용됨)

헤르츠. 무함마드의 출생지는 카바에서 북동쪽으로 300~400m 떨어져 있으며 그의 할아버지 하심 빈 압두마나프(Hashim bin Abdumanaf)의 소유이다. 선지자가 메카로 이주했을 때 그는 이 집을 Akil bin Abu Talib에게 주었다. Akil의 손자는 그것을 Muhammed bin Yusuf Sakafi와 그의 어머니 Haruns Re□id에게 팔았고 나중에 Hayruzan은 이 집을 사서 모스크로 지었습니다. Abbasid, Mamluk 및 Ottoman Turks는 이 모스크를 보호했으며, Ottoman Sultan Suleiman the Magnificent는 이 모스크를 수리했습니다. 1924년 사우디 정부는 이 모스크를 철거하고 셰이크 압바스 하탄(Sheikh Abbas Hattan) 모스크로 재건축했으나 사우디 정부는 1959년 도서관으로 개조했다.

아흐마드와 마흐무드, 아불 까심 무함마드 알라히살람 무스타파.
그분은 태양이나 달의 밝은 빛이라 불려지고 있으니

내가 그분의 얼굴을 태양이나 달에 비유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오, 나의 마음이여! 이 옷과 예복, 그리고 유흥은 네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당신은 우주의 빛이요, 알라후 테알라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
당신의 축복받은 이름이 항상 내 혀끝에서 떠나지 않으니

나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내 영혼이 행복을 찾네..
당신의 이름들이 제 각기 나를 중재하기를 바라니,

아흐마드와 마흐무드, 아불 까심 무함마드 알라히살람 무스타파.
그분은 태양이나 달의 밝은 빛이라 불려지고 있으니

내가 그분의 얼굴을 태양이나 달에 비유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오, 나의 마음이여! 이 옷과 예복, 그리고 유흥은 네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분이 양탄자와 구슬로된 줄 만으로도 만족했을 진데.
나의 죄는 무수히 많아 한계를 넘었으니,

나는 동정을 바라며 당신에게 왔으니, 당신은 중재의 근원임이라.
참회의 기도를 올리오니, 오, 알라후 테알라! 받아주소서.

-술탄 술레이만 1 세

세상의 영광, 그분의 탄생

세상은 잔인한 박해와 깊은 어둠에 휩싸여 있어, 사람들은 알라후 테알라에 대한 믿음과 숭배를 내팽개쳐 버렸다. 무지한 그들은 알라후 테알라께서 창조하신 것들, 즉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을 신으로 삼고 숭배하였다.

온 우주와 만물이 비탄에 잠겼으며 사람들은 웃음을 잃게 되었다. 이제 다른 피조물들보다 훨씬 뛰어난, 인류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 줄 한 영웅이 필요하였다. 영웅의 출현이 임박하게 되었다. 아담 알라히살람의 시대로부터 순결한 사람들의 이마에서 이마로 전해져 내려온 그 빛의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온 우주가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인류와 진에게 천국의 기쁨을 알려줄 유일무이한 사람이 오고 있었다. 자애와 동정의 원천이며, 알라후 테알라의 도덕적 품성으로 교화된 숭고한 그분이 오고 있었던 것이다. 천국의 최상위 영광의 주인공이며 중재의 왕관을 쓴 한 사람이 오고 있었다. 우주의 스승이자 피조물의 정수인 인류의 귀감이 오고 있었다. 심판의 날의 예고자이며, 예언자들의 으뜸이 오고 있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 온 우주를 위한 자비로 보내어진 우리들의 소중한 예언자가 오고 있었다!

일곱 층의 땅과 일곱 층의 하늘, 요컨대 우주 전체가 경이와 환희에 넘쳐 알라후 테알라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온 우주가 '알라후 테알라의 사자여, 어서 오소서!'라고 인사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히즈라 53 년 전, 코끼리 사건이 있은 뒤 두 달이 지난 이슬람력 3 번째 달의 12 일 월요일 깊은 밤에서 새벽에 이르는 시각에, 메카에 있는 하심족 마을의 사파 언덕 가까운 한 집에서 알라후 테알라의 빛, 무함마드 무스타파 알라히살람이 태어났다. 그분의 탄생과 함께 온 우주는 다시 생기를 찾게 되었다. 암흑 천지가 한 순간에 빛에 의하여 밝게 빛났다.

이 밤은 세상을 축복하고
이 밤은 세상을 환히 밝혔네

이 밤에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이 밤에 세상을 천국으로 변모시켰네

이 밤에 마음이 착한 이들은 행복하고
이 밤은 기쁨으로 충만하네

그분은 무스타파, 우주를 위한 자비
그분은 죄인들을 위한 중재자라네

참 종교의 귀감이 탄생했을 때
하늘도 땅도 빛으로 밝게 빛났네

모든 피조물들이 즐거워하며
슬픔은 떠나가고 세상은 희망차네

이제 오실 그 분은 영감과 지식의 최고봉. 이제 오실 그 분은 신앙과 지혜의 원천.
천체는 이분을 위하여 순환하고
천사와 사람들처럼, 그 분의 축복받은 얼굴 보기를 열망하네.
하디스

'매다리 준 누부와'라는 책에 따르면 최고의 영광을 지닌 어머니들 가운데서 가장 축복 받은 성인 아미나가 자신이 잉태한 정황을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한다. "나는 임신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편함을 경험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했다. 내가 임신한지 6 개월이 지나서 비몽사몽간에 어떤 사람이 내게 물었다. "당신이 누구를 잉태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나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이 최후의 예언자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출산이 임박해서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 말했다. "오, 아미나!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무함마드'라 지으시오."" 또 다른 기록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오, 아미나!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아흐마드'라 부르시오." 어머니 성인 아미나 부인은 출산할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분만 시기가 다가왔을 때 나는 장엄한 소리를 들었다. 나는 너무 무서워 몸서리를 쳤다. 이후 하얀 새 한 마리가 다가와 그 날개로 나를 어루만져 주었다. 모든 공포와 떠림은 사라졌다. 나는 목에 갈증을 느꼈으며 몸에서 열이 치솟았다. 바로 내 곁에 우유 빛의 하얀 음료 사발이 있었다. 그들은 그 음료를 마시라고 나에게 권했다. 나는 그 음료를 마셨는데 차가운 액체로 벌꿀보다 더 달콤하였다. 나는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그러고 난 뒤 나는 거대한 빛을 보았는데, 온 집안이 빛으로 가득 차 사물을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러는 사이 많은 여인들이 나를 둘러싸고 시중을 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키가 컸으며, 얼굴은 태양과 같이 빛났다. 그들은 압두 마나프 부족의 소녀들 같았다. 나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놀랐다. 그들 중 한 여인이 말했다. "나는 파라오의 아내인 아시야입니다." 다른 여인은 "나는 마리얌 빈티 임란이며, 이들은 천국에서 온 여인들입니다." 고 했다.
그와 동시에 나는 하얀 비단 천이 하늘에서부터 땅 위로 이어내려진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말했다. "사람들 눈에 띄지않게 그분을 덮으세요." 바로 그 순간 한 무리의 새떼가 나타났다. 그들의 입은 에메랄드였고 그들의 날개는 루비로 되어 있었다. 나는 공포로 인하여 땀 범벅이 되었다. 나의 땀방울에서 사향 냄새가

온 방안으로 퍼져 나갔다. 그 때 그들은 나를 덮었던 천을 치웠다. 나는 이 세상의 동쪽 끝과 서쪽 끝을 보았다. 천사들이 내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무함마드는 태어나자마자 그의 축복받은 이마를 땅에 대고 큰 절을 하고 집게 손가락을 올렸다. 잠시 뒤 그의 머리 위를 맴돌던 하얀 구름 한 조각이 하늘에서 내려와 앉았다. 어떤 목소리를 들었다. "그에게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두루 보여주어라. 온 우주가 그의 이름과 형체와 칭송으로 그를 알아보게하라.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에게서 모든 불신의 징표들을 제거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이 '마히'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라." 그 구름은 사라졌으며, 나는 무함마드가 하얀 양털 천으로 싸여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는 세 사람이 나타났다. 그 중 한 사람은 은으로 만든 물병을 들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에메랄드로 만든 대야를, 다른 한 사람은 비단을 가지고 있었다. 사향이 그 물병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들은 나의 축복받은 아들을 그 대야 속에 내려놓고 머리와 다리를 씻은 뒤 비단으로 몸을 감쌌다. 그리고는 아기의 머리에 향료를 뿌리고 눈에 화장 먹을 엷게 바른 뒤 사라졌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열을 지어서
카바처럼 내 집을 선회하였네

천국의 여인들이 무리를 지어 들어왔는데
그 얼굴의 광채가 우리 집에 충만하였네

공중에 침대 하나가 놓여졌으며
이름이 순두스인 천사가 이를 놓았고

나는 이러한 일들을 목격하고는
너무나 놀라버렸다네

갑자기 벽이 갈라지더니
거기서 천국의 여인 셋이 나타났다네

달처럼 빛나는 얼굴을 한 그들 중 하나는
파라오의 아내 아시야라고 하였으며

또 하나는 분명이 마리얌 부인이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에덴에서 온 천녀였다네

그 세 여인들은 공손하게 안으로 들어와
나에게 문안인사를 하였다네

그들은 무스타파를 축복하면서
나를 둘러싸고 자리를 잡은 뒤에

세상이 창조된 후 이 세상에
당신 아들과 같은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당신 아들에게 내린 축복을 주시 않으셨으니

비할 바 없는 놀라운 미덕을 갖춘 아기는
당신 외에 어떤 어머니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네

세상의 온갖 미물들이 찬미하면서
어서 오세요 라고 환영하네

위대한 술탄이여 어서 오세요
지식의 원천이시여 어서 오세요

꾸란의 비밀을 지닌 이여 어서 오세요
우리 상처를 치료하실 분 어서 오세요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시는 분이여 어서 오세요
전능하신 분을 아시는 분이여 어서 오세요

창조주의 해와 달이신 분이여 어서 오세요
알라후 테알라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여 어서 오세요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실 분이여 어서 오세요
가난한 이들의 보호하시는 분이여 어서 오세요

그 사도는 카바를 향하여 큰 절을 올렸다네

얼굴을 땅 위에 대고 알라후 테알라의 유일성을 찬미하네

그는 알라후 테알라께 빌었다네 나를 따르는 이들을 용서하소서

그는 알라후 테알라께 도움을 간청하며 나의 공동체여, 나의 공동체여를 외쳤네

하디스

메카 알 무카라마 지역

존재 속의 영혼이신 분이여 어서 오세요
사랑의 갈증을 채워 주실 분이여 어서 오세요

눈 속의 빛이신 분이여 어서 오세요
알라후 테알라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분이여 어서

우주에 대한 자비이신 분이여 어서 오세요
죄인들을 중재하실 분이여 어서 오세요

이 세상과 사후 세상의 술탄이여 어서 오세요
세상은 당신을 위해 창조 되었답니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이 태어날 때 아미나 부인의 옆에는 압둘 라흐만 빈 아우프의 어머니인 쉬파 부인과 우스만 빈 아빌라스의 어머니인 파티마 부인, 그리고 우리 예언자의 숙모인 사피야 부인이 있었다. 그들도 이러한 빛을 보았으며 그 밖에 일어난 광경에 대해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쉬파 부인은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나는 그날 밤 아미나 부인의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기도를 올리고 탄원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보이지 않는 어디에선가 '야르하무카 랍부카'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고는 한 줄기 커다란 빛이 나타나 동쪽에서부터 서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을 환히 볼 수 있게 하였다."

쉬파 부인은 다른 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증언하였다. "그분의 예언자 직분이 선포되고 나서 나는 이슬람에 귀의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쉬파 부인은 또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이 태어날 때 온천지가 빛으로 뒤덮였다. 그분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큰 절을 하였으며 곧 이어 머리를 바로 세우고 나서 또렷하게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오직 한 분뿐이시며, 나는 그분의 사도이다" 라고 선포했다. 내가 그분을 씻으려고 했을 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와 '내가 그를 씻겨 보냈느니라'하는 것이었다. 아기는 이미 할례가 행해져 있었으며, 탯줄도 끊어져 있었다. 태어나자마자 그분은 큰절을 했다. 그 때 무언가 경쾌한 소리를 내었는데, 내가 그분의 축복받은 입에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더니 '움마(이슬람 공동체)여! 움마여!'라는 말이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태어날 때에 할아버지 압둘 무탈립은 카바 근처에서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이 태어나던 날 압둘 무탈립은 너무나 기이한 징조들을 많이 보았기에 "그의 영광과 명성은 지극한 찬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압둘 무탈립은 탄생 7 일째, 메카 사람들에게 사흘 간의 잔치를 베풀었다. 또한 사람들과 동물들의 번성을 기원하기위해 도시 곳곳에서 낙타를 제물로 바쳤다. 잔치에 온 손님들이 손자 이름을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묻자 그는 '무함마드'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왜 선조들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느냐고 묻자 압둘 무탈립은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와 백성들이 그를 예찬하고 칭찬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다른 기록에 따르면 '무함마드'라고 이름 붙인 사람이 아미나 부인이라고 전해진다.

얼굴의 아름다움이 보름달 같아라
파멸된 이들의 피난처이시여!

비탄에 잠긴 이들을 치유하시는 분
창조된 모든 것들의 술탄이시여

다른 모든 예언자들보다 탁월하신 분
모든 사자들을 위한 빛이 되시는 이여

사자들 중의 마지막 예언자이시며
예언자 중의 마지막 봉인(封印)이시여

당신께서 그 빛으로 온 세상을 밝히시어
장미 같은 얼굴로 세상을 장미정원으로 바꾸었네

무지의 암흑은 이제 물러가고
지식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네

알라후 테알라께서 사랑하시는 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들의 삶이 끝날 때 우리를 행복하게 하소서

-술래이만 첼레비

그분이 태어난 밤에 보인 것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태어나기 전후로 하여 그분의 탄생을 암시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예언자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당시의 유명 인사들은 여러 가지 꿈을 꾸었다. 꿈 해몽가나 저명한 학자들에게 문의한 바 그러한 꿈들이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의 탄생에 대한 예고라고 하였다. 예언자의 할아버지인 압둘 무탈립은 이렇게 설명했다.

“어느날 나는 누워 자다가 무서운 공포에 휩싸여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해몽가를 찾아가 내 꿈을 풀이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 내가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내 얼굴을 쳐다 본 그가 말했다. “오, 꾸라이쉬 부족의 지도자여!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 얼굴에서 알수없는 표정이 나타납니다. 아주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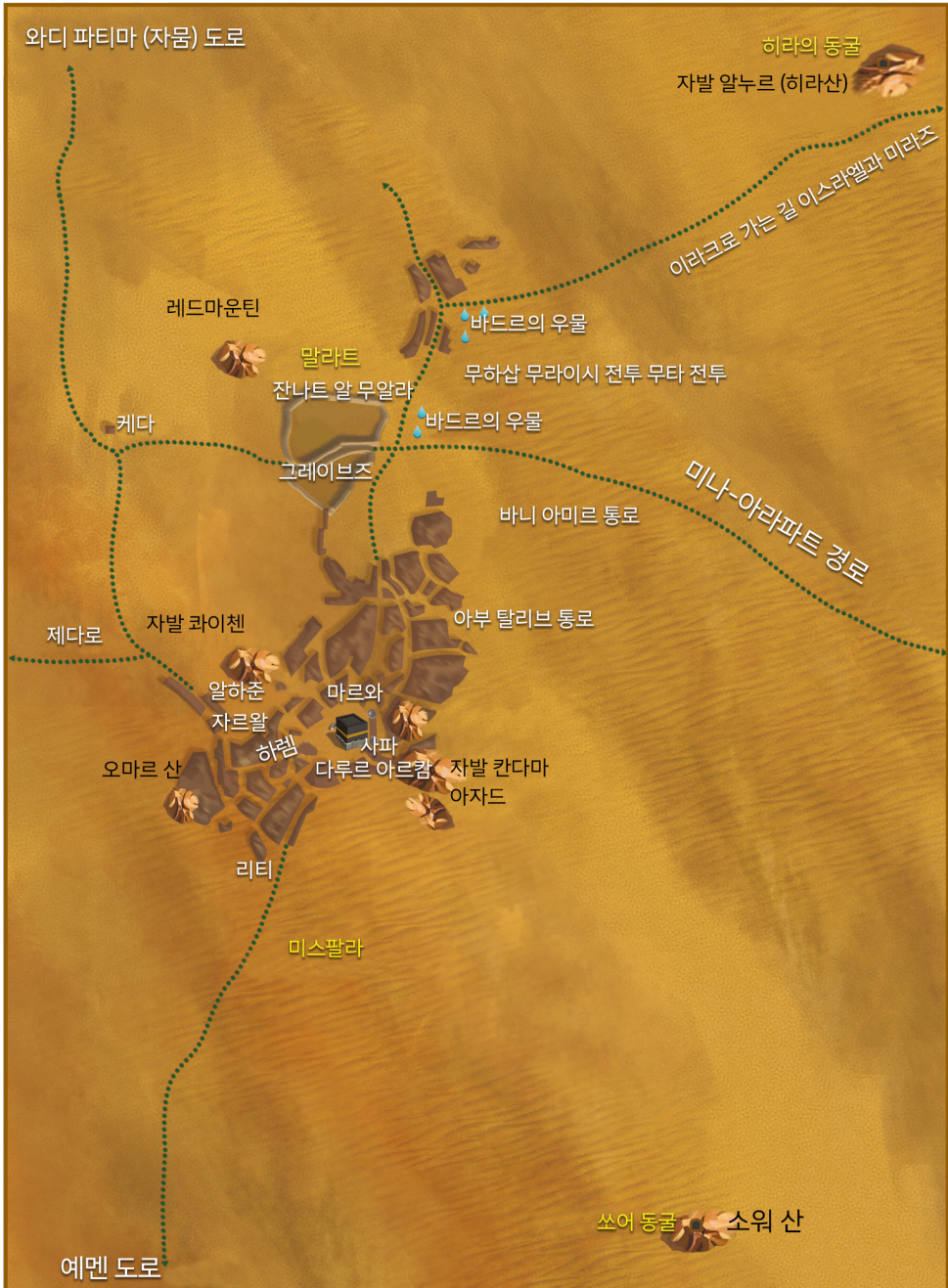
한 일이 발생했나요?" "예, 나는 아주 소름이 끼치는 꿈을 꾸었는데 아직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소." 이렇게 말하고 나는 그의 옆에 앉아 그 꿈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간밤의 꿈에 나는 아주 큰 나무를 보았다오. 그 나무는 하늘까지 높이 닿아 있고 그 가지는 동서로 무한히 뻗어 있었어요. 한 줄기 빛이 그 나무 옆에서 비쳤는데 태양보다도 훨씬 밝은 빛이었지요. 그 빛은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를 계속했어요. 사람들은 이를 지켜 보고 있었고,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졌어요. 꾸라이쉬 부족 몇 사람이 가지를 붙잡았고, 몇 사람은 나무를 자르려고 했답니다. 그때 어떤 젊은이가 자르는 것을 못하게 막았어요. 그는 아주 잘 생긴 얼굴로 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름다운

향기가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왔고요. 나는 팔을 뻗어 나뭇가지 하나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지요." 내가 말을 마치자 그 해몽가의 얼굴이 갑자기 새파랗게 변했다. 그리고 "그 나무로부터 당신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 말했다.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혜택을 받나요?" 고 물었더니, 해몽가는 "그 나무의 가지를 잡고 있던 사람들" 이라고 대답하며 말을 이었다. "당신의 자손 중에서 한 예언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분는 온 세상에 알려지고, 사람들은 그분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아들 아부 탈립 쪽을 돌아보며 "저 사람이 예언자의 숙부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나중에 무함마드 알라히살람, 그분이 예언자 직분을 계시받았을 때 숙부 아부 탈립은 이때의 일을 예언자에게 전해주며 말했다. "그 나무야말로 '아불 하심 알 아민 무함마드'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이 세상을 영광스럽게 한 바로 그 날 밤 새로운 별 하나가 하늘을 비추었다. 이것을 본 유대인 학자들은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의 탄생을 확신하게 되었다. 교우인 하산 이븐 타비트는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내가 여덟 살 때였다. 어느 날 아침 한 유대인이 "유대 동포들이여!" 라고 외치며 뛰어 왔다. 유대인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와 왜 고함을 치며 뛰어다니느냐고 물었다. 그가 이유를 설명했다. "아흐마드의 별이 어제 밤에 빛났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아흐마드가 어제 밤 이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태어난 그날 밤 카바 신전의 모든 우상들이 땅위에 넘어졌다. 다음은 '우르와툽누즈 주베일'에 전해져 오는 기록이다.

'꾸라이쉬 부족의 일부 사람들은 어떤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었다. 그들은 해마다 한 번씩 그 둘레를 순행하는 의식을 치르면서 낙타를 희생 제물로 바치고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우상을 찾아갔을 때 그 우상이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우상을 일으켜 세웠으나 이내 다시 쓰러지고 마는 것이었다.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되었다. 그들이 받침대를 설치하여 우상을 고정시켰을 때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 사람이 태어나니 온 땅이 흔들렸다. 모든 우상은 넘어졌고 왕들의 마

메카와 그 주변 지역

와디 파티마 (자뭄) 도로
히라의 동굴
자발 알누르 (히라산)
이라크로 가는 길 이스라엘과 미라즈
레드마운틴
바드르의 우물
말라트
무하삽 무라이시 전투 무타 전투
잔나트 알 무알라
케다
바드르의 우물
그레이브즈
미나-아라파트 경로
바니 아미르 통로
아부 탈리브 통로
자발 콰이첸
제다로
알하준
마르와
자르왈
하렘
사파
오마르 산
다루르 아르캄
자발 칸다마
아자드
리티
미스팔라
쏘어 동굴
소워 산
예멘 도로

음은 공포심으로 떨렸다!" 이러한 사건들이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이 태어난 밤에 일어났다.

메다인 도시의 페르시아 궁전에 있던 열 네 개의 탑이 무너졌다. 그 왕과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깨어나 유명한 전문가들에게 꿈을 풀이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거대한 사건의 징후라고 판명되었다. 또 그날 밤, 천년 동안이나 타오르던 불 숭배자들의 불이 갑자기 꺼져버렸다. 그들은 불이 꺼진 시간을 기록하였다. 그것은 궁전의 탑들이 붕괴한 바로 그날 밤과 일치하였다.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던 '사와' 호수의 물이 갑자기 줄어들더니 그날 밤에 말라 붙어버렸다. 다마스커스 근처의 사마와 강 계곡은 천년 동안이나 물이 없이 말라붙었는데 물이 가득 차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이 태어남으로 인해 악마와 진들은 꾸라이쉬 해몽가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전해줄 수 없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 점치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다.

사랑의 예언자가 태어난 그날 밤을 전후해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신기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의 탄생의 신호였던 것이다.

예언자 탄생의 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세상을 영광스럽게 한 그 밤을 '메블리드의 밤'이라고 한다. '메블 리드'는 '탄생 시간'을 뜻한다. 예언자에게 최초의 계시가 내려진 '카디르'의 밤 다음으로 가장 소중한 밤이라 할 수 있다. 그분의 탄생을 경축한 사람들은 사죄를 받게된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태어날 때 보였던 신비 현상과 기적들에 대하여 읽고 듣고 배우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도 그날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곤 하였다.
교우들도 그 날이 되면 그 날 밤을 기념하기 위해 모여서 그날 밤에 대하여 읽거나, 이야기 하였다. 해마다 전 세계의 무슬림들은 이 밤을 예언자 탄생의 날 즉, '메블리드 칸딜'로 정하여 축하한다. 전 세계 곳곳에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추모하는 메블리드의 시를 낭송한다.
각 예언자들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예언자의 탄생의 날을 축하하였 듯이 오늘 우리들은 사랑의 우리 예언자의 탄생일을 맞아 축하한다. 이 날은 무슬림들의 축제의 날이며 기쁨과 행복의 날이다.

유모(乳母)에게 맡겨짐

아미나 부인은 축복받은 아들을 가슴에 품었을 때 남편 압둘라를 잃은 슬픔을 잊은 듯 하였다. 그녀가 아흐레 동안 아기에게 젖을 주었으며, 아부 라합의 여종이었던 수웨이바가 며칠간 젖을 주었다. 이전에 수웨이바는 함자 성인과 아부 살라마에게도 젖을 준 적이 있었다. 하피즈 이브니 자즈리가 말하길, "아부 라합을 꿈에서 보았을 때 그에게 어떻게 지내느냐고 묻자 대답하길 "나는 지금 무덤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해마다 라비알아우왈(이슬람력 3 번째 달) 달 12 일 밤(예언자의 탄생일)이 되면 고문이 가벼워져요. 두 손가락 사이로부터 나오는 물을 빨아 마시면 편안함을 느낍니다. 나의 여종인 수웨이바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 대한 소식을 내게 전해주었을 때 나는 너무 기뻐서 그녀를 해방시켜 자유롭게 해주며, 그분의 유모가 되라고 당부했지요. 이로 말미암아 그분이 탄생한 날 밤이 되면 고통이 줄어 듭니다."

그 당시에 메카 사람들은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날씨와 물이 좋은 고장의 유모들에게 맡기는 관습이 있었다. 이는 메카의 날씨가 너무 더웠기 때문이다. 해마다 다른 지역의 많은 여성들이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메카를 방문하였으며, 젖먹이 아이 하나씩을 맡아서 데리고 갔다. 아이들을 잘 키운 후에 그들의 부모에게 인도하면 많은 보상과 선물을 받게 되었다.

다른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예언자가 태어난 그 해에도 고원지대에 사는 바니 사아드 부족의 많은 여인들이 유모가 되기 위해 메카로 왔다. 그들은 각자 양육을 위한 적당한 아이들을 찾았다. 바니 사아드 부족은 메카 교외에 사는 부족 중에서 위엄이 있었으며, 관대함과 용감함과 겸손함을 갖추었고,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유창한 아라비아어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 따라서 꾸라이쉬 부족의 유력인사들은 통상적으로 어린 자녀들을 바니 사아드 부족에 맡기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 해 바니 사아드 부족이 사는 지역에는 혹독한 기근과 가뭄이 덮쳐 왔다. 할리마 부인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나는 들판을 헤매며 풀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사흘 동안 아무 것도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이 때 나는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배고픔과 출산의 고통이 겹쳐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어떤 광야에서 내가 잠들었을 때,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 우유처럼 하얀 물을 주며 마시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물을 마시고 포만감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더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계속 마셨습니다. 그 물은 꿀보다 더 달콤했습니다. "할리마! 젖이 아주 풍족해 지리라. 너는 나를 알겠느냐?" 내가 모르겠다고 하자 그분은 "나는 네가 곤경속에서 찾던 '찬미(함드)'와 '감사(슈큐르)'이니라. 할리

마여, 메카로 가라. 너의 벗이 되어줄 하나의 빛이 있을 것이며, 너는 그로말미암아 풍족해 질 것이니라. 이 꿈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 내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가슴에 젖이 가득 차 있었고 배고픔과
고통이 모두 사라진 것을 알았다." 기근이 닥쳐왔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기려고 보통 때보다 많은 여인들이 유모가 되기 위해 메카로 왔다. 그들 모두가 부잣집 아이들의 아이를 맡으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둘러 온 여인들은 아이들을 하나씩 맡아갔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유모가 되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많은 댓가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여인들 중에 할리마 부인이 있었으니 그녀는 정숙하고 청결하며 인자하고 겸손하였으며 도덕성이 뛰어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들이 탄 당나귀가 허약하여 할리마 부인 일행은 메카에 늦게 도착했다. 하지만 그들의 도착 지연은 오히려 기대하지 않던 행운의 결과를 초래했다. 그들이 아이를 찾아 나섰을 때 부잣집 아이들은 이미 유모가 정해진 뒤였다. 그들은 빈 손으로 돌아갈 수 없었으므로 어떤 아기라도 구하려 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풍채 좋고 존경스러운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메카의 지도자 압둘 무탈립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압둘 무탈립은 자신의 손자를 데리고 가면 커다란 축복과 행운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압둘 무탈립의 자애로움과 친절에 감동을 받았으며, 그의 제안을 즉시 수락하였다. 그는 곧장 할리마 부인을 아미나 부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할리마 부인은 상황을 이렇게 술회하였다.

"아기 곁에 가보니, 배내옷을 입고 녹색 비단보 위에서 새근새근 잠자고 있었으며, 방안 전체에는 사향 냄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차마 깨울 수가 없었다. 내가 아기 가슴에 손을 얹자 아기가 깨어나 나를 보고 방그레 웃었다. 그 웃음에 나는 무척 감동을 받았다.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어여쁜 아기를 나에게 맡기지 않을까봐 걱정되어 나는 아기의 얼굴을 내 가슴에 묻고 꼭 껴안았다. 내가 오른쪽 젖가슴을 주자 아기가 젖을 빨았으나, 왼쪽을 주자 거절하였다. 압둘 무탈립이 나를 보며 말했다. "당신에게 축복이 내려지길! 그 어떤 여인도 이러한 은총을 받지 않았소." 아기를 넘겨준 뒤에 아미나 부인이 내게 말했다. "할리마여, 내가 사흘 전에 한 소리를 들었는데, 내 아이를 키워 줄 여인은 바니 사아드 부족 출신의 아부 주아입
자손이라 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저는 바니 사아드 부족 출신이며, 아버지의 별명이 아부 주아입이지요." 아미나 부인은 겪었던 좋은 일들을 이야기 해주었으며,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나는 아미나 부인에게 메카에 오기 전에 꾸었던 꿈을 언급하였다. 메카로 오는 도중 나의 오른쪽, 나의 왼쪽에서 들린 소리를 이야기했다. "축하하노라, 할리마여! 세상을 밝히고 인류의 눈을 뜨게 할 아기를 양육하는 특권을 그대가 부여받았노라."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을 데리고 나는 아미나 부인의 집을 떠나 남편이 있는

곳에 왔다. 그는 아기를 보고 사랑스러워 하며 말했다. "할리마,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은 여태 처음 보오. 당신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고귀한 신분의 아기를 키우게 되었구려." 나는 "내가 진정으로 간절하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라 대답했다."

아기를 안고 메카를 떠날 때 그 순간부터 할리마 부인과 그녀의 남편은 축복을 받기 시작했다. 그들이 탔던 허약하고 느린 당나귀는 아라비아 말처럼 건장하고 씩씩하게 변했다. 메카에 함께 왔던 일행은 훨씬 전에 메카를 떠나 귀로에 올랐지만, 할리마 가족은 그 일행을 추월하였다. 바니 사아드 지역에 도착한 뒤에도 이제까지 본 적 없는 풍요로움과 비옥함이 뒤따랐다. 이전에 젖을 적게 내던 짐승들이 많은 젖을 내기 시작했다. 이웃들은 놀라워 하였으며, 이 모든 것이 새로 맡아온 아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뭄이 극심하였으므로 그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하였으며, 마침내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비를 기원하는 기도에 나섰다. 그들은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을 데리고가서 기도를 했으며, 그 때문에 비와 함께 커다란 축복을 받게 되었다.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예언자는 오로지 할리마의 오른쪽 젖만 먹었으면 왼쪽 젖을 다른 젖먹이 형제자매에게 남겨주었다. 아기는 두 달이 되자 기어 다니기 시작했다. 석 달이 되자 일어섰으며, 넉 달이 되자 벽에 기대고 걷기 시작했다.

다섯 달이 되자 스스로 걷게 되었으며, 여섯 달에는 빠르게 걷게 되었다. 일곱 달이 되자 여기저기로 나다니게 되었다. 여덟 달이 되자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기 시작하였으며 아홉 달이 되자 아주 또렷하게 말을 하게 되었다. 열 달이 되자 활을 쏠 수 있게 되었다. 할리마 부인은 말했다. "아기의 첫 말은 '알라후 테알라 외에 신이 없으며,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만물의 주인이신 유일한 알라후 테알라께 영원한 찬미가 있으라.'였다. 그 이후부터 아기는 알라후 테알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아기는 왼손으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아기가 걷기 시작했을 때 아이들이 노는 마당에서 멀찍이 떨어져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렇게 놀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날마다 햇빛 같은 한 줄기 빛이 그분을 감싸고 있다가 사라지곤 하였다. 그분은 달과 이야기 하였으며, 그분의 손짓에 따라 달이 움직였다."

할리마 부인은 이어서 말했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이 두 살이 되었을 때 나는 젖을 떼었다. 남편과 함께 아이를 어머니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메카로 갔다. 우리는 아이로 인해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떠나 보내는 것이 그의 은총 받은 얼굴을 더 이상 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였다. 나는 아이의 성장과정을 그 어머니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아미나 부인이 말

했다. "내 아들은 위대한 영광입니다." 내가 말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컨대 나는 이 아이보다 더 축복받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뒤이어 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아이를 조금 더 같이있게 해달라고 아미나 부인에게 청하였다. 부인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허락했다. 우리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되돌아왔다. 이리하여 우리 집안은 풍성함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재산과 재물이 더 늘고 명성이 더 높아 졌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총을 받았다."

축복받은 가슴의 절개

할리마 부인의 이야기이다.

"그분이 하루는 내게 물었다. "낮에는 내 형제들을 볼 수 없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나는 대답했다. "그들은 양을 치러 나갔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돌아오지요." 그러자 그분이 말했다. "나도 함께 보내 주세요. 양떼를 돌보게 해주세요." 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그 요청을 몇 차례나 거절하였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승낙을 하고 말았다. 그 다음 날 나는 그분의 머리를 빗기고 옷을 깨끗이 차려 입힌 다음 수양 형제자매들과 함께 보냈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며칠을 보냈다. 하루는 그의 수양 자매인 샤이마가 들판에서 돌아왔기에 내가 물었다. "나의 빛, 무함마드는 어디에 있니?" 샤이마는 사하라 사막에 있다고 말했다. 나는 깜짝 놀라 어떻게 그가 사막의 열기 아래 서 있을 수 있느냐고 묻자 그녀가 대답했다. "어머니, 아무것도 그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머리 위에 커다란 구름이 따라 다니면서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그를 보호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네가 말하는 것들이 모두 사실이란 말이냐?" 그러자 샤이마는 그렇다고 다짐했다. 그때서야 나는 한숨을 놓았다. 또 어느 날은 수양 형제인 압둘라가 한 낮에 돌아와서 내게 급히 도움을 청했다.

"어머니, 도와주세요! 우리가 수양 형제와 함께 있을 때 갑자기 녹색 복면을 한 세 사람이 다가와 내 꾸라이쉬 형제를 낚아채고는 산 쪽으로 올라가버렸어요. 그들은 형제를 눕히고는 칼로 배를 갈랐답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그 자리를 뜰 때까지 그들은 거기에 서 있었어요. 나는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완전히 미칠 지경이 되었다. 우리는 허겁지겁 그곳으로 달려 갔다. 나는 사랑스러운 그분의 이마에 입 맞추며 말했다. "오, 나의 빛이여! 우주의 자비요, 은총이여!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그분이 대답했다. "내가 집을 나선 뒤에 녹색 복면을 한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은으로 만든 물병을, 다른 한 사람은 에메랄드 대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대야에는 무언가 하얀 물질이 가득 담겨 있었고요. 그들은 나를 산으로 데

리고 갔어요. 그들 중 한 사람이 나를 눕혔지요. 내가 지켜보고 있는 동안 내 가슴에서 배까지 칼로 절개하였습니다. 나는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안으로 집어넣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어 대야에
담겨있던 하얀 물질로 씻더니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게, 이제 나의 임무를 수행할 차례네." 그리고는 손을 안으로 넣어 내 심장을 꺼냈습니다. 심장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는 무언가 검은 것을 집어내더니 멀리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말하길, "그것은 당신 몸 안에 있는 악마의 몫인데 우리가 제거하였습니다. 오, 알라후 테알라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여! 악마의 계략으로부터 당신을 확실히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나의 심장을 무언가 쾌적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채웠습니다. 그들은 거기에다 빛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직도 온 전신에 그 도장의 냉랭함이 느껴집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손을 상처부위에 대자 곧 아물었지요. 그리고는 우리 공동체 열 사람과 나를 저울로 달았는데 내가 더 무거웠습니다. 천 사람과 나를 저울로 달아도 내가 더 무거웠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말했지요. "저울질을 그만 하게. 설령 공동체 사람 모두와 저울질을 하더라도 이 분이 더 무거울 걸세." 그 두 사람은 각각 내 손에 입을 맞추고 떠났고 나는 여기에 남겨진 것입니다." 살펴보니 예언자의 가슴에는 절개한 자국이 뚜렷이 남아있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겪은 이러한 일은 꾸란의 '알 인쉬라 장' 제 1절에 언급되어 있으며, 가슴을 절개한 것을 '샤끼 사드르'라고 한다.

예언자로 선포된 이후 교우 몇 사람이 예언자에게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당신은 우리에게 이브라힘의 기도입니다. 나는 내 형제, 이사의 기쁜 소식입니다. 나는 내 어머니의 꿈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을 때 자신에게서 발산되어 다마스커스의 궁전까지 비추는 하나의 빛을 보았습니다. 나는 바니 사아드 빈 바크르의 아들들과 함께 젖을 먹고 자라났습니다."

예언자가 네 살이 된 뒤에 할리마 부인은 그분을 메카로 데려가 그분의 어머니 품에 돌려주었다. 그분의 할아버지 압둘 무탈립은 할리마 부인에게 많은 선물과 재산을 관대하게 제공하였다. 그분을 메카에 남겨두고 온 할리마 부인은 그녀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내 생명과 영혼을 그분과 함께 메카에 남겨두고 온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어머니의 죽음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여섯 살까지 메카에서 어머니 아미나 성인 곁에서 컸다. 어머니와 움무 아이만이라는 여하인과 함께 예언자는 친척들을 방문하고 아버지 압둘라의 묘지를 둘러보기 위해 메디나로 갔다. 그들은 거기서 약 한 달간 머물렀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낫자르 올루 가문의 집에 있는 수영장에서 헤엄치는 법을 배웠다. 그때 한 유대인 학자가 그분에게서 예언자의 징후를 보게 되었다. 그 학자가 다가와 예언자의 이름을 물었다. 예언자가 "아흐마드"라고 대답하자 그는 탄성을 질렀다. "이 아이는 최후의 예언자가 될 것이오!" 마찬가지로 다른 유대인 학자들도 그분에게서 예언자의 징후를 보고 서로간에 생각을 주고 받더니 예언자가 틀림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움무 아이만이 이 상황을 어머니 아미나 부인에게 전해 주었다. 아미나 부인은 유대인들로부터의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를 데리고 메카로 떠났다. '아브와'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아미나 부인은 병이 들고 말았다. 병은 점점 깊어져 의식을 잃곤 하였다. 머리 맡을 지키던 아들을 보며 말했다. "죽음의 제비를 뽑고도 알라후 테알라의 도움으로 낙타 백 마리를 바쳐 죽음을 면한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압둘라)의 아들이여!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너에게 축복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만약 내가 꿈에서 본 것이 정말이라면 지고하시고 관대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너를 아담 알라히살람의 후손들에게 할랄(허용된 것)과 하람(금지된 것)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 온 인류에게 보내셨느니라.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우상과 그 우상 숭배자로부터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고 다음의2행 연구(聯句)를 읊었다.

새로운 것은 옛 것이 되고, 살아있는 것은 죽게 되며
많은 것은 적게 되니, 젊은 채 계속 있을 수 있나?

나 역시 죽을 것이지만, 단 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네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나의 영예는 이것이라.

나는 훌륭한 아들을 남기고 떠난다네
눈을 감아도 마음은 평안하다네

내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너의 사랑은 영혼 속에 살아남으리

그런 뒤 아미나 부인은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아브와에 묻혔다. 아미나 부인은 스무 살 때 세상을 떠난 것이다. 움무 아이만이 우리의 예언자를 데리고 며칠 뒤에 메카에 도착하였으며, 예언자를 할아버지 압둘 무탈립에게 데려다 주었다.

사드 사하라의 아들들

아즈 자이마
아스 살랄 카비르
미카트 카르닐 마나질
와디 라야
샤트
아스 사일라스 사기르
리가
미카트 와디 마흐람
하와진
라마다
누만 산맥
매푸즈
와디 알 와지
푸어
무잘릴레
와디 쿠미타
투프카 산
타이프
자발 알아뎀 / 샤아르
가다이케
아부 아라드
루베
디야바트
애쉬 시파
사 드 사 하 라 의 아 들 들
타키프
가잘
자발 주드
아우사
나르 울 함라
투와르
벨하리스 마을
자발 아시샤티
달룰 함라
아흐마르 산맥 (자발 알아흐마르)
샤입
라네카
야지드 바자르의 아들들
비르 마우나 / 비르 마우나 원정대
자발 나트파
테스산
말리크의 아들들의 마을
와디 얄람람
마운트 탈하
암샤
나미라 산
자발 헤이난

할아버지 옆에서

예언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브라힘(아브라함)의 종교를 믿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교도들 이었다. 이슬람 학자들에 따르면, 종교알라후 테알라께서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을 예언자로 계시하신 이후에 이들을 부활시키어 신앙고백(켈리메이
 셰하뎉)을 하도록 하여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의 종교를 따르는 교도들 즉, 무슬림이 되게 하셨다고 한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은 여덟 살이 될 때까지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할아버지 압둘 무탈립은 메카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으며, 여러 가지 일들을 보살펴주고 해결해 주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는 위엄이 있고 인내심이 강했으며, 정직하고 용감하며 관대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며, 굶주리고 목 마른 동물에게 조차 자선을 베풀었다. 그는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와 내세를 믿고 악행을 자제하였으며, 무지의 시대에 행해져 오던 모든 악습들을 멀리 하였다. 메카에서 억압과 불의를 방지하였으며 외지로부터 오는 방문객들에게는 갖은 편의를 제공하였다. 라마단이 되면 남모르게 히라 동산에 올라가 명상에 잠기는 곤 하였다. 압둘 무탈립은 아이들을 사랑하여, 아주 너그럽게 대하였다. 자신의 사랑하는 손자와 떨어져 있은 적이 없으며, 깊은 사랑과 호의를 쏟았다. 카바 신전의 그늘에 자신만을 위해 마련된 방석에도 손자와 함께 앉았으며, 이를 제지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하였다. "내 손자를 그냥 앉게 내버려 두게. 그는 위대한 사람이라네." 그는 또 예언자의 보모인 움무 아이만에게 그분을 잘 보살피라고 끊임없이 주의를 주었다. "내 손자를 잘 보살피게. 성서의 백성들(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가 장차 이 공동체의 예언자가 될 것이라 하였네." 움무 아이만이 말했다. "저는 그가 배고픔이나 목마름 때문에 불평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그는 잠잠 샘물을 조금 마십니다. 내가 먹을 것을 그에게 주려고 하면 그는 배가 부르다며 거절한답니다."
압둘 무탈립은 자기 방에서 잠을 자거나 홀로 있을 때 예언자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손자에게 깊은 동정을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말과 행실을 매우 좋아하였다. 식사 때면 할아버지는 손자와 붙어 앉아 가장 좋은 음식과 맛난 부분을 그에게 챙겨주곤 하였다. 그는 손자가 오기 전에는 밥상에 앉지 않았다. 그는 꿈 속에서 손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간증하게 되었다. 한 번은 메카 지역이 흉년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을 때, 꿈에서 압둘 무탈립은 손자의 손을 잡고 아부 꾸바이스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올렸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이 아이를 굽어 살피시어 많은 비를 내리시어 우리를 복되게 하소서." 그의 기도가 받아들여져 많은 비가 내렸다.

나즈란의 수도자

어느 날 압둘 무탈립이 카바 신전 옆에 앉아 있을때, 나즈란의 한 수도자가 와서 그에게 말을 걸었다. 이스마일의 자손 중에서 마지막 예언자가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에 대한 예찬을 성서에서 읽었으며, 메카는 그분이 태어난 곳이라 하였고, 그분의 속성은 이러이러하다며 지목하던 중, 예언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나즈란의 수도자는 그분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가까이 가서 그분의 눈과, 등과 발을 보고는 매우 흥분하여 압둘 무탈립에게 말했다. "이 아이가 바로 예언자요. 당신의 자손입니까?" 압둘 무탈립이 "내 아들이요!" 라고 하자 나즈란의 수도사는 말했다. "우리가 성서에서 읽은 바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압둘 무탈립이 말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태어나기 전에 죽었지요. 며느리는 임신 중이었다오." 그러자 수도사는 말했다. "이제 당신은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 이후, 압둘 무탈립은 그의 자식들에게 "너희 형제의 아들에 관한 어떤 이야기라도 귀를 기울이고, 그 아이에게서 절대 눈을 떼지 말고 항상 잘 보호하라." 고 당부했다.

할아버지의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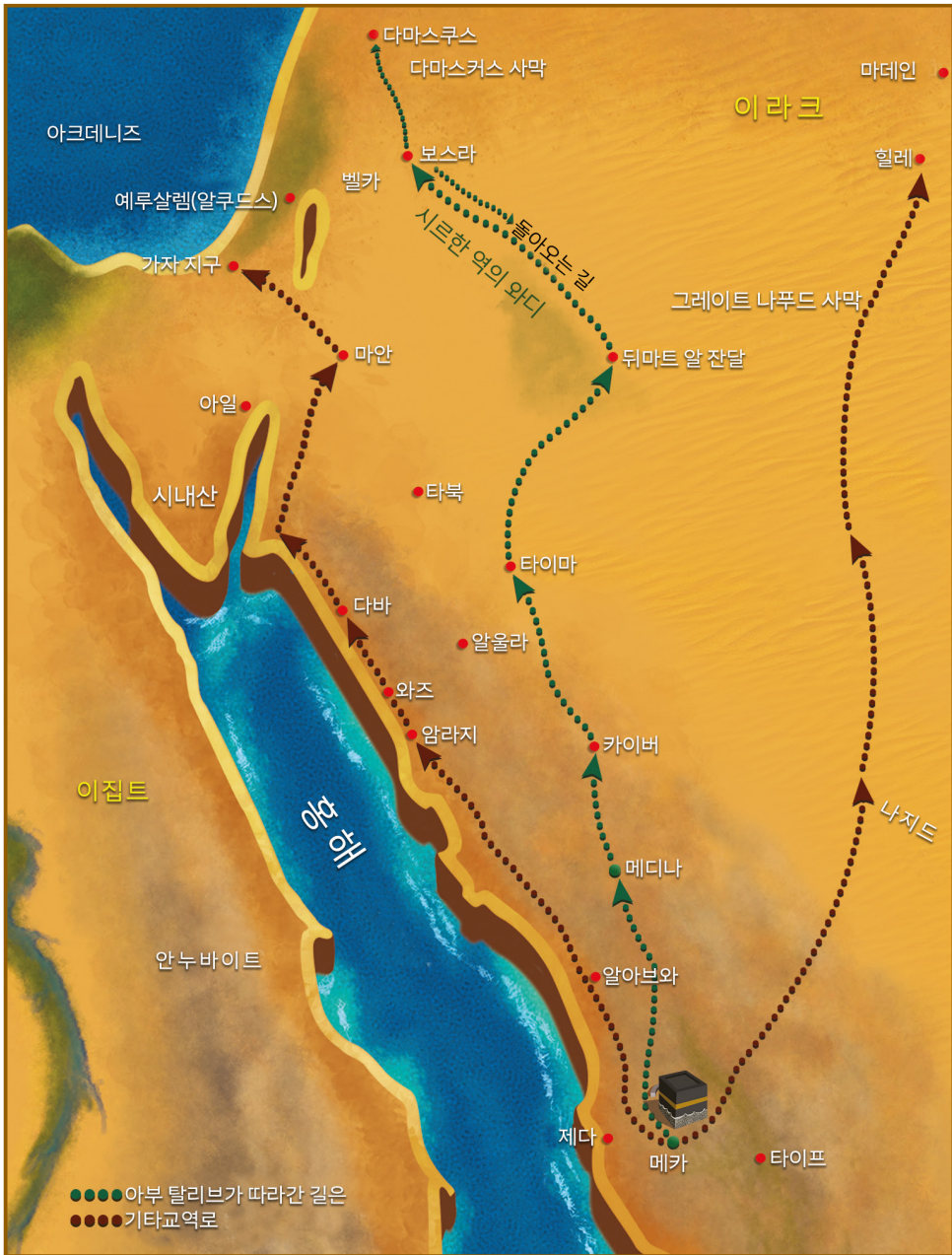
압둘 무탈립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는 자식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다. "이제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나의 유일한 걱정은 이 부모가 없는 이 아이다. 내가 더 오래 살아서 그에 대한 봉사를 즐거이 하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구나. 내 생애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내 마음과 나의 입은 유감스러움으로 불에 타는 듯 하구나. 이 진주 같이 소중한 아이를 너희 중 한 사람에게 위탁하고자 한다. 누가 이 아이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하며, 그에 대한 봉사를 게을리 하지 않겠느냐?" 아부 라합이 무릎을 꿇고 말했다. "오, 아랍의 지도자여! 이 일을 위해 당신이 마음 속에 생각해 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압둘 무탈립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재산이 풍족하다. 그러나 너는 격렬한 성격에다 동정심이 적다. 부모를 여윈 아이는 상처를 받아 민감하여 쉽게 마음이 상할 수 있느니라." 다른 아들들도 봉사를 자원하는 의사를 거듭하여 밝혔다. 압둘 무탈립은 이들 각자의 취약한 점을 들어 허락하지 않았다. 아부 탈립의 차례가 되자, "저는 누구보다도 더 이 일을 맡고 싶지만 형님들을 제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재산은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성실함은 다른 형제들에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압둘 무탈립이 말했다. "네가 진실을 말했다. 너야말로 이 일을 맡을 자격이 있다. 나는 언제나 이 아이의 의향이 어떤지 들어보고 그의 뜻대로 해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제나 올바른 결과에 도달했다. 나는 이 아이와 상의하여 그가 너희들 중 누구를 선택하든지 나 또한 수락할 것이다."

그런 뒤 압둘 무탈립은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를 돌아보고 물었다. "오, 내 눈의 빛이여! 나는 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저 세상으로 가려한다. 네 숙부들 중에서 누구가 너를 맡았으면 좋겠느냐?" 우리의 예언자는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아부 탈립을 덥석 껴안으며 그의 무릎 위에 앉았다. 압둘 무탈립은 이제 안도할 수 있었다.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를 찬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제가 원하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뒤 압둘 무탈립은 아부 탈립에게 말했다. "오, 아부 탈립! 이 보배로운 아이는 아버지의 정을 느껴보지 못했단다. 그를 잘 보살펴 다오. 나는 너를 다른 형제들보다 우월하게 생각한다. 나는 너에게 이 위대하고 고귀한 아이를 위탁하였다. 왜냐하면 너는 이 아이 아버지와 동복형제이기 때문이다. 너 자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를 보호하라. 너는 내 마지막 유언을 받아들이겠느냐? 아부 탈립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자 압둘 무탈립은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를 끌어안고 그분의 머리와 얼굴에 입을 맞추고는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이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를 맡은 적이 없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아부 탈립의 보호 아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우리의 귀감인 예언자는 아부 탈립 숙부와 함께 살면서 그의 보호 아래 성장하였다. 아부 탈립은 아버지 압둘 무탈립과 마찬가지로 메카 지역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실력자 중 한사람이었다. 예언자에게 커다란 사랑과 관대함을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자녀들보다 더 예언자를 사랑하였으며, 잠잘 때도 함께 자고, 어디를 가나 그분을 데리고 다녔다. 그는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너는 대단히 상서롭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는 예언자가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음식을 들지 않았다. 어떤 때는 그를 위해 따로 상을 차려주기도 했다. 아침마다 우리의 예언자의 얼굴이 달처럼 빛나고 머리는 잘 빗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부 탈립의 재산은 많지 않았으며 가족 수는 많았다. 그가 우리의 귀감인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보호하기 시작한 뒤부터 그의 살림은 풍요롭고 윤택하게 되었다. 가뭄 때문에 메카 지역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아부 탈립은 예언자를 데리고 카바 신전으로 가서 기도를 올리면 비가 많이 내려서 가뭄과 기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메카-보스라 루트

다마스쿠스
다마스커스 사막
마데인
이 라 크
아크데니즈
보스라
벨카
힐레
예루살렘(알쿠드스)
돌아오는 길
시르한 역의 와디
가자 지구
그레이트 나푸드 사막
마안
뒤마트 알 잔달
아일
시내산
타북
타이마
다바
알울라
와즈
암라지
카이버
이집트
홍해
나지드
메디나
안누바이트
알아브와
제다
메카
타이프
아부 탈리브가 따라간 길은
기타교역로

수도사 바히라

우리의 예언자가 열두 살이 되었을 즈음,어느 날, 아부 탈립은 장사를 위해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예언자는 숙부가 자기를 데려가지 않으려는 것을 눈치채고는, "이 곳에 누구에게 나를 맡겨두고 떠나시렵니까? 저는 아버지도 없고 나를 동정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에 깊은 영향을 받은 아부 탈립은 이번 여행에 그분을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오랜 여정 끝에 교역단는 부스라의 그리스도 교인들이 운영하는 어느 수도원 가까이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이 수도원에는 '바히라'라는 수도사가 살고 있었다. 그는 원래 학문이 깊은 유대 학자였으나 이후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다. 오랜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 그에게 전해진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 책은 사람들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구할 때 참고하던 소중한 문헌이었다. 이전에 꾸라이쉬의 교역단이 수없이 그 지역을 거쳐 갔어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매일 아침 수도원의 담위에 올라가 상인행렬이 다가오는 쪽을 유심히 살폈다. 마치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갑자기 바히라 수도사의 안색이 바뀌더니 몹시 흥분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꾸라이쉬의 낙타행렬을 멀리서 바라볼 때, 그들 뒤를 미끄러지듯 따라오는 구름을 보았다. 이 구름은 우리의 예언자에게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다. 교역단이 휴식을 위해 숙영지에 자리를 잡았을 때, 바히라는 우리의 예언자가 앉은 곳 근처의 나뭇 가지들이 고개를 숙이듯 휘어져 그분의 머리 위를 덮어주는 것을 보았다. 그의 흥분은 더욱 고조되었다. 곧 바로 수도원 사람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바히라는 꾸라이쉬 교역단의 모든 사람들을 만찬에 초대했다. 그들은 기꺼이 초대에 응하였으며, 짐을 감시할 우리의 예언자만 남기고 모두 수도원으로 갔다.

바히라는 방문객들을 한 사람씩 자세히 살펴본 뒤에 물었다. "꾸라이쉬 교역단 손님들이여, 저녁 식사에 참석하지 않은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들은 한 사람이 오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꾸라이쉬 모든 사람들이 왔지만 그 구름은 여전히 숙영지 위에 머무르고 있었다. 바히라는 교역단의 짐의 감시인으로 누군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짐을 감시하는 사람도 식사에 참석할 것을 끈질기게 요청했다. 얼마 후 예언자가 도착하자마자 바히라는 그분을 주의 깊게 살피고 관찰하였다. 그는 아부 탈립에게 물었다. "이 아이는 당신의 자손입니까? 아부 탈립은 "내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자, 바히라가 "책의 기록에 따르면 이 소년의 아버지는 살아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자 아부 탈립이 대답했다. "그는 내 형제의 아들입니다." 바히라는 다시 "그의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부 탈립이 대답하자 바히라가 말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부 탈립은 "그녀도 역시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질문에 대답을 들은 후, 바히라는 예언자를 향해 돌아서면서 우상의 이름으

로 맹세하자, 우리의 예언자는 바히라에게 말했다.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시오. 나에게는 세상에서 우상보다 더 큰 적이 없고 나는 그들을 증오합니다." 그러자 바히라는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그대는 잠을 잡니까?" 라고 물었다. 예언자가 말했다. "내 눈은 잠이 들지만 나의 마음은 깨어있습니다." 바히라는 계속해서 많은 질문을 하였으며, 그에 대한 모든 답변을 얻어냈다. 답변들은 그가 전에 읽은 책들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바히라는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의 눈을 들여다 보며 아부 탈립에게 물었다. "이 빨간 점은 항상 이 축복받은 눈에 있습니까?" 아부 탈립은 "그렇습니다" 고 하면서 "한 번도 사라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 대답했다. 바히라는 이 증표를 확인한 후에, 완벽한 확신을 위해 '예언자의 봉인'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선지자는 그 높은 품위로 인해 자신의 등을 노출시키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숙부는 "오, 소중한 나의 눈의 빛이여!, 원컨데 원하는 대로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라고 제안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선지자는 등을 드러내었고, 바히라는 아름다운 '예언자의 봉인'의 여기저기 손을 대어 보고 입을 마추고는 바히라의 얼굴에서 홍수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으며, 바히라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사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모두에게 선포하였다. "여기에 세상의귀감인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있습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알라후 테알라께서 이 세상에은혜로이 보내주신 예언자여!" 교역단원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그들은 큰 소리로외쳤다. "수도사의 곁에 있는 무함마드 그토록 고결하고 위대한 인물이란 말인가!바히라는 다시 아부 탈립을 향하여 말했다. "이 분은 모든 예언자들 중에서 마지막 예언자이며, 가장 영예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의 종교는 온 세상에 널리퍼질 것이며, 이전의 모든 종교를 물러가게 할 것입니다. 그분을 다마스커스로데려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유대인)은 이분의 적입니다. 그들이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를 해치려 들까 두렵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수없이다짐을 하였습니다." 아부 탈립이 물었다. "그 많은 다짐이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히라가 대답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이사 알라히살람을 포함한 모든 예언자들을따르던 사람들에게 앞으로 올 마지막 예언자에 대해 알리셨을 때 했던다짐들이지요." 바히라로부터 이러한 말들을 들은 아부 탈립은 다마스커스로가려고 했던 생각을 바꾸었다. 그는 가지고 왔던 모든
물건들을 부스라에서팔아치우고 메카로 돌아갔다. 그는 바히라로부터 들은 것을 한 평생 잊지 않았다.그는 우리의 귀감, 예언자를 더욱 사랑하였다. 죽기
전까지 예언자를
보호했으며, 모든 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선택된 사람으로서 미덕과 아름다움을 갖춘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자라나서 열 일곱 살이 되었다. 숙부 주바일이 예멘으로 장사를 떠나면서 순조로운 장사를 위해 예언자를 데리고 갔다. 예언자의 놀라운 탁월성은 이 여행에서도 드

러났다. 그들이 메카로 돌아왔을 때 이것이 꾸라이쉬 부족에게 널리 알려졌다. 그들은 "이 분의 명성은 아주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당신의 사랑은 모든 번민의 묘약입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필요한 것을 청하면 모두 들어주시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당신의 빛을 본 눈은 달도 별도 찾지않게 됩니다 당신의 빛은 낮에도 밤에도 빛납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당신의 몸에서 장미꽃이 피고, 당신의 말에서 달콤함이 흐릅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병든 마음이 치료됩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당신은 군주들이 사랑하는 사람, 문제의 해결사,
당신의 중재로 죄인들이 평안을 찾습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샤이야드 함자

청년기와 결혼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보다 월등했던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은 젊었을 때부터 메카 주민들에게서 그 동년배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 높은 도덕성과 훌륭한 태도, 조용함과 친절함, 그리고 여러 다른 우월성으로 인하여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탄을 자아내게 했다. 놀라운 정직성과 진실함으로 인해 메카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민'이라 불렀는데, 이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청년 시절에 이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다.

예언자의 청년기는 아랍인들이 무지의 시대를 빠져있을 때였다. 우상숭배, 술, 도박, 간음, 고리대금 등 다른 많은 악행들이 널리 퍼져 있었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은 이러한 문란한 행위를 증오하여 언제나 악행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었다. 메카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알고 있었고 크게 감동하였다. 예언자는 우상들을 너무나도 증오하여 절대로 그 근처에 접근하지 않았다.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짐승의 고기는 결코 먹지 않았다. 어렸을 때와 청년시절에 자신의 소유인 동물들을 '지야드' 산 일원에서 목축하였으므로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회에서 떨어져 지낼 수 있었다. 뒷 날 예언자는 교우들에게 "양치기를 하지 않은 예언자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어떤 이가 물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당신도 양치기를 했습니까?" 예언자는 "나 역시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스무 살 정도 되었을 때, 메카의 공공치안은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다. 폭력이 난무하고 재산이나 목숨, 정의에 대한 안전은 사라지고 없었다. 메카 사람들은 상업을 위해서나 카바 순례를 위해 온 외부의 내방객들에게 부당한 행동과 핍박을 일삼았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호소할 곳도 찾지 못하였다. 언젠가 어떤 예멘 상인의 물건을 아스 빈 와일이라는 메카 사람에게 강탈 당했다. 이 때문에 그 예멘 상인은 아부 꾸바이스 산에 올라가 통곡을 하며 물건을 돌려 받기위해 메카 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폭력이 극치에 이른 심각한 상황 아래서, 메카의 여러 부족 가운데 저명한 하심가와 주흐라가의 아들들이 압둘라 빈 주단의 집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논의 끝에 메카 사람이건 아니건 핍박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잔학한 행위는 중지되어야 하고, 빼앗긴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한다고 합의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정의 연합'을 창설했다. 이 연합은 '힐프 알푸둘'이라 불렸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젊은 나이에 이 연합에
가입하여 그 창설 작업에 매우 긴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전에 유사한 연합체가 두 사람에 의해 설립된 바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은 '파들'과 '푸다일'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이름은 새로이 설립된 연합의 이름을 결정하는데 바탕이 되었다. 새로운 연합은 잔학한 행위를 방지하여 무너진 메카의 치안을 다시 확보하였고, 그 효력을 오래 지속시켰다. 우리의 귀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자신이 선지자임이 알려진 후 교우들에게 이 당시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었다. "압둘라 빈 주단의 집에서 협정을 맺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서약에 대한 그 맹세는 내게 있어 '붉은 털의 낙타 [6]'를 가지는 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었다.
만약 오늘도 이런 회의에 초대 받는다면 나는 기꺼이 참석할 것이다."

그분의 교역

메카 사람들은 옛날부터 상거래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였다. 예언자의 숙부인 아부 탈립은 물론, 예언자도 상업에 종사하였다. 예언자가 스물다섯 살 정도 되었을 때, 메카에는 빈곤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메카 사람들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대규모 교역단를 꾸리게 되었다. 이러는 동안 아부 탈립이 우리의 귀감이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찾아와서 말했다. "오 나의 존경받는 분이여! 가난이 극에 달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기근에 시달려 왔으며 이를 극복하려 애썼지만 결국 아무런 소득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제 꾸라이쉬 부족의 교역단이 준비되었으며, 곧 다마스커스로 떠나려고 합니다. 카디자 부인이 교역단편으로 물건을 보낼 것입니다. 카디자 부인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신뢰할 순수하며 선량한 그대 같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함께 가서 부인에게 청하여, 대리인 자격으로 그대를 보내도록 한다면

[6] 귀한 낙타로 부유한 자들이 소유하였다. 부의 상징이다.

아라비아와 그 주변 지역의 유명한 박람회와 시장

좋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다른 사람보다 그대를 선호할 것입니다. 사실 나는 그대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곳 유대인들이 당신을 해칠까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귀감인 예언자는 숙부에게 말했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카디자 부인은 미모와 재산, 지성과 정숙함, 그리고 훌륭한 자태로 아라비아에서 대단한 명성을 얻고 있는 분이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하였다. .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꿈에서 본 일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었다. 꿈에서, 달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녀의 가슴으로 들어갔으며, 그 빛의 광선이 그녀의 팔 아래로부터 발산되어 온 세상을 밝혔던 것이다. 그녀는 그 꿈 이

야기를 자신의 친척인 와라까 빈 나우팔에게 들려주었다. 그가 말했다. “마지막 예언자가 태어났으니, 그분이 당신과 결혼할 것이며, 알라후 테알라의 첫 계시는 당신과 혼인 중에 내릴 것입니다. 그분의 종교의 빛의 후광이 온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 당신은 최초의 신자가 될 것입니다. 그 예언자는 꾸라이쉬 부족과 베니 하심 부족 후손입니다.” 카디자 성인은 답변에 매우 기뻐했으며, 그 예언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카디자 성인은 교역에 종사했다. 그녀는 의견이 맞는 사람들과 동업을 하였다. 아부 탈립은 상황을 카디자 성인에게 설명했다. 카디자 성인은 함께 상의를 하고자 우리의 귀감인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집으로 초청하였다. 예언자가 도착하자 그녀는 대단한 존중과 존경심을 표했다. 예언자의 친절함과 그분의 아름다운 얼굴에 감탄하였다. 그녀는 우리의 예언자에게 말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훌륭한 도덕을 갖추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번 일에 대하여 보통 때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적절한 의복을 그분에게 선사하고 평온한 맘으로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카디자 성인은 숙부의 아들이며 학문이 깊은 그리스도교 학자인 와라까 빈 나우팔로부터 마지막 예언자의 징후를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의 방문시 잠깐 느낀 것만으로도 그녀는 예언자의 징후를 그에게서 느낄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그녀는 여종 마이사라에게 일렀다. “교역단이 메카를 떠날 때 낙타 고삐를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에게 주어라. 메카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지 않도록, 마을에서 멀어져 눈에 보이지 않게 될 때 너는 이 귀중한 옷들을 그분에게 입혀드려라.”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낙타를 골라 술탄에게 어울리도록 치장 시킨 후 마이사라에게 주며 일렀다. “그분을 커다란 존경심으로 낙타에 태운 후 네가 고삐를 잡고 그분의 충실한 종이 되어라! 그분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고, 네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분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라! 그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체 없이 이곳으로 돌아오라. 하심 집안의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황스럽지 않도록 하라. 네가 이러한 일들을 모두 완수한다면 나는 너를 자유인으로 해방시킬 것이며, 너에게 많은 포상을 하겠다.” 교역단의 채비가 끝났다. 메카 사람들이 모두 나와 서로 작별을 고하느라 붐볐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의 친척들, 숙부들과 하심 집안의 연장자들도 나와 있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하인들이 입는 하얀 옷을 입고 낙타 고삐를 쥐고 있었는데, 그의 숙모는 이 모습을 보고 무릎을 떨며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통곡을 하고 눈물을 쏟으며, “오, 압둘 무탈립, 잠잠 우물의 발견자여! 오, 압둘라여! 무덤에서 일어나 우리의 축복받은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부 탈립 또한 같은 감정과 슬픔으로 휩싸였다. 예언자는 알라후 테알라를 본 그 귀한 눈에서 진주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나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움과 슬픔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흐느꼈다. 하늘의 천사들도 울면서 말했다. “오, 우리의 알라후 테알라! 이 사람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며 하늘에서 지위가 가장 높은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높으신 뜻이 무엇이리까?" 그러자 알라후 테알라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라. 너희들은 이 두터운 사랑의 묘미를 모를지다. 가장 사랑받는 이와 사랑 하는 이의 미묘함을 알지 못하리니라. 이를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 "

교역단이 메카에서 멀리 떠나 온 뒤, 마이사라는 카디자 부인으로부터 받은 명령에 따라 값진 옷을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에게 입혀드렸다. 그녀는 예언자를 여러 가지 귀중한 천으로 덮고 아름답게 치장을 한 훌륭한 낙타에 태웠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 낙타의 고삐를 잡았다.
예언자와 함께 여행하던 사람들은 구름 하나가 따라 다니며 그분을 햇볕에서 가려주는 것과 새의 모습으로 변장한 두 천사가 여행의 목적지까지
예언자와 동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예언자가 지칠대로 지쳐 대열에서 처진 낙타 두 마리의 발 바닥을 쓰다듬자 그 낙타들이 갑자기 빠르게 활보하는 경이로운 현상을 보고, 사람들은 그분을 무척 사랑하였고 그분의 명성이 위대하게 될 것을 알게되었다. 그들은 부스라에 도착하여 수도원 근처에서 멈추었다.

여러가지 징후를 보고 마지막 예언자를 알아 본 바히라 수도사는 이미 죽었고, 그의 자리는 후임자 나스투라가 맡고 있었다. 나스투라는 낙타행렬을 살피고 말라버린 나무 밑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나무가 파릇라릇 해지는 광경을 보고 마이사라에게 물었다. "나무 밑에 앉았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이사라가 대답했다. "그분은 카바의 꾸라이쉬 부족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나스투라가 말했다. "지금까지 그 나무 밑에 앉은 사람은 선지자 외에는 없었는데요." 그리고는 물었다. "그의 눈 안에 붉은 것이 있었습니까?" 마이사라가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나스투라가 말했다. "이사 알라히살람에게 성서를 준 알라후 테알라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그분은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나는 그가 예언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이 부스라 시장에서 카디자 부인의 물건을 팔고 있을 때 어떤 유대인이 거래에 있어 미심쩍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했다. "랏과 웃짜의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당신을 믿겠소."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이 말했다. "나는 그 같은 우상의 이름으로는 결단코 맹세할 수 없소! 나는 그 우상 곁을 지나갈 때마다 얼굴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 유대인은 예언자에게서
다른 징후를 보고 다시 말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내가 맹세컨대 당신은 예언자가 되실 분입니다." 그는 감탄하며 말했다. "우리 학자들은 성서에서 이분의 특성을 찾아 내었지요.."

마이사라는 우리의 귀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 관해 그가 보고들은 것을 모두 기억하려 애썼으며, 감탄은 갈수록 늘어났다. 마이사라의 마음은 온 세상의 귀감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리하여 그녀는 크나큰 사랑과 존경으로 예언자에게 봉사하였으며,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였다.

상품은 모두 팔렸으며, 우리의 예언자의 축복으로 교역은 보통 때보다 아주 많은 이익을 남겼다. 교역단은 귀로에 올랐다. 그들이 '마르 알자란'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이사라는 메카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고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에게 제안했다. 우리의 예언자는 그 권고를 수락하여 교역단을 떠나 서둘러 메카로 갔다.

나피사 빈티 무니야가 이렇게 상기하였다. "교역단이 도착할 시간이 다가왔다. 카디자 부인은 매일 그녀의 집 꼭대기에서 하녀들과 함께 교역단의 도착을 기다리며 전방을 내다보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그녀와 함께 있었다. 갑자기 낙타를 탄 어떤 사람이 시야에 들어왔다. 구름 하나와 새로 변장한 두 천사가 그에게 그늘을 드리워주고 있었다. 예언자 이마 위의 빛이 달처럼 빛나고 있었다. 카디자 부인은 누가 오는지를 알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는 체하고, "이 더운 날씨에 오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물었다. 하녀들이 말했다. "저기 오시는 분은 무함마드(알라히와살람) 같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우리의 귀감이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카디자 성인의 영지에 도착하였으며, 그녀에게 그간의 상황을 알렸다. 그분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와 그녀를 매우기쁘게 하였다.

조금 지나자 교역단이 메카로 들어왔다. 마이사라는 카디자 성인에게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을 상세하게 보고했다. 우리의 예언자가 여행 도중에 항상 그늘로 보호된 것, 수도사 나스투라의 이야기, 허약한 낙타가 어떻게 빨라졌는지, 그리고 다른 많은 놀라운 일들에 대해 증언하였다. 그는 우리의 예언자를 소리 높여 예찬하였다. 카디자 성인은 이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을지라도 이로 인해 그녀의 그분에 대한 확신감은 더욱 커졌다. 그녀는 마이사라에게 그가 이번 여행에서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카디자 성인은 와라까 빈 나우팔에게 들은 소식을 전하러 갔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커다란 감동으로 듣고 난 와라까는 말했다. "오, 카디자여, 그대가 말한 것이 진실이라면 무함마드(알라히와살람)는 우리 공동체의 예언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열두 살 때 숙부 아부 탈립을 따라 장사를 위해 부스라까지 여행했다. 열 일곱 살 때는 숙부 주바일과 함께 예멘으로 갔다. 그리고

스무 살이 되어 다마스커스로 갔고, 스물다섯이 되어서는 카디자 성인의 물건을 팔기 위해 다시 다마스커스로 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분은 네 차례의 장거리 여행을 한 셈이며, 이곳들 외에 다른 곳은 여행하지 않았다.

카디자 성인과의 결혼

카디자 성인은 오라까 빈 나우팔로 부터 기쁜 소식을 들은 데다 예언자의 높은 인품을 직접 보았으므로, 그분과 결혼하여 그분을 모시는 영광을 얻고 싶었다. 사정을 눈치 챈 나피사 빈티 무니야는 중매를 넣고자 하였다. 그녀는 고귀한 예언자 앞으로 나아가 넌지시 물었다. "오, 무함마드(알라히살람)! 당신은 무슨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언자가 대답했다. "나는 결혼을 할 충분한 돈이 없답니다." 그러자 나피사 부인이 말했다. "오, 무함마드(알라히살람)! 만약 당신이 정숙하고 영예로우며, 부유하고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나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물었다. "그녀가 누구입니까?" 나피사가 대답했다. "그분의 이름은 카디자 빈티 후와이릿입니다." 우리의 귀감인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누가 중매를 하겠나요?" 고 묻자 그녀가 그 일을 맡기로 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나피사는 카디자 성인에게로 가서 그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카디자 성인은
그녀의 친척인 아므르 빈 아사드와 와라까 빈 나우팔을 불러 이러한 정황을 설명하였다. 또한 그녀는 전갈을 보내 우리의 예언자를 미리 정해진 시간에 오도록 초대하였다. 아부 탈립과 그의 형제들도 모든 준비를 갖추고 우리의 예언자와 동행하였다.

카디자 성인은 그녀의 집을 온갖 장식으로 아름답게 꾸몄다. 그녀는 감사의 마음으로 그녀의 보석들을 하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들 모두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숙부들과 함께 카디자 성인의 집으로 왔다.아부 탈립이 말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알라후 테알라께 감사드리나이다. 이브라힘알라히살람의 자손들과 이스마일 알라히살람의 자손들로부터 우리를 나게하셨습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우리를 카바의 수호자로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축복받은 성스러운 곳을 향해 경배하게 하시고, 온 우주가 그 주위를 순례하게하시며, 외부의 해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알라후 테알라께 감사드리나이다.내 형제 압둘라의 아들은 우리 꾸라이쉬 부족의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많은 재산을 소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산은 진정한
가치가 못 됩니다. 그것은 이 손에서 저 손으로 흘러가는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내 형제의 아들의 영광과 월등성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제 그가 카디자 빈디 후와이릿과 결혼하고자 원합니다. 제가 참조금을 얼마나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맹세컨대 무함마드의 지위는 아주 높습니다." 와라까 빈 나

우팔은 이 말에 동의하였다. 카디자 성인의 숙부인 아므르 빈 아사드가 말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 카디자 빈티 후와이릿을 무함마드(알라히살람) 의 아내로 주노라." 이로써 혼약이 완료되었다. 일설에 따르면 지참금은 4 백 미스깔의 금이었다고 하고, 또 다른 설에 따르면 5 백 디르함의 금이었다고 하며,
낙타 스무 마리 였다고 주장하는 전승도 있다. (1 미스깔은 4.8g)

아부 탈립은 낙타 한 마리를 잡아 그 때까지 볼 수 없었던 큰 잔치를 열었다. 혼인식이 성사되자, 카디자 성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의 예언자에게 선물로 주면서 말했다. "이 모든 재산은 당신에게 귀속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의존하여 살겠으며, 당신을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카디자 성인은 가정을 이루고 사는 동안 언제나 고귀하신 예언자를 섬기고 보살폈다. 결혼생활은 카디자 성인이 죽을 때까지 25 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 결혼의 전반기 15 년 동안은 예언자 직분이 계시되기 전이며, 그 뒤 10 년 동안은 예언자로서의 임무 수행 기간이다.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은 카디자 성인과의 혼인이 지속되는 동안 다른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았다. 그들은 두 아들과 네 딸, 모두 여섯 자녀를 두었다. 그들의 이름은 까심, 자이납, 루까야, 움미 굴툼, 파티마, 그리고 압둘라(타입 또는 타히르)였다. 예언자 직무를 수행하던 기간, 카디자 성인이 세상을 떠난 후 마리야 성인과 결혼하였으며, 이 결혼에서 이브라힘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얻었다. 다른 아내로부터는 자녀를 얻지 못했다. 자이납은 큰 딸이었다. 막내딸 파티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녀는 히즈라 13 년 전에 태어났다. 예언자의 아들들은 모두 어릴 때 숨졌고, 파티마를 제외한 다른 딸들은 예언자 직분이 내려지기 전에 모두 사망하였다. 파티마 성인은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숨진 뒤 6 개월 후 사망했다. 그녀는 알리 성인과 결혼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의 혈통은 파티마 성인의 자녀들에 의해 이어졌다.

우리의 귀감인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성인 카디자와의 결혼 이후에도 교역 사업에 종사했다. 사업의 이익으로 내방객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였으며 고아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자이드 빈 하리싸

자이드 빈 하리싸는 그의 어린 시절에 어머니 수다와 함께 친척을 방문하러 갔다. 도중에 그들은 다른 부족의 습격을 받게 되었다. 자이드는 납치되었다. 그들은 자이드를 메카의 수끼 우카즈 시장으로 데리고 가 노예로 팔아넘겼다. 카디자 성인의 조카인 하킴 빈 히잠이 4 백 디르함을 주고 자이드를 사들였다. 하킴은 그를 데리고 가 고모인 카디자 성인에게 바쳤다. 카디자 성인은 자이드를 우

리의 예언자에게 선물했다. 카디자 성인과 혼인 중이였던 우리의 귀감 예언자는 자이드를 즉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숙소를 마련해주고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도록 했다. 해방된 자이드는 갈 곳도 없었거니와 예언자 외에 자신을 돌봐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기꺼이 예언자의 집에 머무르기로 했다. 자이드 빈 하리싸는 예언자로부터 따뜻한 대접을 받았다.

우리의 귀감은 예언자로 계시받기 전부터 정의감과 양심, 자비와 인간애, 명예와 동정, 관대함과 약속이행, 자선과 희생, 신뢰와 겸손, 약한자를 보호하고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이며, 정직하고, 예의 바름, 겸손함, 순순한 정신,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태도, 용감함이 확연히 겉으로 드러났다. 알려졌건 알려지지 않았건, 모든 면에서 최고의 도덕성을 완성시키기 위해 창조된, 과거와 미래에 창조된 만물의 최고로서, 사람들로부터 '알 아민(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려진, 예언자의 높은 품격으로 인하여 자이드는 그분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사랑했으며 그분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한편, 자이드의 부모는 아들이 어디로 잡혀갔는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의 아버지 하리싸는 아들을 찾기 위해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다. 친척이나 친지들이 예멘이나 다른 지방으로 길을 떠날 때면 아들 자이드의 소식을 알아봐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눈물의 시를 읊었다.
아들에의 절절한 그리움을 나타낸 그의 시 한 편이 전해져 온다.

자이드를 위해 울었네, 대체 어찌되었는지.
살아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설마 죽었는가?

내 마음이여, 그의 일을 헛되이 묻지 말라
그의 묘가 들판인지 바위산인지 알 수 없네

자이드, 내 아들아!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올 수 있다면 아!
너 이외의 그 어떤이도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노라

바람이 불어 올 때나 아이들을 볼 때에도
떠오른 태양이 아침마다 너를 기억나게 하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천번의 절규,
말을 타고 찾아 헤맨다, 몸이 망가지더라도

말과 나는 쉬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는다
내 아들이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다면

희망이 사람을 속여도, 결국은 운명인 것을
내 아들들아 카스, 아므르, 야지드, 쟈벨; 자이드를 너희에게 맡기노라

이슬람교의 포교가 이루어지 않았던 그 당시, 바니 칼브 부족의 몇 사람이 카바에 참배하러 왔다가 자이드를 알아보게 되었다. 이때는 아직 않았을 때였다. 자이드가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 가족이 울며불며 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들에게 나의 시 한 편을 전해주십시오." 그리고는 다음의 시를 읊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비통한 마음
부모는 멀리 있을지라도 카바는 가까이 있네

슬픔으로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말기를
나로 인한 울음소리가 하늘에 퍼지지 않기를

알라후 테알라께 찬미를, 나는 훌륭한 집에서
머물며존경과 감격으로 항상 기도를

드립니다.

하리싸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다. 그는 많은 돈을 싸들고 그의 형제 카브와 함께 메카로 왔다. 그는 우리 예언자의 집이 어딘지 알아내어 찾아갔다. 하리싸가 말했다. "오, 꾸라이쉬의 높으신 지도자, 압둘 무탈립의 손자여! 오, 바니 하쉼가의 자손이여! 당신은 카바를 가까이 하고 있으며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노예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마침내 그들을 해방시키십니다. 당신의 노예로 있는 내 아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당신이 원하는 돈을 드리고자 하니, 부디 저의 청을 물리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감인 예언자가 말했다. "자이드를 불러 지금의 상황을 알려주도록 합시다. 그가 결정하도록 합시다. 만약 그가 당신과 함께 가기를 원하면, 당신은 내게 어떤 돈도 치를필요 없이 그를 데리고 떠나십시오. 그러나 그가 여기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코 나와 함께 있기를 선택한 사람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리싸와 그의 형제는 우리의 예언자의 이러한 응답에 대단히 흡족해 하며 말했다. "당신은 우리를 매우 공정하고 양심적으로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예언자는 자이드를 불러 마주 대하고는 물었다. "너는 이 분들을 아는가? 그가 대답했다. "예, 이분은 저의 아버지고 저 분은 저의 숙부입니다." 이 말을 들

은 우리의 예언자가 말했다. "오, 자이드!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이다. 너는 나의 친절과 동정심, 그리고 너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았다. 이 분들은 너를 데리러 여기 왔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지내든지 아니면 이 분들과 함께 가든지 네가 선택해라!" 그의 아버지와 숙부는 당연히 그가 자신들을 선택하여 자이드를 집으로 데리고 가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자이드는 예언자에게 "내게 있어서 당신을 대신할 분은 안 계십니다. 당신은 나의 숙부이고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 밑에 남고 싶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숙부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화를 내며 자이드에게 말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너는 자유보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숙부보다도 종살이를 더 좋아하느냐?" 자이드가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아버지, 나는 이 분의 동정심과 호의적인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누구를 앞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언자는 자이드를 매우 사랑하였다. 그의 충성심과 애정을 알고 난 뒤에 예언자는 그를 카바에 있는 '히즈르'로 데리고 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다. "여러분을 증인으로 해서, 자이드는 내 아들이라 선언합니다. 그는 나의 상속인이 되고, 나는 그의 상속인이 됩니다." 자이드의 아버지와 숙부는 이 모습을 보고는 비로소 화가 풀렸다. 그들은 행복한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갔다. 그 이후로 교우들은 자이드를 자이드 빈 무함마드(무함마드의 아들 자이드)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 뒤에 알라후 테알라께서 꾸란의 계시를 통해(아자드 장 5 절과 40 절) '자식들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 부르도록 하라.' '무함마드는 너희 남자들 중 어떤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다.'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는 해소되고 자이드는 다시 옛 이름, 하리싸의 아들 자이드로 불리게 되었다.

카바의 중재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35 세 정도 되었을 때, 카바의 중재자가 되었다. 그 당시 비와 홍수에 의해 카바의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카바가 크게 손상되기도 했다. 따라서 건물을 근본적으로 다시 지을 필요가 생겼다. 카바의 기반은 선지자 이브라힘이 완성한 것인데, 꾸라이쉬 부족은 이것 마저도 철거하고 새로운 카바를 짓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벽을 더 높이기로 하고 각 부족이 한 부분씩 맡아 공사를 분담하기로 하였다. 부족들은 이 공사를 대단한 영예로 생각했다. 그런데 '하자류 아스와드 (흑석)[7]'을 원 위치에 누가 옮길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부족들은 서로 이 영예를 차지하

[7] 카바신전의 동쪽에 위치한 1.5미터 가량의 천국으로부터 온 검은 돌. 이브라힘 알라히살람과 이스마일 알라히살람이 카바를 지을 때, 성지 순례의 표석으로 삼기위해 돌을 찾던 중, 아부 쿠바이스산에서 "지브릴 천사가 맡겨 놓은 돌이 여기 있으니 그것을 가져가라."라는 소리를 듣고 돌을 산에서 가져와 그 위치에 놓았다.

려고 다투었으므로 자연스럽게 불화가 일어났다. 압두 드다르의 아들들이 맹세를 하고 나섰다. "만약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것을 맡는다면 피를 보게 될 것이다." 라 위협했다. 4- 5 일간 계속된 이러한 불화로 인해 이제 유혈사태가 임박한 듯 보였다.

이러한 때에 연장자인 압둘 무탈립의 외삼촌인 후자이파 빈 무기라가 앞으로 나섰다. "오, 꾸라이쉬 공동체여! 여러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 문으로 처음 들어오는 사람을 중재자로 삼으시오." 그리고는 카바로 열려 있는 바니 샤이바 통로의 문을 가리켰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들은 문 쪽을 바라보며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와 운명의 갈림길에 있는 이 문제를 중재하여 해결할 것인가 조바심으로 기다렸다. 마침내 그들은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이 문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정직함과 우월한 인격으로 명성이 높았기에 '알-아민', 즉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이었다. "여기 알- 아민이 왔다! 우리는 그의 결정에 승복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에게 상황이 설명되자 그는 큰 보자기를 달라고 하더니 이것을 땅 위에 깔고 흑석을 그 위에 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 모든 부족에서 한 사람씩 나와 보자기 끝을 잡으시오." 그리고는 일제히 보자기를 들어 올려 돌을 원래 자리로 운반하게 했다. 그리하여 끔찍한 유혈사태는 방지되었으며, 부족 사람들 모두는 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런 뒤 벽을 높이고 보강하는 공사를 마무리하여 카바는
말끔히 재건되었다.

예언자 직분과 그의 소명

온세상의 귀감인 예언자가 37 세가 되던 해에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부터 " 오, 무함마드야!" 라고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곤 하였다. 예언자가 38 세가 되었을 때, 예언자는 어떤 빛을 보기 시작했다. 이러한 자신의 정황을 오로지 카디자 성인에게만 털어 놓았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을 예언자로 명하는 계시가 가까워졌고, 그 당시 유명한 문학가 중의 한 사람이던 꾸스 빈 사이드는 우카즈 시장에서 낙타를 타고 다니며 머지않아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대중들에게 알렸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도 그 청중 속에 있었다. 꾸스 빈 사이드의 유명한 연설 중 한 부분은 이렇다.

"사람들이여! 이리 모여서 경청하고, 배우도록 하시오! 산 자는 죽고, 죽은 자는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니,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귀를 열고 잘 들으시오! 하늘은 소식을 알리고, 땅은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종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올 것입니다. 머지 않아 올 것입니다! 그분의 그림자가 우리 머리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그분을 경청하고, 믿는 사람은 커다란 축복을 받

을 것입니다! 그분에게 불복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커다란 불행을 겪을 것입니다. 인생을 의미없게 보내는 것은 커다란 수치입니다..”

그 당시 아라비아 사람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규율에서 벗어 났으며, 부자와 가난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주인과 노예로 신분분화가 되어 갈등을 겪고 있었다. 전자는 후자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고 억압하였으며, 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힘없는 이들의 재산은 강제로 빼앗기기 일쑤였으며, 이를 방지할 힘이나 권위가 존재하지 않았다. 알라후 테알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량함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부도덕함과 함께 자존심과 명예를 짓 밟는 것 같은 그러한 비천한 행위들이 공공연히 자행되었으며, 도박이나 음주 등 향락에 빠져 사는 삶이 일반화 되었다. 끊이지 않는 살인과 간통과 습격에 휩싸여있었으며, 무고한 사람들의 신음과 고통의 비명은
하늘에까지 닿았다. 도덕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사람들은 무지의 바다에 빠져 허덕였다. 여자들은 물건처럼 매매되었고, 여자 아이들은 산 채로 잔혹하게 매장되었다. 가장 나쁜 것은 이 무정하고 잔악한 사람들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고, 이를 대단한 명예로 여기는 것이었다.

모든 일에 있어 알라후 테알라의 이름을 부르네 그는 예찬 받는 우리의 예언자라네 그는 훌륭한 행동과 도덕을 갖추었고 지식과 예절과 선량함이 몸에 배었도다.

알라후 테알라의 뜻을 받들어 만물에 겸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는도다.

아담 알라히살람 이후로 이처럼 난폭하고 부도덕하며 타락과 불신으로 가득찬 시기는 없었다. 사람들의 사악함은 극치를 이루었다. 서로 간의 적대감이 포만하였고, 사회는 바야흐로 폭발직전의 상태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이 암흑의 세계에서 구원할 행복의 태양을 필요로 했다. 이 태양이 떠오르면 신앙이 불신을 대체하고, 정의가 무자비함을 대신하며, 지식이 무지의 자리를 차지하여 사람들은 끝없는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침내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먼저, ‘신성한 꿈’을 보기 시작했다. 하디스 셰리프에 따르면, 계시의 시작은 ‘신성한 꿈’으로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분이 꿈에서 본 것들은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상태가 여섯 달 지속되었다. 계시에 근접할 수록 “오, 무함마드!” 라고 부르는 소리가 더욱 빈번히 들려왔다. 이 시기에 그분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홀로 있기를 원하여 히라 산의 한 동굴에 은거하고 깊은 묵상에 잠겼다. 때때로 메카로 와서 카바 주위를 순례한 후 평화로운 집으로 가서 한 동안 휴식을 취하고는 먹을 것을 챙겨 다시 히라 산의 동굴로 돌아가, 묵상과 기도에 전념하였다. 때때로 히라 산에서 며칠씩 머물렀으며, 카디자 성인이 먹을 것을 보내거나 직접 가져다 주었다.

첫 계시

우리의 예언자가 마흔 살이었을 때, 라마단 기간 중, 히라 산의 동굴로 다시 가서 묵상에 잠겼다. 라마단의 17 일, 월요일 밤이었다. 한 밤중이 지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머리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자 또 다시 같은 소리가 들렸으며, 갑자기 어떤 빛이 주위를 밝혔다. 그때 대천사 지브릴(가브리엘)이 다가와 "읽으라(마음으로 읽으라는 뜻)!" 고 말했다. 그러자 우리의 예언자가 대답했다. "나는 읽을 줄 모릅니다." 이 대답이 떨어지자 그 천사는 우리의 예언자를 꼭 껴안고 힘이 다할때까지 조였으며, 다시 "읽으라!" 라 했다. 예언자는 다시 "나는 글을 모릅니다!" 라 하니, 천사는 다시 또 예언자를 꽉 조이며 "읽으라!" 고 말했다. 예언자는 "나는 정말 읽을 줄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천사는 예언자를 세 번째로 단단히 조였다가 놓아주면서 '응혈 장'의 처음 다섯 구절(96:1-5)을 전했다. "읽으라!" 고 했다. "오, 무함마드! 만물을 창조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이름으로 읽으라! 알라후 테알라께서 한 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노라. 읽으라! 알라후 테알라께서 가장 은혜로운 분으로, 읽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노라."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은 천사와 함께 읊었다. 이렇게 꾸란의 첫 구절이 계시되었으며, 그리하여 온 우주를 밝혀줄 이슬람의 태양이 떠올랐다.

예언자는 엄청난 열망과 흥분을 안고 동굴에서 나와 히라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브릴이 그분에게 말했다. "오, 무함마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이며, 나는 천사 지브릴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그의 발꿈치로 땅 위를 두드렸다. 그러자 그곳에서 물이 솟아올라 왔으며, 그 물로 세정(압데스트, **洗淨**) 의식[8]을 거행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예언자는 천사를 유심히 관찰하였다. 지브릴 천사는 세정을 마치고 나서 예언자에게 지금 본 그대로 세정을 행하라고 했다. 예언자가 세정을 마치자 지브릴이 예배를 인도하는 '이맘'[9]이 되어 그들은 두 번의 '라카'[10]로 기도를 올렸다. 이것이 끝나자 지브릴 천사가 말했다. "오, 무함마드! 당신의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대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너는 진과 인간에게 보내는 나의 사도이니 그들이 나의 유일성을 믿도록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라며 천사 지브릴은 하늘로 올라갔다. 이리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천사 지브릴을 보았고 그와 대화하였다.

예언자가 집으로 오는 도중에 길가의 모든 돌과 나무들이 "알라후 테알라의

[8] 이슬람에서 예배 수행 전 또는 꾸란을 읽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이 필수다. 손, 입, 코, 얼굴, 팔, 귀, 목 그리고 발의 순서대로 행한다.
[9] 이슬람 성직자. 예배를 주도하고 교들에게 종교적 설교를 행한다.
[10] 예배 의례를 세는 단위. 예배의 시간대 또는 의도에 따라 라카의 횟수가 다르다.

사도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하고 인사를 하였다. 집에 들어선 예언자는 "나를 덮어주시오 나를 덮어 주시오!" 라 말하고는 놀라서 떨리는 몸이 진정될 때까지 휴식을 취하였다. 이후 카디자 성인에게 자기가 본 것을 들려주며 말했다. "지브릴 천사는 사라졌지만 그 위엄과 격렬함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고 나를 비방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카디자 성인은 이러한 상황이 올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말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당신에게 은총을 선사하시지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뜻을 받들어 당신은 우리 공동체의 예언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손님들을 극진히 보살피고 진실 만을 말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약한 사람을 돕고, 정당한 사람을 돕고, 고아들을 돌보며, 가난한 이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당신은 훌륭한 인품을 지녔으니, 이러한 품성의 소유자에게는 두려울것이 없습니다."

그 후 이러한 정황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그들은 와라까 빈 나우팔을 방문했다. 우리의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난 오라까가 말했습니다.

" 오, 무함마드!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하건대 당신은 성인 이사 알라히살람이 예고한 바로 그마지막 예언자입니다. 당신이 보았던 그
천사는 무사 알라히살람에게 왔던 그 천사입니다. 아! 내가 지금 젊다면,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메카에서 추방하는 그 순간까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 터인데! 이제 곧 당신은 알라후 테알라의 종교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될 것이며 거룩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귀감인 예언자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와라까는 세상을 떠났다.

선교의 명령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을 예언자로 알리는 최초의 계시는 이렇게 내려졌다. 그러나 그 후 3 년간 어떤 계시도 내리지 않았다. 그 기간에 '이스라필'이라는 이름의 천사가 와서 예언자에게 몇 가지를 전해 주었지만, 그것은 계시는 아니었다. 예언자는 때때로 크나큰 상심에 빠졌다. 그때 마다 대천사 지브릴이 나타나 그분의 슬픔을 달래주었다. "오, 알라후 테알라께서 가장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입니다."

우리의 귀감인 예언자가 설명하길 "계시가 멈춘 이후 내가 히라 동산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 왔다. 내가 하늘을 보니 지브릴 천사가 있었다. 그는 하늘과 땅 사이의 중간에 있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두려움이 나를 감쌌다. 나는 집으로 갔다. 나는 무언가로 내 몸을 덮어달라고 했다. 알라후 테

알라께서 '알 뭇다씨르'장 앞 네 구절(74: 1-4)의 계시를 내리셨다. 그 해석은 이렇다.

그 후로 다시는 계시가 중단되지 않았다. 이제 우리의 귀감, 예언자는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기 시작했으며,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의 명령과 금기를 널리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지브릴 천사는 가끔씩 사람의 모습으로 왔으며, 교우인 디흐야이 칼라비의 모습을 취하여 나타나기도 하였다. 때로는 예언자의 마음에 직접 전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때는 우리의 예언자가 그를 볼 수 없었다. 지브릴 천사가 어떤 때는 꿈에 나타났다. 어떤 때는 무서운 소리를 내며 자신을 드러냈는데, 이것은 우리의 예언자에게는 가장 어렵고 힘든 형태의 계시였다. 그런 때는 아무리 추운 날씨일지라도 선지자의 얼굴에서 비가 오듯 땀이 쏟아졌다. 예언자가 낙타를 타고 있을 때 계시가 내리면 과중함으로 낙타는 땅에 주저앉고 말았다. 예언자 곁에 있던 교우들도 계시가 내릴 때 이를 느낄 수 있었다. 지브릴 천사는 여러 번에 걸처 원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천사나 가리는 장막, 즉 다른 매개를 동원하지 않고 직접 예언자에게 몇 가지 계시를 내리셨다. 이러한 계시는 '승천의 밤'에 내려졌다.

첫 계시로 예언자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한 우리의 예언자는 그 후 23 년 동안 이슬람을 전하는데 신명을 바치게 된다. 그 기간 중 13 년은 메카에서, 10 년은 메디나에서 보내게 된다.

성전(聖典)인 꾸란은 22 년 2 개월 22 일간의 기간 동안에 계시가 내려와 완결되었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은 문맹이었다. 즉, 책을 전혀 읽지 못했고 쓰지 못했고, 아무한테서도 배운 적이 없다. 메카에서 태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친척이나 친지 등 몇 사람들에 의해 양육되었다. 그렇지만 율법, 성경, 그리스 로마의 도서 속의 정보와 일어 난 사건들에 대하여 알리기도 하였다. 히즈라[11] 후 여섯째 해에 그분은 이슬람을 전하기 위해 비잔틴과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 그리고 아랍의 다른 왕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그의 앞으로 60 명이 넘는 외국사절들이 방문해 왔다. 이에 관하여서는 꾸란 '안케붓 장' (29:48)에 언급되어 있다. 그 해석이다.

'그대는 이 꾸란 성서가 오기 전에 글을 읽을 수 없었으며, 손으로 쓸 수도 없었거늘, 만일 그대가 읽고 썼다면 다른 이 한테서 배웠다 했을지다.'

하디스 셰리프에는 다음과 같이 밝혀져 있다. "나는 무함마드 알라히살람, 문맹의 예언자이다. 나 이후에는 예언자가 없을지다." 꾸란 '네즘 장'(53:3-4)은 다

[11] 이주. 종교적 핍박을 피해 메카로부터 메딘로 이슬람 교인들이 이주함.

음과 같이 해석된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은 알라후 테알라의 계시로전해지고, 배운 것이다.'

‘에이, 덥개에 싸인 자여, 일어나서 경고(믿지 않는 자는 벌 받으리라)하라. 그대의 알라후 테알라만을 찬양하고, 그대의 옷가지도 청결하게 하라.’

초기 무슬림

우리의 예언자에게 첫 계시가 내려온 후, 첫번째로 무슬림이 된 사람은 성인 카디자였다. 그녀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슬람을 받아들였으며, 첫 무슬림이 되는 영예를 안았다. 우리의 예언자는 지브릴 천사가 그분에게 가르친 대로 카디자 성인에게 세정을 거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는 예언자가 이맘이 되어 그들은 두 라카의 예배를 올렸다. 카디자 성인은 우리 예언자의 모든 말과 명령을 철저하게 이행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알라후 테알라께서 계신 곳에서 아주 높은 지위를 얻었다. 예언자가 슬픔에 젖어 있거나 불신자로부터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카디자 성인은 언제나 그분을 따뜻하게 위로하였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최후에는 우리의 종교가 강력하게 되어 불신자들은 멸망해 갈 것입니다. 당신의 민족은 당신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격려 때문에 하루는 지브릴 천사가 와서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알라후 테알라의 안부 인사를 카디자에게 전해주십시오.” 예언자가 소리쳤다. “오, 카디자! 지브릴이 알라후 테알라의 안부 인사를 당신에게 전합니다.” 우리 예언자가 언젠가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천국의 진주로 만든 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카디자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질병도 슬픔도 골치거리도 없답니다.”

카디자 성인에 이어 두 번째로 무슬림이 된 사람은 예언자의 절친한 친구인 아부 바크르 성인이었다. 아부 바크르 성인은 20 년 전에 어떤 꿈을 꾸었다.

보름달이 하늘에서 내려와 카바 위에 오더니 수많은 조각으로 분산되었으며, 각각의 조각은 메카의 집들 위에 하나씩 떨어졌다. 그런 뒤 이 조각들은 다시 모여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데 아부 바크르의 집에 떨어진 달 조각만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것을 본 아부 바크르 성인은 마치 그 달 조각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듯 문을 걸어 잠갔다.

아부 바크르는 흥분 속에서 잠이 깨었다. 아침이 되자 그는 유대인 학자 한 사람을 찾아가 간밤의 꿈 이야기를 하였다. 그 학자가 대답했다. “이것은 혼란스러운 꿈이라서 해석할 수가 없군요.” 그러나 이 꿈은 그의 뇌리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으며, 그 유대인 학자의 답변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언젠가 아부 바

크르 성인이 장사 길에 올랐을 때, 그는 바히라 수도사가 있는 지역을 잠시 들른 적이 있었다. 그가 바히라 수도사에게 그 꿈의 해석을 요청했을 때, 바히라가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부 바크르 성인이 꾸라이쉬 부족이라고 말하자 바히라가 말했다. "한 예언자가 거기서 나올 것입니다. 그분을 인도하는 빛이 모든 메카 지역을 비출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 있을 때 당신은 그분의 측근이 될 것이고, 그분이 죽은 뒤에는 대리인(칼리프)이 될 것입니다." 아부 바크르 성인은 이 대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우리 예언자가 그의 예언자 사명을 선포하기 전까지 누구에게도 이 꿈 해석을 알리지 않았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임을 선포하자 아부 바크르 성인은 예언자에게 달려가 물었다. "예언자들은 그들이 예언자임을 나타내는 증거를 가지는 법입니다. 당신은 무슨 증거가 있나요?" 우리의 예언자가 대답했다. "내가 예언자라는 것에 대한 증거는 당신이 유대인 학자에게 해석을 부탁했던 바로 그 꿈이오. 그 학자는 '혼란스러운 꿈이라 해석이 안 된다'고 하였소. 그렇지만 바히라 수도사는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였소." 그리고는 예언자가 "오, 아부 바크르! 나는 당신이 알라후 테알라를 믿고, 그분의 사도를 따를 것을 권합니다."라며 이슬람교로 초대하였다.

이렇게 해서 아부 바크르 성인은 "나는 인정합니다. 당신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입니다. 당신이 예언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밝혀 줄 빛입니다. 라고 무슬림이 되는 신앙고백을 하게 되었다.

다른 기록에 따르면, 아직 우리의 예언자에게 계시가 내려지기 전에 아부 바크르가 장사를 하기 위해 예멘으로 갔었다고 한다. 여행 중에 그는 책을 아주 많이 읽은 아즈드 부족의 어떤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이 노인은 아부 바크르 성인을 보고 물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메카 사람인 것 같소." 아부 바크르 성인은 그렇다고 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대화를 이어갔다.

-당신은 꾸라이쉬 부족인가요?
-예.
-바니 타밈의 집안인가요?
-예.
-어떤 표시가 남아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배를 내게 보여주시오.
-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노인이 말했다. "나는 어떤 책에서 예언자가 메카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읽었소. 두 사람이 그를 돕게 됩니다. 한 사람은 젊고, 또 한 사람은 나이가 많지요. 젊은 사람은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해결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은 피부가 희고, 허리가 가늘며, 복부에 검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보기로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배를 열어 내게 보여 주시구려."
이 말을 들은 아부 바크르 성인은 그의 축복받은 배를 보여주었으며, 노인은 그의 배꼽 위에 있는 검은 점을 보고 놀라며 말했다. "바로 당신이었군요!" 그리고는 많은 충고의 말을 해주었다.

아부 바크르 성인은 그의 사업 일을 마치고 작별을 고하러 그 노인에게 갔다. 그리고는 우리의 예언자에 대한 시를 한 수 지어 줄 것을 부탁했다. 노인은 쾌히 승낙하고 12 개의 연구(**聯句**)로 된 시를 읊었으며, 아부 바크르 성인은 이를 암송하여 기억하였다.

아부 바크르 성인이 메카로 돌아오자 꾸라이쉬 부족의 명망있는 몇몇 인사들이 그의 집에 찾아 왔다. 아부 바크르 성인이 물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아주 해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부 탈립이 키운 고아가 자신이 예언자라고 선언하며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타락한 종교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당신을 존경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를 벌써 죽였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절친한 친구이니 이 문제는 당신이 해결해 주십시오."
아부 바크르 성인은 그들을 배웅하고 난 뒤에 우리의 귀감인 예언자가 카디자 성인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거기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다. 예언자가 문에서 영접하자 그는 예언자에게 물었다. "오, 무함마드! 당신에 대한 이 소문은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의 예언자가 대답했다. "나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아담 알라히살람의 모든 자손들을 위하여 보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면 알라후 테알라의 용서를 얻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부 바크르 성인이 "증거가 있습니까?" 고 묻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대답했다. "당신이 예멘에서 본 그 노인이 들려준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부 바크르 성인이 말했다. "나는 예멘에서 많은 젊은 사람과 노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예언자는 이에 대답했다. "12 개 연구의 시를 지어 당신을 통해 내게 보낸 바로 그 노인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시를 모두 암송하는 것이었다. 아부 바크르 성인이 물었다. "누가 이것을 당신에게 일러주었습니까?" 예언자가 말했다. "나 이전의 예언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던 그 천사입니다." 우리의 예언자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아부 바크르 성인은 예언자의 축복받은 손을 붙잡았으며 신앙고백을 하고 무슬림이 되었다. "나는 알라후 테알라 이외에 신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함마드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임을 믿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이러한 큰 기쁨을 만끽 한 아부 바크르 성인은 무슬림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어떤 하디스 셰리프에 다르면 예언자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알라후 테알라에 대한 믿음을 권유하면 얼굴을 찌푸

리고 의심스럽게 내 얼굴을 쳐다보더라. 오직 아부 바크르만이 신앙을 고백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하루는 우리의 귀감인 예언자와 카디자 성인이 예배(나마즈)를 올리고 있었다. 알리 성인이 이것을 보았다. 그가 열 두살이었을 때였다. 예배가 끝나자 그가 물었다. “무엇을 하셨나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의 종교란다. 나는 너를 이 종교에 초대한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오직 한 분이시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견줄 바가 없느니라. 유일하시고 견줄 바 없는 알라후 테알라를 믿도록 너를 초대하노라.” 알리 성인이 말했다. “먼저 저의 아버지와 상의하도록 해 주세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그에게 말했다. “만약 네가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이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다음 날 아침 알리 성인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있는 곳에 와서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제게 이슬람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는 무슬림이 되었다. 알리 성인은 무슬림이 된 세 번째 사람으로 우리의 귀감인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위해 바친 자기희생과 자기보다 우리의 예언자를 먼저 생각하는 그의 정신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이드 빈 하리사도 초기 무슬림 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카디자 성인, 아부 바크르 성인, 알리 성인에 이어 네 번째로, 해방된 노예 중에서는 첫 번째로 무슬림이 되는 영광을 안았다. 그의 아내 움무 아이만 또한 남편과 함께 무슬림이 되었다.

아부 바크르 성인은 무슬림이 된 후 곧 그의 절친한 친구들을 찾아가 이슬람을 받아들이도록 권유하였다. 우스만 빈 아판, 탕하 빈 우바이둘라, 주바일 빈 아왐, 압둘라흐만 빈 아우프, 사아드 빈 아비 와까스 등 부족의 유력한 인사들이었다. 카디자 성인에 이어 무슬림이 된 여덟 명은 ‘사비꾸니 이슬람(Sâbiqûn-i Islâm)’이라 불렸는데, 즉 ‘초기의 무슬림’이라는 뜻이다.

우스만 성인은 그가 어떻게 무슬림이 되었는지를 이야기 하였다.

“나에게 미래를 보는 이모 한 분이 있었는데, 하루는 내가 그 집에 다니러 갔더니 이모가 이렇게 말했다. “너는 어떤 여인을 만나 아내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녀 이외의 다른 여인을 보지 못 할 것이며 , 그녀도 너 이외의 남자를 만나지 못 할 것이다. 그 아름답고 용모가 경건하며 뛰어난 여성은 위대한 예언자의 딸임이 분명하다.” 나는 이모의 말에 놀랐다. 이모는 다시 말했다. “예언자가 왔다. 하늘로부터 그분에게 계시가 내려왔다.” 내가 말했다. “오, 이모님! 그 같은 이야기는 아무 곳에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자 “무함마드 빈 압둘라가 예언자 사명을 받았다. 그분이 사람들을 종교에 초대할 것이다. 조만간에 그분의 종교에 의해 세상은 빛날 것이

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목이 떨어질 것이다."

외숙모의 말이 나의 마음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아부 바크르 성인과 나는 친밀한 친구로 전혀 사심이 없는 사이였다. 나는 상의를 위해 아부 바크르 성인을 찾아갔다. 내가 그에게 우리 이모의 말을 이야기 했을 때 그가 말했다. "오, 우스만! 그대는 현명한 사람이 아닌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선과 악도 파악을 못하는 몇 조각의 돌덩이가 어떻게 신으로 숭배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말했다. "당신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모의 말은 사실입니다."

우스만 성인에게 이슬람을 전한 아부 바크르 성인은 예언자에게 그를 데리고 갔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우스만 성인에게 말했다. "오, 우스만!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당신을 천국의 손님으로 초대하십니다. 당신은 이를 받아들이시오. 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안내자로 보내졌습니다." 우스만 성인은 예언자의 위대한 모습과 웃음 띤 얼굴로 하는 말에 넋이 빠졌다. 자신도 잊을 정도로 매우 기뻐 곧 신앙고백을 하고 무슬림이 되었다. "나는 알라후 테알라 이외에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후 테알라께서 보내신 사도임을 믿습니다."

예언자가 선포 후 첫 3 년 동안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비밀스럽게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였다. 사람들은 한 명씩 한 명씩 서서히 무슬림이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무슬림이 된 사람은 30 명에 이르렀다. 그들은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올리며 꾸란 구절들을 비밀리에 암기하였다.

가까운 친척들에게 선교하다

우리의 귀감인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뭇다씨르 장'의 계시 이후부터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기 시작했다. 그분은 비밀리에 사람들을 초대했다. 얼마 뒤에 '시인(수아라)의 장'(26:214-216) 의 계시가 내렸다. 그 해석은 이렇다.
'그대의 친척들에게 알라후 테알라의 처벌을 경고하여, 그들을 진정한 종교로 초대하라.'

이에 따라 우리의 귀감인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은 알리 성인을 보내 자신의 친척들을 종교로 초대하기 위해 아부 탈립의 집으로 불렀다. 그 사람들 앞에 오직 한 사람 분량의 먹을 것과 우유 한 잔이 놓였다. 예언자가 먼저 '비스밀라(알라후 테알라의 이름으로)'를 읊고 먹기 시작했으며, 모여 있는 친척들에게도 먹을 것을 권했다. 모인 사람은 40 명이었다. 그러나 놓여 있는 음

식은 모든 사람이 먹어도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거기에 온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을 보고 매우 놀랐다. 식사가 끝난 후 우리의 예언자가 친척들에게 이슬람으로 초대하려는 차에 예언자의 숙부인 아부 라합이 적대감을 표하며 말했다. “우리는 여태 이 같은 마술을 본 적이 없소. 친척들 모두에게 마술을 걸었구려. 아, 내 형제의 아들아! 나는 너 같이 사악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자를 이제껏 보지 못했다.” 라면서 거친 말을 퍼부었다.

그러자 우리의 예언자가 아부 라합에게 말했다. “숙부께서는 꾸라이쉬를 포함한 다른 어떤 아라비아 부족들도 할 수 없는 악행을 나에게 저질렀습니다.” 친척들은 한 명도 무슬림이 되지 않은 채 뿔뿔이 흩어졌다. 얼마 후 예언자는 다시 친척들을 초대하였다. 알리 성인이 그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그들 앞에 음식이 차려졌다. 식사가 끝난 후 예언자는 일어서서 말했다.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께 찬미를! 나는 오직 그분의 도움만을 청합니다. 나는 그분을 믿고 의존합니다. 나는 알라후 테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의심 없이 믿으며 선언합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유일하시고 견줄 바가 없는 높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여러분에게 조금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진실을 여러분에게 밝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뿐이신 알라후 테알라를 믿도록 초청합니다. 나는 알라후 테알라께서 여러분과 온 인류에게 보낸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입니다.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하건대 여러분은 잠드는 것과 같이 죽을 것이며,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부활하여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선행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게 되고, 악행에 대해서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머물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히 머물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사후세계의 고통에 대하여 내가 충고한 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처음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아부 탈립이 말했다. “오, 내 형제의 축복받은 아들이여! 그대를 돕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대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대의 말을 진정으로 시인했습다. 그대가 불러 모은 이 사람들은 모두 할아버지 압둘 무탈립의 자손들입니다. 나 역시 그렇습니다. 나는 그대가 원하는 대로 누구보다 앞장 서 달려가겠습니다. 언제라도 항상 그대를 보호하는 데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대가 알라후 테알라께로부터 받은 명령 대로 실행하시요. 하지만, 이전부터 내려오는 종교를 버리려고 하니 마음을 억누를수가 없네요.”

아부 라합을 제외한 예언자의 친척들과 숙부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때, 아부 라합이 다시 으름장을 놓았다. “오, 압둘 무탈립의 자손들이여! 다른 사람들이 그의 손을 묶어 제지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시오. 만약 여러분이 오늘 그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나중에 칼질을 당하거나 모욕 당하는 일이 생길 것이오. 그를 보호하려는 자는 모두가 죽을 것이오.” 이러한 아부 라합을 보고 예언자의 고모가 말했다. “오, 나의 형제여! 형제의 아들과 그분의 종교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그대의 품위에 걸맞지 않은 것 같구려. 오늘의 많은 학자들이 압둘 무탈립의 자손으로부터 한 예언자가 나올 것이라고 알려왔소. 그 예언자가 여기에 바로 이 분이요.”

아부 라합은 이 말을 듣고도 험악한 말을 계속했다. 아부 탈립이 화가 나서 아부 라합에게 대들었다. “겁 많은 자야! 내가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하건대,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분을 돕고 보호할 것이다.” 그는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을 향해 말했다. “오, 나의 형제의 아들이여! 알라후 테알라의 종교로 사람들을 초대하려 할 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각자 무장을 갖추고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예언자가 말했다. “압둘 무탈립의 자손들이여! 이 세상과 사후 세상을 합쳐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종교보다 더 우월하고 유익한 종교를 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두 마디의 말로써 신앙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아주 말하기 쉬우며,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알라후 테알라 이외에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후 테알라의 종이며 사도임을 선언합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이 신앙고백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중 누가 나의 초대를 받아들여 나의 가는 길을 돕겠습니까?” 아무도 말을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예언자는 이 말을 세 번 되풀이 하였다. 알리 성인이 이때 일어나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나는 비록 이 자리에서 제일 어리지만 당신을 돕겠습니다.” 예언자는 알리의 손을 덥석 잡았다. 다른 사람들은 이를 보고 놀랐으며, 모두 일어나 돌아갔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친척들이 보여준 태도에 매우 상심하였다. 그러나 예언자는 좌절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지옥에서 구원받아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초대를 계속했다.
예언자가 된지 4 년째 되는 해에 ‘히즈르 장’(15:94)이 계시되었다. 해석은 이러하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공공 장소에서 메카 사람들에게 이슬람으로 초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사파 언덕에 올라가 외쳤다. “오, 꾸라이쉬 사람들이여! 내가 거짓말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당신들에게 나를 예언자로 보내셨습니다.그리고 예언자는 ‘아으라프 장’(7:158)의 한 구절을 읊었다.

"백성들이여! 나는 여러분 모두 위하여 보내어진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시며, 이를 다스리는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입니다. 그분 외에는 섬길 다른 신은 없으며, 생명을 주시며 앗아가고 다시 부활시키 시는 분입니다." 청중 속에 있던 아부 라합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고함 질렀다. "내 조카가 드디어 미쳤구나! 우리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종교에서 벗어난 자의 말은 듣지 마시오!" 그는 불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아무도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우리의 예언자가 신뢰할 수 있고 훌륭한 인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슬람을믿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적이 되었다.

그 뒤 어느 날, 알라후 테알라의 명에 따라 우리의 예언자는 다시 사파 언덕으로 올라가 큰 소리로 외쳤다. "사람들이여! 여기 모이십시오!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부족 사람들이 모두 달려왔다. 그들은 궁금한 표정으로 기다렸다. 그 자리에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은 종들을 보내 무슨 일인지 알고자 했다. 사람들이 예언자에게 "무함마드여, 우리를 무엇 때문에 모으셨나요? 무엇을 설명하시렵니까?" "오, 꾸라이쉬 부족 여러분, 들으시오! 나와 당신들과 관계는, 어떤 사람이 적을 발견하고,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려고 달려가서는, '적이 우리를 포위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곧 아침이 되니 빨리 교전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라고 울부짖는 사람에 비유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저 산 너머에 적군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면 믿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대답했다.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은 항상 바른 말만 하니까요. 당신이 거짓말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언자는 각 씨족의 이름을 열거하며 말을 이었다. "오, 하쉼의 자손들이여, 아부 마나프의 자손들이여, 그리고 압둘 무탈립의 자손들이여! 나는 분명히 다가올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여러분에게 알리러 왔습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사후 세상에서의 고통을 나의 가까운 친척들에게 일깨우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한 분 뿐이며, 알라후 테알라 이외에 신은 없다'고 말하고 이슬람을 받아들이도록 모두를 초대합니다. 나는 알라후 테알라의 종이며 그분의 사도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모두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유일 하시다'라 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도울 수 없고, 사후 세상에서 어떠한 혜택도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아부 라합이 말했다. "겨우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 모았느냐? 그는 돌멩이를 집어 예언자에게 던졌다. 다른 사람들은 이 같이 나쁜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서로 수군거리며 흩어졌다.

내 오른손에 태양을 준다 해도

'에이, 나의 사랑하는 자여! 그대가 받은 명령과 금지를 알려, 진리와 미신을 가리도록 하라. 믿지 않는 자들은 멀리 하라.'

이 집회가 있은 뒤부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예언자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이슬람의 포교에 힘썼다. 육체적 욕망이나 잔혹함, 불의와 온갖 악행으로부터 멀어지면, 알라후 테알라에 대한 절대적 신앙이 생긴다고 알렸다. 자신의 욕망과 정욕에 눈이 먼 사람들이나, 약한 자를 짓누르고 부덕행위가 도를 넘어선 자들은 예언자의 초대를 강력하게 거절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런 나쁜 생활에 종말이 올 거라는 짐작에,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의 가르침을 부정하면서 무함마드 알라히살람과 그 추종자들을 원수로 여겼다.

처음에 다신교도들은 이슬람에 모욕을 주는데 그쳤다. 그 뒤에는 차츰 무력이나 고문을 가하기 시작했다. 무슬림에 대한 억압을 통해 이슬람을 파괴하려고 하였다. 그들의 지도자는 아부 자흘, 우트바, 샤이바, 아부 라합, 우크바 빈 아비 무아이트, 아스 빈 와일, 아스와드 빈 무탈립, 아스와드 빈 아브디 야그와스, 왈리드 빈 무기라 등이었다.

하루는 우트바, 샤이바, 그리고 아부 자흘이 아부 탈립에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들 중 연장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이제 당신의 형제의 아들이 새로운 종교를 세웠습니다. 그는 우리의 우상을 모욕하고 우리를 다신교도라 비난합니다. 제발 이런 일을 포기하도록 그에게 충고하십시오. 만약 그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다룰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아부 탈립은 그들을 달래어 보냈다. 그는 예언자가 슬퍼할까봐 이 일을 숨겼다. 얼마 후 다신교 신자들은 다시 아부 탈립을 찾아와 말했다. "지난번에 우리가 와서 당신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당신은 우리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군요. 당신 형제의 아들은 여전히 우리들의 우상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 두 사람과 마지막 한 방울의 피가 흐를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메카에서 그가 없어지던지, 우리가 없어지던지 결판을 내겠습니다. 아부 탈립은 그들을 진정시키려 애썼으나, 고집을 꺾지 않았다.

아부 탈립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비탄에 빠뜨리게 할 수도, 족속간에 적대관계를 만들 수도 없는 곤경에 처했다. 그는 우리의 예언자를 찾아가 말했다. "오, 무함마드여!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여 당신을 적대시하며, 내게 와서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친척 간의 적대관계는 옳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불신자라 부르지 말 것을, 나쁜 길을 걷고 있다고 비난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말했다. "숙부님! 만약 그들이 내 오른손에 태

양을, 내 왼손에 달을 준다 해도 나는 결코 이 종교를 알리고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알라후 테알라의 종교가 온 세상에 퍼지는 날 내 의무가 끝이 나거나, 아니면 이 길에서 내 목숨 바칠 것 입니다." 일어서는 예언자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예언자의 비통함을 본 아부 탈립은 이야기한 것을 후회하며 말했다. "나의 내 형제의 아들이여!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길을 가시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당신을 보호하리다."

아부 탈립이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을 보호한다는 것을 알게 된 다신교도들 중 유력자 10 명은 우마라 빈 왈리드를 데리고 아부 탈립에게로 갔다. "오, 아부 탈립! 당신은 여기 같이 온 우마라가 메카 젊은이들 중 가장 미남이고 힘세고 도덕적이라는 것을 알거요. 게다가 그는 시인이기도 하지요. 우마라를 당신에게 줄 터이니 당신의 여러가지 일을 돕게 하시오. 그 대신 우리에게 무함마드를 넘기시오. 그를 없애야겠소. 사람을 맞 바꿉시다. 어떻소?" 아부 탈립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대답했다. "먼저 당신들의 아들 모두를 내게 주시오. 내가 그들을 죽인 다음 내 조카를 당신들에게 주겠소." 그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는 그에게 말했다. "그렇지만 우리 아들들은 그처럼 행동 하지 않았는데..." 아부 탈립이 말했다. "내가 맹세컨대 내 형제의 아들은 당신들 자식들 전부보다도 더 훌륭하오. 당신들의 자식들을 내가 키우고, 나의 목숨처럼 소중한 내 형제의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다니.... 낙타 조차도 자신의 새끼 외에는 아무 것도 바라지 않소. 이런 비합리적이고 이치가 닿지 않는 제안이 있을 수 있소? 이제 내 사랑하는 무함마드의 원수는 곧 나의 원수요. 그렇게 알고 마음대로 해 보시오!" 다신교도들은 화를 내며 일어서 나갔다. 그 즉시로 아부 탈립은 하쉼의 자손들과 압둘 무탈립의 자손들을 소집하였다. 그는 모인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돕자고 그들을 설득했다. 그들은 다신교도에 맞서 연합하기로 결의하였다. 오직 아부 라합만이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다. 아부 탈립이 그들에게 말했다. "오, 용사들이여! 내일 모두 칼을 차고 내 뒤를 따르라!" 다음날 아부 탈립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집으로 갔다. 그들은 모두 함께 카바로 갔다. 하쉼가의 젊은 용사들이 그들을 따랐다. 카바에 당도하여 다신교도들 앞에 섰다. 아부 탈립이 말했다. "오, 꾸라이쉬 민중이여! 당신들이 내 형제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들었다. 당신들은 칼을 차고 내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저 젊은이들이 누구인지 아는가? 내가 맹세컨대 만약 당신들이 무함마드를 죽이면, 나는 당신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겠소!" 그러면서 그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찬양하는 시를 읊었다. 거기 있던 다신교도들은 아부 자흘을 선두로 모두 흩어졌다.

고난, 고문, 그리고 학대

꾸라이쉬 다신교도들은 우리의 귀감인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혼자 있을 때를 골라서 위협하고 모욕을 주었으며, 심지어 때리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또한 그들은 교우들을 서슴없이 고문하였다. 하루는 다신교도들이 카바 근처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 대하여 이야기 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방탕하다고 하고, 신들을 모욕하고 헐뜯었으며,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으나, 우리는 그냥 인내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때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카바를 방문했다. 그는 흑석에 입을 맞추고 카바 주위를 순회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예언자가 다신교도 곁을 지날 때, 그들은 욕설을 퍼부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이 때문에 매우 상심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회를 계속했다. 세 번째로 그들 곁을 지날 때 우리의 예언자는 걸음을 멈추고 그들에게 말했다. "꾸라이쉬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전지전능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컨대, 그대들은 처참해질 것이라고 알라후 테알라께서 나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다신교도들이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더니 몸이 굳어 버린듯 하였다. 그들은 단 한 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오로지 아부 자흘만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곁에 가서 사과했다. "오, 까심의 어버지! 당신은 외지인이 아니잖소. 우리의 무례한 행동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당신의 순회를 계속하시오. 당신은 우리와 티격태격할 무지한 사람이 아니지요."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은 그곳을 떠났다.

그 다음날, 다신교도들이 같은 장소에 다시 모였다. 그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바로 그때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그곳에 왔다. 다신교도들은 갑자기 예언자를 공격했다. 그중에서 가장 악덕한 우크바 빈 무아이트가 우리 예언자의 축복받은 목덜미을 움켜쥐고 목을 졸라,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바로 이 순간, 그곳으로 오고 있던 아부 바크르 성인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 속에 몸을 던지며 소리쳤다. '나의 신은 알라후 테알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일 셈인가? 너희들을 위해 알라후 테알라께서 계명을 가지고 온 사람을!" 그러자 다신교도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놓아주고 아부 바크르 싯디끄를 공격했다. 다신교도들은 그의 머리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그중에서 악덕한 우트바 빈 레비아는 아부 바크르 성인의 얼굴을 신발을 신은 채 발길질을 해댔다. 아부 바크르 성인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어 의식을 잃었다.

만약 이때 타임의 아들들이 와서 뜯어말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부 바크르 성인을 때려죽였을 것이다. 아부 바크르의 가족들이 그를 보자기에 싸서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무아지경이었다. 그 가족들은 즉시 카바

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경고했다. "만약 아부 바크르가 죽는다면, 우리는 맹세코 우트바를 끝장내 버리겠다!"

아부 바크르 성인은 오랫동안 의식을 차리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와 바누 타임 씨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깨우려고 애썼다. 그는 저녁때가 되어서야 깨어날 수 있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꺼칠한 목소리로 "우리의 예언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어떻게 되었소? 그들이 그분을 해치고 욕설을 하였는데…" 라 겨우 말할 수 있었다. 그들은 아부 바크르의 어머니 우뭄 카이르에게 말했다.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물어 보십시오." 아부 바크르는 너무나 힘이 빠져 아무 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물러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그의 어머니가 물었다. "무엇이 먹고 싶으냐?" 그는 눈을 뜨고 물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대답했다. "나는 네 친구에 대해서 아무 것도 들은 것이 없단다." 아부 바크르 성인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카탑의 딸, 움무 자밀에게 가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 대해 물어 보십시오!"

움무 자밀은 우마르 성인의 누이로 이미 무슬림이 되었다. 아부 바크르 성인의 어머니가 움무 자밀에게 가서 말했다. "내 아들 아부 바크르가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에 대해 묻는데, 그의 상태는 어떤가요?" 움무 자밀이 말했다. "나는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이나 아부 바크르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괜찮다면 함께 갈께요?" 둘은 함께 아부 바크르에게 갔다. 움무 자밀은 그의 상처를 보고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말했다. "당신에게 이렇게 한 사람들은 정말 모질고도 사납군요. 그들은 틀림없이 그 죄에 따른 벌을 받을 거예요." 아부 바크르 성인이 움무 자밀에게 예언자의 상태를 물었다. "어머니가 듣고 있습니다." 아부 바크르는 "해롭지 않습니다. 소문 낼 분이 아닙니다" 움무 자밀이 "그분은 살아
있습니다. 건강 상태는 좋습니다." "그분은 어디 있습니까?" "아르캄의 집에 있습니다." 아부 바크르가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코 나는 그분을 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사람들이 잠들 때까지 기다리자꾸나!" 밤이 깊어 모두 잠들고 길거리에 사람이 뜸해졌을 때, 아부 바크르 성인은 어머니와 움무 자밀의 부축을 받으며 조용히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로 갔다. 그는 우리의 예언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아부 바크르의 상태를 보고 깊은 시름에 빠졌다. 아부 바크르 성인이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당신을 위해서라면 부모도 희생할 것입니다. 제 옆에 있는 분은 저를 낳아준 어머니 살마입니다. 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미덕으로 알라후 테알라께서 우리 어머니를 지옥의 불에서 구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알라후 테알라께 그녀가 무슬림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하였다.

그 기도는 받아들여졌으며, 움물 카이르 또한 인도를 받아 초기의 무슬림이

되는 영광을 안았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집은 아부 라합과 우크바 빈 무아이트, 즉 잔인한 다신교도 두 사람의 집 사이에 있었다.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를 괴롭히려고 했다. 심지어 그들은 한 밤중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집 앞에 동물의 내장을 몰래 던져놓기도 하였다. 예언자의 숙부인 아부 라합은 이것도 성에 안 차서 그의 이웃 아디이의 집에 가서 예언자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다. 그의 부인 움무 자밀도 이에 못지않았다. 그녀는 가시가 돋은 나뭇가지를 예언자가 자주 다니는 길 위에 던져놓아 발에 찔리도록 했다. 아부 라합이 하루는 주워 모은 쓰레기를 예언자의 문 앞에 던졌다. 함자 성인이 이것을 보고는 그는 형제인 아부 라합을 붙잡아 그 쓰레기를 아부 라합의 머리 위에 쏟아 부었다.

아부 라합과 그 아내와 관련하여 꾸란의 '타바트 장'(111:1-2) 의 계시가 내렸다. 그 해석은 이렇다.
'아부 라합의 양손이 멸망하고 파멸할 것이며, 그의 재물과 그가 얻은 것이 그에게 유익하지 못하니.'

아부 라합의 아내, 움무 자밀은 자신들에 대한 계시가 내려왔다는 것을 듣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찾아 나섰다. 예언자가 카바에 있다는 것을 알고 큰 돌을 하나 들고 그곳으로 갔다. 그때 아부 바크르 성인은 경건한 자세로 예언자의 설교를 듣고 있었다. 그는 움무 자밀이 돌을 들고 오는 것을 보고 예언자에게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움무 자밀이 옵니다. 그녀가 당신을 해칠까 두려우니 이쪽 귀퉁이로 피하십시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그녀는 나를 보지 못합니다." 움무 자밀은 아부 바크르 앞에 서더니 저속한 말을 내뱉었다. "오, 아부 바크르! 네 친구가 어디 있는지 말하라! 그가 우리를 비난하고 나쁘게 말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그가 시인이라면 내 남편과 나도 시인이다. 이제 나도 그를 비난하겠다. 우리는 그에게 복종하지 않으며, 그가 예언자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종교를 좋아하지 않는다. 맹세컨대 만약 그가 눈에 띄면 이 돌로 그의 머리를 부숴 버리겠다." 아부 바크르가 "우리 예언자는 시인이 아니며, 당신을 비난한 적이 없다" 라고 하자 움무 자밀은 그곳을 떠났다. 아부 바크르 성인은 예언자를 보고 물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그녀가 당신을 보지 못 했습니까?" 예언자가 대답했다. "보지 못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녀의 두 눈으로 나를 보지못하게 하셨도다."

움무 굴숨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축복받은 딸 중의 하나인데 아부 라합의 아들 우타이바와 약혼하였고, 예언자의 또 다른 딸 루까야는 아부 라합의 또 다른 아들 우트바와 약혼한 사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다. '타바트 장'이 계시된 후 아부 라합과 그의 아내, 그리고 꾸라이쉬의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 우트바와 우타이바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그의 딸들과 혼인을 하면 너희는 그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된다. 그의 딸들과 파혼하여 그를 괴로움에 빠뜨려라. 그 대신 꾸라이쉬 부족 안에서 원하는 처녀를 골라라." 아들들은 이 제안을 수락하였다. 아주 사악한 우타이바는 제 분수를 넘어서 우리의 예언자를 찾아가 모욕을 주었다. "에이, 무함마드! 나는 당신과 당신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소. 또한 나는 당신 딸과의 혼약을 깼소. 당신과 나는 서로 존중할 일이 없을 것이고, 당신과 나는 서로 찾을 일도 없소!" 그런 뒤 그는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를 공격하여 목덜미를 잡았다. 그는 예언자의 윗 옷을 찢고 행패를 부렸다. 이 일이 있은 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맹수 하나를 그에게 붙게하소서!" 사악한 우타이바는 자신이 한 일을 아버지 아부 라합에게 이야기 하자 아부 라합이 말했다. "무함마드가 내 자식에 대한 탄원을 올렸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며칠 후 아부 라합은 장사 일 때문에 아들 우타이바를 다마스커스로 보냈다. 교역단은 자르카로 불리는 곳에서 숙영을 하게 되었다. 사자 한 마리가 주위를 맴돌기 시작하니, 우타이바는 이것을 보고 몹시 두려웠다. "아뿔싸! 무함마드의 저주가 받아들여진 게 틀림없구나! 이 사자가 나를 먹어치울 것이다. 그는 메카에 있지만 어쨌거나 나를 죽이는 구나!" 잠깐 뒤 사자가 사라졌다. 우타이바를 위해 가장 높은 곳에 잠자리를 마련하였다. 사자는 밤에 다시 나타났다. 사자는 교역단 사람들의 냄새를 하나씩 하나씩 맡았다. 그리고는 우타이바에게 접근하여 그를 덮쳤고, 그의 배를 갈가리 찢었으며, 그의 머리를 물어뜯어 고통스럽게 죽였다. 우타이바는 죽어가며 이렇게 말했다. "무함마드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진실한 말을 한다고 내가 말을 했던가요?" 아부 라합은 자신의 아들이 사자에 물어뜯겨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말했다. "무함마드가 내 아들에 대한 불운의 기도를 해서니 걱정이 된다고 내가 말하지 않던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사람들을 무궁한 행복으로 안내하고, 알라후 테알라의 존재와 유일성을 믿게 함으로써 그들을 지옥의 불길로부터 구원의 길로 초대하였다. 그러나 다신교를 믿는 자들은 '이것이 우리 선조들의 종교다.' 라며 우상숭배를 계속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그들에게 품위 있게 살고, 명예를 존중하며, 저속함에서 벗어나 높은 도덕을 고취하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그들은 완고하게 버티었다. 아부 라합은 예언자를 모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였다. 그는계속해서 예언자 뒤를 따라다니며 사람들에게 그분의 말을 듣지 말라고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에 의심을 불러 일으켰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대중들에게 연설을 할 때면 언제나 그가 뒤이어 나타나 말했다. "여러분! 방금 여러분에게 말한 이 사람은 내 조카입니다. 그의 말을 믿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그를 멀리 하시오!"

어느 날,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은 카바에서 예배를 올리고 있었다. 꾸라이쉬 다신교의 유명한 사람들 일곱 명이 다가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옆에 앉았다. 아부 자흘, 샤이바 빈 라비아, 우트바 빈 라비아, 우끄바 빈 아비 무아이트가 그들 중에 있었다. 근처에는 전날 도살된 낙타의 내장과 찌꺼기 등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비열한 아부 자흘이 그의 친구들을 돌아보며 추악한 제안을 하였다. "누가 이 낙타의 위장을 무함마드가 큰절(사즈다[12])을 할 때 그의 두 어깨 사이에 올려놓을 수 있겠는가?"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리고 가장 비열하고 야비하고 잔인하고 악덕한 우끄바 빈 아비 무아이트가 즉시 일어서며 말했다. "내가 하겠다." 우리 예언자가 큰 절을 하는 사이 그는 위장과 내장 찌꺼기를 예언자의 축복받은 어깨 위에 올려 놓았다. 이것을 본 다신교도들은 배를 잡고 웃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큰절을 한 다음 머리를 들고 일어서지 못하게 되었다. 그 때, 교우인 압둘라 빈 마수드가 이 광경을 보았다. 그는 이 일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이것을 본 나는 머리에 피가 치솟아 올랐다. 하지만 그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친족이나 부족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 나는 혼자였고 힘이 없었다. 나는 깊은 슬픔으로 예언자를 빤히 쳐다 보고 서 있을 뿐이었다. '나에게 강한 힘이 있었다면, 나를 보호 할 다른 사람들이 곁와서 내가 예언자의 어깨에 놓여있던 것들을 치울 수 있다면.'내가 이렇게 기대감에 젖었을 때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딸인 파티마 성인이 달려왔다. 그녀는 그 때 아직 어린 나이였는데, 아버지 어깨 위에 있는 것들을 보더니 집어서 내던져 버렸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에게 그런 짓을 한 사람들에게 처벌이 내릴 것을 기도하고 험한 말을 퍼부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배의식을 모두 마쳤다. 그리고 세 번 외쳤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나는 이 꾸라이쉬 사람들의 처벌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아부 자흘, 아므르 빈 히샴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우끄바 빈 라비아를 당신께 맡기나이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샤이바 빈 라비아를 당신께 맡기나이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우끄바 빈 무아이트를 당신께 맡기나이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우마이야 빈 할라프를 당신께 맡기나이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왈리드 빈 우트바를 당신께 맡기나이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우마라 빈 왈리드를 당신께 맡기나이다!" 이러한 처벌의 기도를 들은 다신교도들은 웃음을 멈추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그들은 카바 신전 '알라후 테알라의 집'에서 올린 기도는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예언자는 아부 자흘에게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하건대 너희들이 이러한 일을 멈추지 않으면,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 이후 바드르 전투에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거명한 사람들은 모두 사망하였으며, 그 시체들이 뜨거운 열기로 부페하여 그 악취가 바드르 협곡을 가득 채웠다.

[12] 예배 의례 중에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 사즈다를 끝으로 하나의 라카가 완성된다.

어느 날 카바의 바이둘라[13]에서 아부 자흘이 꾸라이쉬 다신교도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함마드 우리 종교를 서슴없이 비난하고, 우리의 우상들과 조상들을 능멸하며, 우리를 바보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약속 하거니와, 나는 내일 아주 무거운 돌을 가지고 그가 예배를 올리며 큰절을 하는 사이 그의 머리를 깨부수겠습니다. 그런 뒤에 여러분이 나를 보호하던지, 압둘 무탈립의 자손들에게 넘기던지, 아니면 대항하지던지, 이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그를 죽인 뒤에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거기 있던 다신교도들은 그를 부추겼다. "그대가 무함마드를 죽인다면 우리가 맹세코 당신을 보호하겠으며, 당신을 결코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겠소! 그러니 그를 결단코 죽이시오"

다음날 아침, 아부 자흘은 큰 돌을 가지고 카바로 갔다. 그는 다신교도들과 함께 앉아 기다렸다.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카바 신전, 알라후 테알라의 집에서 예배를 시작했다. 아부 자흘은 일어서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돌로 때리기 위해 그 쪽으로 다가갔다. 모든 다신교도들은 숨을 죽이고 그광경을 지켜보았다. 예언자에게 접근한 아부 자흘은 갑자기 부르르 떨기시작했다. 그 큰 돌은 손에서 떨어졌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되더니 무서운공포에 휩싸인 채 뒷걸음을 쳤다. 다신교도들이 그에게 가서 물었다. "오, 아므르빈 히샴이여! 무슨 일이 일어났소?" 아부 자흘이 말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돌을 들어올리자 사나운 낙타 한 마리가 내 앞에 나타났소. 맹세컨대 내 평생그 같은 낙타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소. 그 낙타는 키가 아주 크고 날카로운 큰이빨을 가졌소. 만약 내가 더 접근했더라면, 낙타는 결단코 나를 죽였을 것이오."또 하루는 아부 자흘이 다신교도들을 모아놓고 물었다. "압둘라의 고아가 여기에서 예배할 때 그의 얼굴을 땅에 대지 않소?" 그들이 그렇다고 하자 아부자흘이 말했다. "그런 상태의 그를 본다면 내가 그의 머리를 발로 찌그러뜨려버리겠소." 어느 날 우리의 예언자가 카바 안에서 예배를 올리고 있었다. 아부자흘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는 일어서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쪽으로걸어갔다. 아주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갑자기 얼굴을 손으로 가리더니도망치기 시작했다. 다신교도들이 그에게 가서 "무슨 일이 생겼소? 이게 웬일이요?" 라고 물었다. 아부 자흘이 말했다. "그와 나 사이에
구덩이가 생기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려는 것을 보고 도망쳐왔소."
왈리드 빈 무기라, 아부 자흘, 아스와드 빈 무탈립, 무마이 빈 할레프, 아스 빈 왈리, 아스 빈 와일, 하리스 이븐 까이스 같은 다신교도의 지도자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볼 때 마다 조롱하기 일쑤였다. "자기가 마치 예언자인 듯 지브릴 천사가 자기에게 온다는군." 하루는 예언자가 이러한 말을 듣고 대단히 마음이 불편해 하자, 지브릴 천사가 와서 몇 구절의 계시를 전했다.
'그대 이전의 예언자들이 조롱을 당했으나, 예언자들을 조롱한 자들은 그 조롱과

[13] 카바 신전. 카바의 사각형으로 된 알라후 테알라의 집을 일컫는다. 검은 천으로 덮혀져 있다. 103

놀림으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으로 휩싸일지다.' '안암 장'(6:10)의 해석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조롱하는 자들로부터 그대를 확실히 보호함이라, 알라후 테알라께 다른 신을 비유하는 자들은 곧 (무슨일이 닥치게 될지) 알게 되리니,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그들의 말(알라후 테알라 외에 신을 섬기고, 꾸란을 비하하고, 그대를 조롱하는 말)로 인한 그대 마음의 근심을 알고 있노라." '히즈르 장'(15:95-97)의 해석

어느 날, 예언자가 카바를 순회하고 있을 때 지브릴 천사가 와서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대를 조롱한 사람들을 징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잠시 후 왈리드 빈 무기라가 옆을 지나갔다. 지브릴 천사가 예언자에게 물었다.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우리의 예언자가 말했다. "가장 나쁜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자 지브릴 천사는 왈리드의 다리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죄에 대한 처벌을 했습니다." 조금 뒤 아스 빈 와일이 지나갔다. 지브릴이 그에 대해 예언자에게 묻자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지브릴은 그의 배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그 또한 죄에 대해 처벌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무리인 아스와드 빈 무탈립이 지나갈 때는 그의 눈을, 압디야그와스의 머리를, 하리스 이븐 까이스의 배를 각각 가리켰다. 그리고 지브릴은 말했다. "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그들의 해악으로부터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그들 모두는 곧 비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스 빈 왈리는 발이 가시에 찔렸다. 수많은 약을 써보았지만 낫지 않았다. 그의 발이 낙타의 목처럼 부어올라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가 소리쳤다. "무함마드의 알라후 테알라께서 나를 죽였다." 아스와드 빈 무탈립은 눈이 멀어버렸다. 지브릴 천사는 그가 머리를 나무에 부딪쳐서 죽도록 했다. 아스와드 빈 압디야그는 바디 사뭄이라는 곳에 갔을 때 그의 얼굴과 몸이 새카맣게 변했다. 집에 돌아갔을 때, 그의 가족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쫓아버렸다. 그는 상심하여 자기 집 문에 머리를 받고 죽었다. 하리스 빈 까이스는 소금에 절인 생선을 먹었다. 나중에 열이 오를대로 오르면서 심한 갈증을 느꼈다. 많은 물을 마셨지만 갈증을 달랠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배가 터져 죽었다. 그리고 왈리드 빈 무기라는 장딴지를 쇠 조각에 찔렸다. 그의 상처는 낫지 않았다. 과다한 출혈로 죽으면서 울부짖었다. "무함마드의 알라후 테알라께서 나를 죽였다." 이리하여 그들 모두는 각자의 행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렀다. 그들은 영원히 지옥에 머물게 된다고 꾸란 구절에서 전한다.

어느 날,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길에서 아불 아스를 만났다. 예언자와 헤어지고 난 후, 뒤에서 아불 아스는 입과 얼굴과 몸짓으로 예언자를 흉내 내며 조롱하였다. 예언자는 이를 보고 그가 그런 상태로 계속 있도록 탄원의 기도를 올렸다. 아불 아스는 몸을 떨기 시작하더니, 이후 그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 몸

을 떨었다.

교우들에 대한 고문(拷問)

다신교도들은 우리의 예언자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의 영예로운 교우들에게도 고문을 가했다. 그들은 특히 가난하고 외톨이인 교우들을 골라 서슴없이 억압하였으며 잔혹한 만행을 저질렀다. 그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은 빌랄 하바쉬이다. 빌랄 성인은 다신교도인 우마이야 빈 할라프의 총애받던 노예였는데, 아부 바크르 성인의 인도로 무슬림이 된 사람이다. 우마이야는 그의 열두 노예 중에서 빌랄을 가장 좋아했기 때문에, 우상들을 위한 사당의 경비일을 시켰다. 빌랄 성인은 무슬림이 된 후, 모든 우상들을 모두 옮겨서 큰절하는 모양으로 놓았다. 우마이야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빌랄을 불러 물었다. "너는 무슬림이 되어, 무함마드의 알라후 테알라께 큰절을 한다면서, 정말인가?" 빌랄 성인은 말했다. "예, 저는 위대하고 전능하신,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께 큰절을 올립니다." 우마이야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러한 답변을 듣자 곧 빌랄을 고문하기 시작했다. 우마이야는 해가 하늘 꼭대기에 오른 한낮에 빌랄 성인의 옷을 벗기고, 태양열에 달구어진 돌을 그의 벌거벗은 몸 위에 얹었다. 달구어진 돌무더기 위에 빌랄 성인을 눕히고, 그의 배 위에도 돌을 얹은 뒤 우마이야가 물었다. "이슬람을 포기하라! 랏과 웃짜의 우상들을 믿어라." 그러나 빌랄 성인은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밝혔다.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한 분 뿐입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유일하십니다!"

우마이야 빈 할라프는 이러한 그의 인내심을 볼수록 화가 치밀어, 그의 몸을 가시나무로 긁어 상처를 내는 고문을 가하였다. 몸에서 피가 엄청나게 흘러내림에도 불구하고 빌랄 성인은 굳은 신앙을 꺽지 않았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만족합니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만족합니다."

빌랄 성인은 이때의 일을 이렇게 전하였다. "그 나쁜 우마이야는 한낮의 무더위 속에 나를 묶어두고, 밤이 되면 고문을 했습니다. 어느 더운 날, 그는 평상시처럼 다시 나를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게 명령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라! 무함마드의 알라후 테알라를 부인하고, 부인하고, 또 부인하라!' 그는 나에게 나의 종교를 포기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유일하시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유일하시다!'고 그에 항거하였습니다. 그는 분을 풀기 위해 아주 큰 바위를 내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 몸 위에 있던 바위는 치워졌고, 태양은 구름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알라후 테알라께 감사드리며 "오, 빌랄! 절대자이신 알라후 테알라로부터 오는 것은 모두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라고 자신에게 말했습

니다.”

어느 날, 우마이야 빈 할라프는 다시 고문을 가하려고 빌랄 성인을 끌어냈다. 그는 빌랄 성인의 아래 속옷만 남기고 홀랑 벗긴 뒤에, 뜨거운 모래 위에 그를 눕히고, 뜨거운 돌들을 그의 몸 위에 얹었다. 우마이야는 불신자들을 모아 놓고 무거운 고문을 가하였다. 그들은 빌랄 성인을 위협했다. “만약 너의 종교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널 죽일 것이다.” 빌랄 성인은 이러한 견디기 어려운 고문 속에서도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유일하시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유일하시다!” 고 말했다.

이 때,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그 곁을 지나갔다. 그는 빌랄 하바쉬의 이러한 상황을 보고 매우 상심하였다. 예언자는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이름을 부르면 살아날 것이다.”

예언자가 집에 돌아와 있을 때, 아부 바크르 성인이 왔다. 예언자는 “나는 매우 슬픕니다.” 며, 그에게 빌랄이 고문을 견뎌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하였다. 아부 바크르 성인은 즉시 그곳으로 가 불신자들에게 말했다. “빌랄에게 이런다고 해서 당신들에게 무슨 득이 있습니까? 이 사람을 내게 파시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억만금을 준다 해도 그를 팔지 않겠소. 그러나 당신의 종 아미르를 준다면 바꿀 수는 있소.” 아부 바크르 성인의 노예인 아미르는 그의 장사 일을 도맡아 처리하여 큰 돈을 벌게 해주고 있었다. 아미르는 개인 재산 이외에 일만금의 주화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알라후 테알라를 믿지 않았으며, 죄악을 고집하고 있었다. 아부 바크르 성인이 말했다. “좋소. 나는 빌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당신들에게 아미르와 그의 모든 재산을 주겠소.” 우마이야 빈 할라프와 다른 다신교도들은 매우 좋아하며 “우리가 아부 바크르를 속여먹었다.” 라 했다.

아부 바크르 성인은 빌랄의 몸 위에 있던 무거운 돌들을 들어낸 후 그를 일으켜 세웠다. 심한 고문으로 쇠약해진 빌랄을 부축하고, 아부 바크르 성인은 그 즉시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에게로 갔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나는 오늘 알라후 테알라를 위해 빌랄을 해방시켰습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매우 행복해졌다. 그는 아부 바크르 성인을 위해 많은 은혜를 갈망하는 기도를 올렸다. 그 당시 지브릴 천사가 꾸란 ‘밤(레일)의 장’을 계시를 전하여 아부 바크르 성인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였다. 그 해석은 이렇다.

캅밥 빈 아라트 성인도 종교 포기를 강요하는 고문을 당했다. 그 역시 친척이나 친구가 없는 고단한 신세로, 움무 안마르라는 여자 다신교도의 노예였다. 그를 보호해 줄 친척이 없었으므로, 다신교도들은 수시로 모여들어 그의 옷을 벗기

고 가시나무로 몸을 찔러댔다. 어떤 때는 그의 알몸에다가 쇠로 만든 갑옷을 입혀 땡볕 아래 세워 두기도 했고, 햇볕이나 불에 달군 돌덩이들로 그의 알몸을 누르기도 했다. "네 종교를 포기해라! 랏과 웃짜를 숭배하라!" 캅밥 성인은 자신의 신앙을 고지하였으며, 그들에 맞서 부르짖었다. "알라후 테알라 외에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이다."

어느 날, 불신자들이 마을 광장에 모여 불을 피웠다. 그들은 캅밥 성인을 묶어 그리로 데려왔다. 그들은 캅밥 성인의 옷을 벗긴 후 그 불 위에 올려 눕혔다. 불신자들은 종교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를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윽박질렀다. 캅밥 성인은 불 위에 묶여 누운 채로 기도를 올렸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저의 상태를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저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제 마음에 큰 인내의 힘을 주소서!" 다신교도 중 한 사람이 캅밥 성인의 가슴을 짓밟아 눌렀다. 그러나 그들은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믿는 자들의 수호자이신 것을 모르고 있었다.

몇 년이 지난 후, 사람들이 캅밥 성인에게 이때의 일을 물었을 때, 그는 등에 난 상처를 보여주며 말했다. "그들은 나를 태워 죽이려고 불을 피워 나를 거기에 던져 넣었다. 그러나 내 몸이 불에 닿자 그 불은 꺼져버렸다."

한편 그의 주인인 움무 안마르는 쇠꼬챙이를 불에 달구어 캅밥 성인의 머리에 지지는 고문을 가했다. 그는 자신의 종교를 위해 모든 고통을 견디며 그들의 협박을 물리쳤다.

어느 날, 캅밥 성인은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있는 곳에 갔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다신교도들은 저를 불에 태우고, 집 주인 움무 안마르는 불 쇠꼬챙이로 제 이마를 지져댑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등과 이마에 난 상처를 보여주었다. 우리의 예언자는 그를 깊이 동정하여 기도를 올렸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캅밥을 도우소서!" 알라후 테알라께서 예언자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그 즉시 움무 안마르에게 격렬한 두통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밤새 두통에 시달리며 신음하였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불에 달군 쇠로 머리에 뜸을 떠서 치료하라고 했다. 결국 그녀는 캅밥을 불러 쇠막대기를 불에 달군 후 자신의 이마를 지져 뜸을 뜨라고 명령했다. 성인 캅밥은 그녀의 머리를 지졌다.

이슬람 초기에 다신교도들은 캅밥 빈 아라트 성인에 대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무슬림의 숫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자 결국 다신교도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캅밥 성인에 대한 고문이 나날이 심해졌다. 피가 나도록 발로 차고, 때리고, 상처를 입히고, 고문에 또 고문을 해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캅밥 성인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 전혀 양보하

지 않았다. 고문과 괴롭힘의 수준은 견딜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을 온 세상의 귀감인 예언자에게 설명하면서 그는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예언자는 말했다. "당신들 이전의 선조들 중에 쇠 빗으로 살 껍질을 벗기는 고문을 받으면서 종교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톱으로 머리부터 몸이 두 동강이 났었지만 결코 종교를 포기하지 않았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의심할 바 없이 우리의 종교(이슬람)를 완성시킬 것이다. (이 전의)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게 하신다. 놀라워하라, 혼자서 낙타를 타고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은 알라후 테알라 외에 아무 것도 무서워할 것이 없으며, 늑대가 자신의 양떼를 덮치는 것 외에는 걱정할 것이 없도다. 하지만 너는 너무 조급해 하고 있구나." 하면서 등을 쓰다듬고 기도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정신적인 양식이 되고 치료가 되는 이러한 말은 캅밥 성인의 고통을 덜어주었다.

'알라후 테알라께 헌신하고(다른 신을 믿지 않고 죄악을 멀리하며), 알라후 테알라 앞에서 스스로를 순결하게 하기 위해 (또 그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를 만나기 위해) 재산을 선한 일을 위해 바친 자들을, 지옥으로부터 멀리 하였노라.'(92:17-18)

캅밥 성인은 난폭하기로 이름난 아스 빈 와일에게 돈을 조금 꾸어준 일이 있었다. 그래서 돈을 받으러 갔더니 아스 빈 와일이 말했다. "네가 무함마드 를 부정하지 않는 한, 나는 돈을 되돌려줄 수 없다." 캅밥 성인이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하건대, 내가 살아있거나 죽은 뒤 무덤으로부터 부활하더라도 나는 결코 우리의 예언자를 거절하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나는 그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스 빈 와일은 빈정거렸다.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내 재산과 내 자손들이 있을 테니, 그 때 빚을 갚아주마." 아스 빈 와일의 이 말에 대하여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꾸란 '마르얌 장(19: 77-79)'을 계시하셨다. 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아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지금 내가 계시하는 말들을 부정하는 '분명히 내 재산과 자손들이 있을테니'라 한 자(아스 빈 와일)를 보았느냐? 아니면 모르던 것을 스스로 배웠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창조주로부터 약속이라도 받았는가? 그렇지 않도다. 우리는 그의 말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심판을 받으리라. 그에 대한 처벌은 더욱 더 가중되리라."

실신할 정도의 고문

불신자들은 고문을 가할 때에 남녀를 구분하지 않았다. 초기 무슬림 중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진니라라는 여인은 노예였다. 불신자들은 진니라 성인이 무슬림이 된 것을 알고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녀를 고문했다. 그녀의 목을 졸라 숨을 쉴 수 없게 되어 실신하곤 했다. 그들은 랏과 웃짜라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진니라 성인에게 강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코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유별나게 아부 자흘이 그녀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했다. 이 때문에 그녀는 눈이 멀게 되었다. 한 번은 아부 자흘이 말했다. “봐라! 랏과 웃짜가 너를 눈멀게 하였느니라.” 진니라 성인은 그녀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말했다. “오, 아부 자흘!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하건대, 당신의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랏과 웃짜라고 부르는 그 우상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들은 절을 받는지도 누가 절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지요. 나의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내 눈의 빛을 돌려주시고, 나를 이전의 상태로 돌려주실 절대적이신 분 이십니다.”

아부 자흘은 진니라 성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진니라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그녀의 눈은 예전보다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다. 아부 자흘과 꾸라이쉬 불신자들은 이러한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완고함을 꺾지 않고 이슬람을 믿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이것 역시 그들의 예언자의 마술일 뿐이다! 무함마드의 길을 따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은가? 만약 그 길이 유익하고 진실한 것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를 따랐을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노예가 진실을 발견했다는 말인가?”

이에 알라후 테알라께서 꾸란 ‘아흐까프 장’을 계시하셨다. 그 해석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 대하여; “만약 그(이슬람교) 안에 은총이 있었다면 그들이(가난한 자와 약한자) 우리를 제치고 앞서 가지 않았을 것이며 먼저 우리가 쫓아 갔을 것이다.” 라 하더라. 반면, 그들은 그들(꾸란과 성실한 신도들)로 부터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꾸란을 부정하기 위해) ; “이 꾸란은(무함마드가 내 놓은 오래된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리라.”(46:11)

아르캄의 집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교우들에 대한 다신교도들의 박해와 고문 때문에 매우 마음이 아팠다. 이슬람을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장소가 필요했다. 우리의 예언자는 이러한 신성한 의무를 위해 아크람의 집(다룰 아크람)을 선택했다. 이 집은 사파 언덕의 동쪽, 좁은 길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카바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집의 입구와 출구, 그리고 오가는 사람들을 확인하기에 매우 적절하였다. 게다가 아르캄 성인은 메카의 유명인사 중 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예언자는 이 집에서 교우들에게 이슬람을 설교하였다. 새로이 무슬림이 되려는 사람들은 이 집에 와서 이슬람을 받아들임으로써 영예롭게 되었고, 온 마음을 실은 예언자의 말씀을 듣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그들은 우리 예언자의 말을 들을 때, 마치 머리 위에 새가 앉아 있어 자칫하면 날아가 버릴까 싶어 숨을 죽이는 듯 한 자세로 경청하였다. 예언자의 축복된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마치 빨아들이듯이 모두 암기하였다. 우리의 예언자는 아침부터 밤까지 아르캄의 집에서 교우들을 가르치는데 바쁜 시간을 보냈다. 이 집은 무슬림들의 최초의 집결장소로 '다룰 이슬람'(이슬람의 집)으로 불렸다. 초기 무슬림들은 그곳에 집결함으로써 다신교도들의 해악으로부터 상당히 보호받을 수 있었다.

암마르 빈 야세르가 이 때의 일을 말했다. "나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만나 뵙고 무슬림이 되기 위해 아르캄의 집에 가려고 했다. 나는 입구에서 수하입을 만났다. 내가 그에게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고 묻자 그도 똑같은 질문을 내게 하였다. 나는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이 있는 곳에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무슬림이 되기를 원한다" 고 말했다. 그 역시도 같은 목적으로 왔다고 하였다. 우리는 함께 예언자에게 갔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슬람에 대하여 설명했다. 우리는 기쁨으로 무슬림이 되었다."
암마르는 무슬림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전사(戰士) 중의 한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종교를 버리지 않기 위해 아주 극심한 고문을 견뎌내었다. 다신교도들은 그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는 람다라고 하는 메카의 바위산으로 그를 끌고 갔다. 그들은 암마르의 옷을 벗기고 쇠로 만든 옷을 입혀 작열하는 태양 아래 세워두는 고문을 자행했다. 그들은 또 암마르의 등을 불로 태우기도 하는 등 오랜 고문을 가하면서 말했다. "너의 신을 부정하라! 부정하라! 랏과 웃짜를 숭배하면 너를 풀어주겠다!" 암마르 성인은 이러한 혹독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굽히지 않았다. "나의 신은 알라후 테알라께서시며 나의 예언자는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이다." 다신교도들은 몹시 화가 나서 불에 탈 정도로 달군 돌들을 그의 가슴에 얹었다. 그들은 또 암마르 성인을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도 하였다. 그 뒤 암마르 빈 야세르는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 앞에 가는

영예를 얻었다. 그가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불신자들이 저에게 가한 고문이 참으로 극심하였습니다." 우리의 예언자는 암마르 성인의 상태를 보고 매우 슬퍼하며 말했다. "암마르여! 야잔의 아버지여, 인내하라." 라 하며 "알라후 테알라께서시여! 암마르의 가족들을 모두를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면하게 하십시오" 라 기도를 했다.

첫 순교자

암마르 성인의 아버지 야세르, 어머니 수마이야, 형제 압둘라는 모두 무슬림이 되었다. 다신교도들은 그들에게 암마르에게 했던 것 보다 더 심한 고문을 하였다. 다신교도들은 혹독한 고문을 가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그들의 답변은 한결 같았다. "당신들이 우리의 가죽을 벗기더라도, 우리 몸을 갈기갈기 찢더라도, 우리는 당신들 말을 듣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는 " 알라후 테알라 외에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다." 고 말하며 신앙을 굳건히 하였다. 하루는 바싸라는 곳에서 야세르 가족이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귀감인 예언자가 지나가게 되었다. 교우들이 고문 당하는 것을 보고 몹시 슬퍼하였다. 야세르 성인이 물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우리들의 삶은 이런 고문들에만 매어있어야 합니까?" 예언자가 대답했다. "오, 야세르 가족이여! 인내하라, 의심의 여지 없이 당신들의 보상은 천국일지라." 하였다.

또 어느 날, 메카의 다신교도들은 암마르 성인 불로써 고문하고 있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그곳을 지나다가 이를 보고 말했다. "불이여, 이브라힘에게 했던 것처럼 암마르에게도 뜨겁지않게 하여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라!" 암마르가 등에는 상처가 있었는데 이는 예언자가 기도하기 전에 입었던 상처였다.

불신자들은 야세르 성인과 압둘라 성인을 고문 끝에, 활로 쏘아 그들이 순교하게 되었다. 또한 아부 자흘은 수마이야 성인의 발을 밧줄로 각각 묶어 낙타 두 마리로 하여금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걷게하여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수마이야 성인 역시 순교하였다. 예언자와 교우들은 이 일을 계기로 더욱 단합하고 더 강하게 뭉치게 되었다.
교우들(아사비 키람[14])은 이슬람식 예배를 할 때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가 비밀리에 행하였다. 하루는 사아드 빈 아비 와카스, 사이드 빈 자이드, 압둘라 빈 마수드, 암마르 빈 야세르, 캅밥 빈 아라트 등이 메카의 아부 둡이라는 계곡에서 예배를 올리고 있었다. 그때 아흐나스 빈 샤리크와 몇몇 다신교도들이 이들을 따라와 이슬람을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사아드 빈 아비 와카스 성인과 그의 친구들은 알라후 테알라를 모욕하는 소리에 참지 못하고 다신교도들을 공격하였다. 사

[14] 예언자를 한 번이라도 보거나 목소리를 들은 교우들

아드 성인은 낙타 뼈를 하나 주워 다신교도 중 한 사람의 머리를 후려갈겨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 그들은 겁을 먹고 달아났다. 그리하여 무슬림들은 최초로 불신자에게 신체적 해를 주었다.

무슬림이 된 아부 자르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신앙의 은혜를 받게 되어 이슬람의 빛은 메카 밖으로까지 확대되어 세상을 밝게 비추기 시작했다. 슬람의 탄생과 확대에 맞서 다신교도들은 이를 저지하고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 이슬람에 대한 소식은 바니 기파리 부족에게도 알려졌다. 아부 자르 일 기파리는 이러한 소식을 듣자, 그의 동생 우네이스를 메카로 보내 상황을 파악해 보라고 하였다. 우네이스는 메카로 가서 예언자의 집회에 참가하여 대단한 감명을 받고 돌아왔다. 그의 형인 아부 자르 성인이 “그래, 사람들이 그에 대해 뭐라 하던가?” 고 물었다. 당시 잘 알려진 시인들 중의 한 사람인 우네이스가 대답했다. “사람들은 그분을 시인이나 점쟁이, 또는 마법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은 점쟁이나 마법사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내가 그분의 말을 온갖 시인들의 시와 비교해 보았으나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특유한 말은 누구의 말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맹세하건대 그 사람은 진리을 알고 진실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말로 거짓말쟁이요 미혹에 빠진 자들입니다.”

아부 자르는 메카로 직접 가서 우리의 예언자를 만나보고 무슬림이 되기로 결심하였다. 지팡이 하나와 먹을 것 약간만을 챙기고 길을 떠났다. 그는 메카에 도착한 후 자신의 의도를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메카 사람들은 예언자와 새로이 무슬림이 된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대적하였고 박해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었다. 불신자들은 특히, 도와줄 사람이 없는 외톨이와 외지인들을 괴롭혔다. 아부 자르는 메카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나그네였다. 이러한 이유로 누구에게 아무 것도 물어볼 수 없었다. 그는 카바 근처에서 예언자를 보기 위해 기회를 기다리며 그가 있는 곳을 알아 낼 수 있는 단서를 찾으려 동정을 살폈다. 밤이 되자 그는 어느 길모퉁이에 앉아 있었다. 이때 알리 성인이 그가 갈 곳 없는 나그네인 것을 알아채고 그를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알리 성인이 아무 것도 묻지 않았으므로 그는 비밀을 말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아부 자르는 다시 카바로 갔다. 그러나 아무런 소득이 없이 다시 밤이 되었다. 다시 알리 성인이 전 날처럼 길모퉁이에 앉아 있던 아부 자르를 보았다. “이런 불쌍한… 아직도 집을 못 찾았군” 하고는 그의 집으로 데려갔다. 다음날 아침에도 아부 자르는 베이둘라의 모서리에 앉아 있었다. 그날도 예언자를 만날 수 없었다. 다시 또 알리 성인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다. 알리 성인은 마침내 그에게 어디서, 무엇하러 왔는지 묻게 되었다. 아부 자르 성인은 비밀을 지켜주면 말하겠다고 하였다. 알리 성인은 아무에게도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부 자르가 말했다. “나

는 여기에 예언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알리 성인이 말했다. "당신은 진리를 찾아 합리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그분에게 갈 것이니 나를 따라 오십시오. 내가 들어가는 문으로 당신도 들어 오시오. 길에서 누군가 위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내가 신발을 고쳐 매는 척 할 테니 당신은 그냥 모른 척 지나쳐 가십시오."

아부 자르 일 기파리는 알리 성인을 따라갔다. 마침내 그는 우리 예언자와 대면하게 되었다. 그는 예언자에게 "앗쌀라무 알라이쿰(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를 올렸다. 이슬람에 있어 이러한 인사의 말을 한 것은 아부 자르가 처음이었다. 우리의 예언자는 "와알라이 쿰 쌀람!(알라후 테알라의 은혜가 당신에게 깃들기를 !)" 하고 인사를 받았다. 예언자가 그에게 누구냐고 묻자 그가 대답했다. "저는 기파르 부족 사람입니다." 예언자가 여기 며칠 머물렀느냐고 묻자 그는
3 일 밤 낮 동안 있었다고 대답했다. 예언자가 물었다. "누가 당신에게 음식을 주었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나는 잠잠 우물 이외에는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잠잠 우물의 물을 마시면 나는 배고픔이나 갈증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예언자가 말했다. "잠잠 우물은 축복받은 물입니다.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지요." 그러자 아부 자르가 예언자에게 청하였다. "저에게 이슬람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언자는 신앙고백을 읊었으며, 아부 자르는 이를 따라 읊어 무슬림이 되는 영예를 얻었으며, 초기 무슬림의 일원이 되었다. 아부 자르 일 기파리 성인은 무슬림이 된 후 예언자에게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당신을 보내주신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컨대 나는 나의 믿음을 다신교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카바 근처로 가서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오, 꾸라이쉬 공동체여! 아슈하두 안라 일라하 일랄라 와 아슈하두 안나 무함메딘 압두후 와 라술루 (나는 믿음으로 증언하거니, 위대하신 알라후 테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그분의 종이며 사도이라)"

이 소리를 들은 다신교도들은 그 즉시 아부 자르를 공격하였다. 그들은 아부 자르를 돌과 몽둥이로 마구 던지고 때려 피범벅으로 만들었다. 이때 압바스 성인이 이 광경을 보고 말했다.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게, 그를 죽일 참인가! 그의 부족은 우리가 장사를 하러 다니는 길목에 살고 있다. 그 길로 다니고 싶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그는 아부 자르를 불신자들로부터 구해냈다. 아부 자르는 무슬림이 된 게 너무 기뻐서 가만히 있지를 못 했다. 다음날에도 카바 근처에서 신앙고백을 몇 번이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시 얻어맞고 기절해 있는 그를 압바스 성인이 간신히 구해냈다. 우리의 예언자는 아부 자르에게 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 거기서 이슬람을 전파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그는 부족으로 돌아가 알라후 테알라의 유일성과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는 예언자가 전하는 말이 진실하고올바르다고 말했으며, 그들이 숭배해 오던 것은 거짓되고 쓸모 없는 것이라고역설했다. 그를 듣던 사람

들 중에서는 그를 반대하며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도있었다. 부족의 수장인 하파프는 소란을 가라 앉히고 말했다. "멈추시오.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 봅시다." 아부 자르 성인은
말을 이었다.

"내가 무슬림이 되기 전 어느 날, 나는 누함 우상에게 가서 그 앞에 우유를 바쳤습니다. 그때 개 한 마리가 다가오더니 우유를 모두 핥아먹고는 우상 앞에다 오줌을 누었습니다. 나는 그 우상은 이를 제지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 조차 모욕을 당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분의 처지가 한심합니다. 이것은 미친 짓 아닙니까? 당신들이 숭배하던 우상의 참 모습을 보시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옳은 말씀이오. 당신이 언급한 그 예언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부 자르가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은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유일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신앙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훌륭한 도덕과 사람들이 서로 돕는 사회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자신의 딸을 산 채로 땅에 묻는 악행과 저질렀던 모든 불의, 잔혹함을 금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이슬람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자신의 부족이 저지르고 있는 악습을 일일이 열거하였다. 하파프 수장과 아부 자르의 동생 우네이스를 비롯한 많은 청중들이 무슬림이 되었다.

카바에서 공개적으로 꾸란을 읊다

교우들이 하루는 외떨어진 곳에 모여 담화를 나누고 있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외에는 꾸라이쉬 다신교도들에게 꾸란을 공개적으로 들려줄 사람이 없지 않은가? 누가 그들에게 꾸란을 읊어 들려줄 수 있겠는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압둘라 빈 마수드가 말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몇몇 교우들이 말렸다. "오, 압둘라! 다신교도들이 그대를 해칠 것이 걱정되오. 필요할 때 다신교도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또 친족들과 부족 사람들이 있어 곤경에 처했을 때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누구를 원하오." 라하자 압둘라는 "저를 허락해 주십시오. 알라후 테알라께서저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라 고집했다.

그 다음날 오전에 그는 카바의 '마깜-이 이브라힘[15]'이라는 곳에 갔다. 다신교도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 압둘라는 선 채로 비스밀라를 먼저 읊고 나서 꾸란 '라흐만 장'을 낭송하였다. 다신교도들은 서로 물었다. "움무 압드의 아들이 뭐라고 하는 건가? 아마도 무함마드가 가져 온 것을 읊는 모양이군!" 그들은 압둘라를 공격하였다. 마구 차고 밟고 때려서 그의 얼굴과 눈은 멍들고 부어 분간이 어

[15] 아브라함의 거주지, 카바 바이둘라 근처에 있다

려웠다. 그러나 압둘라는 얻어 맞으면서도 읊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얼굴에 상처를 입은 채 교우들에게 돌아왔다. 교우들은 매우 안타까워 하면서 말했다. "이 같은 일을 우려하였더니, 결국 우려했던 것이 실제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압둘라 빈 마수드는 전혀 아랑곳 하지 않았다. "알라후 테알라의 원수들이 오늘처럼 약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내일 아침에도 그들에게 꾸란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교우들은 말했다. "아니되오, 그만하면 충분히 했소! 당신은 그 사나운 불신자들에게 그들이 거부하는 것을 똑똑히 들려주었소."

투파일, 무슬림이 되다

예언자는 메카에서 공개적으로 이슬람을 전파하기 시작하여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권고하여 이슬람교로 초대를 하던 몇 년 동안, 메카 다신교도들은 예언자의 이러한 열의를 꺾기 위해 갖은 방도를 다하였다. 그들은 예언자의 말을 듣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갖은 계략과 모함 그리고 고문을 하였다. 예언자를 만나거나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는 즉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갖은 협박을 하였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예언자와 만나지 못하도록 갖은 수단을 동원하였다.

무슬림들이 불신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이런 시절에 투파일 빈 아므르 앗다우시라는 사람이 메카에 당도하였다. 다신교도의 지도자들은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오, 투파일! 우리 고장에 잘 오셨소. 우리 가운데서 압둘라의 고아가 나타나 아주 놀라운 일을 벌이고 있소. 그의 말은 마치 마법사와 같아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오. 그는 아버지와 아들, 형제와 형제,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놓고 있답니다! 그는 공공연히 분란을 일으켜서, 그의 말에 현혹한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조차 안중에 두질 않습니다. 이러한 분열의 재앙이 당신 민족에게 전염될까 두렵습니다! 당신에게 충고하자면 그와는 절대 이야기하지 마시요! 그의 말은 듣지도 말고 그에게 말도 건네지 마시요. 그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마시요! 아주 주의하시요. 이곳에 오래 머물지 말고 곧바로 떠나시요!"

투파일 빈 아므르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여러 번 주의를 줬기에 나는 그와 절대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말을 듣지 않기로 작정했다. 어쩌다 그의 말이 들릴까봐 아예 귀에 솜을 틀어막고 카바에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카바에 갔다. 이때 나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예배를 올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분의 가까이 있었는데 그분이가 무언가를 읊는 것이 어렴풋이 내 귀에 들어왔다. 내가 듣기에 그 소리는 아주 아름다웠다. 나는 내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게다가 나는 시인이지 않는가? 이 사람의 말을 왜 듣지 말아야 하는가? 그의 말이 옳으면 받아들이면

되고, 그의 말이 그르면 따르지 않으면 된다.'나는 한 쪽으로 숨어서 그의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는 그의 뒤를 몰래 따라갔다. 예언자가 그의 집에 들어갈 때 나도 따라 들어가서 말했다. "오, 무함마드여! 내가 이 지방에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러저러 하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당신과 거리를 두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솜으로 귀를 막기까지 하였습니다. 어쨌거나 알라후 테알라께서 내가 당신의 낭송의 일부를 듣도록 하셨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이제 저에게 하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언자는 이슬람을 설명하고 꾸란 몇 구절을 읊어주었습니다. 그처럼 아름다운 소리는 생전 처음 들어봤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즉시 나는 신앙고백을 하고 무슬림이 되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저는 우리 부족 중에서 영향력 있고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무도 저의 말을 어기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그들을 이슬람의 종교로 초대하고자 하니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저에게 어떠한 징표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징표는 제가 우리 부족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인도하는데 있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청원이 받아들여져 알라후 테알라의사도가 기도를 올렸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그에게 하나의 기적과 징표를 내려주소서!"

이후 나는 고향으로 되돌아 왔다. 한 밤중에 나는 고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다. 내 이마에서 등잔 같은 어떤 빛이 나타나 주위를 환히 밝혀주는 것이었다. 나는 기도를 올렸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우리 무지한 부족사람들이 내 이마의 빛을 종교를 배반한 것에 대한 신의 커다란 징벌이라 생각하지 않도록, 이 빛을 제 이마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옵소서!'그러자 그 빛은 곧 내 손에 쥐고 있던 채찍 끝으로 옮겨졌다. 내가 마을에 가까이 다가가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내 채찍 끝의 등불 같은 빛을 보고 서로 쳐다보며 궁금해 하였다. 이러한 모습으로 언덕을 내려와 집으로 들어갔다. 내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를 보고 뜨겁게 껴안았다. 아버지는 매우 연로하였다.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여, 이전처럼 살겠다면 나는 당신을, 당신도 나를 알지 못합니다.!" 이 말에 아버지는 깜짝 놀라 물었다. "오, 내 아들아!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나는 대답했다. "나는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의 종교를 받아들여 무슬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나도 네가 받아들인 그 종교를 받아들이겠다. 너의 종교가 또한 나의 종교이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신앙고백을 하고 무슬림이 되었다. 나는 이슬람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아버지에게 모두 가르쳐 주었다. 아버지는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잠시 뒤 내 아내가 들어오자 나는 아버지에게 했던 데로 하여 그녀도 무슬림이 되었다.

아침이 되자 나는 다우스 부족 사람들에게 갔으며, 이슬람에 대한 것을 알리고 그들 모두를 이슬람으로 초대했다. 그러나 그들은 받아 들이기는 커녕 아주 오랫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

더러, 한술 더 떠, 눈과 눈썹을 치켜들고 나를 놀리고 모욕을 주기까지 했다. 이자와 도박의 중독 때문에 그들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슬람에 복종하지 않았다. 알라후 테알라와 그의 사도에게 대항하였다.
시간이 지난 후 나는 메카로 가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우리 부족에 대한 불평을 털어놓았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우리 다우스 부족은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께 대항하고, 저의 이슬람에의 초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소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그분은 손을 펴더니 카바 쪽을 향하여 기도를 올렸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다우스 백성들에게 참된 길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이슬람의 종교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내게 말했다. "너희 부족에게 돌아가라! 그들에게 웃는 얼굴과 부드러운 말로 이슬람에 계속 초대하라! 그들에게 온유하게 처신하라!" 나는 즉시 고향으로 돌아왔으며 쉴 새 없이 다우스 부족을 이슬람 종교로 초대했다."

축제에서의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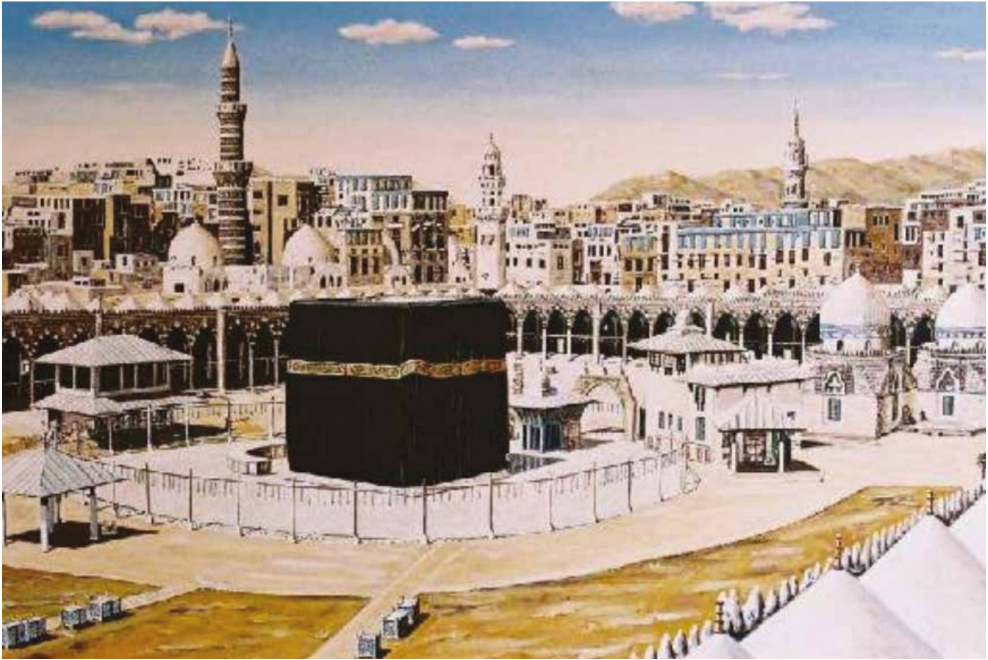
메카 주위의 여러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해마다 정해진 시기에 카바를 방문하는 것을 관례로 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슬람을 전파하였다. 예언자는 그들에게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오직 한 분뿐이며 자신은 그분의 사도라고 밝히고, 구원은 오로지 이 길에서 주어진다고 알렸다. 어느 날, 왈리드 빈 무기라가 다신교도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꾸라이쉬 사람들이여! 이제 카바를 방문하는 축제일이 되었소. 무함마드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퍼졌고 아랍 부족들은 그의 달콤한 말에 홀려 그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단합하여야 합니다. 그에 대해 여러가지 말을 잘 못 퍼뜨려서 오히려 우리를 거짓말쟁이라 할까 염려됩니다." 불신자들이 말했다. "압디샴스의 아버지여! 당신은 우리 중에 가장 멀리 내다보는 분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라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방문객들에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왈리드가 대답했다. "아니되오. 당신들이 방안을 이야기 하시오." 라 하자 어떤 사람이 말했다. "그를 점쟁이라고 하겠습니다." 왈리드가 말했다. "아니되오. 우리가 많은 점쟁이를 보았지만 맹세컨대 그는 점쟁이는 아니오.

그는 옳고 그름을 주저 없이 이야기 합니다. 무함마드의 낭송은 점쟁이들이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게다가 우리는 무함마드가 거짓말하는 것을 여태 들어보지 못했소. 우리가 그를 점쟁이라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게요." 이때 누가 말했다. "미치광이 또는 정신이상자라고 합시다." 왈리드는 다시 반대했다. "아니되오! 맹세컨대 그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치광이 또는 정신이상자의 증세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갑자기 숨이 막힌다던지 몸이 비틀리는 전율, 아니면

이유 없는 공포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미쳤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반박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를 시인이라 합시다 고 하자 왈리드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또한 시인이 아니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시를 잘 알고 있는데, 그의 낭송은 시와 전혀 다르오." 누가 "마법사라고 합시다." 하자 왈리드가 말했다. "아니되오. 우리는 마법사를 잘 알고 있고 그들도 잘 알고 있어 안됩니다. 무함마드의 말 속엔 마법의 증거를 찾아볼 수 없소. 이제 그의 말은 온 세상 어떤 사람 보다도 우월하오. 그는 이미 알려진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그와 이야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소. 우리가 그를 무엇이라 부른다 해도 사람들은 거짓말로 알아들을 것이오." 꾸라이쉬 사람들은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하자 왈리드에게 말했다. "당신은 가장 연장자이고 경험도 풍부하니 우리는 당신 말을 따르겠습니다." 왈리드 빈 무기라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꺼냈다. "아무래도 그를 마법사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소. 왜냐하면 그의 말때문에 사람들이 분열되고, 형제와 친구들이 등을 돌리게 되었으니 말이오." 꾸라이쉬 불신자들은 그 즉시로 뿔뿔이 흩어져 메카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말했다. "무함마드는 마법사다!" 라 하여 민중들 사이로 퍼져 나갔다. 그리하여 각지에서 메카를 방문하는 부족들은 예언자와 만나기를 꺼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반대로, 다신교도들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이슬람교는 모든 아랍 민족의 귀에 들어갔으며 우상숭배에 대한 커다란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것으로 인하여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불신자 왈리드 빈 무기라를 혹독하게 징벌할 것이라는 '뭇다씨르 장'을 계시하셨다. 그 해석은 이렇다. '(나의 사도여)내가 그를 홀로 창조하였거늘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세상에 태어났거늘), 그(왈리드 빈 무기라 같은 불신자)의 일(처벌)를 내게 맡겨라. 그에 대한 처벌은 나에 속한다. 그 거역자를 내가 창조 했도다. 실로 나는 그에게 많은 재산을 있게 하였다. (그는 소유의 자격이 없는 은혜를 모르는 자로, 내가 그에게 풍성함을 베풀어 주었노라. 좋은 밭과 토지, 재산을 내가 주었노라) 기존의(메카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손들이 있게 하였도다. (그와 함께 풍요한 생활을 누렸도다) 그를 번영케하고 높은 지위에 있게 하였도다.(메카에서 높은 관직을 차지하게 하였다. '레이하네 툴 아랍'이란 칭호를 얻게 하였다. 자신을 부족들 중에 선택된 자로 소개할진데. 이 모든 영광에 감사를 표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이 모든 것을 그에게 선사한 알라후 테알라를 인정하고 그분을 믿어야 마땅하지 않던가?) 이후 (은혜를 모르는 하리스는) 내가 베푼 것들(재산과 자손들)을 더 주기를 바라고 있도다. (주어진 은혜의 고마움을 알고 감사를 하려 들지 않는구나. 이 얼마나 큰 욕심인가, 이 얼마나 망칙스러운 짓인가?)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나니(그 거역자의 분에 넘치는 과욕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지다. 그의 재산과 자식들이 더 번성하지 아니할지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알라후 테알라의 계시(꾸란)를 거역하였노라.(나의 사도가 충실하고, 예언자임을 마음 깊은 곳에서 깨우쳤음에도

메카 알 무카라마의 옛 모습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부려 이를 부정하는 용기를 보였도다. 그토록 타락했도다!) 그에게 사우드[16](사우드와 관련하여 하디스 세리프에; '사우드는 지옥에 있는 산이다. 알라후 테알라를 믿지 안니한 자는 70 년에 걸처 산 꼭대기에 도달하고 거기서 떨어진다. 이를 수없이 반복한다'라 기록되어있다.) 처벌을 내리겠다. 이후 그 거역자가 (예언자가 읊은 신성한 꾸란을 어떻게 비방을 할 것인가를) 고심을 하여 하나의 방안을 낸다.(음모의 말을 준비한다). 그에게 천벌을 내리고 또 내릴지다. (신성한 꾸란에 대해) 어찌 공상하여 음모를 하느냐.
나중에 (부족사람들에게 꾸란에 대해 어떻게 얘기 할 것인가를) 살폈다. 이후(화가 치밀어 또는 신성한 꾸란을 비방할 것을 찾지 못하여) 눈썹을 찡그리고 얼굴에 주름을 잡더라. 이후(알라후 테알라와 그의 사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얼굴을 외면하여 오만해지더라. "이는(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이 말한 것은) 단지 마술사로부터 배워서 지어낸 마술에 지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이는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다." 라 했더라. 사실 그 자는, 신성한 꾸란은 신의 학문이라는 것을, 사람이나 진의 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몇번씩이나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었다. 이후 이 거역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말을 바꾸어, 신성한 꾸란에 대하여 절대 있어서는 아니될 모함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댓가로 크나큰 처벌

[16] 사우드와 관련하여 하디스 셰리프에; '사우드는 지옥에 있는 산인다. 알라후 테알라를 믿지 안니한 자는 70년에 걸쳐 산 꼭대기에 도달하고 거기서 떨어진다. 이를 수없이 반복한다'라 기록되어있다.

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를 세카라 지옥으로 내 던지겠노라. 세카라 지옥이 어딘인지 누가 얘기 하더냐 그 지옥은 너의 몸덩이를 형체도 찾아 볼 수 없도록 파괴시키고 또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같은 처벌을 반복하느니라.'(74:11-25)

다신교도들이 꾸란을 듣다

다신교도의 우두머리들은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여 사람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그들은 메카 사람들이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의 낭송을 듣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자신들은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의 집 근처에 숨어서 몰래 그 낭송을 듣고는 하였다. 아침이 되자 그들은 비밀리에 꾸란의 낭송을 들었다는 것을 서로 알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면서 말했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자!" 하지만 다음 날 저녁, 그들은 서로에게 알리지 않은 채 예언자 집 근처로 다시 가서 보이지 않는 구석에 숨어 몰래 꾸란을 들었다. 날이 밝아오면 그들은 서로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곤 하였다.

그들은 다시는 이 같은 일을 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헤어졌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다. 어쨌거나 그들은 자신의 욕망에 굴복하고, 거만함과 헛된 희망에 사로 잡혀 있었으며, 다른 다신교도의 비난을 두려워하여 이슬람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것도 방해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소리치곤 하였다. "무함마드는 마법사다!"

어느 날 오후, 다신교도들이 카바 주위에 모여 의견을 모았다. "무함마드를 초청하여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지 않게 하고,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들은 전갈을 보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초청하였다. 우리의 예언자는 카바에 와서 불신자들 앞에 앉았다. 그들이 말했다. "오, 무함마드! 우리가 전갈을 보낸 이유는 당신과 결판을 내기 위해서요. 당신처럼 아랍 민족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킨 사람은 없었소. 당신은 우리의 종교를 비판했으며, 우상을 비난하였소!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았소! 우리의 결합을 파괴하고, 서로가 다투게 했소! 당신은 온갖 재난을 초래했소!. 만약 당신이 재물을 얻고자 이런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재물을 모아 주겠소. 또 명예와 영광을 원한다면 그대를 높이 받들어 모시겠소. 우리들의 통치자가 되겠다면 모든 사람들을 불러 통치자로 추대하겠소." 온 세상의 귀감인 예언자는 그들의 말을 인내심 있게 들은 뒤에 위대한 답변을 하였다. "오, 꾸라이쉬 공동체여! 그 중에 아무것도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재산이나 명예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가져온 것은, 재산이나,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한 통치자가 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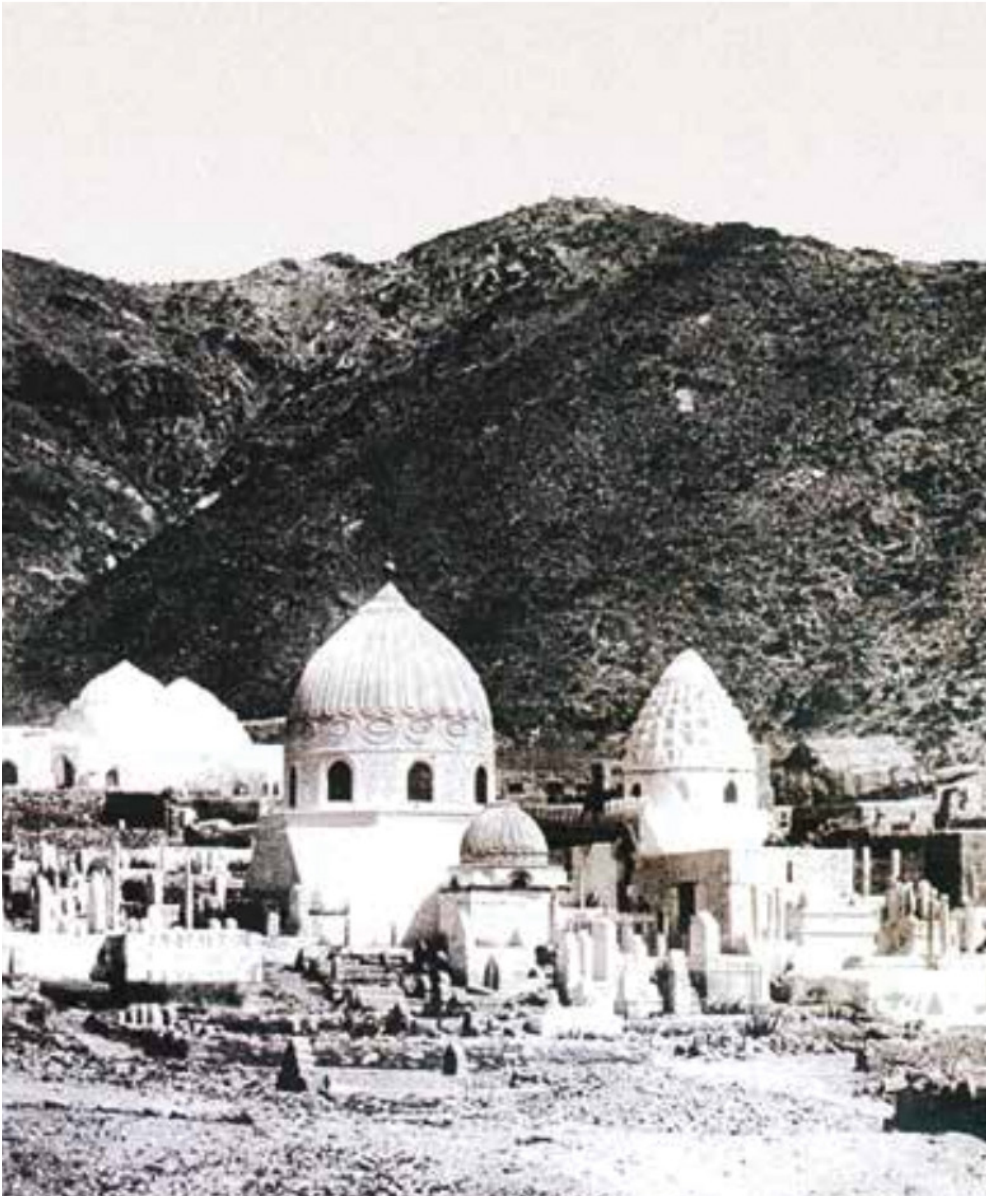
해서가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예언자로 나를 당신들에게 보내셨고 계시를 내려주셨습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당신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소식을 전하고 믿지않는 자에게는 지옥을 경고하라고 나에게 명하셨습니다. 나는 알라후 테알라의 명령에 따라 당신들에게 알려주고 충고를 하였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나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이 세상과 사후 세상에서 당신들은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나와 그대들 사이에 누가 주도권을 잡을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알라후 테알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맞서겠소…"

아부 자흘, 우마이야 빈 칼라프, 그리고 다른 불신자들은 말했다. "오, 무함마드! 우리처럼 생활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민족이 어디 있겠소. 당신은 예언자라 했으니 알라후 테알라께 탄원하여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저 산들을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시오! 또한 우리의 땅을 넓혀주고 이란과 다마스커스 사이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과 같은 하천들을 만들어 살기 좋게 만들어 주시오! 덧붙여서 우리의 선조인 쿠사이 빈 킬랍 같은 위대한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오! 그는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라 당신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에게 물어봅시다! 만약 그가 당신이 맞다고 인정하고, 알라후 테알라께서 당신의 요청을 받아들이신다면 , 우리는 당신을 믿겠소. 이로써 우리는 알라후 테알라 앞에서의 당신 지위를 알 수 있을 것이오. 만약 당신이 이 같은 일을 할 수 없다면 당신 자신을 위해 알라후 테알라로부터 무언가 구해야 할 것이오. 당신의 말을 입증하여 주고, 우리한테서 당신을 지켜 줄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하시오. 또한 당신의 알라후 테알라께서 당신에게 밭과 집과 재물을 내려달라 하여 빈곤에서 벗어나시오. 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장을 돌아다니며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소."

세상의 귀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 당신들에게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알라후 테알라의 명령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당신들에게 전달할 뿐입니다. 나는 알라후 테알라께 어떤 재산과 재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당신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소식을 전하고 믿지않는 자에게는 지옥을 경고하라고 나에게 명하셨습니다. 나는 알라후 테알라의 명령에 따라 당신들에게 알려주고 충고를 하였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나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이 세상과 사후 세상에서 당신들은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나와 그대들 사이에 누가 권력을 잡을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알라후 테알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맞서겠소!" 이 때, 다신교도들이 말했다. "당신의 알라후 테알라께서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 위에 있는 이 하늘을 찢어 우리 위로
떨어지게 하시오! 그렇게 못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믿을 수 없소!" 알라후 테알라

의 사도가 말했다. “이것은 알라후 테알라의 소관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정말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한 수 더해 말했다. “오, 무함마드! 당신의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같이 앉아 무엇을 묻고, 요구할지 모르고 계셨나 보군요. 당신에게 소식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으니 말이요. 우리가 당신이 알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왜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알려주지 않았나요? 당신이 천사를 불러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을 믿을 수 없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당신에게 책임이 없소. 우리가 당신을 없애던지, 아니면 당신이 우리를 망하게 하던지….” 라 했다. 그들이 가까워지리라 기대했건만 이렇게 모두들 더 멀어져 가는 것을 본 예언자는 그 자리를 떠났다.
다신교도들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거절한 것에 대해 알라후 테알라께서 지브릴 천사를 통해 그들에게 답변을 계시하셨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안암 장’을 통하여 가혹한 징벌이 불신자들에게 내려질 것이라고 하셨다. 그 해석이다.
‘알라후 테알라의 계시가 그들에게 도래하였는데도 그들이 외면하더라. 꾸란의 절들이 그들에게 도래했을 때, 그들은 거짓이라 하였다. 하지만 곧 그들에게 무엇을 조롱했는지 그 소식(처벌)을 알게 되리라.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그들 이전의 많은 세대를 멸망케 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여태 보여주지 않았던 온갖 은혜를 그 세대들에게 베푸셨음을; 하늘에서 비를 내려 물을 풍부하게 하셨고, 들과 밭과 집앞에 흐르는 강들이 있게 하셨도다. 그들은 이러한 은총에 감사하지 않았으며, 죄악으로 말미암아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그들을 멸망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두셨노라. 만약 너희들에게 성문화된 성서를 보내시어, 그것을 손에 들고있다 하여도, 불신하는 자들은 ‘실로 이것은 마술일 뿐입니다’라고 말했으리라. 또 그들은 ‘천사가 그에게 임하지 아니 하는가’하더라. 천사를 그에게 임하도록 하였다면 확연하게 일이 끝나 버리게 되었을지다.(그들은 모두 파멸되었을지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예언자로 한 천사를 보냈다 하더라도 한 인간으로 여기고, 같은 의구심에 빠져 계속 의심했을지다.

이전의 많은 예언자들이 조롱을 당하였고, 그들은 조롱의 죄악에 대한 처벌로 에워 쌓여졌노라. 그들에게 이르되, 세상을 두루 살펴서 예언자를 거짓 증언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떠했는가를 보라.’ (6:4-11)

또한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푸르깐 장’을 통하여 계시를 내려 불신자들이 예언자를의심하고 박해함을 꾸짖으셨다. 그 해석은 이렇다.
‘이때 또 불신자들이 말하기를 ‘음식을 먹고 시장을 걸어 다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언자인가? 예언자라면 왜 천사가 그에게 내려와 그와 함께 하며 도와주지 않는가? 우리에게도 지옥을 알리며 경고할텐데. 왜 알라후 테알라께서 보물을 그에게 수여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에게는 과일을 즐길 수 있는 정원을 주지 않는가?’ 죄인들이 말하기를, ‘만약 그에게 믿는다면 너희는 마술에 걸린 한 남

잔나트 알 무알라

'많은 동료들, 특히 우리 어머니 하즈라트 하디자 (라디얄라후 안하)의 무덤이 있는 묘지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무덤을 볼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와하비 정부는 이 아름다운 역사적 기념물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자를 따르고 있을 뿐이라.' 나의 사도여, 보라 그들은 그대를 어떻게 비유하였는가? 그들은 진리에서 벗어나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노라. 위대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뜻하심이 있어, 더 좋은 것을 주시리니 그대에게 강이 흐르는 낙원과 궁전을 주실지다.' (25:7-10)

'알라후 테알라를 뵙기를 바라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천사들이 내려와 무함마드가 사실을 말한다고 증언할까? 또는 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보지 못하는가'라고 말하니 실로 그들은 스스로 교만하고 불손하더라.' (25:21)

'싸바아 장'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그들 앞뒤로 펼쳐져 있는 하늘과 대지를 보지 못하는가? 만일 알라후 테알라께서 원하신다면 (카룬 처럼, 꾸란에 계시된 진실을 알면서도 거짓이라 한 댓가로) 대지로 하여금 그들을 삼키도록 하거나 하늘에서 불덩이를
내려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리라. '(34:9)

또한 '이스라 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시하고 있다. 그 해석은 이렇다.

"... 또한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심판의 그날에 눈을 멀게하고,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어 양처럼 고개를 숙여 모이게 하리니, 그들의 있을 곳은 지옥이라. 그 불이 약해 질 때면 불길을 더욱 강하게 하시리라!"(17:97)

다신교도들은 자신들에 대한 위와 같은 꾸란 구절들의 계시가 내려오자 더욱 더 잔악해졌다. 특히 우바이 빈 할라프와 그의 형제 우마이야는 예언자를 아주 슬프게 하였다. 사악한 우바이는 썩은 뼈를 손에 들고 예언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말했다. "오, 무함마드! 이 뼈가 이렇게 썩은 후, 당신의 알라후 테알라께서 부활시킨다며 정말 그러한가요? 당신은 뼈가 썩어도, 당신의 주인이 부활시킨다고 생각한다 이거요?" 그리고는 그 뼈를 부수어 그 가루를 불어서 예언자를 향해 날렸다. 예언자가 대답했다. "물론이지요.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그대를 죽게 하시고, 나중에 다시 살려 지옥에 넣을 것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다시 '야신 장'의 계시를 내리셨다.

'그 거역자는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를 한 방울의 정액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이를 정말로 몰랐던가? 누구나 알고 있거늘, 이를 거부하는 자가 나타나서 그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잊어버리고 말하기를 '썩어 버린 이 뼈에 누가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가'하더라. (나의 사도여!)일러 가로되, 알라후 테알라께서 태초에 그들을 창조한 분이시니 다시 그들을 부활시키시리라. 실로 그 분은 모든 것을 알 권리를 소유하신 분이다. 푸른 나무에서 너희를 위해 불을 만들어 낸 것도 그분이니 너희는 그것으로 불을 밝히노라. 하늘과 대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 같은 것들을 만드실 수 없단 말인가?

칼리드 빈 사이드의 입교

이슬람의 선교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무렵, 칼리드 빈 사이드는 어떤 꿈을 꾸었다. 꿈에서 그는 지옥의 가장자리에 서 있을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밀어 지옥으로 떨어뜨리려 하였다. 바로 그때 우리의 예언자가 나타나 그의 허리를 낚아채, 지옥으로 떨어지는 칼리드를 구해내었다. 그는 흐느껴 울며 꿈에서 깨어나 말했다. "맹세코 이 꿈은 진실이다." 그는 밖에서 아부 바크르 성인을 만나게 되자 그 꿈 이야기를 하였다. 아부 바크르 성인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꿈은 현실이 될 것이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의 예언자입니다. 이제 그분에게 가서 그분을 따르십시오. 당신은 그분의 곁에 머물 것이며, 그분의 종교를 받아들일 것이고, 그분과 동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꿈에서 본 대로, 그분은 당신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칼리드 빈 사이드 성인은 꿈의 영향을 받아, 즉시 예언자가 있는 아즈야드라는 곳으로 가서 예언자에게 말했다. "오, 무함마드! 당신은 사람들을 무엇에 초대합니까?" 예언자가 답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그 어떤 것과 동등하거나 유사하지도 않으신 유일한 신이고, 무함마드는 그의 종이며 예언자라는 것을 믿을 것이며,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선과 악을 가리지 못하는 돌덩이를 숭배하기를 포기하라 하시며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칼리드는 "내가 믿음으로 증언하니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유일하시며, 또 증언하니 그대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이시라." 하고 바로 무슬림이 되었다. 그의 이슬람 입교는 우리의 예언자를 기쁘게 하였다. 그의 아내 우마이야도 함께 무슬림이 되는 영광을 안았다.

칼리드 빈 사이드 성인은 그의 형제들을 무슬림이 되게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들중 우마르 빈 사이드가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이슬람을 아주 적대시 하던 칼리드의 아버지 아부 우하이야는, 칼리드와 우마르가 무슬림이 되어, 메카의 한적한 장소에서 예배를 올린다는 것을 알고는, 다른 아들들을 시켜 그들을 잡아오도록 하였다. 새로이 받아들인 종교를 포기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욕설과 매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칼리드에게 말했다. "니가 무함마드를 따른다구? 사실을 말하자면, 그는 우리 부족을 배반한 사람이다. 그가 가지고 온 신앙으로 우리의 우상과 조상들을 모욕하는 것을 보았다." 이 때 칼리드 성인이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하거늘,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그렇지 아니함 이니, 실로 그 분은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며, 모든 것을 아시노라.'(36:77-81)

내 종교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더욱 화를 내었다. 그는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칼리드를 때린 후 말했다. "이 쓸모 없는 자식아! 네 갈대로 가거라. 맹세하건데, 빵 한 조각조차도 주지 않겠다." 칼리드 성인은 "당신이 나의 양식을 끊는다 하더라도, 의심할 여지 없이 알라후 테알라께서 나의 생계를 이으실겁니다" 라 했다. 아버지는 그의 다른 형제들에게 "만약 너희 중 그 누구라도 칼리드와 말을 한다면 내가 그에게도 하지 않았던 처벌을 하겠다" 라 협박했다. 그는 이 더운 메카에서 3 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지하에 갇혀있었다. 칼리드 성인은 기회를 보아 간신히 아버로부터 도망쳤다. 그 후, 칼리드 성인의 아버지는 중병에 걸려 몸져 누웠다. 그는 병석에 누워서도 이슬람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약 병이 나아 일어서게 된다면, 메카의 모든 사람이 우리의 우상에 참배하게 하겠다. 절대 다른 것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칼리드 성인은 아버지가 이슬람에 대한 적개심에 종말을 고하고 무슬림 형제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두 손을 들어 알라후 테알라께 기도를 올렸다. "세상을 창조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시여, 아버지를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소서."

알라후 테알라께서 이 기도를 받아들이시어, 아부 우하이야는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얼마 뒤에 죽었다.

무사아브 빈 우마일의 개종

무사아브 빈 우마일은 꾸라이쉬 부족의 이름 난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났다. 그는 우리 예언자로부터 축복된 말씀을 접하게 되자, 마음 깊은 곳에서 커다란 사랑이 싹터,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하였다. 마침내 그는 '아르캄의 집'으로 가서 예언자를 만나 무슬림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를 집 골방에 그를 가두고 종교를 포기하라고 강요하였다. 그들은 무사아브 성인을 며칠씩 굶기고 물도 주지 않으면서 아라비아의 작열하는 태양 아래서 모진 고문을 자행하였다. 그러나 무사아브 성인은 결코 이슬람을 포기하지 않았다. 무사아브 성인은 무슬림이 되기 전에 유복한 가정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자랐다. 그러나 무슬림이 되고나자 그의 가족들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으며, 오로지 혹독한 고문만을 가하였다. 무사아브 성인은 이슬람 종교 위해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었다. 하루는 그가 예언자를 찾아왔다. 알리 성인이 그때의 일을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와 함께 있을 때 무사아브가 왔다. 그는 다떨어진 옷을 입고 가련한 상태였다. 예언자는 이 모습을 보고 눈물을 글썽거렸다.무사아브는 빈곤과 괴로움 속에서도 그의 종교를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예언자가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로 인해 마음이 밝아진 이 사람을 보라. 나는 그의아버지와 어머니가 좋은 음식과 옷으로 그를 키우는 것을 보았다. 알라후 테알라와

그사도에 대한 사랑이 지금의 그를 이 모습으로 있게 하였다."

에티오피아 이주

우리의 예언자가 소명을 계시 받은 이후 5 년째 되던 해, 다신교도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무슬림의 숫자는 계속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불신자들은 더욱 고문을 강화하고 무슬림을 괴롭히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였다. 우리의 예언자는 교우들이 심한 고문을 당하고, 몸을 두 낙타에 묶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여 몸을 찢는 등의 고난에 매우 슬퍼하였다. 이러한 고난이 더욱 심해지자, 자애로운 예언자는 견딜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예언자는 교우들을 모아 놓고 말하였다. "오, 나의 교우들이여! 이제 온 세상으로 흩어지시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곧 여러분을 다시 한 자리에 불러 모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예언자는 그 축복된 손으로 해가 지는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에티오피아(아비씨니아) 땅으로 가시오! 왜냐하면 거기에는 누구도 해치지 않는 통치자가있기 때문이오. 그곳은 정의를 지키는 땅이오. 알라후 테알라께서 여러분을 이 고난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거기서 머무시오."
이렇게 하여, 예언자는 교우들을 핍박으로부터 구하고, 혼자서 다신교들에 맞서 대항하려고 결정하였다. 태어날 당시; "나의 백성들이여, 나의 백성들이여!" 하던 예언자는 지금, 교우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했다. 예언자의 허락으로 교우의 일부가 고향을 떠나 에티오피아로의 이주 길에 올랐다.하지만, 예언자 곁을 떠난다니 교우들은 슬픈 심정을 헤아릴 수 없었다.
첫 이주에 참가한 교우들은 다음과 같다. 우스만 성인과 그의 아내 루까야(예언자의 딸), 아부 후자이파와 그의 아내 사흘라, 주바일 빈 아왐, 무사아브 빈 우마일, 압둘라흐만 빈 아우프, 아부살라마 빈 압둘라사드와 그의 아내 움무 살라마, 카팁 빈 아므르, 아미르 빈 라비아와 그의 아내 라일라 빈티 아비 하스마, 우스만 빈 마준, 아브 사브라 빈 아비 룸과 그의 아내 움무 굴쑴 빈티 수하일, 수하일 빈 바이다, 그리고 압둘라 빈 마수드였다.

우리의 예언자가 우스만 성인에게 말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우스만은, 예언자 룻 이후에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이주를 떠 나는 사람이구나." 교우들의 일부는 짐승을 타고, 일부는 걸어서 비밀리에 메카를 떠났다. 상인들에게 값을 치르고 배편을 얻었으며, 이윽고 홍해를 건너 에디오피아 해안에 상륙하였다. 다신교들은 눈치를 채고 뒤쫓아갔지만 아무 소득도 없이 힘이 빠져 되돌아왔다.
에티오피아의 통치자 네구스 왕은 무슬림을 잘 대접하고 그들이 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교우들은 에티오피아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좋은 이웃들을 만나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다. 우리의 종교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고, 핍박하지도 않았다. 나쁜 소리도 들은 적이 없다. 우리는 평화스러운 분위

기 속에서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께 경배를 올렸다.”

함자 성인의 이슬람 개종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는 귀에서 귀로 퍼져나가, 날이 갈수록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꾸라이쉬 불신자들은 더욱 광분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확산을 막을 수가 없었다.

'데라일-운 누브베'와 '메아리크-운 누브베'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

'다신교도인 왈리드는 우상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사파 언덕에 모여 이 우상에게 절을 하곤 하였다. 어느 날, 예언자가 그들에게 가서 이슬람으로 초대하였다. 불신자인 어떤 진이 그 우상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예언자에게 험한 말을 하였다. 우리의 예언자는 매우 비통해 하였다. 그 뒤 어느 날, 눈에 보이지 않는 착한 진이 우리의 예언자에게 인사를 드리고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나는 불신자인 그 진이 당신에게 험한 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를 찾아서 죽였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내일 사파 언덕으로 와주시겠습니까?

거기서 그들을 다시 이슬람으로 초대하십시오. 나는 그 우상 속으로 들어가 당신을 찬미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언자는 압둘라라는 이름의 이 진이 낸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리의 예언자는 그 다음 날 그리로 가서 불신자들을 다시 신앙으로 초대하였다. 아부 자흘도 거기에 있었다. 그때 무슬림인 압둘라 진이 우상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예언자와 이슬람을 찬미하는 말과 함께 시를 읊었다. 다신교도들은 이 말을 듣고는 그 우상을 부숴 버리고 예언자를 공격했다. 예언자의 축복받은 머리카락이 뜯기고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예언자는 이러한 수모를 참아내며 그들에게 말했다. “오, 꾸라이쉬 사람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때렸지만 나는 여러분의 예언자입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 한 하녀가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 하였다. 그 때 함자 성인은 산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다. 그는 영양을 향해 막 화살을 날릴 참이었다. 갑자기 그 영양이 그에게 말을 하였다. “오, 함자! 나에게 화살을 쏘기보다는, 당신의 조카를 죽이려는 사람을 쏘는 것이 어떻겠소.” 함자 성인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는 사냥을 그만두고 쏜살 같이 귀가 길에 올랐다. 그는 사냥을 마치면 카바를 순회하는 평소 습관대로 그곳에 들렀다. 그가 순회의식을 진행하고 있을 때 어떤 하녀가 다가와 아부 자흘이 무함마드 알라히 살람에게 저지른 일을 모두 이야기 하였다. 친척이 모욕을 당했다는 소리에 함자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무기를 챙겨들고 다신교도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당신이 내 조카를 모욕하고 때린 그 사람인가? 그의 종교는 또

한 나의 종교다. 그에게 한 짓을 어디 나한테도 할 테면 해 봐라!" 그는 활로 아부 자흘의 머리통을 피가 나도록 후려갈기며 말했다. 불신자들은 함자 성인을 공격하려 했지만 아부 자흘이 그들을 말렸다. "그에게 손대지 마라! 함자가 옳다. 나는 그의 조카를 모욕했다." 함자 성인이 떠난 후, 아부 자흘이 무리들에게 말했다. "그를 자극하지 마라! 그가 우리에게 화가 나서 무슬림이 되어 무함마드가 더 강해질까 두렵다." 아부 자흘은 함자 성인이 무슬림이 될까 싶어, 머리를 다치고도 참았다. 여기서 함자 성인의 영향력과, 힘과 그 중요도를 알 수 있다.

함자 성인은 예언자에게 와서 말했다. "오, 무함마드! 내가 아부 자흘의 피를 흘려 복수해주었으니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우리의 예언자가 말했다. "나는 그런 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함자 성인은 조카의 반응이 뜻밖이라 "네가 기뻐할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 고 말했다. 우리의 예언자가 말했다. "숙부가 알라후 테알라를 믿어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만이 저에게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함자 성인은 그 즉시로 무슬림이 되었다. 이 일에 대하여 꾸란 '안암 장'의 계시가 내려왔다. 그 해석은 이렇다.
압둘라 빈 압바스 성인에 따르면, 이 구절에서 '부활이 되어 빛을 얻은 사람'은 함자 성인이고, '암흑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아부 자흘이라고 한다.
함자 성인은 다신교도들에게 가서 자신이 무슬림이 되었으며, 앞으로 알라후 테알라께서 가장 사랑하는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을 목숨을 걸고 보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함자다신교들을 찾아가 무슬림이 된 것을,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인,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을 생명을 바쳐서라도 보호하겠노라고 선포하고 말했다.

"이 마음이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들게 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종교는, 모든 원리를 아시는, 은혜와 시험을 내리시는, 그 힘이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우리의 주인, 알라후 테알라께서 보내셨습니다. 성서 꾸란을 읽으면 현명한 사람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성서 꾸란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구절 형태로 예언자에게 내려졌답니다. 우리의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은 우리들 사이에 존중을 받는, 우리가 그분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축복받으신 분이십니다. 여기 다신교도들이여! 정신 차리지 못하고 눈이 뒤집혀, 그분에 대하여 폭언이나, 무례한 말을 하는 것을 삼가하시오.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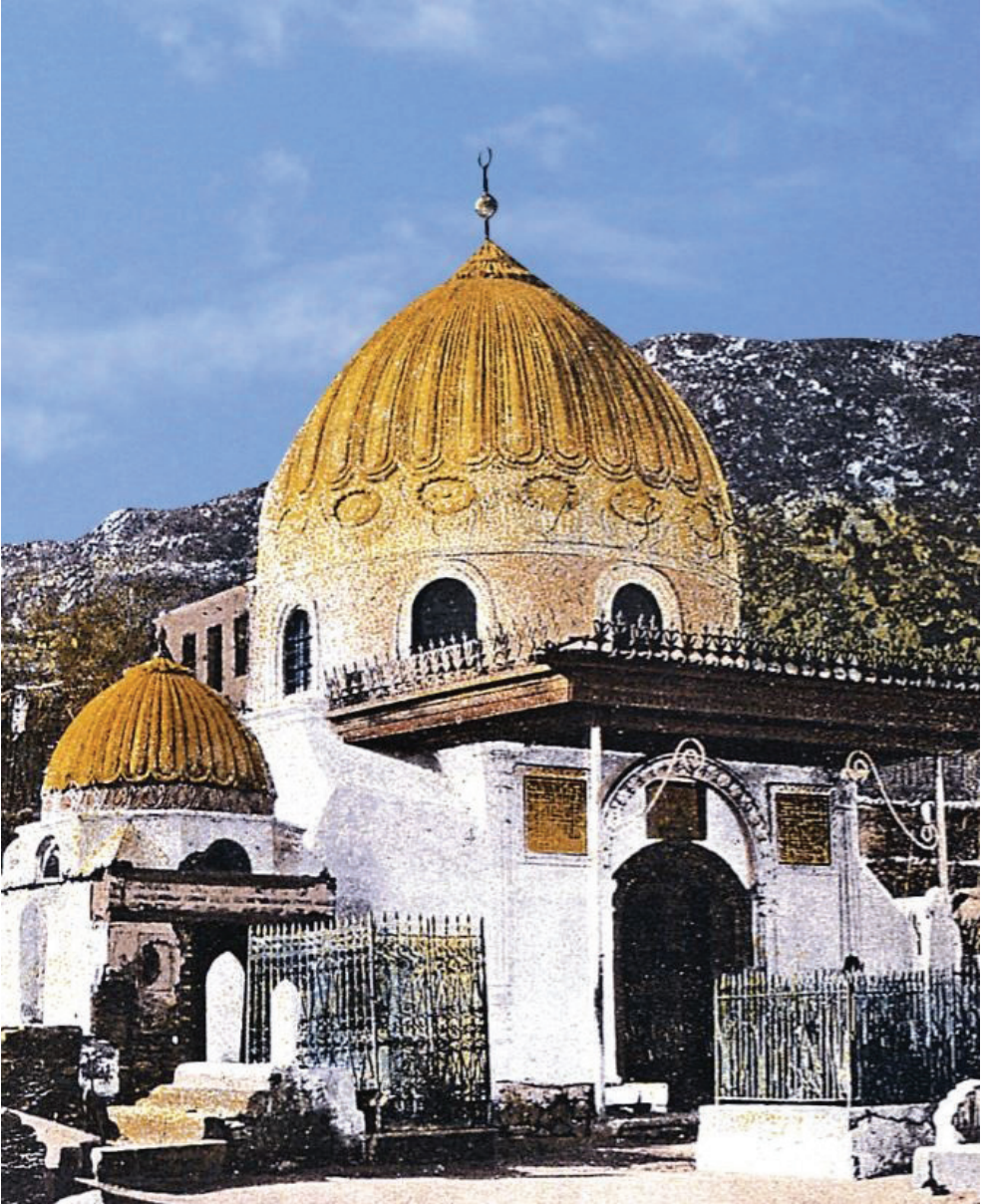
약 이런 생각에 사로 잡혀 있다면, 우리 무슬림들을 죽여 그
시체들를밟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분을 해하지 못할것이요." 우리의 예언자는 함자 성인의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매우 기뻐했다. 그의 합류로 무슬림들은 한층 강력해졌다. 함자 성인이 무슬림이 되면서 상황이 변화하였다. 왜냐하면 메카 사람들은 함자 성인이 위대한 전사이며 용감하고, 신뢰할 수 있고, 정의감이 투철한 위대한 영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꾸라이쉬 다신교도들은 이제

부턴 무슬림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괴롭히지 못하였을 뿐더러 함자 성인의 칼을 두려워하였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고 그에게 빛을 주니, 그는 그것으로 사람들 사이를 걸으매, 그는 암흑에서 몸부림치는 자와 결코 같지 아니 하더라…’ (6:122)

우마르 성인의 이슬람 개종

이슬람은 날이 갈수록 널리 퍼졌고, 꾸란의 빛은 사람들의 영혼을 맑게 하였다. 죄 많은 사람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은총 속에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교우라는 명예를 수여받은 사람들은 손에 손을 잡고 마음과 마음을 통하여 예언자를 열렬히 받들었다. 그분의 작은 부탁이라도 교우들은 큰 명령으로 알고 시행하기 위하여 앞을 다툴 정도였다. 게다가 생명조차 바칠 준비가 되어있었다. 다신교도들은 혼란과 불안에 빠졌다.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용맹한 영웅, 함자 성인이 무슬림이 되어 예언자의 편에 서게 되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자 불신자들은 격노를 참지 못하였다. 하루는 캇탑의 아들인 우마르(아직 무슬림이 되지 않음)는 예언자를 보는 그 자리에서 죽이려는 작정으로 집을 나섰다. 그는 예언자가 카바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마치기를
기다렸다. 잠시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예언자는 꾸란 ‘학까 장’을 낭송하고 있었다.

“심판의 날이 있나니, 반드시 심판의 날은 올 것이니라. 진정한 심판의 날이 무엇인가?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날을 누가 그대에게 가르쳐 주었느냐? 사무드와 아드 백성들은 엄청난 공포로 인하여 심장이 떨릴 만한 심판의 날을 부정하고 거짓이라 했노라. 그리하여 사무드 사람들은 타락을 이유로 (지브릴 천사로 하여금) 멸망시키셨다. 아드 사람들을 소용돌이 치고, 거대한 소리를 동반한, 성이 난 엄청난 회오리로 멸망시키셨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일곱 밤과 여덟 낮 동안에 그들에게 연속적인 징벌을 주셨으니, 이 백성들이 마치 뿌리채 뽑혀 쓰러져 넘어진 종려나무 같이 나뒹굴던 것을 보았을지다. 지금 그들 중 살아남은 자를 볼 수 있느냐? 파라오 그리고 그 이전의 사람들과 멸망한 고장의 사람들(룻의 백성)이 계속하여 알라후 테알라를 믿지 않고 거역하는 죄악을 저질렀노라. 알라후 테알라께서 보낸 예언자(룻과 다른 예언자들)를 거역하였기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더 혹독한 벌을 내리셨노라… 실로 알라후 테알라께서, 온 세상이 물로 넘쳤을 때 이로 인하여 너희에게 교훈이 되고, 그것을 귀로 듣고 교훈을 기억하도록 하려고 너희를 방주에 태워 보냈노라. 심판의 나팔소리가 한 번 울려 퍼질 때, 대지의 모든 산들이 움직이고 한 번에 산산조각이 나며, 종말의 날, 하늘이 힘을 잃어 갈라지고 흩어져 버리니라. 천사들이 주변에 줄지어 있으며, 그들 위로 여덟 천사가 그 날 알라후 테알라의 권좌를 받들고 있노라. 그날은 너희가 심판을 받는 날로 (세상에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모든 행위가 밝혀지리다. 오른

잔나트 알 무알라 묘지

카디자-툴-쿠브라 영묘 (라디-알라후 '안하): 센넷-울 무알라에 있는 예언자(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의 아내인 하드라트 하디세 라디얄라후 안한의 영묘는 1543년 메카 섭정 다부드 파샤의 감독 하에 술레이만 대왕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편에 기록을 받은 자는 '여기에 기록이 있나니 읽어주소서'라고 말하며, '실로 저는 저의 심판이 저에게 이르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는 축복받은 삶을 영위하며, 높은 천국에 있노라. 송이송이 달린 과일이 손 가까이에 있으니, 기꺼이 먹고 마시라 이것은 너희가 지나간 기간 중에 행한 선행에 대한 보상이라. 그러나 왼편에 기록을 받은 자는 '나의 기록이 나에게 이르지 아니 했으면'하고 말하더라. '내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벌이 무엇인지 몰랐더라면, 죽음이 나의 종말이었더라면, 다시 부활하지 않아더라면!
나의 재산도 아무런 쓸모가 없으며, 내가 가졌던 권세도 내게서 사라져 버렸구나.' 임무를 수행하는 천사들로 하여금 '그를 붙잡아 손을 목에다 묶고, 타오르는 불속으로 던져라. 나중에 칠십 척 길이의 쇠사슬에 묶어 다시 불속으로 던져라. 위대한 알라후 테알라를 믿지도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도 베풀지 아니 했노라. 이날 여기에는 동정해 줄 친구도 없으며, 그가 먹을 음식이란 피고름 섞인 것으로, 오직 믿지않은 죄인들만이 먹는 것들이라."(69:1-37)

우마르 성인은 예언자의 낭송을 감탄하며 들었다.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말들을 평생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듣고 있는 이 말들의 설득력과 유창함과 산뜻함에 감복하였다. 이 사람은 꾸라이쉬 부족의 시인임에 틀림없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예언자는 낭송을 계속 이어갔다.

'너희가 보는 것에 맹세하며, 또한 보지 못하는 것에 맹세하니, 실로 이것은 알라후 테알라의 예언자에 의해 전해진 성서 말씀으로, 어떤 시인의 말이 아니니라. 너희 중에 믿는 자가 어찌 이리 적은가?' (69:38-41)

우마르 성인은 다시 그때를 회상했다. "나는 그분이 점쟁이가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다시 다음 구절을 낭송했다.

"이것은 또한 점쟁이의 말도 아니거늘, 너희들 마음은 어찌 그리 비뚤어졌는가? 이것(꾸란)은 만물의 주인, 알라후 테알라께서 지브라일 천사로 하여금 내리신 것이라. 만일 예언자가 나를 거역하여 말을 지어냈다면,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의 오른손을(힘과 능력을) 잃게 하시고, 당장에 심장의 동맥을 절단했으리라. 성서 꾸란은 실로 알라후 테알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한 절대적 교훈이라.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너희 중에서 그것을 거역하는 자들을 알고
계시니라. (알라후 테알라의 말씀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내린 보상을 본) 불신자들에게는 불가피한 후회가 될지라. 실로 그것(꾸란)은 분명한 진리라.

우마르 성인이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그 장의 낭송을 모두 마치자

내 마음 속에서는 이슬람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함자 성인이 무슬림이 된지 사흘 후, 아부 자흘은 다신교도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꾸라이쉬 부족 여러분! 무함마드 우리의 우상을 비방하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조상들이 지옥에서 고난을 겪고 있으며, 우리 또한 그곳으로 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를 죽여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 나는 붉은 낙타 백 마리와 많은 금화를 주겠습니다!" 캇탑의 아들, 우마르는 이슬람으로 기울던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 그는 벌떡 뛰어오르며 말했다. "그 일을 할 사람은 오직 캇탑의 아들뿐입니다!" 그들은 환호하며 그에게 말했다. "가서 해치워라! 캇탑의 아들아!" 그는 칼을 차고 출발했으며, 가는 도중에 그는 누아임 빈 압둘라를 만났다. "오, 우마르! 그렇게 격렬하게 화난 표정으로 어딜 가는 거요?" 그가 대답했다. "나는 우리 민족을 분열시켜 형제 간에 원수가 되게 한 무함마드 죽이러 가오!" 누아임이 말했다. "오, 우마르! 그건 어려운 일이오. 그의 교우들이 그를 겹겹이 둘러싸고 지키고 있오. 아무도 예언자를 해치지 못하도록 극도의 경계상태를 유지하고 있소. 그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게요. 만약 그를 죽인다 하더라도, 당신은 압둘 무탈립의 자손들로부터 도망칠 수 없을 거요." 우마르는 이 말을 듣고 매우 화를 냈다. 그는 손으로 칼을 잡으며 물었다. "당신도 한패거리요? 내가 당신부터 죽여야겠소." 누아임이 말했다. "오, 우마르! 나야 무슨 상관이오. 그러지 말고 당신 누이 파티마와 그 남편 사이드 빈 자이드에게 가보시오. 그들 또한 무슬림이 되었다오." 우마르는 이 말을 믿지
않았다. 누아임이 다시 말했다. "못 믿겠거든 직접 가서 물어보시오. 그러면 알게 될 거요."

만약 우마르가 성공을 한다면 종교분쟁은 끝이 났겠지만, 아랍의 관습인 혈족간의 복수가 시작되어 종족간의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다. 따라서 우마르 빈 캇탑 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캇탑의 자손들이 살해될 것이었다. 우마르는 아주 힘이 좋고 용감하지만, 성질이 사나워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 누이의 일이 궁금하여 즉시로 그 집에 갔다. 그때는 꾸란 '타하 장'의 계시가 내려진지 얼마 되지 않았다. 사이드와 파티마는 그 필사본을 만들었으며, 집에 찾아 온 교우 캅밥 빈 아랏 성인과 함께 그 구절들을 낭송하고 있었다. 우마르는 문 앞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는 문을 매우 거칠게 두드렸다. 사이드 부부는 칼을 찬 채 성을 내며 서 있는 우마르를 엿보고는, 읽던 것과 교우 캅밥을 숨겼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었다. 집안으로 들어 온 우마르가 물었다. "무엇을 읽고 있었는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마르는 더욱 더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들은 것이 틀림없구나. 너희들 또한 그의 마법에 놀아나고 있는 거야." 그는 사이드의 목을 잡고 땅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그리고 남편을 일으키려는 누이의 뺨을 쳤다. 파티마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피 범벅이 되었다. 이를 본 우마르는 조금 수그러들었다. 파티마는 고통 속에서도 신앙의 힘을 발휘하여 감연히 맞섰다. "오,

우마르! 알라후 테알라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 왜 알라후 테알라의 말씀과 기적을 전하는 예언자를 믿지 않는가? 이제 내 남편과 나는 무슬림이 되는 영예를 얻었다. 우리는 결코 이 종교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우리 목을 친다고 해도!" 그런 뒤 그녀는 신앙고백을 낭송하였다. 우마르는 이러한 누이의 믿음을 보고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소리로 말했다. "너희들이 읽던 그 책을 내어 오너라." 파티마가 말했다. "몸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줄 수 없다." 우마르는 몸을 깨끗이 하는 세정의식을 행하였다. 그러자 파티마는 꾸란을 적은 것을 가져왔다. 우마르는 글을 유창하게 읽었다. 그는 '타하 장'을 읽기 시작했다. 그 수사법과 유창함, 그 의미의 탁월함이 그의 마음을 더욱 더 부드럽게 하였다. 그 해석은 이렇다.

(알라후 테알라의 말씀을 따르고 명령과 금지를 이행하는 자는 그 진리에 이르리다.) 그러므로 위대한 그대의 알라후 테알라를 찬양하라." (69:42-52)

우마르는 이 구절을 읽은 뒤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오, 파티마! 이 모든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모두 너희들이 숭배하는 알라후 테알라께 속하는가?" 그 누이가 대답했다. "예, 그렇지요. 의심스러운가요?" 그는 말했다. "오, 파티마! 우리는 금과 은, 청동과 돌로 만든 천오백 개의 우상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이 땅위에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라 하고 놀라워하며 읽기를 계속했다.

우마르는 이 구절을 곰곰이 생각하였다. "정말로 진실한 말이다." 그가 말했다. 캅밥은 이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 하시다'하며, 우마르에게 말했다. "오, 놀라운 일입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알라후 테알라께 기도하길,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아부 자흘 아니면 우마르를 주시어 우리의 종교를 강화시켜 주옵소서!' 이제 이 축복이 그대에게 주어졌습니다." 꾸란의 구절을 읽은 감명과 예언자가 올렸다는 기도가 우마르의 마음 속에 있던 적대감을 모두 사라지게 했다. 그가 물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어디 계신가? 그의 마음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빠져버렸다. 그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아르캄의 집에서 교우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었다. 교우들은 모여서 그의 빛이 나는 얼굴을 접하고, 듣기 좋고 영향력 있는 말을 들음으로써 마음이 깨끗해지고, 더할나위 없는 행복에 젖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정신을 맑게 하고 있었다. 칼을 허리에 찬 우마르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우마르는 위력과 힘을 지닌 사나이였기 때문에 교우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에워쌌다. 함자 성인이 말했다. "우마르를 무엇 때문에 꺼립니까? 그가 좋은 의도로 왔다면 환영을 해주고, 만약 아니라면 그가 칼을 뽑기 전에 내가 그의 목을 베어버리겠소!"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길을 비켜, 그를 들게 하라!"

지브릴 천사는 이미 우리의 예언자에게 '우마르가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

오고 있다'고 알렸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웃는 얼굴로 우마르를 맞이하며 "다들 물러가 있으시오" 라고 했다. 우마르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앞에 꿇어 앉았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우마르의 팔을 잡고, "오, 우마르! 믿으시오!" 우마르 성인은 충심으로 신앙고백을 하였다. 교우들은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를 외쳤다. 우마르 성인은 그가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난 뒤의 상황을 설명했다.

'알라후 테알라 외에는 경배하고 복종할 진정한 신이 없으며, 그분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을 가지고 계시니라." (20:8)

"내가 이슬람으로 개종할 당시에 교우들은 다신교도들을 피해 비밀리에 예배를 올렸다. 나는 이것 때문에 몹시 슬펐다. 예언자에게 물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우리가 옳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언자가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하건대, 당신들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진리의 길을 걷고 있소." 내가 말했다. "우리가 진리의 길에 있다면 저들은 타락의 길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우리의 종교를 숨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비방에 대항하여 이슬람을 가르쳐줄 권한과 자격을 가졌습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종교는 메카를 장악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부당한 것을 요구하고, 싸움을 걸어오면 우리는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우리의 숫자는 아주 빈약하오!" 라고 말했다. 나는 다시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컨대 저는 모든 다신교도들에게 어떠한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이슬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두 거기로 갑시다." 예언자가 이를 받아들이자 우리는 두 줄을 지어서 카바로 행진을 시작했다. 한 줄에는 함자가, 그리고 다른 줄에는 내가 선두로 하고 있었다. 땅을 박차고 걷는 행렬로 먼지구름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는 카바 신전에 들어섰다. 꾸라이쉬 불신자들은 한 번은 나를, 한 번은 함자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다. 그들은 생전 처음으로 그런 어둠과 절망을 맛보는 것처럼 아주비통한 표정을 지었다."

우마르 성인이 뜻밖은 출현에 아부 자흘이 앞으로 나와 물었다. "오, 우마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우마르 성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유일하시며 그 분외에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 분의 사도이라" 라 신앙고백을 큰소리로 낭송했다. 아부 자흘은 뭐라고 말해야 할 줄을 몰랐다. 그는 너무나 놀라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우마르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말했다. "오, 꾸라이쉬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은 나를 잘 알 것이오.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캇탑의 아들 우마르라는 것을 아시오. 자신의 아내를 과부로 만들고, 자신의 자녀를 고아로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서시오! 나는 대저하는 누구라도 두 동강이로 베어버리겠소!" 꾸라이쉬 다신교도들은 곧바로 뿔뿔이 흩어져 사라졌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와 그의 교우들은 줄을 지어 큰 소리로 알라후 테알라의 이름을 외쳤다. 메카의 하늘은 '알라후 아크바르!(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의

소리로 가득 메웠다. 그 날 처음으로 카바 신전에서 공개적으로 예배 의식이 거행되었다. 우마르 성인이 무슬림이 되었을 때 '안팔 장'의 꾸란 구절이 계시되었다. 그 해석은 이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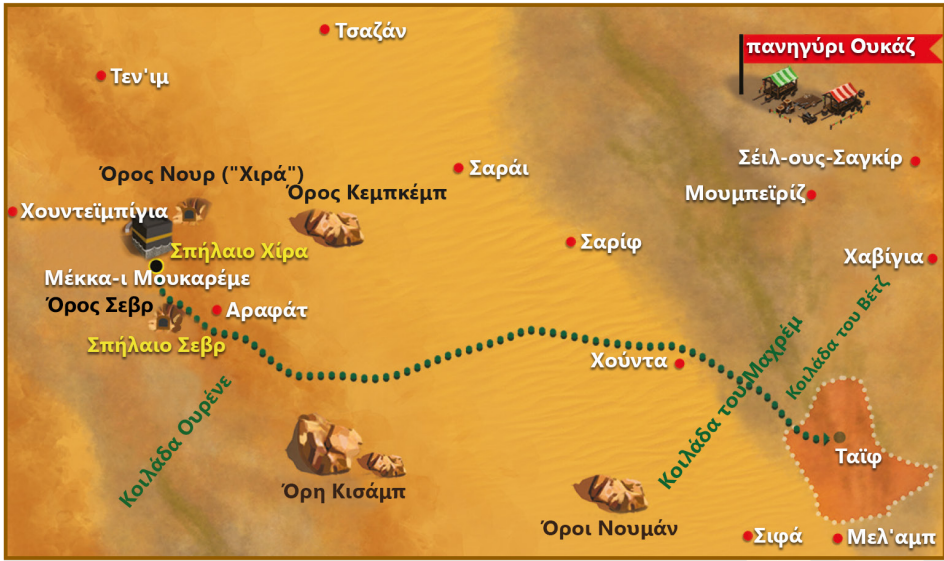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과, 대지 밑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하노라.' (20:6)

머뭇거리던 사람들도 우마르 성인이 무슬림이 되는 것을 보고 이슬람을 받아들여 교우가 되는 영예를 누리었다. 이제 무슬림의 숫자는 날이 갈수록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에티오피아 이주

에티오피아에 있던 무슬림들은 "메카의 다신교도들과 무슬림들 사이에 협정이 체결되었다" 는 잘못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교우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 이곳으로 이주한 것은 다신교도들의 적대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적대관계가 친분 관계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러니 메카로 돌아가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은혜를 누립시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에티오피아 통치자의 허가를 얻어 메카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들이 접했던 평화협정 소식은 사실과 틀린 것이었다. 어쨌거나 그들은 우리의 예언자 앞으로 왔다. 그곳의 공기와 기후와 과일은 힘을 솟아나게 하며, 나라에는 예배장소가 네 군데나 있는데 매일 낙타와 양들이 제물로 바쳐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외지인들을 초대하여 융성한 대접을 하였으며, 나라의 통치자가 몸소 그들을 방문하여 거처를 제공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등 에티오피아의 여러 가지 현황과 그들이 지내온 상황을 상세하게 예언자에게 설명했다.

교우들이 메카로 돌아왔을 때 다신교도들의 고문과 핍박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들의 탄압과 학대는 나날이 증가하였고, 그 악랄함도 상상을 초월하였다. 어느 날, 우스만 성인이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제가 보기에 에티오피아는 아주 적절한 교역장소입니다. 한 달 간의 교역으로 많은 이익을 낼 것입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이주 목적지를 명령해 주실 때까지, 우리 무슬림들에게는 에티오피아보다 더 좋은 곳이 없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신자들이 꾸라이쉬 사람들의 잔혹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네구스 왕은 우리 이주민에게 많은 선물과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우리의 예언자는 명령을 내렸다.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시오!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보호받을 것이다." 우스만 성인이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당신이 그곳을 방문하면 아마도 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입니다. 그들이 성서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선을 꺼리지 않는 백성입니다." 예언자는 대답했다. "나는 아직 안식하라는 명령을 받지 못했다.
나는 히즈라(이주)에 대한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명령 받는 대로 수행할 것이다."

타이프 방향

기록에 따르면 101 명으로 구성된 단체가 두 번째의 에티오피아 이주를 단행했다고 한다. 자파르 빈 아비 탈립 성인이 이 이주자들의 지휘자로 임명되었다. 그들은 모두 건강한 상태로 네구스 왕의 나라에 도착하였다. 그들이 에티오피아에서 살면서 겪었던 일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의 아내인 움무 살라마 성인은 이렇게 전했다.

"우리가 에티오피아에 도착했을 때, 우리에게 아주 좋은 사람이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이웃은 다름 아닌 그곳의 통치자 네구스였습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지원하였습니다. 이슬람의 교리들을 자유롭게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알라후 테알라께 예배를 자유로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핍박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쁜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메카의 다신교도들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 에티오피아 왕에게 압둘라와 아므르 두 명의 특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네구스 왕에게 매우 귀중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비싼 가죽을 선물로 준비했다. 또한 왕의 측근들과 고위관리들에게 줄 선물도 준비했다. 특사에는 압둘라 빈 아비 라비아와 아므르 빈 아스가 선발되었다. 불신자들은 그 두 사람에게 네구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미리 당부했다. "왕을 만나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주교들과 공직자들에게 선물을 전하라. 그런 뒤 왕에게 선물을 주고 무슬림들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라. 네구스 왕이 무슬림을 불러 이야기 할 기회를 주지 말라."

'오, 나의 예언자여! 알라후 테알라와 그 분을 따르는 신앙인들을 협력자로 하여 그대를 만족케 하였노라.' (8:64)

특사들은 에티오피아로 가서 먼저 고위인사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말했다. "우리 민족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여기에 와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땅으로 데려가고자 합니다. 왕을 만나면 그들과 만나지 말고 그들을 우리에게 인도해주도록 말씀드려 주십시오. 이주자들에 대해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부모이옵니다." 주교들은 이 제안을 수락했다. 그런 뒤 메카 특사들은 왕에게 선물을 올렸다. 네구스 왕은 그들을 수락하고 접견했다. 특사들이 네구스 왕에게 말했다. "오, 왕이시여! 우리 민족 일부가 당신의 나라에 건너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종교를 버렸으며, 당신의 종교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멋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당신들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종교입니다. 그들이 속한 민족의 명사들이 우리을 파견하였습니다. 이 명사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친인척 이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여기서 은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귀환입니다. 이들은 이주자들의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의 종교에 호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입니다." 특사들은 말을 끝내고 네구스가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를 희망했다. 고위인사들이 이렇게 말했다. "이분들의 말은 합리적입니다. 그 민족이 이주민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고있어 더 잘 보살필 것입니다. 그들을 이 사절단과 함께 그들의 고국으로 귀환하도록 하여 주십시요."

네구스 왕은 이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내었다. "그럴 수 없소! 나는 이주민들을 이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 없소. 그들은 우리 나라를 선택하여 이주해 왔는데 내가 그들을 배신할 수 있겠소? 이제 내가 그들을 불러 사절단의 요청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어보겠소. 만약 이주자들이 사절단이 얘기한 바 대로라면 나는 이들을 당연히 귀환시킬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겠소!" 그는 이전에 성서를 읽어 무함마드라는 예언자가 나타날 시기가 임박하였으며, 그의 민족들이 그를 거짓말쟁이라 하며 믿지 않고, 그가 메카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네구스 왕이 사절단에게 물었다. "그들은 누구를 따르는가?" 그들이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을 따릅니다." 고 대답하자 네구스 왕은 그가 예언자임을 확신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말했다. "그의 종교와 종파가 무엇이며 무엇으로 초대를 하는가?" 아므르가 "그의 종파는 없습니다" 네구스가 "내가 그들의 종파와 종교를 모르고서는 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이주민들 어찌 내가 그대들에게 돌려 주겠소? 의회를 열고 그들을 불러 대면하여 서로의 입장을 분명하게 합시다. 그들의 종교도 내가 알아야 하겠소." 그들은 무슬림들을 궁전으로 초대하였다.

Ισρα και Μιρ□ζ

무슬림들은 먼저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여기 통치자의 호감을 사도록 하면서 그의 본성에 어긋나지 않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요?" 자파르 성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예언자가 말한 것에 한하여야 합니다." 라 하자 모두 찬성을 하고 단지, 자파르 성인이 그들을 대변하기로 하여 네구스의앞에 나갔다. 네구스는 왕실 측근의 학자들을 불러 모았으며, 이로써 대규모의 모임이 준비되었다. 이주자들을 불러들였다. 무슬림들은 왕에게 인사하며 큰절을 하지 않았다. 왕은 "왜 큰절을 하지 않는가?" 라고 물었다. 자파르 성인이 대답했다. "우리는 알라후 테알라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큰절을 하지 않습니다. 예언자가 우리에게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 외에 그 누구에게 절하는 것을 금지하며 '큰절은 오로지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에 속한다.'라 했습니다." 그러자 네구스 왕이 이주민들에게 물었다. "나의 보호 아래에 온 여러분! 나에게 말하시오. 그대들은 왜 내 나라에 왔는가? 어떤 상황이오? 장사꾼이 아닐뿐더러, 특히 원하는 것도 없지 않소. 그리고 당신들의 그 예언자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왜 고국의 백성들이 예의로큰절을 올리지 않는 것이오?" 자파르 성인이 대답했다.

"왕이시여! 먼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맞으면 승인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부인하십시오. 우선 메카 대표단 중 오직 한 사람만 말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므르 빈 아스가 말했다. "내가 말하겠습니다." 네구스 왕이 "에이, 자파르! 그대가 먼저 말하라" 라고했다.
자파르 성인이 저는 3 가지 사항을 말하겠습니다. 먼저 메카 대표에게 물어 보십시오? 우리는 붙잡혀서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노예입니까?
네구스 - 아므르! 저들은 노예인가? 아므르 - 아닙니다. 저들은 자유인입니다.

자파르 성인 - 우리가 부당한 살인을 저질러, 소환되어야 하는 자들입니까?
네구스 - 이주민들이 다른 사람을 죽인 일이 있는가?
아므르 - 아닙니다. 그들은 피 한 방울도 흘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파르 성인 -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재산을 빼앗아서, 그 댓가로 치뤄야 하는 빚이라도 있나요?
네구스 - 오, 아므르! 혹시 이들이 빚을 졌다면 내가 얼마든지 갚아주겠소. 말해 보시오.
아므르 - 아닙니다. 이들은 단 한 푼의 빚도 없습니다! 네구스 - 그렇다면 이들에게서 원하는 게 무엇이오?
아므르 - 우리는 원래 종교가 같고 목적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버리고 무함마드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네구스 - 왜 그대들이 속한 종교를 버리고 무슨 이유로 다른 종교를 믿었소? 당신 민족의 종교도 아니요, 우리의 종교도 아니라면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종교는 어떤 것이요? 설명을 좀 해보시오."

이에 자파르 성인이 말했다. "오, 왕이시여! 우리는 무지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리는 썩은 고기를 먹고 나쁜 짓을 예사로 하였습니다. 친척간에 적절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이웃을 돕지도 않았습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였고 동정심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우리 민족으로부터 정의롭고, 확신감이 있는, 순결하고, 깨끗한, 계보가 아주 귀한 집안이라는 것이 잘 알려진 그 고귀한 예언자를 보내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언자는 알라후 테알라의 존재와 유일성을 믿도록 우리를 초대하였고, 조상들이 숭배해온 우상들을 포기하도록 가르쳤습니

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실만을 말하고, 위탁받은 물건들을 강탈하지 말며, 친척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분은 또 부도덕한 행위와 거짓말, 고아들 재산의 횡령, 정숙한 여인에 대한 비방을 금지시켰습니다. 예언자는 비할 바 없는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를 경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였으며, 그분이 알라후 테알라로부터 가져온 것을 믿고 이행했습니다. 알라후 테알라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민족은 우리를 원수로 대하고 우리를 잔혹하게 억압하였습니다. 그들은 알라후 테알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포기시키고 다시 우상을 숭배하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고국을 떠나 이곳에 피난처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자파르 성인은 설명을 계속했다.

"예절인사 올리는것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우리는 통치자께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인사하는 것하고 똑 같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언자는 천국에서의 인사도 그와 똑같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때문에 그 방식으로 국왕 전하에게 인사를 드린 것입니다. 예언자는 알라후 테알라 외에 큰절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네구스 왕이 물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가르침을 몇 가지 들려줄 수 있는가?" 자파르 성인은 "예" 라고 대답하고 '마르얌 장'의 첫 구절을 낭송하였다.(아케부트 장과 룸 장을 읽었다고도 전해진다.) 이를 듣고 난 네구스 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그의 수염이 젖었다. 왕실 사제들도 역시 눈물을 지었다.

첫 번째 키블라는 성원 알 아크사/예루살렘이었습니다.

네구스와 사제들이 말했다. "오, 자파르! 이 감미롭고 아름다운 말들을 좀 더 낭송해주시오." 자파르 성인은 '카흐프 장'의 첫 부분을 낭송하였다. 해석은 이렇다.

"그 분의 종에게 성서를 계시한 알라후 테알라께 찬미를 드리나니 그 안에는 한 점의 왜곡됨도 없노라. 그것은 올바른 진리이며 이로써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지옥의 무서운 벌을 경고하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천국이라는 놀라운 보상을 알리고; '알라후 테알라께서 아들을 두었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경고하기 위해 문자에 흠이 없고, 그 뜻이 서로 충돌되지 않는 (표현이 과장되거나 미약하지 않은) 진리의 성서 꾸란을 그 분의 사도에게 내리신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감사를 드립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아들을 두셨다 하는 이들은 그들의 선조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도다. 입에서 흘러 나온 말이 크나큰 죄악이 되었도다. 그들은 오직 거짓말을 하느니라. (아, 사도여!) 그들이 성서 꾸란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을 파멸하려는가! 실로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대지위의 모든 것(물질, 동물, 식물)을 이 땅의 사람들 중 누구가 의인인지를 시험하려고 하셨음이라." (18:1-7)

네구스 왕이 감격에 겨워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하건대, 이것은 등잔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오. 무사 알라히살람과 이사 알라히살람이 이를(성서를)가지고왔소." 그리고는 메카 사절단을 향해 말했다. "가시오!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코 나는 결코 이주자들을 당신들에게 인도하거나, 이들에게 해로움을 끼치지 않을 것이오." 압둘라 빈 아비 라비아와 아므르 빈 아스는 네구스 왕 앞에서 물러갔다. 아므르가 압둘라에게 말했다. "맹세컨데, 무슬림들의 옳지 못한 점을 네구스 왕에게 밝혀, 내가 요절을 낼 테니 보시오." 압둘라가 말렸다. "그들이 우리에게 맞서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피붙이 아니오. 그만 둡시다." 아므르가 말했다. "그들이 이사 알라히살람을 종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네구스 왕에게 일깨워주어야겠소."

그 다음 날 아므르가 네구스 왕에게 갔다. "오, 왕이시여! 그들은 마리아의 아들 이사 알라히살람에 대해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시어 그들이 이사 알라히살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물어 보십시오." 무슬림들이 이사 알라히살람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신하를 보내 다시 그들을 불러왔다. 무슬림들은 '이사 알라히살람에 관하여 묻는다면 뭐라고 할까요?'하고 서로 의견을 나눌때, 자파르 성인이 "우리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가르친 대로 이사 알라히살람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네구스는 "그대들은 마리아의 아들, 이사 알라히살람에 관하여 무어라 하는지 듣고 싶소" 성인 자파르는, "우리는 이사 알라히살람에 대하여 우리의 예언자가 알라후 테알라께서 전하시어 우리에게 가르쳐준 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은 알라후 테알라의 축복받은 종이며 영광된 사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남자를 접하지 않은 순결한 성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사 알라히살람의 높으심은 이로 비롯됩니다. 성인 아담 알라히살람을 흙으로 만들어 내신 것처럼, 이사 알라히살람도 아버지 없이 나게하셨습니다." 라 하자 네구스 왕은 손을 뻗혀, 땅에서 지푸라기 섞인 흙을 한 줌 움켜잡고 "맹세컨데, 성인 마리아의 아들, 이사 알라히살람도 그대들이 말한 바 데로 , 이 지푸라기 흙과 다를 바가 없다" 라 했다. 네구스의 말을 듣고, 고위 관직자들은 서로서로 쑥덕데고 궁시렁 거렸다. 네구스 왕이 이를 보고 "맹세컨데, 그대들이 무슨 말을 한다해도 나는 이주자들에 대해 좋게 생각하오." 이주자들을 보고 말했다. "그대와 그대들을보낸 그 분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 그 분은 알라후 테알라의 예언자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나는 이미 성서에서 그 분에 대하여 읽었다. 마리아의 아들 이사 알라히살람 또한 그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그 분이 만약 여기에 있다면 나는 그 분의 신발을 벗겨들고, 발을 씻겨 드릴 것이다. 가시오! 그대들은 우리가 거주하지 않는 곳에 가서 핍박으로부터 떨어져서, 안전하고 평온하게 사시오. 그대들을 해하는 자는 내가 틀림없이 파멸하겠소! 내게 저 산만큼의 금을 준다하더라도, 한 명이라도 내주지 않을 것이오." 그런 뒤 네구스 왕은 메카에서 가져온 선물이 생각나자 사절단에게 말했다. "나에게 다른 이들로부터 강탈한 재산들은 필요 없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재물을 나에게 내리시고, 우리 백성들이 나에게 목을 숙이도록 하시어, 뇌물을 받으시던가?" 메카 사절단은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갔다. 행운의 네구스 왕은 이슬람을 받아들임으로써 교우들을 더욱 기쁘게 하였다.

포위로 인한 비탄의 세월

다신교도들은 지속적으로 이슬람이 마음을 동요시키고 확산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힘을 쏟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의 숫자는 나날이 증가하였다. 고문과 잔혹행위는 무슬림의 마음을 되돌리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단결하게 만들었다. 그 어떤 누구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메카 주위의 부족들은 이런 소식을 듣고 이슬람에 대해 더욱 궁금해하였고, 이에 따라 이슬람의 빛은 더욱 멀리 퍼져나갔다. 다신교도들은 에티오피아로 갔던 특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거기에다 네구스 왕이 무슬림이 되었다는 소식과 이주자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잘 대접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무슬림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이슬람을 뿌리 뽑기 위하여 마침내 그들은 끔찍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죽인다!'라 결의하였다.

아부 탈립은 다신교도들의 이 같은 결정을 알고 매우 비통한 심정이 되었다.

그는 축복받은 조카의 생명이 걱정되었다. 그는 일족들을 모아놓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꾸라이쉬 다신교도들로부터 보호할 것을 명령했다. 혈족에 대한 열의로 하쉼가의 자손들은 이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뭉쳤다. 그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메카 북쪽, 카아바로부터 3km 떨어진 아부 탈립의 마을로 모셨으며, 교우들도 모두 이곳으로 이주하였다. 하쉼가에서 유일하게 아부 라합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를 포함한 다신교도들은 연합하여 우리의 예언자를 살해할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언자와 그 교우들이 아부 탈립의 마을로 뭉친 것을 알고 다시 모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 를 없애기 위해, 꾸라이쉬 부족에게 그를 인도할 때까지 하심가에서 어떤 여자도 신부로 얻지 않고 또 어떤 여자도 신부로 보내지 않는다. 그들에게 어떤 물건도 팔지 않는다! 그들의 물건은 절대 사지 않는다! 누구도 그들과 만나거나 얘기하지 않는다! 누구도 그들의 집이나 동네에 발길을 들이지 않는다! 어떠한 평화요청도 수락하지 않는다! 절대 그들을 동정하지 않는다!' 그들의 이러한 결정은 만수르라는 사람이 종이에 적었고, 누구나 보고 지키도록 카바의 벽에 내걸렸다.

이 소식이 예언자에게 전해지자 비통에 잠겨 알라후 테알라께 기도를 올렸다. 그의 기도는 즉시 받아들여졌다. 악덕한 만수르는 갑자기 손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다신교도들은 이를 보고 놀라서 말했다. "보시오! 하쉼가 자손들에게 우리가 몹쓸 짓을 했기에 만수르의 손이 불구가 되었소." 그러나 그들은 제 정신을 차리기는 커녕 더욱 미쳐 날뛰었다. 그들은 아부 탈립 마을로 가는 길목에 감시자를 두고 식량과 의복 등 물품의 출입을 통제했다. 메카에 오는 장사꾼들에게 그 마을에 가지 못하도록 일렀다. 댓가로 그들은 물건들을 비싼 값에 사겠다고 말했다.

다신교도들은 이런식으로 아부 탈립 마을의 주민들을 굶겨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하쉼가의 자손들이 결국에는 예언자를 내놓을 것이라 확신했다. 이러한 상황은 매년 이루어지는 메카 순례기간까지 계속되었다. 통상으로 이 기간 동안에 피를 흘려서는 안 되었다. 그러므로 하쉼가 자손들은 이 기간에 일 년 동안의 수요물자를 확보해야만 하였다. 누군가가 물건을 사기 위해 상인들에게 갔을 때, 아부 라합이나 아부 자흘 같은 다신교도의 우두머리들 몇 명이 곧바로 나타나 "오, 상인들이여! 무함마드의 교우들에게는 값을 크게 올리시오. 누구도 비싼 값 때문에 아무것도 사지 못하도록 하시오. 이 때문에 여러분의 물건이 안 팔린다면 우리가 그것을 모두 사겠소." 상인들은 값을 크게 올렸고 무슬림들은 아무것도 사지 못한 채 돌아갔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와 카디자 성인, 아부 바크르 성인은 모든 재산을 다 털어 먼저 하늘에까지 치닿은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을 그치게 했다.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먹은 후, 나뭇잎과 들풀 등으로 끼니를 때워 생계를 유지하려 애썼다. 심지어 가죽을 물에 불려, 구워서 아이들의 허기를 채우기도 했다. 우리의 예언자와 다른 교우들은 배를 묶어 돌을 달았다. 어머니들도 우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모두 몸에 뼈와 가죽만 남았다. 혹 누가 다신교도들에게서 먹을 것을 얻어오면, 그를 면박하였다. 모든 물품의 교역이 중단된 채 무슬림들은 아주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다신교도들은 이 잔혹한 박해로, 하쉼가의 자손들이 결국에는 예언자를 그들에게 인도해 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무슬림들은 예언자를 보호하기 위해 갖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혹시 있을지 모를 암살을 방지하기 위해, 아부 탈립은 예언자의 숙소에 경비를 배치하거나 자신의 집으로 잠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이런 가운데서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알라후 테알라의 명령을 이행하고,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 진력하였다. 사람들에게 이슬람으로 초대하고 지옥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 애썼다. 어느 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자신을 부정하는 꾸라이쉬 불신자들이 굶주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저를 도와주시어 유수프(요셉)의 시대처럼 7년간의 굶주림의 고통을 저들에게 내려주소서!" 라고 알라후 테알라께 기도를 올렸다.

그 날 이후부터 하늘에서는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다. 땅이 바싹 마르고 지상에는 풀 한 포기 볼 수 없게 되었다. 꾸라이쉬 다신교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들은 죽음을 면하기 위해 썩은 고기와 개 껍질까지 먹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아이들도 울고 불며 배고프다고 난리였다.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 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하늘은 새카만 연기로 덮인 듯이 보였다. 그들은 비로소 정신이 들어, 자신들의 잔혹한 행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아부 수피얀을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보냈다. "오, 무함마드! 그대는 온 세상에 대한 자비로 보내졌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알라후 테알라를 믿고 친인척의 권리를 존중하라고 명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신의 백성들이 기근과 굶주림으로 다 죽어갑니다. 당신의 알라후 테알라께 기도를 올려 이 재앙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교를 믿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포위를 풀고 잔혹한 행위를 중지하였다.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간청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의 예언자는 지난날의 잘못을 묻지 않았으며 그들이 "우리가 알라후 테알라를 믿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자, 축복 받은 두 팔을 뻗어 알라후 테알라께 기도를 올렸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이의 기도를 받아들이시어 메카에 많은 비를 내리게 하셨으며, 땅에 물이 넘치고 푸른 잎들이 돋아나게 하셨다. 다신교도들은 가뭄과 기근에서 벗어나게 되자 그들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시 믿음을 저버렸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이들에 대한 응답으로 '두칸 장'의 계시를 내려 불신자들에게 경고하셨다. 그 해석은 이렇다.

'오히려 그들은 (성서 꾸란과 다시 부활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의심하고 그대를 조롱하니, 하늘이 짙은 연기로 가득 차는 그날을 그대는 지켜보리라. 연기가 사람들을 덮어 가리우니 고통스러운 벌이라. 불신자들은 '알라후 테알라께서시여 저희에게 이 벌을 거두어 주소서 저희가 믿겠나이다.' 이것을 그들이 교훈으로 삼겠는가?

진리를 밝혀주는 예언자가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언자로부터 등을 돌리며 '마법을 배운, 마법사다'라 말하더라. 알라후 테알라께서 잠시 징벌(연기와 굶주림)을 거두었으나, 너희는 다시 사악함으로 돌아갈 것이라. 가장 가혹한 징벌이 있을 그날(바드르 전쟁의 날) 필연코, 알라후 테알라께서 고통스러운 벌을 가하리라.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들 이전의 파라오 백성을 시험하셨으니, 훌륭한 예언자(무사 알라히살람)가 그들에게 임하여, '실로 나는 알라후 테알라의 뜻으로 너희에게 온 믿음의 예언자라. 그럼에 나는 그대들에게 정확한 판단의 기준과 기적을 가지고 왔거늘. 그대들이 알지라, 나는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죽이려 하는 자로부터, 나와 당신들의 알라후 테알라께서 보호하시리라. 나를 믿고 따르지 않겠다면, 그냥 나를 자유롭게 하라(내가 당신들로부터 선행을 바라지 않으니 악행으로 나를 대하지 말라)." 라고 말하더라. 그들이 알라후 테알라를 믿지 않거니와 자신을 거짓말쟁이라 하고, 박해를 가하여, 무사가 알라후 테알라께 기도를 올리니, "알라후 테알라께서시여, 이들은 알라후 테알라를 거역하기를 거듭하는 민족이옵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계시하시어 답하시길 "나의 종들(이스라엘 민족)과 오늘 밤 (이집트에서)떠나거라! 파라오가 그대들이 떠난 것을 알게되면 뒤쫓아 오리라. 너의 백성들과 함께 바다를 건넌 후 예전처럼 돌아가게 하라(지팡이를 다시 두드려, 열렸던 길을 닫지 말고 열어 놓거라). 결국, 파라오와 병사들이 이 길을 건너려 하다 물이 덮쳐, 물에 잠기게 되리라.' 하시니 (44:9-24)

다신교도들은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시 탄압을 시작했다. 어느 날, 알라후 테알라께서 계시를 내려 예언자에게 이르시기를; 카바 벽에 걸려 있는 문서에 나무를 갉아 먹는 벌레들이 '알라후 테알라'글자를 제외하고 거기 적혀 있는 다른 글자를 모두 갉아 먹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아부 탈립에게 말했다. "오, 숙부님! 나의 알라후 테알라께서 나무 벌레로 하여금

카바 벽에 걸린 꾸라이쉬 문서에 '알라후 테알라'의 글자를 제외한 그들의 잔혹한 말들을 모조리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아부 탈립은 "알라후 테알라께서 전하셨나요?" 라 묻자, 예언자가 "맞습니다" 라 했다. 아부 탈립은 "내가 믿는대로, 그대는 사실만을 말합니다." 하고 아부 탈립은 즉시 카바로 갔다. 다신교도의 우두머리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아부 탈립이 오는 것을 보고 "아마도 무함마드를 인도하려고 오는 구려!" 라고 중얼거렸다. 아부 탈립이 다가와 말했다. "오, 꾸라이쉬 공동체 여러분! 호칭이 알-아민이며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내 조카가 내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쓴 문서에 '알라후 테알라'의 글자만을 제외하고는 나무 벌레가 모든 글자를 갉아먹었다고 합니다. 빨리 우리를 반대하는 글을 적은 그 문서를 가져와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는 맹세코 목숨을 걸고 그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들도 우리에게 잔혹한 행위를 그만 하시오!"
다신교도들은 매우 긴장하며 그 문서를 카바 벽에서 내려 가져왔다. 아부 탈립이 "읽어 보시오!" 하고 말하자, 그들중 한 사람이 문서를 열어보니 '비스미카 알라후마(알라후 테알라의 이름으로)'라는 글자 외에 모든 글자가 없어진 채 였다. 다신교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일부 사람들의 포위를 그만두자는 의견에, 3 년이나 지속된 잊지 못할 고통을 안겨주고, 마음 깊은 후 테알라를 믿겠습니까?" 그들은 "예, 그렇게 하겠소." 라고 대답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알라후 테알라께 달이 두 개로 분리되도록 기도를 올렸다. 곧 바로 지브릴 천사가 예언자에게 와서 알리길, "오, 무함마드! 메카 사람들에게 오늘밤 기적을 볼 수 있다는 소식을 알리십시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14 째되는 밤 보름달이 떠서 두 개로 나누어질 것이니, 이를 교훈으로 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꼭 보라고 널리 알렸다. 그날 밤 우리의 사도가 손으로 신호를 보내자 달이 두 개로 나누어졌다. 한쪽은 아부 꾸바이스 산 위에, 그리고 나머지 반쪽은 콰이키안 산 위에 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볼 수 있었다. 그런 뒤에 그 둘은 하늘에서 다시 합쳐졌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교우들에게 말했다. "오, 아부 살라마 빈 압둘라 사드, 아르캄 빈 아빌 아르캄! 이를 증언하시오!" 그는 가까이 있던 다른 교우들에게도 이를 증언하라고 말했다. 다신교도들은 그들의 눈으로 이 놀라운 광경의 기적을 똑똑히 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또 믿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을 하였다. "이것은 단지 무함마드의 마술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모든 사람을 속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도록 합시다. 그들도 이것을 보았는지 알아봅시다. 만약 그들도 보았다면 무함마드가 예언자라는 것이 진실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마술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방문자들에게 물어보았고, 사람들을 다른 지방으로 보내 달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느냐고 물어보게 했다. 그랬더니 모든 곳에서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예, 그날 밤 우리는 달

이 두 개로 쪼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래도 이를 부인했다.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돌아서는 것을 막기 위해 아부 자흘을 우두머리로 한 다신교도들은 이렇게 말했다. "아부 탈립의 고아가 마술로써 하늘까지도 침범하는구나!" 이러한 그들의 부인에 대해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까마르 장'의 계시를 내리셨다. 그 해석은 이렇다.

'심판의 날이 가까워옴에 달이 둘로 분리되더라. 그들이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을 예언자로 믿지않는 자들) 그 기적을 보고서도 (예언자를 아끼고 믿음을 갖는 것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더니, '이것은 항상 있는 마술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말하노라. 그들은 (예언자 또는 기적의) 진리를 거역한 채 그들의 욕망을 따를 뿐이라. 그러나 모든 (천국행 사람들은 선한 일에, 지옥행 사람들은 사악한 일에 몰두함) 일은 지정된 곳에(천국행 사람들은 천국에, 지옥행 사람들은 지옥에) 이르노라. 약속하거늘, (메카 다신교들에게, 성서 꾸란에; 이전의 백성들의 교훈과 사후 세계의 전황을 알려 그들이 불신과 거역을) 포기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도달하니, 이는 완전한 진리더라.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지옥의 처벌로 그들을 경고한 예언자들도 그들에게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못하리라. 상황이 이러할진데, (나의 사도여! 예언자 소명 선포와 진리로의 초대 이후, 그대도 그들을 외면하라. 초대자(이스라필 천사와, 지브릴 천사)가 그들이 거역한 것들에 대해 심판을 하는 날, 공포로 인하여 눈을 내려 깔고,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메뚜기 떼들 처럼 무덤으로부터 나오리라. 고개를 숙여 그 초대자들(이스라필 천사와 지브릴 천사)에게 뛰어가며; ' '오늘은 너무 어려운 날입니다'라고 말하리라." (54:1-8)

알라후 테알라께서 당신들도 인도하시기를!

다신교도들이 무슬림들에게 행했던 3 년의 포위가 끝난 후, 나즈란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로 왔다. 그들은 약 스무 명으로, 에티오피아로 이주했던 교우들로부터 이슬람에 관해 전해들었다. 그들은 이슬람에 대하여 배우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해 메카로 온 것이다. 그들은 카바에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와 만났다. 그들은 많은 질문을 하였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보다 더 완벽하고 보다 더 아름다운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꾸라이쉬 다신교도들은 그들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 만물에 자비로 오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꾸란의 몇 구절을 낭송하였다. 그들은 깊이 감동되어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리고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인도를 매우 반갑게 받아들이고 커다란 기쁨으로 신앙고백을 한 후에 무슬림이 되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허락을 청하였을 때 아부 자흘이 다가와서 그들을 모욕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당신들 같은 바보들은 처음 보았소! 그의 옆에 잠깐 앉더니 당신들 조상의 종교를 버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받아들였소!" 이제 막 교우가 되는 영예를 받은 사람들이 이에 대답했다. "우리

아카바 신앙이 일어난 곳에 지어진 베일러 마스지드
(Beyler Masjid).

곳에 상처를 남긴, 그 엄중한 포위를 풀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마음 속의 적대감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더욱 난폭해졌다. 그들의 온갖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은 급속하게 확산되었으며,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은 무지한 시대의 암흑으로부터 허덕이던 사람들을 진정한 진리에 이르게 하였다. 진리에 이른 자들은 이 축복에 감사를 올리고, 다신교들에 대항해 어떠한 핍박에도 고문에도 지지 않고 견디어 냈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의 기적과 무슬림들의 종교에 대한 열정을 본 착한 사람들은 이슬람을 영접하게 되었다.

달을 두 개로 나누다

우리의 귀감인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경이로운 기적 중의 하나는 달을 두 개로 나눈 것이다. 아부 자흘과 왈리드 빈 무기라 등 일부의 다신교도들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말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예언자라면 달을 두 개로 나누어, 반쪽은 콰이키안 산 위에서, 그리고 또 반쪽은 아부 꾸바이스 산 위에서 비치게 해보시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물었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알라

는 당신들도 알라후 테알라께로 인도하여 바른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들에 맞서 모욕적인 언사로 보복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잘 알아두시오, 우리는 몇 명의 무지한 사람들 말 때문에 우리의 커다란 축복을 잃고 싶지 않답니다. 또한 우리는 결코 이 진리의 종교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이 사건에 대하여 '까싸스 장'의 계시를 내리셨다. 그 해석은 이렇다.

'이전에 알라후 테알라로부터 성서(꾸란)를 받은 착한 자들이 있어, 이들은 그것을 믿고 있나니, 그것이 그들에게 계시될 때 그들은 '저희는 그것을 믿나이다. 그것은 알라후 테알라로부터 온 진리이니 저희는 이전에도 무슬림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 그들은 두 배의 보상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인내하였고 악을 선으로 이겨냈으며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들에게 준 양식을 자선으로 베풀었기 때문이라. 그들이 악한 말을 들을 때에는 등을 돌리며 '우리에게는 우리의 일이 있고 너희에게는 너희의 할 일이 있나니 당신들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지한 자들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말하더라. 너희는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인도하지 못하나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그 분이 원하시는 자를 인도하시니 그분은 인도받을 자들을 아시니라." (28:52-56)

슬픔의 해

우리들의 예언자의 큰 아들인 까심이 17 개월이 되었을때 숨졌다. 슬픈 일이 있은 지 몇 년 뒤에 그분의 다른 아들 압둘라 또한 숨졌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통곡하면서 멀리 보이는 산을 향해 외쳤다. "오, 산이여! 내게 일어난 일이 네게 일어났다면 너는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졌을 것이다." 카디자 성인이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예언자는 대답했다. "그들은 천국에 있소"

다신교도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두아들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대단히 기뻐하였다. 아부 자흘 등 다신교도들은 이것을 좋은 기회로 보고 큰소리를 쳤다. "이제 무함마드의 대는 끊겼다. 그의 가계를 이을 후손이 없지 않은가? 그가 죽으면 그의 이름은 잊혀버리고 말 것이다." 이일에 관련하여 알라후 테알라께서 '카우싸르 장'의 계시를 내려 예언자를 위로하셨다. 그 해석은 아래와 같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대에게 카우싸르(풍성한 은혜)를 내리셨다. 그러하니 알라후 테알라께 기도하고 제물을 바치라. 실로 그대를 (대가 끊겼다며) 모욕한 자들이 운이 없으며, 대가 끊긴 것이라…(그대에게 대가 끊겼다고한 자들은, 자신들의 대가 끊어지고, 정직하지 않고, 예배를 올리지 않은 자들이라.

예언자의 두 아들이 숨진 후에 아부 탈립이 병들어 그 상태가 나날이 위중해지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꾸라이쉬 다신교도들은 아부 탈립에게 문병을 갔다. 그들의 생각은 이러했다. "아부 탈립은 살아 있을 때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이제 그의 죽음이 임박했다.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찾아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함자 같은 세상에 둘도 없는 당당한 용사와 용맹스럽기로 유명한 우마르 같은 아랍의 영웅들이 이미 무슬림이 되었고, 아랍 부족의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그들을 찾아가 그의 뜻을 받들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무슬림들의 숫자도 나날이 불어나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아부 탈립을 찾아가면 그가 중재에 나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무함마드의 종교를 적대시하지 않으면 그도 우리의 종교를 비방하지 못할 것이다." 라 논의후 아부 탈립을 찾아갔다.
우끄바, 샤이바, 아부 자흘, 우마이야 빈 할라프 등의 이름난 불신자들이 아부 탈립의 머리맡에 앉아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뛰어남을 인정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당신에게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 무함마드가 우리에게 맞서 서로 간의 적대관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종교를 비방하지 않도록 중재에 나서 주십시오."
아부 탈립은 사람을 보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초대한 뒤 말했다. "꾸라이쉬의 대표들이 요청하기를, 서로 간의 종교에 대해 간섭하지 않도록 하자고 합니다. 만약 그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그들도 협조하겠다고 합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오, 숙부님! 나는 그들에게서 단 한마디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 한마디 말로 인하여 모든 아랍이 그들에게 복속될 것이며, 아랍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들에게 세금을 바칠 것입니다." 예언자는 또한 꾸라이쉬 대표들에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내게 한 마디만 말해주면 모든 아랍을 통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아부 자흘이 물었다. "좋소. 우리는 열 번이라도 말하겠소. 그 한 마디가 무엇이오?" 예언자가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 외에 신은 없다(라 일라하 일랄라)" 라 말하시오. 그리고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 외에 당신들이 숭배하던 우상들을 모조리 없애시오" 다신교도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만약 당신들이 태양을 가져와 내게 준다 해도 나는 당신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신교도들이 말했다. "오, 까심의 아버지여! 당신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소. 우리는 당신을 존중하려 했지만, 당신은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구려!" 그러면서 그들은 일어나 가버렸다. 아부 탈립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말했다. "그대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아주 적절하였습니다. 그대는 진실을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숙부의 말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는 숙부가 이슬람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았다. "오, 숙부! 한번만 '라 일라하 일랄라'라고 말해 주세요! 심판의 날에 숙부를 위해 제가 중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부 탈립이 대답했다. "사람들이 날보고 '죽음이 두려워서 무슬림이 되었다'고 비난할 것이 두렵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미안하다." 아부 탈립은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병세는 더욱 심각해져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나의 사도여, 그대의 많은 자손들은 훌륭함과 정직함이 심판의 날까지 이어지리라. 사후에 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보상이 있을지다.)' (108:1-3)

오, 세계의 통치자여, 땅과 바다의 술탄이여, 천사를 능가하는 가장 고귀한 최후의 예언자여! 알라후 테알라의 천사가 그대의 소식을 전하노니,
그대 몸은 생명, 말은 친절, 가슴은 사랑이라.
아흐마드, 무함마드, 마흐무드라고 알라후 테알라께서 부르시니 당신의 그 이름으로써 신앙고백이 완성되도다.

무지한 자들은 그 비밀을 알거나 이해 못하느니 알라후 테알라께서 당신의 이름을 예언자 이름과 함께 쓰셨나니.

당신을 사랑하는 종복들의 왕이시여, 나의 황제시여!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소서, 나의 비할 데 없는 주인이여!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당신을 무한히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혜 받음을 믿습니다.

당신은 내 몸의 영혼이니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나는 당신을 위하여 태어났나이다, 나의 위대한 왕이여!

당신은 내 혈관 속의 피니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나이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은 영혼들의 총아입니다.

당신은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모든 영혼을 치료하여 주며,
눈위의 장식, 머리위의 왕관, 마음의 빛이요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가장 소중한 사람, 최고의 피조물이니,당신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다른 이를 찾지 않으리.

석학들의 지도자이며, 모든 학자들의 인도자이니,
당신을 영예롭게 함은 일곱 하늘과 땅을 행복하게 하네.

사람들과 진들에게 보내는 알라후 테알라의 마지막 예언자이시니,당신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땅 속에 그대로 묻혀있으리.

카디자 성인의 서거

히즈라 3 년 전, 라마단 달의 초순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와 슬픔을 함께 나누어 온 카디자 성인이 65 세의 나이로 서거했다. 그들이 결혼한 지 24 년이 되는 해로 불신자들의 포위가 막 끝난 뒤였다. 예언자는 직접 그녀를 땅에 묻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아내와 숙부의 죽음으로 크나큰 슬픔 속에 빠졌다. 이 때문에이 해를 '슬픔의 해'라고 부르게 되었다.

카디자 성인의 죽음은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에게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신앙고백을 하였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확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분을 가장 지원하고 지지하던 후원자였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적대시할 때에도 온 마음으로 예언자를 사랑했다. 그녀는 이슬람을 위해 모든 재산과 재물을 쏟아 부었으며, 예언자의 은혜를 입기위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정성을 쏟았다. 예언자는 아내의 이러한 훌륭한 미덕에 대하여 항시 말하곤 했다.

어느 날, 카디자 성인은 집밖에 나간 우리의 예언자를 찾기 위해 나섰다. 그 때 지브릴 천사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카디자 성인은 예언자의 행방을 묻고 싶었으나 이 사람이 혹시 적일지도 모른다 하여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예언자를 보고 그녀는 밖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는 지브릴 천사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축하인사를 전해달라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 천국에 당신을 위해 진주로 만들어진 집이 마련되어 있다고 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는 슬픔이나 괴로움이 없지요."

그의 손이 얼어붙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인류 중에서 가장 행운을 얻은 교우들에게, 잊지 못할 설교로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었다. 그분은 계시 받은 내용들을 교우들에게 빠뜨리지 않고 잘 설명하여 모든 것에 대한 의아함이 없도록 했다. 예언자는 또한 불신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찾아가 열심히 그들을 신앙으로 초대하였다. 아부 자흘과 왈리드 무기라는 매우 분노하였다. "이 상태로 둔다면, 무함마드 가 모든 사람들을 그의 종교로 개종시켜, 우리의 우상을 숭배할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 그들이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이제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을 죽이는 길 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결의하였다. 아부 자흘은 왈리드 빈 무기라와 마흐줌의 가문의 몇몇 젊은이를 데리고 카바로 갔다. 그 때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예배를 올리고 있었다. 아부 자흘은 돌덩이를 움켜쥐고 예언자 쪽

히즈 페어 히즈라 경로

카이버
민데스
우윤
알 메디나투엘무나와라 (빛나는 도시)
쿠바 모스크
베즈메
아티크
와디 라노나
후래쉬
옌부
무사이지드
와시타
예트미
바드르 바드르
아부 레이이크
마흐드
나시프
아쿨
투와리키야
알 무바라키야 우물
카란
마스투라
알아브와
히자즈
래비
주파
가디르이쿰
와디 카일리
움무 마베드 텐트 와디 알 쿠라 전투
바리카
알다카
쏘울
알 카밀
쿨라이스
와디 알라지
우스판
해시샤시
르드반
무카이티
후다드 알샴
쿠프라
자멈
아티파
제다
후다이비야
마카 알 무카라마 (성 메카)
쏘어 동굴
타이프
홍해
선지자 무함마드의 길 선지자 무함마드의 초청장
샤바
무역 캐러밴의 경로
얄람람

으로 다가갔다. 그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돌로 치려고 손을 들어 올렸을 때 손이 갑자기 공중에서 그대로 굳어 버렸다. 그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놀라서 물러났다.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 손이 절로 풀리면서 돌이 땅에 떨어졌다.

마흐줌 가의 아들 하나가 그 돌을 집어 들고 "잘 보시오! 내가 해치우겠소!" 하며 예언자 쪽으로 다가갔다. 갑자기 그의 눈이 멀게되어 주위를 볼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마흐줌의 나머지 아들들이 모두 함께 예언자 쪽으로 달려들었다. 그들이 예언자 곁에 접근했을 때 그들은 예언자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축복받은 목소리는 들을 수 있었다.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니, 뒤에서 들렸으며, 뒤로 가니, 이번에는 목소리가 반대쪽에서 들려 왔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 마침내 그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아무 해를 끼치지 못한 채 놀란 가슴을 안고 물러가는 수 밖에 없었다. 이 일에 대하여 알라후 테알라께서 '야씬장'의 계시를 내리셨다. 그 해석은 이렇다.

타이프 사람들에 대한 포교활동

예언자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다신교도들은 완고한 편견에 사로잡혀 알라후 테알라를 믿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무슬림들의 친구나 친척, 심지어 어린이들까지도 못살게 괴롭혔다. 갈수록 잔인함을 더해 가는 그들을 보며 예언자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예언자는 메카에서 가까운 타이프 마을을 찾아 그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려고 생각했다. 그분은 자이드 빈 하리싸를 데리고 타이프 마을에 도착했다. 예언자는 타이프 마을의 유력자인 아므르의 자손들인 압디 얄릴과 하비브, 그리고 마수드를 만나 이슬람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알라후 테알라를 믿을 것을 권유하였다. 그들은 이에 반발하며 예언자를 모욕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예언자를 보내실 때, 당신 말고는 다른 사람을 못 찾으셨나?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단 말인가? 우리 땅에서 사라져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시오. 당신네 부족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온 게 아니오? 우리는 당신과 멀리하여, 절대로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썩 꺼지시오!

우리의 예언자는 슬픔 속에 그곳을 떠났다. 다음에는 사키프 부족을 찾아가 열흘 넘게 포교활동을 벌였으나, 거기서도 아무 소득을 얻지 못했다. 그들 역시 예언자를 놀리고, 모욕하고, 내쫓았다. 그 부족의 젊은이들과 아이들은 길에 줄지어 서서 예언자에게 돌을 던졌다. 자이드 성인은 자신의 몸을 방패로 삼아 예언자를 보호하려고 안간힘을 다썼다. 생명을 바칠수 있는 이 날을 기다리지 않았던가! 수없이 날라드는 돌멩이를 막으려고 애쓰던 자이드 성인은 머리와 몸, 그리고 발에 많은 상처를 입었다. 자이드 성인의 몸은 마침내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는 잔인한 부족 사람들에게 온 힘을 다하여 외쳤다. "그만! 그만 던지시오. 그분은 온 세상의 귀감입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입니다! 내 몸을 갈기갈기 찢더라도 그분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돌멩이 하나가 자이드를 스쳐지나 예언자의 발에 맞아 피를 낭자하게 했다. 슬프고 지친데다 상처까지 입은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우트바와 샤이바 형제의 농장 가까이 오게 되었다. 우리의 예언자는 거기서 자신의 발에서 피를 닦고 몸을 깨끗이 한 후 나무 밑에서 예배를 올렸다. 그리고는 손을 들어 알라후 테알라께 간구하였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들 앞에 장애물을 놓으셨다. 그들의 눈을 덮개로 씌우니 이제그들은 보지 못하더라.' (36:9)

이 모습을 농장의 주인이 지켜보고 있었다. 또 그들은 예언자가 겪은 일을 목격했고, 그가 얼마나 외로운지 잘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동정심이 일어나 노예인 앗다스를 보내어 예언자에게 포도 몇 송이를 전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비스밀라'를 읊고는 막 포도를 먹으려 하였다. 포도를 가져다 준 노예는 그리스도 교인이었는데, 그가 '비스밀라'를 듣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다. "나는 이곳에서 산지가 오래되는데 누구로부터도 그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되물었다. "당신은 고향이 어디인가?" 앗다스가 대답했다. "니나와입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그러면 당신은 예언자 유누스의 고향에서 왔군!" 앗다스가 물었다. "당신께서 어떻게 유누스를 아십니까? 이곳 사람들은 그를 모르는 데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대답했다. "그는 나의 형제이며, 그도 나와 같은 예언자라." 앗다스가 말했다. "이같이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이렇게 훌륭한 말을 하는 분이 거짓말쟁이 일리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는 무슬림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나는 이 잔인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밑에서 몇 년이나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남의 권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단 하나의 훌륭한 점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 물욕을 채우고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온갖 나쁜 짓을 서슴치 않습니다. 나는 그들을 미워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가서 당신을 모시는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무지하고 무식한 자들로부터 당신을 대신해 표적이 되어 축복받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꺼이 희생을 하겠습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웃으며 말했다. "때가 될 때까지는 너는 주인 밑에 그냥 있거라.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질 것이니 그 때 나에게 오거라. 예언자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메카를 향해 출발했다. 메카까지는 이틀 동안 걸어야 하는 거리에 이르렀을 때, 구름 하나가 예언자를 햇볕으로부터 가려주고 있었다. 유심히 보니 지브릴 천사였다.
'사히 부하리'책과 아흐마드 빈 한발의 '무스나드'에 기록된 이야기:

메카 메디나 사진

예언자의 모스크

낙타가 멈춰 앉는 곳은 알라의 사도(그분께 평화가 있기를)가 모스크를 지은 곳이며, 알라의 사도의 집은 모스크와 가깝습니다. 우리 선지자의 무덤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Abu Bakr Siddiq와 Omar bin Khattab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은 그의 옆에 묻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옆에 장사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언자의 아내인 아이샤 성인이 물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우후드 때보다도 더 괴로운 날이 있었습니까?"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대답했다. "실로 우후드 전투에서 이교도들로부터 받은 괴로움보다도 나의 민족으로부터 받은 고통이 더 컸소. 나는 이븐 압디 얄릴 빈 압디 쿨랄을 만나 내가 예언자임을 밝히고 그를 우리 믿음을 권유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소. 내가 그들을 떠나 까르니 사알립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너무나 괴로워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소. 내가 머리를 들어보니 구름 하나가 나를 가려주고 있는 것이 보였다오. 구름 속에 지브릴 천사가 서 있었으며 나에게 이렇게 말했소. "오, 무함마드! 그 민족이 그대를 두고 하는 말을 알라후 테알라께서 들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라후 테알라께서 아십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산을 맡고 있는 천사를 당신에게 보내셨으니,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령을 하시요" 산을 맡은 천사가 다가와 나에게 인사를 하며 말했소. "오, 무함마드! 지브릴 천사가 말한 대로 알라후 테알라께서 산을 맡은 저를 보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명령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큰 두 산을 당겨, 메카의 다신교도들이 이 사이에서 찌그러들게끔 해 달라고 명령한다면 나는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나는 그에 동의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소. "아니오! 나는 우주에 자비를 베풀기 위해 보내진 사람입니다. 나는 알라후 테알라께 이 다신교들을 오직 알라후 테알라만을 믿고 따르는 자손들로 만들어 주시도록 알라후 테알라께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내가 답했소."

우리의 예언자는 타이프에서 메카로 돌아오는 도중에 나흘라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알라후 테알라께 예배를 올렸다. 이때 누사이빈의 한 무리 진들이 그곳을 지나게 되었다. 그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꾸란을 읊자,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소리를 유심히 들었다. 그리고는 우리의 예언자와 대면한 뒤에 무슬림이 되었다.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면, 그곳 진들에게도 나의 믿음으로의 초대를 전해주시오." 그 진들은 예언자의 초대를 동족에게 전달하였으며, 그들 또한 무슬림이 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꾸란의 '진 장'으로 계시되었으며, '부하리'와 '무슬림'등 잘 알려진 하디스 셰리프에도 기록되어 있다. 예언자는 이 일이 있는 뒤 메카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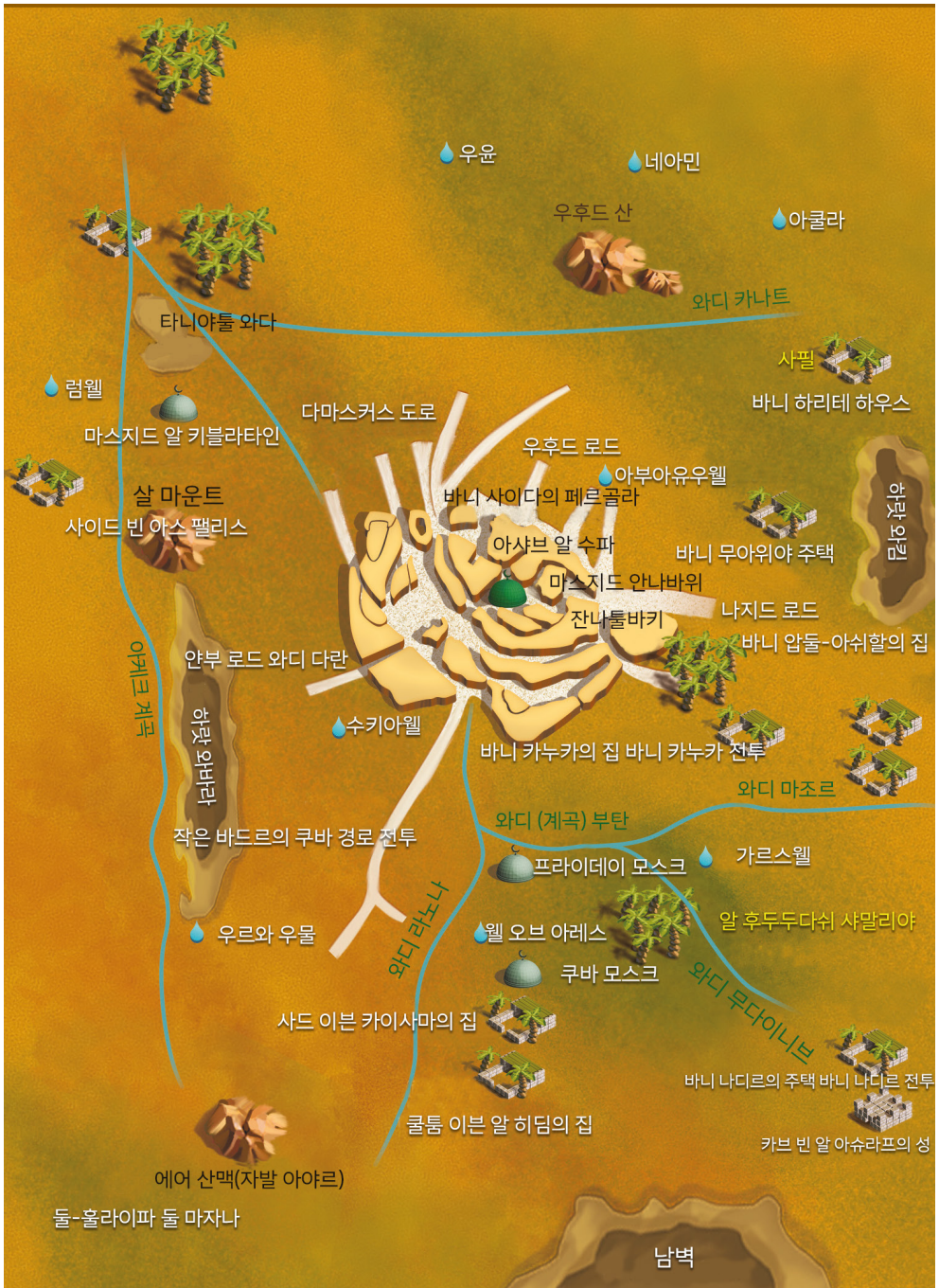
"라 일라하 일랄라" 로 구원받다

우리의 예언자는 메카에서 무뜀 빈 아디의 보호 아래에 있었다. 그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계속했다. 이에 다신교도들은 전보다 더욱 잔인하게 고문과 핍박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우리의 예언자에게 명하시어 순례기간에 카바를 찾는 아랍 부족들을 이슬람으로 인도하도록 하셨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이 명령을 받들어 메카 주위에 있는 줄마자즈, 우카즈, 마잔나의 축제장을 찾아가, 아랍 부족들에게 유일하신 알라후 테알라를 믿고 그분을 숭배하도록 초대하였으며 자신이 예언자임을 그들에게 알렸으며, 만약 그들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알라후 테알라께서 천국을 그들에게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행하게도 그들 모두는 이러한 초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예언자의 상심은 커져갔다. 그들 중 일부는 예언자를 냉대하고 모욕을 주었으며, 불쾌한 표정으로 욕설을 퍼붓기도 하였다. 특히, 꾸라이쉬 다신교도들은 예언자를 뒤따라다니며 다른 부족에게 나쁜 말을 퍼뜨리는 등 방해를 놓았다.
'이맘 아흐마드'와 '바이하키', '타바라니와 이흐삭'등의 기록에 따르면, 라비아 빈 아흐마드는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내가 젊었을 때 아버지를 따라 미나에 갔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아랍 부족들이 숙영하고 있는 곳에 찾아와서 , "오, 여느 부족의 자손들이여! 나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입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우상을 내던져버리고 알라후 테알라만을 숭배하라고 하셨고, 알라후 테알라께서 명하신 나의 의무를 완수할 때까지 여러분이 나를 따르고 나를 보호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머리를 묶고 험상궂은 눈을 가진 사나이가 예언자의 뒤를 따르면서 흉내 내어 소리를 질렀다. "오, 여느 부족의 자손들이여! 이 사람은 당신들에게 우리의 우상인 랏과 웃짜를 숭배하는 것을 금지시키면서, 자신이 만든 종교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의 말을 듣지 마시오!"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뒤를 따라 다니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앞에 가는 사람의 숙부인 아부 라합이란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타바라니는 '타리끄 빈 압둘라'에서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나는 줄마자즈 시장에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보았다. 그분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오, 사람들이여! 라 일라하 일랄라를 외쳐 구원을 받으시오." 어떤 사람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손에 잡히는데로 돌주워 던지고는 말했다. "오, 사람들이여! 그를 믿지 마시오!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분의 발은 돌에 맞아 피가 흐르고 있었으나 그 사람은 조금도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은 채 초대를 계속하였다. 사람들이 서로 옆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 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압둘 무탈립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돌을 던지며 따라가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숙부인 아부 라합이랍니다.""

이맘 부하리는 그의 책 '타리훌 카비르'에서, 그리고 타바라니는 그의 책 '무자물 카비르'에서 무드릭 빈 무니브이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오는 것을 이렇게 술회했다. "어느 날, 우리는 미나에 가서 잠시 머무르고 있었다. 우리는 한 무리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무리지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오, 사람들이여! 라 일라하 일랄라를 외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던 몇 사람이 그 사람의 고운 얼굴에 침을 뱉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머리에 흙을 끼얹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그사람을 저주하며 온갖 모욕을

우윤
네아민
우후드 산
아쿨라
와디 카나트
타니야툴 와다
사필
바니 하리테 하우스
럼웰
다마스커스 도로
마스지드 알 키블라타인
우후드 로드
아부아유우웰
살 마운트
바니 사이다의 페르골라
사이드 빈 아스 팰리스
아샤브 알 수파
바니 무아위야 주택
하랏 와킴
마스지드 안나바위
나지드 로드
잔나툴바키
바니 압둘-아쉬할의 집
얀부 로드 와디 다란
아케크 계곡
하랏 와바라
수키아웰
바니 카누카의 집 바니 카누카 전투
와디 마조르
와디 (계곡) 부탄
작은 바드르의 쿠바 경로 전투
프라이데이 모스크
가르스웰
알 후두두다쉬 샤말리야
우르와 우물
와디 라나나
웰 오브 아레스
쿠바 모스크
와디 무다이니브
사드 이븐 카이사마의 집
바니 나디르의 주택 바니 나디르 전투
쿨툼 이븐 알 히딤의 집
카브 빈 알 아슈라프의 성
에어 산맥(자발 아야르)
둘-훌라이파 둘 마자나
남벽

다 주었다. 이러한 소동은 정오까지 계속되었다. 어떤 어린 소녀가 물 동이를 들고 이곳으로 왔다. 그 광경을 보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사람은 소녀가 준 물을 마시고 난 뒤 말했다. “오, 내 딸이여! 네 아버지가 함정에 빠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굴욕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은 누구이며, 저 소녀는 또 누구입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이 사람은 압둘 무탈립의 자손인 무함마드며, 저 소녀는 그의 딸인 자이납이지요.”

사이드 빈 야흐야 빈 사이드 알아마위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의 책 ‘마가지’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아버지는 아부 나임과 압둘라흐만 아미르와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이 들었다. “어느 날,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우카즈 축제장에 갔다. 그는 거기서 바니 아미르 부족을 만나자 그들에게 물었다. “오, 바니 아미르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피난자들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 허락을 받지 않고는 우리의 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예언자가 말했다. “나는 알라후 테알라께서 보낸 사도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나의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널리 알릴 수 있을 때까지 나를 보호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꾸라이쉬 부족 중에서 어느 집안에 속합니까?” 우리의 예언자가 대답했다. “나는 압둘 무탈립의 자손입니다.” 그들이 또 물었다. “당신이 압둘 무탈립의 자손이라면, 그들은 왜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대답했다. “그들은 앞장서서

나를 거짓말장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니 아미르 부족 사람들이 말했다. “오, 무함마드! 우리는 당신을 거부하지도 않고, 또한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예언자로서의 의무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우리의 예언자는 그들 옆에 앉았다. 바니 아미르 부족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바이하라 빈 파리스는 축제장에서의 장사 일을 모두 마치고 숙영지로 돌아왔다. 그가 부족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들이 “무함마드”라고 알려주자 그가 다시 물었다. “그를 당신들 옆에 앉힌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대답했다. “그는 우리에게 피난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예언자 소명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들에게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바이하라가 우리의 예언자에게 말했다. “우리가 당신을 보호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곧 우리의 가슴을 모든 아랍 부족의 화살 과녁으로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부족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보다 더 나쁜 것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민족은 여태 없었다. 우리 부족은 모든 아랍 부족들을 상대로 싸워야 할 것이고, 우리 부족 사람들은 그 몸을 화살 과녁으로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 사람을 그의 부족이 좋게 평가했다면 그들은 앞장서서 이 사

람을 보호했을 것이다. 소속된 부족에서 비난받고 추방당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주고, 보호하려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뒤 그는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를 향해 절망의 말을 내뱉었다. "즉시 우리를 떠나 당신 부족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이 우리 부족과 같이 있지 않았다면 나는 당신 목을 베어버렸을 거요!" 이 말을 듣고 난 온 세상의 귀감인 예언자는 크나큰 슬픔에 빠져 자신의 낙타에 올라탔다. 그 오만방자한 바이하라는 우리의 예언자를 낙타에서 떨어뜨렸다. 이 때 교우중 한 사람인 다바아 빈티 아미르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친척들에게 외쳤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이 사람들로부터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구해낼 사람이 없습니까?" 그녀의 숙부의 아들 셋이 그 악덕의 바이하라에 대항하여 일어섰다. 바이하라 부족 쪽에서 두 사람이 나섰지만 그들 셋이 바이하라와 그 지지자들을 두들겨 팼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이 소동을 지켜보았으며, 자신을 도운 세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올렸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이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바이하라와 그를 도운 사람에 대하여 말했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그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마옵소서."

축복의 기도를 받은 사람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영광을 얻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신자인 채로 죽었다. 바니 아미르 부족 일행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성서를 읽은 바 있는 부족의 원로 한 사람에게 메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 원로자는 우리의 예언자의 이름을 듣고 나자 그들을 몹시 나무랐다. "오, 바니 아미르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무슨 짓을 한 게요? 지금까지 이스마일의 자손들이 거짓으로 예언자임을 주장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진실과 진리를 말하였소. 이러한 실수를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게 되었구려."

그 위대한 예언자의 축복받은 발을
내 머리 위의 왕관으로 떠받들면 어떠할까

그 발의 주인 되는 이는
예언자 정원의 한 송이 장미라네

오, 행운이여! 그 발에 얼굴을 묻으라.
술탄 아흐마드 I 세

승천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만나는 모든 부족에게 이슬람을 알렸으며, 사람들에게 올바른 종교를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슬림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예언자를 전혀 후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의 예언자를 모욕하고, 괴롭혔으며, 거짓말쟁이라고 조롱하며 비난하였다. 이 세계의 귀감인 예언자는 매우 지쳤고, 배고프고 목말랐으며, 맘에 상처를 받고 아주 깊은 슬픔에 젖었다. 낮동안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메카 이단자들은 지속적으로 예언자를 따라다녔으며, 카바를 순례하러 온 사람들이 무슬림이 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는 한편, 예언자를 대 놓고 괴롭히는 일도 서슴치 않았다. 그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핍박하던 이단자들이 도처에 깔려있어 갈 곳이 한군데도 없게 되었다. 마침내 예언자는 숙부 아부 탈립의 구역에 있는 아부 탈립의 딸 움미하니의 집으로 갔다. 당시에 움미 하니는 아직 무슬림이 되지 않았었다. "누구신가요?" 그녀가 묻자 예언자가 대답했다. "나는 당신 숙부의 아들인 무함마드 입니다. 만약 허락한다면 손님으로 왔습니다." 움미 하니가 말했다.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영예로운 손님이 방문하시다니 생명을 바치겠나니, 미리 기별을 하셨더라면 무엇이라도 준비했을 것인데, 지금 대접할 음식이 하나도 없답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은 전혀 안중에 없습니다. 단지, 나의 알라후 테알라께 예배를 드릴 장소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움미 하니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응접하였으며, 그분에게 짚으로 만든 깔 자리와 물병과 그릇을 건네주었다.

아랍 사람들은 자기 집을 방문한 사람에게 가장 융성한 접대를하며, 그 손님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가장 영예스러운 의무로 여겼다. 손님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은 주인으로서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던 것이다. 움미 하니는 '이분는 메카에 수많은 적들을 두고 있다. 심지어 그를 죽이려는 무리들도 있다.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일 아침까지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라 생각하고 그녀는 아버지의 칼을 몸에 지니고 집 주위를 돌며 순찰하기 시작했다.

축복받은 운명의 위대한 사람이
움미 하니의 집에서 하루밤 머물도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그날 엄청난 수난을 겪었다. 그분은 세정의식을 마치고 알라후 테알라께 예배를 올렸으며, 사람들이 알라후 테알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참된 신앙과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였다. 그분은 매우 지친 상태였으며, 배가 고팠고, 마음이 괴로웠다. 그는 자리 위에 누

워 곧 잠이 들어버렸다. 그때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천사 지브릴에게 "내 사랑하는 예언자를 몹시 힘들게 하였도다. 그의 몸과 그의 여린 마음에 상처를 주었도다. 그럼에도 그는 나에게 간청을 하도다. 그는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고 염원하도다. 가라! 내 사랑하는 사도를 나에게 데려오라! 그에게 나의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리라. 그와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내가 마련한 축복을 보게 하리라. 그를 믿지 않고 말 또는 글 또는 행동으로써 그에게 상처를 입힌 자들에게 마련한 처벌을 처벌을 보게 하리라. 이는 그를 내가 위로함이다. 그의 여린 마음에 난 상처를 내가 치유하리라."

천사 지브릴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곁에 왔을 때 그분이 평온히 잠든 것을 보고는 깨우기를 안타까워했다. 그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예언자의 축복받은 발바닥에 가만히 입을 맞추었다. 지브릴 천사는 심장이나 피가 없기 때문에 그의 차가운 입술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잠에서 깨웠다. 그분은 곧바로 천사 지브릴 알아보았으며, 알라후 테알라께서 노여워하실 것을 두려워하며, "오, 나의 형제 지브릴이여! 이 늦은 시각에 왜 여기에 왔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하여 알라후 테알라를 노엽게 한 것인가요? 혹시 나쁜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까?"

지브릴 천사가 대답했다. "오,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높으신 분이여! 창조주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여! 모든 예언자들의 으뜸이시며 가장 우월한 선의 원천이시여! 알라후 테알라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부디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세정의식을 거행하였다. 지브릴 천사는 빛으로 된 터번을 예언자의 축복받은 머리에 둘러씌웠고, 빛으로 된 옷을 그분에게 입혔으며, 루비로 만든 허리띠를 차게 하였고, 손에는 사백 개의 진주가 박힌 에메랄드 지팡이을 쥐게 하였다. 그 진주 하나하나가 마치 샛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지브릴 천사는 또한 사파이어로 만든 신발을 예언자의 축복된 발에 신겼 다. 그런 뒤 둘은 서로 손을 잡고 카바 신전으로 갔다. 거기서 지브릴 천사는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의 가슴을 열고 그의 심장을 꺼내었다. 지브릴은 잠잠 우물로 그 심장을 씻었다. 지혜와 믿음을 담은 그릇을 가져와 그것을 가슴 안에 가득 부은 뒤 가슴을 닫았다.
지브릴 천사는 천국에서 데려온 부라크라는 이름의 하얀 동물을 가리키며 예언자에게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여기에 오르십시오! 모든 천사들이 당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때 우리의 예언자는 슬픔에 젖어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 순간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지브릴에게 명령하셨다. "오, 지브릴! 내 사랑하는 예언자에게 왜 슬퍼하는지 물어보라." 지브릴이 묻자 우리의 예언자가 대답했다. "나는 이토록 영예와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

에 나의 연약한 공동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만 년 동안 아라사트[17]에서 선채로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기위해 기다리는 고통을 그들이 어떻게 견뎌내며, 삼만 년이나 걸려 시라트[18] 다리를 어떻게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명령하셨다. "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아! 마음을 편히 하라. 나는 너의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 그 오만 년을 한 순간처럼 할지라. 슬퍼하지 말라!"

예언자는 부라크에 올랐다. 부라크는 얼마나 속도가 빠르던지 한 순간에 시야를 벗어나서 먼 곳에 도달하였다. 지브릴이 여행 도중에 몇 곳에서 예언자에게 부라크에서 내려 예배를 올리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의 귀감인 예언자는 세 곳에 들러 예배를 올렸다. 예언자가 예배 올린 곳들을 묻자 지브릴이 대답하기를, 첫 번째 장소는 예언자가 메카에서 이주하게 될 메디나이고, 두 번째 장소는 무사 알라히살람이 알라후 테알라와 대화를 한 '투리 시나'이고, 세 번째 장소는 성인 이사 알라히살람이 탄생한 '베들레헴'이라하였다. 이후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아끄사 성원에 도착하였다. 아끄사 성원에 이르자 지브릴은 바위에 손가락으로 구멍을 내어 거기에다 부라크를 매었다. 옛 예언자 몇 명의 영혼들이 원래의 사람의 모습으로 모여있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아담 과 노아, 그리고 이브라힘(알라히사람)에게 차례차례로 예배 인도자인 이맘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지브릴 천사가 알라후 테알라의 사랑하는 예언자에게 말했다. "당신이 있으면 누구도 이맘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다른 예언자들의 이맘이 되어 2 라카의 예배를 거행하였다.

예언자는 잇따른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알려주었다. "지브릴 천사는 나에게 천국에서 가져온 과즙음료 한 잔과 우유 한 잔을 나에게 가져다주어, 내가
우유를 선택하니 지브릴이 말하기를, 내가 알라후 테알라의 뜻대로 두 세계의 축복을 선택했다 하였다. 지브릴은 나에게 다시 두 잔을 권했는데, 하나는 물이요 또 하나는 벌꿀이었다. 나는 그 두 잔을 모두 마시었다. 지브릴이 "벌꿀은 당신의 공동체가 이 심판의 날까지 존속한다는 뜻이며, 물은 당신의 공동체가 죄를 씻고 순결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라 했다. 이후 우리는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 지브릴이 어떤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지브릴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는 무함마드입니다." "그분이 승천으로 초대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말했다.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요." 즉시 문이 활짝 열렸다. 내 앞에는 예언자 아담이 서 있었으며, 그는 나에게 환영의 인사를 하고 나를 위해 기도를 올렸다.
나는 수많은 천사들을 거기서 보았다. 그들은 모두 겸허한 모습으로 선 자세(끼

[17] 메카에 있는 지명이다. 성지 순례시 이곳에서 돌로 악마를 쳐서 죽이는 의식을 거행한다. 심판의 날, 부활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천국이나 지옥을 위하여 기다린다.
[18] 현세와 후세를 연결하는 다리. 종말의 날 모든 사람들이 이 ㅣ 다리를 거쳐서 천국 또는 지옥으로 들어간다

얌[19])를 취하고 알라후 테알라를 찬미하고 있었다. 나는 지브릴에게 물었다. "이 천사들은 이렇게 예배드립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창조되고 나서부터 이 세상 끝까지 저런 자세로 예배를 올립니다. 당신들의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알라후 테알라께 간청하십시오." 나는 알라후 테알라께 기도를 올렸으며,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나의 기도를 받아들이셨다. 그것이 예배 때 손을 서로 포개고 선 자세인 끼얌이다.

　나는 한 곳에서 멈추었다. 천사들이 어떤 사람들의 머리를 땅에 부딪쳐 부스러뜨리고 있었으며, 그들 머리는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고 있었다. 다시 한 번 부서지고 난 뒤에 또 원래대로 되었다.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브릴이 대답했다. "그들은 금요 예배와 의무예배를 포기한 자들과 예배규칙 및 큰 절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나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헐벗고 굶주린 상태였다. 지옥은 천사인 지바니스가 지옥의 목장으로 그들을 몰아대고 있었다.
" 저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묻자 지브릴이 대답했다. "저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희사(자카트[20])를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또 한 무리의 사람들 옆에 멈추었다. 그들 앞에는 맛있는 음식이 놓여 있었다. 또한 썩은 고기가 그 옆에 놓여 있었다. 그들은 맛있는 음식은 놓아둔 채 썩은 고기를 먹고 있었다.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허용된 것(할랄)을 버려둔 채 금지된 것(하람)을 탐하던 자들입니다."

　나는 또 등에 너무 무거운 짐을 져 거의 쓰러져가는 몇 사람을 보았다. 이런 상태에서도 그들은 짐을 더 얹어달라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저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남의 재산을 착복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남의 권리를 짓밟고 억압하던 자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살을 잘라서 먹는 사람들 옆에 멈추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남을 비방하고 소문을 만들어낸 자들입니다."

　나는 얼굴이 새까맣고, 눈은 푸르며, 윗입술은 이마에 그리고 아랫입술은 발에까지 축 처진 채 피와 고름을 흘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지옥불로 지짐을 당하며 잔에 담긴 독 있는 피와 고름을 억지로 마시면서 당나귀처럼 소리 지르고 있었다. "저들은 누구입니까?" 지브릴 천사가 대답했다. "저들은 술을 마시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또 한 무리의 사람을 보았는데, 그들은 혀를 뽑히는 고문을 당하고 있었으며, 그들 모습은 돼지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지브릴 천사는 그들이 거짓 증언을 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주었다.

　또 한 무리의 사람을 보았는데, 그들의 내장이 쏟아져 나와 땅에 끌리고 있었

[19] 예배 의식의 한 자세로, 오른 손을 왼 손의 손목에 올리고 허리 높이의 배 위에 얹고 서있는 자세
[20] 무슬림들이 바치는 헌금. 생계 유지를 위한 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1/40를 매년 희사를 한다

으며, 그 색깔은 푸르고 그가 말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자들입니다."

여자들 한 무리가 보였는데, 그들의 얼굴은 검고 눈은 파랬으며, 불로 된 옷을 입고 있었다. 천사들이 불방망이로 그들을 때리고 있었으며, 그들은 개나 돼지처럼 낑낑거리고 있었다. "저들은 누구입니까?" 나의 물음에 지브릴이 대답했다. "저 사람들은 간음한 여자들과 남편에게 해를 입힌 여자들입니다."
나는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지옥의 골짜기에 갇혀 있었다. 불길이 그들을 태우고 있었으며, 그들은 다시 살아났고, 다시 불길이 그들을 태워버리고 있었다. "저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복종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나는 다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 멈추어 섰다. 그들은 곡식을 수확하고 있었는데, 베자마자 다시 곡식이 자라나는 것이었다. 나는 물었다. "저들은 누구입니까?" 지브릴이 대답했다. "이 사람들은 오로지 알라후 테알라만을 경배하던이들입니다."

나는 큰 바다에 이르게 되었다. 이 바다의 독특한 광경은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 바다는 우유보다도 희고, 산보다 높은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이것은 무슨 바다입니까?" 나의 물음에 지브릴이 대답했다. "이 바다의 이름은 생명의 바다입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킬 때 이 바다로부터 비를 일으키십니다. 썩고 흩어졌던 육신들은 풀잎이 돋아나듯 무덤으로부터 소생하게 됩니다."

그 후 우리는 하늘의 두 번째 층으로 올라갔다. 지브릴은 다시 대문을 두드렸다. "누구십니까?" "나는 지브릴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는 무함마드(알라히살람)입니다." "그는 승천의 초대를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환영의 인사를 하며 즉시 문을 열었다. 나는 나의 친척인 이사와 야흐야 빈 자카리야(세례 요한)를 볼 수 있었다. 그들은 환영의 말과 함께 나를 위한 기도를 올렸다.

나는 한 무리의 천사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가로로 줄을 지어서 선 채로 허리를 숙인 자세(루쿠[21])로 있었다. 그들만의 독특한 예배 자세였다. 그들은 계속 그 자세를 유지하였으며, 결코 머리를 들고 위를 쳐다보는 법이 없었다. 지브릴 천사가 말했다. "이것이 이 천사들의 예배 방법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허락하도록 알라후 테알라께 간청하십시오." 나는 알라후 테알라께 간구하였으며, 그 기도는 받아들여졌다.

---

[21] 예배 의식 중, 두 손을 양 무릎에 올리고 구부려 있는 자세.

우리는 다시 하늘의 세 번째 층으로 올라갔다. 똑같은 질문과 답변이 있은 뒤 문이 열렸는데, 나는 유수프(요셉)와 만나게 되었다. 내가 그를 보니 세상 아름다움의 절반이 그에게 주어진 듯하였다. 그는 나에게 환영인사를 하고 나를 위한 기도를 올렸다.

[22]나는 많은 천사들을 보았는데, 횡렬을 지어 모두가 큰 절(사즈다)을 올리고 있었다. 그들은 창조된 이래 이러한 독특한 예배방법을 계속하고 있었다. 지브릴이 말했다. "이 천사들의 예배는 이러합니다. 알라후 테알라께 당신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십시오." 나는 알라후 테알라께 그렇게 해달라고 빌었으며,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이를 허용하셨다.

나는 다시 하늘의 네 번째 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순은으로 된 빛나는 문이 있었으며, 빛으로 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그 자물쇠 위에는 '라 일라하 일랄라 무함마든 라술룰라'라는 글이 씌어져 있었다. 같은 질문과 답변이 있은 뒤 문이 열렸는데, 나는 이드리스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환영인사를 한 뒤 나를 위한 기도를 올렸다.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꾸란 '마르얌 장'에서 이렇게 계시를 하셨다. '그리하여 내가 그를 높은 위치에 두었노라.'(19:57) 나는 어떤 천사가 보좌에 앉아서 근심과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보았다. 수많은 천사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 보좌의 오른편에는 빛무리로 둘러쌓인 천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녹색 옷을 입고 좋은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너무나 아름다워 그들 얼굴을 바로 처다볼 수 없었다. 외편에는 입에서 불을 뿜어내는 천사들이 있었다. 그들 앞에는 불로 된 창과 채찍이 있었다. 그들의 눈은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눈이었다. 보좌에 앉은 그 천사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눈들이 달려 있었다. 이 천사는 앞에 놓여있는 장부를 쉬지 않고 들여다보고 있었으며, 한 순간이라도 거기에서 눈을 떼는 법이 없었다. 그 천사의 전면에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으며, 나뭇잎 하나하나에는 사람의 이름이 씌어져 있었다. 그 천사 앞에는 항아리 비슷한 것이 놓여 있고, 천사는 오른손을 거기에 넣어 무엇인가를 꺼내 오른편 빛나는 천사들에게 건네었고, 때로는 왼손으로 무언가를 집어 왼편 무서운 천사들에게 차례로 건네었다. 나는 그 천사를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 지브릴에게 물었다. "저 천사는 누구입니까?" 지브릴이 대답했다. "죽음의 천사인 아즈라일인데, 아무도 그의 얼굴을 바로 쳐다볼 수 없답니다." 지브릴은 그 천사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오, 아즈라일! 이분은 최후의 심판일의 예언자이며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아즈라일 천사는 머리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나를 존경하는 모습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환영합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당신보다 영예로운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공동체는 세상 어떠한 공동체보다도 뛰

[22] 예배 의식 중, 이마와 코를 바닥에 닿게 하고 양손도 펴서 땅에 대고 절하는 자세.

어납니다. 나는 당신 공동체에 대하여 그들 부모보다도 더 자비를 보일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말했다. "당신에게 청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공동체는 매우 연약합니다. 그들을 인자하게 돌봐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부드럽게 취하십시오." 그러자 아즈라일 천사가 말했다. "당신을 마지막 예언자로 보내시고, 당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여기시는 알라후 테알라께서 하루에도 일흔 번씩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무함마드의 공동체 사람들의 영혼을 부드럽고 안락하게 취할 것이며, 그들에게 자비롭게 대하라고 말입니다. 그 때문에 나는 그들 부모보다도 더 자비롭게 당신 공동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늘의 다섯 번째 층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우리는 하룬(무사의 형 아론)을 만났으며, 그는 환영인사와 함께 나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올렸다.

나는 다섯 번째 층 천사들의 예배 광경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일어서서 자신의 발끝을 응시하였으며, 다른 쪽으로는 눈길을 돌리지 않았고, 큰 소리로 알라후 테알라를 찬미하였다. 나는 지브릴 천사에게 물었다. '이것이 천사들의 예배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알라후 테알라께 당신의 공동체에서도 이같이 예배 올리도록 허락을 받으십시오." 나는 알라후 테알라께 간구하였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응답하셨다.

우리는 다시 하늘의 여섯 번째 층으로 올라갔다. 우리는 거기서 무사를 만났는데, 그는 환영인사를 하고 나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올렸다. 우리는 다시 하늘의 일곱 번째 층에 올라가 이브라힘(아브라함)을 만났다. 그는 등을 베이티 마무르 [23]에 기대고 있었는데, 매일 수많은 천사들이 그곳으로 들어갔다. 나는 이브라힘에게 인사를 하였고, 그는 답례를 하고나서 말했다. 지브릴이 "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 천국은 무한하게 즐거운 곳이며, 그 땅은 깨끗합니다. 당신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일러 그곳에 많은 나무를 심으라고 하시오." 내가 물었다. "천국의 나무는 어떻게 심어야 합니까?" 그가 대답했다. "라 하울라 왈라 꾸왓타 일라 빌라" 라고 알라후 테알라를 찬미하면 됩니다." 그런 뒤 지브릴 천사는 나를 시드라트 알 문타하라는 나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그 잎은 마치 코끼리 귀처럼 생겼고, 그 열매는 탑처럼 생겼다. 그 나무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보면 형언 할 수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데, 그 아름다움은 이 천상에서 그 누구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지브릴은 여기서 나에게 작별을 고했다. "오, 지브릴! 나를 혼자 두고 가십니까!" 지브릴은 고통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표정이었다. 그는 알라후 테알라의 장엄함으로 인해 오들오들 떨기 시작하며 말했다. "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 만약 내가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간다면, 알라후 테알라의 위엄 때문에 나는 파멸되고 맙니다. 내 몸 전체가 불타 사라질 것입니다.""

[23] 하늘에서 천사들이 계속해서 순례하는 곳.

온 세상의 귀감인 예언자는 지브릴 천사와 함께 여기까지 여행하였다. 지브릴은 알라후 테알라께서 원래 창조하셨을때의 자신의 모습을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보여주었다. 진주와 루비로 각각 치장된 육십만 개의 날개를 펼쳐 보인 것이다. 그런 뒤에 '라프라프'라고 하는 천국의 녹색 양탄자가 펼쳐졌는데, 그 빛남은 태양보다 더 밝았다. 그와 동시에 알라후 테알라를 찬미하는 소리가 온 누리에 울려 퍼졌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환영인사를 받으며 라프라프에 앉았다. 순식간에 그 양탄자는 아주 높이 솟아올랐으며, '히잡'이라는 이름의 칠천 개의 휘장을 통과하였다. 각각의 휘장 사이의 거리는 아주 멀었다. 모든 휘장마다 임무를 맡은 천사들이 각각 도열하고 있었다. 라프라프는 휘장을 하나씩 하나씩 통과하여 우리의 예언자를 쿠르시 24 , 아르쉬 25 , 그리고 영혼의 세계를 훌쩍 넘어서게 했다. 각각의 휘장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예언자는 알라후 테알라의 명령을 들을 수 있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 무함마드여! 더 가까이 오라, 더 가까이 오라!" 예언자는 알라후 테알라께 아주 가까이 다가갔으며, 이해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알라후 테알라께서 원하시는 높이에까지 이르렀다. 공간과 시간, 방향과 방식도 알 수 없는 채 알라후 테알라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눈과 귀, 형체와 시공도 없는 모습의 알라후 테알라와 예언자는 대화를 하였다. 그는 어떤 피조물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없는 알라후 테알라의 거룩한 축복을 받았다.

이맘 랍바니 성인은 그의 책 '막투바트'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승천의 밤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알라후 테알라를 본 것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사후 세상에서의 일이다. 왜냐하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그날 밤 시간과 공간의 틀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분은 영원한 순간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예언자는 시작과종말을 한 시점으로 보았다. 수 천 년후 천국에 갈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24]7 층으로 이루어진 하늘 위에 존재하는 알라후 테알라의 창조물로 7 층의 땅과 7 층의 하늘을 합친 것 보다 더 넓은 곳.
[25]쿠르시 위에 존재하는 알라후 테알라의 창조물로 물질의 세상의 끝이자 비물질의 세상의 시작인 곳.

모습과 도착을 그날 밤 보았던 것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본 것이 아니라 영원의 세계에서 본 것이다.'

예언자에게 알라후 테알라를 찬미하라는 명령이 내려지자 곧바로 이렇게 말했다. "앗타히야투 릴라히 왓살라바투 와타이바트(인간이 바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말과 헌신과 숭배로 알라후 테알라께 모든 찬미와 치하와 칭찬을 드립니

[24] 7 층으로 이루어진 하늘 위에 존재하는 알라후 테알라의 창조물로 7 층의 땅과 7 층의 하늘을 합친 것 보다 더 넓은 곳.
[25] 쿠르시 위에 존재하는 알라후 테알라의 창조물로 물질의 세상의 끝이자 비물질의 세상의 시작인 곳.

다).” 먼저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사랑하는 예언자를 환영하셨다. “오, 나의 사도여! 나의 환영과 축복과 자비를 그대에게 내리노라.” 그러자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우리와 오직 알라후 테알라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도 알라후 테알라의 보호와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천사들이 이 소리를 듣고 모두 함께 말하였다. “아슈하두 안 라 일라하 일랄라 와 아슈하두 안나 무함마딘 압두후 와 라술루(알라후 테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 그분의는

알라후 테알라의 종이며 사도임을 나는 믿나이다). 우리의 예언자가 알라후 테알라께 평안의 인사를 드렸을 때, 알라후 테알라께서 말씀하셨다.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여기에는 우리 둘밖에 아무도 없느니라. 왜 ‘우리’라고 말하는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대답했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우리 공동체의 육신들은 여기 없지만 그들의 영혼은 저와 함께 있나이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저를 보호하고 축복을 하시니 모든 악마들이 물러갔나이다. 최후의 심판일에 내버려질 불쌍하고 학대받은 나의 공동체 사람들을 어떻게 제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알라후 테알라의 축복에서 어떻게 그들을 제외시킬 수 있겠나이까?” 알라후 테알라께서 말씀 하시길.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그대는 오늘밤 나의 손님이니라. 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말하여라.”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저는 저의 공동체를 원하옵니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어떤 기록에 따르면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이 질문을 칠백 번 되풀이 하였으며,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같은 대답을 되풀이 했다고 한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말씀 하셨다. “그대는 언제나 그대의 공동체를 원한다고만 말하는구나.” 예언자가 말했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저는 간구하는 사람이며, 당신은 그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알라후 테알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만약 오늘밤에 그대 공동체 모두를 용서한다면, 나의 자비와 그대의 미덕이 뚜렷한 표징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나는 오늘밤 그대를 위하여 그대 공동체의 3 분의 1 을 죄를 사하여 주었음이라, 나머지 3 분의 2 는 그 사죄를 연기 하니, 심판의 날에 그대가 소원한다면 그들 모두 사죄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나의 자비와 그대의 미덕이 명백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니라.”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명령하셨다. “오, 무함마드! 그대의 축복받은 눈을 뜨고 그대의 발밑을 보라.” 나는 눈을 뜨고 한줌의 흙이 붙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알라후 테알라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가 그대 발밑의 흙과 같으니라. 그 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가져왔는가? 내게있어 그대 공동체를 용서하는 것은 친구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터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니라.”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그대를 환대하는데 비하면
세계의 전체가 한줌의 흙의 가치를 지닐 뿐
축복받은 자여, 내가 그대를 사랑한다면
이 세상과 사후 세상은 그대의 것이 되리

후손들이 기록한 하디스 세리프에서 예언자는 이렇게 밝혔다고 한다. "나는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많은 질문을 하였고, 대답을 들었다. 나는 그러한 질문을 한 것을 후회하였다. 그 질문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지브릴에게 육십만 개의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알라후 테알라께서말씀하시길, "내게 있어 그대의 머리카락 하나가 지브릴의 수많은 날개보다 더욱 사랑스럽다. 그대 머리카락 하나로 말미암아 나는 수천 명의 죄인들을 용서할 것이니라. 무함마드야! 지브릴이 날개를 활짝 펼치면 동에서 서에까지 꽉 차느니라. 불복종하는 죄인들이 동서로 꽉 차고 넘친다 해도 그대가 심판의 날 사죄를 원한다면 내가 그들 모두를 용서할 것이니라." 그러자 내가 물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우리의 선조인 아담 에게 천사들이 큰 절을 하도록 시키셨는데, 저에게는 어떤 선물을 주시려나이까?'

그러자 알라후 테알라께서 말씀하시길. "천사들이 아담에게 절한 것은 그대의 빛이 아담 의 이마에서 빛났기 때문이니라. 무함마드여! 나는 그보다 더 훌륭한 선물을 그대에게 주었노라. 나는 그대 이름을 나의 이름에 가깝게 했으니, 알 쉬알라 나무에 썼느니라. 천국의 모든 곳과 하늘의 모든 문에, 휘장에 그리고 오두막과 나무에도 그대 이름을 썼노니, 이러한 지위는 아담에게 주어진 것보다 훨씬우월하도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당신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주시나요?" 알라후 테알라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에게 부라크를 주어 하룻밤에 그대를 땅에서 하늘로 올라오도록 하였느니라. 그대는 천국과 지옥도 보았느니라. 그리고 나는 그대 공동체에 기도하는 성원(모스크)을 주어 그들이 배에 올라타듯 성원에 올라타고 심판의 날 눈 깜짝할 사이에 시라트 다리를 건너 지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리라."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당신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알라후 테알라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와 그대 공동체에 이 세상과 영원의 세상의 축복을 함께 내려주었느니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형상을 사람의 모습에서 곰이나 원숭이나 돼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나 그대 공동체의 누구에게도 나는 이같이 하지 않았느니라. 그대 공동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똑같은 행위를 했을지라도 처벌을 하지 않았느니라. 나는 또한 테브랏과 성경에는 없는 꾸란 구절을 그대에게 내려주었느니, 그것은 바로 '알 파티하 장'이니라. 누구라도 그 장을 낭송하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그의 아버지, 어머니의 죄악도 가볍게 할지다. 무함마드여! 나는 그대를 누구보다도 우월하게 창조하였으며, 그대와 그대 공동체를 위해 낮과 밤에 오십 번의 의무예배를 내려주었느니라. 누구라도 나를 유일하게 믿고 나외의 어떤것도숭배하지 않는다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지옥으로부터 면할지다. 그대의 공동체에 대한 나의 자비가 이러하니 자비가 분노를 능가할지다."

나는 그대의 존재를 나의 거울에 비친 영상으로 만들고 나는 그대의 이름을 나의 이름과 함께 기록할 것이니라
하디스

또 알라후 테알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심판의 날에 나는 모든 이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대에게 축복을 내리리라.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그대 이외에는 어떤 예언자도 천국에 들어가 보지 못했느니라. 그대가 천국에 없다면 그대의 공동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지다. 그대의 공동체가 천국에 없다면 다른 공동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지다. 무함마드! 내가 그대와 그대의 공동체를 위해 천국에 마련한 것을 보고 싶느냐?" 나는 말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알라후 테알라!" 그러자 알라후 테알라께서 이스라필 천사에게 명하길, "오, 이스라필! 나의 충실한 지브릴에게 일러 나의 사랑하는 이를 천국으로 호송하여 내가 마련한 것을 보여주도록 하라. 그러면 그의 마음이 걱정에서 해방될지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이스라필과 함께 지브릴에게로 갔다. 알라후 테알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지브릴은 우리의 예언자를 데리고 천국으로 갔다. 천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손에 그릇들을 들고 있었다. 하나에는 천국에서 입는 옷이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빛이 담겨 있었다. 지브릴이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이 천사들은 아담보다 팔천 년 전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접시에 담긴 것을 당신과 당신 공동체에 드리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부활의 그날에 알라후 테알라의 명령으로 당신과 당신 공동체가 천국으로 들어갈 때, 이 천사들은 접시에 담긴 보석들을 당신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천국의 책임 천사인 리드완이 그들을 맞았다. 그는 우리의 예언자에게 알라후 테알라께서 천국의 3 분의 2 를 배정하였으며, 나머지 3 분의 1 을 다른 공동체들에 배정 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는 천국의 모든 것을 예언자에게 보여주었다.

우리의 예언자가 말했다. "나는 천국의 가운데를 흐르는 강을 보았다. 물과 우유와 벌꿀이 섞이지 않은 채 제각가 한쪽 편으로 흐르고 있었다. 강변은 빛나는 에메랄드로 되어 있었고, 강 속에는 돌이 모두 보석이었고 진창은 호박으로 되어 있었으며, 풀은 사프란 꽃이었다. 하늘의 별들보다 많은 은으로 된 잔들이 주위에 널려 있었다. 새들이 사방에 있었는데, 그 크기가 낙타와 같았다. 누구든지 그 고기를 먹고 시냇물을 떠 마실 수 있으니 알라후 테알라의 은혜로 생각하였

다. 나는 지브릴에게 물었다. "이 시냇물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이것은 카우싸르[26]입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당신에게 준 것입니다. 그것은 여덟 천국 안에 있는 과수원으로 흘러갑니다." 나는 그 강변 둑에 있는 천막들을 보았다. 모두가 진주나 루비로 되어 있었다. 그 천막에 대해서 묻자 지브릴이 대답했다. "그것은 당신의 시중을 들어줄 여자들의 처소입니다." 나는 그 천막 안에서 천국의 처녀들을 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태양처럼 빛났고, 모두가 여러 가지 즐거운 가락들을 읊고 있었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답니다. 슬픔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젊으며 결코 늙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으며, 또한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때 지브릴이 내게 물었다.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까?" 나는 그렇다고 했다. 그는 어떤 천막의 문을 열었다. 내가 본 그 아름다움을 설명하려면 나의 일생 동안 다하여도 마치지 못할 정도였다. 그들의 얼굴은 우유보다도 희고, 그들의 양 뺨은 루비보다도 더 붉고 태양보다 더 밝았다. 그들의 피부는 비단보다 더 부드러웠고 달처럼 빛났다. 그들의 냄새는 사향보다 더 향기로웠다. 그들의 머리는 완전히 검은 색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를 땋아 내렸고, 어떤 사람은 뒤로 묶었으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풀어 제쳐서 그들이 앉아 있으면 주위에 있는 천막처럼 퍼지게 되어 있었고, 그들이 일어서면 머리끝이 발에까지 닿았다. 모든 천막 앞에는 한 사람씩의 하녀가 대기하고 있었다. 지브릴이 말했다. "그 천막들은 당신의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언자가 말했다. "나는 여덟 천국의 과수원과 포도밭, 그리고 모든 축복들을 보았다. 나는 지옥과 그 일곱 층들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지브릴은 나의 손을 잡고 지옥에서 가장 높은 천사인 말리크에게 데리고 갔다. 지브릴이 말했다. "오 말리크! 무함마드께서 죄지은 자들이 있는 지옥을보고 싶어 합니다." 말리크는 지옥의 층들을 모두 열어보여 주었다. 나는 일곱 층 모두를 볼 수 있었다. 일곱 번째 층은 '하위야'라고 불렀다. 그곳에서의 고통은 다른 층보다 더 심하였다. 나는 말리크 천사에게 물었다. "이 층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말리크가 대답했다. "파라오와 당신 공동체의 위선자들이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층은 '라지'라고 하는데 다신교도들이 거기서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다섯 번째 층 '후타마'에서는 불을 숭배하는 자들과 숫소를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불교도들이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 네 번째 층은 '자힘'인데 그곳에서는 태양과 별을 숭배하는 자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세 번째 층은 '세까르'인데 그리스도교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 두 번째 층은 '사이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첫 번째 층은 '자한남'이라는 지옥으로 다른 층들보다 고통이 덜한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곳에서 칠만 개의 불바다를 볼 수 있었다. 각각의 불 바다는 엄청나게 커서 이 세계를 대양을 던져놓고 한 천사에게 찾으라 하면 천년의 세월이 걸려도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지옥에서 대기하고 있는 천사들을 '제바니스'라고 하는데,

[26] 천국에서 흐르고 있는 시냇물. 예언자와 백성들을 위한 온갖 맛을 가진 시냇물 또는 샘

엄청나게 거대한 체구를 가졌으므로 세계를 그의 입 한쪽으로 넣어도 표가 나지 않을 정도였다. 그 불의 바다가 거칠어지게 되면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왔다. 만약 그 소리의 일부가 이 세상에 이르게 된다면, 모든 생명체는 파멸되고 말 것이었다. 내가 물었다. "이 층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말리크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다시 물어도 그는 침묵을 계속했다. 지브릴이 말리크에게 말했다. "이 분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지 않소." 그가 말문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내가 말했다. "무슨 대답이라도 괜찮으니 부탁합니다. 그래야 방책을 구하지않겠습니까?" 말리크가 대답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이곳은 당신 공동체중 복종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이 고통속으로 빨려들지 않도록 자신을 억제하도록 그들에게 조언을 하십시요. 이끔찍한 곳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날이 오면 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노인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누구에게도 동정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의 귀감인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는 머리 위의 터번을 벗고 알라후 테알라께 용서할 것을 간청하고 매달렸다. 그는 그의 공동체가 연약하여 이러한 고통 속에서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며 끊임없이 알라후 테알라께 간구하고 통곡을 하였으며, 옆에서 지켜보던 지브릴과 모든 천사들도 견디지 못해 함께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알라후 테알라께서 말씀하셨다.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영예와 고귀함은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라, 그대의 기도를 내가 받아들였노 기뻐하라. 그대의 희망대로 될지라. 심판의 날 그대의 중재로 인해 내가 많은 이간자를 용서할지라. 나는 그대가 충분하다고 할 때까지 용서할 것이다. 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여! 누구든지 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은 고통과 처벌로부터 해방될 것이며, 나의 자비를 입게 되어 천국에서 나를 보는 영예를 얻을 것이다. 나는 그대와 그대의 공동체를 위해 의무예배를 마련하였으니, 낮과 밤을 합하여 오십 회의 의무예배를 하도록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계속하여 말했다. "그 뒤에 나는 천국의 가장 높은 곳인 아르쉬에 도착했다. 하늘을 통과하여 무사가 있는 곳에 간 것이다. 그가 나에게 물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당신과 당신 공동체에 어떠한 의무를 명하셨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매일 낮과 밤에 오십 회의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무사가 말했다. "당신의 알라후 테알라께 돌아가서 그 예배의 의무를 조금 경감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당신의 공동체는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이것을 경험하고 시험하여 보았기에 잘 압니다." 그리하여 나는 알라후 테알라께 다시 돌아가서 말하였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부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의무예배의 횟수를 낮추어주십시오." 그러자 알라후 테알라께서 의무예배 횟수를 오십 회에서 단지 오 회만을 줄여주셨다. 나는 무사에게 다시 가서 알라후 테알라께서 오 회 줄여주신 것을 이야기 하였다. 무사는 나에게 다시 알라후 테알라께 좀 더 줄여달라고 간구하라고 말했다. 우리

공동체가 그 의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알라후 테알라께 돌아가서 탄원을 드렸다. 이런 식으로 나는 무사와 알라후 테알라 사이를 몇 번이나 왕복하였다. 마침내 알라후 테알라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루에 의무예배의 횟수를 오 회로 줄여주겠노라.
일 회의 예배를 열 배의 선행으로 간주할 것이니 결국 오십 회의 예배와 같게 되었도다. 누구라도 예배를 의도하고서도 예배를 수행하지 못했을 때 선행 하나로만 인정되지만, 만약 예배 올릴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수행한다면 10 배의 선행을 쌓은 것이 되리라. 또 누군가 나쁜 의도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죄로 기록되지 않을 것이고, 의도적으로 악행을 범했다면 하나의 죄로 기록될지다." 나는 다시 무사에게로 가서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 하였다. 무사가 다시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께 돌아가서 좀 더 줄여달라고 간청하십시오." 나는 말했다. "나는 알라후 테알라께 너무나 많이 간청을 드려서 이제는 부끄러워 말을 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고통으로 상처받은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를 위로하시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내리지 않았으며, 누구도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을 예언자에게 내리셨다.
만물의 귀감인 예언자는 그 후 한 찰나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메카에 있는 움무 하니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가 누워있던 곳은 아직 식지 않았으며, 세정했던 대야속의 물도 아직 잔잔해지지 않았다. 바깥을 거닐던 움무 하니는 꾸벅꾸벅 졸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예루살렘에서 메카로 돌아오는 길에 예언자는 꾸라이쉬 교역단을 만났다. 대열 속에 있던 낙타 한 마리가 예언자를 보고 놀라서 쓰러졌다.

다음날 아침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카바로 가서 그의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듣고 난 불신자들은 코웃음을 쳤다. "무함마드가 이젠 완전히 미쳐버렸네." 그리고 이제 곧 무슬림이 되려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입교를 머뭇거리게 되었다. 불신자 몇몇은 재미있어 하며 아부 바크르의 집을 찾았다. 그들은 아부 바크르가 영리하고 경험을 갖추었으며 계산에 밝은 상인임을 알고 있었다. 그가 대문간으로 나오자 그들이 소리쳐 물었다. "오, 아부 바크르! 당신은 예루살렘에 여러 차례 다녀왔으니 잘 알 것이오. 메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오?" 아부 바크르 성인이 대답했다. "한 달 남짓 걸린다고 봐야지요." 불신자들은 이 대답을 듣고 즐거워하며 말했다. "지혜롭고 경험 많은 사람이면 당연히 그렇게 답변할 것이오." 그들은 웃고 조롱하면서 만족해 하였으며, 아부 바크르도 자신들과 같은 의견을 가졌을 것이라 기대하고 물었다. "당신의 예언자가 말하기를, 하룻밤 사이에 예루살렘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제 정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부 바크르의 공감을 기대하며 그에게 존경과 신뢰의 태도를 보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이야기라는 것을 듣고 나자 아부 바크르는 즉시 대답했다. "만약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그가 한 순간에 갔다가 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불신자들은 모두 망연자실한 상태가 되었다. 그들은 떠나가면서 투덜거렸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야! 무함마드는 정말 대단한 마법사로군. 아부 바크르에게 강력한 주문을 걸어 놓았어."

아부 바크르 성인은 즉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갔다.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그는 큰소리로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나는 당신의 축복받은 승천을 축하드립니다! 이처럼 존귀한 예언자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무한한 감사를 올리나이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빛나는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셨고, 당신의 아름다운 말을 듣고 마음과 영혼이 즐겁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진실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위해 내 생명이 희생되도록 해주소서! 아부 바크르의 이 말들은 불신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그들은 무어라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모두 헤어져갔다. 의심을 가지고 약한 믿음을 지녔던 일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믿음을 강하게 하였다. 그날부터 알라후 테알라의 사자는 아부 바크르를 '싯디크(진실의 사람)'라고 불렀다. 이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더욱 높은 신분으로 승격되었다.
불신자들은 이 일로 인해 아주 화가 치밀었다. 무슬림들이 강한 신앙을 가지고 예언자의 모든 말을 금방 믿으며, 예언자에 대한 크나큰 사랑으로 그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에 대하여, 불신자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몰아치고 좌절시키기 위하여 그들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오, 무함마드! 그대는 예루살렘에 갔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에게 지금 말해보라! 아끄사 성원의 문은 몇 개이며 창문은 모두 몇 개였는가?" 그들의 질문은 이러한 것들이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일일이 대답을 할 때마다 아부 바크르 성인은 말했다. "옳습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그것은 진실입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실지로 예언자는 겸손하여 여행중 그 어떤 것도 살피지 않았다. 나중에 그분은 그때의 일을 술회했다. "나는 아끄사 성원을 보지 못했다. 나는 이단자들이 질문한 것들을 보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지브릴 천사가 내 눈 앞에 아끄사 성원을 비쳐주었기에 나는 그것을 보고 세었으며, 그들의 질문에즉시 답변할 수 있었다."

예언자는 돌아오는 도중에 낙타를 타고 오는 교역단을 보았으며, 그들은 수요일에 메카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일 해가 막 지기 전에 교역단이 메카에 도착했다. 그들은 여행중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어떤 이상한 일이 생겼으며, 낙타 한 마리가 쓰러졌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믿는 자들의 믿

음을 더욱 강화시켰으며, 이단자들의 적개심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히즈라 1년 전 라자브 달의 27일, 금요일 밤에 일어난 이 기적은 승천(미라지)이라고 불린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의식을 지니고 현세의 몸을 가진 채로 하늘에 올라갔다. 승천의 그날 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하늘의 진실들을 예언자에게 나타내 보였으며, 하루에 다섯 번의 예배가 의무로 정해지게 되었다.
승천은 꾸란 '바까라 장'의 마지막 두 구절에 기록되었다. 또 승천은 꾸란의 '이스라 장'과 '나짐 장', 그리고 하디스의 여러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
그분의 승천 이후에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그의 교우들에게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오, 아부 바크르! 나는 그대의 오두막을 보았노라. 그것은 붉은 금으로 만들어졌느니라. 나는 그대를 위해 마련된 모든 축복을 살펴보았느니라." 그러자 아부 바크르 성인이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그 오두막과 그 소유자가 당신을 위해 희생이 되리다." 우리의 예언자는 우마르 성인을 향하여 말했다. "오, 우마르! 나는 그대의 오두막을보았느니라. 그것은 루비로 만들어졌다. 거기에는 많은 천국의

여인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나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대의 열정을 생각했기 때문이니라." 우마르 성인은 감격에 겨워 한참을 울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내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내 아내가 당신을 위해 희생이 되리다! 그렇지만 당신에게 어떻게 열정을 앞세우거나 질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언자는 우스만 성인에게 말했다. "오, 우스만! 나는 하늘의 모든 곳에서 그대를 보았느니라. 나는 낙원에서 그대의 오두막을 보며 그대를 생각하였다." 또 알리 성인을 보고 말했다. "오, 알리! 나는 네 번째 하늘에서 그대의 모습을 보았으며, 지브릴에게 어찌된 일인가를 물었다. 그가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천사들이 알리 성인을 너무 너무 보고 싶어 했기에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그의 모습을 한 천사 하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하늘의 네 번째 층에 머물고 있있습니다. 천사들은 그를 방문하여 축복을 받습니다." 나는 그대의 오두막에 들어갔으며, 어떤 과일나무의 향기를 맡았다. 그 나무로부터 하늘의 여인이 나오더니 자신의 얼굴을 가리었다. 나는 물었다. "그대는 누구이며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당신의 숙부의 아들인 알리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승천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위해 지브릴이 와서 이맘이 되어 다섯 번의 예배를 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다. 하디스 셰라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카바의 문 옆에서 지브릴과 나는 이틀 동안 예배를 함께 올렸는데, 우리 둘 중 지브릴이 이맘이 되어 예배를 인도하였다. 첫째 날, 우리 둘은 동이 틀 때 아침예배를 올렸고, 태양이 자오선을 떠날 때 이른 오후예배를, 물체의 그림자 길이가 실제 길이와 같아질 때 늦은 오후예배를 올렸으

며, 태양의 위 테두리가 지평에서 사라질 때 저녁예배를 올렸고, 저녁 빛이 어두워질 때 밤예배를 올렸다. 둘째 날, 우리는 아침 여명이 밝아올 때 아침예배를 올렸고, 어떤 물체의 그림자가 그 실제 길이의 2 배가 되었을 때 이른 오후예배, 그 뒤에 늦은 오후예배를 올렸으며, 저녁예배는 단식을 중단하는 그 시각에, 그리고 밤예배는 밤의 3 분의 1 이 끝난 뒤에 거행하였다. 그런 뒤 지브릴이 말했다. "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 이것이 당신과 당신 이전의 예언자들을 위한 예배의 시간이랍니다. 당신의 공동체가 이 다섯 번의 예배를 거행하되, 우리가 올렸던 이 틀간의 예배 시간 중 그 사이의 시간을 택하십시오.'" 이러한 방법으로 예배시간이 공표되고 나서, 에티오피아로 전갈이 보내져 그곳 사람들에게 하루 다섯 번의 예배를 의무화하는 명령이 하달되었으며, 이전까지 못 했던 예배까지 사고 예배를 올리도록 하였다.

히즈라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 해마다 카바를 순례하러 오는 부족들에게 이슬람종교로 초대하였다. 그는 지옥의 불로부터 그들을 구하여 끝없는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모욕행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예언자 직분의 의무를 계속하여 수행했다. 그는 부족 사람들의 한 가운데에 서서 말했다. "내가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예언자 직분을 수행하는 동안 누가 나를 보호하고 도와주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으면 그에게는 천국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보호하거나 도와줄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예언자 직분을 계시 받은지 열한 번째 되는 해였다. 시장에서 카바를 순례하러 온 메디나 사람들을 만났다. 예언자가 그들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묻자 그들은 '메디나에서 온 하즈라지 부족'이라고 말했다. 예언자의 할아버지 압둘 무탈립의 어머니인 살마 부인은 하즈라지 부족의 지파인 나즈란 씨족에 소속되어 있었다. 우리의 예언자는 하즈라지 부족의 여섯 사람과 함께 앉아, 꾸란 이브라힘장의 35 절부터 52 절까지를 낭송해 들려주며 이슬람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예언자는 그들에게 종교를 받아들이도록 초대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이들을 초대했을 때, 부족의 장로들과 메디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예언자가 곧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말한 그 예언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서로 말했다.
메디나에서 아우스 부족과 하즈라지 부족은 유대인들과 원수지간이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를 공격하곤 하였다. 그들은 만약 그들이 함께 무슬림이 된다면, 유대인들을 압도하여 그들을 메디나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즉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있는 곳에서는 신앙고백을 하고 무슬림이 되었다. 그들은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우리는 우리 부족이 유대인들과 싸우고 있는 가운데 메디나를 떠나 왔습니

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당신으로 인해 우리 부족이 무슬림이 되는 영광을 주실겁니다.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즉시 그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이도록 초대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이슬람교의 교리도 그들에게 알리겠습니다. 만약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들을 이 종교에 함께 불러모아 단결시킨다면, 당신보다 더 고귀하고 영광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여섯 사람은 진정한 신자였으며,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우리의 예언자에게 계시한 것을 믿고 증언하였다. 그들은 예언자의 허락을 얻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여섯 사람은 우크바 빈 아미르, 아사드 빈 주라라, 아우프 빈 하리스, 라피 빈 말리크, 꾸뜨바 빈 아미르, 자비르 빈 압둘라였다.

아카바의 첫 서약과 메디나에서 떠오른 태양

무슬림이 된 그 여섯 사람은 메디나의 부족에게로 돌아왔으며, 그들에게 이슬람과 예언자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이슬람을 받아들이도록 초대하였다. 그들은 멀리, 구석구석까지 다니면서 예언자와 이슬람에 대해 알렸다. 그리하여 하즈라지 부족 내에서 이슬람은 널리 확산되었으며, 아우스 부족의 일부 사람들도 무슬림이 되었다.

아카바에서의 회동이 있은 그 다음 해, 이슬람을 받아들인 아사드 빈 주라라와 그의 친구 열두 사람이 순례 기간에 메카를 찾았다. 그 해, 다신교도들은 이전보다도 더 혹독하게 무슬림들을 탄압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언자를 몰래 따라다니면서, 누구든지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은 붙잡아 고문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안 메디나 사람들은 밤중에 아카바에서 우리의 예언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들은 밤이 되자 회동하였다. 그들은 충성을 서약하였으며, 예언자의 모든 명령과 지시를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알라후 테알라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않고, 간음을 행하지 않으며, 도둑질 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지 않으며, 부양의 어려움을 핑계로 자녀를 살해하지 않는다는 서약이었다. 열두 사람 중 두 사람은 아우스 부족이고 나머지는 하즈라지 부족이었으며,그들의 지도자는 아사드 빈 주라라였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이들 열두 사람을 그들 부족의 대표로 임명했다. 그들은 부족 사람들에게 이슬람을 이야기 해주고 예언자의 신앙적 보증인이 되었다. 아카바에서의 첫 서약에 참석한 사람은 아사드 빈 주라라, 아우프 빈 하리스, 무아즈 빈 하리스, 라피 빈 말리크, 자크완 빈 압디까이스, 우바바 빈 사미트, 야지드 빈 살라바, 압바스 빈 우바다, 우크바 빈 아미르, 꾸뜨바 빈 아미르, 아불하이삼 말리크 빈 타이한, 우와임 빈 사이다 등이다.

이 합의가 있은 뒤 아사드 성인과 그의 친구들은 메디나로 돌아갔다. 그들은 밤낮으로 부족 사람들에게 이슬람에 대하여 알렸다. 이리하여 메디나에서 이슬람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이전에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아우스 부족과 하즈라지 부족은 함께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찾아와 이슬람교리를 보다 더 자세하게 배우기 위해 교사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의 예언자는 무사브 빈 우마이르 성인을 그들에게 보내 꾸란과 이슬람을 가르치게 했다.

무사브 성인은 아사드 성인의 집에 머물렀다. 그들은 함께 한 집 한 집, 모든 집을 방문하여 이슬람을 알렸다. 그들은 부족 사람들이 모든 힘을 다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를 목숨을 바쳐 보호하겠다고 약속해 주기를 요청했다. 그들은 서약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아사드 빈 주라라 성인의 부족장은 친척인 사아드 빈 무아즈였다. 당시의 풍습으로 친척들을 모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아직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아드 빈 무아즈는 아사드 성인을 제지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우사이드 빈 후다이르를 보내 그들의 동정을 살피게 했다.

우사이드 빈 후다이르는 자신의 창을 들고 무사브 빈 우마이르 성인의 집을 찾아가 성난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왜 우리에게 왔소? 당신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소. 목숨을 잃지 않으려면 이곳을 즉시 떠나시오." 그의 화난 모습을 보고 무사브 빈 우마이르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여기 잠깐 앉으십시오. 우리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목적을 이해해 주십시오. 만약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쫓으십시오." 우사이드는 성질을 가라앉히고 창을 땅에 꽂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는 무사브 성인의 부드러운 말과 사람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꾸란 낭송에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가!" 그리고는 이슬람교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해야 할지를 물었다. 무사브 성인이 시키는데로 신앙고백을 하고 곧바로 무슬림이 되었다. 감격에 휩싸인 우사이드 성인이 말했다. "내가 가서 한 사람을 데려 오겠습니다. 만약 그가 무슬림이 된다면 메디나의 모든 사람이 무슬림이 될 것입니다." 그는 곧장 사아드 빈 무아즈 부족장에게 달려갔다. 사아드가 그를 보더니; "맹세컨데, 예전의 우사이드의 모습이 아니군." 하더니 잠시 후 "오, 우사이드! 어떻게 되었소?" 우사이드가 대답했다. 사아드 빈 무아즈가 무슬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내가 그 사람과 이야기 해보니 그들에게서 아무런 나쁜 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니 하리사의 자손들이 이런 사람을 집에 두고 보살핀다 하여 숙모의 아들, 아사드를 죽이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

당신의 사람에 대해 말하는 방법 오 "알라"의 예언자여
종이와 연필로는 당신을 표현하기엔 부족해요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해요
"알라"도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 "알라"의 예언자여
그렇지 않으면 해가 산 사이에서 뜨지 못하리라
당신을 위해 장미가 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라"의 사랑이
절박하게 벌린 두 손은 빈 채로 남아있지 않아
Galip이 당신의 열린 노예이기를 바랍니다
충실한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메디나 알 무나와라 (1890)

이 말을 듣고, 사아드 빈 무아즈는 불쾌했다. 몇 년 전에 치룬 전쟁에서, 바니하리사 족을 이기고, 그들을 하이바르에 정착을 시켰다. 1 년 후, 그들을 용서하여 풀어주어 고향으로 귀향시켰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런 행동이 괘씸했다. 사실은 이런 상황은 지어낸 것이다. 이런 꾀로 사아드 빈 무아즈가 숙모와 그의 아들 아사드로 인하여 무사드 빈 우마이르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았다. 이리하여 그를 자신들 편으로 끌어 무슬림이 되는 터전을 마련하였다.

사아드 빈 무아즈는 우사이드 빈 후다이르의 말을 듣고는, 아사드 빈 주라르 성인을 찾아 갔다. 도착했을 때, 아사드와 무사브 빈 우마이르 성인이 아주 평온한 분위기에서 담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곁으로 다가가, "에이, 아사드! 우리가 친척이 아니었더라면 너는 이런 짓을 하지 못했을 거다…" 라 했다. 이 소리에 무사드 빈 우마이르 성인이 대답하기를, "야, 사아드! 짬깐 앉아 우리를 들어 보오. 만약에 맘에 든다면 듣고, 맘에 들지 않는다면 일어서 가면 되오" 사아드 빈 무아즈는 이 부드러운 말에 맘을 진정시키고, 구석에 앉아 그들을 듣기 시작했다. 무사드 빈 우마이르 성인은 사아드 빈 무아즈에게 이슬람의 기본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꾸란의 몇 구절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낭송했다. 사아드 빈 무아즈의 반응이 차츰
변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신앙고백을 하고 무슬림이 되었다. 그는 즉시 집으로 돌아와서 몸을 세정한 후 부족 사람들을 집합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는 우사이드 빈 후다이르를 데리고 부족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왔다. 압둘라샬의 자손들에게 그는 말했다. "오, 압둘라샬의 자손들이여! 그대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이며 탁월한 분이지요. 우리는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사아드 빈 무아즈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그대들에게 일러주리다. 나는 무슬림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대들도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와 그의 예언자를 믿기 바랍니다." 압둘라샬 자손들은 부족장이 이슬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고 모두 무슬림이 되었다. 그날 저녁 때까지 메디나의 하늘에는 신앙고백을 외치는 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다.

이 일이 있은지 얼마 되지 않아 메디나의 아우스 부족과 하즈라지 부족의 모든 사람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그들 부족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은 파괴되었으며, 이 소식을 접한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매우 기뻐하였다. 이로 인해 그 해는 '기쁨의 해'로 불리게 되었다.

아카바의 두 번째 서약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예언자의 직분이 통보된 후 13 년이 지났다. 메카의 다신교도들에 의한 잔혹함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최고조에 이르렀다. 메디나에서는 아사드 빈 주라라와 무사브 빈 우마이르의 노력으로 인하여 아우스 부족과 하즈라지 부족 사람들이 열심히 이슬람을 영접하였고, 이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희생들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메디나를 방문해 줄 것을 고대하였고, 이를 위해 그들의 생명과 재산도 포기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었다. 하즈 순례기간이 되어, 무사브 빈 우마이르와 함께 73 명의 남성 및

2 명의 여성 무슬림이 메카에 왔다. 순례를 마치고 그들 모두는 아카바에서 우리의 예언자를 다시 만났다. 아사드 빈 주라라와 12 명의 부족 대표들은 우리 예언자가 메디나로 이주할 것을 간청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꾸란의 몇 구절을 낭송하고 나더니, 그들이 각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보호해 주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숙부인 압바스는 아직 무슬림이 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참석하여 서약의 맹세를 하기 위해 온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메디나에서 온 여러분, 이 사람은 나의 형제의 아들이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가 알라후 테알라로부터 받아온 것을 당신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내게 충실한 약속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무함마드 (알라히 살람)는 우리 부족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를 지켜고, 고귀하게 받들어 왔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뒤로하고 여러분과 합류하여 함께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모든 아라비아 부족들이 힘을 합쳐 그대들을 공격했을 때 이를 이겨낼 힘이 있다면 그분을 모시고 가시오. 앞으로의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먼저 여러분들끼리 의논하시오. 적으로부터 그분을 지킨다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메카를 떠난 후 보호하지 못하겠다면 아예 포기하고 우리와 함께 평안히 계실 수 있도록 해주시오.”

아사드 빈 주라라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향해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당신을 위해 우리 부모님을 희생하게 하소서. 저희를 신뢰하지 못하시고 이런 약속을 원하시나이까? 이는 우리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숭배한 우상들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실하게 이슬람으로 귀의하였습니다. 이 것은 크나큰 힘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이슬람을 받아들였습니

다. 당신은 우리에게 다신교도인 친척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지시하였고, 우리는 그것 또한 받아들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도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숙부마저 적으로 삼고 우리 고귀하신 분을 지키고 보살피는 것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삼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약속을 어기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우리의 말을 믿으시려면 우리가 어찌하리까."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내 조건은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를 경배하라는 것이며,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우리 교우들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안전하게 머물도록 해주라는 것뿐이요." 바라 빈 마루르가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하건대,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것과 똑같이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그런 뒤 메디나의 무슬림들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물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만약 우리가 이 약속을 성실히 수행하면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그러자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대들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주실겁니다! 부족의 대표들은 한 명씩 서약을 했다. 먼저 성인 아사드 빈 주라라가 "저는 알라후 테알라와 그의 사도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고, 재산과 생명을 다 바쳐 도울 것을 서약합니다." 하고 이어서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와 그분의 사도의 초대를 받아들이며 명령을 숙지하고 고개숙여 따르겠습니다."라고 기쁨과 복종의 의사를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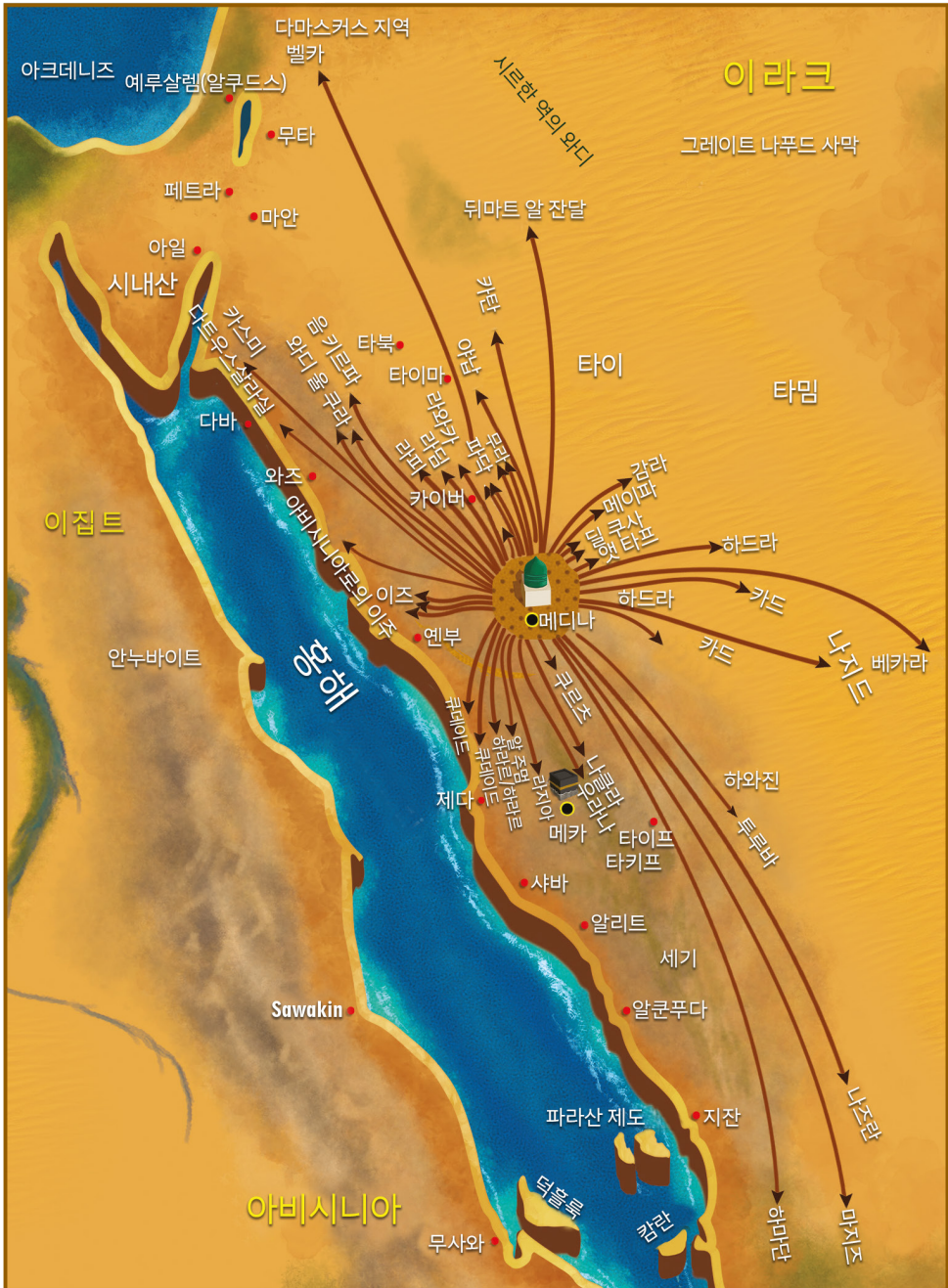
이렇게 하여 우리의 사도 앞에서 재산과 생명을 내 걸 것을 맹세하였다. 여인들은 단지 언약을 하였다. 사랑의 예언자는 "알라후 테알라 외에 절대자는 없으며 도둑질, 이간질, 간음, 아이들을 죽이거나 거짓말, 좋은 일에 반대하고 나서기…" 과 관련하여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모두들에게서 약속을 받아 냈다.

메디나 사람들과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서약을 했을 때, 어떤 목소리가 아카바의 언덕에서 울려 퍼졌다. "에이, 미나에 살고 있는 백성들아! 예언자와 메디나 무슬림들이 그대들에 맞서 싸우기로 협정을 맺었다." 우리의 예언자가 그 목소리를 듣고 말했다. "이것은 아카바의 사탄이다." 그리고는 그 목소리 주인에게 말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적! 나는 너 역시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니라." 그런 뒤 메디나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즉시 그들이 숙소로 돌아가도록 했다. 압바스 빈 우바데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맹세컨데, 명령하시면 내일 아침 미나

의 불신자들을 공격하여 혼찌검을 내겠습니다." 예언자는 기뻐했지만 우리는 아직 알라후 테알라로부터 어떠한 명령도 받지 않았으니 숙소로 돌아가시오." 라 하였다.

압둘라 빈 압바스에게서 들은 이맘 나사이의 서술에 따르면, 아카바 서약에 참석

우리의 스승 라술라가 보낸 사리야

다마스커스 지역
벨카
아크데니즈
예루살렘(알쿠드스)
무타
시르한 역의 와디
이라크
그레이트 나푸드 사막
페트라
마안
뒤마트 알 잔달
아일
시내산
카탄
타북
타이마
야브
타이
타밈
다바
와즈
카이버
감라
하드라
이집트
이즈
메디나
하드라
카드
옌부
카드
나지드
베카라
안누바이트
홍해
쿠르즈
하와진
제다
메카
타이프
타키프
샤바
알리트
세기
Sawakin
알쿤푸다
파라산 제도
지잔
아비시니아
무사와
캄란

한 그들 안사르(메디나 출신의 무슬림)들은 예언자 곁으로 옴으로 인해서 무하지르(메카 출신의 무슬림)가 되었다.

히즈라(이주)

아카바에서의 마지막 서약과 함께, 메디나는 무슬림들의 평화로운 피난처로 변모하였다. 아카바의 두 번째 서약 소식을 들은 메카의 다신교도들은 가혹한 폭력으로 무슬림들을 위협하였다. 무슬림으로서 메카에 머무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그들의 처지를 보고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허락해줄 것을 요청했다. 어느 날, 우리의 예언자는 아주 기쁜 표정으로 교우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이 이주할 곳을 알라후 테알라로부터 계시받았으니, 그곳은 야스립(메디나)이다. 그곳으로 이주하라!" 그리고 말했다. "그곳 무슬림 형제들과 연합하여 단결하라.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들을 너희 형제로 삼게 하셨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야스립을 여러분들이 안전과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땅으로 하셨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지도하에, 무슬림들은 여러 무리로 나뉘어 메디나 이주를 개시하였다.

우리의 예언자는 이주자들이 각별히 조심하도록 단단히 당부했다. 무슬림들은 다신교도들의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작은 무리를 이루어 가능한 한 비밀리에 이동했다. 메디나에 첫번째로 이주에 성공한 무슬림은 아부 셀레메 였다. 한참 뒤에 다신교도들은 이주에 대한 사실을 알았고, 이동 중이던 무슬림들을 추격하여 다시 돌아가도록 압박했다. 그들은 부인들을 남편으로부터 떼어 놓고, 힘이 닿는데 까지 이들을 감옥에 감금했으며, 잔혹하게 고문했다. 종족 간의 전쟁이 터질 것을 우려하여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은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메디나로 이주하였다.

어느 날, 우마르 성인이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하고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났다. 그는 카바를 일곱 번 순회하고 나서 거기 있는 다신교도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이제 나도 알라후 테알라의 길을 따라 내 종교를 지키기 위해 이주하고자 한다. 부인을 과부로 만들고, 아이들을 고아로 만들고, 자기 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도록 하고자 하는 자는 저 계곡너머에서 내 앞을 가로 막거라 !"

그리하여 우마르 성인과 약 스무 명의 무슬림들이 밝은 대낮에 두려움 없이 메디나로 출발했다. 우마르 성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누구도 이 행렬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이주는 끊임없이 계속되었으며, 교우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 차례차례 메디나에 도착했다.

한편, 아부 바크르 성인 또한 이주의 허가를 요청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인내하시오! 나는 희망하길, 나의 알라후 테알라께서 나에게 이주를 허락하시어 그대와 함께 이주하는 것입니다." 아부 바크르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도 당신을 위해 희생을 마지 않을지니, 이것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시나요?" 예언자는 "물론이지요" 하여 기쁨을 선사하였다.

우리 예언자의 가자(pbuh)

Μεάν
Εζρούχ
Ντουμέτ-ουλ-Τζέντε
Είλε
Ντουμέτ-ουλ-Τζέντε
Σινά
Μεγάλη έρημος Νεφούντ
Μπίντε' Ταμπούκ
Ταμπούκ
Τεϋμά
Ντεμπά
Μπενί Τεμίμ
Χίτζρ ("Μενταίν-ου Σαλίχ")
Βέτζχ
Ουλά
Φαντάκ
Χενάκιε
Χαϊμπέρ
Βαντί-γιουλ-κουρά
Γκάμπε
Ζατ αλ Ρίκα
Εμλέκ
Γκατφάν
Μπουβάτ
Χέντεκ
Ουχούντ
Μπενί Λιγιάν
ΑΊΓΥΠΤΟΣ
Μεδινε-ι
Μούνεββερε
Μπενί Καϊνούκα
Μπενί Ναντίρ
Μπενί Κουρεϊζά
Ζουλ Ουσαϊρά
Γιενμπού
Χαμραούλ Ασάντ
ΑΡΑΒΙΚΉ ΧΕΡΣΌΝΗΣΟΣ
Νούμπα
Πρώτη Μπέντρ
Εμπβά
Καρκαράτ'ουλ Κεντρ
Μικρό Μπέντρ
Ερυθρά Θάλασσα
Rabigh
Μπαχράν
Σεβίκ
Μούρεϊσι
Σουλεϊμ
Χεβάζιν
Μέκκα-ι
Μουκαρέμε
Χουνέιν
Κατάκτηση της
Μάκκα Διαδρομή
Ταϊφ
Κινάνε
Σακίφ
Ντέβς
Σεβακίν
Κουνφούζε
Α Β Η Σ Σ Υ Ν Ί Α Σ

아부 바크르 성인은 낙타 두 마리를 8 백 디르함에 산 뒤, 이주의 날을 기다렸다. 이 당시 메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하님의 사도와 아부 바크르 성인, 알리 성인, 가난하고 병들고 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다신교도들에 의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었다.

한편 메디나 사람들은 이주자들을 크게 환대하였으며, 그들의 집에 함께 머무르도록 조치하였다. 이주자와 원주민은 강하게 연합하였다.
메카 다신교도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또한 이주를 감행하여 무슬림들의 수장이 될 것을 경계하여 비상 상태에 돌입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이때 사탄이 다신교도들에게 늙은 나즈디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몇 가지 제안이 나왔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자 사탄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당신들 의견은 해결책이 되지 못하오. 그의 웃는 얼굴과 부드러운 말은 모든 대책을 소용없게 만들 것이오.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오.”

꾸라이쉬 부족의 지도자 아부 자흘이 말했다. “각 부족들 중에서 한 사람씩 용사들을 선발합시다. 그들이 똑같은 칼을 들고 무함마드를 공격하게 하여 그를 찔러죽이면 됩니다. 누가 그를 죽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보상금에 합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상금을 지불하고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탄 또한 이 방안에 찬성했다.

다신교도들이 이 같은 계략 준비에 분주할 때,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그의 사도에게 이주를 명령하셨다. 지브릴 천사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와서 다신교도들의 계략을 알리고, 그날 밤 침대에서 자지 말도록 일렀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알리 성인에게 이날 밤 자신의 침대에서 자도록하며, 맡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각기 그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했다. “오늘 밤 내 침대에서 잘 때 내 윗 옷으로 네 몸을 덮으라! 너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고 지시하였다.

알리 성인은 우리의 예언자가 시키는 대로 자리에 누웠다. 그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대신에 그의 생명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히즈라의 밤, 불신자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축복된 집을 포위하였다. 우리의 귀감은 집 밖으로 나가 꾸란의 야신 장 처음 열 구절을 낭송한 후, 흙 한 줌을 쥐어 불신자들 머리 위에 뿌렸다. 그 흙에 머리가 닿은 사람은 모두 바드르 전투에서 살해되었다고 전해진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그들 사이를 안전하게 빠져 나가 아부 바크르 성인의 집에 도착했다. 다신교도의 그 누구도 예언자를 보지 못했다. 조금 뒤, 어떤 사람이 다신교도들에게 다가와 물었다. “왜 여기

서 기다리고 있는 게요." 그들이 대답했다. "무함마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소." 그 사람이 말했다. "무함마드는 당신들 머리에 흙을 뿌리고 당신들 옆을 지나 빠져나갔소." 다신교도들이 각자 머리를 만져보니, 과연 흙이 묻어 있었다. 그들은 곧 집문을 공격하여 안으로 쳐들어갔다. 그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침대 위에 있는 알리를 보았고, 그분이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다. 알리가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이 언제 나에게 그분의 동정을 살피라고 한 적 있나요?" 그들은 알리에게 폭행을 하였고, 그를 카바 근처에 얼마 동안 가두어 두었다가 풀어주었다. 불신자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찾기 위해 사방을 수색하였다.

그들은 먼저 아부 바크르 성인의 집으로 가서 아부 바크르의 딸 아스마에게 물었다. 그녀가 대답하지 않자, 그녀를 때렸다. 모든 곳을 뒤져도 찾지 못하자 그들은 매우 화가 났다. 가장 잔인한 아부 자흘은 메카 인근에 알려 낙타 백 마리의 상금을 내걸고 예언자와 아부 바크르 성인의 수배령을 내렸다. 일부 사람들이 상금에 욕심을 내어 무장을 하고 말에 올라 수색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아부 바크르 성인의 집에 가서 말했다. "나는 알라후 테알라로부터 이주의 허가를 받았소." 아부 바크르 성인은 흥분하여 물었다. "이번 이주에 저도 함께 갑니까?" "그렇소." 아부 바크르 성인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낙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낙타를 택하십시오." 온 세상의 귀감인 예언자가 말했다. "내 것이 아닌 낙타에는 타지 않을 것이오. 나는 그 값을 치르고 낙타를 사겠소." 이 같은 분명한 명령에 따라 아부 바크르 성인은 낙타 값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부 바크르 성인은 압둘라 빈 우라이킷이라는 이름의 안내자를 불러 길잡이로 고용했고, 낙타들을 3 일 뒤에 사우르 산의 계곡으로 몰고 오도록 명령했다. 우리의 주님인 알라후 테알라의 사자와 아부 바크르 성인은 약간의 음식을 준비한 뒤, 사파르 달 27 일 목요일 여정에 올랐다. 여행 도중에 아부 바크르 성인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때로는 왼쪽에, 때로는 오른쪽에, 때로는 앞에, 때로는 뒤로하여 그분의 주변을 맴돌았다. 우리의 예언자가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고 묻자 그가 대답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위험이 닥치면, 제가 먼저 부딪치게 해 주십시오. 이도록 귀하신 분에게 제 생명을 바치리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나막신의 볼 터지는 바람에, 그분의 축복받은 발에 상처가 났으며, 더 이상 걷는 것은 무리였다. 그들은 어렵게 산 위까지 올라갔으며, 어떤 동굴의 입구에 이르렀다. 아부 바크르 성인이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들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먼저 들어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먼저 들어가서 안전을 확인한 뒤, 내부를 깨끗이 치웠다. 동굴 주위에는 크고 작은

“마스지드 안 나바위 - 메디나 알 무나와라”

무슬림의 첫 번째 키블라는 북서쪽 방향에 위치한 Masjid al-Aqsa였습니다. 여기
그것은 또한 유대인의 키블라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과 무슬림이 우리의 키블라로 눈을 돌리
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Ashhab-i kiram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sall-Allahu’alaihi
wa sallam”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키블라가 카바가 되도록 요청했습니다.
알라의 메신저이신 우리 스승님은 이 모스크에서 정오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동안], “카바로 돌아가라”라는 뜻의 구절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남동쪽에 위치한 카바(Kaaba)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스크를 Masjid al-Qiblatayn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는 두 개의 키블라가 있는 모스크를 의미합니다.

여러 구멍이 뚫려있었다. 그는 외투를 찢어 구멍들을 메웠다. 그래도 구멍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는 발 뒤축으로 그것을 메운 후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동굴 안으로 모셨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안으로 들어와 아부 바크르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잠이 들었다. 한참 뒤 뱀 한 마리가 아부 바크르 성인의 발을 물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깨우지 않으려고 그는 고통을 견디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물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축복받은 얼굴에 떨어졌으며, 예언자가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아부 바크르 성인이 말했다. “내가 발로 구멍을 막고 있는데, 뱀이 그 발을 물었습니다.” 예언자가 입의 침을 아부 바크르의 상처 위에 발라주자, 그의 고통이 즉시 멈추었고 상처가 치유되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와 아부 바크르 성인이 동굴에서 쉬고 있을 때, 추적에 나선다신교도들이 동굴 앞에 이르렀다. 그들은 동굴입구가 거미줄로 막혀있고 비둘기 두 마리가 거기에 둥우리를 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추적자 꾸르즈 빈 알까마가 말했다. “자취가 여기서 사라졌다. 만약 그들이 이 동굴로 들어갔다면 입구를 막고 있는 거미줄이 떨어졌을 게 아닌가.” 일부 사람들이 말했다. “이왕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한 사람을 들여보내 안을 살펴봅시다.” 불신자 우마이야 빈 할라프가 말했다. “그렇게 사리판단이 안되오? 거미줄이 겹겹이 쳐진 동굴 안에 무엇 하러 들어간단 말이오. 이 거미줄은 무함마드가 태어나기 전에 쳐진 것 같지 않소.”

다신교도들이 동굴 앞에서 실갱이 할때, 아부 바크르는 염려스러워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저 자신은 걱정하지 않지만, 고귀하신 그 몸이 해를 입는다면 모든 교우들과 후손들에게 커다란 재앙이며 종교의 끝이 됩니다.” 예언자가 대답하길 “절대로 슬퍼하지 마시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이들이 머리를 숙여 동굴을 살피면 우리는 발각이 됩니다.” 예언자는 “아부 바크르! 당신과 나, 두 사람 그리고 세번째는,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시라.” 하였다. 결국에 다신교도들은 모두 되돌아 갔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이 상황과 관련하여 꾸란 ‘타우바 장’40 절을 내리셨다. 그 해석은 이렇다.
‘너희가 너희 지도자를 도울 수 없다 해도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분을 도우시니 불신자들이 그분을 추방했을 때도 그러하니라. 그분께서 한 명의 동반자와 동굴 안에 있었을 때, 그의 동료에게 이르되 슬퍼하지 말라 알라후 테알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하여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그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너희가 보지 못하는 군대로 그를 지원하사 불신자들의 교만한 언행을 꺾으셨으며, 알라후 테알라의 말씀이 높이 있었으니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강하시고 현명하시노

라. (9: 40)'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와 아부 바크르 성인은 그 동굴 안에서 사흘 낮과 밤을 머물렀다. 밤이 되면 아부 바크르 성인의 아들 압둘라가 몰래 와서 메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또 그의 해방된 노예 아미르 빈 푸하이라가 밤에 우유를 가져다주고, 길의 흔적을 말끔히 정리하였다.

넷째 날이 되자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사우르 동굴을 떠났다. 예언자는 꾸스와라고 하는 자신의 낙타에 올랐다. 어떤 보고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낙타에 아부 바크르도 함께 태웠다고 한다. 길을 잘 알고 있던 아미르 빈 푸하이라 성인과 압둘라 빈 우라이킷은 다른 낙타를 탔다.

온 세상의 귀감인 예언자는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찬미한 고귀한 마을인 그의 고향 메카를 이제 떠나게 된 것이다. 메카의 경계를 향해 낙타를 돌리며 슬픈 심정으로 "지고 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창조하신 땅 중에 가장 훌륭한, 가장 사랑받는 땅이 되기를…. 내가 이 땅에서 추방당하지 않았더라면 절대 떠나지 않았을지라. 나에게 이 보다 더 아름답고 사랑스런 곳이 없도다. 나의 족속들이 나를 이 땅에서 추방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떠나지 않았거니, 이 곳 외에 다른곳에 나의 민족 기반을, 가정을 꾸리지 않았을지다."
바로 그 순간, 지브릴 천사가 지상으로 내려와 물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고향이 그립습니까?" 예언자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지브릴 천사는 그 분을 위로하며 꾸란 '까사스 장'의 85 절을 읊어주었다. 그것은 마침내는 그분이 메카로 귀환하게 된다는 기쁜 소식이었다.

그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여행을 계속했다. 다신교도들은 여러 곳을 수색하였지만, 그들을 예언자 일행을 찾을 수 없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의 사랑하는 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셨다. '꾸다이드'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어느 천막 앞에 멈추었는데, 그 주인은 움무 마베드라는 여인으로 관대함과 지혜와 정숙함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음식과 대추야자, 그리고 고기를 사고자 하였다. 움무 마베드가 말했다. "제가 가지고 있다면 잔치를 베풀고 그것을 선물했을 것입니다. 가뭄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에겐 아무 것도 없답니다." "우유는 있나요?" 그들이 묻자 그녀가 대답했다. "없습니다. 양이 새끼를 낳지 못합니다." 온 세상의 귀감이 천막 옆에 서 있는 연약한 양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 움무 마베드! 왜 양이 저기에 묶여 서 있습니까?" 그녀가 대답했다. "매우 약하고 병이 들어서 무리의 뒤에 처져 남았습니다" 예언자가 다시 물었다. "젖이 조금 남아 있을까요? 제가 양의 젖을 짤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녀가 대답했다. "아마도 젖이 없겠지만, 원하신다면 한 번 짜보세요." 그러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양 옆으로 다가가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

베드르 전투의 경로

다마스커스 방향

와일

나시프의 우물

이슬람 군대와 그 출항 경로
불신자들의 군대 경로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온 아부 수피안
이븐 하브의 상인 카라반 이동 경로

콰탄

아스사위크 바자르

아이스
카즈라즈

알 메디나투엘무나와라 (빛나는 도시)

옌부

주하이나

함라

바드르 바드르

움물버크

와단

래비

주파

쿠자아

큐데이드

쿠담

쿨라이스

베니 라흐얀

히자즈

아라비아 반도

홍해

다하반

우스판

자멈

후자일

아스 살랄 카비르

투와

하데

제다

쿠라이시

하와진

마카 알 무카라마 (성 메카)

하위야

타이프

키나나

타키프

티하마

마스타바

라의 이름을 낭송하였다. 풍부한 젖을 간청하면서 축복된 손으로 양의 젖통을 잡았다. 바로 그 순간 젖통은 젖으로 가득 찼으며,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사발을 가져와 그것을 가득 채웠다. 예언자는 먼저 움무 마베드에게 젖을 권했다. 그녀가 마신 후 아부 바크르와 다른 사람에게 주어 그들이 배부르게 마시게 했다. 그런 다음 예언자가 마셨다. 그분은 다시 양의 젖통을 잡고 젖을 짜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 천막에서 제일 큰 그릇을 달라고 하여 그것을 가득 채운 후 움무 마베드에게 건네주었다.

그들이 떠나간 후, 움무 마베드의 남편이 와서 그 젖을 보았다. "이 젖은 어디서 난 거요?" 움무 마베드가 대답했다. "어떤 축복받은 사람이 우리 집을 방문하였으며,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그분의 자애로움의 결과입니다." 그가 물었다. "어떻게 생긴 사람이오? 당신이 그의 모습을 얘기해 줄 수 있겠소?" 움무 마베드가 말했다. "그 축복 받은 사람은 잘 생기고, 부드러운 피부를 가졌습니다. 그분의 눈 안에는 홍반(紅斑)이 있고, 목소리는 공손하였습니다. 속눈썹은 길었고, 눈의 흰자위가 매우 희었으며, 눈동자는 매우 검었습니다. 머리는 검었고, 수염은 짙었습니다. 그분이 침묵할 때 위엄이 있었으며, 말할 때 미소를 머금었고, 그분의 말은 끈을 꿴 진주처럼 입에서 기쁘게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보면 그는 아주 장엄하게 보였으나, 가까이서 보면 매우 상냥하고 포근 하였습니다. 그분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마음과 혼을 바쳐 뛰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놀라운 표정으로 듣고 있던 그의 남편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꾸라이쉬 부족이 찾고 있는 그 사람임이 틀림없군. 만약 내가 그분을 만났더라면, 그를 만나는 영광을 누리고 그를 따라 갔을 터인데." 어떤 기록에 따르면 그 양은 18 년이나 더 살았다고 한다. 우리의 예언자가 내린 은혜로 그들은 당분간 그 양에 의지하여 연명할 수 있었다. 움무 마베드의 남편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뒤좇아 가서 림 계곡에 이르러 마침내 접견하게 되었고, 곧 무슬림이 되었다. 그의 아내도무슬림이 되었다.

수라까 빈 말리크

다신교도들은 줄기차게 무함마드 알라히살람과 아부 바크르 성인을 추적하였다. 다신교도들은 만약 그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앞으로 큰 위협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이슬람 국가를 수립하여 머지않아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온갖 역량을 동원하여 예언자 추격에 나섰다. 누구든지 예언자와 아부 바크르 성인을 죽이거나 사로잡는 사람에게는 낙타 백 마리의 현상금에 덧붙여 수 많은 재물을 줄 것을 약속했다. 이런 소식은 수라까 빈 말리크가 속해 있는 무드리즈 부족에게도 전해졌다. 수라까 빈 말리크는 능숙한 추적자였으며, 이 일에 흥미를 느꼈다.
무드리즈 일족은 수라까 빈 말리크가 살고 있던 쿠다이드 지역에서 화요일 날

회의를 소집했다. 수라까도 당연히 회의장으로 갔다. 어떤 꾸라이쉬 부족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오, 수라까! 세 사람의 일행이 바닷가로 가는 것을 조금 전에 보았소. 아마도 그들은 무함마드와 그의 교우들인 듯 싶소.” 수라까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보상이 너무 어마어마 하였으므로 자신이 혼자 그 공을 차지하고 싶었다. 그러므로 그는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을 알기를 원치 않았다. 그가 대답했다. “아니요. 당신이 본 사람들은 다른 일행이오. 우리도 조금전에 그들이 여기를 지나가는 것을 보았소.”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야기 했다.

수라까 빈 말리크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가만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종에게 일러 말과 무기를 챙겨 계곡 너머에서 기다리도록 했다. 그는 창이 뿜어내는 빛이 보이지 않도록 거꾸로 들었다. 말을 세차게 몰아 타고 바닷가로 달려갔으며 마침내 지나간 흔적을 발견했다. 그는 바짝 추격하여 잘 볼 수 있는 곳까지 접근했다. 바로 그때 수라까는 예언자가 꾸란을 낭송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부 바크르 성인이 뒤를 보았고, 수라까를 발견하자 서두르기 시작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동굴 속에서 말한 것처럼, “걱정마시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오.” 라 했다.

부카리 성인의 저서에 따르면, 아부 바크르 성인이 예언자에게 말을 탄 자가 따라오고 있다고 말하자 우리의 예언자는 기도를 올렸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그를 떨어뜨리소서!”

다른 기록들을 보면, 수라까가 가까이 왔을때, 아부 바크르 성인이 울먹이자, 예언자가 우는 이유를 묻자, “저 자신이 걱정이 되어 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해를 끼칠까 하는 두려움에 웁니다.” 라 대답했다.

수라까가 사정거리까지 쫓아와 말했다. “무함마드! 오늘 누가 너를 지켜주겠는가.” 예언자가 대답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 순간, 수라까의 말의 앞 다리가 무릎까지 땅속으로 묻혔다. 수라까는 겨우 말을 수습하여 다시 공격을 시도했다. 그러나 말의 발이 다시 땅에 쳐 박혔다. 이번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자애로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성숙함의 절정이며 올바름의 결정체인 우리의 예언자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수라까는 “오, 무함마드! 보호 받는 것을 알고있소. 기도를 해서 나를 구해 준다면, 이제부터 절대로 당신을 다치게 하지 않겠소. 당신을 쫓는 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겠소” 예언자는 알라후 테알라께 기도하였다. “알라후 테알라께서시여, 이 자가 하는 말이 정말이고 진정하다면, 그 말을 구하시오소서.” 기도를 한 후, 수라까의 말이 구덩이에서 빠져 나왔

다. 바로 그 순간, 말의 발이 빠졌던 곳에서 연기 같은 것이 피어나 하늘로 올라갔다. 수라까는 놀라서 넋을 잃은 상태가 되었다. 마침내 그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언제나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증언하게 되었다.
"오, 무함마드! 나는 수라까 빈 말리크입니다. 나는 당신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약속 드립니다. 우리 부족은 당신을 붙잡는 자에게 많은 포상을 줄것이라 선포했지요." 그는 꾸라이쉬 부족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고 나서, 자신의 음식과 낙타를 여행할 때 쓰라고 예언자에게 내놓았다. 그러나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했다. "오, 수라까! 그대가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낙타와 고기 같은 것은 필요치 않네. 다만 우리를 보았다는 것을 숨겨주는 것 만으로 충분하네." 라 했다.

이브니 사아드는 이렇게 전했다 "수라까가 예언자에게, 뭐든지 명령하라 하자, 예언자는 "너의 땅으로 돌아가, 그 누구도 나를 잡으러 오지 못하록 하라" 라 하였다. 수라까는 돌아가는 길에 그가 겪은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뜻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면, 놀라운 상황을 목격할 수 있다. 예언자를 살해하여 많은 포상을 얻고자 성난 사자같이 길을 나선 수라까, 이제는 차분하고 순한 아이 같았다. 어떤 것 보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해을 입히지 못하도록, 수라까의 마음을 돌려 선하게 하셨다. 물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예언자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인류에게 자비로서, 그들이 죽은 후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선사하려고 보낸 사랑의 예언자이기 때문이다."

기쁜 소식이요! 세상의 귀감이 옵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와 아부 바크르 성인과 아미르 빈 푸하이라, 그리고 그들의 길잡이 압둘라 우리이킷 일행이 히즈라 원년 라비울아우왈 달 8 일인 월요일(서기 622 년 9 월 20 일) 오전에 꾸바 마을에 도착했다. 그 날로부터 무슬림들의 히즈라 태양력의 첫 해가 시작되었다. 그들 일행은 쿨숨 빈 히듬이라는 무슬림의 집에 머물렀다. 그들은 거기에 첫 성원(모스크)을 마련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꾸바 계곡에서 첫 금요예배를 올리고 첫 설교를 행하였다. 꾸바 성원의 의미는 알라후 테알라의 계시로 내렸다. '신앙심 위에 설립된 성원이라.'(타우바 장 9:108 의 해석)

한편, 메카에 남아있던 알리 성인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카바에 늘 자리하던 곳에 앉아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공표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물건을 맡겨둔 사람들은 지금 와서 그것을 찾아가시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것을 찾아갔으므로 맡겨둔 물건들은 모두 주인들에게 돌아갔다.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온 아부 수피안 이븐 하브의 상인 카라반 이동 경로

자발 하나

천사가 내려온 산

(자발) 부르카의 산

자발 알 미르카브

자발 아스팔

사드마탄 산

이슬람 군대

알 우드베트 우드 두냐

이슬람군 본부

선지자 모하메드의 천막

바드르의 우물

싸움터

알리 이븐 아비 탈립

우트베 빈 왈리드

함자빈 압둘 무탈립

왈리드 빈 왈리드

우바이다 빈 카리스

샤이바 빈 왈리드

첫 번째 충돌

와디 아시사프라

알 우드베트 우드 쿠스와

쿠라이시군

불신자 육군 본부

메카에 남아있던 교우들은 알리 성인에게 의지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축복받은 가정이 메카에 있었기 때문에 알리 역시 그곳에 머물렀다. 얼마 후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자신의 가족과 물건들을 메디나로 옮기도록 명령했다. 알리 성인은 꾸라이쉬 불신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말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내일 메디나로 떠납니다. 무어라 할 말이 있으면 지금 여기서 하시오."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수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알리 성인은 예언자 가족과 자신의 친척들을 데리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물건들을 챙겨 길을 떠났다. 꾸바에 당도했을 때, 그의 발은 피투성이가 되어 짓물러 있었다. 낮에는 몸을 숨기로 밤에 걸어서 이동 하였다. 우리의 예언자가 있는 곳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지쳐있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그의 상황을 듣자마자, 몸소 알리 성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알리 성인의 모습을 보고 가련해 하여, 그분은 사랑과 희생의 사촌을 부둥켜안았다. 알리 성인의 헌신적인 행동은 꾸란에 계시되었다.

이전에 메디나로 이주하였던 교우들과 메디나의 무슬림들은 예언자가 메카를 떠나 이주의 길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열렬한 흥분 속에 그의 도착을 기다렸다. 그들은 메디나 외곽지역에 파수대를 설치하고 그의 도착을 대대적으로 환영할 준비를 하였다. 그들은 비를 그리워하는 불타는 사막처럼 매일 지평선을 응시하며 새로운 소식을 기다렸다. 마침내 급한 전갈이 들어왔다. "그들이 온다! 그들이 온다!" 이 소리를 들은 그들은 뜨거운 사막의 한 가운데를 바라보았다. "그렇다! 그들이 온다!" 그 뜨거운 사막에서, 살이 타는 듯한 열기를 뒤로 하고, 위엄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들을 보았다. 그들은 행복에 겨워 서로를 보고 외쳤다. "기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옵니다! 우리의 예언자가 옵니다. 메디나 사람들이여 행복하라! 기뻐하라! 오늘을 명절로 삼읍시다! 예언자가 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곧 메디나의 거리 마다 퍼졌다. 7 세부터 70 세까지, 노인들과 병자들, 모든 메디나 사람들은 여태까지 겪어 본 적이 없는 환희의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가장 좋은 옷을 걸쳐입고 이 세상의 예언자를 맞이하러 달려 나갔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타크비르[27]의 목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졌고,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쪽에서는 '에민(신뢰)'으로 잘 알려진,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죽이려 많은 포상을 건 자들과, 다른 한쪽에서는 그분과 교우를 보호하고, 명령을 떠 받들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 놓는 자들이 있었다.

메디나 사람들은 한순간이라도 빨리 사랑하는 예언자의 빛나는 얼굴을 보기를 원하였다. 메디나가 생긴 이후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을 본적이 없었다. 메디

---

[27]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의미의 찬미의 말을 소리내어 읊는 것.

나는 역사상 가장 기쁜 순간을 맞이하였다.
어린이들과 여인들은 이 경축의 날에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고 전해져 온다.

이별의 언덕으로부터 보름달이 우리 위를 비추고,
그가 올바름으로 초대하니 우리는 찬미해야 하리.

알라후 테알라의 명령을 우리를 위하여 가져다주는
그대 메디나에 어서 오세요, 당신의 초대는 우리의 영광.

오랜 관습에서 풀려나 우리는 품위와 존경으로 넘치고
영예를 얻어 만족하니, 손실을 보았지만 이익을 얻었네.

달이 어둠을 걷으며 말하네, "평화를 주는 사람들이여,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을 따르는 이들을 조금도 해치지 말도록 하라."

서약의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였던 그 말,
진리는 우리의 길, 종교의 길에서 배신은 없노라.

나는 잊지 않았네, 슬픔 없는 날이 하루도 없었음을,
알 아민의 별이여 증언하라, 그대의 충성과 사랑이 넘치네.

'자기를 헌신하여 알라후 테알라를 기쁘게 하는 무리가 있나니,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그 종을 사랑하시니라.'(바카라장 2:207 의 해석)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환영합니다!" "부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러한 환영과 초청의 희망사항들이 사방에서 쏟아졌다. 메디나의 유력인사들은 예언자 낙타의 고삐를 잡고 간청하였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제발 우리 집에 머물러주십시오." 그러자 예언자가 말했다. "그 고삐를 놓으시오. 내 낙타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무릎을 꿇는 곳에 위치한 집에서 머무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말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흥분하였다. 꾸스와라는 이름의 이 낙타가 과연 어디에 멈출 것인가? 꾸스와는 메디나 중심지역으로 향하였다. 거쳐가는 모든 집들이 '우리 집에 머무세요''우리 집에 머무세요'라 간청하였다. 마침내 낙타는 현재의 예언자 성원 정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낙타에서 내리지 않았다. 낙타는 다시 일어나서 또 걷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다시아까의 자리로 가서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서야 예언자는 낙타 등에서 내려와 말했다. "인샬라(알라후 테알라의 허락으로)! 내 집은 여기입니다." 그리고는 물었다. "이 곳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아므르의 자손인 수하일과 사알입니다." 그 아이들은 고아였다. 예언자가 다시 물었다. "우리 친척 중 누구의 집이 여기에서 가장 가깝습니까?"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할아버지인 압둘 무탈립의 어머니가

낫자르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칼리드 빈 자이드 아부 아유브 성인이 매우 기뻐하여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제 집이 가장 가깝습니다. 여기가 바로 제 집의 정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낙타에서 짐을 내리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집안으로 안내했다.

'자기를 헌신하여 알라후 테알라를 기쁘게 하는 무리가 있나니,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그 종을 사랑하시니라.'(바카라 장 2:207의 해석)

메디나의 무슬림들과 새로 이주한 메카의 무슬림들은 예언자의 이주로 인하여 크게 고무되었고, 기쁨에 넘쳤다.

그대의 영혼은 알라후 테알라의 고귀한 빛이라, 오
예언자여 당신의 고귀함은 기쁨과 만족을 고양하니, 오
예언자여

온 무슬림이 아는지라, 당신의 탄생은 자비의 증표라,
불신의 어두움은 사라지니, 오 예언자여

당신은 예언자들의 정원에 있는 장미 넝쿨이라
당신은 알라후 테알라의 최후의 장미봉우리라,
오 예언자여

자비를 베풀고, 알라후 테알라의 수호자요, 가장 존경스러운
증표요당신의 지식은 죄악의 고통에 대해 해결책이라,
오, 예언자여

메디나 시대

10 년 동안 지속된 메디나 시대는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사명을 계시받은지 13 년째 되는 해인 서기 622 년의 라비울라우왈 달 12 일 메디나로 이주한 히즈라를 기점으로 시작된다.

우리의 예언자는 성인 칼리드 빈 자이드 아부 아유브 알안사리의 집으로 들어가 일층에 숙소를 정하였다. 온 세상의 귀감을 모시는 영광은 축복받은 사람인 칼리드의 몫으로 돌아갔다.

칼리드 성인은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우리 집을 방문하여 아래층에 머무르겠다고 하셨다. 우리 가족은 위층에 머물렀으며, 이러

한 상황에 마음이 매우 불편했다. 어느 날 내가 예언자에게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어머니와 아버지는 희생하겠나니, 저희가 위층에 머물고, 당신이 아랫층에 머무르는 것이 저희의 마음이 아주 불편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아래층으로 내려오고 예언자께서 위층으로 옮기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말에 대해 예언자가 말했다. "오, 칼리드! 아래층에 머무르는 것이 내게 더 적합하고 편리하오." 그분은 방문객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래층을 선호한 듯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계속 윗층에 머물렀다.
어느 날 우리 집의 물을 담는 질 물독이 깨졌다. 혹시 그 물이 흘러내려 예언자에게 떨어져 불편을 줄까봐 아내와 나는 덮고 자던 하나밖에 없는 담요로 물을 꾹꾹 눌러가며 닦았다."

성인 칼리드는 위층에 사는 것 때문에 늘 신경이 쓰였다. 우리의 예언자를 설득하여 마침내 그들이 일층으로 내려오고, 예언자를 이층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다. 성인 칼리드가 말했다. "우리는 언제나 저녁을 마련하여 예언자에게 먼저 가져다 드렸다. 그러면 예언자는 식사 후 남은 것을 다시 우리에게 보냈고, 나와 나의 아내 움무 아유브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남긴 음식을 찾아내어 먹는 은총을 누렸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양파 또는 마늘이 들어간 음식을 준비하였는데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께서는 그 음식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보냈다. 전혀 먹은 흔적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나는 울면서 이층으로 올라가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우리 부모가 당신을 위해 희생하게 하소서! 예언자께서 저녁을 돌려보내셨는데 음식에 드신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제 아내는 당신의 손이 닿은 음식을 찾아서 먹는 축복을 누려왔습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이 음식에서 무슨 냄새가 나서 먹지 않았느니라. 나는 천사와 대화하는 사람이니라." 내가 물었다. "이 음식은 하람(금지된 것)입니까?" 예언자가 대답했다. "아니다. 그렇지는 않느니라. 다만 나는 그 냄새가 싫을 뿐이니라." "그렇다면 저도 이 음식을 싫어합니다" 라고 내가 말하자 예언자는 "너는 그것을 먹어도 좋다" 고 말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 음식을 먹었으며, 그 뒤로 다시는 양파와 마늘이 들어간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다.
언젠가 한번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와 아부 바크르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여 그들 앞에 가져갔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오, 칼리드! 메디나 신자들 중에서 서른 명의 사람들을 초대해 주시오." 나는 음식이 부족한데 예언자께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가 싶어 생각에 잠겼을 때, "오, 칼리드! 메디나의 신도들 중 30 명을 초대하시오" 라 되풀이 하였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메디나의 독실한 신자 서른 명을 초대하였으며, 그들은 두 사람분의 음식으로 모두 배불리 먹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었으므로 그들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으며 다시 한 번 충심을 다짐하고 모두 돌아갔다.
조금후, 예언자는 다시, "육십 명을 초대하라." 나는 그 음식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 기적을 보았으므로, 더욱 기쁘게 육십 명의 손님을 불렀다. 그들은 초대에 응하여 우리 집에 왔으며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 예언자가 보인 기적을 누리

고 그들 모두는 헤어졌다. 그 즉시, 우리의 예언자가 말했다. "메디나 신자 구십 명을 초대하라." 나는 다시 손님을 불렀으며 그들은 우리 집에 왔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명령하는 대로 그들은 무리지어 앉아 음식을 먹었다. 그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모두 본 뒤에 떠나갔다. 이리하여 모두 백팔십 명의 사람들이 두 사람분의 음식으로 배불리 먹은 결과가 되었다. 음식은 전혀 손을 대지 않은 것 처럼 내가 처음 가져다 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안사르(메디나의 교우들)와 무하지르 (메카에서 이주한 교우들)가 형제가 되다

우리의 예언자는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무하지르와 이들에게 숙소를 제공해준 메디나의 신도들, 안사르들을 서로 형제 사이로 묶어 메디나에서의 보다 강력한 동맹관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성인 알리가 맨 마지막에 남아 예언자가 그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물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저를 잊어버리신 게 아닙니까?" 그러자 온 세상의 귀감인 예언자가 말했다. "너는 이 세상과 사후 세상에서 나의 형제이니라." 이러한 형제관계는 물질적 지원과 정신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고향과 친척으로부터 멀리 떠나온 슬픔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었다. 실제로 메디나의 무슬림들은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이를 널리 펴기 위해 자기 고장을 찾아온 무하지르 형제들을 따뜻하게 환영하였으며, 그들을 자신들의 집으로 맞이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성심 성의껏 잘 보살펴 주었다. 이러한 형제결의로 그들은 진심으로 서로를 포옹하였던 것이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무하지르와 안사르를 각각 한 사람씩 형제로 정해주었다. 안사르들은 그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무하지르와 서로 나누어 쓸 정도로 깊은 형제애를 보여 주었다.
모든 메디나 사람들은 그들의 경작지와 포도원, 정원, 가옥, 그리고 재산들을 둘로 나누어 기꺼이 무하지르 형제에게 주었다. 무하지르인 압둘라흐만 빈 아우프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우리가 메디나로 이주해 갔을 때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나와 사아드 빈 라비를 형제로 맺어주었다. 그리하여 내 형제가 된 사아드가 내게 말했다. "오, 나의 형제 압둘라흐만! 나는 메디나 무슬림들 중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부자입니다. 이제 내 재산을 둘로 나누었으니 그 반은 그대의 것이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당신을 축복하고 당신에게 더 많은 복을 내리기 바라오. 나는 재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당신이 장사하는 시장에 나를 데려가 준다면 충분하오."

이러한 관대함은 오로지 이슬람의 형제애로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아담 알라히살람의 시대로부터 그때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주가 있었다.

그러나 히즈라처럼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이주; 외부에서 이주한 자들과 거주자 사이의 사랑과 성심성의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진실한 무슬림 신자들은 형제들이라' (후주랏 장 10 절의해석) 고 계시하셨다.

이로써 진실한 사랑과 성심성의는 물질적 이익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과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이 드러났다. 교우들의 이러한 유대관계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소담에 기인한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의 축복받은 마음으로부터 발산된 한 없이 깊은 비유와 영감과 표현의 풍부함은 교우들의 마음 속으로 흘러들어갔으며, 그 결과로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의 이익 보다도 형제들의 이익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슬람의 새로운 중심지에서 안사르와 무하지르는 손과 손을 잡고, 마음과 마음을 합하여 이슬람 종교를 강화하기 위해 순교를 포함한 어떠한 희생도 감내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중심으로 결집하여 이슬람을 벗어나지 않는 새로운 질서와 행복한 삶을 일구어나갔다. 그러므로 히즈라를 계기로 하여 이슬람은 하나의 국가를 설립하는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빛나는 메디나는 이슬람의 중심이자 요람이 되었다.

메디나에는 교우들 외에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다신교도들이 있었다. 유대인들은 세 부족으로 이루어졌는데 까이누까족, 꾸라이자족, 그리고 나디르족이다. 이들은 이슬람과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를 커다란 원수로 보았다.

한편, 메카의 다신교도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그의 교우들과 메디나 사람들을 형제로 맺어 단결한 것에 아주 큰 위협을느꼈다. 만약 그들이 이 일을 빨리 수습하지 못한다면 무슬림들이 강력하게 성장하여 메카를 공격하고 그들의 농토와 집과 나라를 되찾으려 할 것이라 우려한 것이다. 메카 다신교도들이 메디나의 무슬림들을 협박하는 편지들이 도달하였다. 이 중 하나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결코, 그 어떤 아랍 적들도 당신들 보다 우리는 분노하게 하는 자들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 부족에서 떨어져나간 사람을 당연히 우리에게 인도했어야 하는데, 당신들은 오히려 그를 받아들여 보호했기 때문이다. 당신들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우리와 그와의 관계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말고 그를 우리에게 넘겨주기 바란다. 만약 그가 잘못을 바로잡는다면 우리에겐 기쁨이 될 것이며, 그가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그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다.'

이 편지에 대하여 성인 카아브 빈 말리크는 우리의 예언자를 찬양하는 아주 아름다운 답장을 써 보냈다.

메카의 다신교도들은 같은 식으로 위협하는 편지들을 메디나에 있는 다신교도들에게 보냈다. '만약 당신들이 우리 사람을 당신들 도시에서 쫓아내거나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공격하여 죽일 것이며 그대들의 아내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겠다.'

이에, 메디나의 다신교도들은 위선자 압둘라 빈 우바이를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한 끝에 기회를 엿보아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해칠 것을 결정했다. 무슬림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 주위에 모여 그분을 보호하는 최선을 다하였다. 그들은 그분 주위를 둘러쌌고, 밤이 되면 밖으로 나갈 수 없었으며, 집에서 잘 수도 없었다. 우바이 빈 카아브의 이야기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와 그 교우들이 메디나를 방문하였을 때 무슬림들은 아랍 부족 다신교도들의 표적이 되었다. 교우들은 무장을 하고 밤중 내내 보초를 서야했다."

교우들은 한 몸이 되어어려운 지경에 처한 무슬림 형제들을 돕기 위해 온 힘을 달려갔다. 그 선두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서 있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속출한 것처럼, 용감성에 있어서도 교우들 중에서 가장 앞섰다. 아무리 밤이 늦었더라도 어디에선가 비명소리가 들려오면 우리의 예언자는 말을 타고 제일 먼저 현장으로 달려갔으며, 사태를 수습하고 교우들을 안심시키고는 하였다.

예언자 성원

우리의 예언자는 메디나로 이주하고 나서, 첫 사업으로 교우들을 교육시키고 단체 예배를 올리기 위한 성원(모스크)의 건립을 원하였다. 어느 날 지브릴 천사가 와서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자신을 위해 돌과 벽돌로 만든 예배장을 지으라고 당신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언자는 메디나에 도착했을 때 그의 낙타 꾸스바가 무릎을 꿇었던 그 땅을 주인으로부터 즉시 매입하기로 하였다. 그 땅의 주인들이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이땅의 댓가는 오직 알라후 테알라로부터 기다리겠습니다. 알라후 테알라를 위하여 그 땅을 선물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언자가 그 땅을 거저 받아주도록 간청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예언자는 그들의 제의를 물리치고 통상적인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땅을 구입하였다.

부지를 반반하게 정리하는 동안 벽돌들이 만들어지고 돌들이 운반되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건물의 기초공사가 시작되었다. 우리의 예언자는 축복받은 손으로 직접 머릿돌을 바닥에 고정시켰으며, 여러 사람에게 각각 말했다. “아부 바크르! 그대의 돌을 내 돌 옆에 놓으시오. 그 다음에는 우마르가 돌을 놓으시오. 그 옆에는 우스만이, 또 그 옆에는 알리가 각각 돌을 놓도록 하시오.” 그의 명령에 따라 모두 실행하고 나자 예언자는 거기에 모인 교우들에게 말했다. “그대들도 모두 돌을 하나씩 놓도록 하시오.” 그러자 교우들은 모두 자신의 돌들을 놓기 시작하였다.

모든 교우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조금도 쉬지 않고 성원의 건설작업에 매달렸다. 축복받은 등어리로 돌과 벽돌을 날랐다. 교우들은 돌과 벽돌을 이용하여 건물의 기초를 일 미터 오십으로 높였다. 그 위를 벽돌로 쌓아갔다. 어느 날 우리의 예언자가 벽돌을 나르고 있을 때였다. 교우 중 한사람이 예언자 앞에 서서 아주 공손하게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그 벽돌을 제가 나르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우리의 예언자는 그에게 보다 정중하게 말하기를 자신은 누구 보다도 더 선을 쌓아야 한다며 벽돌을 주지 않았다. 그에게도 돌을 나르라고 권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예언자(나비) 성원을 건설하는데 있어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중의 하나이다. 예언자는 가장 무거운 바위들을 운반하여 석공들에게 날랐으며, 돌과 벽돌들을 옮겼고, 교우들에게 이 건축의 일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는 일인지를 알려주며 격려하였다. 예언자의 이러한 노력들을 지켜본 무슬림들은 모두들 감동하여 열심히 일에 매진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벽돌 하나씩을 나르고 있을 때 암마르 빈 야사르는 벽돌을 두 개씩 날랐는데, 하나는 자신을 위해, 다른 하나는 예언자 몫으로 나른 것이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이것을 보고 암마르에게 다가가서 그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오, 숨마야의 아들이여! 그대는 다른 사람보다 두 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성원의 벽들이 짧은 시일 내에 완성되었으며, 곧 지붕이 덮였다. 성원 옆에 벽돌로 된 방 두 칸이 예언자를 위해 지어졌다. 그 집의 지붕은 대추야자 나무의 줄기와 잎으로 덮여졌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방들은 아홉 칸으로 늘어났다.) 성원의 건설이 끝난 뒤 우리의 예언자는 칼리드 성인 의 집에서 자신의 새로운 주거지로 옮겨갔다.

대추야자 기둥의 신음

예언자는 성원 안에 있는 ‘한나나’라고 불리는 대추야자 나무의 기둥에 기댄 채 금요예배의 설교를 하곤 하였다. 이후에 삼단계로 된 설교단이 만들어졌다. 다시 금요일이 되어 예언자와 교우들이 모두 예언자 성원에 모였다. 우리의 예언자가 설교를 하기 위해 새로운 설교단으로 오르자, 설교 때마다 기대었던 마른

대추나무의 기둥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마치 새끼를 가진 낙타처럼 울면서 신음하기 시작했다. 모든 교우들은 그 소리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그 울음소리는 멈출 줄을 몰랐다. 예언자는 마침내 설교단에서 내려와 대추야자 기둥을 성스러운 손으로 어루만져 주었다. 그러자 울음과 신음소리가 멈추었다. 교우들은 대추나무의 예언자를 향한 감격스러운 애정을 목격하고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이 사건에 대하여 성인 아나스 빈 말리크가 말했다. "그 울음소리로 인하여 성원조차 놀라더라." 이븐 아비 와다아는 "대추야자 기둥은 뒤틀며 울음을 터뜨렸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다가가 그의 축복받은 손을 그 위에 얹자 나무는 조용해졌다." 고 회상했다.
우리의 예언자가 말했다. "내 영혼으로 7 층의 하늘을 관장하시는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컨대, 만약 내가 그 기둥을 다독거리지 않았다면 그 나무는 나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으로 인해 심판의 날에 이르기까지 울고 있었을 것이다." 예언자가 명령하여 그 대추야자 기둥을 땅에 묻었다.

어떤 저서에 따르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마른 대추야자 기둥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만약 네가 원한다면 너를 원래 있던 정원에 다시 심겠다. 너는 다시 가지를 피우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또는 네가 원한다면 너를 천국에 심어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친애하는 자들이 네 열매를 따 먹을 수 있게 하리라." 그런 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귀를 가까이 대고 기둥이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다. "저를 천국에 심어 영원히 살아있게 하시고, 내 열매를 알라후 테알라의 친애하는 자들이 따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언자와 모든 교우들은 나무가 하는 이 말을 모두 들었다. 예언자는 대답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런 뒤 예언자는 교우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나무는 이 세상보다 천국을 선호했다."

아이샤 성인과의 결혼

예언자와 아부 바크르 성인은 이주시에, 자녀들을 메카에 남겨두었다. 카디자 성인이 세상을 떠나고 1 년 뒤에, 예언자는 메카에서 아이샤 성인과 약혼을 했다. 이맘 부카리가 인용한 하디스에 따르면 아이샤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우리의 귀감인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제게 말했습니다. "오, 아이샤! 당신은 내 꿈에 두 번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녹색 비단 옷을 입고 있는 당신의 그림을 보았는데, 어떤 목소리가 말하기를 이 그림의 주인이 나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 꿈을 꾼 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와 아이샤 성인은 약혼을 하였다. 그러나 결혼식은 즉시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이샤 성인은 이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메디나로 이주했을 때, 그분은 우리와 그분의 딸들을 메카에 남겨두었다. 메디나에 도착한 후 해방된 노예 자이드 빈 카리사와 아부 라피를 낙타 두 마리 및 돈 5 백 디르함과 함께 우리에게 보냈다.

아버지도 압둘라 빈 우라이킷을 그들과 함께 보내면서 낙타 세 마리와 편지를 부쳤다. 나의 형제 압둘라에게 어머니와 나, 그리고 내 여동생 아스마를 낙타에 태워 보내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다. 나와 내 어머니 움무 루으만, 그리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딸 자이납 성인이 함께 출발했다. 우리가 꾸바이드에 도착했을 때, 자이드는 5 백 디르함을 주고 낙타 세 마리를 더 샀다. 탈하 빈 우바이둘라 또한 우리 일행에 합류했다. 우리가 미나 지역의 바이드에 왔을 때, 내가 탔던 낙타가 달아났다. 나는 쓰레기 안에 있었고, 어머니가 내 곁에서 보고는 당황하여 소리쳤다. “슬프도다, 내 딸이여, 슬프도다, 예언자의 신부감이여!”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 낙타를 진정시켜서 우리를 구하셨다. 그 후 우리는 메디나에 도착했다. 나는 가족들과 함께 낙타에서 내렸다. 예언자의 가족들은 그들의 거처 앞에서 내렸다.”

아이샤 성인은 그의 아버지 아부 바크르 성인과 함께 예언자의 집에 잠시 들렀다.

어느 날 아부 바크르 성인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물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당신 약혼자의 결혼을 왜 미루십니까?” 예언자가 대답했다. “결혼 지참금이 없기 때문이오.” 그러자 아부 바크르는 지참금을 지불하도록 예언자에게 돈을 보내주었다.

그리하여 아이샤 성인의 결혼식이 거행되었다. 그 때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55 세였다. 아이샤 성인은 지성을 갖추고 재능이 뛰어났다. 그녀는 박식하고, 문학적 소양이 뛰어나 즉각적으로 시를 지어 상황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녀는 배운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고 기억력이 강해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항상 그녀에게 많은 일을 묻곤 하였다.

아잔

아직까지 예배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무슬림들에게 알리고, 예언자 성원으로 모이게 할 수단이 없었다. 단지, ‘아쌀라투 자미아’라 하였다. 예언자 성원이 지어진 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예배시간에 무슬림들을 성원으로 초대하는 방법에 대하여 교우들과 상의하였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교회처럼 종을 쳐

서 예배시간을 알리자고 제안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처럼 나팔을 불어 알리자고 했다. 일부 사람들은 횃불을 점화시켜 높은 곳에서 보이게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이 제안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압둘라 빈 자이드 빈 살라바와 우마르 성인이 꿈 속에서 아잔[28] 읽는 것을 보았다. 압둘라 성인이 예언자를 찾아와 자기의 꿈 얘기를 다음과 같이 들려주었다.

“나는 녹색 옷차림을 하고, 종을 들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손에 들고있는 그 종을 내게 파시겠소?” 그가 물었습니다. “그걸로 뭐 하시려오?” “그 종을 쳐서 예배시간을 알리겠소.” 내가 대답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더 좋은 방법을 일러 드리리다.” 그리고는 끼블라[29]를 향해 서더니 큰 소리로 아잔을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그는 낭송을 마치고 말했다. “예배를 하기 위해 일어 섰을 때는” 라 하고 아잔을 다시 낭송하고, 마지막에 ‘카디 카메티 살라튜[30]’를 덧붙였다.

꿈을 듣고 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그 꿈은 진실이오. 그 말을 빌랄에게 가르쳐 주어 그가 낭송하게 하시오.” 이것은 ‘아잔’으로 명명되었다. 그리하여 빌랄 성인은 성원 근처의 높은 지붕 위에 올라가 그가 배운 대로 첫 아잔을 낭송하였다.

우마르 성인이 아잔 소리를 듣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있는 곳으로 급히 달려갔다. 그는 자신이 꿈에 본 것과 빌랄이 낭송한 것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날 밤, 일부 교우들은 똑같은 꿈을 꾸었다. 이때에 ‘주마 장’ 9 절의 계시가 내려졌다.

어느 날 아침 예배시간에 빌랄 성인은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의 집 문 앞에서 ‘아쌀라투 하이룬 민나윈(기도는 잠보다 낫다)!’를 두 번 낭송하였다. 예언자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빌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가! 아침 예배시간에는 이것을 추가하시오.” 예언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잔을 맡았던 빌랄 성인은 목소리가 낭랑하고 아름다워 감동을 주었다. 그가 아잔을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황홀경에 빠졌다. 그의 아잔 소리는 많은 이들을 눈물짓게 했다. 교우들이 예배시간에 아잔으로 서로를 부르는 것이 메디나의 다신교도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그들은 아잔이 낭송될 때면 이를 조롱하고 비웃었다.

[28] 예배 시간이 되어 교우들을 예배로 초대하고자 낭송하는 알라후 테알라를 찬미하는 낭송
[29] 예배를 올릴 때 카바로 몸을 돌린다. 카바가 있는 방향을 일컫는다.
[30] 예비를 올릴 준비가 되었다.

사랑의 석류 속에서 불타는 모든 영혼은 빛이 됩니다.
사랑의 노력으로 황폐해진 마음이 안도감을 얻습니다

바니 카이누카 전쟁

우후드 산
바니 압둘-아쉬할
바니 주라이크
살 마운트
마스지드 안나바위
바니 하리스 빈 하즈레즈
와킴 록스
베르세 평원
바니 자파르
바니 카이누카 전쟁
바니 카누카
와디 (계곡) 부탄
와디 마조르
바니 하리스
와브라 록스
바니 코레이자
아케크 계곡
와디 무다이니브
바니 나디르
바니 아우프 빈 하즈레즈
에어 산맥(자발 아야르)
바니 오드 빈 말리크
쿠바 모스크

그들의 비웃음에 대하여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마이다 장'의 계시를 내렸다.(그 해석은 이렇다.)

교우들의 교육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교우들을 교육하고 성숙시키기 위해 예언자 성원에서 전례가 없던 매우 내용 깊은 강론을 시행하였고,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자신에게 내려준 학식이나 은혜를 그들의 마음에 흘려 넣어주었다. 예언자의 강론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들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으며, 단지 한 번의 강론으로 매우 높은 지적인 깨달음에 도달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러한 강론의 축복으로 모든 교우들은 자기 자신보다 예언자를 선두로 하여, 동료 교우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이므란 장'과 '타우바 장', 그리고 '파트흐 장'의 계시를 내려 이들을 드높이셨다. 그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앞에서 마치 새가 그들의 머리 위에 내려앉아 여차 하면 그 새가 날아가 버릴 듯 한 태도로, 공손하고 주의 깊게 강론에 임했다. 그리하여 교우들은 우수하고 고결하게 되었다.
'너희는 백성들 중 가장 우수한, 가장 선한 백성이라.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창조하셨도다. 선한 것을 행하고 사악한 것을 피할지라.' '타우바 장' (3:110 의 해석)
'먼저 무슬림이 된 자들 중, 선구자였던 무하지르와 안사르, 그리고 선행으로 그들을 따랐던 자들에 대하여,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들로 기뻐하시고 그들은 또한 그분을 기쁘게 하였으니,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들에게 천국을 준비하사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영생케 하시리라.' '타우바 장'(9:100 의 해석)
'무함마드 (알라히살람)는 알라후 테알라의 예언자이며 그와 함께 하는 자들(교우들)은 불신자들에 대하여 마음이 냉철하고, 그들 사이에는 인정이 많더라. 그들이 허리를 구부리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을 많이 보리라. 그들은 이 세상과 사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을 알라후 테알라께 간청하리라. 알라후 테알라께서 자신들을 맘에 들어 하시기을 원하여 많은 예배를 올렸음이 그들의 얼굴에서 분명하게 나타날지다. 그것은 구약에 묘사한 것과 신약에 비유되어 있나니, 씨앗을 뿌려 가는 싹을 튀우고, 굵고 크게 자라, 수가 적고 힘이 없을지라도, 얼마후 주위를 뒤덮더라. 모든 곳이 믿음의 빛으로 가득하더라.
 사람들이 그 싹을 보고,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컸는지 의아해 하던 것처럼, 그 영광이 세상으로 퍼져나가, 이를 본 자들이 놀라워하고 불신자들이 분개를 하더라." '파트흐(Feth) 장'(48:29 의 해석)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하디스 셰리프에는 교우들의 탁월함과 높은 수준을 설명하기 위해; "나의 교우에 대항하는 말을 하지 말라. 그들의 영광에 부적절한 어떠한 말도 하지 말라. 내 영혼의 주인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하건대, 우리 공동

체의 누군가가 우후드 산처럼 많은 금을 희사한다고 하더라도, 내 교우가 한줌의 보리를 희사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을 받지 못하리라. 나의 교우들은 각각 하늘의 별처럼 고귀하다. 누구라도 우리 교우들의 언행을 본받아 행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수파 교우들

우리의 예언자는 예언자 성원의 북쪽 벽에는 대추야자 가지로 덮어 그늘을 드리운 마당을 만들었다. 예언자는 메카에서 이주해 온 재산이 없는 외톨이 교우들에게 그곳에서 거주하라고 지시했다. 교우들의 숫자는 10 명에서
4 백명까지로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였는데, 그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결코 떠나지 않았으며 그분의 강론에도 반드시 참석했다. 낮이고 밤이고 그들은 꾸란을 읊었으며 하디스 셰리프를 암기하였다. 그들은 낮 동안 금식을 하며 예배와 기도에 전념하였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이 무슬림이 된 민족에게 파견되었으며, 그들에게 이슬람 성서인 꾸란과 이슬람 교리를 가르쳤다. 이 축복받은 교우들은 탁월한 면모를 갖추고 있었으며, 교육의 큰 세력으로 자라났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그들을 깊이 사랑하였으며, 그들과 함께 앉아 강론을 하고 음식을 나누었다. 그들은 '수파(마당) 교우들'이라고 불렸다.

어느 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수파 교우들을 보면서, 그들이 매우 가난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온한 마음과 맑은 정신으로 예배에 전념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그들을 동정하여 말했다. "
수파 교우들이여! 내가 그대들을 기쁘게 하려니, 우리 공동체에 그대들처럼 어려운 조건을 견디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는 진정한 나의 친구라고 할 수 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무엇이든지 생기면 이들에게 먼저 제공 하였으며, 그 다음에 자신의 가족을 돌보았다. 아부 후라이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일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하거니와, 나는 때때로 허기에 지쳐 내 배를 땅바닥에 깔거나, 땅에 있는 돌을 얹어서 배를 누르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허기를 느꼈다. 어느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성원으로 통행하는 길 옆에 내가 앉아 있었다. 바로 그 때 우리에게 자비로 보내졌고, 이 세상과 사후 세상의 상징인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나타났다. "나의 생명을 그대에게 바치리니, 말씀 하십시오." 그분은 나의 상황을 이해하고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다. "오, 아부 후라이라! 나를 따라 오시오." 나는 즉시 그분을 따라갔다. 자신의 축복된 집으로 들어가더니 한 잔의 우유를 내어오며 말했다. "좋소. 지금 가서 수파

교우들을 이곳으로 부르시오." 나는 그들을 부르러 가면서 궁금해 했다. '한 잔의 우유를 가지고 수파 교우들에게 충분할까? 내게 한 모금이라도 돌아올런지…'라 생각하며 나는 그들을 모두 데리고 예언자의 집으로 갔다. 모두 자리를 잡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아부 후라이라! 이 우유를 그들에게 주어라!" 나는 교우들에게 우유 잔을 넘겨주었다. 모든 사람들이 배가 부르도록 마셨고, 다시 그 우유 잔을 내게 돌려주었다. 우유는 조금도 줄지 않았으며, 처음과 같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 모두는 배가 가득 차 있었다. 그러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오, 아부 후라이라! 그대와 나만이 우유를 마시지 않았다. 이제 그대는 자리에 앉아 우유를 마셔라." 나는 앉아서 우유를 마셨다. "다시 마셔라!" 나는 여러 잔의 우유를 배가 부르도록 마셨다. 결국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당신을 위해 희생하겠나이다. 당신을 진리의 신앙과 함께 보내신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컨데, 나는 배가 몹시 부릅니다." 라 예언자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잔을 내게 주시오." 그는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를 찬미한 뒤 '비스밀라'를 낭송하고 그 우유를 마셨다."

> '예배로의 부름에 그들은 그것을 비웃고 오락으로 간주했으니, 그들은 지혜가 없는 백성이었노라.'(5:58)

메디나 교우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강론을 하나도 빠짐없이 공부하는 출중한 수파 교우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보였다. 어느 날 밤, 수파 교우 중 한 사람이 허기에 지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찾아가 처지를 하소연했다. 예언자는 가족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먹을 것이라고는 물 밖에 없습니다" 는 답변을 들은 예언자는 함께 있던 교우들에게 물었다. "누가 이 굶주린 교우를 대접하겠소?" 그중의 메디나 교우 한사람이 이 일을 맡겠다고 나섰다.

그는 손님을 데리고 집으로 가 아내에게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손님을 위해 먹을 것을 좀 준비 해주시오." 그의 아내가 말했다. "지금 아이들 먹을 것밖에 없답니다." 그가 말했다. "먼저 아이들을 재우고, 그 음식을 가져오시오." 그는 겨우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의 음식을 받아가지고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둘은 음식을 가운데 놓고 먹기 시작했다. 갑자기 집주인이 일어나서 등불을 손보는 척 하다가 불을 꺼버렸다. 깜깜한 가운데 다시 앉아서 먹는 시늉을 하였다. 손님이 배가 부를 때까지 기다렸다. 그날 밤, 집주인과 아이들은 허기진 채 잠들었다. 아침이 되어 그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언자가 말했다.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어젯밤 그대의 선행으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셨다." 그리하여 '하쉬르 장' 9 절의 계시가 내렸다. 그 해석은 이렇다.

지브릴 이야기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이슬람 종교의 명령과 금지를 깊이 있게 설명하여 가르쳤으며, 이슬람 신앙의 다섯 기둥인, 신앙고백, 예배, 단식, 카바 순례, 재산의 의무희사와 관련되는 모든 것들은 물론, 꾸란의 해석, 금지되고 허용된 음식과 의복, 맹세와 희생물, 보상, 물건매매; 식사와 대화의 예절, 의복예절, 인사예절, 이웃예절, 친척예절, 친구예절; 혼인, 이혼, 재산배분와 상속 규율; 재판, 처벌, 계약과 동업; 건강과 위생에 관한 지식, 적과 관련하여; 적과의 전쟁, 군대 규율… 이처럼 모든 이슬람의 규율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 번씩 반복하여 강조하였다. 여자와 관련된 주제일 경우, 자신의 축복받은 아내들을 통하여 가르쳤다.

용감하기로 유명하고,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는 탁월한 교우 우마르 성인이 이렇게 회상하였다.

“얼마나 축복받은 날인가! 그 날 교우 몇 명이 예언자를 모시고 있었다. 그 날 그때는 다시는 오지 않을 영광되고 고귀한 시간이었다. 그날 우리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곁에서, 한 자리에 동석하는 영광을 맞은, 영혼의 양식이요, 생존의 기쁨이요, 고결인 그분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그날의 영광과 그 귀중함을 강조하기 위해 ‘얼마나 축복받은 날인가!’로 표현했다. 지브릴 천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만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알라후 테알라의 종들이 귀속적 존재임을, 아주 적절하고, 쉽게, 예언자의 입을 통해 듣는 은혜를 받은 날이었다. 이보다 영광되고 귀중한 시간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때, 달이 떠오르듯이 어떤 사람이 우리 곁에 다가왔다. 새하얀 옷을 입고 새까만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먼지나 흙, 땀 같은 여행 흔적이 없었다. 예언자의 교우들인 우리 모두는 그 사람을 알지 못했다. 즉,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있는 곳에 바짝 다가앉았다. 무릎을 예언자의 무릎과 닿게하였다.(이 방문자는 지브릴 천사였다. 사람의 몸에 들어간 것이다.
지브릴 천사가 이렇게 앉은 이유는, 중요한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즉, 부끄러워하며 이슬람을 배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 가르치는 자도 자랑스러워 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개개인은, 종교를 배움에 있어 의문스러운 것을 주저 없이 그 스승에게 자유롭게, 위압없이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브릴 천사가 이렇게 앉아 교우들에게 알렸다.) 고귀한 분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축복 받은 무릎 위에 손을 얹고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이슬람이 무엇이며, 무슬림은 어떠해야 하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언자가 말했다. “이슬람의 다섯가지 기본 중 첫째는 신앙고백 즉, ‘알라후 테알라 외에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임을 믿는다.’

를 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즉, 정신이 바르고 성인이 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땅과 하늘에, 알라후 테알라 외에 숭배하고 예배드릴 다른 것이 없도다. 진리의 원천은 단지 알라후 테알라께서시다. 그분은 절대적이시고, 온갖 훌륭함이시고, 결코 오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마음을 다해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얗고 빨간 장미 빛의, 사랑스러운 얼굴의, 검은 눈썹에 검은 눈, 축복받은 훤한 이마, 부드러운 성격의, 그림자가 땅에 드리워지지 않는, 따뜻한 말을 하는, 아랍의 메카에서 태어난, 하심의 자손중 압둘라의 아들, 무함마드라는 이름의 사람은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종이며, 그분의 사도입니다.'라 말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재산으로 희사를 하는 것입니다. 라마단의 달에는 낮 동안 매일 금식을 행합니다. 여건이 되는 사람은 자신의 일생 중 한 번은 하즈순례를 해야 합니다." 그 분은 예언자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고 나서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그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듣고 있던 우리는; '몰라서 질문을 하고서도, 그 대답을 맞다고 확인해 주다니!'라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분은 다시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이제 신앙(이만)이 무엇인지 말해주십시오." 교우들은 물론이고, 아랍 사람치고 신앙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 분은 질문을 하여 교우들에게 이슬람의 신앙의 뜻을 알리자 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신앙(이만)이란 여섯 가지 분명한 사실을 믿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극히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와 천사들, 그분에 의해 계시된 성서 꾸란, 그분의 예언자들, 최후의 날, 그리고 선과 악이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시 "그대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며 이를 확인하였다. 그는 다시 물었다. "그러면 깨달음(이히산)이 무엇인지 말해 주십시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를 보고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은 항상 당신을 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다시 물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최후의 날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시오." 예언자가 말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묻는 사람이 저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그렇다면, 최후의 날의 징후를 말해 주십시오." 예언자가 말하였다. "이것에 대하여는, 질문을 받은 자가 질문을 하는 자보다 더 잘 알지 못합니다." 그사람이 "그렇다면, 최후의 날의 징조를 말해보시오" 하니, 예언자가, "여자노예의 아들이 주인이 되는 것, 맨발의 벌거벗고 가난한 목동들이 부자가 되어 서로 높은 집을 짓는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 그 사람은 돌아갔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나를 돌아보고 "오, 우마르! 질문을 던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오?" 나는 대답했다. "알라후 테알라와 그의 사도가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러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그는 대천사 지브릴(가브리엘)입니다. 그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의 종교를 가르치기 위해 왔습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이슬람의 학식 정도에 따라 교우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서로 다른 식으로 설명하였다. 교우들 중 이슬람의 지식이 가장 높은 사람중의 한 사람인 우마르 성인은, 어느날 예언자가 아부 바크르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것을 보았다. 옆으로 가서 경청을 했다. 다른 사람들도 이들을 보았지만, 가까이 가서 듣기를 주저했다. 다음날 우마르 성인을 보고는 "오 우마르! 예언자가 어제 무슨 말을 했나요? 우리도 배우고 싶으니 이야기해 주세요." 라 했다. 예언자는 "내게서 들은 것을 우리 형제 교우들에게도 알리시오!" 라 우마르 성인에게 당부했다. 우마르 성인은 "어제 아부 바크르 교우가 성서 꾸란에서 이해하지 못한 구절의 의미를 질문했고, 예언자가 설명을 했답니다. 1 시간 듣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 했다. 그 이유는 아부 바크르의 이슬람의 지식 수준에 맞추어 설명했기 때문이다. 우마르 성인을 칭찬하여, 예언자가 "나는 최후의 예언자이다. 나 이후에 예언자가 오지 않는다. 만약, 이후에 예언자가 올 수 있다면, 바로 우마르가 될것이다." 라 하였다. 이렇게 이슬람 지식이 높고 아랍어가 모국어라 아주 능숙하게 구사하는 우마르 성인도 예언자가 아부 바크르 성인에게 설명한 꾸란의 의미를 알아 들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아부 바크르 성인의 이슬람 지식은 우마르 성인 보다 더 높았기 때문이다. 아부 바크르 성인뿐만 아니라 지브릴 천사 조차도 꾸란의 의미에 대하여 예언자에게 질문을 하였다. 예언자는 성서 꾸란의 모든 장의 의미를 교우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예언자가 이렇게 교우들에게 이슬람을 가르친 것처럼, 소송도 주관하였으며 증인들을 들어보고, 아주 복잡한 이해 문제도 좋은 결과를 이끓어내 해결해주었다.

'그들(안사르)은, 자신이 궁핍하고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무하지르를) 자신보다 더 받들어 모시더라"(59:9)

살만 파리시가 무슬림이 되다

날이 갈수록 이슬람의 빛은 널리 퍼지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이름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를 잡아갔다. 예언자를 학수고대하던, 신학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무슬림이 되는 길을 찾아 메디나로 향하고 있었다. 그 중의 한 사람이 살만 파리시 성인이었다. 그가 어떻게 무슬림이 되었는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나는 페르시아(이란) 이스파한의 제이 마을 출신이다. 나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제일 갑부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는 외아들이었으므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나를 여자 아이처럼 키웠다. 나를 지나치게 보호하였으며, 집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했다. 그는 조로아스터교 신자였으며, 자신의 뜻대로 나에게 불을 숭배하도록 가르쳤다. 집 안에는 불이 언제나 타오

르고 있었으며, 우리는 그것을 숭배하여 큰절을 올렸다. 하루는 아버지가 나를 집밖으로 불러내어 말했다. “아들아! 내가 죽으면 나의 모든 재산이 너의 소유가 된다. 그러므로 이제 가서 너의 재산과 전답을 살펴보아라.” 나는 사방을 돌며 전답을 살펴보았다.

어느 날 나는 전답을 살피며 들판을 지나다가 교회 하나를 발견하였다. 나는 그리스도 교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가까이 다가가 그들이 건물 안에서 예배 올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한 장면을 이전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크게 놀랐다. 우리의 예배는 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큰절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 알라후 테알라를 경배하였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맹세코 그들의 종교가 진실하다. 우리 종교는 거짓이다.’ 나는 흥미를 느끼고 저녁때까지 그들을 지켜보았다. 어느덧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이 종교의 본거지는 어디입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다마스커스에 있답니다.” 내가 물었다. “만약 내가 다마스커스에 가면, 그들이 나도 받아줄까요?” 그들이 말했다. “예, 물론입니다.” 언제 다마스커스로 가는 일행이 있느냐고 묻자 그들은 얼마 안 있어 다마스커스로 가는 교역단이 출발한다고 일러 주었다. 이들은 원래 다마스커스에서 이스파한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다.

나는 시간이 늦어서야 집에 도착했으며, 아버지는 나를 사방으로 찾느라고 고생을 한 나머지 크게 나무랐다. “이 시간까지 어디에 있었느냐? 찾아보지 않은 곳이 없는데.” 나는 들판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 하였다.

“아버지! 내가 전답을 돌아볼려고 나갔습니다. 어떤 그리스도 교회를 발견하여 그곳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진리의 알라후 테알라께 예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느라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종교가 진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말했다. “오, 내 아들아!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네 조상들의 종교가 그들보다 더 올바른 것이다. 그들을 결코 믿지 마라!” 내가 거듭 그들의 종교를 두둔하자 아버지는 격노하여 나의 손발을 묶고 집안에 가두었다.

나는 갇혀있었지만 그리스도교 교역단이 곧 출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묶인 것을 풀고 탈출하여 그 교역단에 합류하였고, 얼마 후 다마스커스에 도착했다. 나는 거기서 그리스도교의 가장 뛰어난 학자를 찾아가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는 나에게 그리스도 교리를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얼마 후 나는 그 학자가 나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기부한 돈과 금과 은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빼돌렸다. 그는 일곱 상자의 금과 은을 숨겨두고 있었는데, 나를 빼고는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다. 얼마 후 그가 세상을 떠났다. 그리스도 교인들이 장례식에 모였다. 나는 그들에게 “왜 이토

록 그에게 존경심을 표하시나요? 그는 존경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이 "너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가?" 하고 의아해 했다. 나를 그들을 데리고 일곱 상자의 금과 은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이러한 존엄한 장례는 그의 몫이 아닙니다." 하고 시신을 던지고는 돌로 그 위를 덮었다.

다른 사람이 교회의 그의 자리를 이어 받았다. 그는 신학이 높은 진실한 학자였다. 그는 이 세상의 일에 그 어떤 중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사후 세계를 위해 살았다. 그는 밤낮으로 기도하였으며, 나는 그를 진심으로 따랐고, 그를 위해 봉사하고 함께 예배를 올렸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물었다. "오, 나의 주인님! 나는 오랫동안 당신을 존경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알라후 테알라의 명령에 복종하고 금지사항을 삼가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당신이 죽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대답했다. "아들아! 이제 다마스커스에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지도자가 없다. '모술'에 가면 한 사람이 있으니, 그를 찾아가라."

스승이 죽고나서 나는 모술로 가서 그 사람을 찾았다. 나는 그에게 내 과거를 이야기하였으며, 그는 나를 제자로 받아주었다. 그는 매우 존귀하고 경건하며 엄격한 신앙인이었다. 이 세상을 중요시 하지 않고 사후 세계를 준비하며, 항상 예배를 올리는 사람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를 모시며 배웠다. 그러나 그는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기 직전, 나는 똑같은 질문을 하였다. 그는 나에게 누사이빈의 어떤 사람을 추천했다. 나는 장례식을 마친 후 즉시 누사이빈으로 달려갔다. 나는 그 사람을 찾아가 그의 제자가 되었다. 얼마 후 그가 병이 들었을 때, 나는 또 스승을 추천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로마의 도시 '아무리야'에 있는 어떤 사람을 천거했다. 그의 죽음 뒤 나는 아무리야로 가서 그 사람의 제자로 한참을 머물렀다. 그런 뒤 그의 죽음이 다가왔다. 나는 또 다시 스승에게 나를 다른 스승을 추천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어떤 사람의 특징을 자세히 열거하면서 말했다. "나는 맹세코 그 사람을 모른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의 예언자가 오는 것이 머지 않았다. 그는 아랍 민족 출신이며, 그의 고향을 떠나 돌밭에서 자란 대추나무가 풍성한 지역으로 이주할 것이다. 그는 선물은 받지만 자선은 받지 않는다. 그의 두 어깨 사이에 예언자의 봉인(封印)이 있다." 이 사람이 죽은 뒤에 나는 아랍으로 가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아무리야에서 일을 하여 암소 일곱 마리와 양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바니 칼랍 부족의 교역단에 소와 양을 주고 나를 아라비아로 데려다주도록 요청했다. 그들은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도중에 그들은 배신하여 나를 어떤 유대인에게 노예로 팔았다. 나는 그 유대인의 집에서 대추야자 정원을 보았기 때문에 이곳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자가 이주할 곳이 아닌가하고 기대하였지만 정이 들지 않았다. 그 유대인은 나를 그의 사촌에게 팔아넘겼으며, 그는 나를 메

디나로 데리고 왔다. 나는 메디나에 도착하여 곧 이곳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전에 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나를 사들인 그 유대인의 정원과 농장에서 일을 했다. 한편으로, 나의 원래목표를 이루는 순간을 손꼽아 기다렸다.

어느 날, 대추야자 나무에 올라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주인과 어떤 사람이 나무 밑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우스와 하즈라지 부족은 망할거야. 메카에서 어떤 사람이 꾸바로 왔다는데 그가 예언자라는군. 이들 부족이 그의 종교를 받아들였어." 나는 그 말을 듣고 거의 실신할 뻔하였으며, 곧 나무를 내려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이 내 얼굴을 손바닥으로 후려쳤다. "네가 무슨 상관이야? 뭘 때문에 물어? 네 일이나 해!"

그날 밤, 나는 대추야자를 조금 가지고 꾸바에 도착했다. 나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가서 말했다. "당신은 진정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 곁에 딱한 사람들이 있을 테니 이 대추야자를 자선으로 받아주십시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교우들에게 말했다. "이리 와서 대추야자를 드시오." 그들이 먹기 시작했으나, 예언자는 거기에 손도 대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하나의 징후로, 그분은 자선을 받지 않았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메디나에 왔을 때, 나는 다시 대추야자 약간을 가지고 그분에게 가서 말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이번에는 그와 교우들이 함께 그것을 먹었다. 이로써 두 번째 징후가 확인되었다. 내가 그들에게 가져간 대추야자는 25 개 정도였는데, 어쩐 일인지 먹고 남은 씨는 천 개 정도 되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기적으로 대추야자의 숫자가 늘어난 것이다. 나는 이것이 또 다른 징후라고 생각했다. 나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다시 갔을 때, 그분은 장례식을 주관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예언자 봉인을 보기 위해 그의 뒤로 다가갔다. 그는 나의 의도를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그 봉인을 보여주었다. 그 봉인에 입을 맞추고 울음을 터뜨렸다. 즉시 나는 신앙고백을 하고 무슬림이 되었다. 나는 예언자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자세하게 이야기 하였다. 그는 내 처지를 알고 크게 놀랐다. 그는 이 이야기를 교우들에게 들려주라고 내게 명령했다.

살만 파리시는 무슬림이 되었을때 아랍어를 몰랐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했다. 그러나 살만이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를 찬미할 때, 유대인 통역인은 다른 뜻으로 번역하기가 일쑤였다. 그 때 지브릴 천사가 와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살만이 한 말의 정확한 뜻을 전달해 주었다. 유대인 통역은 상황을 파악하게 되자 즉시 신앙고백을 하고 무슬림이 되었다.

살만 파리시는 무슬림이 된 뒤에도 한 동안 노예로 있었다. 예언자가 "노예신분에서 벗어나라!" 고 명령하였으므로 그는 주인을 찾아가 자유인이 되고 싶다

고 하였다. 그 유대인은 마음에 내켜하지 않으면서도 마지못해 동의했다. 해방조건은 살만이 대추야자 3 백 그루를 심고 가꾸어 열매 수확이 시작되도록 할 것, 그리고 40 루끄야의 금을 주인에게 바치는 것이었다. 그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다. 예언자가 교우들에게 형제 살만을 도우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어린 대추야자 3 백 그루를 모아 그에게 주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살만에게 말했다. "구덩이를 모두 파고 나서 내게 알리시오." 준비가 끝났다고 보고하자 예언자는 직접 그 축복받은 손으로 묘목을 심었다. 단지 한 그루는 우마르 성인이 심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허락으로 그 나무들은 모두 그 해에 수확을 거두었으나, 우마르 성인이 심었던 한 그루만이 열매를 맺지 않았다. 예언자는 그 대추야자 나무를 뽑아버리고 다시 다른 나무를 심었는데, 곧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금도 준비되어 주인에게 갚았다. 그리하여 살만 파리시는 노예에서 해방되었으며, 수파 교우들과 합류하였다.

살만은 이와 관련하여, "어느날 누가 나를 찾으며 묻기를, "살만 파리스가 누군가요? 그 해방을 약속받은 자는 어디 있나요?" 결국, 그는 나를 찾아내어 계란만한 금덩이를 내 손아귀에 쥐어주었다. 나는 예언자에게 상황을 알렸다. 금을 나에게 돌려주며 예언자는 말했다. "이 금을 가지고가서 너의 빚을 갚으라!" 내가 말하길, "오, 사도여! 이 금은 나의 주인이 원하던 만큼의 무게가 나가지 않습니다." 예언자가 금을 받아 축복받은 혀 대더니,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이 금으로 너의 빚을 갚으시리라" 라 했다. 그 금을 달아 보았더니 꼭 빚만큼이었다. 금을 지불하고 이렇게 해서 노예로부터 해방 되었다."

천사들이 들으러 오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꾸란을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읊었기 때문에,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도 이를 듣고 감복하여 무슬림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바라 빈 아지브 성인이 말했다. "밤 예배가 끝난 후 나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틴 장'을 낭송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처럼 완벽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교우들 중에서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꾸란을 낭송하여 듣는 이들의 눈물을 자아내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 한명이 우사이드 빈 쿠다이르였다. 어느 날 밤, 그는 말을 곁에 묶어두고 '바까라 장'을 낭송하기 시작했다. 낭송하는 도중에 말이 갑자기 흥분했다. 우사이드 성인이 낭송을 멈추자 말이 다소곳해졌다. 그가 다시 낭송을 시작하자 말이 다시 흥분했고, 그가 멈추자 말이 다시 조용해졌다. 우다이르의 아들 야흐야가 말 옆에 누워있었으므로 아이가 다칠 것을 우려하여 낭송을 멈추었다. 그가 하늘을 올려보았을 때 기름등불 같은 것이 하얀 구름 같은 안개 속에서 빛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가 낭송을 멈추자 그 빛나는 물체는 하늘로 올라가버렸다. 다음날 아침, 그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찾아가 어제

저녁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였다. 우리의 예언자가 물었다. "그들이 누군지 아시오? 그들은 천사들이오. 만약 그대가 낭송을 멈추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침까지 듣고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도 천사들을 볼 수 있었을 것이오. 그들은 사람들을 피하지는 않는다오"

아부 바크르 성인이 예배시간에 하는 낭송도 감동적인 것으로 유명했다. 그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낭송을 시작하면, 감격하여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으며, 이를 본 사람들은 감탄해 마지 않았다. 다신교도들은 '이 사람이, 예언자가 가져온 것을 감성적으로 읽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니, 부인들과 아이들이 이에 감동되어 무슬림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군'이라는 생각에 노심초사하였다.

우후드 전투

전투 전 당사자의 입장
우카샤 빈 미산
함자빈 압둘 무탈립
아부 살라마 빈 압드 알 아사드
이크리마 이븐 아비 자훌
사프완 빈 우마이야
칼리드 빈 왈리드
이슬람군 본부
우후드 산
압둘라 빈 쿠바르
아이닌(궁수) 언덕
첫 번째 충돌
와디 카나트
칼리드 빈 왈리드의 공격
불신자 육군 본부

예언자의 축복받은 얼굴과 그분의 아름다운 꾸란 낭송에 심취하여 무슬림이 된 대표적인 인물은 압둘라 빈 살람 성인이다. 그는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전에 유대교 학자였으며, 토라(모세 오경)와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슬림이 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나는 토라와 그에 대한 해석을 나의 아버지로부터 배웠다. 어느 날 아버지는 마지막 세대에 오게 될 예언자의 속성과 징후, 그리고 과업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말했다. “만약 그가 하룬(아론)의 자손이라면, 나는 그에게 복종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겠다.” 나의 아버지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메디나에 당도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메카에서 그분의 예언자 소명을 선포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이미 그분의 속성과 이름, 그리고 그분이 올 시간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나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가 메디나 근처의 꾸바라는 곳에서 아므르 빈 아우프의 집에 머문다는 것을 알 때까지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감추고 알리지 않았다.

내가 정원에서 대추야자 열매를 수확하고 있을 때, 나디르 부족의 한 사람이 소리쳤다. “오늘 아랍의 그 사람이 왔다네.” 나는 몸이 떨리기 시작했으며, 나도 모르게 타크비르(알라후아크바르)를 외쳤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그곳에 나의 나이 많은 고모인 칼리다 빈티 카리스가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 타크비르 소리를 듣고 “알라후 테알라께서 너에게 아무 것도 주지 말고 너의 소원도 들어주지 않기를… 그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단말이냐. 무사가 온다 해도 네가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말했다. “고모님! 그분은 무사의 형제이며 예언자입니다. 무사와 똑같은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분이 최후의 심판 날에 온다는 바로 그 예언자인가?” “그렇습니다.” 하니, “그렇다면 네가 옳다.” 그녀가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메디나로 이주했을 때, 나는 그분을 보기 위해 군중 속에 섞여 있었다.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과 빛나는 얼굴을 보고나자마자 내가 말했다. “이분의 얼굴은 거짓말쟁이 얼굴일 수가 없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모인 사람들에게 이슬람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 권고를 하였다. 여기서 들은 예언자의 첫 하디스 셰리프는 ‘모두 서로 인사를 나누고, 굶주린 자들을 배부르게 하라. 가까운 친척을 방문하고,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도 예배와 기도를 올려라. 그러면 그대들은 안전하게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분은 예언자의 밝은 빛으로 나를 알아보고 물었다. “그대는 메디나의 학자 이븐 살람인가?” 내가 “맞습니다” 고 하자 그분은 “가까이 다가오라” 고 한 다음 물었다. “오, 압둘라! 그대는 나의 속성에 대하여 토라에서 읽고 배우지 않았는가?” 내가 물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속성에 대해 말씀 해주십시오.” 예언자는 이 질문을 듣고 잠시 기다렸으며, 지브릴 천사가 ‘

'이힐라스 장'의 계시를 전해주었다. 나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낭송하는 그 계시를 듣고, "그렇습니다. 예언자여! 내가 믿거니와, 알라후 테알라 외에 신은 없고, 당신은 그분의 사도이옵니다" 라고 신앙고백 후 "오 예언자여! 유대교인들은 사람들을 감쪽 같이 속아 넘어가도록 거짓말을 일삼고, 말을 지어내고, 모함을 하는 민족입니다. 저에 대하여 그들이 당신에게 와서 상상조차 안 될 그런 모함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먼저 그들에게 저에 대하여 물어보십시요." 라 하고는 집안으로 숨었다. 몇몇 유대교인들이 들어왔다. 예언자가 이들에게 "그대들 중 압둘라 빈 살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묻자, "그 사람은 우리들 중 가장 학식이 높고, 또 가장 학식이 높았던 학자의 아들이요. 이브니 살람은 훌륭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요." 이 대답을 듣고, 예언자는 "만약, 그가 무슬림이 되었다면, 그대들은 뭐라 하겠소?" 라 물으니, 그들은 "신이여, 이런 불경스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요." 라 했다. 숨어있던 나는 그들에게 나와서; "여보시오, 유대교도들이여! 알라후 테알라를 두려워하시오. 그대들에게 내려진 것을 받아들이시오. 알라후 테알라께 맹서하거니, 토라에서 밝히고 있는 그 이름과 그 속성을 가진 예언자가 바로 이분이요. 내가 믿거니, 알라후 테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소. 또 내가 믿거니,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은 알라후 테알라의 종이며, 사도입니다." 라 다시 그분을 검증했다. 이에 유대교인들이 "이자는 아주 나쁜자요, 또 아주 나쁜자의 아들이오." 라 하며 여러가지 트집과 모함으로 나를 비방하였다. 나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제가 걱정한 것들입니다. 그들은 나쁜 짓, 거짓말, 협박을 예사롭게 행하는 모함의 민족이라고 당신께 말씀드렸나요? 자, 모든 것이 밝혀졌나이다." 라 했다. 예언자가 유대교인들에게 "당신들의 첫번째 증언은 우리가 믿고, 두번째 증언은 거짓이요" 라 하였다. 이 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내 가족과 친척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했다. 이모를 포함한 그들은 모두 무슬림이 되었다. 내가 이슬람을 받아들인 데 대하여 유대인들은 몹시 화를 냈으며,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랍인에게서 예언자가 나올 수 없다고 우기며 나에게 이슬람을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븐 살람과 함께 살라바 빈 사야, 우사이드 빈 사야, 아사드 빈 우바이드, 그리고 다른 몇 명의 유대인들이 진실한 무슬림이 되었다. 그러나 유대인 학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들 중 나쁜 사람들이 무함마드를 믿었다. 만약 그들이 좋은 사람이었다면, 자기 선조들의 종교를 버릴 수가 있었겠는가?" 이에 대해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이므란 장'의 계시를 내리셨다. 그 해석은 이렇다.
'그들(성서의 백성들) 모두가 똑같은 것이 아니거늘, 성서의 백성들 가운데는 충실한 무리가 있어 알라후 테알라의 말씀을 낭송하며 밤을 지새우는 참 신앙인도 있노라.' (3:113)

히즈라 첫 해에 생긴 일

히즈라 첫 해에 다른 사건들도 일어났다. 안사르(메디나의 초기 무슬림)였던 아사드 빈 주라라, 바라 빈 마루르, 그리고 쿨숨 빈 히듬과 무하지르(메카에서 이주해 온 무슬림)였던 우스만 빈 마준이 세상을 떠났다. 이런 가운데 불신자들과의 전쟁에 허락이 떨어졌다. 한편, 아부 바크르 성인과 빌랄 하바쉬 성인은 새로 접한 메디나의 기후와 물을 견뎌내지 못하고 말라리아에 걸렸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기도를 올렸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우리가 메카를 사랑했듯이 메디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곳에 은혜와 풍성함을 주옵소서." 알라후 테알라께서 기도를 받아들이시어 무하지르들 또한 메디나를 사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셨다.

히즈라 첫 해에 예언자가 손수 참가한 '아브와', '왓단'에 대한 군사원정이 이루어졌다. 둘째 해가 시작되자 '부와트', '사파완', 그리고 '줄루샤이라'에 대한 군사원정이 계속되었으나 실제 전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첫 번째 서면(書面) 조약

메카 다신교도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메카에서 못한 잔혹한 짓을 메디나에서 하려고 들었다. 메디나에 있는 다신교도들에게 위협의 편지를 보낸 것 처럼, 메디나 유대인들에게도 위협의 편지를 보냈다. 이러한 위협들로 인해 유대인들은 오히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가까워지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과 평화를 유지하고자 왔습니다. 서로 해치지 않기로 하는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의 예언자는 그들과 55 개 조항에 달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중요한 항목들은 다음과 같았다.

1. 이 조약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인 무함마드 알라히살람과 메카 및 메디나의 무슬림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나중에 그들에게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편에 참여하여 싸우게 될 사람들이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2. 이들은 참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별개의 공동체이다.
3. 모든 부족은 포로를 위해 무슬림의 정의에 입각하여 공동으로 배상금을 지불한다.
4. 무슬림들은 공동체의 불화를 조장하는 어떠한 사람에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반대편으로 간주한다.
5. 무슬림들에 복종하는 유대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억압받지 아니하며, 적절한 원조를 받는다.

6. 유대인들은 무슬림들과 동맹을 형성할 것이며, 각자 자신의 종교적인 의무에 충실할 수 있다.
7. 어떠한 유대인도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의 허락 없이는 군사작전에 동원되지 아니한다.
8. 그 누구도, 조약을 맺은 측의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할 수 없으며, 억압받는 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도와주어야 한다.
9. 이 조약의 양 당사자를 위해, 메디나 계곡은 불침범의, 금지의 지역으로 남아야 한다.
10. 메카 다신교도들과 그들을 도우는 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보호받지 못한다.
11. 메디나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항하여, 무슬림과 유대인은 서로 협력한다.

이 조약에 의하여 무슬림들은 유대인들을 친구로 간주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무슬림들에게 분개하거나 적개심을 품지 않기로 하였다.

사랑하는 이여, 슬퍼마라!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이주해 오기 전에, 하즈라지 부족의 지도자였던 압둘라 빈 우바이는 메디나의 통치자로 선출될 예정이었다. 아카바의 서약과 뒤를 이은 히즈라(이주)로 인해 대부분의 아우스 부족 및 하즈라지 부족 사람들이 무슬림이 되자, 압둘라 빈 우바이의 통치 계획은 무산이 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그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와 메디나의 교우들에게 적개심을 품었지만, 그는 그 적의(敵意)를 드러내지 않고 숨겼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일부 위선자들을 모아 하나의 단체를 결성했다. 이들은 무슬림들에게 자신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였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다른 짓을 꾸몄다. 그들은 비밀리에 불화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축복받은 말들을 반대로 알리거나, 왜곡하여 허위로 전하려고 시도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적개심을 감추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와 협약을 체결했다. 그들은 단체로 예언자를 방문하여 자기딴에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질문들을 했다. 그들은 답변을 듣고 나서 우리의 귀감이 진정한 예언자라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고집과 질투로 인해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말했다. “만약 유대인 학자 열 명이 나를 믿었더라면, 모든 유대인들이 믿었을 것이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매우 슬퍼하였으므로,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마이다 장’의 계시를 내리시어 그분을 위로하셨다. 그 해석은 이렇다.

‘예언자여, 서둘러 불신하는 자들로 인하여 슬퍼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는 입으로만 믿고, 마음으로는 믿지 않나이다.’하더라. 유대인 가운데는 위선에 귀를 기

울이는 자들이 있고, 그대에게 이르지 아니하는 다른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말씀을 위조하여 말하더라. '이것이 너희에게 명령된 것이라면 그렇게 하라. 또한 그것이 너희에게 금지된 것이라면 수락하지 말라.'하나, 알라후 테알라께서 어떤 자에게 시련을 주시려 할 때 이를 막을 그 누구도 없노라.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그들을 위해 그들의 마음을 정화하려 하지 않으시니,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수치와 사후 세상의 무거운 벌이 있을 뿐이다.' (5:41)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일부 교우들은 이웃에 있는 유대인들과 친구가 되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이므란 장'의 계시를 내려 이러한 관계를 금하셨다. 그 해석은 이렇다.

'나를 믿는 자들이여 교우들 외에, 불신자들과 위선자를 친구로 택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해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며, 그들은 단지 너희가 파괴되기를 바랄 뿐이라. 이들의 그대들에 대해 가진 증오와 적대감을 이미 입으로 증명했도다. 이들이 마음 속에 감추고 있는 적대감은 더욱 크니, 이 적대감을 이미 꾸란 절을 통해 그대들에게 알렸으니, 심사숙고하라. 그러면 알게될지다.' (3:118)

메카 다신교도들은 메디나에 있는 다신교도와 위선자들, 유대인들과 그들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부족들에게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을 계속했다. 그들은 가능하면 빨리 이슬람의 광명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의 축복된 존재를 이 땅에서 없애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위선자들과 다신교도들의 가증스런 행동에 대항하여,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언제나 평화스런 길을 선택하였다. 일부 교우들은 이제 적들에 대하여 대적할 때가 되었다고 믿었으며, 알라후 테알라께 간청 하였다. "오, 알라후 테알라! 당신의 길에 이 다신교도들과 싸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꾸라이쉬 다신교도들은 예언자를 부정하고 그분을 메카로부터 추방하였습니다. 오, 알라후 테알라!당신께서 우리가 그들과 싸우도록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알라후 테알라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였다. 이제 때가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드디어 지브릴 천사가 '바까라 장'의 알라후 테알라의 계시를 전달하였다. 그 해석은 이렇다.

'너희에게 도전하는 알라후 테알라의 적들에 맞서 싸우되, 도를 넘어서거나 과격하지 말라. (그대들과 맞서지 않는 자들을 공격하지말고, 전쟁 중에 여자들과 아이들, 노인들을 죽이지 말것이며 고문하지 말지라.) 결단코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도를 넘어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니, 이단교도들은 어디서건 투쟁하고, 그들

이너희를 메카에서 추방한 것처럼, 쫓아내어라. 이들의 이단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한 죄악이니라. 그들이 예배장소에서 공격하지 않는 한, 그 곳에서는 전투하지 말라. 하지만 그들이 이곳에서 그대들을 죽인다면 그대들도 죽여라. 이단자들의 처벌은 이러하니라. 만약 그들이 알라후 테알라를 부정하기는 그만두고 싸우기를 단념한다면 그대들도 멈추라. 알라후 테알라께서 용서하시고 많은 은총을내리시리라.'(2:190-192)

또한 '바까라 장'의 다른 구절도 나중에 이어서 계시되었다.

'이단의 증후가 사라질 때까지, 알라후 테알라의 종교가 유일성을 인정 받을 때까지 그들과 전투하라. 이단으로부터 단념한다면, 이제부터는 적이 아닐지니, 단지 사악한 자만이 벌을 받으리라.' (2:193 의 해석)

최초의 작은 부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사리야', 즉 '작은 규모의 부대'들을 조직하여 메디나의 안전을 도모하고,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데 동원하였다. 사리야에 동원되는 전사는 대략 최소 5 명에서최대 4 백 명으로 구성되었다. 예언자가 참가하여 직접 지휘하는 전투를 '가자'라고 불렀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메디나 방위 병력의 체계화를 통하여 갑작스러운 적의 공격에 대비하는 파수대를 설치하여 필수적 안전조치를 취하였다. 다신교도들을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약화시키고, 그들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무슬림들은 시리아로 가는 무역통로를 봉쇄할 필요성을 느꼈다. 다신교도들의 교역단이 메디나 근처를 지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군사 원정을 위한 즉각적인 준비를 명령했으며, 함자 성인을 30 인의 기병대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알라후 테알라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선을 행하라고 당부했다. 예언자는 그에게 말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뜻으로, 알라후 테알라의 이름을 부르며, 성전(聖戰)을 위해 출발하시오! 알라후 테알라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맞서 싸우시오!" 예언자는 함자 성인에게 하얀깃발을 쥐어주며 배웅하였다..

함자 성인은 휘하에 30 명의 기마병들을 이끌고 3 백 명의 기마대가 보호하는 다신교도 교역단을 향하여 이동했다. 다마스커스에서 메카로 돌아가는 교역단은 '시프룰바흐르'라는 곳에서 무슬림 전사들과 맞서게 되었다. 영광스러운 교우들은 전투대형을 갖추고 즉시 공격준비에 나섰다. 바로 그 순간, 그들중 마즈디 빈 아므르 알주하니가 양진영 사이에 개입하였다. 그는 양쪽 모두와 가까운 사이였다. 무슬림들의 숫자가 작은데 비해 다신교도의 숫자가 많음을 보고 무슬림들이 패배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무슬림 세력이 영속되기를 바랐던 그는 양쪽 모두를 설득하여 전투를 방지했다. 그리하여 함자 성인의 부대는 메디나로

발길을 돌렸다. 마즈디의 이런 개입에 대하여 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기쁨을 표시하며 말했다. "그는 축복받을 올바른 일을 행하였다."

그 뒤로도 소부대 원정은 계속되었다. 우바이다 빈 하리스 성인은 60 내지 80 명의 전사들을 이끌고 '라비그'로 파견되었다. 다신교도들은 무슬림을 두려워하여 살길을 찾아 도망가기 바빴다.

어느 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꾸라이쉬 다신교도들을 감시하기 위해 나흘라로 소부대원정을 보내라고 하였다. 그분은 아부 우바이다 빈 자라흐를 지휘관으로 삼기를 희망하였다 아부 우바이다는 이 명령을 받자 우리의 예언자 곁을 떠나야 한다는 슬픔으로 울기 시작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그를 대신해 압둘라 빈 자흐쉬를 지휘관으로 임명했다.

압둘라 빈 자흐쉬는 성심성의껏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그는 무슬림이 된 후 이단자들이 격렬하게 고문을 하여도 신앙의 힘으로 이를 견뎌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교우들에게 그를 칭찬하였다. "여러분 중에 굶주림과 갈증을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압둘라 빈 자흐쉬입니다." 그는 예언자로부터 순교자에게 내려지는 기쁨들을 듣고나서, 항상 믿음에 생명을 바치기를 희망하였다. 전투시 선방에서 용감하게 싸웠다. 지휘관 임명의 기쁜 소식을 듣고, 순교자의 길로 들어설 각오를 다졌다. 압둘라 빈 자흐쉬가 말했다. "그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밤 예배가 끝난 뒤 나를 불러 말했다. "아침 일찍 그대의 무기를 소지하고 나에게 오라. 내가 그대를 어딘가로 보낼 것이다." 아침 일찍 나는 칼과 활, 화살 그리고 가방을 챙겼고, 방패도 들고 성원으로 갔다. 내가 너무 일찍왔기에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아침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메카의 신자 중 몇몇을 불러 나와 함께 동반하게끔 하고는 내게 말했다. "나는 그대를 여기 있는 사람들의 지휘관으로 임명한다." 예언자는 편지 한 통을 주며 명령했다. "가라! 이틀 낮과 밤의 길을 간 후 편지를 개봉하라. 그 편지에 지시된 대로 행동하라!" 내가 물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어느 방향으로 가야합니까?" 그분이 대답했다. "나즈디야로 길을 잡아 라키야의 우물을 향하라.""

압둘라 빈 자흐쉬가 나흘라 원정의 책임을 맡을 때, 처음으로 그에게 '믿는 이들의 지도자'라는 존칭이 주어졌다. 이슬람에서 그런 이름으로 불린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다. 8 내지 12 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부대가 말랄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편지를 뜯어 읽었다.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후 테알라의 이름으로… 이 편지를 읽고 나면 바로 메카와 타이프 사이에 있는 나흘라 계곡에 이를 때까지, 알라후 테알라의 이

름과 은총으로 걸어 가라. 전우들 누구도 강제로 함께 데려가선 안 된다. 나흘라 계곡 속의 꾸라이쉬 교역단을 감시하고 견제하라. 그들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라.'

편지를 읽고 난 '믿는 이들의 지도자', 압둘라 빈 자흐쉬가 말했다. "우리는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종복이며 우리 모두는 그분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듣고 믿었다. 나는 알라후 테알라와 그분의 사랑하는 예언자의 명령을 수행하겠다." 편지에 입을 마추고는 이마에 댔다. "순교를 원하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겠다. 나는 혼자서라도 가서 알라후 테알라와 그분의 사도의 명령을 수행하겠다." 그의 전우들이 한결같이 대답했다. "우리는 예언자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와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작은 부대는 헤자즈를 거쳐 나흘라에 이르렀다. 그들은 몰래 숨어 그 곳을 지나가는 꾸라이쉬 사람들을 감시했다. 얼마 후 꾸라이쉬의 한 교역단이 낙타에 짐을 싣고 지나갔다. 무슬림 전사들은 교역단에 접근하여 그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했다.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곧 싸움이 벌어졌다. 무슬림들은 한 사람을 죽이고 둘을 포로로 잡았다. 말을 탄 한 사람은 놓치고 말았다. 불신자들의 모든 재산은 무슬림 전사들의 차지가 되었다. 압둘라 빈 자흐쉬는 전리품의 5 분의 1 을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몫으로 떼어 놓았다. 이것은 무슬림들이 전투에 이겨 얻은 최초의 전리품이었다.

두 개의 끼블라[31]를 가진 성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메디나로 이주한 뒤 17 개월이 지났다. 이때까지 그들은 예루살렘의 베이티 마크디스 방향으로 예배를 거행하였다. 그즈음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귀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괴이한 일이다. 그들의 종교가 우리와 다른데, 끼블라 방향을 우리와 같이 하다니!" 이 말 때문에 우리의 예언자는 마음이 상했다. 어느 날 지브릴 천사가 왔을 때 예언자가 말했다. "오, 지브릴! 나는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끼블라를 유대인의 예루살렘 대신 카바 방향으로 바꾸게 해주시길 원하오." 지브릴이 말했다. "나는 단지 알라후 테알라의 종일뿐입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이 일을 직접 탄원하십시오!" 그 뒤 예언자의 탄원을 받아들이시어 '바까라 장'의 계시가 내려왔다.

'오 나의 사도여! 계시를 받으려고 얼굴을 하늘로 곳게 향하게 하고 있음을 내가 결단코 보고 있니라. 그러함에 내가 그대를 기쁘게 할 끼블라를 알리노라. 지금 고개(몸)를 카바쪽으로 돌려라. 믿는 자들이여! 그대들도 어디서건 예배시 고개(몸)를 카바로 향하게 할지다. 실로 성서를 계시 받은 이들은 이 계시가 그들의 알

[31] 이슬람교의 예배 수행시 바라보고 예비를 올리는 방향.

라후 테알라로부터 온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그들이하는 것에 대해 모르는 분이 아니시라.' (2:144 의 해석이다.)

이 계시가 내려올 때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낮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으며, 예배는 중간즈음 진행되고 있었다. 예언자는 그 계시를 받자마자 그의 몸을 카바쪽으로 돌렸다. 교우들도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따라 방향을 전환했다. 이리하여 그 성원은 '마스지드 키블라타인'즉, '두 개의 끼블라를 가진 성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꾸바로 가서 첫 번째로 지어진 성원의 벽감(壁龕)을 직접다시 만들고, 성원의 벽을 바꾸었다.

바드르 전투

교우들이 소규모 군사원정에서 성공적인 실적을 거두게 되자 불신자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그들은 교역단에 호송부대를 딸려 보냈다. 히즈라 2 년째 되는 해, 메카의 다신교도들은 모든 가정에서 각각 부담금을 걷어 천 마리의 낙타로 교역단을 꾸려서 다마스커스로 보내기로 했다. 그들의 지휘관은 아부 수피얀으로 아직 무슬림이 되지않았다. 약 40 명의 병사들이 교역단의 호송책임을 맡았다. 그들은 상품을 모두 팔아 그 대금 전액을 투입하여 무기를 구입하고, 그 무기로 무슬림과의 전쟁을 벌일 생각이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다신교도들이 대규모 교역단을 다마스커스로 보낸다는 소식을 접하고, 몇 사람의 무슬림 이주자들을 선발하여 그들의 상황을 파악하게 했다. 정찰대가 '줄라쉬'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교역단이 그곳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메디나로 돌아왔다. 만약 불신자들의 무기와 상품들을 빼앗는다면, 그들은 무슬림들을 해칠 수 없게 되고 그들의 저항은 분쇄될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탈하 빈 압둘라 성인과 사이드 빈 자이드 성인을 정찰대로 보내 메카 교역단의 귀환에 대해 알아보게 하였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즉시 채비를 갖추고 압둘라 이븐 움 마크툼을 메디나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대리인으로 임명했다. 예언자는 아내가 병석에 있는 우스만 성인과 다른 여섯 사람에게 메디나를 지키는 책임을 맡겼다. 예언자는 라마단 달 20 일에 305 명의 교우를 인솔하고 바드르 지역을 향해 행군을 시작했다. 바드르는 메카와 메디나, 그리고 시리아로 가는 길이 연결되어 있는 교통의 요충이었다.

젊은 10 대 청소년과 심지어 여성들까지도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참전을

허락해 줄 것을 간청했다. 움무 바라카 부인은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허락하신다면, 저도 함께 참전하겠습니다. 다친 병사를 치료하고 병든 자를 돌보겠습니다. 어쩌면 알라후 테알라께서 순교의 축복을 내리실 수도 있나이다.” 라 간청하니, “너는 집에서 꾸란을 읽거라. 결단코 그대에게 알라후 테알라께서 순교의 축복을 내리시리라.” 라하였다.

사아드 빈 아비 와카스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우리와 함께 참전을 원하는 아이들을 돌려보내려고 할 때, 나는 내 동생 우마이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으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당시 열 여섯이었다. 내가 물었다. “무슨 일이냐? 왜 숨는 거지?” 동생이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나를 너무 어리다고 돌려보낼 것이 두렵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우마이르에 대해 알려주었고, 그분은 내 동생에게 돌아가라고 말했다. 그때 내 동생 우마이르는 울기 시작했다. 우리의 예언자는 그의 울음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으므로 마침내 허락을 내렸다. 그리하여 나는내 동생을 도와 그의 허리에 칼을 채워주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의 깃발은 무사브 빈 우마이르, 사아드 빈 무아즈, 그리고 알리 성인이 들고 있었다. 교우들은 겨우 말 두 마리와 낙타 70 마리를 가졌을 뿐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서로 번갈아가며 탔다. 예언자는 알리 성인, 아부 루바바, 아비 말사드와 번갈아 가며 낙타에 탔다. 하지만 모두가 예언자를 걷게 하고 싶지 않아 “당신을 위해 생명을 바치리니! 당신은 낙타에서 내리시지 마십시요. 우리가 대신 걷고자 합니다.” 하지만,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대들이 나 보다 더 강하게 걷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죽어서 받을 보상도 그대들 보다 절실하도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와 그 교우들은 불타는 열기 속의 사막을 걸어갔다. 게다가 그들은 금식 중이었다. 교우들은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하여 많은 고초를 마다 않고 사랑하는 예언자의 뒤를 열열히 따랐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와 그분의 사도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원하던 것은 순교였고, 천국이였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그의 교우들을 보며 기도를 올렸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그들이 걷고 있으니 그들에게 탈 것을 주소서. 그들이 헐벗었으니 입혀주소서.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그들이 굶주리고 있으니 먹여주소서. 그들이 가난하니 부유하게 만들어 주소서.”

무슬림 전사들이 매우 더운 날씨에 바드르를 향해 진군할 때, 다신교도 교역단은 다마스커스를 출발하여 바드르에 근접하고 있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파견한 두 사람의 교우가 며칠 내에 교역단이 바드르에 도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신속하게 본대로 귀환했다. 교역단 사람들은 두 교우가 교역단에 대한 소식을 접한 바로 그 마을에 도착하여 사람들에게 물었다. “무슬림 첩자에 관해 뭔가 아는 게 있소?” 그들이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는 모

릅니다. 허나, 어떤 두 사람이 와서 저기에 한참 앉았다가 일어나 떠났지요."
아부 수피얀은 그들이 말한 곳으로 가서 그곳을 조사하였다. 그는 땅 위에 있는 낙타의 배설물을 으깨어 그 속의 사료(**飼料**)를 유심히 살피더니 말했다. "이것은 메디나에서 나온 사료이다. 그 두 사람은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의 첩자가 틀림없다." 그는 무슬림들이 아주 근접해 있다고 추정하였으므로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는 교역단의 안전을 염려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홍해 연안을 따라 메카로 이동하기로 결정하였고, 밤낮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더 나아가 그는 자기 수하의 담담 빈 아므르 기라르 라는 자를 급히 메카로 보내 이러한 상황을 알리게 했다.

이 사람은 메카에 도착하여 자기 웃옷을 찢고 낙타의 안장을 거꾸로 놓고, 흉찍스러운 모습을 하고 울부짖었다. "도와주시오! 도와주시오! 꾸라이쉬 부족이여!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와 그의 교우들이 우리 교역단을 공격하였습니다. 지금 빨리 따라붙는다면 교역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메카 사람들은 즉시 집결하였으며, 곧 준비를 시작했다. 그들은 7 백 마리의 낙타부대와 1 백 명의 기마병, 그리고 150 명의 보병을 모았다. 그들이 아부 라합에게 동참하라고 말했을 때, 그는 두려움에 병을 핑계로 거절했으며 대신에 아스 빈 히샴을 보냈다. 우마이야 빈 할라프라는 다신교도는 준비를 갖추는데 매우 늦장을 부렸다. 그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나의 교우들이 우마이야를 죽일 것이다." 우리의 예언자가 항상 진실만을 말하였기 때문에 그는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러므로 아부 자흘의 강요에 대해 그는 자신이 늙었고 너무 살이 쪘다고 변명하였다. 어쨌거나 아부 자흘이 그의 비겁함을 비난하였으므로 그는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대부분의 다신교도들은 갑옷을 입고 있었다. 아름다운 목소리의 여인들도 함께 했다. 그들은 악기와 술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러한 막강한 군대는 3 백 명은 아주 쉽게, 천명의 적까지도 즉시 제압하리라 추정하였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메카를 떠나기도 전에, 누구 누구를 죽여서 이러한 전리품을 가질 수 있다고 상상에 젖어있었다. 어쨌거나 그들의 가장 큰 목표는 이슬람을 말살시키는 것이었다. 이 사나운 다신교도 무리는 탬버린을 울리면서 여인들의 노래와 함께 출발했다.

한편 아부 수피얀은 바드르에서 멀리 벗어나 메카로 향했다. 그는 위협이 사라진 것이 확실하게 되자 전령으로 카아스 빈 임룰 카아스를 꾸라이쉬 부족에게 보내 "오, 꾸라이쉬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교역단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메카를 떠나왔습니다. 우리는 일단 위협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메디나로 가서 무슬림과 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라 전했다.

아부 자흘이 말했다. "우리는 맹세코 바드르에 도착해서 사흘 낮과 밤의 잔치

를 벌이고, 낙타를 잡아서 술을 마실 것이다. 주변의 모든 부족들이 이를 지켜보고 우리를 부러워할 것이다. 우리의 위풍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려 들지 못할 것이다. 오, 무적의 꾸라이쉬 군대여! 전진하라!"

카아스가 보기에 아부 자흘이 충고를 들을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는 아부 수피얀에게 돌아가 상황을 보고했다. 아부 수피얀은 안목이 넓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다. "오호라, 불쌍한 꾸라이쉬여! 아부 자흘이 지배권을 차지하려고 이 계획을 꾸몄음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격한 행동은 불길한 것이다. 만약 무슬림들이 그들을 찾아내면 어떠한 불행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는 교역단을 메카로 가게 한 뒤 자신은 군대를 따라잡기 위해 서둘렀다.

한편 우리의 예언자는 그의 교우들과 함께 바드르에 근접했다. 그런데 예언자는 메디나의 다신교도인 쿠바이브 빈 야사프와 까이스 빈 무하리스가 이슬람 군인들 속에 끼어있는 것을 보았다. 쇠로 만든 투구를 보고 쿠바이브를 알아보았으며, 사아드 빈 무아즈에게 물었다. "저 사람은 쿠바이브가 아니오?" 그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쿠바이브는 전쟁기술에 밝은 용감한 투사입니다. 그는 까이스와 함께 왔습니다." 우리의 예언자가 쿠바이브와 까이스를 불렀다. "당신들이 여기에 왜 왔소?" 그들이 대답했다.

"당신은 우리 누이의 아들이며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려고 우리 사람들과 왔지요." 우리의 예언자가 쿠바이브에게 물었다. "당신은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와 그의 사도를 믿습니까?" "아니오." 이 대답을 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그렇다면 돌아가시오! 우리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쿠바이브가 말했다. "모두가 나의 용맹함을 알고 있듯이, 나는 당신의 적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언자는 그의 거듭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이 라우하 지역에 도착했을 때 쿠바이브가 예언자에게 와서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나는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를 믿으며, 당신이 그분의 예언자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언자는 매우 기뻐했다. 까이스는 메디나로 돌아온 뒤 이슬람에 귀의했다.
이슬람 군대가 사프라 계곡에 도착했을 때, 메카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교역단을 구하려고 바드르에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우리의 예언자는 교우들을 모아 상황을 검토했다. 메디나 무슬림들은 아카바에서 예언자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서약을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그들은 메디나 지역을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에 맞서 있는 메카 군대는 메디나 군대보다 숫자와 무기, 그리고 재력에 있어서 엄청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각자의 의견을 물었을 때, 아부 바크르와 우마르가 각각 일어나 적군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하지르(메디나로 이주해온 무슬림) 쪽에서 다시 미크다드 빈 아스와드가 일어나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명령을 수행하소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 진군하소서. 우리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며,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무사에게 한 것처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마이다 장'의 계시가 내렸다. 그 해석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무사여! 그들이 그곳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들어갈 수 없으니, 당신과 당신의 알라후 테알라께서 투쟁하시요.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겁니다." 하더라.' (5:24)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알라후 테알라와 그분의 사도를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우리의 사도로 보내신 진리의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하건데, 바다 건너 에티오피아로 가라 하셔도 따르겠습니다. 당신에게 절대로 반대하지 않고, 모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라는 미크다드 빈 아스와드의 발언은 우리의 예언자를 진심으로 기쁘게 하여,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올렸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메디나 무슬림들의 의견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병사의 숫자가 많았으며, 메디나 안에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메디나 밖에서 싸우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다. 안사르인 사아드 빈 무아즈가 이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일어서서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허락하신다면, 안사르 교우들을 대신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언자의 허락을 받고서 "우리는 당신을 믿으며, 당신이 예언자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복종하기로 분명한 서약을 하였으며, 우리의 그 약속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떠 받들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우리의 사도로 보내신 진리의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하건데, 당신이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도 들어갈 것이요, 단 한 명도 어김없이 뒷 걸음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 속에 생각하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따를 것입니다. 재산도 생명도 희생하겠거니, 절대적으로부터 모른 척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내하여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자비가 당신에게 있기를… 우리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어떠한 명령이라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교우들은 열광적으로 동의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사아드 성인과 그의 교우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올렸다.

그리하여 모든 망설임은 사라졌다. 영광스러운 교우들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사랑하는 예언자를 따라 순교의 길을 기꺼이 걷기로 다짐했다. 적군의
숫자와 힘에 눌리지 않고 우리의 예언자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교우들의 충성심과 열정을 보고나서 그들

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이제 전진하라!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축복을 기뻐하라! 나는 지금 이 순간 꾸라이쉬 군대가 어디에서 다치고 어디에 쓰러져 죽을 것인지 눈에 훤히 볼 수 있다.” 열정에 찬 교우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따라 진군하였다.

천사들의 도움

그들이 바드르에 거의 다다랐을 때는 금요일 밤이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교우들에게 말했다. “저 작은 언덕 가까이에 우물이 있으니 무슨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은 알라후 테알라의 용사 알리 성인과 사아드 빈 와까스, 주바일 빈 아왐 등을 그곳에 보냈다. 알리 성인과 그의 동료들은 즉시 그 우물로 갔다. 그들은 거기서 꾸라이쉬 부족의 낙타를 돌보는 자들과 물을 담당하는 자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무슬림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줄행랑을 쳤다. 그러나 그 중에 두 명을 붙잡았는데 카자르 오루의 노예 아스람과 아스 빈 사이올루의 노예, 아리스 아부 야사르였다. 예언자는 끌려온 두 사람에게 물었다. “꾸라이쉬 군대는 어디 있는가?” “저 모래언덕 너머에 숙영하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다시 물었다.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 “그것은 모릅니다.” 예언자는 말을 바꾸었다. “하루에 낙타 몇 마리를 도살하는가?” “어떤 날은 아홉 마리, 어떤 날은 열 마리입니다.” 우리의 예언자가 말했다. “그들의 숫자는 천 명보다 적고, 9 백 명보다 많다.” 예언자가 다시 물었다. “꾸라이쉬 지도자 중에서 누가 왔는가?” “우트바, 샤이바, 하리스 빈 아므르, 아불 부타리, 하킴 빈 후잠, 아부 자흘, 우마이야 빈 할라프 등입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교우들을 향해 말했다.“메카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동료들을 그대들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에게 물었다. “오는 도중에 누군가 돌아갔는가?” “예, 바니 주흐라 부족의 아흐나스 빈 아비 샤리크가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예언자가 말했다. “그는 올바른 길에 있지 않으면서,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와 성서를 몰랐지만 바니 주흐라 부족을 위해 좋은 선택을 하였다. 또 떨어져 나간 사람은 없는가?” 두 사람이 대답했다. “아디 빈 카아브의 자손들이 돌아갔습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우마르 성인을 꾸라이쉬 진영에 보내 마지막 경고를
하고 조약을 체결하려 시도했다. 우마르 빈 캇탑이 꾸라이쉬 사람들에게 말했다. “예언자가 ‘오, 고집 센 민족이여!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당신들이 이만 포기하고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들과의 전투는 그 어떤 자들과의 전투보다 나에게 의미를 준다’고 하신다.”

이 제안에 대해 꾸라이쉬 다신교도의 중 하킴 후잠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오, 꾸라이쉬 공동체여!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은 당신들을 매우 공정하게 대하였습니다. 그분의 제안을 즉각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이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여러분을 동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부 자흘이 이 말을 듣고 화를 내며 말

했다. “우리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무슬림들이 우리 교역단을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복하기 전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평화의 길을 봉쇄하였다. 우마르 성인은 돌아왔다.

그날 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와 그의 용맹한 교우들은 다신교도들보다 먼저 바드르에 도착하여 우물 근처에 멈추었다. 우리의 예언자는 어디에 지휘소를 세울 것인가를 두고 교우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그 중에서 이제 겨우 서른세 살의 캅밥 빈 문지르가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했다. 허락이 떨어지자 그가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알라후 테알라께서 이곳에 사령부를 세우라고 명령하셨기에, 절대적으로 이곳이 아니면 안 됩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이나 싸움의 방책에 따라 선택하셨나요?” 예언자가 말했다. “아니요! 단지 싸움의 방책으로 이곳이 선택되었을 뿐이오!” 이 말이 떨어지자 캅밥 성인이 말했다. “우리 부모와 내 생명을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위해 희생하게 하소서! 우리는 전사들이며, 또한 이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꾸라이쉬 군대가 진을 칠 곳의 근방에 달고 풍부한 물이 나오는 우물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께서 허락 하신다면, 그 곳에 진을 치게 해주소서. 우리는 이 주변의 모든 우물을 묻어버리고 나서, 새로운 웅덩이를 하나 판 후 그것을 물로 채우겠습니다. 적과 싸우는 도중에 우리는 목마를 때마다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적들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지브릴 천사가 이 의견이 옳다고 하는 계시를 전달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오, 캅밥! 그대가 참된 견해를 보여주었도다.” 그리하여 그 계획이 실행되었다. 그들은 캅밥이 말한 단물이 있는 우물로 이동하였으며, 그것을 제외한 모든 우물을 폐쇄하였고, 큰 구덩이를 팠다. 그들은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웠으며, 물을 마실 수 있는 바가지도 준비해 두었다.

사아드 빈 무아즈 성인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가서 제안하였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당신이 앉을 수 있는 곳에 대추야자 가지로 차일(遮日)을 칠까요?” 우리의 예언자는 이 의견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며, 그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올렸다. 차일이 즉시 만들어졌다. 예언자는 교우들과 함께 전투지역을 세밀하게 조사했다. 때때로 예언자는 멈추어 서서 꾸라이쉬 불신자들이 죽거나 부상당할 위치를 그의 축복된 손으로 가리켜 보여 주었다. “인샬라(알라후 테알라의 뜻(허락)으로, 저 곳은 꾸라이쉬의 누구가 상처를 입고 내일 아침 쓰러질 곳이고, 저 곳은 다른 누구가 살해될 곳이다.”

후일 우마르 성인은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나는 꾸라이쉬 사람들이 예언자가 지적한 조금 뒤도 아니고 조금 옆도 아닌, 바로 그 장소에서 살해되거나 상처를 입는 것을 정확하게 목격하였다.”

온 세상의 귀감이신 예언자는 교우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분은 무하

지르의 깃발을 무사브 빈 우마이르에게, 아우스 부족의 깃발은 사아드 빈 무아즈에게, 그리고 하즈라지 부족의 깃발은 캅밥 빈 문지르에게 각각 맡겼다. 세 집단은 각자의 깃발 아래 모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군대를 정렬시켰다. 병력을 정돈하는 과정에서 예언자는 막대기로 횡렬에서 벗어나 있는 사와드 빈 가지야의 가슴을 건드리며 말했다. "대열 속으로 들어가라, 사와드!" 그러자 사와드가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당신 손의 막대기가 나를 건드렸습니다. 진리의 종교와 성서를 보내신 정의로우신 알라후 테알라의 권리로 저도 똑같이 당신을 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교우들은 그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온 세상의 귀감에게 말대꾸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러나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앞가슴을 열어제치고 말했다. "좋다! 나를 건드리고 네 권리를 찾아라!" 그러자 사와드 성인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축복받은 가슴에 열광적으로 입맞춤을 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보복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광경을 보고 감탄해 마지않았으며, 오히려 그를 부러워하였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고 묻자 사와드가 대답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오늘 저는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명령에 따라 제 생명의 기한이 다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당신의 고귀한 육신을 떠난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축복받은 몸에 입맞춤을 하게 된 것은 이러한 까닭 때문입니다. 이 것으로 심판의 날, 당신이 나의 죄를 중재하시면 처벌로부터 구원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친애의 표시에 대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사와드 성인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올렸다.

축복받은 이슬람 군대의 오른쪽 날개는 주바일 빈 아왐이 지휘를 맡고, 왼쪽 날개는 미크다드 빈 아스와드가 지휘를 맡았다.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교우들에게 어떻게 전투를 시작할 건지 의견을 나누었다. 아심 빈 타비트가 일어서서 그의 의견을 밝혔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꾸라이쉬 군대가 약 100m 정도 접근하면, 먼저 활을 쏘기 시작합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오면 돌을 던져 공격합니다. 좀 더 적당한 거리에 다가서면 우리의 창이 뿌러질 때까지 싸웁니다. 그런 뒤 우리의 칼을 빼들고 부딪쳐 싸웁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이러한 전술에 동의했다. 그런 다음 교우들에게 다음의 명령을 하달했다. "절대 대열을 벗어나지 마시오.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시오. 내 명령 없이는 싸움을 시작하지 마시오. 적이 충분히 접근해 올 때까지 화살을 낭비하지 마시오. 적이 방패를 재낄 때 화살을 쏘시오. 그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면 돌을 던지시오. 더 가까이 오면 창을 사용하시오. 완전히 근접했을 때 칼로 싸우시오!"

준비가 끝난 후에 보초를 세우고, 교우들은 휴식에 들어갔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비밀스러운 의도로 그들은 아주 깊은 잠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대추야자 나뭇가지로 만든 자신의 차일로 갔다. 아부 바크르 성인과 사아드 빈 무아즈가 칼을 빼들고 차일의 입구를 경비하였다. 알라후 테

레치 사건

벨리이
콰탄
나시프의 우물
하나키야
주하이나
아스사위크 바자르
아우사
알 메디나투엘무나와라 (빛나는 도시)
옌부
함라
바드르 바드르
움물버크
술라임
Gıfâr
와단
래비
주파
히자즈
베니 라흐얀
큐데이드
쿠담
홍해
쿨라이스
쿠자아
후자일
다하반
우스판
자멈
라지아
투와
제다
하데
쿠라이시
마카 알 무카라마
(성 메카)
아스 살랄 카비르
알 카위야
타이프
하와진
키나나
티하마
타키프
마스타바

알라의 사도는 깊은 슬픔에 잠겼으며, 그의 축복받은 팔을 들어 올리고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간청하기 시작했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만약 당신께서 이 작은 공동체를 버리신다면, 이 세상에서 당신을 향한 경배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슬픈 간구는 아침까지 계속되었다.
축복받은 이슬람 군대는 지휘부를 모래땅 위에 설치했다. 이 때문에 걷기가 불편했고 발이 모래 속으로 빠지기 일쑤였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간절한기도로 그날 밤 큰 비가 갈수록 심하게 내리더니 강물이 넘쳐흐를 정도였다. 그리하여 무슬림 군대가 있는 모래땅은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게 굳어졌다. 한편 메카 군대가 있는 지역은 진흙과 홍수로 뒤범벅이 되었다. 아침 여명이 밝아오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아침 예배를 위해 교우들을 깨웠다. 그분는 예배 인도를 마친 후에, 교우들에게 적과의 투쟁과 순교의 고귀함을 설명하고
전쟁을 위한 용기를 불어 넣었다. 이렇게 격려 하였다.

“실로 알라후 테알라께서 진리와 사실을 명하시니, 알라후 테알라를 기쁘게 하려는 행동외에는 받아들이지 아니 하신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이곳에서 그대들에게 내리신 자비와 영광으로 그 명령을 수행하여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리다. 알라후 테알라의 말씀은 진리이며 사실이라, 그 벌 또한 아주 무섭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 주시고, 지원해주신다. 최후의 길은 그분에게로다.알라후 테알라께서시여! 저를 모든 무슬림을 위해 희생하소서.”

라마단 달 17 일 금요일의 태양이 떠올랐다. 얼마후면 역사상 가장 무자비하고, 세력 차이가 현저하며,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한쪽에는 그들의 생명을 조금도 주저치 않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와 그의 영광스러운 교우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슬람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예언자를 살해하려는 잔인하고 무절제한 불신자 집단이 있었다. 불행하게도 불신자 집단 속에는 예언자의 친척들도 있었다. 그들은 사촌형제와 싸우기 위해 바드르까지온 것이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군대의 전열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 번 지시사항을 반복하였다. 그러는 사이 꾸라이쉬 군대는 그들의 숙영지를 벗어나 바드르 계곡으로 밀려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 대부분은 갑옷을 입었으며, 오만에 가득 찬 채 이슬람 군대를 공격해왔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이러한 다신교도들의 상태를 보고 아부 바크르와 함께 자신의 천막으로 갔다. 그분은 손을 앞으로 뻗치고 알라후 테알라께 탄원하기 시작했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이제 그들이 자신만만하여 교만하게 진군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께 도전하고, 당신의 사도를 부정합니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당신이 도와주시어 승리를 이끄시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시어 저희에게 승리를 주소서! 만약 당신이 이 한줌의 무슬림들을 저버리시면, 당신을 경배하는 이가 아무도 없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연속적으로 올리며 알라후 테알라께 도움을 간청하였다. 알라후 테알라께로 가슴이 터질정도의 간절한 기도로 어깨위에 걸치고 있던 덮개가 땅으로 떨어졌다.

이런 애타는 기도에 견디지 못한 아부 바크르가 덮개를 주워 예언자의 어깨에 걸쳐 주며 이렇게 위로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그대에게 내 생명을 바치리니,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으니 알라후 테알라께서 충분하게 여기실 겁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약속하신 승리를 꼭 허락하실 겁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천막을 나오며 '까마르 장'을 낭송하였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 왔다. 영광의 교우들에게 '안팔 장'의 계시를 낭송하였다.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적을 만날 때 확고부동하게 알라후 테알라를 염원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승리하리라. 알라후 테알라와 예언자에게 순종하고 서로 다투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기를 잃어 힘을 상실하나니 인내하라. 실로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인내하는자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8:45-46 의 해석)

이는 적과 마주하여 벌이는 첫 집단 전쟁이었다. 싸움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흥분이 최고조가 되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항시 알라후 테알라의 이름을 불러라…" 의 꾸란 구절을 낭송하자, 교우들은 일제히 소리치기 시작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하며 승리를 안겨 주실 것을 알라후 테알라께 간청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공격 신호만을 기다렸다.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두 군대가 대전하기 전에 용감한 사람들이 양쪽에서 나와 일대일로 대결을 벌이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 대결로 인해 양쪽의 기세를 드 높이고 열정이 증가하여 본격적인 전투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불문율을 준수하지 않고 아미르 빈 카드라미가 이슬람 진영을 향해 화살을 날렸다. 그 화살은 무하지르인 미흐자를 관통했으며, 그는 곧 바로 순교하여 그의 혼은 천국으로 승천하였다. 예언자가 말했다. "미흐자는 모든 순교자들의 스승이다." 교우들은 분노에 들끓었으나, 예언자의 명령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가 터지기 전의 화산 같았다. 이 때 다신교도 군대에서 세 사람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이슬람의 적인 라비아 가문의 우트바와 그의 형제 샤이바, 그리고 그의 아들 왈리드였다. 그들은 무슬림 전사들에게 "너희들 중에 우리와 싸울자가 있는가?" 라고 고함쳤다. 아부 후자이파 성인이 그의 아버지 우트바에 대적하기 위해 앞으로 나가자, 우리의 예언자가 "멈추라" 고 말했다. 아프라 부인의 자손인 무아즈, 무아와즈, 그리고 압둘라 빈 라와하가 메디나 전사들을 대표하여 앞으로 나아가 꾸라이쉬 세 사람 앞에 섰다.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다. 다신교도들은 "당신들은 누구요?" 하고 물었다. "우리는 메디나의 무슬림이요." 다신교도들은 "당신들과는 볼 일이 없소.
우리에게 압둘 무탈립의 자손들을 보내시오. 이들과 싸우겠소." 하면서 무슬림 진영을 향해 고함쳤다. "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 우리에게 당신의 족속중 걸

맞는 사람들을 내보내라."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용감한 교우 세 사람을 불러들이고 그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올렸다. 그런 뒤 교우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오, 하쉼의 자손들이여! 일어서라! 알라후 테알라의 빛을 널리 퍼뜨리고 타락한 종교를 몰살하기 위해, 진리의 길에서 싸우라. 알라후 테알라께서 사도를 보낸 뜻이 이것이니, 우바이다! 함자! 알리! 나서거라." 알라후 테알라의 용맹한 용사 세 사람이 그들의 투구를 쓰고 전장으로 걸어 나갔다. 적들은 "당신들은 누구요? 우리의 적수라면 싸우겠소" 하니, "나는 함자, 나는 알리, 나는 우바이다!" 라 하니, 다신교도들은 "그대들도 우리와 같이 영웅이니 도전을 받아들였다." 무하지르가 알라후 테알라를 믿을 것을 설득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셋이 한꺼번에 달려 들었다. 순식간에 격투가 벌어졌다. 함자 성인과 알리 성인은 불신자 우트바와 왈리드를 죽였다. 우바이다와 샤이바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다. 함자와 알리는 우바이다를 도와 샤이바를 살해했다. 그들은 우바이다 성인을 껴안고 본진으로 돌아왔다. 우바이다 빈 카리스의 발목에서는 피와 골수가 흘러내렸다. 우바이다 성인은 "오, 사도여. 당신에게 내 생명을 바치리니, 제가 이렇게 상처를 입고 죽으면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라 질문하니, 예언자는 "그렇소. 당신은 순교자요." 라 대답했다. (우바이다는 전쟁이 끝난 후 귀환도중에 숨졌다.)

중요한 사람을 셋이나 잃은 메카 군대는 아연실색했다. 아부 자흘은 군대의 사기를 고양하려 애쓰며 말했다. "여러분들, 우트바와 왈리드, 샤이바의 죽음을 너무 크게 생각 마시오. 그들은 너무 서두르다 쓸모없이 희생되었소. 내가 맹세하건데, 우리는 무슬림들을 붙잡아 목매달기 전에 결코 돌아갈 수 없소!"

영웅의 이슬람 교우들은 일시일각이라도 빨리 다신교도들을 베어 없애려는 열광을 참기가 어려웠다. 예언자는 한시라도 잊지않고 이 기도를 되풀이 했다. "나의 알라후 테알라께서시여! 약속을 이행하시어 저희에게 승리를 주소서! 만약 당신이 한 줌의 무슬림들을 저버리시면, 당신을 경배하는 이가 아무도 없게 됩니다." 순간 메카 다신교 진영에서 용감하고 영민한 활잡이 아부 바크르 성인의 아들, 당시 무슬림이 되지 않은 압둘 라만이 앞으로 나왔다. 그는 어찌된 일인지 무슬림이 되지 않았다. 메디나 진영에서는 무하지르쪽에서 당장에 누군가 칼을 들고 걸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첫 무슬림이 되어 스듹 집안에 영광을 안겨준, 예언자 이후 가장 훌륭한 사람, 바로 영웅 아부 바크르 스듹 성인이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오, 아부 바크르! 그대는 나의 눈과 귀임을 모르시오?" 라며 출전을 금지하였다. 아부 바크르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의 아들에게 말했다. "이 놈아! 너와 나의 부자 관계를 어찌했는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이때 모래 한줌을 땅에서 주워 적군을 향해 뿌리면서 말했다. "저들의 얼굴이 검게 되게 하소서!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그들의 마음

에 두려움을 불어넣으시고, 그들의 발을 떨리게 하소서!" 그리고 그는 그의 교우들에게 돌아서서 명령했다. "태세를 갖추고 일어서라! 공격하라!"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지시를 기다리던 영광스러운 교우들은 이미 받은 명령에 따라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다. 화살이 윙윙거리며 날고, 돌멩이가 목표물을 향해 쏟아졌으며, 창이 갑옷을 뚫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용사인 함자 성인은 칼 두 자루를 쥐고 싸웠다. 알리, 우마르, 주바일 성인은 다신교도들 대열의 한 끝에서 들어가 다른 끝으로 뚫고 나왔다. 알라후 테알라의 위대한 힘은 불신자들의 머리속을 파고 들어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다. 무슬림들은 마치 무적의 성채와 같았다. 알리 성인이 증언하길, "바드르 전투에서의 영웅은 예언자였다. 그분은 적군에 가장 근접해서 싸우셨고, 우리는 때때로 그분에게로 피했다."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패배하여 뿌리째 없어지고, 뒤돌아서 도망가리다. 실제 그들의 고통은 심판의 날이라. 그 때의 처벌은 더욱 과중하고 그 고통이 엄할지다.' (54:45-46 의 해석)

메카의 다신교도들은 그들의 지도자 아부 자흘을 에워쌌다. 그들은 한 사람에게 아부 자흘과 똑같은 옷을 입혀 눈속임을 했다. 이 불행한 사람은 알리 성인에게 목을 잘렸다. 또 다른 사람이 아부 자흘로 변장했으나 이번에는 함자 성인의 칼에 목이 달아났다. 알리 성인이 어떤 메카 병사와 싸우고 있었다. 그 다신교도의 칼이 알리 성인의 방패에 꽂혔다. 알리 성인은 칼을 휘둘러 그의 어깨에서 가슴까지 갑옷채로 절단했다. 바로 그 순간 알리의 머리 위에서 칼날이 번득거렸다. 알리 성인이 재빨리 머리를 숙이는 순간, 그 칼의 주인이 말했다. "받아라! 이것은 함자 빈 무탈립의 칼이니라!" 다신교도의 머리는 투구와 함께 땅에 떨어졌다. 알리 성인이 돌아보니 그의 숙부 함자 성인이 칼 두 자루로 싸우고 있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교우들이 그처럼 용감하게 싸우는 것을 보고 "이들은, 이 땅위에 있는 알라후 테알라의 용맹한 사자로다." 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곁에서 싸우고 있던 우까샤 성인의 칼이 부러졌다. 이를 본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땅 위에서 막대기 하나를 집어 그에게 던져주었다. "오, 우까샤! 이것으로 싸우거라." 우까샤가 그 막대기를 받아든 순간, 우리 예언자의 기적으로 그것은 길고 빛나며 날카로운 칼이 되었다. 그는 이 칼로 그 전투가 끝날 때까지 많은 적을 죽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한편으로는 전투를 하며, 한편으로는 교우들의 사기를 고양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의 진리를 아시는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하건데, 오늘 알라후 테알라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전투에 참여한 인내의 용병들이여, 뒤돌아보지 않고 진군하며 적을 없앤 사람은 알라후 테알라께서 천국으로 보내실 지다." 라고 하디스 셰리프를 읊었다. 이것을 들은 우마이르 빈 후맘, "정

말 기쁘다, 정말 기쁘다. 천국에 가려면 순교자가 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필요없네" 라 하더니 공격을 가중시켰다. 한편으로는 적군을 치고, 한편으로는 "알라후 테알라께로 가는 길은 물질적인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알라후 테알라에 대한 두려움, 내세의 보상과 처벌, 종교전파의 인내와 충성으로 갈 수 있다. 이것들 외의 물질적인 것은 모두 멸하리다." 하고 순교할 때까지 열성적으로 싸웠다. 전투는 점점 격렬하게 되었으며, 최소한 세 사람의 다신교도가 한 사람의 교우를 공격하는 양상으로 변했다. 한꺼번에 세 사람을 상대하는 교우들에게 적들은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라 할수록 힘을 다시 모아 공격을 했다. 교우들의 상황이 어렵게 전개되고 있었다. 그때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아부 바크르 성인과 함께 천막으로 들어갔다. 우리의 예언자는 다시 알라후 테알라께 탄원을 올리기 시작했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당신이 약속하신 도움을 허락하소서!" 바로 이 순간, '안팔 장'의 계시가 내려왔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즉시 일어나서 말했다. "오, 아부 바크르! 기쁜 소식이오. 알라후 테알라의 도움이 그대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저것은 지브릴 천사! 그는 무장을 한 채 모래 언덕 위에서 말고삐를 잡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소."

'안팔 장'에 기록된 대로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천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렸다고 계시되었다.

'그대의 알라후 테알라께서 천사들에게 이르되, '나는 너희와 함께 하니, 절실히 믿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거라. 불신자들의 마음에 커다란 공포를 내릴테니, 너희들은 치거라, 그들의 목을. 치거라, 그들의 손을 치라.' 이는 그들이 알라후 테알라와 예언자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누구든지 알라후 테알라와 예언자에 대항하는 자는 알라후 테알라께서 가혹하게 처벌하시니라.' (8:12-13 의 해석)

이 명령에 따라 지브릴, 미카일, 이스라필 천사가 각각 1 천 명의 천사들을 데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 가까이에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에 포진하였다. 지브릴은 노란 두건을 머리에 두르고 있었다. 다른 천사들은 하얀 두건을 각각 머리에 두르고 있었다. 두건의 끝은 등 쪽으로 처져있었고, 하얀 말을 타고 있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교우들에게 말했다. "천사들은 기호와 표식을 몸에 지니고 있다. 그대들도 스스로의 표식을 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주바일 빈 아왐은 노란색의 천을, 아부 두자나는 빨간색의 천을 머리에 감아 표식으로 삼았다. 알리 성인은 하얀 깃털을, 함자 성인은 타조의 날개를 각각 가슴에달았다.

천사들의 참전으로 상황은 곧 바뀌었다. 교우들이 적에게 미처 칼을 휘두르

비르 마우네 사건

기도 전에, 그들의 목과 몸이 동강이가 나서 땅에 떨어졌다. 낯선 사람들이 예언자 곁에서 다신교도와 싸우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다. 사흐르 성인이 설명했다. “바드르 전투에서, 우리가 불신자들의 머리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순간, 칼이 닿기도 전에, 목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 땅에 뒹구는 것을 보았다!”

아부 자흘의 죽음

다신교도의 기수(旗手), 아부 아지즈 빈 우마이르는 생포되었다. 그들의 사령관 아부 자흘은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시를 읊어가며 갖은 노력을 다하였다. 그는 힘 좋은 젊은이 처럼 공격을 하며 “ 내 어머니는 나를 오늘을 위해 낳았다…!” 라며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북 돋았다.

다신교도 중 우바이다 빈 사이드는 갑옷과 투구로 온몸을 에워싸 눈밖에 보이지 않았다. 영웅적인 무슬림 전사 주바일 빈 아왐 성인이 그에게 접근하여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를 외치며 그의 눈을 겨냥하여 창을 던졌다. 그 창은 목표에 적중하여 우바이다 빈 사이드는 말에서 떨어졌다. 주바일 성인이 다

가가보니 그는 이미 숨져있었다. 주바일 성인이 발로 죽은 사람 얼굴을 밟고 온 힘을 다해 창을 빼내려 했었지만 창은 쉽게 뽑히지 않았다. 그 끝이 굽어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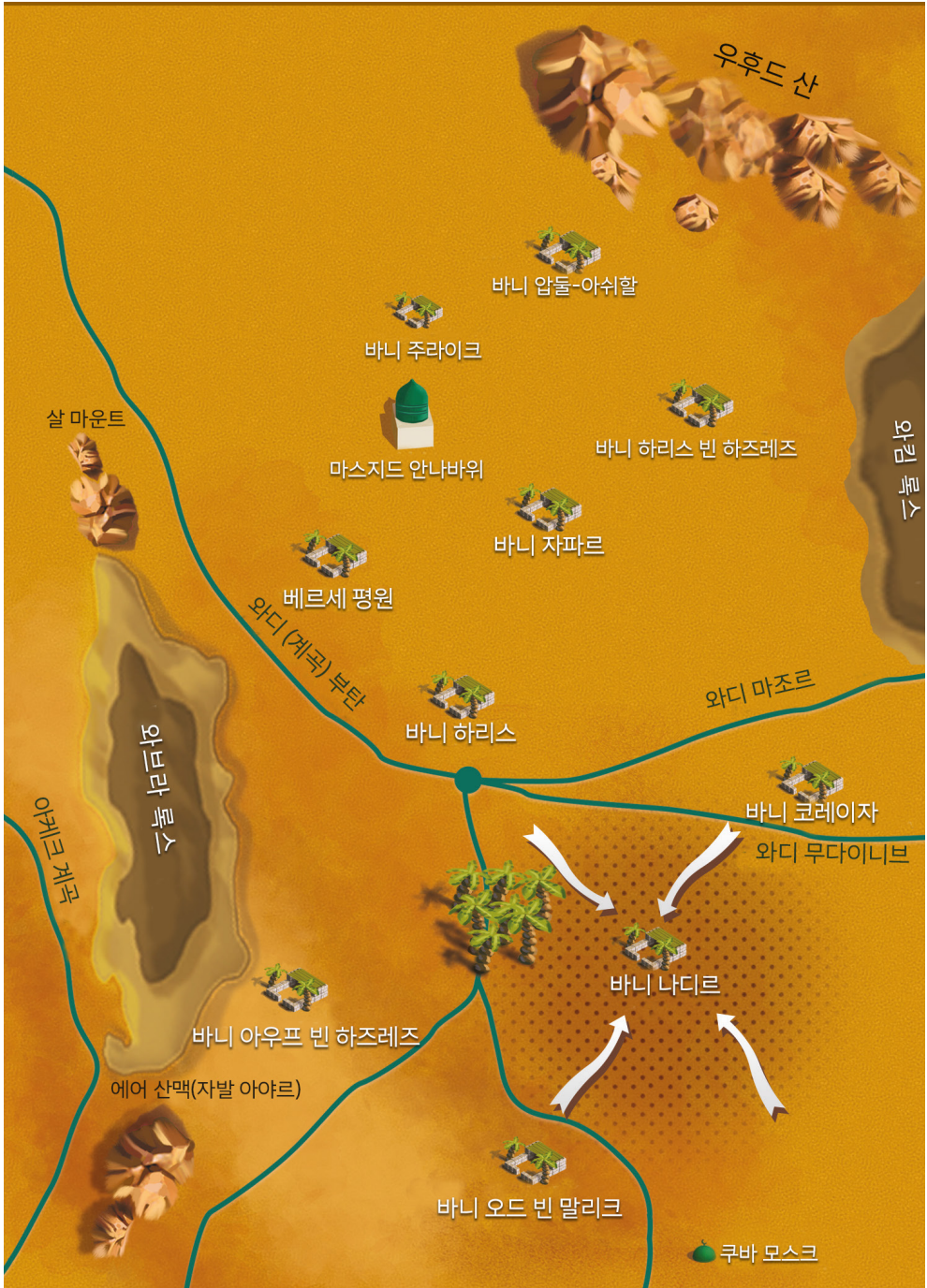
주바일 성인이 바드르 전투에서 보여준 용맹은 아주 대단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였다. 그의 아들 우르바는 "아버지는 3 번의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목에 난 상처는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크고 깊었다." 라 설명했다.

압둘 라흐만 빈 아우프 역시 맹렬하게 꾸라이쉬를 대적했다. 그는 자신의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아랑곳 않고 나서는 적을 모두 쓰러뜨렸다. 압둘 라흐만 성인은 자신의 목격담을 이야기 했다.

"잠시 동안 내 앞에 적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안사르의 두 젊은이가 보였다. 그들은 나를 유심히 보며 물었다. "아저씨! 아부 자흘을 아십니까?" 라 물어서 "물론 알지, 형제의 아들아, 아부 자흘을 어쩌자고 물어보느냐?" 라 하니, "내가 들은 바로는 그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모독했다고 하던데요.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하건데, 내가 그를 보기만 하면 그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를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의 이러한 열정의 용기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나는 아부 자흘을 발견하였다. 그는 병사들의 호위 속에 끊임없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소리 질렀다. "젊은이들! 앞으로 뒤로 바쁘게 움직이는 저 사람이 바로 아부 자흘이다." 그들은 칼을 겨눠 들고 아부 자흘을 향하여 달려갔으며, 곧 치열한 전투를 개시했다. 이 젊은이들은 아프라 부인의 아들인 무아즈와 무아와즈 형제였다."

용맹한 교우인 무아즈 빈 아므르는 아부 자흘에 접근할 기회를 잡았다. 그는 꼬리가 긴 말에 탄 아부 자흘의 발을 칼로 거세게 내려쳤다. 아부 자흘의 다리는 땅에 떨어졌다. 그러자 아부 자흘의 아들, 이크리마가 그의 아버지를 돕기 위해 달려와 곧 무아즈 빈 아므르 성인과 싸우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무아즈와 무아와즈 형제가 송골매처럼 튀어나왔다. 그들은 앞을 가로막는 자를 모두 베어버리고 아부 자흘에 이르렀다. 아부 자흘이 죽었단고 확신할 때까지 칼로 찔렀다. 한편, 무아즈 빈 아므르 성인은 이크리마와 싸우다가 손과 팔을 다쳤다. 그의 손은 손목에서 절단되었으나 피부 때문에 겨우 붙어 있었다. 그는 싸움에 몰두하여 상처를 감싸거나 치료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덜렁거리는 손을 매달고 영웅적으로 분투하였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가! 무아즈 빈 아므르 성인은 손 때문에 자신의 동작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손을 발로 밟은 후 그것을 몸에서 떼어내어 멀리 던져버렸다.

온 세상의 귀감인 예언자는 지브릴 천사와 함께 여기까지 여행하였다.

바니 나디르 전쟁

우후드 산
바니 압둘-아쉬할
바니 주라이크
살 마운트
마스지드 안나바위
바니 하리스 빈 하즈레즈
와킴 룩스
바니 자파르
베르세 평원
와디 (계곡) 부탄
바니 하리스
와디 마조르
와브라 룩스
바니 코레이자
와디 무다이니브
아케크 계곡
바니 나디르
바니 아우프 빈 하즈레즈
에어 산맥(자발 아야르)
바니 오드 빈 말리크
쿠바 모스크

'너희가 알라후 테알라께 구원과 승리를 청할 때, 그분께서 '진정으로 내가 너희들 후진에 천 명의 천사들로 너희들을 구해주니라.' (8:9 의 해석)라고 기도를 받아들이셨다.

지브릴은 알라후 테알라께서 원래 창조하셨을때의 자신의 모습을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보여주었다. 진주와 루비로 각각 치장된 육십만 개의 날개를 펼쳐 보인 것이다. 그런 뒤에 '라프라프'라고 하는 천국의 녹색 양탄자가 펼쳐졌는데, 그 빛남은 태양보다 더 밝았다. 그와 동시에 알라후 테알라를 찬미하는 소리가 온 누리에 울려 퍼졌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환영인사를 받으며 라프라프에 앉았다. 순식간에 그 양탄자는 아주 높이 솟아올랐으며, '히잡'이라는 이름의 칠천 개의 휘장을 통과하였다. 각각의 휘장 사이의 거리는 아주 멀었다. 모든 휘장마다 임무를 맡은 천사들이 각각 도열하고 있었다. 라프라프는 휘장을 하나씩 하나씩 통과하여 우리의 예언자를 쿠르시 [32] , 아르쉬 [33], 그리고 영혼의 세계를 훌쩍 넘어서게 했다. 각각의 휘장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예언자는 알라후 테알라의 명령을 들을 수 있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 무함마드여! 더 가까이 오라, 더 가까이 오라!" 예언자는 알라후 테알라께 아주 가까이 다가갔으며, 이해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알라후 테알라께서 원하시는 높이에까지 이르렀다. 공간과 시간, 방향과 방식도 알 수 없는 채 알라후 테알라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눈과 귀, 형체와 시공도 없는 모습의 알라후 테알라와 예언자는 대화를 하였다. 그는 어떤 피조물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없는 알라후 테알라의 거룩한 축복을 받았다.

이맘 랍바니 성인은 그의 책 '막투바트'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승천의 밤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알라후 테알라를 본 것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사후 세상에서의 일이다. 왜냐하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그날 밤 시간과 공간의 틀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분은 영원한 순간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예언자는 시작과종말을 한 시점으로 보았다. 수 천 년후 천국에 갈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과 백성들을 지지하셨고 종교를 드높게 하셨습니다." 라 했다. 아부 자흘에 관하여 "아부 자흘이 어떻게 됬는지, 어디에 있는지, 누가 확인하라." 하여 죽은 자들 중에세 그를 찾았으라 하였지만 못 찾자, 예언자는 "그를 찾으시오, 그에게 내가 약속한 바가 있소. 만약 눈에 띄지 않는다면, 무릎에 있는 상처자국을 확인하시오. 그와 나는 어느날, 압둘라 빈 주단의 식사 초대자리에 함께 있었소. 우리는 젊었고 나는 그 보다 덩치가 컸소, 자리가 비좁아지자 내가 살짝 밀었는데 무릎을 꿇고 쓰러졌소. 무릎 한 쪽이 상처를 입었고 이 상처 자국은 없어지지 않았소."

[32] 7 층으로 이루어진 하늘 위에 존재하는 알라후 테알라의 창조물로 7 층의 땅과 7층의 하늘을 합친 것보다 더 넓은 곳.

[33] 쿠르시 위에 존재하는 알라후 테알라의 창조물로 물질의 세상의 끝이자 비물질의 세상의 시작인 곳.

리틀 바드르

콰탄
벨리이
오늘
나시프의 우물
하나키야
하나키야
바니 아우프 빈 하즈레즈
주하이나
아스사위크 바자르
알 메디나투엘무나와라 (빛나는 도시)
옌부
함라
바드르 바드르
움물버크
술라임
Gıfâr
와단
하라르/하라르
래비
주파
히자즈
베니 라흐얀
큐데이드
아라비
쿠담
쿨라이스
쿠자아
후자일
다하반
우스판
자멈
가자 마켓 기파르
둘-훌라이파 둘 마자나
제다
아스 살랄 카비르
하데
쿠라이시
마카 알 무카라마 (성 메카)
알 카위야
타이프
키나나
하와진
티하마
타키프
마카 알 무카라마 (성 메카)
마스타바

압둘라 빈 마수드 성인이 아부 자흘을 찾아 나섰다. 마침내 그를 찾아냈다. 그는 상처를 입었으나 아직 살아있었다. “니가 아부 자흘인가? 알라후 테알라의 적! 알라후 테알라께서 결국에 너를 처벌하시고 파멸하셨는가?” 라 묻자, 아부 자흘은 “무슨 이유로 나를 처벌하고 파멸하는데? 신은 너를 처벌하고 파멸시킬 거다. 에이 양치기! 오늘의 승리가 누구의 것인지 나에게 알려 다오” 하니 마스드 성인이 “승리는 알라후 테알라와 그의 사도의 것이다.” 라 대답하고는 투구를 벗기며 “아부 자흘, 너를 죽이겠다.” 하니, 아부 자흘 “너는 민족의 우두머리를 베는 첫번째 사람이 아니다. 사실로 말하자면, 니가 나를 죽이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지만 가능하면 내 목을 몸에 가까운 부분에서 베어라. 그러면 내 머리가 도도해 보일 것이다.” 라며, 불신과 기고만장함과 자만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칼로 아부 자흘의 목을 베지 못 하자, 아부 자흘의 칼로 베어, 갑옷과 투구와 머리를 들고 예언자 앞으로 가져갔다.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겠나니, 알라후 테알라의 적, 아부 자흘의 머리입니다.” 라 마수드 성인이 말했다. 예언자는 “그 분은 알라후 테알라께서시다. 더 위대한 것은 없도다.” 라 하고 교우들과 함께 아부 자흘의 시신 가까에 갔다. 여기서 “알라후 테알라께 감사를 드리니, 너를 파멸하였도다. 너는 이 백성들의 피라운이었다. 오, 알라후 테알라께서시여,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라며 감사를 드렸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교우들 중 부상자들의 상처를 싸매주었다. 그분은 또 순교자들을 확인했다. 14 명이 순교했는데, 무하지르가 6 명이고 안사르가 8 명이었다. 모두의 축복 받은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갔다. 이슬람의 빛을 꺽으려던 메카의 다신교도들은 70 명이 사망했고, 70 명이 포로로 잡혔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압둘라 빈 라와하와 자이드 빈 하리사를 메디나로 보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알리도록 했다. 예언자는 순교자들을 위한 장례예배를 인도하였으며, 그들을 무덤에 안장하였다.

다신교도들의 시체는 24 구가 어떤 마른 우물에 버려졌고, 나머지는 구덩이에 던져 흙으로 덮었다. 예언자는 교우들과 우물 옆에서 “여기 우물에 버려진 자들이여!” 라 하며 다신교들의 이름을 그들의 아버지 이름과 함께 부르며 “야, 우트바 빈 라비아, 야, 우마야 빈 할라프, 야, 아부 자흘 빈 히샴! 너희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나쁜 종족들이다. 너희들은 나를 거짓으로 말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를 확신하고 믿었다. 너희들은 나를 내 고장에서 내 땅에서 쫓아냈다. 다른 사람들은 온 마음을 열고 나를 따랐다. 너희들은 나에게 전쟁을 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해 싸웠다. 나의 알라후 테알라께서 약속한 것에 이르렀는가? 나는 알라후 테알라의 약속인 승리에 이르렀다.” 라고 말했다. 우마르 성인이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죽은 자들에게 말하시나요?” 라 묻자, 예언자는 “나를 예언자로 보내신 위대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권한으로, 내가 말하건데, 내가 듣는 것을 그대들은 듣지 못하오. 이들은 단지 대답을 하지 못할

뿐이라오.”

전장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다급히 도망친 다신교도들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었으므로, 남은 것은 모두 무슬림들의 차지가 되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모든 교우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다.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선발대로 출발한 압둘라 빈 라와하와 자이드 빈 하리사는 메디나에 근접하였다. 일요일 아침 나절에 ‘아끼끄’라는 곳에 도착한 그들은 서로 헤어져 각각 다른 길로 메디나에 입성했다. 그들은 집집마다 들러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압둘라 빈 라와하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시인이었으므로 승리의 소식을 다음과 같은 시로 크게 읊었다.

“오 안사르! 나는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노니,
알라후 테알라의 예언자는 안전하게
살아있으니.

메카 다신교도들은 죽거나 포로로 잡혔으니,
전쟁 포로들 중엔 유명한 사람이 적지 않네.

라비아와 핫자지의 아들들은 물론이고,
아부 자흘과 아므르 빈 히샴도 죽었다네.”

아심 빈 아디이 성인이 물었다. “오, 이븐 라와하! 당신 말이 사실이오?” “예,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코 이것은 진실이오. 알라후 테알라의 뜻으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포로들을 데리고 내일 도착하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의 딸 루까야 성인이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남편 우스만 성인이 장례예배를 인도했다. 슬픔에 빠진 그들을 승리의 소식이 어느 정도 그들을 위로해주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바드르 전투를 승리고 이끄신, 알라후 테알라께 감사드리며, 큰 절을 하고난 다음, 포로들을 이끓고 메디나로 출발했다. 압둘라 빈 라와하와 자이드 빈 하리사가 이미 바드르 전투에서 벌어진 일과, 순교한 사람들을 알렸다. 이 기쁜 소식을 접하고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도시 밖으로 나가 개선하는 무슬림 전사들을 환영하였다. 순교자들 중에 카리사 빈 수라카 성인의 어머니, 라비 부인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도착하기 전에 아들을 위해 울지 않겠습니다. 장엄하게 메디나에 도착하면,

바니 무스탈리크

칼바
부바트
오늘
하나키야
우윤
튀와이드레
콰탄
주하이나
사위크
알 메디나투엘무나와라 (빛나는 도시)
패리시
옌부
무사이지드
마시 웰스
사파완
술라임
예트미
히자즈
바드르 바드르
으음
움물버크
마흐다흐다합
마스투라
알 무바라키야 우물
보물
와단
알아브와
바레인
수페이나
이슬람군 본부
래비
와디 하우라
주파
와디 아스 세이프
홍해
쿠자아
알 무샬랄 언덕
무라이시 워터
와디 쿠다이드
쏘울
타비아
리프트 힐(탈)
알 카밀
르드반
바니 무스탈리크
쿨라이스
베니 라흐얀

그분에게 물어 볼 것입니다. 만약 나의 아들이 천국으로 갔다면 울지 않겠고, 지옥으로 갔다면 내 눈에서는 눈물이 아닌 피가 쏟아질 것입니다." 라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메디나에 도착하자, 라비 부인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리니, 아들 하리사에 대한 애착을 아십니다. 아들이 순교하여 천국으로 갔을까요? 그렇다면 슬픔을 인내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눈에서 피를 쏟을 것입니다." 라 말했다. 예언자는 "오, 하리사의 어머니여! 너의 아들은 하나의 천국이 아닌 여러 천국이 있는 곳 즉, 그가 있는 곳은 필데비스 천국이다." 라 기쁜 소식을 전하자, 라비 부인은 "이제 내 아들을 위해 울지 않겠습니다." 라 했다. 우리의 귀감이신 예언자는 한 그릇의 물을 가져오게 하고는, 축복받은 손을 넣은 후, 하리사의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마시게 하였다. 또 그 물을 그들의 머리에, 얼굴에 뿌렸다. 이후 그들의 얼굴에서 빛이 발산되었다. 아주 오랫동안 살았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70 명의 포로들을 교우들에게 배분하고, 그들을 잘 대우하라고 명령했다. 포로들의 처리에 관한 알라후 테알라의 계시는 아직 내려지지 않아,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교우들과 협의한 끝에 배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이들을 석방하기로 했다. 재산의 정도에 따라 배상금을 정했다. 재산이 없는 포로들 중 교육받은 사람은 메디나의 문맹자 10 명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 준 후 메카로 돌아 갈 수 있게 하였다. 예언자의 숙부인 압바스도 포로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의 예언자가 말했다. "오, 압바스! 당신과 당신의 조카 우까일 및 나우팔의 석방을 위해 배상금을 지불하시오. 당신은 부자가 아닙니까?" 그러자 압바스가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나는 무슬림입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유일하십니다. 메카 사람들이 나를 억지로 끌고 왔습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당신이 무슬림인지 아닌지는 알라후 테알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반대해 왔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배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압바스는 "예언자여! 당신이 거둔 전리품 8 백 디르함이 전 재산이옵니다." 라 하니,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오, 압바스! 당신은 그 금에 관한 이야기는 왜 안 하는 거요?" "무슨 금 말입니까?" 예언자가 대답했다. "당신이 메카를 떠날 때 아내에게 준 그 금 말입니다. 원정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이만큼은 당신이, 이만큼은 파들에게, 이만큼은 압둘라에게, 이만큼은 우바이둘라에게, 이만큼은 꾸삼에게 주시오'라며 가족에게 나눠주라고 한 금 말이오." 압바스가 크게 놀라며 말했다. "내가 아내에게 금화를 줄 때 분명히 아무도 옆에 없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대답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내게 일러 주셨소." 그러자 압바스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라는 것을 믿으며, 진실을 말하였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는 신앙고백을 하고 무슬림이 되었다. 압바스 성인이 무슬림이 되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그를 메카의 책임자로 임명했다. 그에게 그곳 무슬림들을 보호하고 이슬람의 적들에 대한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했다.

바드르 성전(**聖戰**)에서 무참하게 패배한 꾸라이쉬 불신자들은 보상금을 지불하면 포로들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쨌거나 히즈라 이전에 우리의 예언자를 괴롭히던 나드르 빈 하리스는 참수되었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카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낙타 내장을 끼얹었던 사악한 우끄바 빈 무아이트도 살해되었다. 이 자의 목이 떨어져 나가자, 예언자는 가까이 가서 알라후 테알라께 감사를 드리며 "알라후 테알라와 그분의 사도와 꾸란을 부정한, 그분의 사도를 고문한 너 같이 악명스런 자가 없었다." 라 하였다.

포로들은 보상금이 지불되어 그들의 보호자에게 인계될 때까지 교우들과 함께 머물렀다. 모든 교우들은 포로들을 매우 잘 대우하였으며, 그들의 음식을 포로들과 함께 나누었다. 무사브 빈 우마이르의 형제, 아부 아지즈가 이들 중에 있었으며,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메디나의 무슬림의 집에 포로로 있었다.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아침과 저녁 식사와 빵을 나에게 주고 그들은 단지 대추야자를 먹고 있었다. 빵 한조각이라도 손에 들어오면, 곧 바로 나에게 내밀었다. 내가 너무 부끄러워 그 빵을 돌려줬다. 하지만 그들은 빵을 나에게 되돌려 보냈다."

또 다른 포로, 예드즈라고하는 꾸라이쉬 사람이 이렇게 얘기 했다. "무슬림들이 바드르에서 메디나로 되돌아 오는 길에, 포로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들은 걸어서 왔다."

바드르 전투에서 다신교도들이 완패하여 처참한 모습으로 도망쳐 온 것에 대해 메카에서는 경악을 마지 못했다.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결코 기대하지 못 했던 결과를 초래했다. 전투에 대한 첫 소식을 듣고, 아부 라합과 그 교도들은 이를 믿지 않았다. 소식을 전한 자를 불러서, 아부 라합이 "오, 형제의 아들아!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보라." 라 했다. 아부 수피안은 바닥에 앉았다. 다른 불신자들은 모두 선 채로 듣고 있었다. 아부 수피안은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서술했다. "믿기지 않지만, 무슬림과 맞섰을 때, 손과 팔이 묶였다. 무슬림들은 자유롭게 공격하여 우리의 일부를 살해했고, 일부는 포로로 붙잡았다. 맹세하건데, 나는 우리 병사들을 그 누구도 비방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투시 땅과 하늘 사이에 하얀 차림의 무엇인가와 대적하였다. 그들에게 그 어떤것도 소용이 없었으며, 그 어떤 누구도 맞서지 못했다."

초기 이슬람교 때 이미 무슬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의 핍박을 두려워해 말하지 못한 압바스의 노예, 아부 라프 성인도 그 자리에 있었다. 조용하게 듣던 그는 너무 기쁜 나머지 모든 것을 잊고 "정말로 그들은 천사들입니다." 라 말해버렸다. 아부 라합이 그의 뺨을 세차게 치니, 땅에 엎어졌다. 다른 한 사람은 폭력을 가했다. 이를 지켜보던 압바스 성인의 부인, 움무 파들이(그녀는 이전에 무슬림이 됐었다.) 참지 못하고 방에 있는 기둥 하나를 들고는 "외톨이라고 그를 만만하게 보았느냐?" 하며 아부 라합을 세게 내려쳐 아부 라합에게 상해를 주었다. 그는 피를 흘리며, 망칙하고 사악한 모습으로 자리를 떴다. 7 일 후,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에게 흑사병을 주시어 죽었다. 그의 아들들은 사채를 묻지않고 2-3 일 방치해 뒀다.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모두들 병을 두려워해 사채로부터 도망을 쳤고, 역겨워 했다. 꾸라이쉬의 한 사람이 이 아들들에게 "몹쓸 사람들아, 아버지가 냄새가 날때까지 집에 방치를 하다니… 그의 사채를 묻어 보이지 않게 해주게나." 그 아들들이 "우리는 그의 병이 무섭습니다." 라 대답하니, 이번에 그 사람은 "내가 함께 가서 너희를 도와 처리 하겠다." 라 했다. 이후 이 세사람이 모여서 사채를 지고 움팍진 곳에 내렸다. 보이지 않을 때까지 돌로 덮었다. 이렇게 하여 아부 라합은 끝없는 처벌과 불길 속의 암흑과 지옥의 구덩이인 무덤에 들어갔다.

바드르 전투에서 포로로 잡혀온 꾸라이쉬 사람들 중, 왈리드 빈 왈리드도 있었다. 그를 압둘라 빈 자쉬가 붙잡았다. 왈리드의 형제, 히샴과 아직 무슬림이 되지 않았던 칼리드 빈 왈리드가 메디나에 왔다. 압둘라 빈 자쉬는 배상금이 일전이라도 부족하면 풀어주려 하지 않았다. 형제 중, 칼리드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이복형제 히샴은 반대했다. 예언자는 그들 아버지의 무기와

무장들을 대가로 요구했다. 히샴은 찬성했지만 칼리드는 반대했다. 결국에는 100 디야르 가치의 칼과 갑옷, 투구를 주기로 했다. 왈리드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메카로 향했다. 하지만, 왈리드는 중간에 '줄 훌라이파'라는 곳에서 그들로부터 헤어져 예언자에게 돌아와서 믿음을 택하여 교우들 중 한 명이 되었다. 무슬림이 된 후, 메카에 있는 형제들을 방문했다. 칼리드가 "무슬림이 되기로 작정을 했는데, 왜 배상금을 치루게 만들었나?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잃게 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라고 묻자, 왈리드 빈 왈리드는 "꾸라이쉬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견디지 못했고,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할까봐 염려해서였다." 라고 대답했다. 이에 무척 화가 난 형제들은, 만줌족의 무슬림들과 일리야스 빈 아비 라비아, 살라마 빈 히샴과 함께 감옥에 가두었다. 이슬람의 사악한 적인 숙부 히샴과 다신교도 친척들에 의해 고문과 핍박을 받았다. 예언자는 일리야스 빈 아비 라비아, 살라마 빈 히샴과 왈리드를 위해 이렇게 기도를 올렸다. "알라후 테알라께서시여! 일리야스 빈 아비 라비아, 살라마 빈 히샴을, 그리고 힘없는 진실한 신앙인들을 구하소서. 꾸라이쉬를 더 비참하게 짓밟아 주소서. 그리하여 예언자 유숩(요셉)의 시대처럼 하소서." 왈리드는 예언자의 기도에 힘입어 갇혀있던 곳에서 메디나로 도망쳐와서 예언자를 다시 보게되었다. 예언자가 일리야스 빈 아비 라비아, 살라마 빈 히샴의 상황을 물으니, 그들은 다리가 묶힌 채로, 핍박과 고문 속에서 몸을 뒤틀고 있다고 전해주었다. 예언자는 그들의 상황에 몹시 안타까워하여, 구해낼 방법을 모색했다. 누구가 그들을 구해내겠느냐고 묻자, 몇 년 동안이나 고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왈리드가 큰 용기로 나서서, "오 사도여! 제가 가서 그들을 구출해 당신에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다. 다시 메카로 가서, 무슬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부인네의 뒤를 쫓아 장소를 알아냈다. 두 사람은 천장이 없는 건물에 갇혀있었다. 왈리드는 죽음을 각오하고 커다란 용기로 벽을 타고 교우들에게 도달했다. 믿음으로 인해, 죄를 짓지 않은 순결한 두 사람은 하나의 돌에 묶여 아라비아의 사막의 타는 듯한 열기 아래, 온갖 고통을 겪고 있었다. 왈리드는 이 축복받은 두 사람을 구출하여 낙타에 태웠다. 왈리드는 맨발로 걸었다. 사랑하는 예언자를 향해 급히 길을 나섰다. 그를 애타게 한 것은 사막의 뜨거운 열이 아니라 예언자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였다. 메디나에 맨발로, 도보로, 갈증을 견디며 3 일이 걸려서 도착했다. 발가락들이 돌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져, 피로 뒤범벅이 되어 예언자에게 당도하였다. (만

트렌치의 전투 (한닥)

Η κατεύθυνση της άφιξης των πολυθεϊστών

Αρχηγείο του στρατού των Μούσρικ

Όρος Ουχούντ

Λόφος Αϊνέιν (Τοξότες)

Κοιλάδα Ακίκ

Ρουμέ

Κινάνε

Σουλέιμ

Φεζάρε

Έστζα

Ασάντ

Μούρρε

Γκατφάν

Κουράις

Κοιλάδα της Κανατ

Χεντέκ (5,5 χλμ.)

Κοιλάδα Μπουτχάν

Amr bin Abdûd v Αλί μπιν Άμπι Ταλίμπ

Πρώτες αψιμαχίες

Αμπντουλλάχ μπιν Ναουφάλ v Ζουμπάιρ μπιν Αουάμ

Ισλαμικός Στρατός Αρχηγείο

Μαστζίντ αλ-Ναμπί

Βουνό των Σελ

Βράχοι Βακίμ

Βέμπρε Βράχοι

Κοιλάδα Μεχζούρ

Κοιλάδα Μουζεϊνίμπ

Κεντρικά γραφεία του Μπενί Κουρεϊζά

Όρος Άιρ

Νότια βράχια

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사랑에 빠진다면, 상처는 빛이 되도다. 사랑의 고민이 있는 자는 마음이 번영하도다.)

바드르의 승리는 무슬림들에게 더할 수 없는 환희를 안겨주었고, 이에 반해 다신교도들은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다. 에티오피아의 지배자 네구스 왕은 그 기쁜 소식을 교우들에게 전해 주었다. 그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승리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렇게 말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를 찬미합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그의 사도를 바드르에서 승리하게 하셨나이다."

알리 성인과 파티마 성인의 결혼

히즈라 2 년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딸 파티마 성인이 15 세가 되었다. 어느 날, 파티마 성인이 우리의 예언자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딸이 혼인 적령기에 접어들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 날 이후 많은 청년들이 파티마 성인에게 구혼을 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며 말했다. "그녀의 결혼은 알라후 테알라의 뜻에 달려있느니라."

어느 날 아부 바크르, 우마르, 그리고 사아드 빈 무아즈 성인이 성원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알리 성인을 제외하고 모든 청년들이 파티마 성인에게 결혼을 신청했지만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다." 싯디크(아부 바크르) 성인이 말했다. "내 생각에는 아마도 알리에게 결혼 승낙이 떨어질 것 같소. 우리 함께 그에게 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 해 봅시다. 만약 그가 가난을 이유로 머뭇거린다면 우리가 그를 도와줍시다." 그러자 사아드 성인이 말했다. "오, 아부 바크르! 그대는 언제나 너그럽군요. 일어서시지요. 같이 가 봅시다." 그 세 사람은 성원을 떠나 알리 성인의 집으로 향했다. 알리 성인은 어떤 안사르의 대추야자 농장에서 물을 주고 있었다. 그는 세 사람을 보자 곧장 달려와 인사하며 반갑게 맞았다. 아부 바크르 성인이 물었다. "오, 알리! 그대는 어떤 일에라도 앞장서서 모범을 보였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위치에 올랐소. 모든 청년들이 파티마 성인에게 청혼을 하였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소. 우리가 볼 때 그대는 구혼에 성공할 것 같소. 그대는 왜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소?" 알리 성인은 이 말을 듣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오, 아부 바크르! 당신은 저를 너무 슬프게 하는군요. 그녀에게 저 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없지요. 가난이 이 일에 방해물이지요." 그러자 아부 바크르 성인이 말했다. "그런 말 하지 마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와 그의 사도의 눈에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오. 가난이 그 일에 장애물이 될 순 없소 가서 그녀에게 결혼을 신청하시오."

알리 성인이 당시를 회고했다. "수줍음과 망설임 속에 나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찾아갔다. 우리의 예언자는 여전히 당당하고 근엄하였다. 나는 그분 앞에 앉았으나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물었다. "어떻게 왔는가? 필요한 것이 있는가?" 나는 묵묵히 앉아있었다. 그러자 예언자가 말했다. " 아마도 그대는 파티마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 왔으리라." "예." (이때 우리의 예언자는 옆방에 파티마를 불러놓고 알리의 청혼 이야기를 몰래 듣도록 해주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물었다. "혼인예물로 파티마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내가 대답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나는 아무것도 그녀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가 물었다. "내가 준 쿠타미 갑옷은 어디 있는가? 어디에 처분했는가?"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것을 팔아 그 돈을 내게 가져오너라. 그것으로 혼인예물은 충분하다." 라 하였다.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 "어떤 재산들을 가지고 있는냐?" 알리 성인이 대답하기를 "단 한 마리의 말과 갑옷이 전부입니다." 예언자는 "말은 필요할 테니, 갑옷을 팔거라." 했다고 전한다.
결혼하기까지 알리 성인은 우리의 예언자와 거의 함께 지냈다. 알리 성인은 우리의 예언자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 성원 근처, 아이샤 성인의 집 건너편에 있는 하리사 빈 누으만의 집을 빌렸다. 그는 480 디르함을 받고 우스만 성인에게 갑옷을 팔았으며, 우스만 성인은 일단 돈을 치른 뒤에 그 갑옷을 알리 성인에게 다시 선물로 건네었다. 알리 성인이 갑옷과 돈을 함께 가지고 예언자에게 갔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우스만 성인에게 많은 축복을 기원하였다. 그리고 "우스만은 천국에서 나의 동반자로다." 하였다. 예언자는 빌랄 성인을 불러 얼마간의 돈을 주며 명령했다. " 이 돈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장미 향료를 조금 사고, 남는 돈으로는 꿀을 사라. 그리고 성원 가까운 곳에서 그것들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물과 잘 섞어라.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가 마실 벌꿀물을 만드는 것이다. 안사르와 무하지르의 모든 교우들을 초청하고, 사람들에게 알리와 파티마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라." 빌랄 성인은 밖으로 나가 알리 성인과 파티마 성인이 결혼한다고 사람들에게 공포했다. 교우들이 몰려와 예언자 성원의 안팎을 가득 채웠다. 그러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일어서서 다음과 같이 낭송했다.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 알라후 테알라께 찬미와 영광을 올립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찬미를 받으시는, 처벌과 대가를 두려워하는 자들로부터 무한한 능력과 힘으로 숭배를 받으시는, 땅과 하늘을 규제하시는 명령권자이십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전능하신 힘으로 창조를 하는 유일하신 분이며, 진리로서 분별을 하시고, 이슬람교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로 하여금 그 백성들을 영예롭게 하셨습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내 딸 파티마를 알리 빈 아비 탈립과 결혼시키도록 명령하시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하여 이제 나는 은(**銀**) 4 백 미스깔의 혼인예물로 파티마와 알리가 결혼하였음을 증언합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이 두 사람을 결합시키고 이렇게 하심으로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이들의 자손들은 순결하고, 영광의 열쇠이며, 진리의 보고이며, 무함마드

의 백성임을 확신합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대들을 용서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자 알리 성인이 일어나 다음과 같이 낭송하였다. "나는 우리 앞에 계신 예언자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에게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축복받은 그분의 딸 파티마를 은 4 백 미스깔의 혼인예물로 결혼을 선언하였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말씀을 듣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 역시 이를 증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합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이 모든 것의 증인이시며 우리의 대리인이십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신선한 대추야자를 가져와 모두 함께 먹게 했다. 빌랄 성인이 벌꿀물를 나누어 주었으며, '알라후 테알라께서 이 두사람을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고,

알라후 테알라께서 모든 축복된 것을 선사하시고, 두 사람이 서로서로 행복하게 이끄시리라.'라 축복을 기도하며 모든 교우들은 이를 마셨다. 파티마 성인은 이슬람의 규정에 따른 혼인을 마친 후에 흐느끼고 있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다가와서 말했다. "오, 파티마! 무슨 일이냐, 왜 울고 있느냐?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하건대, 너는 가장 지혜롭고 관대한 초기에 무슬림이 된 사람과 결혼했도다." 파티마 성인이 대답했다. "오, 사랑하는 아버지! 결혼하는 여자의 혼인예물이 금이나 은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저의 결혼예물도 그런 방식으로 결정된다면,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의 날에 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은 무슬림들을 위해 중재에 나서시겠습니까? 저는 그들의 아내들을 위해 중재에 나서고 싶습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파티마 성인의 요청을 들어주시겠다고 알려주시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오, 파티마! 네가 예언자의 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도다!"
알리 성인이 이렇게 설명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은 뒤로 한 달이 지났다. 혼인 후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수줍음과 망설임 때문에 나는 말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가끔 한적한 곳에서 나를 만날 때마다 말하였다. "네 아내는 정말 훌륭한 여인이다. 그녀는 이 세상 어떤 여자보다 우수하니 네게는 기쁜 소식이니라." 라 하였다. 다시 한 달이 지났을 때 알리의 형제 우까일 성인이 말했다. "오, 알리! 우리는 이 결혼에 정말 만족합니다. 단지 바라는 게 있다면 두 사람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알리 성인이 말했다. "나 또한 그리되기를 원하지만 부끄러움 때문에…" 우까일 성인은 알리 성인의 손을 잡고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 집으로 갔다. 그들은 거기에 도착해서 예언자의 여자노예 움무 아이만을 만났다. 그들은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이 때문에 여기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부인들과 이 문제를 상의한 뒤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부인들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답니다." 움무 아이만은 예언자의 부인들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했다. 그런 뒤 그들은 아이샤 성인의 집으로 갔다. 카디자 성인을 회상하며 "카디자 부인이 살아있었다면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것입니다." 라 했다. 거기에 와 있던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울면서

말하길 “카디자 같은 부인이 어디있던가? 대중들이 나를 거짓이라고 할때, 나를 믿었고, 모든 재산을 나의 길에 바쳤다. 이슬람교에 큰 공헌을 하였다. 사별전에 알라후 테알라께서 말씀하시길, 카디자에게 천국에 별장을 마련해 놓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부인들은 예언자에게 알리 성인이 원하는 바를 전하였다. 이 말을 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움무 아이만에게 알리 성인을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알리가 도착했을 때 부인들은 자리를 피하고 없었다. 알리가 인사를 하고 앉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물었다. “그대는 그대 아내를 원하는가?” 알리는 즉시 “그렇다” 고 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아스마 빈티 우마이스에게 말했다. “가서 파티마의 집을 단장하여 집들이 준비를 하라.”

그리하여 아스마는 파티마 성인의 집에 갔다. 신부를 맞이할 집에 그녀는 먼저 세 개의 방석을 준비했다. 하나는 새 가죽으로, 또 하나는 기운 가죽으로, 나머지 하나는 대추야자 섬유를 덧댄 골풀 멍석으로 만든 것이었다. 밤 예배가 끝난 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파티마의 집으로 가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우리의 예언자는 알리 성인이 가져온 돈의 3 분의 2 로 음식과 장식물, 그리고 향수 등을 구입하고 3 분의 1 로 의복을 사게 하여 가정용품을 거의 마련하도록 했다. 파티마 성인의 살림살이는 아스마가 준비한 세개의 방석, 수술이 달린 바닥 깔개, 대추야자 잎으로 채워진 베개, 두 개의 손 방아, 두 개의 가죽 물통, 흙으로 만든 물 단지, 물 그릇 하나, 수건 하나, 치마 하나, 말려서 만든 양 털가죽, 바래서 털이 없어진 에티오피아 양탄자, 대추야자 잎으로 만든 멍석이였다. 에티오피아식 의복 두 벌, 양단 이불이 포함되어 있다. 예언자는 알리 성인에게 약간의 돈을 주어 대추야자와 기름을 사도록 했다. 알리 성인은 그때 일을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나는 대추야자를 5 디르함 어치, 기름 4 디르함 어치를 샀다. 나는 그것들을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있는 곳으로 가져갔다. 그분은 음식을 담아 낼 가죽으로 만든 판을 요구했다. 대추야자와 밀가루, 기름, 그리고 요구르트를 혼합하여 어떤 종류의 음식을 준비한 뒤에 내게 말했다. “오, 알리! 나가서 누구든지 손님으로 데려오게.”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손님이 너무 많습니다.” 라 하였다. 온 세상의 궈감. 우리의 예언자가 지시했다. “열 명씩 짝을 지어 들어와 먹을 수 있도록 하게.”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나중에 계산해 보니, 손님은 남녀 모두 7 백 명이었으며, 다함께 배부르게 먹었다.”

움무 아이만의 이야기에 따르면, 알리 성인과 파티마 성인의 집에서 접대가 끝난 후, 예언자는 알리 성인에게 “식사가 끝나자 우리의 예언자가 알리 성인에게 말했다. “오, 알리! 내 딸 파티마가 신부의 신분으로서 그대 집으로 갔네. 나는 저녁 예배가 끝난 뒤 그곳으로 가서 기도를 올릴 것이니 기다려주게.” 알리 성인은 집으로 가 방 한구석에 앉았다. 파티마 성인도 방의 다른 구석에 앉았다. 얼마 후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문을 두드렸다. 나(움무 아이만)는 문을 열었다. 알

바누 코레이자 전투

Όρος Ουχούντ
Μπενί Αμπντούλ-Ασέλ
Χέντεκ Μεβκί
Μπενί Ζαφέρ
Βουνό των Σελ
Μπενί Χάρις μπιν Χαζράτζ
Βράχοι Βακίμ
Μαστζίντ αλ-Ναμπί
Μπενί Γουάκφ
Μπενί Ζουρέικ
Βέμπρε Βράχοι
Κοιλάδα Μπουτχάν
Κοιλάδα Μεχζούρ
Μπενί Κουρεϊζά
Κοιλάδα Μουζεϊνίμπ
Κοιλάδα Ακίκ
Κοιλάδα Μουζεϊνίμπ
Όρος Άιρ
Μπενί Άουφ μπιν Μαλίκ
Κούμπα Μαστζίντ

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물었다. "내 형제가 여기 있는가?" 그때 내가 물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누가 당신의 형제입니까?"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그는 알리 빈 아비 탈립이라오." 내가 다시 물었다. "당신 딸을 형제와 결혼시켰단 말입니까?" 움무 아이만은 이 혼인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그렇소." 그분은 결혼에 있어 장애가 되는 것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을 때임을 지적하려 한 것이다."(알리 성인은 우리 예언자의 숙부의 아들, 즉 사촌형제이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움무 아이만에게 물었다. "아스마 빈티 우마이스도 여기에 있는가?" 그녀가 그렇다고 하자 예언자가 말했다. "그녀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딸을 돌보기 위해 왔군. 그녀에게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예언자는 나왔다. 물 한 그릇을 가지고와 예언자는 축복받은 손을 씻었다. 그 물에 향료을 조금 넣은 후, 파티마 성인을 불렀다. 파티마 성인은 쑥스러워 옷 자락만 쳐다 볼 뿐이었다. 예언자는 물을 파티마 성인의 가슴에, 머리에, 등어리에 뿌리고는 "알라후 테알라께서시여, 돌로 몰아쳐낸 악마의 악행으로부터 그녀와 그녀의 자손들을 알라후 테알라의 보호에 맡기옵니다." 라고 기도하였다. 알리 성인에게도 똑같이 한 후 알리 성인에게 "알라후 테알라의 거룩한 이름과 축복으로 부인의 옆으로 들어가게." 라 하셨다. 방문 양쪽을 닫으시며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알리 성인이 설명했다.

"합방이 이루어진지 4 일 뒤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우리 집을 방문했다. 예언자는 여러가지 조언의 말을 해주었고, 지혜로움이 가득한 그 말로 우리 가슴은 기쁨에 넘쳤다. 그분이 명령했다. "오, 알리! 물을 가져오게." 나는 일어서서 물을 가져왔다. 예언자는 꾸란 구절을 낭송하고 나서 말했다. "이 물을 조금 마시고 약간 남기게." 남은 물을 내 머리와 가슴에 뿌렸다. 그리고는 다시 물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는 파티마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그런 뒤 나를 내보냈다." 그가 나가자 우리의 예언자는 자기 딸에게 알리 성인에 대하여 물었다. 파티마가 말했다. "아버지, 그는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그러나 꾸라이쉬 여자들이 내게 '당신 남편은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오, 내 딸아! 그대 아버지와 그대 남편은 가난하지 않느니라. 모든 땅과 하늘이 그들의 보물과 진귀한 것들을 내게 바쳤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나는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계시는 곳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에 적합한 것만 받아들였다. 내가 아는 것을 만약 네가 안다면, 이 세상은 너의 눈에 비열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보시기에 그대 남편은 첫 번째 교우이다. 그는 이슬람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깊은 지식을 갖고 있다. 내 딸이여!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예언자 가정에서 두 사람을 선택하셨다. 한 사람은 너의 아버지이고, 또 한 사람은 너의 남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에게 복종하고, 그의 명령을 거부하지 마라." 예언자는 파티마 성인에게 조언을 한 후 알리 성인을 불러 파티마 성인을 알리 성인에게 맡기며 말했다. "오, 알리! 그녀의 감정을 잘 보살펴 주어라. 그녀는 나의 일부이니라. 그녀를 잘 대우하라. 만약 그대가 아내를 슬프

게 한다면, 그대는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를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위탁하였다. 자리를 뜰려고 할때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집안 일은 제가 감당하고, 집밖 일은 알리가 감당합니다. 저에게 여자 노예 한 명을 주신다면 집안 일을 돕게 하여, 제가 아주 기뻐하겠습니다." 라 하니, 예언자는 "파티마야, 너에게 여자 노예을 보다 더 좋은 것을 줄까, 아님 여자 노예를 줄까? 하시니, 파티마 성인은 "노예보다 더 좋은 것을 주세요." 라 하니, 예언자가 "매일 잠자리에서 잠을 자기 전에, 33 번의 '수반알라', 33 번의 '알함두릴라'그리고 33 번의 '알라후익바르'다음에, '라 일라하 일랄라후 바다후 라 셰리카 레훌 물쿠 와 레훌 함두 와 후와 알라 쿨리 샤인 카드르'를 한 번 읽으면 모두 100 단어가 된다. 심판의 날 1000 번의 선행으로 기록되리라. 선행의 저울이 더 무거우리라." 하고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딸의 집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 알리 성인과 파티마 성인의 결혼식은 히즈라 후 5 개월 되는 달에 거행되었고, 신부의 집들이는 바드르 성전 후에 이루어졌다.

카아브 빈 아쉬라프의 죽음

바드르 전투에서 무슬림들이 승리함에 따라 메디나에 있던 유대인들과 우상숭배 다신교도들은 두려움에 빠져있었다. 일부 유대인들은 이치에 맞게 행동하여 무슬림이 되었다. "확실히 이 사람의 속성은 우리가 성서에서 읽은 그대로이다. 그는 언제나 승리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이를 부정하였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는 전쟁에 대한 지식이 없는 꾸라이쉬 사람들과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만약 그가 우리에 대적하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기는가를 보여주었을 것이다."

유대인 카아브 빈 아쉬라프는 바드르에서 이슬람 군대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슬림에 대한 적개심을 참지 못해 메카로 갔다. 그는 다신교도들을 모아놓고 메디나 공격을 부추기는 시들을 낭송하였다. 그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와 싸우겠다는 조약을 그들과 체결하였다. 그는 심지어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알려주는 '니싸아 장'의 계시를 내리셨다.
'이들이야말로 알라후 테알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알라후 테알라의 저주를 받은 자는 어떠한 구원자도 없음을 그대는 발견하리라.' (4:52 의 해석)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영광스러운 교우들과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누가 카아브 빈 아쉬라프를 처단하겠는가? 그는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죄를 지었다." 무함마드 빈 마슬라마가 물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제가 그를 죽여도 되겠습니까?"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이를 허락하였다.

무함마드 빈 마슬라마는 숙고하여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다. 그는 친구인 아부 나일라, 압바스 빈 비쉬르, 하리스 빈 아우스, 아부 압스 자브르 등을 찾아가 그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그들은 모두 힘을 합쳐 카아브를 죽이기로 하고, 우리의 예언자를 찾아갔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만약허락하신다면, 당신에 관해 카아브가 좋아할 말을 하고 싶은데괜찮으시겠습니까?"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무슨 말이든 해도 무방하다고 허락하였다.이리하여 무함마드 빈 마슬라마는 그의 친구들과 함께 카아브를 찾아갔다. 그가 말했다. "예언자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이 우리에게 자선금을 요구했습니다.무거운 세금을 우리에게 매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도움을 받고자왔습니다." 카아브는 무함마드 빈 마슬라마가 자기편이 될 것이라고 속으로좋아하며 말했다. "그는 더욱 더 당신을 우려 먹을 것이오."
무함마드 빈 마슬라마가 말했다. "어차피 우리는 그에게 한 번 복종했으니 하는 수 없습니다. 나중에 어찌될지 두고 봅시다. 지금 우리에게 대추야자를 좀 빌려 주십시오." 카아브가 말했다. "예, 빌려드리지요. 그러나 담보물을 나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하자 카아브는 "당신의 부인들을 담보물로 원합니다. 카아브의 이 말에 그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자 카아브는 이번에는 아들들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아이들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소.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낙타 한 두 마리 분량의 대추야자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될 치욕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소.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무기와 갑옷을 저당물로 내놓을 수 있소." 카아브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언제 저당물을 받을지도 약속을 받았다.

어느 날 밤, 무함마드 빈 마슬라마가 아부 나일라 등 친구들을 데리고 카아브가 있는 성터로 갔다. 카아브를 불러냈다. 그의 부인인 "이 시각에 어디에 가시나요?" 라 묻자 "만날 사람들은 무함마드 빈 마슬라마와 형제 아부 나일이요." 하자, 부인이 "듣고나니 썩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피냄새가 납니다." 하자, 카아브가 "이들은 무함마드 빈 마슬라마와 나의 젖 형제, 아부 나일이요. 이들은 좋은 젊은이들로, 밤중에 격투하러 불러도 염려치 않고 나올 사람들이요." 라 대답했다. 한 기록에는 무함마드 빈 마슬라마는 두 사람을, 세 사람을 성터에 숨게했다. 아무 압스 자블, 카리스 빈 아우스, 압바드 빈 비시르였다. 동료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카아브가 오면 내가 그의 머리 향기를 맡는 척 하며 그의 머리를 꽉 잡을 것이니, 그때 칼로 찔러 죽이시오."

카아브 빈 아쉬라프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진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 빈 마슬라마가 말했다. "이런 근사한 향기는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했습니다." 카아브는 거만하게 말했다. "아랍의 가장 향기로운 여성들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오." "냄새를 한 번 맡아봐도 되겠습니

까?" 카아브는 자랑스럽게 이를 허락했다. 무함마드 빈 마슬라마는 냄새를 맡으면서 그의 머리를 꽉 움켜잡았다. 신호를 받은 친구들이 칼을 뽑아 그를 찔렀다. 그는 첫 공격을 당하자 크게 비명을 질렀다. 이때 무함마드 빈 마슬라마가 단도를 뽑아 그의 숨길을 끊었다. 카아브를 처단한 무슬림 영웅들은 즉시 그곳을 떠나 메디나에 도착했다.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전하자 우리의 예언자는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감사하면서 무슬림 영웅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올렸다.

'이들이야말로 알라후 테알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알라후 테알라의 저주를 받은 자는 어떠한 구원자도 없음을 그대는 발견하리라.' (4:52 의 해석)

불신자 카아브 빈 아쉬라프의 죽음은 유대인들을 크게 놀라게 했다. 카아브 같은 저명한 지도자의 죽음으로 볼 때 자신들의 죽음은 시간문제였기 때문이었다. 유대인 대표들은 다음날 아침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찾아갔다.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우리의 귀감인 예언자가 말했다. "그는 항상 우리를 자극하였고, 우리를 공격하라는 시까지 낭송하였소. 만약 여러분 중 누구라도 그 같은 행위를 한다면 그 대한 처벌은 칼뿐이오." 이러한 위협에 두려움을 느낀 유대인들은 다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와 조약을 맺었다.

카이누카 부족의 유대인들

어느 날, 카이누카 부족의 유대인이 어떤 무슬림 부인을 희롱하고 있었다. 이것을 목격한 어떤 교우가 즉시 칼을 빼어들고 그 유대인을 처벌하니, 유대인들이 몰려들어 축복받은 교우를 살해하여 순교하였다. 우리의 예언자는 이 소식을 들은 뒤 카이누카의 시장터로 가서 그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유대인 공동체 여러분! 알라후 테알라께서 꾸라이쉬 부족에 내린 처벌을 두려워하십시오. 무슬림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보내신 예언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들과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미 성서에서 읽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동정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이 맺은 조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온 세상의 귀감에게 도전하였다. "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 전쟁도 할 줄 모르는 민족을 뿌리째 뽑았다는 사실에 너무 우쭐대지 마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과는 다른 용감한 전사들이오. 당신이 우리에게 덤비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전사인지 알게 될 것이오." 그들은 이전의 조약을 깨고 노골적으로 도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브릴 천사가 '안팔 장'의 계시를 전하였다.

'그대가 조약을 체결한 백성으로부터 배반을 두려워한다면, (선전포고 전에) 그들에게 정확하게 정의롭게 (전쟁을 피하자는) 조약을 파기한다는 것을 알리라. 실로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배반자들을 사랑하지 아니 하시니라.' (8: 58 의 해석)

또한 '이므란 장'의 계시가 내려졌다.

'믿음을 부정한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곧 멸망하여 지옥에 모이게 되리라. 그 지옥은 얼마나 대단한 곳이라.'고 말하라.' (3: 12 의 해석)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즉시 군대를 편성하여 카이누카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성채로 진격하였다. 함자 성인이 하얀 깃발을 휘날리며 갔다. 아부 루바바는 예언자의 업무를 대리하기 위해 메디나에 남았다. 무슬림 군대는 카이누카 성채를 포위하였다. "우리는 전사들 중의 영웅들이다" 라고 하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성채에서 화살 한 방 날릴 용기도 내지못하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성문의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었다. 이 상태가 15 일간 계속되었다. 유대인들은 공포에 질렸으며, 마침내 항복하였다. 그들 모두가 죽어야 마땅했지만, 이 세상을 위한 자비로 보내진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그들을 동정하여 다마스커스로 이주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리하여카이누카 부족은 메디나 땅에서 축출되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한편으로는 유대인들과 함께 무슬림인척 하는 압둘라 빈 우바이와 같은 위선자들, 다른 한편으로는 다신교도들에 동시에 맞서야 했다. 또한 그분은 메디나 주변의 다신교 부족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는 노력을 계속했다. 바드르 성전 이후에도 사위크, 가타판, 카르다, 바흐란 등지에서 성전이 계속되었다.

이때에 일정비율의 재산을 적정한 사람에게 희사하며, 자선금의 기부와 종교 경축일에 예배를 올리는 것과 이드 기간중에 희생 동물을 바칠 것을 명령하였다. 예언자의 딸, 움무 굴쑴을 우스만 성인과 결혼시켰다. 예언자는 자이납 빈트 자쉬와 우마르 성인의 딸, 하프사를 부인으로 맞이했다. 한편, 알리 성인의 아들 하산 성인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후다이비야 순례

Μπέλιγ
Γκατφάν
Nüheyl
Χενάκιε
Νασίφ Πηγάδι
Έβσα'
Χάζρατζ
Τζουχάινα
Σεβίκ Παζάρι
Μεδινε-ι Μούνεββερε
Ζού'λ-Χουγουέιφε
Γιενμπού
Χάμρα
Σουλεϊμ
Μπέντρ
Ούμ αλ-Μπερκ
Gıfâr
Βεδδάν
Ράμπιγκ
Κούφα
ΧΙΤΖΆΖ
Μπενί Λιγιάν
Κουντέιντ
Κουντάμε
Χούλεϊς
Χούζα
Χουζέιλ
Ερυθρά Θάλασσα
Ντεχμπάν
Ουσφάν
Τσεμούμ
Μπελντέχ
Ζι-Τουβά
Τζέντα
Χουντεϊμπίγια
Κουράις
Κοιλάδα Ζαχράν
Σεϊλ-ουλ-Κεμπίρ
Χαβίγια
Χεβάζιν
Μέκκα-ι Μουκαρέμε
Ταΐφ
Κινάνε
Σακίφ
Τιχάμε
Μουστάμπε

우후드 전투

메카 다신교도들은 바드르 전투에서의 참패의 교훈을 깨우치지 못했으며, 이에 따른 고통 또한 잊을 수 없었다. 이 전쟁에서 꾸라이쉬 부족은 많은 뛰어난 인물들을 잃었다. 더 나아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무역 통로가 무슬림들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된 것이 그들을 더욱 견딜 수없게 했다.

아부 수피얀이 지휘한 교역단은 갑절의 이익을 거두고 메카로 귀환했었다. 하지만 자본금을 투자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바드르 전투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교역단의 수입은 다신교도들의 회당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

바드르 전투에서 아버지와 형제 등 가족을 잃은 수판 빈 우마이야, 이크리마 아브 자흘, 압둘라 빈 라비아 같은 사람들은 "무슬림들은 우리의 연장자들을 살해했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보복의 때가 왔습니다. 교역에서 올린 수입으로 군대를 모아, 메디나로 진격합시다." 라며 아부 수피얀에게 요청하였다. 반드시 보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부 자흘과 우트바, 샤이바 등 악덕한 불신자들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부 수피얀이 다신교도들의 지도자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들은 다마스커스 무역에서 금화 10 만 개의 수입을 얻었는데, 그 중 절반은 자본금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이익금이었다. 자본금은 원래의 투자자들에게 즉시 반환 지급되었고, 그 이익금은 둘로 나뉘어 집행되었다. 그 이익금의 절반은 무기를 구입하는 데, 나머지 절반은 병사들을 모집하는 목적으로 지출되었다. 또한 별도의 자금이 시인들과 웅변가들에게 지급되었다. 그들은 호전적인 시를 낭송하고 적대감을 부추김으로써 병사들을 선동하였다. 여인들도 탬버린을 연주하면서 그들을 지원했다. 다신교도들의 목표는 무슬림들을 축출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를 살해함으로써 이슬람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인접 부족들을 방문하여 병사들을 모집하였다.

마침내 메카에서는 3 천명의 강력한 군대가 편성되었다. 그 중 7 백 명은 갑옷을 입었고, 2 백 명은 기마병이며, 나머지 보병과 함께 낙타 3 천 마리가 준비되었다. 악사들과 여인들이 함께 한 이 거대한 군대는 아부 수피얀이 지휘를 맡았다. 그의 부인 힌드는 여자들의 지도자로 전쟁을 부추기는데 애를 썼다. 왜냐하면 그녀는 바드르 전투에서 아버지와 두 남동생을 잃었기 때문이다. 전쟁에 참여하려 하지 않는 다신교도 사람들에게 "바드르 전투를 회상하시오. 부인들과 아이들에게 돌아오려고 바드르에서 도망쳐왔지만, 이제부터 도망칠려는 자들은 우리와 먼저 맞서야할 것이오." 라 하며 엄포를 놓았다. 이러게 꾸라이쉬 사람들

을 부추겨 모든 힘을 모아 전쟁의 길로 향하게 했다.

다신교도인 주바일 빈 무팀은 창던지기에 아주 탁월한 솜씨를 지닌 와흐쉬라는 노예를 데리고 있었다. 그의 창은 백중백발 목표물에 명중하기로 유명하다. 힌드와 주바일은 함자 성인에 대한 보복의 열정에 휩싸여있었다. 함자 성인이 바드르 전투에서 힌드의 아버지 우트바와 주바일의 숙부 투아이마를 죽였기 때문이다. 주바일은 그의 노예 와흐쉬에게 말했다. "만약 네가 함자를 죽이면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하겠다." 또 힌드가 와흐쉬에게 말했다. "만약 그를 죽이면 많은 금화와 보석을 주겠다."

'믿음을 부정한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곧 멸망하여 지옥에 모이게 되리라. 그 지옥은 얼마나 대단한 곳이라.'고 말하라.' (3: 12 의 해석)

모든 준비를 마친 꾸라이쉬 군대는 깃발을 올리고 진군을 시작했다. 깃발은 탈하 빈 아브 탈하, 아하브쉬, 우바이흐의 아들 수피얀이 들었다. 예언자의 숙부 압바스 성인은 이러한 군사정보; 700 명의 갑옷을 입은 병사와 200 명의 기마병, 3000 명의 병사와 3000 마리의 낙타에 수없이 많은 전쟁 무기를 실고 전쟁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알리는 서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메디나에 전달하게 하여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했다. 우리의 예언자는 정찰병 몇 사람을 보내어 상황을 예의 주시하도록 명령했다. 이들은 메카로 곧장 떠났다. 불신자들의 군대가 진격해 오고 있다는 정보를 얻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속도를 다하여 메디나로 돌아왔다. 그들이 수집한 정보는 그 편지의 내용과 일치했다.
메디나 측은 곧바로 준비에 착수했으며, 중요 지점에 감시병을 배치하여 적의 급습에 대비하였다. 교우들은 단시간 내 준비를 마치고 가족들과 작별한 후 우리의 예언자 주변에 집결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금요예배를 인도하였다. 설교를 통해 알라후 테알라의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 전쟁에 나서는 것과 알라후 테알라의 길에서 맞서는 것과 이번 전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순교하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기쁨을 선사하였다. 적을 상대로 인내하고 온 힘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알라후 테알라께서 도와주실 것이라 고 전달했다. 곧이어 어디에서 적을 맞아 싸울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논의가 시작되었다. 예언자는 어제 밤의 꿈을 일러주었다. "꿈에서, 내가 아주 튼튼한 갑옷을 입었으며, 내 칼 줄피카르의 가장자리가 열렸다. 나는 목이 잘린 소, 그 뒤에 한 마리의 양이 따라온 것을 보았다." 교우들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꿈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라 묻자 "튼튼한 갑옷의 의미는 메디나에 있으라는 의미다. 칼의 가장자리가 열린 것은 어떤 피해가 생길 것이라는 의미고, 목이 잘린 소는 순교할 교우들을 의미하고, 숫 양을 데리고 온 것은 연합군을 의미하여, 알라후 테알라의 뜻으로 적들을 없애게 될 것이다." 다른 기록에 따르면, "꿈속에서 내 칼이 땅에 꽂혀 부러졌는데, 이는 우후드 전투에서 일부 교우들이 순교할 것을 의미하고, 다시 칼을 땅

에 쳤더니 다시 원상태로 돌왔다. 이는 알라후 테알라의 도움으로 승리를 할 것이며, 진정한 무슬림들이 다시 한자리에 보인다는 의미다." 라 전한다.

예언자는 알라후 테알라의 계시를 받은 후 교우들과 의견을 나누어 최선의 결정을 이끌어 내곤 하였다. 일부 교우들은 '메디나를 사수하는 방어전을 합시다.'라 주장했고, 예언자도 마음 속으로 이에 동의하고 있었다. 아부 바크르, 우마르, 사아드 빔 무아즈 같은 연장자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바드르 전투에 참가하지 못했던 젊고 패기 있는 교우들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전투를 감행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이들은 바드르 전투의 순교자들의 받은 보상을 듣고, 그들이 도달한 높은 지위에 대하여 듣고는 바드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쉬워하던 차 였다. 메디나 밖에서 적들과 가슴을 맞대고 싸우기를 원하였다. 함자 성인, 누만 빈 말릭, 사아드 빈 우바다가 이들에 속했다. 하이사마 성인이 발언을 허락 받아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꾸라이쉬 민족은 주변 민족으로부터 병사를 모집하였습니다. 낙타와 말을 몰고 우리의 땅으로 침입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집과 성을 포위하고 되돌아 갈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화제거리가 되어 용기를 북 돋아, 또 다른 공격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적하지 않는다면 다른 아라비아 민족도 우리를 표적으로 삼을 것입니다. 원컨데,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불신자를 상대로 승리로 이끓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순교자가 생길 것이 명백합니다. 저는 바드르 전투에서 참가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아들이 전투에 참가하기를 열망했기에 우리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아들은 저보다 훨씬 축복을 받아 바드르에서 순교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오, 사도여! 순교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어제 밤 꿈에서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천국의 정원과 냇가를 거늘고 있더군요. 저에게 '천국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하세요. 알라후 테알라께서 약속하신 진실에 도달하였습니다.'라 하더군요. 오, 사도여! 진실로, 내일 아침에 천국에서 아들과 동료가 되는 기쁨을 소원합니다. 나이도 많아 이제 알라후 테알라를 만나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순교하여 아들과 천국에서 동료가 되고자 하오니 알라후 테알라께 기도를 올려 주십시요." 라 간절히 요청하여, 예언자는 이를 거절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였다.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대다수의 의견을 따라 메디나 외곽에서 적을 맞아 싸우기로 결정하였다. "오, 교우들이여! 인내와 고수를 위해 애쓴다면 알라후 테알라께서 도울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확신함과 노력하는 것입니다." 라 하였다. 오후 예배를 마치고 예언자는 축복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부 바크르와 우마르가 뒤를 따라 예언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예언자가 머리에 천을 감고 갑옷과 투구를 입는 것을 도왔다. 칼을 차고 방패를 등어리에 둘러 맸다. 교우들은 집결하여 예언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중, 메디나에서 방어전을 주장했던 교우들이 "예언자는 메디나 밖에서 전투하자는 의견을 내키지 않아 했는데 그대들로 인하여 이를 승락 하였소. 알다시피, 예언자는 알라후 테알라로부터 명령을 받습

니다. 그대들은 이 일을 예언자께 맡겨야 하오. 예언자의 명령을 따라야 하오." 라 하자, 싸우자고 했던 교우들은 후회를 하여 "예언자에게 반대하는 편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라며 예언자의 집을 찾아가 "오, 사도여! 당신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나니, 메디나에서 방어를 원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명령을 반대하여 알라후 테알라의 용서를 구합니다." 라 용서를 빌었다. 예언자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전투를 하지 않고는 입고 있던 갑옷을 벗지 않는다오. 알라후 테알라께서 적들을 끝까지 소멸할 때까지. 그대들에게 할 수 있는 충고는, 내가 내리는 명령을 따르고, 알라후 테알라의 이름을 부르면 인내하고 용감하게 대적한다면, 알라후 테알라께서 도와 주십니다." 라 하였다.

한편, 아므르 빈 자무흐 성인은 집에서 "아들들아, 나를 이 전투에 데리고 가다오." 하니, 아들들이 "아버지, 다리가 불편하신 이유로 알라후 테알라께서 예외로 하셨습니다. 예언자께서 아버지가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대신 싸우겠습니다." 하자, 아므르는 "너희들 같은 자식들이 있다니, 불운이다. 바드르 전투에도 같은 핑계로 천국의 기회를 놓쳤거늘 이번에도 천국의 기회를 놓치게 할 작정이냐?" 하고는 예언자를 찾아가 "당신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나니, 자식들이 몸이 불편한 것을 핑계로 이 전투에서 나를 빼려고합니다. 진심으로 당신과 함께 참전하고 싶습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길에서 싸우다고 순교하여 이 불편한 다리로 천국을 거닐고 있는 모습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니, 예언자가 "그렇소, 아주 좋지요." 라 하니, 아므르는 기뻐하며 출전 준비를 하였다. 압둘라 빈 움미 막툼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메디나에 남았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세 개의 깃발을 내걸어 하나는 캅밥 빈 문지르에게, 또 하나는 우사이드 빈 쿠다이르에게, 나머지 하나는 무사브 빈 우마이르에게 각각 맡겼다. 군대는 약 천 명의 병사로 편성되었는데, 기마병이 두 명이고 갑옷을 갖춘 사람이 백 명이었다.

갑옷을 입은 사아드 빈 우바다, 사아드 빈 무아즈 성인을 선두로 하여 오른쪽에는 무하지르 왼쪽에는 안사르를 이끎고 진격에 나선 예언자는 금요일 오후, 타크비르 소리가 드높은 가운데
경축일에 가듯이 우후드를 향해 행진하였다. 중간에 유대교인들로 구성된 600명의 병사들과 마주 쳤다. 이들은 이단교도의 지도자 우바이데 빈 우바이 빈 사룰의 사람들로 무슬림 군에 합병을 원했다. 예언자는 "이들은 무슬림인가?"
하니, "아닙니다." 라는 대답에, "저들에게 전하거라. 돌아가라 하거라. 우리는 다신교들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이단교도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하룻밤 숙영을 위해 메디나와 우후드의 중간지점인 샤이카인에 멈추었다. 아직 해가 떨어지지 않았다. 군사들 중에는 적과 대적하여 순교을 원하는 어린 청년들도 있었다. 우리의 예언자가 군인들을 살피고 있을

때,
17 명의 어린 청년들을 발견했다. 그들 중에 라피 빈 하디즈는 발꿈치를 들어 크게 보일려고 애쓰자, 주바이르 성인이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라피는 활을 잘 쏩니다." 하여 군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를 본 사무라 빈 준둡이 "저는 씨름으로 라피를 이길 수 있으니, 저도 군에 넣어 주십시요." 하여, 예언자가 미소를 지으며, 씨름을 시켰다. 사무라가 씨름에서 이기자 그를 무하지르 군에 넣었다.

저녁 기도와 밤 기도를 알리는 아잔소리가 빌랄 성인에 의해 아름답게 낭송되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기도를 인도한 후 50 명의 경비대를 편성하고 무함마드 빈 마슬라마에게 지휘를 맡겨 아침까지 지키도록 했다. 교우들은 편안한 휴식에 들어갔다. 그날 밤 예언자를 지키는 임무는 자크반 성인에게 돌아갔다.

한편 꾸라이쉬 군대는 이슬람 군대가 샤이카인에서 숙영하는 것을 알고 아직 무슬림이 되지 않은 이크리마의 기마대가 하라 지역까지 접근하여 정찰한 뒤 곧 퇴각하였다. 여명이 밝아오자 우리의 예언자는 교우들을 깨웠으며, 그들은 우후드 산으로 갔다. 양편의 두 군대가 서로 상대편 진영을 볼 수 있었다. 빌랄 성인이 영혼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침예배를 알리는 아잔을 낭송했다. 무슬림 전사들은 갑옷을 입은 채로 예언자의 뒤에서 아침예배를 올렸으며, 각자 기도를 올렸다. 우리의 귀감은 투구를 쓰고, 이중으로 갑옷을 걸쳐 입었다.그 때에 위선자들의 우두머리인 압둘라 빈 우바이가 말했다. "우리가 여기에 죽으러 왔는가? 우리가 처음부터 왜 몰랐을까?" 그리고는 3 백 명의 위선자들과 함께 메디나로 돌아갔다. 강한 믿음으로, 마음을 단결한, 생명을 바치려고 이 길을 선택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 맹세를 지키려는 병력은 이제 7 백 명이었다. 우리의 예언자는 무슬림 전사들의 진열을 정비했다. 그분은 부대의 후방을 우후드 산이 받쳐주도록 하고, 전방이 메디나 쪽을 향하도록 군대를 배치했다. 오른쪽 날개의 지휘관은 우카샤 빈 미흐산이 맡고, 왼쪽 날개의 지휘관은 아부 살라마 빈 압둘라사드가 맡았다. 사아드 빈 아비왁까스 및 아부 우바이다 빈 자라흐는 전방을 맡아 각각 활쏘는 병사들을 지휘하게 했다. 주바일 빈 아우왐은 갑옷을 입은 병사들을 이끎었고, 함자 성인은 전방의 갑옷을 입지 않은 병사들을 지휘하게 되었다. 미크다드 빈 아므르는 후위부대의 책임자가 되었다.

이슬람 군대의 왼편에는 아이나인 언덕이 위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언덕 위로 좁은 통로가 나 있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이곳을 작전의 기밀지로 생각하고 압둘라 빈 주바일의 지휘 아래 50 명의 활 쏘는 병사들을 배치하였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그들에게 엄격히 명령했다. "우리의 후방을 보호하라.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배치된 지역을 절대로 벗어나지 마라.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다른 명령을 내릴 때까지 절대로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 우리가 적을 패퇴시

켰더라도 움직이면 안된다. 적군이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더라도 우리를 도우려고 움직여서는 안된다. 이곳으로 적의 기병들이 접근하면 화살을 집중적으로 날려라. 화살 공격이 있으면 기병들은 전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내가 이들에게 당부한 사실들에 대하여 당신이 증언 하소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명령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그는 말했다. "우리의 시체를 새들이 쪼아 먹더라도, 내가 사람을 보내지 않는 한 절대로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말라.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설사 우리가 불신자들을 참패시켜 그들을 짓밟고 있더라도 다른 명령이 전달될 때까지 여러분은 자리를 이동해서는 안된다." 그런 뒤 예언자는 본진으로 돌아갔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군대로 돌아가 무슬림 군대의 깃발을 무사브 빈 우마이르에게 맡겼다. 깃발을 든 우마이르 성인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앞에 자리를 잡았다. 한편, 이제 막 혼인을 올린 한잘라 성인이 메디나로부터 우후드에 서둘러 도착하여 무슬림 전사들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이미 3 일 전에 우후드에 도착한 다신교도 군대는 아부 수피얀의 지휘 아래 메디나를 등지고 진을 펼쳤다. 오른쪽 날개의 기마부대는 칼리드 빈 왈리드가 지휘하고, 왼쪽 날개의 기마부대는 이크리마가 지휘를 맡았다. 별도의 기마부대가 있었는데 이는 사프완 빈 우마이야가 지휘를 맡았다고 전해진다. 다신교도의 깃발은 탈하 빈 아비 탈하가 잡았다.

두 군대는 세력에 있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꾸라이쉬 군대가 이슬람 군대에 비해 병력의 숫자나 무기 및 장비에 있어 네 배 이상의 우위를 보였다. 꾸라이쉬 병력들의 환성과 아우성이 들려왔다. 보복의 열기로 여자들은 악기들 치며 노래를 불러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고 우상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우후드 성전과 관련하여 '이므란 장'의 계시가 내렸다.

무슬림 진영에서는, 기도의 소리가 가득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라며 타크비르를 외쳤다. 이슬람의 전파와 보호를 위해 알라후 테알라께 도움을 청하였으며, 예언자는 이 용맹한 교우들, 알라후 테알라의 길에서 전장으로 나선 교우들에게 이에 대한 알라후 테알라의 보상을 알리고 "오, 교우들이여! 숫자로 보면, 열악한 편이 적군을 상대하기가 매우 어렵소. 만약 그대들이 온 힘으로 버티고 참아낸다면 알라후 테알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거요. 왜냐하면,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오…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대들에게 약속하신, 은총을 기원하시오." 라 하고, 우후드 성전과 관련한 꾸란의 '이므란 장'을 낭송하였다

.

"알라후 테알라께 복종하고 선지자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은혜를 받으리라. 서둘러 너희 알라후 테알라께 회개하라. 천국은 하늘과 땅처럼 넓도다. 이는 알라후 테알라를 두려워하는 백성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 재산이 많건 적건, 이는 알라후 테알라께서 부여하심이다. 분노하심을 보이시지 않으시고,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니,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알라후 테알라께서 축복을 내린 자들을 사랑할지다.
바로 그들이 받을 은혜는, 알라후 테알라의 용서와 나무들이 드리워진 시냇물이 흐르는그 천국이라. 그들은 영원히 이곳에 머무리라. 이런한 사람들과 알라후

"그들에게 보상으로 알라후 테알라의 관용이 있을 것이다. 알라후 테알라께 용서를 구하고, 나무들이 우거지고 물이 흐르는 천국이 있어 그곳에서 영생하며, 알라후 테알라와 그분의 사도에게 복종하는 이는 무한한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라." (3:136 의해석)

교우들의 마음은 믿음으로 가득했으며, 그들의 눈에서는 용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들은 순교에 대한 열망을 주체할 수 없었다. 바드르 전투 때와 마찬가지로 알리 성인은 흰색, 주바일 빈 아우왐은 노란색, 아부 두자나는 붉은 색 터번을 머리에 둘렀다. 함자 성인은 낙타 날개의 깃털을 가슴에 꽂았다.

두 군대는 서로 접근했으며, 이제 흥분은 절정에 달했다. 얼마 후 대규모의 전면적 전쟁이 시작될 참이었다. 한편에는 알라후 테알라의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 적수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긴장에 전혀 개의치 않는 무슬림 무하지르들과, 반대편에는 이단종교를 고집하는 이슬람의 적들 사이의 대전이 벌어질 양상이었다.

활의 사정거리 정도에 근접했을 때, 어떤 갑옷을 입은 다신교도가 낙타를 탄 채 앞으로 나섰다. 그는 무슬림 전사 중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서라고 소리쳤다. 그는 모두가 자기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하고 세 번이나 이 같은 요구를 반복했다. 그러자 노란색 터번을 한 키가 큰 무슬림 전사 하나가 전장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그는 예언자의 고모의 아들인 주바일 빈 아우왐이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라며 이슬람 진영에서 주바일 성인의 승리를 기원하는 함성을 올렸다. 주바일은 그에게 접근하여 낙타 위에 뛰어올랐다. 목숨을 건 싸움이 낙타 위에서 벌어졌다. 이때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명령했다. "그를 땅에 떨어뜨려라." 주바일 성인은 이 명령을 받자마자 상대방을 밀어 떨어뜨렸다. 그런 뒤 그 자신도 뛰어내려 갑옷을 입은 그 다신교도의 머리를 베었다. 그러자 다신교도의 기수 탈하 빈 아비 탈하가 전장에 뛰어 들어오며 소리쳤다. "너희들 중 나를 대적할 자가 있느냐?" 이에 무슬림 진영에서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용맹한 전사 알리 성인이 앞으로 나아가 갑옷과 투구로 완전히 무장한 탈하의 머리를 베어 죽였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타크비르를 외치자 모든 교우들

이 이에 목소리를 합쳐 온 천지가 진동하였다. "알라후 아크바르"

다신교도의 깃발이 넘어지는 것을 본 탈하의 형제 우스만 빈 아비 탈하가 전장으로 뛰쳐나왔다. 그는 깃발을 다시 세운 뒤 싸움을 청했으며, 무슬림 진영에서 함자 성인이 이에 응하였다. 함자 성인의 칼이 우스만 빈 아비 탈하의 어깨를 강타하자 깃발을 거머쥔 우스만의 팔이 끊어져 달아났으며, 그는 땅에 쓰러져 이내 죽었다. 그때, 다신교도인 아부 사아드 빈 아비 탈하가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한 채 전장으로 들어섰다. 그는 땅에 떨어진 깃발을 주워들고 이슬람 군대를 향하여 외쳤다. "나는 꾸삼의 아버지다. 누가 내게 대적하겠는가?" 우리의 예언자는 다시 알리 성인을 내보냈다. 알리 성인은 그 다신교도 역시 죽여 그들의 깃발을 땅에 떨어지게 한 뒤 무슬림 전사의 대열로 돌아왔다.

그러자 다른 다신교도들이 차례로 앞으로 나와 깃발을 다시 세우고 싸움을 청해왔다. 그러나 용감한 교우들은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허락 아래 계속 승리를 거두었고, 적의 깃발이 땅에 떨어질 때마다 타크비르의 함성이 진동하는 가운데 다신교도들은 크나큰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혔다. 다신교도 여인들은 부산을 떨며 자신의 병사들에게 모욕을 주었다. "부끄러운 줄 알라!" 동시에 그녀들은 전투를 개시하라고 윽박질렀다.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라 했다. 이러는 동안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다음의 구절이 새겨져 있는 칼 한 자루를 보여주었다. "비겁에는 부끄러움이, 전진에는 영예가 있다. 그 누구도 두렵다고 해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라 읽으며 예언자는 "누가 이 칼을 가지겠는가?" 물었다. 무슬림 전사들은 이 소리를 듣자 모두 손을 뻗쳐 서로 칼을 갖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우리의 예언자는 다시 물었다. "누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지불하고 이 칼을 가질 것인가?" 교우들은 조용해졌으며 뒤로 물러났다. 충심으로 그 칼을 갖기를 원한 주바일 빈 아우왐이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제가 갖겠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주바일 성인에게 칼을 주지 않았다. 아부 바크르나 우마르, 그리고 알리 성인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부 두자나가 물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그 칼을 가지기 위한 응당한 대가는 무엇인지요?"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대답했다. "그에 대한 의무는 칼이 구부러질 때까지 적을 치는 것이다. 그에 대한 의무는 불신자들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알라후 테알라께서 승리 또는 순교를 허락할 때까지 싸우는 것이다." 아부 두자나가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나는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칼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언자는 칼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아부 두자나는 매우 용감하고 영웅적인 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장에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행동하였으며, 하디스의 가르침을 완벽하고 충실하게 이행하였다. "전쟁은 속임수이다." 그는 칼을 받아들고 전장을 향해 거들먹거리는 몸짓으로 걸어갔다. 전통적 복장인 긴 윗옷을 입고 머리에 붉은 터번을 두른 채, 칼에 새겨진 구절을 낭송하며 전장으로 걸어 나갔다. 교우들은 아부 두자나의 거만한 태도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이에 대해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말했다. "저러한 걸음

걸이는 이런 싸움터에서가 아니라면 알라후 테알라의 노여움을 샀을 것이다." 그리하여 예언자는 오로지 전장에서 적군에 대해서만은 그런 거만한 걸음걸이가 허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테알라와 그 분의 사도에게 복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여한 은총이 그 얼마나 좋은 것인가?" (3:132-134 의 해석)

다신교도의 대열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된 칼리드 빈 왈리드가 휘하 병사들을 이끌고 공격을 시작했다. 우리의 예언자 또한 격앙된 교우들에게 공격을 명령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를 외치는 소리가 전장을 가득 채웠다. 맨 먼저 함자 성인이 이끄는 갑옷을 입지 않은 병사들이 적을 향해 돌진했다. 함자 성인은 갑옷도 없이 앞으로 나서는 적들에게 칼을 휘둘렀다. 적개심으로 나선 칼리드 빈 왈리드의 병사들이 즉시 격퇴되었다. 이 때 칼리드는 산골짜기를 통과하여 무슬림 진영 후방을 공격하기 위해 아이나인 언덕을 향해 진격했다. 그러나 압둘라 빈 주바일 성인과 50 명의 용사들은 맹렬한 화살공격으로 그들을 물리쳤다.

이제 전투는 열기를 뿜어 양쪽 진영이 총력전에 돌입하였다. 교우들은 한 사람 당 최소 네 명의 적을 상대로 분투하면서 앞으로 전진을 시도했다. 함자 성인은 한편으로는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알라후 테알라의 용감한 전사이다." 라 외치며, 적들을 베면서 전진했다. 사프반 빈 우마이야는, 주변을 돌아보며 "함자가 어디에 있는냐? 그를 찾아다오." 라며 전장을 살폈다. 한 순간 두개의 칼을 휘두르는 병사를 보았다. "저 자가 누군가?" 하니 주변에서 "바로 찾고 있던 함자요!" 하였다. 사프반은 "나는 오늘까지, 우리 민족을 살해하려고 이렇게 열성을 보이는 자를 본 적이 없다." 라 말했다.

한편 무슬림 진영의 주바일 빈 아우왐은 칼을 얻지 못한 슬픔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서 칼을 원했지만 아부 두자나에게 그 칼을 주었다. 어쨌거나 나는 예언자의 고모인 사피야의 아들이다. 게다가 내가 제일 먼저 요구했지 않은가? 아부 두자나가 나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지 보아야겠다." 그는 아부 두자나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아부 두자나는 "알라후 아크바르!" 를 외치며 마주치는 적을 무찌르고 전진하고 있었다. 이 때 몸집이 거대하고 눈만 빼고 온몸을 갑옷으로 감싼 다신교도가 맹렬하게 공격해 왔는데 그 칼이 아부 두자나는 그의 칼을 방패로 막았다. 아부 두자나가 반격하여 일격에 그를 찔러 죽였다. 아부 두자나는 대적하는 불신자들을 베어 눕히면서 산비탈 가까이 적의 진영에 접근했는데, 거기에는 탬버린을 연주하면서 다신교도들을 응원하는 여인들이 있었다. 그는 칼을 들어 올렸으나 마음을 바꾸어 아부 수피얀의 아내인 힌드를 죽이지 않았다. 주바일 빈 아우왐은 이를 보고 혼잣말을 하였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와 그의 사도는 누구에게 칼을 주어야 하는지 나보다 더

초대장

잘 알고 계셨다. 나는 전쟁터에서 그보다 더 훌륭한 전사를보지 못했다."

미크다드 빈 아스와드, 주바이르 빈 아우왐, 알리 성인, 우마르 성인, 탈하 빈 우바이둘라, 무사브 빈 우마이르 등은 넘어 설 수 없는 성벽 같았다. 예언자가 적들과 아주 가까이서 싸우고, 지속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것을 본 교우들은 참지 못하고, 예언자에게 해가 닥칠까 하여 주위로 모였다. 갑옷 속에서 적들에게 눈 뜰 새도 주지 않고 공격하였다. 이런 와중에 압둘라 빈 아므르 성인이 우후드 전투에서 첫 순교자로 숨졌다. 교우들이 이를 보고 용맹한 사자와 같이 용맹스럽게 적진 중앙으로 돌진하였다. 전장은 열기가 점점 더해지고, 영웅 압둘라 빈 자쉬와 활의 명사, 사아드 빈 아브 와카스 성인이 마주쳤다. 사아드 성인은 이렇게 술회했다; "우후드에서 전쟁이 고도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압둘라 빈 자쉬가 내 곁으로 뛰어들었다. 내가 이르기를 "지금 당신은 여기서 기도를 하고,

나는 'A min'이라 하겠소. 내가 또 기도를 할 테니, 당신은 아민이라 하시오." 하여 나는 이렇게 기도를 올렸다. "알라후 테알라, 저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적들을 제게 보내십시요. 단 칼에 그들 모두를 헤치우고 전쟁영웅으로 귀향하게 해 주십시요." 그가 나의 기도를 듣고 온 마음을 다해 '아민'이라 했다. 이번에는 그가 기도를 올렸다. "알라후 테알라, 저에게 아주 어려운 적을 보내시어 단칼에 베어 전투가 무엇인지를 보이겠습니다. 모두를 헤친 다음, 저를 순교하도록 해 주십시요. 그 누구로 하여금, 나의 귀와 코와 입을 베게 하십시요. 그리고 알라후 테알라의 곁으로 불러 주십시요. 당신께서 만약 '압둘라, 너의 귀와 코와 입을 어찌 했는냐?'라고 물으신다면, '알라후 테알라, 저는 이것들로 많은 나쁜일을 저질렀습니다.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 알라후 테알라 앞으로 가져오기가 민망하였사옵니다. 사랑의 사도가 동참한 전쟁의 흙속에 버리고 왔습니다'라 하겠습니다." 내 심정은 그 의 기도에 '아민'하고 싶지않았지만, 이미 그에게 약속을 한 터라 어쩔수 없이 '아민'이라 하였다. 이후 칼을 뽑아 들고 전쟁속으로 다시 돌진했다. 우리 둘은 맹렬히 싸웠다. 그는 용감하게 공격했고 적의 행렬에 개의치 않고 싸웠다. 다가 오는 적마다 칼을 휘두르고 순교를 하고자 하는 열의에 다시 공격하고 공격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라며 싸우다가 칼이 부러졌다. 그 순간 예언자가 대추야자 자루를 던져주며 싸우라 하였다. 이 대추야자 몽둥이는 칼로 변하여 많은 적을 죽이는데 기여했다. 전쟁이 막바지로 접어 들었을 때, 아불 하캄이라는 불신자가 쏜 화살에 맞아 기도했던 그 기쁜 순간을 맞이 했다. 적들은 그의 귀와 입과 코를 잘라 시신이 피 범벅이 되었다."

무하지르 진영에서는 칼이 부러진 쿠즈만이 "죽음은 도망보다 훨씬 훌륭하다!" 라며 부러진 칼을 들고 적들사이로 달려 들어 열광적으로 싸워 7-8 명의 불신자들을 처단하고, 끝내 땅에 쓰러졌다. 이러한 그의 용감함에 놀란 교우들이 예언자에게 알리자 "그는 지옥으로 갈 것이요" 하였다. 카타다 빈 누만 성인이 "여보시오, 쿠즈만! 은혜를 받은 것을 축하하오." 라 하니, 그가 "나는 종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메카인들이 메디나에 와서 우리 대추야자 밭을 망치를 것을 막기 위해 싸웠소!" 하고는 활로 손목를 찔러 자살했다. 예언자가 지옥행이라 한 이유가 이것이었다.

전투 초반부터 모든 교우들이 놀라운 용기로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기 때문에 다신교도 군대는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돌과 나무로 만들 우상들 '랏, 우짜, 후발'로부터 도움을 청한 다신교도들은 무하지르 무슬림들의 용감한 투쟁에 도망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싸움을 독려하기 위해 왔던 여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 병사들을 쫓아가기에 바빴다. 꾸라이쉬 다신교도들이 그들의 군수물자를 버려두고 메카 방향으로 달아나기 시작하자 무슬림 전사들은 기뻐하며 알라후 테알라를 찬미하였다. 승리로 이끄신 하니님께 감사를 드렸다. 숫적

으로 또 전쟁 무기로 봤을 때, 몇 배로 우수했던 불신자들은 이슬람 군대에 참패를 하였다. 서로 앞을 다투어 도망쳤다. 우리의 영웅적 교우들은 이들을 추격하여 죽였다. 막 혼인을 올렸던, 한잘라 빈 아부 아므르 성인은, 말을 타고 도망치던 아부 수피얀을 추격하여 말의 다리를 쳐서 넘어뜨렸다. 땅에 떨어진 수피얀은 있는 힘을 다해서 "꾸라이쉬 병사들이여! 빨리 오시오!... 나는 아부 수피얀이요! 한잘라가 나를 칼로 베려하오!..." 라고 비명을 지르자, 그와 함께 도망을 치려던 자들이 이를 보고도 목숨을 구하기 바빠, 그를 모른척 하였다. 하지만, 한잘라 성인의 바로 뒤에, 다신교도 샤드다드 빈 아스바드가 창을 던져, 한잘라 성인의 등어리에 꽂혔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라 하고 업적을 세우려 했을지라도 그대로 땅에 쓰러져 천국으로 들어갔다. 예언자는 "나는 한잘라를 천사들이 은 쟁반에 빗물으로 그를 씻기는 것을 보았다오." 하였다. 아부 우사이드는 이렇게 술회했다. "예언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한잘라의 곁으로 갔다. 이마에서 비가 떨어지고 있었다. 예언자에게 돌아가 이를 알렸다. 예언자가 '가실 울 말라이카[34]' 라 하였다."

다신교도들이 퇴각하는 것을 보고 아이나인 통로의 대부분 궁사들이 자리를 이탈하였다. 그들은 이제 전쟁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의 지휘관인 압둘라 빈 주바일과 열두 명의 전사들은 그곳에 남았다.

알리 성인의 영웅성

꾸라이쉬 궁사 부대의 지휘관인 칼리드 빈 왈리드는 산골짜기 통로의 무슬림 병사들 숫자가 확 줄어든 것을 보고 휘하의 기마병들을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이동하려 시도했다. 얼마 후 그들은 이크리마 빈 아비 자흘과 함께 아이나인 통로에 도달했다. 교우 압둘라 빈 주바일과 그의 충직한 동료들은 정렬하여 대오를 이루었다. 그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화살을 적에게 퍼부으며 영웅적으로 싸웠다. 화살이 떨어지자 창으로 방어하며 "하니님께서는 위대하시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를 외치며 마지막으로 칼을 빼들고 백병전을 벌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군대와 적군의 세력은 1 대 25 의 엄청난 불균형을 이루었다. 교우들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모두 쏟아 예언자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분투하였다. 다신교도들은 압둘라 빈 주바일 성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몸에 창을 꽂아 분풀이를 하였다. 그들은 압둘라 성인의 배를 갈라 내장을 모두 끌어내는 만행을 저질렀다. 다신교도 칼리드 빈 왈리드와 이크리마는 무슬림 전사들을 통로에서 몰살시킨 후 곧바로 이슬람 군대의 후방전선을 공격했다. 교우들은 미처 전열을 재정비할 기회도 없이 후방의 적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교우들은 이미 무기를 손에서 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모든 상황이 순쉽간에 돌변했다. 전방에서 퇴각하던 다신교도 병사들은 칼리드가 후방에서 공격을 펼치는 것을 알고 다시

[34] 천사들이 세정을 해주다

전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무슬림 전사들은 전후방 양쪽의 공격에 직면하게 되었다. 교우들은 서로 연결이 되지 않은 채 뿔뿔이 흩어졌다.

알리 성인은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나는 이크리마 빈 아비 자흘이 있는 다신교도 부대의 중심부로 뛰어 들어가 그들을 찔러 죽였다. 다른 부대로 쳐들어가 그들도 베었다. 내 생명의 기한이 아직 다하지 않았던지 내게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잠시 동안 나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볼 수 없었다. 나는 생각했다. ‘전장을 포기할 그런 분이 아니다. 아마도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우리의 저지른 과오 때문에, 그분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셨으리라.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다.’하고 칼집을 자르고는, 다신교도들을 향해 돌진하여 모두를 없앴다. 와중에 예언자가 이들안에 있는 것을 보았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그분을 지키게 하신다는 걸을 확신했다.” 적군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 바짝 접근해 있었으며 상황은 매우 위태로웠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았으며, 마치 일개 단위 부대처럼 버티고 있었다. 예언자는 적군과 싸우고 있으면서도 흩어진 교우들을 모으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었다. “오, 여길 보게!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 나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이다! 나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천국이 열려있다!” 아부 바크르 성인, 압둘라흐만 빈 아우프, 탈하 빈 우바이둘라, 알리 빈 아비 탈립, 주바일 빈 아우왐, 아부 두자나, 아부 우바이다 빈 자라흐, 사아드 빈 무아즈, 사아드 빈 아비 왁까스, 합밥 빈 문지르, 우사이드 빈 후다이르, 사흘 빈 하나프, 아심 빈 타비트, 카리스 빈 심마 등이 순식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 주위를 둘러싸고 마치 성벽처럼 방어진을 구축하였다.

이러는 사이 압바스 빈 우바다 성인이 흩어진 교우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 나의 형제들이여! 우리에게 닥친 이 재앙은 우리가 예언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흩어지지 마라! 우리의 예언자가 있는 곳으로 집결하라! 만약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해가 미친다면 무엇이라 알라후 테알라께 변명할 것인가!” 압바스 빈 우바다 성인은 카리자 빈 자이드, 아우스 빈 아르캄과 함께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를 외치며,
예언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 영웅적으로 싸웠다. 카리자는 열아홉 군데의 상처를 입었으며 다른 성인들도 무수한 상해를 당한 채 순교자의 반열에 올랐다.

이처럼 위태로운 순간에 교우들은 하나씩 둘씩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다신교도들은 사방에서 공격을 퍼부었으며, 교우들은 예언자를 원형으로 둘러싸고 방어하였다. 적들의 공격으로 원형 방어선은 좁아지고 있었다. 한 무리의 다신교도 부대가 앞으로 돌출하며 공격해오자 온 세상의 귀감인 예언자는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누가 이 자들을 대적할 것인가?” 이때 와흐브 빈 카부스 성인이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위해 이 한 몸이 희생되

게 하소서!" 예언자는 "너는 천국으로 가리라." 라며 축복을 기원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이름을 부르던 그는 칼을 뽑아들고 적진 속으로 몸을 던졌으며, 영웅적인 전투를 벌였다. 그를 지켜보던 예언자는 "알라후 테알라께서시여! 그에게 자비를 내리고 불쌍히 여기소서." 라 하였다. 다신교도들은 그를 둘러싸고 창으로 찔러 순교하게 했다. 사아드 빈 아비 왁까스가 이를 보고 튀어나가 적진 속으로 몸을 던졌으며, 많은 불신자들을 살해하였다. 그는 다른 불신자들을 뒤로 재끼고는 예언자 쪽으로 왔다. 예언자는 왁까스 성인에게 "나는 그대에게 만족하였노라. 알라후 테알라께서도 그대에게 만족하시리라." 하였다.

적군이 무슬림 전사들의 방어망 한쪽을 무너뜨리고 자신에게 접근해오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알리 성인에게 말했다. "그들을 공격하라!" 알리 성인이 공격에 나서 아므르 빈 압둘라를 죽이고 나머지 적들을 패퇴시켰다. 그의 칼이 부러지자 예언자는 자신의 칼 '줄피카르'를 주며 "오 알리! 나를 이들의 악행으로부터 지켜라." 라 하였다. 알리 성인은 또 다시 공격해오는 적을 즉시 공격하여 샤이바 빈 말리크를 죽이고 나머지 적군들을 저지하였다. 그 순간 지브릴 천사가 와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알리의 영웅적 행위입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대답했다. "그는 나에게서 왔고, 나는 그로부터 왔습니다." 지브릴 천사가 말했다. "나는 당신들 두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때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리와 같은 영웅은 없으며, 줄피카르와 같은 칼도 없느니라."

다신교도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그들이 쏜 화살이 예언자 주변으로 집중되었다. 활들은 위로, 아래로, 앞으로, 뒤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떨어졌다. 적들을 퇴치하려고 생명을 내걸고 싸우던 교우들은 상황이 바뀐 것을 알고 예언자 주위로 집결하여 스스로의 몸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화살로 대응하도록 명령하자 교우들도 적들에게 활을 쏘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사아드 빈 아비 왁까스 성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앞에 앉도록 지시했다. 매우 정확하고 예리한 사수인 사아드 성인은 하나씩 화살을 날리기 시작했다. 화살 통에서 화살 하나를 꺼낼 때마다 그는 말했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이것은 당신의 화살입니다. 적들에게 명중시켜 주소서." 라 하자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 사아드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명중시켜 주소서! 사아드, 계속 쏘아라!" 사아드 성인의 화살이 다 떨어지자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자신의 화살을 그에게 주어 계속 적들에게 공격하게 했다. 사아드 성인의 화살은 하나 하나 적 또는 적이 타고있던 짐승들에 명중하였다.화살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가운데서 아부 탈하 성인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앞에 버티고 서서 자신의 몸과 방패로 화살을 막아내고 있었다. 때때로 그는 벼락같은 함성을 질러 적들을 놀라게 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모든 병사들 중에서 아부 탈하

의 목소리는 백 사람의 소리를 능가한다." 아부 탈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활을 쏘았는데, 그 솜씨가 매우 재빨랐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목표물을 놓치는 법이 없었다. 활을 쏠때마다 예언자는 활이 명중했는지를 확인하고자 머리를 들저 탈하 성인은 "제가 생명을 바치리니, 사도여, 머리를 들지 마십시요. 적의 활이 당신을 해할까 합니다. 내 몸의 당신의 방패입니다. 당신을 위해 바칩니다. 적은 나를 죽이지 않는 한 당신께 다가 올 수 없습니다." 라며 예언자를 자신의 생명보다 선호하였다. 우후드의 온 들판에서 처참한 전투가 맹렬하게 계속되고 있었다. 어떤 교우들은 말을 타고, 어떤 교우들은 걸어서믿음을 부정하는 자들에대항하여 혈전을 벌였다. 교우들은 아직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곁에는 대략 30 명의 무슬림 전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예언자를 치려는 활과 창과 칼에 자신들의 몸을 방패로 하였다. 용사들의 으뜸인 함자 성인은 그 혼란 와중에 우리의 예언자로부터 떨어져 있었다. 그는 양손에 각각 칼을 들고 많은 적들사이에서 좌충우돌하며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를 외치며 적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었다. 그때까지 그는 31 명의 적을 해치운 참이었다. 이때 다신교도인 시바 빈 움무 안마르가 "나에게 도전할 용감한 자가 있는냐?" 하고 함자 성인에게 도전해 왔다. "내 곁으로 오너라, 말하자면 너는 알라후 테알라와 그분의 사도에게 도전한다 이거냐?" 함자 성인은 그의 발을 잡아 내동댕이치고 그의 목을 잘랐다. 그때 함자 성인은 와흐쉬가 건너편 바위 뒤에서 그를 향해 창을 겨누는 것을 보았다. 함자 성인은 곧바로 그를 향해 걸어가다가 홍수로 인해 생긴 구덩이에 빠져 넘어졌다. 이때 그의 배를 감싸고 있던 갑옷이 벌어졌고, 와흐쉬가 이 틈을 노려 그의 창을 날렸다. 그 창은 앞으로 들어가 뒤를 뚫고 나왔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위대한 영웅중의 한 사람인 함자 성인은 이렇게 순교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길에서 그분의 사도를 위하여 생명을 거두었다.

다신교도 진영에서 공격을 부추기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 꾸라이쉬 공동체여!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마시오! 그는 친족들의 권리를 짓밟고 우리 민족을 분열시켰습니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이 산다면, 나는 죽을 것입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심 빈 아비 아우프였다. 아부 두자나 성인은 이 소리를 듣고 즉시 뛰어나가 그를 죽였다. 그러나 다신교도 마바드가 아심의 뒤를 이어 나와서 온 힘을 다 모아 아부 두자나 성인에게 칼을 휘둘렀다. 아부 두자나 성인은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보살핌으로 급히 몸을 숙여 치명적인 공격을 피하였으며, 일어나자 마자 칼로 마바드를 죽였다.

꾸라이쉬 다신교도들의 목표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였다. 그들은 총력을 쏟아 공격을 퍼부었지만 주위를 바람막이처럼 지키며, 위험을 저지하려고 생명도 아끼지 않는 영광스러운 교우들의 방어망을 뚫지 못했다. 이 서른 명의 교우들은 "오, 사도여! 저희 옆에서 꼭 붙으시어 걸으십시요. 당신의 축복받은 몸을 우리의

몸이 막아내고 방패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바치리니, 당신은 상해를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무리의 다신교도가 공격을 해 오자 예언자는 몸을 아끼지 않는 교우들에게 "알라후 테알라의 길에서 누가 저들에게 맞서 몸을 바치겠는가?" 하니, 메디나 교우 다섯 명이 대응에 나섰다. 예언자 앞에서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라며 용감하게 싸웠다. 전투 중에 네 명이 순교하고 나머지 한 명도 온 몸에 열 네 군데의 부상을 입고 땅에 쓰러졌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그를 자신의 곁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고 자신의 축복받은 다리를 뻗어 그 부상자가 베개로 삼아 눕게 하였으며, 그 상태로 그 교우는 순교했다. 그 축복받은 사람의 이름은 우마라 빈 야지드 성인이다.

탈하 빈 우바이둘라의 영웅성

또 다시 다신교도들이 집요하게 접근해오자 우리의 예언자가 물었다. "누가 저들을 대적할 것인가?" 탈하 빈 우바이둘라가 대답했다. "제가 막겠습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자도여!" 하였지만, 예언자는 "그대 같은 다른 지원자가 있는가?" 하니, 어떤 메디나 출신 교우가 출전요청을 하였다. 그는 앞으로 돌격하여 영웅적으로 분투했으며 다신교도 몇 사람을 죽였으나, 결국 자신도 순교의 길을 걸었다. 이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누가 출전할 것인가" 라 물었으며, 탈하 성인이 신청했지만 다시 메디나 원주민 출신의 교우가 "제가 출전하겠나이다." 하고는 출전 허락을 받게 되었다. 그 역시 용감하게 싸워 불신자 몇 명을 처단했지만 결국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예언자 주변의 교우들은 하나씩 순교자가 되었고, 최후에는 탈하 빈 우바이둘라 성인만이 남게 되었다. 탈하 성인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해를 입지 않게 하려고
사방을 돌며 적의 화살과 창과 칼에 맞서 죽을 힘을 다하여 싸웠다. 몸에 들어온 칼들에 여의치 않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보호하고 그분을 위해 다른 교우들처럼 순교하기를 바랬다. 그의 온 몸은 상처투성이였으며, 방패가 되어 피범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 아래서도 그는 사방을 방어하기 위해 칼을 휘둘렀다. 바로 그때 아부 바크르 성인과 사아드 빈 아비 왁까스 성인이 예언자에게로 왔다. 영웅 중의 영웅인 탈하 성인은 피를 너무 많이 흘린 탓에 실신하여 땅에 쓰러졌다. 그는 칼과 창, 그리고 화살 공격에 의해 66 곳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또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얕은 상처를 입었다. 아부 바크르 성인이 예언자의 명령에 탈하 성인의 구조에 나섰다. 의식 회복을 위해 얼굴에 물을 뿌렸다. 탈하 성인이 안전하게 구조되어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오, 아부 바크르, 사도는 어찌되었나요?" 라 물으며 예언자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하였다. 예언자를 사랑하고 그의 생명을 구하려고 몸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었다. 아부 바크르가 "예언자는 무사하고, 그분이 나를 당신한테 보냈소." 하니, 이를 듣고 깊은 숨을 들이 마시며 "알라후 테알라께 끝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살아있다면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 하였다. 그러는 사이

몇 명의 무슬림 전사들이 다시 그들에 합류하였다. 세상의 귀감 예언자는 탈하 성인 곁으로 다가가, 상해를 입은 신앙이 굳은 그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여 눈물을 흘렸다. 예언자께서는 그의 몸을 어루 만지며 "알라후 테알라, 그를 낫게 하시고 힘을 주십시요." 라 기도하였다. 놀랍게도 탈하 성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싸우러 나갔다. 사랑의 예언자는 "우후드 전쟁의 그날, 오른 쪽에는 지브릴 천사, 왼쪽에는 탈하 빈 우바이둘라외에 그 누구도 내 옆에 있지 않았다. 이 땅위에서 천국의 선물을 받은 사람을 보고 싶다면, 탈하 빈 우바이둘라를 보라." 하였다.

온 사방에서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었다. 예언자 곁에는 아부 두자나, 깃발을 들은 무사브 빈 우마이르, 탈하 빈 우바이둘라가, 그리고 예언자를 보호하기 위해 뒤쪽에서 달려와 진열에 끼어든 나시바 하툰과 그 몇 몇 사람들이었다. 사나운 다신교도 압둘라 빈 후나이드가 완전무장을 한 채로 나타나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 앞에 나타나 소리쳤다. "나는 주바일의 아들이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를 내놓아라. 내가 그를 죽이던지, 내가 죽던지 결판을 내자." 그는 말을 탄 채 예언자에게 다가왔다. 아부 두자나 성인이 그를 막아서며 말했다. "오라! 나는 내 몸으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지키는 사람이다. 나를 밟고 지나가기 전에는 그분에게 접근하지 못한다!" 아부 두자나는 상대방 말의 다리를 칼로 쳐서 그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칼로 압둘라 빈 후나이드를 찌르며 말했다. "하라샤의 아들의 칼을 받아라!" 온 세상의 귀감인 예언자는 이 광경을 보고 기도하였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하라샤의 아들에게 복을 주소서!"

말리크 빈 주바일은 다신교도의 명사수로 계속해서 무슬림 전사들을 쏘아 맞히고 있었다. 그는 일찍부터 우리의 예언자를 노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예언자 가까이 접근한 뒤 머리를 겨냥하여 화살을 날렸다. 긴박한 순간에 화살공격을 간파한 탈하 빈 우바이둘라 성인이 팔을 펼치며 자신의 몸으로 막아섰다. 화살은 탈하 성인의 손바닥에 맞아 그의 손가락은 신경과 혈관이 터지고 뼈는 부러졌다. 온 세상의 귀감이 이르길 "만약 (나를 구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막을 때) '비스밀라'라고 읊었다면, 사람들이 너를 지켜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너를 하늘로 오르게 하였을 것이다." 라 하셨다.

네 명의 메카 다신교도, 압둘라 빈 카미아, 우바이 빈 할라프, 우트바 빈 아비 왁까스, 그리고 압둘라 빈 쉬하바 주흐리 등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죽이기로 맹세하였다. 이 어려운 시기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교우들과 함께 적들을 맞아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예언자 앞에는 이슬람의 기수 무사브 빈 우마이르가 있었는데, 그는 갑옷을 입은 모습이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와 비슷하였다. 오른 손에 깃발을 들고서도 다신교들과 결렬하게 투쟁하였다. 이때 갑옷으로 무장한 다신교도 이브니 카미아가 말을 타고 접근했다. 가장 큰 목소리로 "나에

게 무함마드(알라히살람)가 어디있는지 말해라. 그를 죽이지 못한면 내가 죽을 것이다." 라 고함을 치더니, 예언자 쪽으로 말을 돌려 다가왔다. 무사브 성인과 나시바 부인이 예언자를 지키며 그에 맞 대항했다. 이 다신교도를 칼로 아무리 쳐도 갑옷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 다신교도는 나시바 부인의 어깨를 벤 뒤 기수인 무사브 성인의 오른손을 절단하였다. 무사브 성인은 왼손으로 깃발을 잡아 떨어지지 않게 고정시켰다. 그 순간 그는 '이므란 장'의 계시를 읊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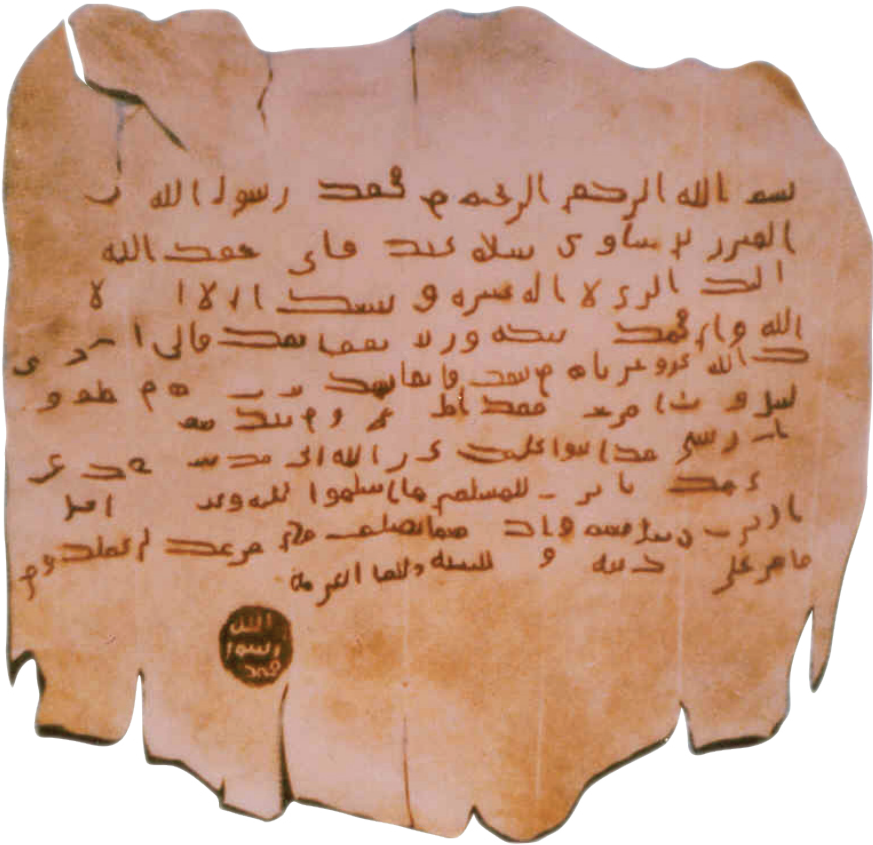
'무함마드(알라히살람)는 한 선지자이며 그 이전에도 선지자들이 있었노라.'
(3:144 의 해석).'

이때 압둘라 빈 카미아가 무사브 성인의 왼손도 칼로 절단하였다. 양손이 절단된 영광스러운 기수는 이슬람의 깃발을 포기하지 않고 잘려진 팔로 깃발을 부둥켜 안고 계속 휘날리게 하였다. 마침내 그는 온몸을 창으로 찔려 순교하였다. 무사브 성인이 쓰러졌어도 영광스러운 이슬람 깃발은 우뚝하게 서서 여전히 휘날리고 있었으니, 이는 무사브의 형상을 한 천사가 깃발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명령했다. "전진하라, 무사브여!" 그러자 깃발을 잡은 천사가 말했다. "나는 무사브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언자는 그가 천사임을 알아보고 깃발을 알리 성인에게 맡겼다.

압둘라 빈 카미아는 무사브 성인을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서둘러 다신교도 진영으로 가서 "내가 무함마드(알라히살람)를 죽였다!" 고 외쳤다. 다신교도들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기쁨으로 더욱 기세를 올렸다. 반면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었던 무슬림 전사들은 크나큰 슬픔과 절망에 휩싸였다. 우마르 성인마저 전투를 포기하고 동료들과 땅에 주저앉아 버렸다. 이때 아나스 빈 나드르가 그들에게 물었다. "왜 앉아 있소?" 그들이 대답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아나스 성인이 말했다. "만약 그분이 순교했더라도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영원하십니다. 일어나시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잃고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 또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목숨을 바친 것을 위해 우리도 목숨을 바쳐 싸워야 합니다." 그는 칼집을 부셔버린 뒤 적진으로 돌진하여 장렬하게 순교했다.

많은 교우들이 뿔뿔이 흩어졌으며, 상당수가 순교하였다. 다신교도들은 우세를 확보한 가운데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있는 곳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돌과 칼로 공격을 퍼부었으나 예언자는 이중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 이때 우트바 빈 아비 왁까스가 던진 돌이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의 얼굴과 아랫 입술에 맞아 상처를 입혔으며, 그분의 아래턱 오른쪽 송곳니가 부러졌다. 바로 그때 다신교도 압둘라 빈 카미아가 다시 나타나 칼로 예언자의 머리를 강타하였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의 투구가 박살이 나면서 그 두 개의 고리

가 관자노리에 박혀버렸다. 다시 어깨에 칼을 맞은 예언자는 무슬림들을 빠뜨리기 위해 아부 아미르가 판 깊은 구덩이로 굴러 떨어졌다. 예언자는 “알라후 테알라께서 너를 처벌하고 파멸하리다.” 라 기도하였다. 압둘라 빈 카미아는 기쁨에 넘쳐 소리 질렀다. “내가 무함마드(알라히살람)를 죽였다! 내가 무함마드(알라히살람) 를 죽였다!” 그는 아부 수피얀에게 뛰어가 이 사실을 알렸다. 다신교도들은 그들의 목적을 성취했다. 이제 그들은 우리의 예언자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예언자가 있는 구덩이를 떠나 다른 곳의 교우들과 전투를 벌였다. 예언자가 구덩이로 떨어질 때, 피가 나는 얼굴을 만져보니 축복 받은 손에 피가 가득 묻었다. 볼과 얼굴이 피 범벅이 된 것을 알았다. 하지만 단 한 방울의 피 가 땅으로 떨어질새라, 지브릴 천사가 급히 당도하여 이 피를 받고 말하기를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알라후 테알라의 권한으로, 만약에 피가 땅에 떨어졌다면 종말의 날까지 이 땅은 풀로 가득할 것이요.” 하니, 예언자가 “만약, 내 피 한 방울이 땅에 떨어진다면, 하늘로부터 처벌이 내려올 것이요. 오, 알라후 테알라께서시여! 백성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이를 모릅니다.” 라 하며, 자신을 죽이려 하던, 축복 받은 몸에 칼을 휘두른, 이빨을 부러뜨린, 그리고 얼굴을 피 투성이로 만든 자가 그 대가를 치르도록 기도를 올렸다. 이때 구덩이를 수색하던 카아브 빈 말리크 성인이 고함을 질렀다. “오, 무슬림들이여! 기쁜 소식이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여기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교우들은 마치 새 생명을 얻은 듯 기뻐하며 그곳으로 달려갔다. 알리 성인과 탈하 빈 우바이둘라 성인이 즉시 구덩이로 내려가 예언자를 밖으로 꺼내었다. 아부 우바이드 빈 자라흐 성인이 자신의 이를 이용해 예언자의 관자노리에 박힌 고리를 빼내었다. 그의 앞니 두 개가 고리를 빼낼 때 뒤틀어졌다. 말리크 빈 시난 성인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얼굴에 묻은 피를 혀로 핥아내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내 피에 자신의 피를 섞은 자에게는 지옥의 불도 범하지 못할 것이다.”

다신교도들이 다시 공격을 개시했다. 예언자와 재회한 교우들은 예언자를 둘러 싸고 공격해 오는 다신교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처단하였다. 예언자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다신교도들은 교우들의 저항이 완강하자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사아드 빈 아비 왁까스에게 그들을 저지하라고 명령했다. 사아드 성인이 물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저에겐 이제 화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들을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같은 명령을 반복했다. 이에 사아드 성인은 화살 하나를 장전하여 적에게 날렸으며, 이는 정확히 적군에 명중하였다. 그가 다시 화살 통에 손을 넣으니 또 다른 화살 하나가 거기에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아까 쏜 그 화살이었다. 또 다른 다신교도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 이 같이 화살 통에 손을 넣을 때마다 이전에 쐈던 화살을 발견하고는 이를 쏘아 명중시켰다. 이렇게 몇 번이나 반복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기적을 일으킨 결

우리의 예언자 무함마드(살 알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가 통치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왼쪽 하단의 인장에는 "무함마드, 메신저, 알라"라는 세 줄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문구는 아래에서 위로 작성됩니다.
은반지의 눈썹에 새겨진 이 인장은 발송되는 모든 초대장 아래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예언자 무함마드(그분께 평화가 있기를)는 이 반지를 황실 인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내세를 존중할 때까지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은 Hazrat Abu Bakr, 그 다음은 Hazrat Omar, 세 번째는 Hazrat Abu Bakr 입니다.

칼리프 시절 오스만의 인장이었습니다. Hazrat Osman은 그것을 6개월 동안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칼리프의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져 에리스의 우물에 빠졌습니다. 온갖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는 찾을 수 없었다.

과였다. 잇달아 사망자가 속출하자 다신교도들은 산에 오르는 것을 포기하고 후퇴하였다. 이들 중, 우바이 빈 할라프라는 자가 말을 타고 접근해 "어디있는냐?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라 고함치자, 교우들이 대적하러 갈려고 했지만 예언자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하리스 빈 심마 성인이 창을 들고 나섰다. 우바이는 말을 돌려 "야, 무함마드(알라히살람)! 네가 죽지 않는다면 내가 죽을것이다." 라며 접근하였다. 머리부터 발 끝까지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있었다. 예언자는 손에 들고 있던 창을 그의 목을 향해 던졌다. 창은 투구과 갑옷사이로 들어가 목에 적중했다. 우바이는 목을 다친 소처럼 말에서 떨어졌다. 갈비뼈가 부러진 그를, 다신교도들이 들고 피난시켰다. 도중에 "무함마드(알라히살람)가 나를 죽였도다!" 라 고함을 지르다가 죽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가까이 모인 교우들과 함께 우후드의 바위산 쪽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예언자는 바위산에 오르고 싶었지만 70 여곳의 칼에 의한 상처로 너무나 탈진하였고 이중갑옷의 무게로 인하여 오를 수가 없었다. 이에 탈하 성인이 예언자를 업고 바위산에 올라갔다. 예언자는 "탈하는 예언자를 도왔기 때문에 천국이 명실상부 하도다." 라고 하였다. 예언자는 기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정오예배를 앉은 채로 올렸다.

산비탈에서 교우들은 사자와 같이 용맹하게 다신교도들을 쓰러뜨렸다. 예언자에게 칼 질을 한 자들을 처참하게 하였다. 하티브 빈 발타가 예언자에게 물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예언자는 대답했다. "우트바 빈 아비 왁까스가 나에게 돌을 던져 내 얼굴과 아랫니를 상했느니라." 하티브 성인은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그 자가 어느쪽으로 갔나요?" 하니, 예언자가 방향을 가르키니그가 다신교도들을 추격하여 우트바의 목을 베었하였다.

다신교도들은 군력을 재정비하여 단합한 무슬림들의 공격을 견디지 못했으며,
70 여명의 사망자를 남기고 전장을 떠나 메카로 출발하였다. 한편 예언자가 순교했다는 거짓 소식이 메디나로 전달되었다. 아이샤 성인과 파티마 성인, 움무 술라임, 움무 아이만, 함마 빈티 자쉬, 쿠아이바 등의 부인들이 서둘러 우후드로 달려갔다. 파티마 성인은 아버지가 상처를 입은 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사랑의 예언자는 딸을 위로하였다. 알리 성인이 자신의 방패에 물을 담아 가져왔다. 파티마 성인은 아버지의 몸을 깨끗이 씻고 피를 지혈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피는 좀처럼 멎지 않았다. 파티마 성인이 짚을 태워 그 재를 상처에 바르자 마침내 흐르던 피가 멈추었다.

예언자는 전장으로 내려갔다. 먼저 부상자들을 가려내어 그들의 상처를 감

싸게 했다. 다신교도들은 몇 몇의 순교자들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참하게 상해를 주었다. 그들의 귀와 코, 그리고 수족을 절단하여 구분이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다. 어떤 사채는 배가 갈라져 있었는데 압둘라 빈 자쉬의 사체도 그러했다. 우리의 예언자와 교우들은 이 광경을 보고 깊은 슬픔에 잠겼다. 이 위대한

이슬람 교우들은 축복의 잔을 마시고, 우후드 땅을 피로 적시고는 천국으로 갔다. 교우들의 처참한 사체를 보고 견딜 수 없이 슬펐다. 예언자와 모든 교우들은 슬픔의 격정에 휩싸였다. 예언자는 눈물을 흘리며 "나는 여기 이 순교자들이 알라후 테알라의 길에서 생명을 바쳤다는 것을 심판의 날 증언하리다. 이들을 피와 함께 묻으시오. 진정으로 그 심판의 날 그들은 상처에서 피를 흘리며 올지니 그 피는 진짜 피로 빨갛고, 냄새가 좋을 것이라." 하였다. 그런 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말했다. "함자가 보이지 않는구려. 어찌 되었소?" 알리 성인이 수색하여 그를 찾아냈다. 우리의 예언자가 그곳에 가서 형언할 수 없는 잔혹한 장면을 목격하였다. 그의 귀와 코, 그리고 수족은 모두 절단되어 얼굴을 식별할 수 없었으며, 그의 내장이 모두 꺼내어져 있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말했다. "오, 함자! 그 어떤 시대, 그 어떤 누구도 당신처럼 고통을 겪은 이가 없었고 또 다시는 없었을 것이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숙부여! 알라후 테알라와 그분의 사도의 용맹한 용사, 함자여!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당신의 영혼을 편히 쉬게 하시리다!" 이 때, 저만치에서 어떤 부인이 오고 있었다. 예언자의 고모 사피야 성인이였다. 그녀도 다른 부인들 처럼, 예언자의 순교 소식을 듣고는 허겁지겁 달려왔다. 예언자는 숙모를 보고 함자의 사채를 보면 이를 감당할 수 없으리라 여기고는, 그녀의 아들 주바이르 빈 아왐에게 "어머니를 되돌아가도록 전하라. 그녀의 형제의 시체를 보지 못하게 하라." 라 지시하였다. 주바이르 성인은 어머니에게로 달려가니, 어머니가 "예언자가 무사하느냐?" 라 물었다. 그때 알리 성인도 같이 따라와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무사합니다." 라 대답하니 울부짖으며 " 그분을 나에게 보여 주시요." 라고 반복했다. 알리 성인이 손짓으로 그분을 가르키니, 이 세상과 사후세상의 태양인 분이 무사한 것을 보고는 매우 기뻐하였다. 이번에는 형제 함자 성인의 상태를 보려고 걸어갔다. 아들 주바이르는 "어머니, 예언자가 되돌아가라 하였습니다." 하니, 사피야 부인은 "그의 사채의 형상을 보지 않고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이미 내 형제의 사체가 잘리고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들었다. 이 모습으로 알라후 테알라께로 갔을 것이다. 나는 이 것보다 더 심한 것에도견뎌냈다. 보상은 알라후 테알라로부터 온다. 알라후 테알라의 뜻을 받들어 인내하고 참아낼 것이다." 라 하니, 주바이르 성인이 예언자에게 알리자 "그렇다면, 보도록 놔두라." 하였다. 사피야 부인은 함자 성인의 곁에서 소리없이 흐느껴 울었다. 사피야 부인은 두 벌의 외투를 가지고 왔었는데 "이것을 내 형제 함자에게 가져왔으니 그를 덮어주오." 라 했다. 이것으로 함자 성인의 수의를 대신 했

'무함마드(알라히살람)는 한 선지자이며 그 이전에도 선지자들이 있었노라.' (3:144의 해석).'

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이슬람의 기수 무사브 빈 우마이르의 시신 곁으로 갔다. 그는 양손이 잘리고 무수한 상처를 입은 탓에 주변이 온통 피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의 예언자는 모든 순교자들을 위해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아흐잡 장'의 계시를 낭송했다.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들이 알라후 테알라께 드린 약속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 중에는 순교할 때까지 싸운다는 그들의 맹세를 다 하는 자가 있으며, 아직 순교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으나 그들은 결코 그들의 결심을 바꾸지 않았느니라." (33:23 의 해석)
그런 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심판의 날에 순교자들은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 앞에서 부활할 것을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인 내가 증언합니다." 하고는 또 "순교자들을 방문하여 선행을 쌓으시요.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컨데, 누구든지 이들에게 문안인사를 전하면, 심판의 날, 여기 순교자들이 당신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안부인사를 할 것이요." 하였다. 무사브 빈 우마이르 성인은 장례식을 위한 수의로 적당한 것을 찾지 못하고는, 자신의 긴 겉옷을 덮으니 위로 댕기니, 발이 보이고, 밑으로 댕기니 머리가 보여 어쩔줄 몰라하니, 예언자가 "머리쪽을 옷으로 덮고, 다리 쪽은 풀로 덮거라." 하였다. 이 행운의 순교자들은 이 세상에서 반 수의를 입고 고별을 하였다. 다른 순교자들은 예배후, 피가 묻은 옷가지들과 함께 2-3 구를 한 곳에 매장했다. 우후드 성전에서 모두 70 명이 순교했는데, 그중 64 명은 메디나 출신 무슬림이었고 6 명은 이주민 출신이었다. 무하지르 출신의 순교자들은 모두 예언자의 친척이라 그 슬픔이 더 했다. 살아있는 교우들을 위로하기 위해 예언자는 "진정으로, 나는 교우들과 함께 순교자가 되어 우후드 산에서 밤을 맞이하기를 원했다. 우리의 형제들이 순교한 순간, 그 영혼을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초록의 새무리들로 하여금 옮기게 하시더라. 그들은 천국의 물이 흐르는 곳으로 와서, 물을 마시고 과일들을 먹더라. 천국의 모든 곳을 보며, 장미 정원에서 날아다니더라. 이후에 알쉬 알라 나무 밑의 금으로 된 촛대 속으로 들어가 밤을 보내더라. 그들이 이렇게 황홀한 먹을 것과 마실것을 보고는 "알라후 테알라께서 우리를 어떻게 접대하시는지 우리의 형제들이 안다면, 전투를 꺼리지 않아 싸움을 두려워하여 적들로부터 피하지 않을 것이다." 라 말하더라. 알라후 테알라께서 "내가 너희들의 상황을 그들에게 알리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꾸란 절을 내리시어 이렇게 알리셨다.

'결코, 알라후 테알라의 길에서 순교한 자들을 죽었다고 생각치 말라.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곁에 있노라.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들에게 순교의 축복을 내리셔서, 모두가 충만한 기쁨으로 천국에서 즐기노라. 아직 순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도다, 그리고 절대로 슬퍼할 것

도 없도다.'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시도다. 그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은총으로 훨씬 더 기쁨을 누리리라.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절실히 믿는 자들에게 축복으로 기쁘게 하실지다.(169-171 의 해석)···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들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오, 나의 백성들이여!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내리리다." 하시니, 그들은 "오, 알라후 테알라, 당신이 우리에게 내리신 보상보다 더한 것이 없나이다. 저희들은 오로지 당신의 보상을 원합니다. 저희는 천국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오직 원컨데, 우리의 영혼을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몸으로 돌려 보내시어 살아나, 당신을 위하여 다시 싸우기를 원합니다." 라 하더라'

이제 거기서 할 일이 모두 끝났다. 전쟁터를 치우고 정비하였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종교를 전파하기 위하여 역대 겪지 못한 아주 치열한 성전이 우후드에서 벌어졌다. 다시는 눈으로 목격하지 못 할 상상을 초월한 교우들의 영웅적 행위들이 증언되었고, 불신자들에게는 또 다른 교훈이 주어졌다.

온 세상의 귀감인 예언자는 그의 축복받은 교우들과 함께 메디나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하라'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예언자는 교우들을 정렬하도록 하고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천국과 영광이 당신에게 속합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시여! 당신이 타락에 빠뜨린 것을 구해낼 힘이 없습니다. 또 옳은 길로 인도한 것을 이로부터 벗어나게 할 힘도 없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기쁘게 하여 주소서. 저희의 마음을 믿음으로 채워주소서. 오, 알라후 테알라, 저희를 무슬림으로 살게 하시고 무슬림으로 죽게 하소서. 저희를 진정하고 정의로운 신앙인들로 하여주소서. 왜냐하면, 이들은 존경과 우아함을 잃지 않고, 종교로부터 이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 알라후 테알라, 당신의 사도를 거짓이라하고 당신의 길을 거부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 맞서 싸우는, 불신자들에게 처벌을 내리소서! 그들에게 마땅한, 실제적인 벌을 주소서!...아민." 이에 교우들도 "아-민" , "아-민" 이라며 기도에 동참했다.

그들 도착할 무렵에 메디나에 남아있던 여자들과 아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호기심과 슬픔 속에 그들은 돌아오는 군대 속에 온 세상의 귀감인 예언자가 있는지 보려고 애썼다. 그들은 세상을 밝힌 그분의 빛나는 얼굴을 보았으며,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감사를 올렸다. 그런 뒤 군대 행렬 속에서 아버지와 남편, 아들과 숙부들을 찾기 시작했으며, 그들을 찾지 못하고는 눈물을 터뜨렸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교우들의 이러한 상태를 목격하고 매우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때 사아드 빈 무아즈의 어머니인 캅샤 부인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다가와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당신이 안전하고 건강하니 다른 어떤 것도 저를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아므르가 숨진 것은 언급하지도 않았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그녀를 위로하면서 말

했다. "오, 사아드의 어머니여! 그대와 그대 가정에 기쁜 소식이다. 모든 순교자들은 천국에서 함께 모여 서로 친구가 되고, 또한 각자의 가정을 위해 중재에 나서게 되느니라." 캅샤 부인이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우리는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따릅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을 듣고 누가 울겠습니까? 생존자들을 위해축복의 기도를 올려주십시오." 이러한 말을 듣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렸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저들의 마음에서 슬픔을 거두어 주십시오. 또한 생존자들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여주소서."

우리의 예언자는 그의 교우들에게 지난 투쟁에서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교우들이여! 이제 우리는 작은 전쟁으로부터 귀환하였으며, 보다 위대한 성전을 시작할 것이다." 그런 뒤 예언자는 모두 집에 돌아가 휴식과 치료에 힘쓰도록 권유하고 자신도 축복받은 가정으로 돌아갔다.

하므라울 아사드 원정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메디나에 돌아온 뒤 다신교도들의 갑작스런 메디나 공격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 다음날 예언자는 상처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떨쳐 일어나 우리 교우들에게 어제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힘이 약해지지 않았음을 알리고 적을 동요시켜 메디나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빌랄 성인에게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적을 추격하도록 명령했다. 오직 이번 우후드 전투에 참가했던 사람만이 나서야 한다.'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이 같은 명령이 전달되자 부상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우들이 준비를 갖추고 나섰다. 중상을 입고 누워있던 압둘라와 라피 형제는 통증과 흐르는 피에도 불구하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초대를 듣고 무슬림 전사들의 행렬에 합류하면서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와 함께 하는성전을 어찌 우리가 놓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그의 영광스러운 교우들과 함께 다신교도들의 추적에 나섰다. 다신교도들은 '라우하'라는 지점에 집결하여 메디나를 기습하기로 결정했음을 무슬림 전사들은 파악하였다. 그들은 추적하라고 명령한 것은 예언자의 또 하나의 기적이었다. 다신교도들은 우리의 예언자가 그들을 향해 진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두려움에 떨며 그 곳을 떠나 메카로 돌아갔다.
우리의 예언자는 '하므라울 아사드'라는 곳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두 명의 다신교도가 붙잡혔다. 무슬림 전사들은 거기서 사흘간 머문 뒤 메디나로 귀환하였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하므라울 아사드에 갔던 그 영광스러운 교우들을 칭송하는 '이므란 장'의 계시를 내리셨다.

'그들이 부상을 입은 후에라도 알라후 테알라와 선지자의 부름에 응하여 정의를 실천하고 사악을 멀리 한다면 크나큰 보상을 받으리라.' (3:172 의 해석)

우후드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를 죽이겠다는 맹세를 했던 다신교도 카미아는 메카로 귀환하였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양들을 돌보러 산에 올라갔다. 산꼭대기에서 양들을 찾았는데 그 중 한 마리가 갑자기 뛰어나와 카미아를 들이받았다. 카미아는 그 충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압둘라 쉬하브 주흐리는 메카로 돌아가는 도중에 하얀 점박이 독사에게 물려 죽었다. 우후드 전투에서 우리의 예언자를 살해하려했던 모든 다신교도들은 알라후 테알라로 부터 벌을 받아 1 년 안에 모두 죽었다.

라지 사건

우후드 성전에서 이름을 떨친 궁사들 중의 하나인 아심 빈 타빗 성인은 다신교도 무사피 빈 탈하와 그의 형제 하리스를 전쟁에서 죽였다. 형제의 어머니 술라파 빈티 사아드는 사무치는 원한을 품고 낙타 백 마리를 아심 성인의 현상금으로 걸었다. 그녀는 아심의 두개골에 술을 따라 마시겠다고 맹세하였다.

또한 리흐얀 가문은 압둘라 빈 우나이스에게 자신의 일족인 칼리드 빈 수프얀이 살해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 아달 및 카라 부족과 협정을 맺었다. 메디나 인근에 정주하는 이 두 부족은 계략 세웠는데 이의 일환으로 사절단을 준비하였다. 리흐얀 가문 사람이 그들에게 말했다. "메디나로 가서 우리가 무슬림이 되었다고 말하고, 희사를 하는 방법과 이슬람 교리를 가르쳐 줄 선생을 요청하여라. 그리하면 우리는 선생의 일부를 죽여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그 중 몇 명을 메카로 데리고 가서 꾸라이쉬 부족에게 팔 것이다."

히즈라 4 년 사파르 달에 이 두 부족의 사절단 6-7 명이 우리의 예언자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는 무슬림이 되었습니다. 꾸란과 이슬람을 가르쳐 줄 선생님을 파견해 주십시오." 한편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메카 다신교도들의 전쟁준비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10 명의 원정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달과 카라 부족의 사절단이 마침 도착하여 이렇게 선생을 요구하자 상황를 파악하고 조사하기 위해 예언자는 이들과 함께 원정대를 떠나보냈다.원정대에는 교우들 중, 마르사드 빈 아브 마르사드, 칼리드 빈 아브 부카이르, 아슴 빈 사비트, 후바이브 빈 아디이, 자이드 빈 다신나, 압둘라 빈 타리크, 무아팁 빈 우바이드와 함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세 사람으로 이루어졌다. 이 정찰 원정대는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걸어서 새벽녘에 '라지'의 우물가에 도착했다. 그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였으며, '아즈와'라는 메디나의 맛있는 대추야자를 먹었다. 그런 뒤 그들은 그곳을 떠나 가

까운 산으로 올라가 몸을 숨겼다. 후자일 부족의 양치는 여인이 '라지'우물가에 왔다가 대추야자 씨를 보고 그것이 메디나에서 온 것이라는 걸 알았으며, 큰 소리를 질러 자기 부족에게 알렸다. "메디나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다." 한편, 아달과 카라 부족의 대표단 중 한 사람이 어떤 이유를 들어 일행에서 벗어났다. 그는 즉시 리흐얀 가문에 현재의 상황을 알렸다. 리흐얀 가문은 이 소식을 듣고 행동을 개시하여 이 작은 원정대를 상대로 2 백 명의 병력을 파견하였는데, 그 중 1 백 명은 활잡이였다. 다신교도 부대는 산에서 아심 빈 타빗과 그의 동료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포위했다. 한편 일행에서 이탈하여 다신교도들에게 정보를 흘려준 사절단의 한 사람이 일행에 합류해 있었다. 교우들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싸우기로 결심하고 칼을 뽑아들었다. 상황을 파악한 다신교도들은 다시 기만작전을 꾀하며 말했다. "당신들이 만약 내려오면 아무도 해치지 않겠다. 분명히 약속하겠다. 단지 우리는 당신들을 몸값을 받고 메카사람들에게 넘길것이다." 아심 빈 타빗 등은 모든 제안을 일축했다. "우리는 다신교도의 약속이나 맹세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내려가지도, 항복하지도 않을 것이다." 아심은 손을 벌리고 기도했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우리의 예언자에게 우리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아심 성인의 기도를 받아들여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아심 성인은 다신교도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죽으면 순교자가 되어 천국으로 가기 때문이다." 리흐얀 가문의 우두머리가 "아심! 너와 동료들을 희생시키지 말라. 항복하고 내려오라." 라며 항복하라고 권유했지만 아심 성인은 화살을 쏘아 그에 대답했으며, 다음의 시를 낭송했다.

"나에게는 힘이 있고, 부족한 것 없노라
내 활의 강한 줄을 힘껏 당기노라
죽음은 진실이고 삶은 일시적인 것이니
운명은 반드시 나타나고 마는 것이다
사람은 결국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돌아가니내가 너희들을 상대로 싸우지
않으면
내 어머니는 고통 때문에 미쳐버릴 것이다."

아심의 화살 통에는 일곱 개의 화살이 있었다. 그는 화살 하나에 한 명씩 다신교도를 사살하였다. 화살이 다 떨어지자 그는 창으로 적 여럿을 죽였다. 마침내 그의 창이 부러졌다. 그는 칼을 뽑아들고 칼집을 부셔버렸다.(이는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절대 항복하지 않으리라는 의미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께서시여! 오늘까지 당신의 종교를 보호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저의 몸을 보호하시어 의무를 다하도록 해 주십시요." 라고 기도를 올렸다. 아심

과 동료 교우들은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라 외치는 소리가 산에 메아리 쳤다. 그들은 2 백 명을 상대로 죽을 때까지 싸웠다. 마침내 아심 성인이 양쪽 다리에 부상을 입고 땅에 쓰러졌다. 불신자들은 그를 아주 무서워하였기 때문에 그가 쓰러진 뒤에도 접근하지 못했으며, 다만 멀리서 화살을 쏘아 그는 순교하였다. 그날 일곱 명의 무슬림 전사가 순교자의 길을 걸었으며 세 명은 포로가 되었다.

리흐얀 가문에서는 술라파 빈티 사아드에게 아심 성인의 머리를 팔기 위해 그의 머리를 베기 원했지만,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구름떼 같은 벌들을 보내 아심 성인 위에서 맴돌게 하셨다. 다신교도들은 접근을 못하고 밤을 기다려 벌들이 흩어진 후 다시 일을 도모하기로 했다.저녁이 되자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엄청난 비를 내리게 하셨다. 시냇물이 넘쳐 아심 성인의 시체는 모르는 곳으로 흘러갔다. 다신교도들은 아무리 찾아도 아심 성인을 발견할 수 없어 그의 사체를 자르지 못했다. 아심 성인의 사채가 이렇게 알라후 테알라로 부터 보호받은 사실을 들은 우마르 성인은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결단코 진정한 무슬림을 보호하신다. 아심이 살아 있는 동안 알라후 테알라를 다신교도로부터 보호하신 것처럼, 알라후 테알라께서도 그가 죽은 후 그 사채를 보호하시어 다신교도들로부터 손대지 못하게 하셨다." 라 말했다. 이후에 아심 성인을 회상할 때, '벌들의 보호를 받은 분'으로 불리어졌다.

리흐얀 자손들은 세 명의 무슬림 포로들을 화살 줄로 묶어 메카로 끌고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 압둘라 빈 타리크는 메카로 가기를 거부하며 말하였다. "나의 순교한 친구들은 천국의 영예를 얻었다." 그는 손에 묶인 것을 풀고 저항했으며, 리흐얀 자손들은 그를 돌로 때려죽였다. 나머지 두 포로 후바이브 빈 아디이 성인과 자이드 빈 다신나 성인은 언젠가 기회가 오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명령한 정찰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참고 견디었다. 리흐얀 자손들은 그 두 사람을 메카로 데리고 갔다. 바드르와 우후드에서 가족을 잃은 다신교도들은 복수의 기회를 찾고 있었다. 후바이브는 바드르 전투에서 형제를 잃은 후자이르에게 팔려갔고, 자이드는 바드르 전투에서 아버지 우마이야를 잃은 사프완에게 팔려갔다. 다신교도들의 의도는 그들을 죽이자는 것이었지만, 마침 그때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기간에 해당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들인 포로를 가두어 놓고 시간이 경과하기를 기다렸다. 두 사람은 서로 분리되어 갇혔는데, 둘 다 감금생활 중에 대단한 인내와 강인함, 그리고 품위를 보여주었다.

해방된 여종 마위야(뒤에 무슬림이 되었다.)는 후바이브 빈 아디이가 감금된 집에 근무했는데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그들이 부상을 입은 후에라도 알라후 테알라와 선지자의 부름에 응하여 정의를 실천하고 사악을 멀리한다면 크나큰 보상을 받으리라.' (3:172 의 해석)

"후바이브는 내가 있던 그 집의 한 방에 갇혀 있었다. 나는 그보다 더 훌륭한 죄수를 보지 못했다. 어느 날 나는 그가 큰 포도송이를 통째로 먹는 것을 보았다. 날마다 포도송이가 그에게 있었다. 메카에서 그 시절에는 포도를 찾을 수가 없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것이다. 그는 갇혀있는 방안에서 예배를 올리고, 꾸란을 낭송하였다. 그가 낭송하는 꾸란을 듣는 여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동정하곤 하였다. 때때로 나는 그에게 물었다. '뭔가 원하는 게 있나요?'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에게 맛 좋은 물을 주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가져다주지 말며, 그들이 나를 죽이기 전에 미리 알려주시오. 그밖에는 원하는 것이 없소." 그의 처형날짜가 정해졌을 때, 나는 그에게 가서 이를 알려주었다. 그는 이 사실을 안 뒤에 전혀 슬픈 기색을 보이지 않았으며, 그의 태도는 조금의 변화도 없었다. 처형을 앞두고 그는 몸을 단장하기 위해 면도칼을 달라고 하였다. 나는 아이에게 면도칼을 주어 그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런 뒤 나는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가 면도칼로 아이를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이에게로 뛰어갔다. 아이에게서 면도칼을 받아든 후바이브는 아이를 무릎에 앉힌 채 얼르고 있었다. 내가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지르자 그는 상황을 짐작하고 내게 말했다. "아이를 죽일까봐 그러시오? 우리 종교에 그런 일은 없답니다. 옳지 않은 일로 사람을 목숨을 해하는 것은 우리의 위엄에 걸맞지 않소."

마침내 처형일이 되었다. 그날 아침 일찍 다신교도들은 두 포로를 메카 교외에 있는 '타밈'이란 곳으로 데리고 갔다. 메카 사람들과 유명 인사들이 그 처형을 보기위해 운집했다. 두 개의 교수대가 준비되었다. 그들이 후바이브를 교수대에 묶으려하자 그가 말했다. '잠시 예배를 올리게 해주시오.'그들이 이를 허락하자 그는 두 라카의 예배를 올렸다. 모인 다신교도들과 여인들과 아이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내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기도로 시간을 연장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오래 기도했을 것입니다." 후바이브는 처형 전에 두 라카의 예배를 올린 최초의 사람이다. 예언자는 사형집행 전에 두 라카의 예배를 올린 것을 적절하게 보았다. 예배가 끝나자 다신교도들은 그를 교수대 나무에 매달고 그의 얼굴을 메디나 쪽으로 돌려놓으며 말했다. "자, 이제 너의 종교를 포기해라! 만약 그렇게 하면 너를 풀어주마!" 후바이브는 "나는 포기 못한다.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세상이 내것이라 해도 이슬람을 포기할 수 없다." 고 분명히 선언했다. 다신교도들은 "지금 이자리에 너 대신에 무함마드(알라히살람)가 있어, 그를 죽이기를 바라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 편히 살게될 것이다." 라 했다. 후바이브는 "나는 예언자의 발에 가시 하나가 찔린다고 하여도 허락할 수 없다!" 라 하니, 다신교도들이 비웃으며 "야, 후

바이브! 이슬람을 포기하라. 그렇지 않다면 너를 죽이겠다!" 라 협박하니, 후바이브는 "알라후 테알라의 길에서 죽는다면, 나에게는 사형을 당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 라 대답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 이 적들의 얼굴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알라후 테알라! 예언자에게 저의 안부인사를 전해 주십시요. 우리에게 가한 이 고통을 예언자에게 전해주십시요." 라고 기도를 하고 "아살람무 알라이카 야 라술룰라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안부를 전했다. 예언자들이 교우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예언자가 "와알라히 살람" 이라 답하니, 교우들이 의아해 하며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누구의 안부에 대답을 하셨나요?" 라 물었다. 예언자는 "이것은 그대들의 형제, 후바이브의 안부에 대한 대답이요. 지브릴 천사가 나에게 그가 보낸 안부를 전하였소."

다신교도들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를 죽인 자다!" 라며 온갖 모욕을 가하며 창으로 후바이브를 쑤셔댔다. 후바이브의 얼굴이 카바쪽으로 돌자, 다신교도들은 다시 이를 메디나 쪽으로 돌렸다. 후바이브는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시여! 만약 제가 알라후 테알라의 사랑하는 종이라면 얼굴을 카바쪽으로 향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다. 그의 얼굴은 카바 쪽으로 돌았고, 다신교도들은 그의 얼굴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지 못하였다. 후바이브는 적들이 보는 가운데 가련한 모습으로 순교를 한다는 것을 담은 시를 읊었다. 적들이 고통을 가하자 "내가 무슬림으로 죽는다면, 찌르고 때리고 어느쪽으로 쓰러지더라도 슬퍼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길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고는 이렇게 기도했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꾸라이쉬 다신교도들을 모두 처벌하소서.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어 하나씩 하나씩 목숨을 앗아가소서. 이들을 살리지 마십시오." 하니, 다신교도들이 두려워하며 몇몇은 그 자리를 떠났다. 급기야 어떤 자가 창으로 그의 가슴을 관통시켜 후바이브는 절명하며 "아쉬-하두 안나 일라하 일랄라 하 아쉬하두 안나 무함메딘 압두후 베 라술루흐" 를 읊고 순교했다. 후바이브의 시체는 교수대에 40 일 간이나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썩거나 악취를 풍기지 않았으며, 생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주바일 빈 아우왐과 미크다드 빈 아스와드를 파견하여 그 시체를 가져오도록 했다. 그들은 밤중에 몰래 메카로 진입했으며, 후바이브의 시체를 교수대에서 내려 낙타 등에 싣고 메디나로 출발했다. 다신교도들이 이러한 소식을 듣고 몰려들었다. 주바일 등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체를 땅 위에 내려 놓았다. 바로 그때 땅이 벌어지더니 그 시체를 삼키고는 다시 땅이 닫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메디나로 가는 길을 재촉했다.

다신교도들은 자이드 빈 다신나 역시 준비된 교수대에 묶었다. 그들은 그에게 종교를 포기하라고 강요하였으나 아무 성과도 얻지 못했다. 그들은 자이드에게 화살을 퍼부었으며, 최후에는 사프완 빈 우마이야의 해방된 종 니스타스가 자이드를 죽였다.

비리 마우나 사건

같은 해 사파르 달에 아라비아 나즈드 지역의 아미르 부족의 수령 아부 바라 아미르 빈 말리크가 메디나에 와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방문하였다. 우리의 예언자는 그에게 이슬람에 대해 들려주고 무슬림이 될 것을 권유하였다. 아부 바라는 무슬림이 되지는 않았으나 이슬람이 아름답고 영예로운 종교임을 인정했다. 덧붙여서 그는 나즈드 지역에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 교우들 몇 명을 보내줄 것을 우리의 예언자에게 요청했다. “보내줄 교우들의 신변안전에 대해 확신을 못하겠소. 나즈드를 믿지 못하겠소.” 라 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무슬림들의 안전을 염려하였으나 아미르는 자신이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온 세상의 귀감인 예언자는 분명한 약속을 받아내고는, 교우들 70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준비하였으며, 그 지휘는 문지르 빈 아므르 성인에게 맡겼다. 그의 부족이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영예를 누리기를 원했던 아부 바라는 교우들에 앞서 먼저 고향으로 출발했다. 그는 부족 사람들에게 무슬림 대표단이 자기의 보호 아래 있으니 누구도 해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조카 아미르 빈 투파일은 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부족 사람들중 세명을 무장시킨 후 스스로 지휘를 맡아 비리 마우나에 도착한 무슬림 대표단을 포위하였다. 완전히 포위되어 빠져나갈 길이 없어진 교우들은 칼을 뽑아 결사의 항전을 벌였지만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순교하였다. 이 용감한 교우들의 마지막 말은 “알라후 테알라께서시여! 지금 예언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으신 분은 당신 밖에 없나니, 그분에게 우리의 안부인사를 전하소서.” 였다. 그 순간 지브릴 천사가 매우 슬픈 모습으로 예언자에게 와서는 그들의 안부인사를 전달하고 “그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곁으로 왔습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들로하여금 기뻐하셨고 그들도 알라후 테알라께로부터 기뻐하였습니다.” 라 말하였다. 예언자는 “와 알라히 살람” 이라 하며 답변하고는 교우들에게 돌아서며 “우리의 형제들이 다신교들과 대적하였다. 다신교도들이 이들을 처참하게 칼로 베고 창으로 찔러
죽였도다.” 라 하였다.

우리의 예언자는 라지와 비리 마우나 사건에 매우 비통해하였다. 그는 한 달 동안 예배시간이 끝난 뒤에 이러한 비열한 범죄를 저지른 부족들에 대하여 처벌을 탄원하였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예언자의 탄원을 받아들이시어 그 부족들에게 극심한 가뭄과 기근을 내려주었다. 그들 부족 중에서 7 백 명의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했다.

나디르 부족의 유대인들

우후두 성전이 끝난 후인 히즈라 4 년, 나디르라는 유대인 부족이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를 살해하려고 흉계를 꾸몄다. 그러나 지브릴 천사가 이 사실을 우리의 예언자에게 알려주었으므로 암살음모는 좌절되었다. 이 일과 관련하여 온 세상의 주인 귀감인 예언자는 협정을 파기한 유대인 부족에 무함마드 빈 마슬라마를 파견하였다. “가서 나디르 부족의 유대인들에게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왔노라고 전하라. ‘너희는 나의 땅을 떠나라! 나와 함께 이 땅에서 살지 못하리라. 너희는 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열흘의 시간을 주노라. 이후에는 그 누구라도 발견되면 죽음을 면치 못할것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그대를 보냈음을 전하라.” 무함마드 빈 마슬라마 성인이 이 명령을 전달하자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여행준비를 서둘렀다. 그런데 위선자들의 우두머리 압둘라 빈 우바이가 그 유대인들에게 전갈을 보내왔다. “당신들의 성채를 절대로 떠나지 마시오. 당신들 재산과 고향땅을 포기하지 마시오. 우리가
2 천 명의 병력으로 당신들을 돕겠소.” 이리하여 온 세상의 귀감은 교우들과 함께 메디나에서 4km 떨어진 나디르 부족의 성채로 진군하였다. 알리 성인이 깃발을 든 무슬림 군대는 성채를 포위했다. 유대인들은 감히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으며, 위선자들의 구원대는 오지 않았다. 20 일간의 포위 끝에 유대인들은 항복하였다. 모든 무기와 금과 은을 무슬림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은 다마스커스와 카이바르 등으로 추방되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서 오로지 쿠라이자 부족만이 메디나에 남게 되었다.

파티마 빈티 아사드의 죽음

알코올 성분의 음료를 금지하는 알라후 테알라의 계시가 히즈라 4 년에 내려왔다. 움무 살라마 성인의 남편이 우후드 성전에서 부상을 입고 사망했다. 그에게는 여러명의 어린 아이들이 있었으며, 움무 살라마는 나이가 들고 형편이 어려웠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그녀를 무척 동정하였으며, 그녀를 부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보호아래에 두는 축복을 내렸다. 역시 그 해에 자투리카 성전이 벌어져 주위의 다신교도 부족들의 기세가 꺾였다. 예언자의 딸, 루키야와 우스만 성인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압둘라가 서거하였다. 온 세상의 귀감은 손자의 장례예배를 인도하고 안장하였다. 형언할 수 없는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손수 무덤에 비석을 꽂았다. 그리고는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분의 백성들 중 자애롭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시리라.” 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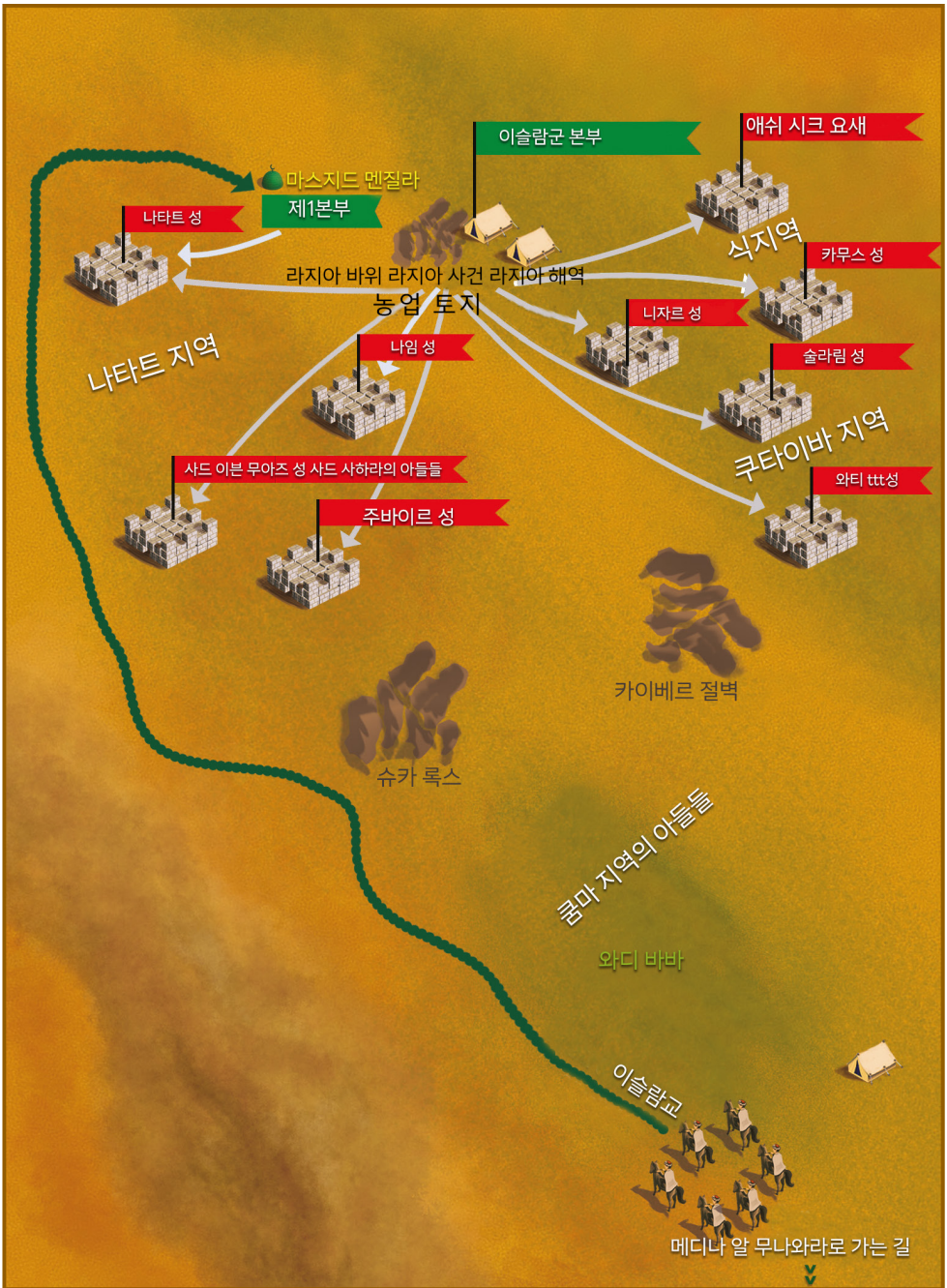
알리 성인의 어머니, 파티마 빈티 아사드가 이 해에 별세했다. 우리의 예언자는 매우 비통해하며 말했다. “오늘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할아버지 압둘 무탈

립이 죽은 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그녀 옆에서 자랐던 것이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이 예언자의 소명을 선포했을 때, 그녀는 곧바로 무슬림이 되었고, 이 이유 때문에 예언자는 그녀를 자신의 어머니로 간주하여 극진한 존경을 표하였다. 예언자는 조끼를 벗어 그녀의 몸을 덮어 수의를 대신하게 하였다. 장례예배를 마친 후, 7 만의 천사들에 여기에 참석했음을 알렸다.

무덤에까지 동행하여 무덤 생활의 편안함을 기원하듯이 무덤의 네 귀퉁이를 넓히듯이 손짓을 하고는 무덤에 뉘였다. 무덤에서 나올 때, 눈에서는 눈물이 가득하여 떨어진 눈물이 무덤속에 떨어졌다. 오, 알라후 테알라, 이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이 얼마나 행복한 부인이옵니까? 우마르 성인 조차도 참지 못하고는 "당신에게 생명을 바치리니, 그 누구에게도 보이시지 않은 축복을 이 부인에게 내렸습니다.!" 라 하자, 상주인 그분이 "아부 탈립이후로, 나에게 이렇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없도다. 나의 어머니였다. 당신의 자식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나의 배를 부르게 하였다. 내 머리를 가장 많이 빗어주고 장미기름으로 받듯이 해 주었다. 그녀는 나의 어머니로다! 그녀에게 천국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 나의 조끼를 입혔도다. 무덤에서의 생활이 편하고 쉬우라고 그녀의 관 옆에 누웠도다. 지브릴 천사가 '이 부인은 천국으로 갑니다'라고 소식을 전하였다." 이후 파티마 빈티 아사드를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하였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대를 용서하시고 기쁘게 하시리라. 아, 나의 어머니, 그대를 알라후 테알라께서 축복하시리다. 그대가 굶주리고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대가 입지 않으면서 나에게 입혀주었다. 죽음도 부활도 알라후 테알라의 뜻이다. 그녀는 살아 있으며 죽지 않았다. 오, 알라후 테알라! 나의 어머지 파티마 빈티 아사드를 용서하오서소. 그녀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시고 무덤을 넓게하옵서소. 오, 자비로우심의 격치이신 분이여! 저는 당신의 사도로서 또 이전 모든 예언자들의 권리로 기도하노니, 이를 받아들이소서."

장례식 이후 곧, 예언자의 축복받은 아내 중의 한 사람인 자이납 빈티 후자이마 성인이 서른 살의 나이로 별세했다. 한편 이 해에 알리 성인과 파티마 성인의 사이에 두 번째 아들인 후세인 성인이 태어났다. 역시 그 해에 아부 수피얀이 이슬람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2 천의 병력을 이끌고 바드르를 향해 출발했다. 우리의 예언자는 1 천 5 백 명의 용감한 교우들을 이끌고 그들보다 먼저 바드르에 도착하였다. 자신들보다 무슬림 전사들이 먼저 도착한 것을 안 다신교도들은 겁을 집어먹었으며, 겨우 '마라짜흐란'까지 전진했을 뿐이었다.
그들은 결국 이슬람 군대를 대적하지 못하고 메카로 돌아갔다. 무슬림 전사들은 바드르에서 8 일간을 대기하다가 메디나로 철군하였다.

카이바르의 전투

이슬람군 본부
애쉬 시크 요새
마스지드 멘질라
제1본부
나타트 성
식지역
카무스 성
라지아 바위 라지아 사건 라지아 해역
농업 토지
니자르 성
나임 성
나타트 지역
술라림 성
쿠타이바 지역
사드 이븐 무아즈 성 사드 사하라의 아들들
와티 ttt성
주바이르 성
카이베르 절벽
슈카 록스
쿰마 지역의 아들들
와디 바바
이슬람교
메디나 알 무나와라로 가는 길

무스탈리크 부족과의 성전

히즈라 5 년에 무스탈리크 부족의 수령 하리스 빈 아비 디라르가 우리의 예언자와 전쟁을하기위해 많은 사람들을 소집하였다. 그는 병사들을 무장시킨 뒤 메디나로 진군을 시작할 참이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자, 무스탈리크 부족에 맞설 7 백 명의 군사 원정대가 즉시 구성되어 원정길에 올랐다. 무슬림 사령부가 무라이시 우물가에 차려졌다. 먼저 무스탈리크 부족을 이슬람으로 초대하였지만 그들이 이를 거부하고 활을 쏴대기 시작했다. 예언자의 "모두가 한꺼번에 활을 쏘거라." 라는 지시를 받은 교우들은 활로 열명을 죽였다. 부족의 수령은 도망쳐서 자신의 목숨을 구했으나, 그의 딸 바라와
6 백 명의 부족은 포로의 신세가 되었다. 무슬림 전사들에게 전리품이 배분되었다. 적의 딸, 바라가 예언자에게로 와서 말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 배정되었는데, 금화 아홉 개가 있어야 풀려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그녀를 깊이 동정하여 돈을 지불하고 해방시켰다. 그녀는 예언자의 가르침을 듣고 곧 무슬림이 되었으며, 이를 아주 기뻐하신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안 교우들은 예언자의 부인의 친척들을 종으로 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겨 그들의 포로들을 해방시켰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그의 축복받은 아내 바라의 이름을 '주와이리야'로 바꾸었다.아이샤 성인은 주와이리야 성인에 대하여 항상 이렇게 말했다. "나는 주와이리야보다 더 상서로운 여인을 보지 못했다."

이슬람 군대가 빛나는 메디나로 귀환을 시작하자 주위의 다신교도 부족들은 위협을 느꼈으며, 무슬림들을 함부로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대는 치료사요, 나의 마음은 깊은 병이들어, 병을 고친다는 희망으로 그대에게 왔습니다.

등어리에는 죄가 산만하고 포도 넝쿨같으니 희망하여,
이를 가볍게 하려고 가져왔으니,

선구자들의 선봉이여, 나는 그대의 사랑의 포로이니,
그대로부터의 이별의 아픔으로 밤낮으로 웁니다.

그대의 큰 은혜는 불사의 영약이고, 나는 목말른 자로;
한 방울 조차도 없다면 나는 죽어 생명이 다하리니,

그대에 대한 찬미로 내 마음이 지쳐도 알라후
테알라께서 허락 하시니, 이 만큼만 가능하도다.

그분을 열의로 찬미함은 충분치 못하고,
그분을 말로 표현하기는 이보다 더 어렵도다.

관용과 관대하심이 그렇게 넘치니,
물에서 진주가, 돌에서 보석이, 가시에서 장미가 나오더라

태양이 빛을 뿜어냄은 그분의 빛이오,
장미 잎의 땀 방울은 그분의 얼굴부터 온 것이라.

그분을 묘사함은 이 보다 훨씬 높도다. 하지만,
더 높이 받든다면, 태만한 자들이 이를 부정하리라

이 세상 만물을 한 방울에 집어 넣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말씀을 설명한다는 것이 이 보다 어렵도다.

-마블라나 칼리드 바다드-

참호전쟁

히즈라 5 년이었다. 치안을 위협하고 해를 끼치던 유대인 나디르 부족은 메디나에서 쫓겨나 일부는 다마스커스로, 또 일부는 카이바르로 옮겨갔다. 그들은 이슬람교와 예언자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의 열망에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지도자 후야이는 부족의 유력자 20 명과 함께 메카로 가서 아부 수피얀을 만났으며,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를 살해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우리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절대 협력을 깨지 않을것이다." 라 했다. 아부 수피얀이 말했다. "우리 적군의 적이면 우리는 환영한다. 그러나 여러분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우리의 우상을 숭배해야 한다. 그러해야지만 당신들이 진지하고 성실함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불충실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종교마저 포기하고 우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를 살해하고 이슬람을 말살시키겠다고 맹세하였다. 다신교도들은 전쟁준비를 곧바로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웃 부족들에게도 사람을 보내 연락을 취하였다. 유대인들 또한 여러 부족들을 설득하는 행동에 돌입했다. 어떤 부족들에게는 돈과 대추야자를 약속하고 싸움에 끌어들였다. 아부 수피얀은 '다룬 나드바'

에서 깃발을 우스만 빈 아브 탈하에게 건넸다. 다신교도들은 메카 주변에서 4 천 명의 병력을 차출했으며, 3 백 마리의 말과
1 천 5 백 마리의 낙타를 준비했다.

다신교도 군대가 마라짜흐란에 도착했을 때, 술래이만 부족과 파자라, 가타판, 무라 부족 등의 부대가 합류하여 6 천의 병사가 늘어남으로써 그들은 합계 1 만 명의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대규모 부대를 이루었다.
우리의 예언자와 친근한 관계였던 쿠자 부족 사람들이 이 같은 상황을 메디나에 통보해 주었다. 한 기마병이 열흘길을 나흘 만에 달려와 다신교도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예언자에게 주었던 것이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항상 교우들의 의견을 수렴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교우들과 상황을 의논을 하였다. 전쟁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을 때, 살만 파리시 성인이 발언신청을 하고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우리에게 하나의 전술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우리가 적의 기습을 두려워할 때는 주위에 참호를 파고 방어를 했습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와 교우들은 이 방법에 찬성하여 곧 그 실행에 들어갔다.

우리의 예언자는 곧 바로 어디에 참호를 팔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나갔다. 메디나 남쪽은 숲이 우거져 있어 다신교들의 집단공격이 어려운 지역이었다. 이곳은 방어하기에 쉬워보였다. 동쪽은 쿠라이자 부족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과는 조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다신교도들은 탁 트인 들판인 서쪽과 북쪽에서 공격할 가능성이 높았다. 참호를 파게 될 장소가 정해졌으며, 교우 한 사람 당 약 3m 의 길이가 배정되었다. 깊이는 사람 키 두배의 길(약 3.5m)이었고, 폭은 말이 건너뛰지 못할 정도였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었다. 적군은 이미 메카를 떠나 메디나로 행군하고 있었다. 참호를 되도록 빨리 파지 않으면 안되었다. 예언자를 선두로하여 교우 용사들은 '비스밀라히르 라흐마니르라힘(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이름으로)'을 읊고 참호를 파기 시작했다. 모두가 온 힘을 다해 참호를 파기에 바빴다. 아이들 조차도 참여하였다. 예언자를 위해 주바브 언덕에 천막이 마련되었다. 참호에서 나온 흙을 장비로 주위 언덕에 퍼다 나르고 돌아올 때에는 '사르'산에서 적들에게 던질 돌을 실어왔다. 장비가 없는 사람들은 본인의 옷으로 실어 날랐다. 예어자가 지칠 때까지 동참하자, 이를 본 교우들이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저희가 충분합니다. 당신은 일하지 마시고 쉬십시요." 라 간청했어도, 예언자는 "나도 참여하여 그대들과 같은 선행을 쌓기를 원하오." 라 대답하였다.

그 당시는 날씨가 매우 추웠다. 게다가 가뭄으로 인해 기근이 심했다. 먹을 것을 찾기가 어려워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와 모든 교우들은 혹독한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힘을 내기 위해서 굶주린 배에 돌을 매달아 위를 눌러 허기를 느끼지

않게 하였다. 예언자는 자신의 굶주림은 안중에도 없이 이 추위와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 "오, 알라후 테알라, 영혼의 삶 말고는 다른 삶이 없습니다. 알라후 테알라! 안사르와 무하지르를 용서하시옵소서." 라 기도를 하였다. 교우들도 예언자에게 "삶이 다할 때 까지 알라후 테알라의 길에서, 이슬람교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예언자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응하였다. 서로 간의 이러한 사랑이 굶주림과 목마름의 시련을 견디게 하였다.

참호를 파는 작업은 매일 이른 아침에 시작하여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어느 날 알리 빈 하캄 성인이 작업도중 발을 다쳤다. 말을 타고 예언자에게 왔다. 예언자는 '비스밀라히르 라흐마니르라힘'을 읊고는 그의 상처를 쓰담으니, 상처에서 피가 멎고 통증이 사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참호 작업은 계속되었고, 도중에 바닥이 너무 견고하여 팔 수가 없게 되었다. 예언자에게 이를 알리니, 그분이 직접 참호로 내려와 한 그릇의 물을 요청하여 마시고는 다시 그릇에 내 뱉고는, 그 물을 바닥에 뿌렸다. 쇠망치로 그 바닥을 내리 치자 모래처럼 흩어져 버렸다. 인제 아주 쉽게 참호를 팔 수 있게 되었다. 쇠망치를 내려칠 때, 위 옷이 들려, 예언자의 배에 묶여 있는 돌을 본 교우들 중, 자비르 빈 압둘라가 "허락하여 주신다면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간청하자, 허락을 받은 후를 자비르 성인은 이렇게 회상했다. "허락이 떨어지자 집에 가서 부인에게 "예언자께서 얼마나 굶주리고 계신지 참을 수가 없었다오. 집에 먹을 것이 있는지요?" 라 물었더니, 부인이 "저기 저 염소와 한 줌의 보리밖에 없습니다." 하여 즉시 염소를 잡고 부인은 보리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었다. 예언자에게 되돌아가서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먹을 것이 조금있으니, 몇 사람을 동반하여 드세요." 라 청하였다. 예언자는 "음식이 얼마나되는가?" 내가 사실대로 대답을 하니 "많고도 좋은 음식이요. 부인에게 말하여, 내가 도착할 때까지 아궁이에서 고기를 꺼내지 말고 또 빵도 꺼내지 말게 하시오." 하고는 무하지르에게 "오, 참호의 백성들이여! 자비르의 식사 초대에 응합시다." 라 명하였다. 교우들은 모두 모여 예언자를 뒤따랐다. 나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 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이제 어쩌지요?" 부인이 "예언자가 음식이 얼마나 되는지 묻지 않았나요?" 라 물었다. 나는 "물으셔서 대답했지요." 라 대답했다. 부인이 "교우들을 당신이 초대했나요? 아님 예언자가 초대했나요?" 내가 "예언자가 초대했지요." 라 하니, 부인이 "그렇다면 예언자 더 잘 알 겁니다." 라 대답하였다. 얼마후 예언자의 빛나는 얼굴이 대문에서 보였다. 교우들에게 "서로 밀치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시오." 라 하였다. 교우 형제들은 열명씩 짝지어 앉았다. 예언자는 고기와 빵에 축복을 간청하는 기도를 올린후, 고기를 아궁이에서 꺼내지 않고 국자로 퍼서 빵위에 얹져 교우들에게 대접했다. 모든 교우들이 배불리 먹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되었다. 맹세컨데, 음식을 배 불리 먹은 교우들이 1000 명을 넘어섰지만, 고기와 빵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우리까지 먹은 후 남은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살만 파리시는 참호를 파는데 아주 능숙하였다. 그는 열 명의 작업분량을 혼자서 거뜬히 파내었다. 한 번은 커다랗고 아주 견고한 하얀 바위에 직면했다. 쇠망치와 연장들과 삽이 부러지기만 하고 아무 소용이 없었다. 살만 성인이 예언자를 찾아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참호를 파던 중 커다란 바위에 직면했습니다. 쇠도구들이 모두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위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라 알리니, 예언자는 직접 그곳을 방문하여 쇠망치를 가져오라 지시하였다. 교우들은 호기심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참호 밑으로 내려가서는 '비스밀라히르 라흐마니르라힘'을 읊고는, 쇠망치를 위로 들어 바위를 내려치니, 번개같은 빛이 솟구쳐 메디나를 밝혔다. 바위의 한 부분이 갈라졌다. "알라후 아크바르!" 라 타그비르를 외치시자, 교우들도 따라 외쳤다. 다시 바위를 내리치니, 이번에도 주위를 환하게 하는 번개가 치고, 바위가 여러 개로 깨졌다. 또 다시 "알라후 아크바르!" 를 외치고는 한 번 더 바위를 내려치자, 또 번개가 치더니 바위가 모두 부서졌다. 예언자는 또 다시 "알라후 아크바르!" 를 외쳤다. 그리고 교우들도 합창하였다. 살만 성인이 손을 뻗어 예언자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도왔다. 살만 성인은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한 평생 처음으로 이러한 굉장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라 물으니, 예언자는 교우들에게 "살만이 본 것을 그대들도 보았는가?" 라 하니, 교우들이 "예,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쇠망치로 바위를 내려치는 순간 번개가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타크비르를 외치니 저희도 같이 외쳤습니다." 라 대답했다.

예언자는 "첫 번째 내리쳤을 때 빛 속에서 이란 통치자의 (마다인에 있는) 성을 보았고, 두번째의 빛 속에서는 다마스커스의 로마 제국의 붉은 성을 보았고, 지브릴 천사가 와서 "그대의 백성들은 이것들의 주인이 될지다." 라 전하였다. 세번째 빛 속에서는 예멘의 성이 보였다. 지브릴 천사가 "그 곳도 그대의 백성들이 주인이 될 것이요. 라 알려주었다." 하였다. 나중에 예언자가 마다인의 성에 대해 설명하자, 그곳 출신의 살만 성인이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당신을 진리의

종교와 성서와 함께 보내신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컨데, 그 성은 당신이 설명한 것과 꼭 같습니다. 당신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임을 믿습니다." 라 하니, 예언자가 "오, 살만! 다마스커스는 결단코 정복될 것이요. 헤라클리우스는 영토의 가장 외진 곳으로 도망을 칠 것이오. 그대들은 다마스커스의 모든 곳을 다스리게 될것이요. 그대들에게 아무도 대적하지 못할 것이요. 예멘도 결단코 정복할 것이요. 그리고 동쪽의 땅도 정복할 것이요.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나 이후에 그들에게 이를 선사할 것이요." 라 하였다. 이후 살만 성인은 "예언자가 말한 대로 이것들이 실현되었음을 내가 보았다." 라 하였다.
적군이 거의 도착할 때가 되어 참호는 신속하게 완성을 앞두고 있었다. 교우들은 아주 긴급한 경우에 허락을 받고 작업장을 이탈할 수 있었으며, 볼일을 마친

뒤에는 즉시 작업장으로 복귀하였다. 한편 위선자들은 아주 나태한 방식으로 작업에 임했다. 그들은 마음이 내키는 때에 작업장에 왔다가, 그들이 원할 때 허가도 받지 않고 작업장을 이탈했다. 또한 교우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조롱하였다. 예언자의 기적에 대하여서 "우리는 적을 두려워하여 참호에 숨으려 하거늘, 그분은 예멘의, 로마의, 페르시아의 성에 관해 약속하고 있구먼요. 우리는 당신들의 이런 모습에 의아해하고 있지요." 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누르 장'의 계시가 내려졌다.

'알라후 테알라와 그분의 선지자를 믿는 이들만이 신앙인들이라. 어떤 일로 그대와 함께 있을 때 그들은 그대의 허락을 받을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아니했으니 실로 그대의 허락을 구하는 그들은 알라후 테알라와 선지자를 믿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대에게 그들의 어떤 일로 허락을 구할 때 그대가 원하는 그들에게는 허락하고 알라후 테알라로부터 그들을 위해 관용을 구하라. 실로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24:62 의 해석)

또한 위선자들의 행동에 관한 계시가 내려졌다.

'선지자를 명령을 너희가 따르고, 따르지 않고 하는 그런 것으로 간주하지 말라. 즉시 이에 응하고 허락없이 벗어나지 말라.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어떤 이유를 구실로 대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지를 아시고 계시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명령에 거역하여 시련과 고통스러운 벌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할지다.. 실로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이 알라후 테알라의 권능 안에 있나니 그분께서는 너희가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진정한 신앙인지 아님 위선인인지) 그리고, 위선자와 이단교도들에게 돌아갈 처벌의 날도 알고 계시도다. 그들이 그 알라후 테알라께로 소환되어 가는 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그들이 행하였던 모든 것을 그들 자신들에게 알려 주시리니 실로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24:63-64 의 해석)

참호를 파기 시작한지 6 일이 지났다. 모든 사람들이 제 시간에 자신의 과업을 모두 끝냈다. 그렇지만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탓에 어떤 한 곳은 참호의 깊이와 너비가 충분하지 못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이곳을 걱정하고 말했다. "이곳 외에는 다신교도들이 통과할 수 없다." 그리고는 그곳에 감시초소를 세웠다.

다신교도들이 거의 메디나에 다가왔을 무렵, 나디르 부족 유대인의 수령 후와이는 메디나에 있는 쿠라이자 부족 유대인을 포섭할 계획을 세웠다. 쿠라이자 부족은 무슬림들과 협정을 맺고 있었으나 항상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후와이는 쿠라이쉬 군대의 사령관에 이 계획을 알리고 밤중에 몰래 쿠라이자 부족의 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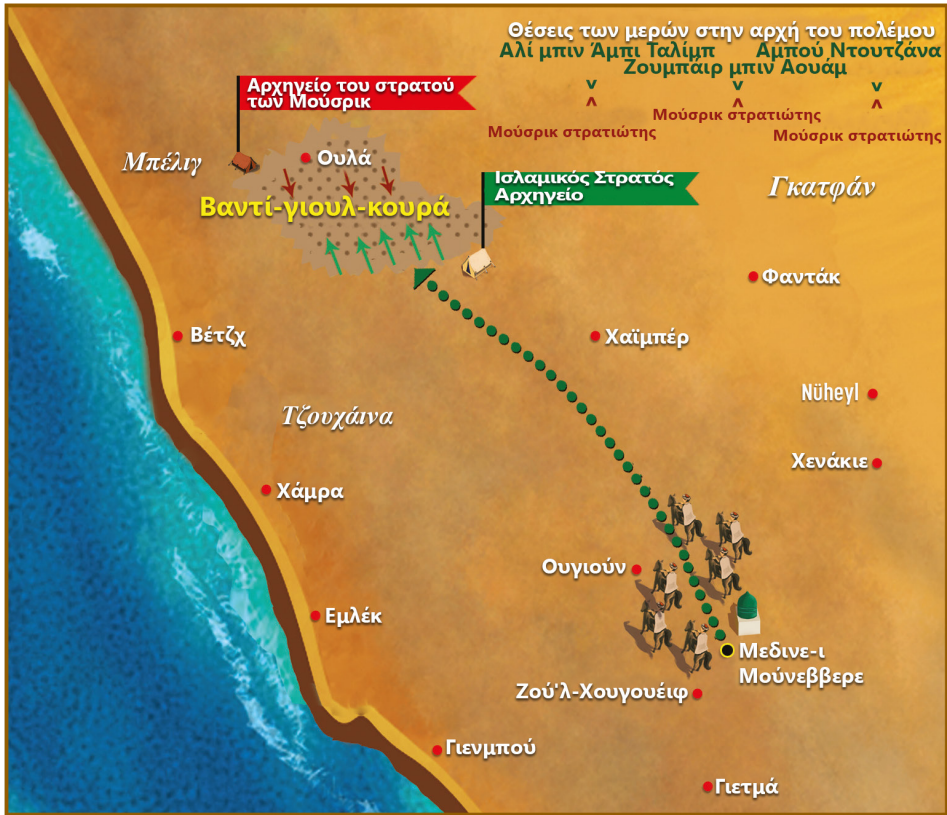
카아브의 집을 찾아갔다. 수많은 군대의 압도적 우세를 배경으로 후와이는 카아브를 설득했다. 그러나 카아브는 만약 무슬림들을 물리치지 못한 채 꾸라이쉬 군대가 물러가면 자기 부족만 고립될 것이라고 걱정하였다. 후와이가 말했다. "그러한 걱정을 덜기 위해 꾸라이쉬 군대에 70 명의 인질을 요구하시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절대 당신 부족을 모르는 척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오." 후와이는 처음에는 카아브를, 나중에는 다른 유대인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그리하여 쿠라이자와 무슬림의 협정은 파기되었다. 후와이는 다신교도 진영으로 돌아와 쿠라이자가 무슬림들의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고 알렸다. 유대인 후와이는 다신교들을 떠나 한 밤에, 바니 쿠라이자의 지도자 카아브의 집을 찾아갔다. 자신을 소개하고나서 "오, 카아브! 꾸라이쉬의 모든 군사와, 키나나 부족과 가타판 부족의 군사들을 한데 모아서 모두 일 만명의 병력을 이끓어 냈습니다. 무함마드(알라히살람)와 그의 교우들은 이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들을 모두 없애 버릴때까지 단합하기로 맹세하였습니다." 라 말했다. 카아브 "무함마드(알라히살람)와 그 교우들을 없애지 못하고, 키나나와 가타판들이 철수를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홀로 남아야 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죽을 것이요. 이것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라고 염려을 하니, 후야이가 "이러한 걱정을 덜기위해서 키나나와 가타판으로부터 70 명의 인질을 요구하시요. 이 인질들을 잡고 있으면 절대로 그대들을 홀로두고 떠나지 않을 것이요. 어러함에도 패배하여 철수한다면, 나는 그대를 절대 떠나지 않겠으며, 그대의 재앙이 바로 나의 재앙으로 알겠습니다." 라 설득하여 카아브와 유대교인들을 포섭하였다.

7 일째 되는 날 다신교도 군대 1 만 명이 메디나 서쪽과 북쪽에 도착하여 참호 건너편에 진영을 만들었다. 다신교도들의 생각은 거대한 병력으로 메디나 곳곳을 짓밟고, 예언자와 그의 교우들을 몰살하여 이슬람을 없애는 것이었다.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참호 장벽을 보고 매우 당황하였다. 참호의 폭이 넓어 아무리 빠른 말이라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참호에 떨어진 자는 쉽게 나올 수없을 정도로 깊었다. 이는 갑옷을 입은 병사들에게는 더욱이 불가능해 보였다.

다신교들이 들이 닥쳤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다신교도들에 맞서 즉시 교우들을 소집하고 '살'산의 비탈진 곳에 사령부를 꾸렸다. 그들 배후에는 살 산과 메디나가 있었고, 그들 앞에는 참호가, 그 건너편에 적군이 있었다. 이슬람 군대는 3 천의 병사에 36 명의 기마병이 있었으며, 자이드 빈 하리사와 사아드 빈 우바다가 깃발을 들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지휘소로 사용할 가죽 천막이 살 산의 경사면에 세워졌다. 이번에도 영웅성을 보여 줄 교우들은 주의 깊이 적들의 동정을 살폈다. 우마르 성인이 예언자에게 달려와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쿠라이자 부족의 유대인들이 우리와의 협정을 깨고 다신교도 편에 가담했습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고는 슬픔에 잠겨 "하스부날라후 와 니말와킬 (알라후 테알라로 충분하며 그분이 우리의 아름다운 수호자이십니다.)" 라 하였다. 이슬람 병력은 북서쪽으로는 다신교도들로 남동쪽에서는 이단교들로 휩싸였다. 예언자는 즉시 주바일 빈 아우왐 성인을 꾸라이자의 성에 보내 동태를 살피게 했다. 주바일이 돌아와 보고했다. "그들은 성채를 수리하고, 군사연습과 기동훈련을 실시하며, 동물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사아드 빈 무아즈, 사아드 빈 우바다, 하왓 빈 주바이르, 아므르 빈 압프, 압둘라 빈 라와하의 다섯 명의 교우들을 쿠라이자에게 보내 협정 갱신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이들 교우들은 꾸라이자 유대교인들의 성으로 가서, 충고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욕설을 하였다. 마지막 말로는 "우리의 형제 나드르 민족을 이 곳에서 축출하여 우리의 날개를 꺾었소. 무함마드(알라히살람)가 누구요? 우리는 어떤 약속도 협정도 맺지 않았소. 당신들의 예언자에게 한꺼번에 달려들어 죽이기를 원하오. 절대적으로 우리의 형제들을 후원하고 도울 것이오." 라 했다. 교우들은 예언자에게 돌아와서 다른 교우들이 듣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이를 알렸다. 예언자는 "이 소식을 비밀로 하시오. 하지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명을 하시오. 왜냐하면 전투는 준비와 전략의 결과요." 라 하였다. 교우들은 참호의 이쪽편에서 예언자를 기다리며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궁금해하고 있었다. 조금 후 예언자가 곁으로 와서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라타크비르를 외치자, 교우들도 함께 외쳐 알라후 테알라의 위대하심을 알려 참호의 건너편에 있는 신앙의 적들을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다. 다신교도들이 타크비르 소리를 듣고는 "무함마드(알라히살람)가 교도들에게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전했나보군." 라 하였다. 예언자는 교우들에게 "오, 나의 무슬림 교우들이여! 알라후 테알라의 승리와 도움으로 기뻐할지라." 라 하며, 승리를 거둔다는 기쁨을 알렸다. 영웅의 교우들은 이제까지 여러 차례 원정에 참가하였다. 바드르, 우후드 전쟁에도 참여했었다. 숫적으로 볼 때 월등한 적에 대해, 알라후 테알라의 은혜와 예언자의 기도로 인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전쟁마다 열세를 극복하였다. 통솔자로 예언자가 있었으니, 불가능하고 참지 못 할 일이 없었다. 추위와 기근과 굶주림이 아주 심하여 예언자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교우들은 배에 돌을 둘러메고 있었다. 반대쪽에는 적들이 개미떼처럼 바글바글 했다. 하지만 용감한 교우들에게는 온갖 고난과 앞에 진을 치고 있는 1 만명의 이 많은 적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왜냐하면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들의 수호자이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분 안에서 서있고, 그분에게 기대고, 그분에게로 피하였다.

꾸라이쉬 군대의 지휘관들과 다른 부족의 수령들은 어디를 먼저 공격해야 할 것인가를 궁리하였다. 그들은 모든 참호장벽을 둘러보았다. 결국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완성하지 못했던 참호에 서서, 여기로 공격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신교도 군들은 지휘관들을 따라 움직이며 한 번은 참호를 한 번은 교우들을 쳐다보고는 놀라하며, "이것은 아랍인이 사용하는 전략이 아니

와디 알 쿠라의 전투

다. 그 페르시아 사람이 권고했음이 틀림없다!"

꾸라이쉬 지휘관들은 너비가 좁은 참호를 정면 돌파하기로 하고는 "누가 말을 타고 이곳을 뛰어 넘을 수 있겠나?" 하니 다섯 명의 기마병이 나섰다. 이들은 각자 말 발길질을 하여 참호를 넘어설 작정이었다. 교우들과 다신교도들이 모두 걱정이 되어 쳐다보고 있었다. 기마병들은 속력을 가하기 위해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는 말을 좁은 참호로 향하게 한 뒤, 속력을 내어 날라올랐다. 최고의 재능을 자랑하는 사라브레드 말 다섯 필이 고속 질주 끝에 참호 너머로 발을 내딛는데 성공했다. 많은 기마병들이 그 뒤를 따랐지만 참호를 넘지 못하고 모두 구덩이 속에 빠졌다. 참호를 넘어선 다신교도 병사 중에 아므르 빈 아브드라는 아주 막강한 용사가 있었다. 그는 갑옷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위풍을 자랑하였으나 겁을 먹은 듯한 행동으로 그가 무슬림 병사들에게 "나와 대적할 자가 있다면 가운데로 나오거라." 라고 소리쳤다. 알리 성인이 채 갑옷도 입지 못하고는 예언자 앞에 나가 "당신을 위해 생명을 바치리니, 오, 예언자여! 제가 맞서 싸우겠나이다."

라고 출전을 신청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자신의 갑옷을 알리에게 입히고 자신의 칼을 알리에게 주며 기도를 올렸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바드르 전투에서 제 숙부의 아들 우바이다를, 우후드 전투에서는 제 숙부 함자를 잃었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사촌형제 알리를 보호하소서! 저를 홀로 남게 마옵소서!” 교우들이 “아민!” 을 합창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용맹스러운 알리는 괴물처럼 버티고 서 있는 아므르 빈 아브드의 앞으로 걸어가 멈추었다. 눈만 남기고 갑옷과 투구로 완전히 몸을 가린 아므르는 다가온 영웅을 몰라보고 상대방에게 누구인지 물었다. 알리 성인이 대답했다. “나는 알리 빈 아비 탈립이다.” 아므르가 동정하듯이 대답했다. “오, 내 조카여! 네 아버지는 내 친구였느니라. 그래서 네 피를 흘리고 싶지 않구나. 나와 대적할 다른 연장자가 없느냐?” 알리 성인의 그의 도발을 부추기며 말했다. “오, 아므르! 내 맹세코 너의 피를 보리라. 하지만, 우리 둘다 동등한 조건이라야 하지 않겠는가? 용사의 명성에 이것이 맞지 않겠나? 나는 발로 서 있고, 너는 말을 타고 있으니 공평하지 않구먼.” 이 말을 들은 아므르는 자존심에 자극을 받아 즉시 말에서 내려 말의 다리를 칼로 벤 후 알리 성인의 앞에 섰다. 알라후 테알라의 용사는 “야, 아므르! 내가 들은 바로는, 니가 꾸라이쉬 그 누구와 대적한다면, 그의 요구사항 두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했다면서, 이것은 정말인가?” 하고 묻자, 아므르가 “그렇다, 맞다.” 라고 대답하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첫번째 요구는, 니가 알라후 테알라와 그분의 사도를 믿고 무슬림이 되는 것이다.” 라며 이슬람에 초대를 했지만, 아므르는 화가 치솟아 “지나가게나! 나에게 필요없다.” 라 했다. 알리 성인이 “두번째 요구는, 싸움을 그만두고 메카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의예언자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너는 이렇게 하여 그분을 도운 것이 될것이다.” 라 말했다. 아므르는 “이것도 지나가라! 나는 보복을 하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다른 요구가 있다면 말해라.” 라 하자 알리 성인이; “알라후 테알라의 적이여! 이제 너와 싸우는 것 외에는 다른 요구가 없다!” 라 하니, 아므르가 웃음을 지으며 “진정으로 귀이하군. 아랍 중에 나와 대적할 용사가 나오리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거늘. 오, 친구의 아들이여! 나는 너를 죽이고 싶지 않다. 너의 아버지는 나의 친구였다. 사실상 나는 아부 바크르 아니면 우마르 같은 연장자를 원했건만.” 라 말하였다. 알리 성인이 “그렇게 원하더라도, 내가 너를 죽이려고 앞으로 나왔다.” 라 하니, 아므르의 피가 끓어 그는 아주 맹렬한 속도로 칼을 휘둘러 공격했다. 알리 성인은 이 같은 공격을 예상했으므로, 옆으로 몸을 비키면서 그의 방패로 칼을 막았다. 아므르가 몇 번의 공격을 감행하자 알리 성인의 방패는 상당히 손상되었다. 다시 아므르의 강력한 공격이 있었고, 마침내 알리 성인의 방패는 쪼개지고 말았다. 게다가 아므르의 칼이 알리 성인의 머리 가까이 스치면서 부상을 입게되었다. 이제 알리 성인의 차례였다. 결정적 기회를 노리던 그는 “야 알라!” 를 외치며 예언자의 칼 줄피카르로 아므르의 목을 노린 일격을 날렸다. 이슬람 진영에서는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가 진동하고, 다신교도 진영에선 비명이 쏟아졌다. 그랬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의 기도에 알라후 테알라께서 응답하시어 괴물 아므르가 땅

에 쓰러졌던 것이다. 투구 속에 있던 그의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피가 온 사방을 적셨다. 그의 동료들이 즉시 알리 성인을 공격했으며, 교우들도 앞으로 나가 이들과 대적하였다. 주바일 빈 아우왐이 다신교도 나우팔 빈 압둘라를 타격하여 말과 함께 참호 속으로 빠뜨렸다. 알리 성인이 곧 참호 속으로 뛰어들어 나우팔을 두 동강 내었다. 나머지는 어렵사리 참호를 건너 퇴각하였다. 다신교도 군대의 지휘부는 전쟁 초기의 실패로 좌절에 빠졌다. 이렇게 하여 전쟁의 양상이 결정되었다. 참호가 정면 대결을 방해하였으므로, 양 진영은 화살을 쏘아 서로에게 타격을 주려 애썼다. 그것 또한 시간만 연장시킬 뿐 큰 효과가 없었다. 다신교도들은 그런 방식으로 무슬림들을 압도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달았다.
결국 그들은 참호 전반에서 총공격을 감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1 만 명의 대규모 부대가 참호를 건너려 시도했고, 3 천의 무슬림 군대는 화살과 돌로 그들을 저지하는 무서운 전투가 시작되었다. 이날 저녁까지 이러한 접전은 계속되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밤이 되자 참호 주변 여러 곳에 감시초소를 세우고 경계에 만전을 기했다. 그분 자신이 폭 좁은 참호의 첫 감시병이 되었다. 예언자는 5 백 명의 순찰대를 메디나로 보내 거리에서 타크비르를 소리 높여 외치게 했다. 이는 유대인들과 다신교도들의 습격위험으로부터 여자들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책이었다. 꾸라이자 유대인들은, 후야이 빈 아흐탑을 다신교도에게 보내, 야밤 공격을 위해 2 천명의 병사를 요구했다. 야밤에 여인들과 아이들을 공격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무하지르들은 아침까지 돌면서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라고 외치자 이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성으로부터 퇴진하여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다. 수시로 작은 단위로 메디나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어느날 밤 꾸라이자 민족의 지도자 중 가잘은 10 명의 병사를 이끓고 예언자의 고모, 사피야 부인의 저택에까지 접근하는데 성공하였다. 안에는 여인들과 아이들이 있었다. 유대인들은 화살을 쏘아대고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들중 한 명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고 집의 마당에서 건물로 들어갈 입구를 살피고 있을 때, 영웅 사피야 부인이 소리를 내지 말라고 모두들에게 말하고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문 옆에 숨었다. 머리에 헝겊 천을 두르고는 남자처럼 변장하여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허리에는 칼을 찼다. 천천히 문을 열고는 그 유대인의 뒤로 다가가 손에 있던 몽둥이로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그리고는 그를 죽였다. 그자의 머리를 밖에서 활쏘느라 정신없던 적들을 향해 던졌다. 적들은 머리와 팔을 보고는 겁을 먹고 도망을 치기에 정신이 없었다.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무슬림의 집에는 남자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모두 전쟁에 나갔다고 전해주었는데···” 라며 불평을 하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 전투는 다시 맹렬하게 전개되었다. 화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참호를 둘러싼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교우들에게

"나의 존재의 의미이신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하건데, 우리가 대면한 고난을 없애시고, 그대들에게 편안함을 주시리다." 라며 교우들에게 인내할 것을 요구하며 승리는 믿는자들의 것이라는 기쁨을 주었다. 이것을 들은 교우들은 배고픔과 고난을 잊고 성심성의를 다했다. 참호를 단 한 명의 다신교도 지나칠 수 없게 철통같이 지켰다. 교우들의 선두, 사아드 빈 무아즈 성인은 위대한 영웅성을 보이며 전투에 임했다. 전쟁중 히반 빈 카이르라는 다신교도의 활에 맞아 팔을 다쳤다. 활이 바로 동맥에 꽂혀 많은 피를 흘렸다. 사아드 성인은 주위 동료들이 지혈을 위해 애쓰는 것을 보고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채고는 "오, 알라후 테알라! 꾸라이쉬의 적들과 전쟁이 계속된다면, 나의 생명을 연장하소서. 왜냐하면, 당신의 사도를 괴롭히는 또 그분을 다치게 한 다신교도들과의 싸움만큼 더 한 기쁨이 없습니다. 만약, 이 전쟁이 끝난다면 저를 순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라고 기도를 올렸다. 기도가 받아들여지고 피가 멎었다. 교우들사이에서 전투를 하던 위선자 압둘라 빈 우바이 등은 아주 늦장을 부리고 있었다. 최전방으로 나가지 않고 있었다. 또한 이슬람 병력의 사기를 저하 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이 당신들에게 로마제국과 페르시아의 보물을 약속했는데, 당신들은 지금 참호에 갇혀 있군. 두려움으로 볼일 보러도 못가고 있소.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우리를 속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라며 혼란을 일으키려 하였다. 일부는 어려운 지경에 빠지면, 적들이 집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면서 의무를 제끼고는 자리를 떠났다.

다신교도 군대는 가능하면 빨리 전과를 올리려고 총력을 쏟아 공격을 실시했으나, 무슬림 전사들의 영웅적 방어벽에 부딪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집중공격을 받은 곳은 참호의 너비가 좁은 곳이었다. 예언자는 한 번도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 예언자의 앞에서 전투를 하는 영광을 차지하기 위하여 교우들은 전쟁에서 여태 본적이 없는 용맹함을 선보였다. 한번은 다신교도들이 몰려나와 활로 맹렬한 집중사격을 실시하였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온 세계의 귀감인 예언자가 있는 천막이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채 천막 앞에 꼿꼿이 서서 전쟁의 흐름에 따라 교우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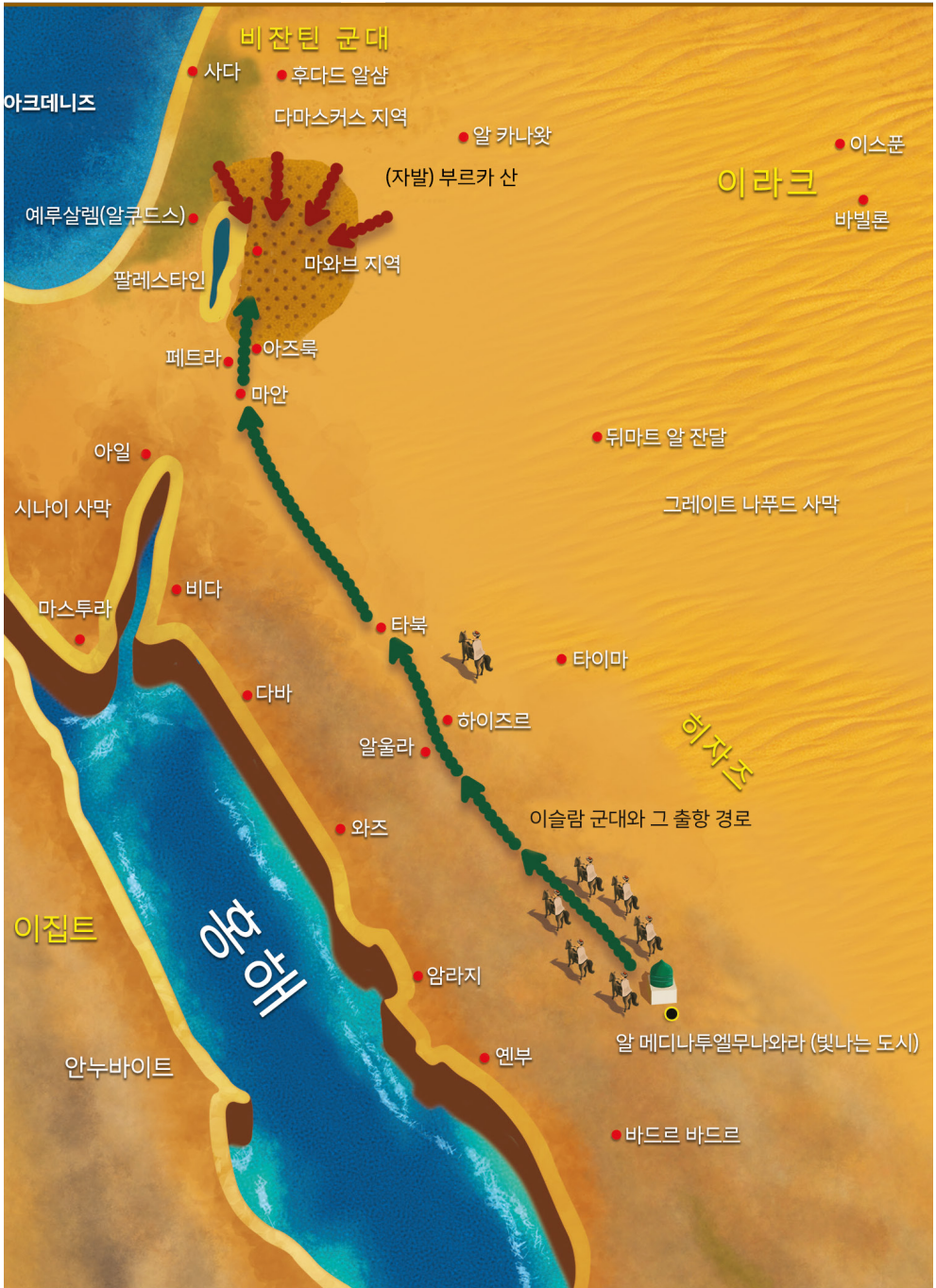
다신교도들은 때때로 취약한 지역에 대해 합동공격을 감행했다. 교우들은 그곳으로 질주를 하여 적들을 격퇴하였다. 전투는 매우 치열하여 교우들은 주변을 둘러볼 여유조차 없었다. 그날 전투는 아침에 시작하여 밤 늦게까지 계속되었다. 예배시간이 될 때마다 교우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소연했다. 온 세상의 귀감인 예언자도 "나도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라며 슬퍼하였다. 밤 예배시간이 되어도 적들이 예배올릴 겨를을 주지 않자, 교우들은 다신교도들을 강하게 공격하여 뒤로 물러서게 하였다. 밤이 되어 적이 퇴각하자 교우들은 예언자의 천막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보통 때 나쁜 기도를 하지 않지만, 다신교도에 대해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들의 집과 그들의 뱃속과 그들의 무덤에 불을 가득 채우시기를! 그들은

우리를 해질 때까지 바쁘게 하여 예배조차 올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언자는 지연된 낮 예배와 오후 및 저녁 예배를 올린 후 밤 예배를 인도하였다. 다신교도들은 밝은 대낮에 무슬림들을 공격하여 압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하여 유일한 해결책은 밤에 기습공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들은 즉시 쿠라이자 부족 유대인들과 함께 야간 습격부대를 조직하였다. 그들은 몇 개의 소규모 부대로 나누어, 번갈아가며 공격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공격은 며칠간 이어졌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와 용감한 교우들은 굶주림과 졸음 및 피로와 싸우면서 방어를 계속하였다. 한 명의 적도 참호를 넘어서지 못했고, 교우들은 온 힘을 다하여 전투에 임했으며, 이처럼 격렬하고어려운 방어
전이전의 전투에서는 볼 수 없었다. 며칠 동안전투를 계속하다보니 다신교도들도 식량난에 부딪쳤다. 그들의 말과 낙타 또한 한 줌의 풀도 찾지 못해 죽어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디라르 빈 캇탑이 지휘하는 다신교도의 보급대가 쿠라이자 부족으로부터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배반의 우두머리인, 쿠라이자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털어 낙타 20 마리 분량의 밀, 보리, 대추야자, 그리고 동물을 위한 건초 등을 조달했다. 행복에 겨워 귀환하던 다신교도 보급대는 꾸바 근처에서 용감한 무슬림 전사들의 공격을 받았다.
격렬한 싸움 끝에 무슬림 전사들이 승리를 차지하였고, 낙타에 실린 소중한 보급품은 우리의 예언자 앞으로 운반되었다.

전투가 한 달 동안 이어지는 동안 우리의 예언자는 힘을 다하는 교우들을 동정하여 그들에게 아버지 보다 더한 사랑을 쏟아부었다. 영광스러운 교우들이 능력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하자 예언자는 축복받은 머리를 땅에 대고는 알라후 테알라께 간곡한 기도를 올렸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우시는, 힘없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자의 기도를 수락하시는,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당신은 저와 우리 교우들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불신자들을 패배시키소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소서!" 예언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기도를 올렸다.

다신교도들은 기근으로 인한 고통으로 하루 바삐 무슬림들을 패망시키려고 모든 힘을 모아 공격했다. 어느 날 저녁 다신교도 진영에서 어떤 사람이 예언자를 찾아왔다. 그는 가타판 부족 출신의 누아임 빈 마수드로 평소 이슬람에 대해 호감을 지니고 있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나는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와 그 예언자를 증언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내가 무슬림이 되는 영광을 주신 알라후 테알라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당신에 맞서 싸웠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불신자들을 상대로 싸울 것입니다. 당신이 제게 명령하면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우리 부족 사람들도 내가 무슬림이 된 줄 모릅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 무리에 침투하여 그들의 의견들을 분열시킬 수 있겠는가?" 그가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무타

비잔틴 군대
사다
후다드 알샴
아크데니즈
다마스커스 지역
알 카나왓
이스푼
(자발) 부르카 산
이라크
예루살렘(알쿠드스)
바빌론
마와브 지역
팔레스타인
아즈룩
페트라
마안
뒤마트 알 잔달
아일
그레이트 나푸드 사막
시나이 사막
비다
마스투라
타북
타이마
다바
하이즈르
알울라
히자즈
이슬람 군대와 그 출항 경로
와즈
이집트
홍해
암라지
알 메디나투엘무나와라 (빛나는 도시)
옌부
안누바이트
바드르 바드르

도움 아래 그들을 분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해도 좋은지요?" 예언자가 말했다. "전쟁은 계략이니,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말해도 좋다."

누아임 성인은 먼저 쿠라이자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했다. "내가 당신들 편이라는 걸 잘 알거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비밀에 부쳐주시오." 유대인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노라 맹세했으며, 누아임이 말을 이었다. "무함마드(알라히살람)의 일은 골치아픈 일이오. 그가 나디르와 카이누카 부족을 고향에서 추방하는 걸 보았지 않소. 이제 꾸라이쉬 부대가 무슬림과 싸우고

여러분이 그들을 돕고 있소. 이제까지 여러 날 싸웠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고 포위는 계속 연장되고 있소. 꾸라이쉬와 카타판 부족은 여러분처럼 집과 재산과 재물과 자식들이 여기에 있지 않소. 그들이 만약 기회를 잡아 승리를 거둔다면, 전리품을 끌어 모아 고향으로 돌아가겠지요. 만약 그들이 패배한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버려둔 채 서둘러 떠날 것이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무슬림들을 누를 힘이 없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무슬림이 승리할 공산이 크오. 만약 내 예상대로 되면 무슬림들은 여러분에게 칼을 들이댈 것이오. 이 때문에 그 예방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오."

흥분과 공포에 휩싸여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누아임 성인이 그토록 자신들을 염려해 주는 것이 고맙게 여겨졌다. "당신은 우리에 대한 우정을 충분히 보여주었소. 우리가 어떤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겠소?" 누아임 성인은 이 말을 기다렸다가 대답했다. "꾸라이쉬와 가타판의 저명인사들을 인질로 잡기 전에는 절대로 무슬림과의 교전에 참여하지 마시오! 그 인질들이 있는 한 그들은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방책을 수락하였고, 누아임 성인에게 감사의 선물을 주었다.

누아임 성인은 유대인들을 떠나 꾸라이쉬 부대의 사령부로 갔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에 대한 나의 적개심을 여러분은 잘 알 것이오. 우리의 우정을 위해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이 있소. 그러나 비밀을 지키는 서약을 해야 하오." 그들은 서약을 하고나서 그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였다. 누아임 성인이 조심스레 말했다. "쿠라이자 유대인들이 당신들과 손잡은 것을 후회하고 무함마드(알라히살람) 에게 사람을 보내어 '꾸라이쉬와 가타판의 유명인사들의 목을 치기 위해 인질을 요구해 당신에게 넘기겠소. 당신과 협력하여 다신교도들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싸웁시다! 대신에 우리의 형제 나디르 족을 용서하고 이 땅으로 오는 것을 허락하시오!'라 전하여 무함마드(알라히살람)가 이를 수락했답니다. 따라서 만약 쿠라이자가 인질을 요구하면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되오." 누아임은 가타판 부족을 찾아가서도 이와 같이 조언하였다.

그 이튿날 꾸라이쉬 사령관이 쿠라이자 부족에게 통지하였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고, 우리 동물들이 굶어죽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밤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가 내일 맹렬한 공격을 가합시다.” 유대인들이 응답했다. “첫째, 우리는 안식일(토요일)에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려면 여러분이 인질을 제공해야 합니다. 포위기간이 길어져 당신들이 할 수 없이 철수하고 나면 우리를 무함마드(알라히살람)에게 받치는 것이 됩니다. 당신들이 인질을 제공하면 당신들은 우리를 남기고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꾸라이쉬 사령관이 말했다. “과연 누아임의 말이 사실이었군!” 그는 다시 유대인에게 전갈을 보냈다. “우리는 인질을 제공할 수 없다. 내일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싸운다면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홀로 무함마드(알라히살람)과 그 교우들을 상대해야 할 것이다.”

쿠라이자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보니 과연 누아임 성인의 말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들은 대답했다. “이러한 경우라면 우리는 당신들과 연합하지도 않을 것이고, 무슬림과도 싸우지 않을 것이오.” 그리하여 두 집단의 마음은 공포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브릴 천사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와서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메디나 알 무나와라와의 옛 모습(1890년)

회오리 바람으로 다신교도를 파멸시킬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온 우주의 귀감인 예언자는 무릎을 꿇고 그의 축복받은 팔을 뻗쳐 알라후 테알라께 감사기도를 올렸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저와 저희 교우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알라후 테알라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뒤에 예언자는 교우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토요일 밤이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온 천지를 분간할 수 없게 하였고, 얼음같이 차갑고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무슬림 전사들은 추위 때문에서 있을 수가 없어 무언가를 덮어쓰고 그대로 대기하였다. 그날 밤을 후자이파트 두브누 야만 성인이 이렇게 술회했다. "그렇게 상서롭지 못한 밤이였지요. 그때까지 이렇게 어두운 밤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두움 속에 천둥소리를 닮은 소리가 나더니 함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다신교도들 진영은 걱정과 공포로 의견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예언자가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공포로인하여 일어설 수가 없어, 그 자리에 앉아 위에 덮개를 덮고 기다렸습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밤 예배를 올리고, 밤의 일부를 추가 예배로 보낸 후 "그대들 중 누가 적진에 가서 동정을 살피고, 나에게 정보를 가져오겠는가? 정보를 가져오는 교우는 천국에서 나의 친구로 삼아달라고 알라후 테알라께 기도하겠다." 라 말했다. 거기에 있던 교우들은 모두 허기지고 추위로 인하여 일어서지 못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내 곁으로 왔다. 나는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하여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다. 예언자가 나를 건드리며 "그대는 누군고?" 하고 물으니, "저는 후자이파입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예언자가 "가거라, 저기 적들이 무엇을 하는지 가서 보거라! 내 곁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들에게 활, 돌, 창, 칼을 쓰지 말거라. 네가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추위나 더위가 너에게 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포로가 되어 고문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칼과 활을 들고 채비를 마쳤다. 예언자는 나를 위해 "나의 알라후 테알라! 그를 앞에서 뒤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보호하소서" 라고 기도하였다. 후자이파 성인이 담대하게 다신교도 진영으로 갔다. 마음 속에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떨림도 없었으며, 어떠한 추위도 느끼지 않았다. 사령부에는 지휘관들과 지도자들이 모여 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고 있었다. 아부 수피얀이 "여기를 떠나야 하오" 라고 말하고 있었다. 순간 그를 죽이고 싶었다. 화살을 꺼내어 활에 장착하였다. 막 활을 쏘려고 할 때, 예언자의 "내 곁으로 돌아올 때까지 일을 벌이지 말라" 는 말이 머리를 스쳤다. 죽이는 것을 포기 하였다. 후자이파는 큰 용기를 내어 그 불 곁으로 다가갔다. 이때 예상치 못한 강한 바람과 알라후 테알라의 군대, 천사들이 그들을 처벌하고 있었다. 바람은 그들의 주방기구가 모두 떨어지고 모닥불과 등불도 꺼버렸다. 천막이 쓰러져 머리위로 날라왔다.

소동이 진정된 후 아부 수피얀이 일어서 말했다. "우리들 사이에 첩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옆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시요. 모두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으시오" 아부 수피얀은 그들 사이에 낯선자가 있다는 의심을 했다. 즉시 나는 손을 내밀어 오른쪽 사람과 왼쪽 사람의 이름을 알아내어 발각되는 것을 모면했다. 아부 수피얀은 군사들에게 이렇게 표현했다. "꾸라이쉬 동포여, 우리는 지금 적절치 못한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말과 낙타가 죽기 시작했고 기근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바람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즉시 이곳을 떠나 출발하시오! 이제 나는 돌아 갑니다." 그는 낙타에 올라탔고, 다신교도 군대는 처절히 망가진 모습으로 메카를 향하였다. 그들은 도중에 강력한 모래와 자갈 폭풍을 만났다.

그들이 출발하자 나는 즉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있는 곳으로 향하였다. 도중에 하얀 터번을 두른 20 명의 기마병(천사들)을 만났다. 그들이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전하시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적들을 궤멸시켰다고." 내가 예언자가 있는 곳에 오자 첩보로 떠나기 전의 그 한기와 떨림이 느껴졌다. 그분은 깔개 위에서 예배를 올리고 있었다. 예배가 끝난 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적진의 동태를 물었다. 나는 그들이 궤멸되었으며, 고향으로 출발했다고 보고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서 환한 웃음을 지었다. 몇날 몇밤을 잠을 자지 못했다. 예언자는 나를 옆으로 눕히고 깔개의 한쪽으로 덮어주었다. 그날 밤을이렇게 보내고여명이 밝아오자 예언자가 나를 깨웠다. 아침에 보니 다신교도들의 흔적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들이 메카에 당도할 때까지 강한 바람이 계속되었고 뒤에서 타크비르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꾸라이쉬 부족이 사령부를 떠나 탈출하자, 다른 다신교도 부족들도 서둘러서 메디나를 떠났다. 잊을 수 없는 참패를 맛 본 그들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편, 예언자와 그분의 영애로운 교우들은 알라후 테알라께 감사의 경배를 하느라분주했다. 이슬람군대는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를 외치며 메디나로 향했다. 메디나의 길거리는 아이들로 넘쳐흘렀다. 이 세상의 귀감과 축복받은 그들의 아버지, 숙부, 형제들은 커다란 기쁨으로 맞이 하였다. 참호 전투에서 6 명이 순교하였다. 이 성전에 대하여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계시가 꾸란 아자브 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있다.
'하니님께서 (참호전투의) 이단교도들에게 어떤 보상도 어떤 승리도 주지 않으시고, 커다란 분노를 안고 돌아서게 하셨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천사들과 바람으로)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으니라. 알라후 테알라의 힘은 모든 것을능가하고, 그분은 모든 것을 이기시는 분이라.'(33:25 의 해석)

'오, 믿는 자들이여! 알라후 테알라의 은혜를 회상하라. 즉 그대들에게 (참호 전투에서) 적군들이 그대들을 공격하여, 내가 적들에게 바람과 그대들이 보지 못하

는 (천사들) 군대를 보냈도다…'(33:9 의 해석)

이 전쟁이 끝난 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말했다. "이제는 너희들 차례이다. 지금부터는 꾸라이쉬가 우리를 향해 진군하지 못할 것이다."

쿠라이자 부족 유대인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메디나로 돌아와 아이샤 부인의 집으로 갔다. 그분은 갑옷과 무기를 내려놓았다. 그분의 축복받은 몸은 온통 먼지로 뒤덮여 있어 먼저 깨끗이 씼었다. 바로 그 순간 갑옷을 입고 무장한 기마병이 디흐야 성인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왔는데, 이는 지브릴 천사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그를 맞으러 나가자 지브릴이 알라후 테알라의 명령을 전했다. "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알라후 테알라께서 지금 즉시 쿠라이자 부족을 향해 진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온 세상의 귀감인 예언자는 빌랄 성인을 불러 교우들에게 이렇게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오, 나의 교우들이여! 일어나라! 너의 말과 낙타를 타라. 이 명령을 따르는 이는 쿠라이자 부족의 땅에서 오후 예배를 올릴것 것이다!"

우리의 예언자는 곧바로 자신의 갑옷을 입고 칼과 창을 챙겼다. 그는 말 위에 올라 이슬람의 깃발을 알리 성인에게 넘겨주고, 그를 선봉으로 쿠라이자 유대인의 성채로 진격을 시작했다. 매 번 그러하듯이 메디나에는 압둘라 아브니 움미 막툼을 대리자로 남겨 놓았다.

예언자와 교우들은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라 외치면서 메디나를 떠났다. 도중에 그함 민족들과 마주쳤다. 예언자는 "당신들은 여기를 지나가는 누군가를 보았소?" 라 물으니 그들이 "오, 예언자여! 디야-이 칼라브를 보았습니다. 그는 하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안장에는 비단 양단이 깔려 있더군요." 라 대답하니, 예언자는 "나를 쿠라이자에 보낸, 지브릴 천사도다. 그는 적의 성채를 혼란에 빠뜨리고 적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기위해…" 라 하였다. 유대교인들의 성에 닿을 때까지 무슬림 전사는 모두3 천 명에 달했다.

알리 성인이 쿠라이자 유대인들의 성채 앞에 이슬람의 깃발을 우뚝 세웠다. 그들은 이슬람으로의 초대를 거부하고 완고하게 저항할 의사를 보였다. 알리 성인이 이를 알리자 예언자는 3 천명의 병력을 이끎고 직접 성에 당도하여,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들을 이슬람으로 초대를 했지만 그들이 거부하였다. 사랑의 예언자는 "알라후 테알라와 그의 사도의 명을 받아 성에서 내려와 항복하시오" 라는 명령도 거부하였다. 예언자는 사아드 빈 아비 왁까스 성인에게 "오, 사

아드! 앞으로 나가 저들에게 활을 쏘라." 하였다. 활 부대가 화살공격을 실시함으로써 적들도 활로 대응하여 전투가 개시되었다. 세력이 약해진 무슬림을 배반하고 뒤에서 등을 찔렀던 이 유대인 집단은 그들의 질투심 때문에 예언자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용기조차 없어 성문을 열고나와 싸우지도 못했다.

포위가 계속되었다. 무슬림 중에 위선자들이 있어 유대인들 성채에 비밀 쪽지를 보냈다. '절대 항복하지 마라! 메디나를 떠나라는 요구를 수락하지 마라! 당신들이 계속 싸우면 우리가 모든 힘을 모아 도울 것이다.' 이러한 제안을 받은 적들은 위선자들을 믿고 힘을 다져서 대항을 계속하였다. 포위가 한 달간 계속되었다. 위선자들로부터는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다. 유대인들은 공포에 질려 협정을 맺자고 제안했다.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납바쉬 빈 까이스라는 유대인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왔다. "오, 무함마드(알라히살람)! 나드르 민족에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정을 베푸시어 가족들을 데리고 그냥 떠나게 해주십시오. 모든 재산과 무기를 포기할 테니 죽이지만 말아주십시오, 무기를 제외하고 한 가정 당 한 낙타의 재산을 반출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대답했다. "안되오!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소." 그러자 그가 말했다. "재산을 옮기는 것도 포기하겠습니다. 어린이와 여자들을 데리고 가게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말했다. "안되오! 나에게 무조건 항복하여 우리의 결정에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소!" 압바쉬는 절망에 빠진 상태로 성채에 돌아갔다.

쿠라이자의 지도자인 카아브 빈 아사드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그는 자기 부족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이 닥쳤으니 내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겠소. 첫째, 무함마드(알라히살람)에 복종하고 그의 예언자 직분을 승인하는 것이오.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의 생명과 재산, 여자와 어린이들을 모두 구할 수 있소. 우리가 그에게 불복종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

가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닌 아랍인이어서 이를 질시하기 때문이오." 유대인들을 이 방안을 만장일치로 거부하였다.
카아브는 두 번째 제안을 하였다. "우리 아이들과 여자들을 모두 죽입시다. 걱정해야 할 사람들을 모두 정리한 다음 무슬림에게로 전진하여 죽을 때까지 싸웁시다." 이 제안도 유대인들은 거부하였다.

카아브는 세 번째 제안을 말했다. "오늘 밤은 토요일 밤입니다. 무슬림들은 우리가 안식일에 싸우지 않는 줄 압니다. 우리가 성문을 열고 기습공격을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제안도 거부했다.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사항을 위반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오로지 아시드와 살라바 형제, 그리고 그들의 사촌 아사드만이 첫 번째 제안을 받아들여 무슬림이 되는 영광을 얻었고, 그들은 성채를 나와 교우들과 합류하였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토론을 한 끝에 결국 항복하기로 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줄 중재자를 요구했다. 예언자는 "교우들 중, 원하는 사람을 중재자로 뽑으시오" 라 하니, 그들이 "우리는 사아드 빈 무아즈가 내리는 결정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라 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사아드 빈 무아즈 성인을 중재자로 보내주도록 요청하였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이를 승낙하고 사아드 성인을 데려오도록 하였다.

사아드 빈 무아즈는 참호 전쟁에서 중상을 입었으며,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그를 예언자 성원에서 치료토록 조치해 놓고 있었다. 그가 중재자로 선정되자 사람들은 들 것에 그를 싣고 예언자 앞으로 왔다. "오, 사아드! 그대의 결정에 따라 그들이 항복하기로 동의했다. 그대의 판단을 듣고 싶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제 의견보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와 그 사도가 보다 중요합니다." 라 하였다. 사아드 성인은 자신의 평결에 따르겠다는 유대인들의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고 생각에 잠겼다. 양쪽 모두 신경을 집중하여 그의 발표만을 기다렸다. 드디어 그가 결론을 내렸다. "나의 평결은 쿠라이자의 모든 건강한 남자 및 사춘기에 달한 남자를 참수하는 것이다. 그들의 여자 및 아이들은 포로로 한다. 그들의 재산은 무슬림들에게 분배한다."

이 같은 판결에 유대인들은 망연자실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서에 자신들이 저지른 것과 같은 과도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바로 이러했다. '악덕한 자들에게 맞설때, 먼저 평화 제의를 하고, 이것을 받아들여 문을 열면 모든 것들에 대해 세금을 내게하고 또 너희를 받들어 모시게하여라. 만약 전쟁을 원한다면, 그들을 포위하여 공격하라. 알라후 테알라의 뜻으로 그들을 이기면, 남자들은 모두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과 재산은 압수하라!'라고 적혀있다. 사아드 성인의 판결이 이것과 같았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평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예언자는 사아드 성인을 축하하여 "그대는 저들에 대해 알라후 테알라의 뜻에 맞는 적합한 판결을 내렸도다"라 하였다. 모든 사춘기 이상의 정상인 남자들의 목이 베어졌고, 여자와 어린이들은 교우들에게 분배되었다. 어려운 시기에 무슬림들의 등을 찔렀던 이 부족은 마침내 메디나에서 소멸되었다. 교우들은 행복하게 메디나로 귀환하였다. 포로로 잡혀온 한 여자가 무슬림이 되는 영광을 얻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이를 가상하게 여겨 그녀와 결혼함으로써 더욱 축복되게 하였다. 이 부인은 라이하나 부인이다.

사아드 빈 무아즈의 순교

쿠라이자 부족 유대인들에 대한 평결을 마친 뒤, 사아드 빈 무아즈는 다시 자신의 천막으로 옮겨졌다. 그의 상처는 악화되어 위험한 상태가 되었다.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와서 그를 부둥켜안고 기도를 올렸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사아드는 알라후 테알라의 길을 위해 성전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를 낫게 해주소서!” 라고 기도를 하였다. 사아드 성인은 예언자의 기도를 듣고 눈을 떴다. “오, 예언자여! 당신에게 문안을 올리고, 존경을 표하옵니다. 나는 당신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임을 맹세코 믿습니다.” 라고 속삭였다. 이후 그의 친척들은 그를 압둘라샬의 가문으로 그를 옮겼다. 그날 밤 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지브릴 천사가 예언자에게 내려와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오늘밤 당신의 한 백성이 생명을 다하여, 천사들 사이에서 축복을 받고 있는 그가 누구인가요?” 라고 물으니, 예언자는 즉시 사아드 성인의 상태를 물었더니,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고 하였다. 예언자는 다른 교우들 몇몇을 데리고 사아드 성인의 곁으로 갔다. 길을 재촉하였기에 숨이 가빠진 교우들이 “천사들이, 한잘라의 장례식에 우리보다 먼저 도착했던 것처럼, 사아드의 장례식에도 먼저 도착하겠군. 우리는 늦겠구나” 라 말하며 그 이유을 밝혔다. 사아드 성인에게 도착했을 때 이미 숨을 거둔 후 였다. 머리 맡에서 사아드성인에게 조의를 표하고는

“오, 아부 아므르! 그대는 종족의 최고요,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그대에게 끝없는 축복과 가장 훌륭한 보상을 하시리라. 그대는 알라후 테알라께 약속을 이행했도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도 그대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하시리라!” 사아드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다음의 구절을 낭송하였다.

어찌 참을 것인가, 아하,
가련한 어머니!
인내가 필요할지라,
슬프도다, 내게 생긴일에

아스람 빈 하리스는 이렇게 술회했다. “예언자가 사아드의 집에 당도하였다. 우리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예언자가 안으로 들어갔다. 걸음 폭이 아주 넓었다. 우리도 뒤를 따랐다. 예언자가 멈추라는 몸짓을 보고 우리는 되돌아갔다. 안에서 얼마동안 머무르고는 밖으로 나오셨다. 궁금해서 물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걸음 폭을 넓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언자께서 “이렇게 많은 손님들(천사들)이 있는 곳을 본 적이 없소. 천사들 중의 하나가 나를 날개에 앉혀 주었다오.” 라 대답하였다. 이후에 사아즈 빈 무아즈의 이력을 말하고는 “축복을 만끽하라, 아바 아므르! 축복을 만끽하라, 아바 아므르! 축복을 만끽하라, 아바 아므르!” 라 하였다.

그의 죽음은 예언자와 교우들의 매우 슬프게 하여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장례식에는 모든 교우들이 집결하였다. 예언자는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는 교우들과 함께 손수 장례관을 옮길 때, 교우들이 이렇게 가벼운 장례관을 본적이 없다 하였더니, 교우들에게 "천사들이 내려와 장례관을 옮기고 있소." 라 알려주었다. 장례행렬이 지나갈 때, 위선자들이 악의를 가지고 "왜 이렇게 가벼워!" 라 하자, 예언자는 "사아드의 장례식에 7 만의 천사들이 내려왔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천사들이 내려온 적이 없소." 라 대답하였다.

아부 사이드-일 후드리는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이렇게 전하였다. '사아드 빈 무아즈의 무덤을 파는데 동참했다. 무덤을 파기 시작하자 주위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슈라빌 빈 하사나도 이렇게 전하였다. '사아드 빈 무아즈를 무덤에 안치하고 나서, 어떤 이가 흙 한줌을 쥐고 집으로 가져갔다. 그 흙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예언자는 무덤앞에 앉고는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 채, 손으로 수염을 만지며 슬픔을 표현하였다. "사아드 빈 무아즈의 죽음으로 인해 천국의 아쉬 나무도 슬펴하더라" 라 하였다.

한 번은 예언자가 아주 귀한 옷을 선물 받았다. 교우들이 얼마나 멋진가라고 하는 말에 "사아드의 천국에 있는 손수건 조차 이 보다 더 아름답도다" 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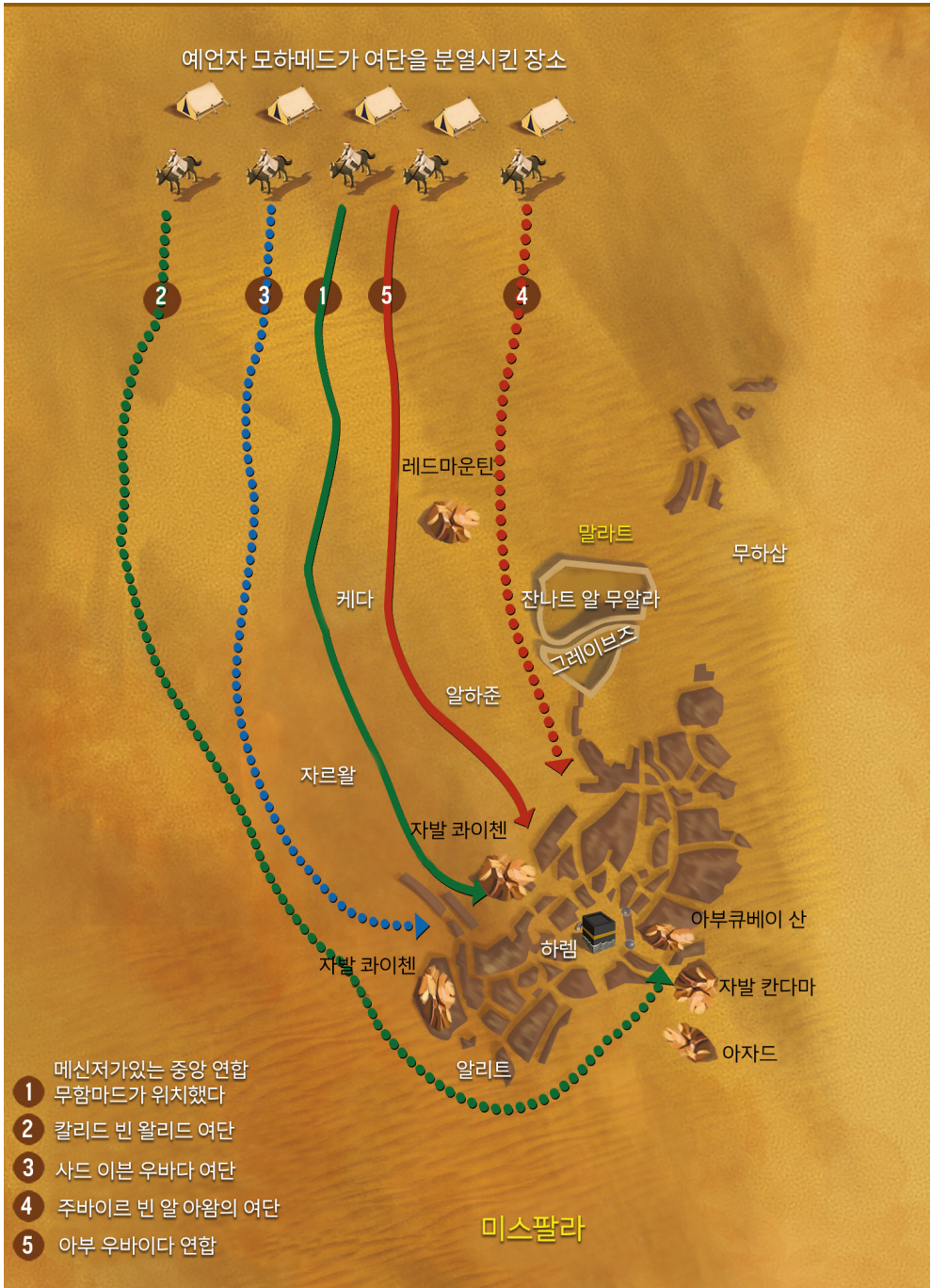
히즈라 5 년에 일어난 중요한 일들은: 예언자는 천명의 병력을 이끎고 두마툴 잔달 지역에 사는 부족들의 원정에 나섰다. 이 종족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여행자를 괴롭히고 메디나를 위협하였기 때문이다.

예언자는 자이납 빈티 자쉬와 '둘카다'달에 결혼했다. 이해에 꾸란의 '히잡 장'이 계시되어 여자들로 하여금 몸을 가리도록 하였다. 위선자들이 아이샤 성인을 모략하여 일부 무슬림들도 이에 속아 넘어갔다. 꾸란의 계시로 인하여 아이샤 성인의 결백이 밝혀져 아이샤 성인이 칭송을 받았다.

메디나 근처에 살고 있던, 뮤자이나 부족에게 이슬람 사절단이 보내어져 무슬림이 되어서 무하지르가 되었다. 또 이 해에, 지진과 월식이 일어났다. 이드(하지)가 이해에 (알라후 테알라의 명령으로) 의무화 되었다.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나의 마음은 피로 붉게 물들고, 오, 예언자여.
당신에 대한 사랑의 불길을 어찌 견디겠나요, 오, 예언자여
나는 알라후 테알라의 첫 모임의 구슬픈 신음이옵니다, 오
예언자여아름다운 모습으로 타 버린 나를 기쁘게하소서, 오
예언자여

메카 정복

예언자 모하메드가 여단을 분열시킨 장소
2
3
1
5
4
레드마운틴
말라트
무하삽
케다
잔나트 알 무알라
그레이브즈
알하준
자르왈
자발 콰이첸
아부큐베이 산
하렘
자발 콰이첸
자발 칸다마
아자드
알리트
메신저가있는 중앙 연합
무함마드가 위치했다
칼리드 빈 왈리드 여단
사드 이븐 우바다 여단
주바이르 빈 알 아왐의 여단
아부 우바이다 연합
미스팔라

타버린 나의 마음의 치유이시고 더할 나위없는 치료이시라.
당신은 커다란 관용이시며, 인도자이시라

당신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랑으로, 당신의 이름은 무함마드,
무스타파아름다운 모습으로 타 버린 나를 기쁘게하소서, 오
예언자여

당신의 빛이 없다면, 장미는 맺지 않고 물은 흐르지 않나니,
당신이 처다보지 않는다면, 만물은 헛없고, 숨을 거두리라
당신의 영원함을 모른다면, 이별과 결합이 슬퍼 우나니,
아름다운 모습으로 타 버린 나를 기쁘게하소서, 오 예언자여

-야만 데데-

후다이비야 조약

참호 전쟁이 끝난 뒤 주변의 여러 부족들은 이슬람 국가의 힘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무슬림들과 친구가 되거나, 더 나아가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일부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있는 곳에 와서 무슬림이 되는 영광을 얻었다.

온 세상의 귀감, 예언자는 이슬람 종교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우들을 군사단위로 조직하였다. 그분은 이 군사 조직들을 주변 부족에게 보내 이슬람으로 초대하였으며, 어떤 곳에는 본인이 직접 가기도 하였다. 듀마툴 잔달 부족은 이슬람으로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무슬림이 되었고, 가타판과 리얀 같은 일부 부족들은 무슬림 군들과의 대적이 무서워서 줄행랑을 쳤다. 이리하여 주변의 부족들이 정리되었다.

히즈라 6 년에 극심한 가뭄이 덮쳐 하늘에서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으며, 땅 위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았고, 사람과 동물이 굶주림에 시달렸다. 라마단의 거룩한 달 어느 금요일에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에게 그들의 소원을 이야기하였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기도하여 우리에게 비를 내리게 하소서." 우리의 예언자는 그의 교우들과 함께 들판으

로 나가 두 라카의 예배를 올렸다. 예언자는 두 팔을 높이 들어올리고 알라후 테알라께 탄원하였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저희에게 비를 내려주소서!" 교우들은 목소리를 모아 "아민! 아민!" 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기도를 올리는 동안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서서히 구름이 덮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마침내 비가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다. 온 세상의 예언자는 이때 이렇게 탄원했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비를 많이 내려주시어 우리를 복되게 하소서." 그 순간부터 굵은 빗방울의 호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와 교우들의 옷이 흠뻑 젖었다. 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으며, 물이 사방에 넘쳤다. 비가 계속 내려 사람들은 물속을 걸어 다녔다. 비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그 다음 금요예배 때 교우들이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비 때문에 집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동물들이 익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를 멈추어달라고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빙그레 웃고는 손을 들어 올려 기도하였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이 비를 먼 지역의 시골마을과 숲과 계곡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순간 일주일간 내리던 비가 멈추고, 다른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히즈라 6 년 둘까다 달이었다. 우리의 존경하는 예언자는 어느 날 밤 꿈에서 자신이 교우들과 함께 메카로 가서 카바 주위를 순행하고는, 각자의 머리를 밀거나 짧게 깎는 꿈을 꾸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교우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들은 모두 매우 흥분하였다. 히즈라 이후로 지금까지, 자신들이 자라난 추억이 서려있는 아름다운 그들의 고향 메카로 가서, 다섯 번의 예배시간에 맞추어 카바 둘레를 돌고 싶었다. 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인가! 그들은 예언자에게 말했다. "당신은 거룩한 성원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우들은 즉시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준비를 마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압둘라 빈 움미 막툼을 자신이 없는 동안 메디나의 대리자로 임명하고, 둘까다의 달 첫날 월요일 낙타 꾸스와에 올랐다. 그분과 함께 1 천 4 백 명의 교우들이 메디나 사람들에게 작별인사를 하였다. 그들은 '움라'순례를 하기 위해 거룩한 도시 메카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여행에 필요한 간단한 칼만 휴대하고, 희생용 낙타 70 마리를 데리고 갔다. 2 백 명의 기마병과 여자 교우 다섯 명이 교역단행렬에 합류했다. 그중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의 축복받고 정숙한 아내 움무 살라마 성인도 있었다.

그들은 성지순례를 하기 전에 모이는 장소인 '줄훌라이파'라는 미카트 [35] 에 도착하여 육체적 및 정신적인 준비를 마치고 난 뒤 오후 예배를 올렸다. 그런 뒤 희생으로 바칠 낙타의 귀와 목에 표식을 하고 이의 관리 책임자로 나지야를 임명했다. 압바드 빈 비쉬르는 기마병 20 명으로 구성된 정찰대의 지휘관으로 임명되어 전방으로 나갔다. 부쉬르 빈 수피얀은 메카로 보낼 전령으로 임명되었

[35] 성지 순례시 하렘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서 몸과 마음과 복장을 준비하는 하렘과의 경계선 지역.

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와 용감한 교우들은 하얀 순례복장(이히람)을 입고,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를 찬미하면서 그의 영광을 드높이는 기도를 올렸다. "랍바익 알라훔마 랍바익! 랍바익! 라 샤리카 라카 랍비익! 인날 함다 와니마타 라카 왈물카 라 사리카 락!" 하늘과 땅은 이 기도 소리로 가득찼다. 줄후라이파는 영광스러운 빛의 땅으로 변했다. 모든 사람이 기쁨에 넘쳤으며, 가능한 한 빨리 메카에 도착하려 서둘렀다.

도중에 우마르 성인과 사아드 빈 우바다 성인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다가와 걱정이 되어 말하였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우리와 전쟁을 했던 사람들에게 변변한 무기도 없이 가도 되겠습니까? 꾸라이쉬 민족들이 당신에게 해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나는 움라 성지순례의 의도를 가지고가는 것이다. 무기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여행은 순조로웠다. 우리의 예언자는 도중에 여러 부족을 방문하고 그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했다. 일부는 받아들이기를 망설였으며, 일부는 도리어 선물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목적지의 거의 절반에 도달했다. '우스판'의 뒤에 자리잡은 '가드룰 아쉬탓'이라는 지역에 도착하였다. 메카에 전령으로 파견되었던 부쉬르 성인이 꾸라이쉬 부족과 만난 뒤 돌아왔다. 그가 본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꾸라이쉬 사람들은 당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이웃 부족에게 잔치를 베풀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 백 명의 기마병을 보내 당신의 동태를 살피려고 출발했습니다. 이웃 부족들은 꾸라이쉬의 구원요청을 받아들여 발다라는 곳에서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군사요새를 구축하여 당신을 메카에 들여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온 세상의 귀감은 아주 슬픈 심정이 되어 말했다. "꾸라이쉬는 이미 궤멸되지 않았는가? 그들은 아직도 항거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진정으로, 알라후 테알라께서 나를 보내시어 전파를 명하신 이 종교를 위해, 이 종교가 세상을 압도할 때까지, 종교 널리 펼치기 위하여 내 목을 내놓고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런 뒤 예언자는 돌아서서 교우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영광스러운 교우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대답했다. "저희들은 알라후 테알라와 그 사도를 위해 언제라도 저희들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우리들은 성스러운 카바를 순례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죽이거나 전쟁을 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카바 방문길을 막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들과 싸워 우리의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교우들의 결정에 만족해하며 말하였다. "그렇다면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이름으로 전진합시다." 교우들은 "랍바익 알라훔마 랍바익! … 라 외치고 또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알라후 테알라께

후나인 전투

그 당시에도 벨리데스와 선지자들은 여전히 존경할 만한 존재였습니다.
선지자는 “그의 nafs”라고 말했고 전체 그룹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람들의 상태가 비참해지기를 바랍니다.
중재의 지원으로 광장은 다시 당신의 것이 됩니다.

당신은 아마드, 마흐무드, 모하메드입니다.
당신은 하크 출신의 술탄입니다.

셰이크 갈립

서는 위대하시다!” 라며 그들의 타크비르 소리도 드높게 하여 메카로 나아갔다. 정오가 되어 빌랄 성인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잔을 낭송하여 예배시간을 알렸다. 이 때 2 백 명의 꾸라이쉬 기병대가 도착하여 교우들과 메카를 사이에 두고 공격에 만전을 기하여 준비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언자와 교우들은 줄을 지어 늘어서서 예배를 시작하였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와 1 천 5 백 명의 교우들이 길게 늘어서서 일제히 큰 절을 하는 것은 산이 굽혔다가 일어서는 것과 같은 아주 독특한 광경이었다. 무슬림들이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 앞에서 무슬림들이 영예스러운 앞 이마를 맨땅에 대고 절을 하는 겸손함을 보이자 일부 꾸라이쉬 기마병들은 이슬람을 좋아하게 되었다. 교우들이 오른쪽, 왼쪽으로 하는 문안인사를 끝으로 예배를 마쳤다. 꾸라이쉬 기병대의 지휘관이 후회를 하며 말했다. “우리가 기습공격을 감행했다면 많은 무슬림들을 죽일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예배 중간에 왜 공격하지 않았던가?” 그리고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요. 그들은 생명보다 자식보다 더 중요한 예배를 할테니, 다음 예배 때는 반드시 공격을 하여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요.” 이들의 이런 작전을 알라후 테알라께서 지브릴 천사를 보내 ‘니사 장’계시를 통하여 예언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대가 전쟁 중에 그들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때 믿는 자들을 둘로 나누어 하나는 그대와 함께 예배를 올리고, 다른 하나는 적을 향해 대적하게 하라. 무기는 옆에 두라. 그대와 함께 첫 라카의 예배를 마친 자들이 앞으로 나가 적들을 대적하고, 다른 하나가 와서 그대와 함께 두번째 라카의 예배를 올리도록 하라. 갑옷과 방어물품과 무기는 옆에 두라. 그대가 예배의 마지막 인사를 할 때, 그들은 인사를 하지 않고 일어서 대적하러 가고, 첫 라카의 예배를 마쳤던 자들이 되돌아와 나머지 한 라카의 예배를 스스로 올리고 마지막 인사를 올리게 하라. 두번째 라카를 이맘과 함께 올린 자들이 되돌아와 한 라카의 예배를 올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여 마치도록 하라. 불신자들은 너희가 무기와 장비에 소홀히 하기를 바라매 너희를 일격에 공격하고자 함이라. 그러나 비가 오거나 몸이 아플 때는 무기를 소유하지 아니하여도 죄악이 아니지만 모두가 너희 자신들을 위해 경계하라. 실로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불신자들을 위해 고통스러운 벌을 준비하셨노라.”(4:102 의 해석)

오후 예배시간이 되자 빌랄 성인이 다시 아잔을 낭송하자, 꾸라이쉬 기병대는 메카와 교우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공격을 준비하였다. 우리의 예언자는 계시된 방식대로 예배를 인도하였다. 다신교도들은 이 같은 주의 깊은 예배 태도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들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공격을 감행할 수 없었다. 꾸라이쉬 기병대는 메카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곳을 떠났다. 우리의 예언자와 교우들은 후다이비야를 향하였다. 그들이 거룩한 메카의 경계에 이르렀을 때,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낙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땅에 주저앉았다. 사람들이 일으켜 세우려

자카트 장교가 파견된 지역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를 두고 온 세상의 귀감이 말했다. “저렇게 주저앉는 것은 습관이 아니다. 이는 필시 이전에 아브라하의 코끼리들이 메카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이번에는 꾸스와를 붙잡은 것이다.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컨데, 알라후 테알라의 성스런 하렘지역을 포함하여 금지하신 것(전쟁과 살인)을 그 어떤 것을 꾸라이쉬가 원하건 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실행하리다!”
그런 뒤 예언자는 낙타를 일으켰는데, 성스러운 하렘 지역 경계 안으로 낙타는 발을 들이밀지 않았다. 낙타는 경계선에 있는 후다비야라는 곳에 멈추었으며, 예언자와 교우들은 물이 부족하던 이곳에 머물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메카 교외에 천막을 세우고 교우들을 기다렸다. 예배시간이 되자 그들은 메카 경계 안에서 예배를 올렸다. 그곳 우물에는 물이 메

말랐으며, 예언자 이외에는 아무도 물을 갖고 있지 않았다. 어려운 지경에 처한 교우들은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당신을 위해 생명을 바치리니, 당신의 물통외에는 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큰 고난을 맞았습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한 여러분에게는 큰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는 "비스말라" 를 읊 뒤 그의 물통에 손을 대어 물을 나누어주기 시작했다. "자, 받으시오" 라 하였고, 그의 손가락 사이로 떨어지는 물을 교우들은 마셨다. 그런 뒤 교우들은 그 물로 몸을 씻고, 각자의 물통을 가득 채웠으며, 말과 낙타에게도 물을 넉넉히 먹였다. 자비의 바다인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교우들에게 미소지으며 바라보았다. 그분은 알라후 테알라께 감사하였다.

그날, 그자리에 있던 자비르 빈 압둘라는 "우리는 모두 천 오백 명이었습니다. 만약 십만명이었다 할지라도 그 물은 모두에게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라 말했다.

리드완의 서약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후다이비야에 있을 때 무슬림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후자아 부족의 수령 부다일이 찾아와서, 꾸라이쉬 군대가 이웃 부족과 연합하여 무슬림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우리의 예언자가 말했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러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움라 성지순례를 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저지하려 한다면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최근 몇 차례의 전쟁으로 꾸라이쉬 부족은 쇠약해지고 큰 해을 입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원한다면 나는 그들과 휴전을 함으로써 내 책임 아래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와 다른 부족간의 관계에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그들간에 전쟁으로 내가 이긴다면, 알라후 테알라의 권한으로 그들이 무슬림이 된다면, 꾸라이쉬 민족이 원한다면, 그들도 무슬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아, 패전한다면 그들은 그들이 원했던데로 편안함과 다시 힘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꾸라이쉬 민족이 내 제안을 수락하지 않고, 나에게 대적한다면, 나의 진리이신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하건데, 전파하고자 하는 이 종교를 위해, 내 몸이 두 동강이가 날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때 알라후 테알라께서도 내게 약속하신 도움을 결단코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였다.

후자아 부족의 지도자 부다일은 우리의 예언자가 제안한 내용을 꾸라이쉬 지도부에 전달하기 위해 출발했다. 다신교도 신자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한 내용을 전해 들었다. 그런 뒤에 그들은 우르와 빈 마수드라는 저명인사를 대표자로 우리의 예언자에게 보내 회담을 갖도록 하였다. 우르와가 메카로 가는 통행로를 차단하겠다는 말을 하자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물었다. "오, 우르와!

우리가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낙타를 희생물로 바치고 카바 성지를 순례하는 것을 여러분이 막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뒤 예언자는 후자아에게 설명했던 자신의 제안사항을 우르와에게도 설명했다. 우르와는 제안들을 자세히 듣고 교우들의 단결된 태도와 예언자에 대한 존중과 공손함을 유심히 관찰한 뒤 메카로 돌아갔다. 그는 다녀온 결과를 보고했다. "오, 꾸라이쉬 동포여! 여러분은 내가 로마나 페르시아 같은 곳으로 가서 수많은 통치자들을 만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슬림들을 살펴보니 그들의 예언자에 대한 존경과 충성심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그들은 누구도 그의 발언 허락 없이 말하지 않으며, 그의 얼굴을 바로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공손하게 대합니다. 그의 명령이라면 목숨까지 버리면서 이를 수행할 것입니다. 오, 꾸라이쉬 민족들이여! 모든 무기로 전력을 다하여도, 그들의 예언자의 털 하나 조차 건들지 못할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어떤 상해도, 심지어 건드는 것 조차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무함마드(알라히살람)가 휴전을 제의해 왔으니 이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말을 채택하지 않고 우르와를 냉대하여 처지를 어렵게 하였다. 꾸라이쉬 사령부에서 소식이 오지 않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히라쉬 빈 우마이야를 사절로 보내 그의 제안을 되풀이해 전달하였다. 다신교도들은 무슬림 사절을 형편없이 대우하고 그의 낙타를 도살하여 잡아먹어버렸다. 히라쉬는 겨우 도망쳐 나와 우리의 예언자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였다.

한편 아하비쉬 부족의 지도자 훌라이스가 다신교도 진영의 사절로 오는 것을 보고 우리의 예언자가 말했다. "저 사람은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바치는 희생을 소중히 생각하며 그분의 명령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교우들이여! 희생 제물로 바칠 동물들을 몰고 와 그에게 보이도록 하시오!" 교우들은 희생 제물을 그가 있는 쪽으로 몰면서 "랍바익 알라훔마 랍바익!..." 을 읊었다. 훌라이스는 목에 테를 두르고 귀에 표식이 달린 희생 제물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는 혼잣말로 말했다. "무슬림들은 성지순례 이외에 다른 의도가 없다. 그들을 저지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맹세컨대 꾸라이쉬 부족은 그들의 나쁜 행위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다." 이 소리를 들은 예언자는 "그렇지소. 오 키나나의 민족의 형제여!" 후라이스는 너무나 민망하여 예언자 앞에 나서지 못했을뿐더러 그분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는 꾸라이쉬 진영으로 돌아가 자기가 본 것과 그에 따른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들의 순례를 막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이다." 꾸라이쉬 다신교도들은 매우 화를 내며 그를 무지하다고 비난하였다.

다신교도들은 이번에는 무자비함으로 이름이 잘 알려진 미크라즈 빈 하프스를 사절로 보냈다. 이 역시 회담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귀환하자 다신교도들은 무슬림들의 기습공격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꾸라이쉬 부족의 존경을 받고 있는 교우를 사절로 보내기로 하고 우스만 성인을 선택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우스만에게 말했다. “우리기 여기 온 것은 싸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오로지 카바를 순례하겠다고 전하시오. 아울러 그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시오!” 아울러 그는 메카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메카가 머지않아 정복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은밀히 우스만에게 지시하였다.

우스만 성인은 다신교도들에게 가서 예언자의 제안을 전달하였다. 그들은 역시 부정적인 답변을 되풀이하면서 우스만 성인에게 혼자서는 카바 순례를 해도 좋다고 말하였다. 우스만 성인이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없이는 결코 나 혼자서 카바를 순례할 수 없소!”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다신교도들은 그를 억류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오스만이 순교했다.’라고 알려지자 예언자는 매우 슬퍼하며 말했다. “만약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고 싸울 것이다.” 그리고는 ‘사무라’라는 나무 밑에 앉아 교우들에게 “알라후 테알라께서 나에게 서약을 명하셨다” 라며 교도들을 서약에 참여하도록 초청했다. 영웅적인 교우들은 우리의 예언자의 축복받은 손 위에 손을 겹쳐 올리면서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승리로 이끎실 때까지 앞으로 전진하며 싸우고 또 싸워, 이들을 정복하거나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라 서약하였다. 이 서약을 리드완의 서약이라고 한다.

교우들은 칼집을 부수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신호에 따라 진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꾸라이쉬 첩자들이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가 이를 보고했다.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밤이 되자 곳곳에 초소를 세워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우스만 성인이 잡혀있던 중 어느 날 밤 미크라즈가 지휘하는 50 명의 꾸라이쉬 별동부대가 무슬림 진영으로 접근했다. 그들은 무슬림들이 잠들어 있을 때, 기습공격을 하였다. 그날 밤 무함마드 빈 마슬라마와 그의 동료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짧은 교전 끝에 불신자들은 사로잡히고 미크라즈 한 사람만 탈출하였다. 그들은 포로들을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데리고 갔다. 그들 중 일부는 감금되고 일부는 사면되었다. 다신교도들은 그 다음날에도 야간 공습을 시도하였으나 또다시 붙잡혔다. 우리의 예언자는 그들을 모두 용서하였다.

도와주세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불신자 군대는 이슬람 군대가 밤낮으로 대세를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지 공격을 할 준비를 갖추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공포에 잠겼다. 이제 협정을 맺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들은 급히 사절단을 구성하여 수하일

빈 아므르를 그 대표로 임명했다. 사절단에 내려진 지시는 '올 해에 무슬림들이 메카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협정을 맺으시요.'였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꾸라이쉬 사절단을 맞았다. 그들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 그들의 포로를 석방하라는 것이었다. 온 세상의 귀감 예언자가 말했다. "메카에 붙잡혀 있는 우리 무슬림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당신네 포로를 석방하지 않겠다." 수하일은 "사실상, 당신은 우리에게 아주 정의롭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라며 우스만 성인과 열 명 정도의 다른 감금된 교우들을 석방시키는데 동의했다. 그리하여 다신교도 포로들은 모두 석방되었다.

오랜 회담 끝에 협정이 체결되어 이를 기록하는 절차만 남게 되었다. 알리 성인이 서기를 맡고 종이와 먹물 필기가 준비되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지금부터 기록하라!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후 테알라의 이름으로." 수하일이 즉시 항의하였다. "자비라는 이슬람 용어를 이해할 수 없으니 그냥 알라후 테알라의 이름으로 적읍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동의하지 않겠소" 우리의 예언자는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였으므로 그의 의견을 채택하여 이를 변경하여 적고나서는 "이것은 무함마드(알라히살람), 즉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와 수하일 빈 아므르 사이에서 협정한 것이고 평화협정으로 쌍방간에 이를 수행하겠다는 뜻으로 서명한 내용들이다" 라 하자, 수하일이 알리 성인의 손을 붙잡고는 "맹세컨데, 우리가 당신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임을 인정했더라면, 당신과 대적하지 않았으며, 카바 방문을 막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사도의 자리에 '알라후 테알라의 아들'로 적으시오" 하니, 예언자가 이것도 받아들이어 "진정으로 그대가 나를 거짓이라 하여도, 나는 명백히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요. 내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한다 하여도 나의 사도 임무는 변함이 없도다. 오, 알리! 지우고 '압둘라의 아들, 무함마드(알라히살람)'라 적으라" 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라는 명칭이 빠지자 교우들의 심정이 편치 않았다. 갑자기 이성을 잃고 "오, 알리! '무함마드 알라히살람,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라 적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거역자와 칼로 해결할 것이요…" 라 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이러한 교우들의 반응에 기뻐하시며 손 짓을 하여 진정시켰다. 알리 성인에게 지우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당신을 위해 생명을 바치리니, 당신의 이 축복받은 명칭을 지우려니 손이 가질 않습니다." 라며 용서를 구하자, 예언자께서 손수 그것을 지우고 '압둘라의 아들'이라고적었다.

체결된 협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협정의 유효기간은 10 년으로 한다. 이 기간 동안 양측은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다.
2. 무슬림들은 올해 카바를 방문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방문이 가능하다.
3. 카바를 방문하는 무슬림들은 메카에서 3 일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여

행용 개인무기 이외에 어떠한 무기도 휴대할 수 없다.

4. 무슬림들이 카바 둘레를 순례할 때 메카 원주민들은 무슬림들의 편의를 위해 카바를 떠난다.

5. 꾸라이쉬 부족 사람이 무슬림이 되어 보호자의 허락없이 메디나로 갔을 때에는 메카로 귀환되어야 한다. 반대로 어떤 무슬림이 꾸라이쉬를 선택하여 메카로 갔을 때는 귀환될 의무가 없다. (우마르 성인이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이 제안을 수락하실려나요?" 하니, 예언자가 "그렇소. 우리로부터 그들에게로 가는 자는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를 멀리 하실거요." 라 하였다.)

6. 이슬람 교우가 성지순례를 위해 메카로 왔을 때 그의 생명과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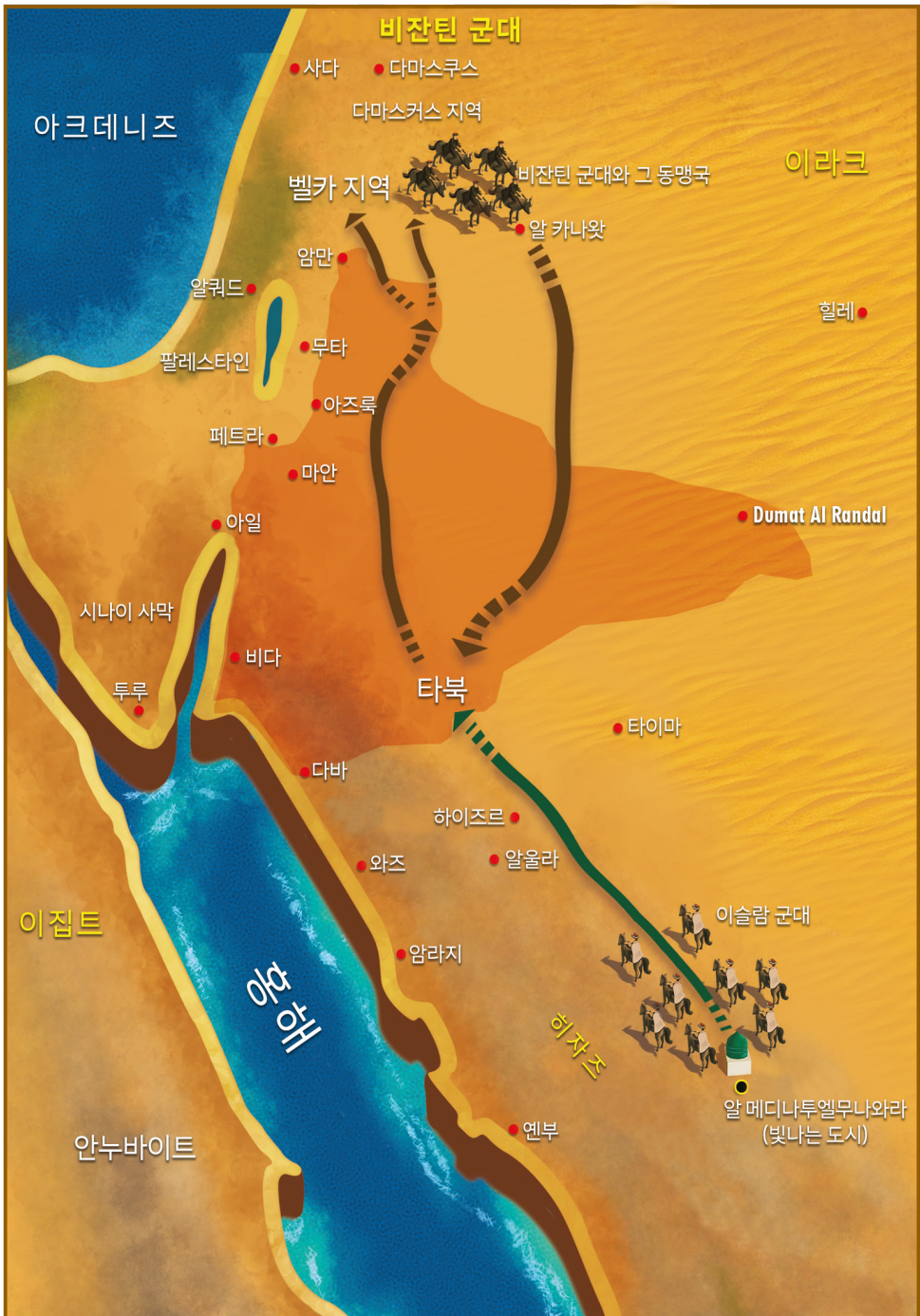
7. 다신교도가 다마스커스나 이집트 등으로 가는 도중 메디나에 들렀을 때 그의 생명과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8. 다른 아랍 부족들도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편입이 될 수있다. 그들은 무슬림 또는 다신교도들과 연합할 수 있다.

이제 곧 협정에 서명할 순간이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발에 묶인 사슬을 질질 끌면서 이슬람 진영으로 오는 것이 보였다. 그가 다가와 소리 질렀다. "나를 구해주세요!" 이 소리를 듣더니 다신교도 협상 대표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람의 머리와 얼굴을 가시가 난 나무로 후려치기 시작했다. 사슬에 묶인 그 사람은 온 힘을 다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발밑으로 몸을 던지며 "도와주세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라며 간청하였다. 이 사람은 메카에서 이슬람을 받아들였으며, 이 이유로 인해 그의 아버지에 의해 사슬에 묶였다. 그는 매일 고통에 시달리며 우상숭배를 강요당해 왔다. 그는 다신교도들이 후다이비야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기회를 틈타 메카를 빠져나와 몰래 무슬림 진영으로 도망나온 것이다. 이 축복받은 사람은, 아부 잔달 성인으로 다신교도 협상 대표 수하일의 아들이었다.
수하일은 그의 아들 아부 잔달을 지목하며 우리의 예언자에게 말했다. "이것은 방금 우리가 합의한 협정에 의해 귀환시켜야 할 첫 번째 사람입니다."

우리의 예언자와 교우들은 슬픔에 잠겼다. 모든 사람들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대답을 궁금하게 기다렸다. 한쪽에는 평화협정이 있고, 또 다른 쪽에는 고문에 시달리는 교우가 있었다. 온 세상의 귀감, 예언자가 수하일에게 말했다. "우리는 아직 평화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소!" 수하일이 계속 주장하였다. "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 내 아들이 여기 오기 전에 우리는 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모두 기재를 마쳤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 아들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나는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없소이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나를 위해 그를 협정에서 제외시켜 주시오." 그러나 다신교도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하일 빈 아므르가 그의 아들을 끌고 가니 아부 잔달이 울면서 호소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

타부크의 전투

비잔틴 군대
사다
다마스쿠스
다마스커스 지역
아크데니즈
이라크
벨카 지역
비잔틴 군대와 그 동맹국
알 카나왓
암만
알쿼드
힐레
무타
팔레스타인
아즈룩
페트라
마안
Dumat Al Randal
아일
시나이 사막
비다
투루
타북
타이마
다바
하이즈르
와즈
알울라
이슬람 군대
이집트
암라지
홍해
히자즈
알 메디나투엘무나와라
(빛나는 도시)
옌부
안누바이트

의 사도여! 오, 무슬림 형제들이여! 당신들에게 피난처를 구한 나를 다신교도 손에 맡기렵니까? 나에게 매일 가해지는 견딜 수 없는 고문을 적절한 조치라고 여기십니까? 그들이 내 종교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게 내버려두실 겁니까?"

가슴을 여미게 하는 이러한 애원을 듣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교우들은 깊은 슬픔을 느끼고 울기 시작했다. 자비의 바다인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축복받은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는 수하일에게 아들을 풀어주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하는 수 없이 그를 위로하는 수밖에 없었다. "오, 아부 잔달! 조금만 더 견뎌다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보상을 기다려 주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반드시, 그대 같은 힘없고 외톨이인 무슬림을 도와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실거다." 라며 위로 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소!" 라 말하였다.

다신교도의 협상단원들조차 이러한 기막힌 사연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들이 말했다. "오, 무함마드(알라히살람)! 당신을 위해 우리는 아부 잔달을 우리의 보호 아래 두어 그의 아버지가 고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소!" 이 말을 듣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와 교우들은 다소의 위안을 얻었다. (수하일 빈 아므르는 메카 정복 이후에 무슬림이 되었다.)

평화협정서는 2 부가 작성되어 양쪽 대표들이 서명하였다. 다신교도들은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갔다.

무슬림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는 협정 조문들로 인하여 꾸라이쉬 협상단은 매우 즐거운 마음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평화협정은 무슬림들의 위대한 승리였으며, 협정 조문들도 아주 유리한 내용이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다신교도들은 이슬람 국가를 인정하였다. 여행 중의 메카 다신교도가 메디나에 들르면 그의 생명과 재산은 안전하게 보장되었다. 그러므로 다신교도들은 무슬림들의 삶을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되고, 이슬람의 정의와 교우들 상호간의 아름다운 태도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다신교도들이 이슬람을 사랑하게 될 터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무슬림이 되어 교우들의 대오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다.

10 년의 효력을 가진 이 협정으로 무슬림들은 숫자가 증가하고 세력 또한 증강될 것이다. 이슬람은 모든 곳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무슬림이 된 꾸라이쉬 부족의 강제 귀환조건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슬프게 하였다. 그분은 말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것에 대한 해결방법, 새로운 기회를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제 다신교도들과는 아무런 용건이 남아있지 않았다.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가 교우들에게 명령했다. “일어서라! 희생제물을 모두 도축하라! 머리를 깎고 순례 의복을 벗으라!” 우리의 예언자는 제일 먼저 희생제물을 도살하였다. 이발사인 키라쉬 빈 우마이야 성인이 예언자의 머리를 깍았다. 예언자의 머리카락이 잘려 나가자 그것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교우들이 이를 주워 축복의 상징으로 몸에 간직하였다. 교우들도 그들의 희생 동물을 도살하였으며, 일부 교우는 머리를 완전히 밀었고, 일부는 머리를 짧게 깎았다.

그들은 후다이비야에서 20 일간 머물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와 그 교우들은 메디나로 출발했다. 도중에 알라후 테알라께서 예언자에게 ‘파티 장’의 계시를 내리시어 은총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리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그들이 메디나로 귀환했을 때 꾸라이쉬 부족의 사키프 가문에서 아부 바시르가 이슬람으로 귀의하였다. 그는 다신교도 속에서 살 수 없음을 알고 걸어서 메디나로 왔다. 후다이비야 협정에 충실하기 위하여 그는 메디나를 떠나 홍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는 곳에 정착하였다. 그곳은 꾸라이쉬 다신교도들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무역통로에 위치하였다. 이 일이 있은 뒤로 꾸라이쉬 부족이 무슬림이 되면 메카를 떠나 메디나 대신 이스로 가서 아부 바시르 옆에 정착하였다. 아부 잔달 성인이 그 첫 번째 이주민이었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어 50 명이 되고, 1 백 명이 되고, 2 백 명이 되고, 3 백 명이 되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꾸라이쉬 상인들은 반드시 그곳을 통과해야 했다. 아부 바시르 성인은 무슬림 동료들과 함께 지나가는 다신교도들을 초대하여 무슬림이 되도록 설득하였다.

메카 다신교도들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들의 무역통로가 봉쇄되자 사절단을 메디나로 보냈다. 그들은 자진하여 후다비야 협정의 ‘꾸라이쉬족 무슬림이 보호자의 허락없이 메디나로 가면, 그를 인도한다…’는 메카 귀환조건을 폐지해줄 것을 간청했다.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그들을 동정하여 이 요청을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꾸라이쉬의 무역통로는 다시 개방되었다. 그들의 인내 덕분에 무슬림들이 우리의 예언자 곁으로, 메디나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당신으로 이름은 열애의 극치라, 오 예언자여
당신의 모습은 사랑하는 자들의 상처의 명약이라, 오 예언자여

아담 알라히살람이 흙과 물로 되었을 때, 이미 당신은 예언자로 결정되었고 명확히, 당신은 예언자들 중의 예언자라, 오, 예언자여

당신의 빛으로 인류가 완성되고, 오 예언자여
당신은 몸은 알라후 테알라의 자랑거리라, 오 예언자여

그들은 당신으로 인해 갖은 달콤함에 도달하여

당신은 군중을 구하기 위한 축복이라, 오 예언자여

내적으로 외적으로 후다이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문앞에서 애원하는 그는 가련합니다.

-마흐무드 후다이-

초대의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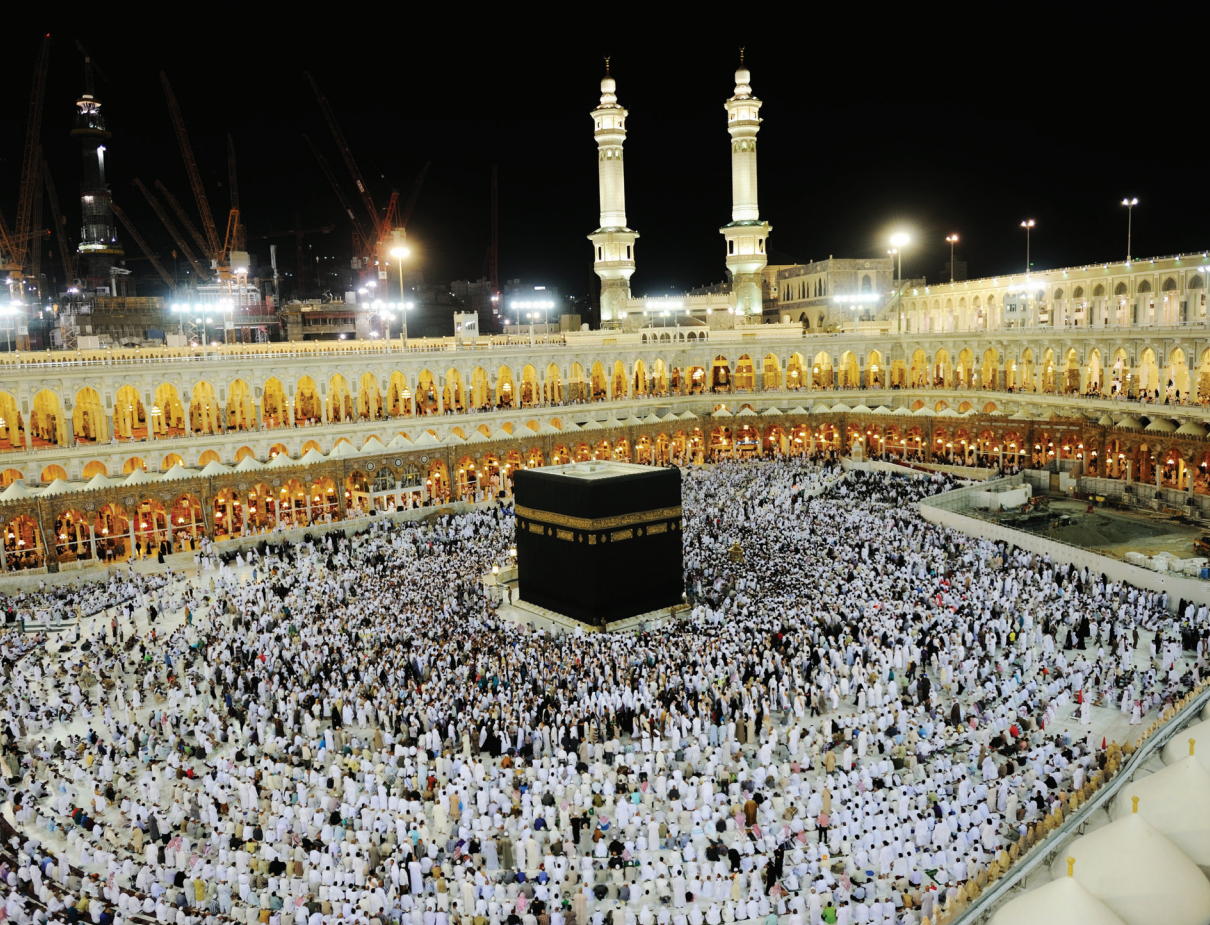
통치자들에게 보낸 편지

후다이비야에서 돌아온 예언자는 온 세상에 이슬람을 확산시킬 것을 원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되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만물에 자비로 보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지역의 통치자들에게 사절단을 보내 그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예언자는 디흐야 칼라비를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사절단의 책임자로 임명했다. 아므르 빈 우마이야는 에티오피아로, 카피브 빈 아비 발타아는 이집트로, 살릿 빈 아므르는 야마마로, 슈자 빈 와흐브는 가싼으로, 압둘라 빈 후자파는 페르시아로 가는 사절단의 책임을 맡았다.

이들은 외모나 언변에 있어 교우들 중에서 모두 출중한 인물들이었다. 각각의 통치자에게 이슬람으로 초대하는 편지 형식으로 모두 별도의 문서가 작성되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자신의 은반지에 새겨진 도장으로 모든 편지를 봉인하였다. 그 도장에 새겨진 글은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심부름꾼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이었다. 우리 예언자의 기적으로 각국의 통치자들에게 보내질 사절단은 아침에 잠이 깨자 자신들이 방문할 나라의 언어를 통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므르 빈 우마이야 성인은 에티오피아의 네구스 아샤마 왕으로부터, 이전에 메카를 떠나 에티오피아에 이주한 교우들을 다시 메디나로 보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는 에티오피아에 도착하여 네구스 아샤마 왕이 있는 곳으로 갔다. 네구스는 옥좌에서 내려와 존경과 사랑으로 편지를 받아 들었다. 그는 거기에 입을 맞추고 정중하게 편지를 개봉하였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후 테알라의 이름으로!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심부름꾼 무함마드(알라히살람)로부터 에티오피아 통치자네구스 아샤마 왕에게!

카바 알 무아자마의 야경

진정한 인도자를 따르는 이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통치자시여, 당신의 무사함을 빌며,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알라후 테알라 외에 신은 없습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만물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찬미와 성스러움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알라히살람)가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영혼이며 말씀임과, 미르얌(마리아)은 모든 세속의 삶을 절제한 매우 정숙한 분임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사(알라히살람)를 잉태하였습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아담(알라히살람)

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분의 권능으로 이사(알라히살람)를 창조하셨습니다.

왕이여! 나는 당신이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를 믿도록 초대합니다. 그분은 아무 것과도 비할 것이 없는 분이며, 나는 그분의 심부름꾼으로 이러한 모든 일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통지하오니 당신의 삶에 이 세상의 행복과 저 세상의 축복을 가져다 줄 요긴한 조언이 될 것입니다. 나의 조언을 받아들이십시오! 올바른 인도와 진정한 길을 찾는 사람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보낸 편지를 읽은 네구스 아샤마 왕은 커다란 존경과 겸손을 보이며 즉시 신앙고백을 하고 무슬림이 되었다. 그가 말했다. "성경의 백성들이 기다려온 예언자가 그분임을 나는 증언하며, 이전의 예언자들이 고지한 예언자가 그분임을 나는 증언합니다. 내가 그분에게 갈 수 있다면 내가 그분의 시중을 들 수 있을 것인데…" 그는 편지를 아주 아름다운 상자에 넣고 말했다.

"이 편지들이 여기에 있는 한 상서로움과 축복이 에티오피아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네구스 왕에게 두 통의 편지를 보냈다. 네구스 아샤마는 다른 편지에 적혀있는 명령을 수행하여 그곳에 머물고 있던 예언자의 축복받은 아내 움무 하비바와 교우들을 배에 태워서 많은 선물과 함께 메디나로 보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이슬람 종교에 귀의하였음을 편지에 적어 함께 보냈다.

디흐야 칼라비 성인은 로마 황제를 이슬람으로 초대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그 편지를 부스라에 있는 가싼의 통치자 카리스에게 가지고 가서 상의한 뒤 그것이 다시 로마 황제 헤라클리우스에게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었다. 디흐야 성인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편지를 휴대하고 신속하게 부스라로 갔다. 그는 카리스를 만나 상황을 설명하였다. 카리스는 그때 아직 무슬림이 되지 않았던, 아디이 빈 하탐을 디흐야에게 붙여주어 그들을 헤라클리우스에게 보냈다. 황제는 그때 예루살렘에 체류하고 있었다. 디흐야 성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황제를 만날 방법을 모색하였다. 황제의 측근들이 디흐야 성인에게 말했다. "당신은 황제가 계신 곳으로 갈 때는 머리를 숙이고 걸어야 하며, 그분 가까이에 가면 그 앞에서 큰 절을 해야 합니다. 그분이 일어서라고 할 때까지 절대로 당신 머리를 땅에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디흐야 성인에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가혹한 말이었으므로 그들에게 말했다. " 우리 무슬림들은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 외에 그 누구에게도 큰절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큰절을 한다는 것은 인간본성에도 맞지않는 일입니다." 이 말을 들은 황제의 측근들이 말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황제는 당신의 편지를 접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쫓아

낼 것입니다." 디흐야 성인이 대답했다. "우리 예언자 무함마드 알라히살람 은 어떤 사람에게도 큰절을 하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살짝 몸을 숙여 절하는 것도 허용치 않습니다. 그분은 어떤 노예가 자신에게 말을 걸지라도 주의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노예를 만나주며, 그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그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를 위로해줍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에게 복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고 명예롭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말했다. "당신이 황제 앞에서 큰절을 하지 않겠다니 내가 다른 방도를 하나 일러드리겠소. 궁전 바로 앞에 황제가 휴식을 취하는 장소가 있소. 매일 오후가 되면 그는 이 안뜰로 나가 산책을 하지요. 거기에는 설교단이 하나 있는데, 문서가 거기에 놓여있으면 황제는 그것을 먼저 읽고 난 뒤에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그 편지를 설교단 위에 놓고 밖에서 기다리시오. 만약 그가 편지를 보게 되면 분명히 당신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맡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거요."

디흐야는 그의 조언에 따라 편지를 그곳에 가져다 놓았다. 헤라클리우스는 그 편지를 발견하고 아랍어를 아는 통역을 불렀다. 통역가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 편지 서두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후 테알라의 이름으로!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심부름꾼 무함마드(알라히살람)으로부터 로마의 가장 높은 헤라클리우스에게!'

헤라클리우스의 조카 옌나크가 이 소리를 듣고 매우 화가 나서 통역가의 가슴을 주먹으로 세게 때렸다. 그 충격으로 통역이 땅에 쓰러졌다. 그 축복받은 편지도 그의 손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헤라클리우스가 옌나크에게 "왜 그랬느냐? 고 묻자 그가 대답했다. "편지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황제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을 먼저 앞세운 데다 당신이 통치자라는 것을 언급조차 안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연장자, 헤라클리우스에게'라고 썼습니다. 그는 왜 '로마의 통치자'라고 쓰지 않았으며, 당신의 이름으로 먼저 편지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편지를 읽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를 두고 헤라클리우스가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컨대, 너는 매우 어리석거나 아니면 완전히 미친 사람이다. 나는 네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구나. 너는 내가 그 편지 내용을 보기도 전에 그것을 찢어 없애기를 원하느냐? 네 생명을 걸고 맹세컨대 그가 만약 그가 말한 대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라면, 내 이름

앞에 그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나를 로마의 연장자로 언급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오직 그들의 연장자일 뿐 그들의 통치자가 아닌 것이다." 그는 옌나크를 그 자리에서 쫓아냈다.

그런 뒤 헤라클리우스 황제는 그리스도교인 중에서 가장 지식이 풍부하고 자신의 자문관으로 일하는 우스쿠프를 불렀다. 황제는 편지를 다시 그에게 읽도록 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진리를 따르는 이들에게 올바른 길로 들어서는 기쁨이 있기를! 로마의
최고 연장자여, 나는 당신을 이슬람으로 초대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슬람을 받아들여 축복을 받으시오. 이슬람을 받아들이면 2 배의 보상을 내리실겁니다. 당신이 그것을 외면하면 그리스도교인의 모든 죄를 당신이
걸머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하시기를 '성서의 백성들이여! 우리들이나 너희들을 막론하고 알라후 테알라의 말씀으로 오라. 그리하여 알라후 테알라 외에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무엇도 알라후 테알라와 비유하지 아니하며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알라후 테알라 외에 다른 것을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알라후 테알라와 비교하지 말라. 이르되 만일 그들이 이를 외면한다면, 실로 우리는 알라후 테알라의 유일성을 믿는 무슬림임을 지켜 보라고 말하라.' "(3:64 이므란 장의 해석)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편지를 읽고 있을 때, 헤라클리우스의 이마는 땀에 젖고 있었다. 이윽고 편지를 다 읽었을 때 헤라클리우스가 말했다. "나는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후 테알라의 이름으로' 로 시작되는 편지를 예언자 술래이만 이래로 처음 본다." 헤라클리우스가 우스쿠프에게 이편지와 관련한 의견을 물어보자 그가 대답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컨대 그는 무사 알라히살람과 이사 알라히살람이 기쁜 소식으로 전했던 바로 그 예언자이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헤라클리우스가 물었다.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우스쿠프가 대답했다.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헤라클리우스가 말했다. "그대가 말한 것을 잘 알겠소. 그러나 나는 그에게
복종하여 이슬람을 받아들일 힘을 갖고 있지 못하오. 왜냐하면 이로 인하여 나의 지위는 끝장날 것이고,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오." 그리하여 황제는 디흐야 성인 일행을 불러들였다. 아디 빈 하템이 말했다. "오, 황제여! 제 옆에 있는 이 아랍에서 온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라클리우스가 물었다. "당신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디흐야 성인이 대답했다.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예언자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믿고 따르고 복종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분에 반대합니다. 이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

이슬람교의 보급

ΒΥΖΑΝΤΙΝΉ ΑΥΤΟΚΡΑΤΟΡΊΑ
Περιοχή της Δαμασκού
Ολουντενίζ
ΙΡΆΚ
ΑΥΤΟΚΡΑΤΟΡΊΑ ΤΩΝ ΣΑΣΣΑΝΙΔΏΝ
Είλε
Σινά
Ντουμέτ-ουλ-Τζέντε
Κάζιμε
Ταμπούκ
Ντεμπά
Τεϋμά
Οι πόλεις του Ταΐου
Η μάχη του Ταμπούκ
Σάτζ
Βέτζχ
Ουλά
Χαϊμπέρ
Περσικός (Αραβικός) Κόλπος
Ντάρεϊν
Εβάλ
Αίγυπτος
Εμλέκ
Γιεμάμε
Μπαχράν
Κόλπος του Ουμμάν
Ντιμπά
Γιενμπού
Μπέντρ
Μεδίνε-ι Μούνεββερε
ΧΙΤΖΑΖ
Νατζντ
Νούμπα
Ράμπιγκ
Χιτζρ-ι Μπαχρέιν
Μοσχάτο
Μέκκα-ι Μουκαρέμε
Τζουλέντιγιε
Τζέντα
ΑΡΑΒΙΚΉ ΧΕΡΣΌΝΗΣΟΣ
Ουμμάν
Ταΐφ
Σουάιμπα
Ερυθρά Θάλασσα
Κουνφούζε
Η έρημος Ρούμπ-ουλ-Χάλι
Σεβακίν
Τιχάμε
Σελάλε
Τσαζάν
ΥΕΜΈΝΗ Χαδραμούτ
Αραβική Θάλασσα
Σεβακίν
Σαν'α
Χαντίντε
Μουκέλλα
Μουχά
Σουκρά
Αδέν
ΑΒΗΣΣΥΝΊΑΣ
Χιτζρί, / Γρηγοριανή, 622-628
Χιτζρί, 6-7 / Γρηγοριανή, 628-629
Χιτζρί, 8 / Γρηγοριανή, 630
Χιτζρί, 9-11 / Γρηγοριανή, 631-632

는 자들의 싸움입니다."
헤라클리우스는 우리의 예언자에 대하여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마스커스 총독에게 명령하여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와 같은 혈통의 사람을 찾으라고 하였다. 한편으로는 그는 로마에 있는 학자에게 편지를 써 있었던 일에 관하여 조언을 구했다. 그 학자는 황제의 친구로 히브리어를 알고 있었다. 얼마 후 로마의 친구에게서 편지가 왔다. 그는 황제가 편지로 알려준 그 사람이 최후의 예언자라고 언급하였다. 다마스커스 총독은 꾸라이쉬 교역단 만났는데, 그중에는 꾸라이쉬 사람으로 아직 무슬림이 되지 않은 아부 수피얀이 끼어 있었다.

아부 수피얀은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우리가 '가자'라는 곳에 있는데 헤라클리우스의 다마스커스 총독이 공격할 듯한 태세로 물었다. "당신들은 히자즈에 있는 그 사람과 동족이오?" 그렇다고 하자 그는 우리를 황제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황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한 교회의 성직자와 함께 있었다. 헤라클리우스

로다트 알 무타라/나비 모스크

우리 예언자(pbuh)의 모스크에 있는 "Ravda-i Mutahhara/천국의 정원"이라는 구절. 우리가 사랑하는 선지자와 이맘이 기도를 인도하는 곳에서 기도의 틈새를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왼쪽에 불임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sallallahu alayhi wa sallam이 자신에 대한 금요일 설교를 읽은 강단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강단은 높이가 3층, 높이가 1미터였습니다. 654년

[서기 1256년]에 설교단은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연도에 서로 다른 강단이 세워졌습니다. 오늘날의 12단, 7미터 높이의 대리석 설교단은 술탄 3세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Murad H□n(p.998)은 1590년에 이스탄불에서 파견되었습니다.

황제는 거기서 아부 수피얀과 서른 명의 메카 사람들을 만났다."
황제는 통역을 불러들여 그들에게 질문했다. "여러분 중에서 자신을 예언자라고 칭하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구요?" 아부 수피얀이 대답했다. "내가 그와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헤라클리우스가 촌수를 물었다. "그는 내 숙부의 아들입니다." 그는 아부 수피얀을 좀 더 가까이 부른 다음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뒤에 머물게 했다. 아부 수피얀은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으나,
통치자의 위엄 앞에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고 갔다.

헤라클리우스= 자신을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계보가 어떠한가?
아부 수피얀= 그는 당시의 가장 고귀한 신분으로 출중한 조상들에게서 태어났다.
헤라클리우스= 그보다 앞서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아부 수피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헤라클리우스= 그의 조상 중에 통치자가 있었는가? 아부 수피얀= 없습니다.
헤라클리우스= 그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은 저명인사들인가, 아니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인가?
아부 수피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젊은이와 여자들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나 저명인사들은 소수입니다.
헤라클리우스= 그의 추종자들은 늘고 있는가, 줄고 있는가? 아부 수피얀= 늘고 있습니다.
헤라클리우스= 그의 종교를 싫어하거나 화가 나서 종교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아부 수피얀= 없습니다.
헤라클리우스= 그 예언자가 자신의 말을 뒤집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아부 수피얀= 없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그와 협정을 맺고 잠시 동안 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동안 그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헤라클리우스= 그는 그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아부 수피얀= 그는 오로지 알라후 테알라만을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는 우리 조상들이 숭배해 왔던 우상을 모시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배를 올리라고 명령하며, 정직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남의 재산을 횡령하지 말고, 친척들을 방문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대화가 교회 안에서 진행되었으며,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편지가 다시 한 번 낭독되었다. 헤라클리우스가 그 편지에 입맞춤을 하자 로마인들 사이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커져갔다. 황제는 아부 수피얀 일행을 모두 내보냈다. 아직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아부 수피얀은 이슬람이 분명히 성공할 것임을 마음 속으로 믿게 되었다.

디흐야 성인은 헤라클리우스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온화한 얼굴을 하고 부드

러운 목소리로 헤라클리우스에게 말했다. "오, 황제시여! 부스라에서 어떤 분(하리스)이 저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당신보다 더 상서로운 분입니다. 나는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코 저를 부스라로 보낸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더욱 상서로운 분임을 믿습니다. 당신은 저의 말을 겸손하게 듣고 저의 조언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겸손해져야 저의 조언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저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올바른 마음을 가졌다고할 수 없습니다."

헤라클리우스가 "계속 하라" 고 하자 디흐야 성인이 말했다. "그러므로 이사 알라히살람이 예배를 올린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를 믿으라고 나는 당신을초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사 알라히살람과 이사 알라히살람이 일찍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도래를 예고한 문맹의 예언자를 믿으라고 당신을 초대합니다. 당신이 이러한 일들에 관해 알고 있어, 이 세상과 사후 세상에서의 행복을 얻기 바란다면, 그들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후 세상에서의 행복을 놓치고 불신과 다신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숙지해야하니, 당신의 주인,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사악한 자들을 처벌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헤라클리우스가 말했다. "나는 내게 온 책자를 읽지 않고는, 나를 찾아온 학자에게 의문스러운 것을 묻지 않고는 되돌려 보내지 않는다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오로지 은혜와 축복을 얻었다오.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을 주면 좋겠소." 헤라클리우스는 이후에 디흐야 성인을 개인적으로 불러 자기 마음 속 생각을
분명히 이야기하였다. "나는 그대를 보낸 사람이 성경에 이미 언급되어있고 지금까지 기다려온 마지막 예언자임을 알겠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분에게 복하인하면 로마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다. 나는 그대를 다가티르에게 보낼 것인데, 그는 로마의 가장 위대한 학자이다. 그들은 나보다 그를 더 존경하며, 모든 그리스도 교인들이 그를 따른다. 만약 그가 믿게 되면 모든 로마인들이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나도 내 마음 속에 있는 신앙을 공표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헤라클리우스는 한 통의 편지를 써 디흐야 성인에게 주고 그를 다가티르에게 보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다가티르에게 이미 편지를 한 통 써서 보냈다. 다가티르가 그 편지들을 읽고 우리의 예언자의 속성에 대하여 들었을 때, 그는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이 마지막 세대의 예언자임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그는 자기 집으로 가서 매주 일요일 그가 진행하던 설교에 3 주 동안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스도 교인들이 아우성을 쳤다. "다가티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아랍인과 대화를 나눈 이후에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가 필요하다!"

다가티르는 그의 검은 성직자 옷을 치워버리고 하얀 옷을 입었다. 그는 지팡

이를 손에 들고 교회로 갔다. 마을 사람들을 모은 뒤에 일어서서 말했다. “오, 그리스도 교인들이여! 아흐마드에게서 편지 한 통이 내게로 왔다. 그분은 우리들을 진정한 종교로 초대하였다. 나는 그분이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는 것을 공개한다..” 그리스도 교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를 공격하여 몰매를 가함으로써 다가티르는 순교하였다. 디흐야는 헤라클리우스에게 와서 그 상황을 이야기 하였다.

헤라클리우스가 말했다. “내가 이야기하지 않던가?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있어 다가티르는 나보다 더 사랑받는 보다 우수한 사람이다. 만약 내 말을 그들이 들었더라면 다가티르와 같이 나를 죽였을 것이다.”

주히리가 해석한 부하리의 ‘사히’책에 따르면; ‘헤라클리우스는 로마의 연장자들을 불러 문을 닫아 잠그게 하였다. 그리고는 높은 곳에 올라가 “오, 로마의 백성들이여! 당신들이 행복에 도달하고, 평화를 맞이하고, 정의의 기반을 유지하고, 이사 알라히살람이 남긴 말을 따를 것입니까?” 라 하니, 로마인들이 “오, 우리의 통치자여! 우리가 이를 위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되물었다. 헤라클리우스는 “오, 로마의 백성들이여! 나는 당신들이 혜택을 받으라고 여기 소집하였습니다. 나에게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의 편지가 당도하였습니다. 나를 이슬람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진정으로 그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그 징조를 가지고 있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입니다. 여기로 오시오. 이 세상에서 그분을 받아들여 죽은 후 은혜를 받읍시다.” 하니, 모두가 악언을 퍼부으며, 분개하여 문쪽으로 달려 나갔다. 문이 잠겨 있어 밖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였다. 헤라클리우스는 백성들의 이러한 반응을보고, 이슬람을 이렇게 강력히 거부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마음 속에서 두려움이 일어났다. 그리고는 “오, 로마의 백성들이여! 내가 한 얘기는 당신들이 얼마나 종교를 강하게 믿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당신들의 강한 믿음을 의미하는 당신들의 행동은 나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하니, 로마 백성들은 헤라클리우스에게 큰 절을 하고는 성의 문을 통해 흩어졌다.’

헤라클리우스는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많은 선물을 디흐야 성인에게 주었다. 그는 무슬림이 되고 싶어 했으나 황제의 지위와 생명을 잃는 것이 두려워 결국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헤라클리우스는 편지에 ‘이사 알라히살람이 전한 기쁨의 소식,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에게, 로마의 통치자 헤라클리우스로부터 사절단의 편지가 당도했습니다. 내가 믿건데, 당신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이십니다. 이미 우리는 당신을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사 알라히살람이 당신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로마 백성들에게 당신의 초대를 알렸더라도, 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조언을 받아들였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나는 당신

아라비아 반도의 이슬람 확산

의 곁에서 당신을 받들어 모시며 당신의 발을 씻겨드리기를 간곡히 원합니다.'라 적혀있었다.

디흐야 성인이 헤라클리우스와 작별을 하고 히스마라는 곳에 당도하였다. 셰나르 계곡에서 후나이드 빈 우스와 그의 아들과 부하들이 디흐야 성인을 강탈했다. 헌 옷가지 외에 모든 것을 빼앗겼다. 이 지역의 듀바이브 빈 리파아 빈 자이드와 그의 민족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었다. 디흐야 성인이 이들을 찾아가 사정을 알리자, 후나이드 빈 우스와 그의 민족들을 공격하여 빼앗겼던 물건들을 모두 되찾아왔다. 나중에 예언자가 자이드 빈 하리스를 후나이드와 그 민족에게 보내어 모두가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하였다. 디흐야 성인이 메디나에 도착하자마자, 집에 들리지도 않고 예언자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거기 누구요?" 하시는 예언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디흐야는 "디흐야 툴 칼비입니다" 하니 안으로 들어오라 하였다. 디흐야 성인은 파견중의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예언자는

헤라클리우스의 편지를 읽고 "왕의 자리를 조금 더 지키는 것 뿐이거늘… 나의 편지를 간직하는 한, 그의 지위는 계속되리라" 하였다.
헤라클리우스의 편지에 이슬람을 믿는다고 하였다 할지라도,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거짓이다. 개종을 하지 않았다" 하였다.

헤라클리우스는 예언자의 편지를 비단 천으로 싸고, 금으로 된 둥근 상자안에 잘 넣었다. 그의 가족들은 이 편지를 숨기고는 비밀로 하였다. 이 편지를 간직하는 한, 왕의 자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믿었고, 정말로 이는 사실이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이집트 통치자에게 보낼 사절단과 관련하여 교우들에게 물었다. "교우들이여! 누가 이집트에 가서 이 편지를 전달하여 지고하신 알라후 테 알라로부터 보상을 받겠는가?" 카티브 빈 아비 발타아 성인이 앞으로 뛰어나와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제가 그것을 전달하겠습니다." 예언자는 "오, 카티브! 그대는 이 임무를 맡음으로 인해 알라후 테알라로부터 축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카티브 성인은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로부터 그 편지를 받고 집으로 가서 준비를 갖춘 다음 이집트의 통치자 무까우까스 왕이 있는 알렉산드리아로

출발했다. 궁전에 도착하자 문지기가 방문 목적을 묻더니 이를 듣고는 대단한 존경을 표시하였다. 이때 무까우까스는 바다 위의 배 안에서 신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카티브 성인은 작은 배를 타고 왕이 있는 큰 배로 가서 무까우까스에게 우리의 예언자의 편지를 전달하였다. 왕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후 테알라의 이름으로!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심부름꾼 무함마드(알라히살람)으로부터 콥트(이집트의 옛백성)의 연장자 무까우까스에게!

진정한 인도자를 따르는 이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콥트의 연장자시여, 나는 당신을 이슬람으로 초대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슬람을 받아들이시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당신에게 두 배의 보상을 내리시도록 무슬림이 되시오. 당신이 그것을 외면하면 콥트인의 모든 죄를 당신이 걸머지게 됩니다.'

'성서의 백성들이여! 우리들이나 너희들을 막론하고 하나의 말씀으로 오라. 그리하여 알라후 테알라 외에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무엇도 알라후 테알라와 비유하지 아니하며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알라후 테알라 외에 다른 것을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알라후 테알라와 비교하지 말라. 이르되 만일 그들이 배반한다면 실로 우리는 알라후 테알라의 유일성을 믿는 무슬림임을 지켜보라

말하라.' (3:64 알리 이므란 장의 해석)

온 우주의 귀감으로부터 온 편지를 다 읽고 난 무까우까스가 카티브 성인에게 말했다. "가장 훌륭한 축복을 기대합시다!" 이집트의 통치자는 신하들과 지휘관을 소집하고 나서 카티브에게 말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에 답변해주기 바라오." 카티브 성인이 대답했다. "무엇이든 물어 보십시오."

무까우까스 왕= 당신을 보낸 사람에 대해 말해 주시오. 그분은 예언자입니까?

카티브 성인 = 예,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무까우까스 왕= 만약 그분이 진실로 예언자라면, 자신을 고향에서 쫓아내어 다른 지역에 피난처를 구하도록 한 사람들을 왜 저주하지 않습니까?
카티브 성인 = 당신은 미르얌(마리아)의 아들 이사 알라히살람이 예언자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이사 알라히살람은 그의 백성들이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 할 때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으며,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그를 하늘로 들어 올렸습니다. 무까우까스 왕= 아주 멋진 대답이오. 참으로 당신은 아주 보낸 현명한 사람이오.오늘밤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오. 내가 내일까지 답변을 하겠소.

카티브 성인은 무사의 시절에 파라오를 떠올리며,
카티브 성인 = 당신 이전에 어떤 통치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며 '나는 위대한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의 부당한 행위를 이 세상에서도 사후 세상에서도 처벌하셨습니다. 이로부터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무까우까스 왕= 우리에게 이미 종교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카티브 성인 = 진리의 종교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마지막 종교인 이슬람으로 초대하는 바입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우리의 예언자를 통하여 그분의 종교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언자는 당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이슬람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이 당시 꾸라이쉬 민족은 예언자를 가장 반대한 사람들이고, 유대교인들은 최고의 적이 되었고, 기독교인들은 그중 가장 친근함을 보였습니다.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컨데 무사 알라히살람이 이사 알라히살람을 예고하여 기쁨을 선사한 것처럼, 이사 알라히살람도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을 예고하여 백성들에게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을 꾸란으로 초대하는 것은, 유대교인들을 성경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잘 알고 있다시피, 각각의 예언자는 그를 이해하고 따르는 민족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은 예언자를 믿고
따르는 것을 의무로 하였습니다. 당신이 바로 예언자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민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종교로 초대합니다

무까우까스 왕= 내가 그 예언자의 언행을 살펴보았더니 그 명령과 금지에 불합리한 점이 전혀 없소. 내가 아는 한 그는 마법사나 점쟁이, 또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오. 나는 그의 언행에서 예언자의 징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 내게 생각할 여유를 주시오.

한밤중에 무까우까스는 카티브 성인을 깨워 예언자에 대해 단 세가지만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였다.
무까우까스 왕 = 그분에 대해서 묻는 것에 확답을 한다면 3 가지만 묻겠소. 카티브 성인 = 원하는데로 하십시요. 저는 결코 사실을 말할 것입니다. 무까우까스 왕 =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은 사람들을 무엇에 초대합니까?
카티브 성인 = 그분은 사람들에게 오로지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만을 경배하라고 초대합니다. 하루에 다섯 번의 예배를 올리고, 라마단 때 단식을 하며,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분은 썩은 고기 먹는 것을 금지합니다.
무까우까스 왕 = 그의 생김새와 외모를 설명해 보십시오.
(카티브 성인이 대략적인 외모를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모습은 언급하지 않자)
무까우까스 왕 = 당신이 설명하지 않은 그의 모습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눈 속에 작은 홍반(□□)이 있고, 예언자의 봉인이 어깨 사이에 있습니다. 그분은 당나귀를 타고 양털 옷을 입으며, 대추야자와 약간의 고기로 끼니를 때웁니다. 그분은 숙부나 숙부의 아들에 의해 보호됩니다.
카티브 성인 = 그것 역시 그분의 속성입니다. 무까우까스 왕 = 그분은 화장 먹을 사용합니까?
카티브 성인 = 그렇습니다. 예언자는 또한 머리를 빗기 위해 언제나 거울을 갖고 다닙니다.
무까우까스 왕 = 나는 곧 오게 될 예언자 한 사람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분이 시리아 지역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예언자들이 항상 거기서 나왔으니까요. 그렇지만 나는 최후의 예언자가 황량하고 기근이 심한 아라비아에서 나올 것이라는 내용의 책들을 보았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지금이 바로 그 책에 적힌 속성을 가진 예언자가 나타날 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속성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자매를 부인으로 삼지 않고, 선물은 수락하나 동정은 거부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한다.'라고 성서에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복종하자는 나의 말을 콥트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나 역시 나의 통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언자는 여러 나라를 지배할 것이며, 교우들이 뒤를 이어 우리 땅도 차지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말들을 콥트 사람들에게 언급하지 않을 것이며, 내말이 그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화가 끝난 후에 무까우까스는 통역을 불러 우리의 예언자에게 보내는 답장을 쓰게 했다.

'압둘라의 아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에게! 콥트 민족의 장로 무까우까스가 보냅니다! 평화가 그대에게 깃들기를! 나는 당신이 보내준 편지를 읽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언급한 내용과 당신의 초청을 잘 이해하였습니다. 나 역시 어떤 예언자가 오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이 시리아 지역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신이 보내온 대표를 접견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두 명의 여자노예와 의복들, 그리고 당신이 타고다닐 수 있는 암노새를 선물로 보냅니다.'

무까우까스는 더 이상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무슬림이 되지도 않았다. 그는 카티브 성인을 이집트에서 닷새 동안 잘 대접했다. 그리고는 "하루 바삐 이곳을 떠나시오. 동료들에게 돌아가시오. 그분을 위해 2 명의 여자 노예, 2 마리의 동물, 천 미스깔 (1 미스깔은 4.5G)의 금, 20 벌의 이집트 장식의 의류와 다른 선물들을 보내라고 명령했소. 내 곁에서 떠나시오. 절대로 콥트 사람들에게 한 마디도 하지 마시오." 무까우까스는 또 따로, 예언자에게 크리스탈 물잔, 꿀, 터번, 이집트산 마로된 옷감, 머스크 같은 향료, 지팡이, 화장 먹, 장미 기름, 빗, 가위, 치아용 나무솔, 거울, 바늘과 실 같은 것들을 선물했다. 무까우까스는 카티브 빈 아비 발타아 성인에게 보호병을 딸려 보냈다. 아라비아 땅에 당도했을 때, 메디나로 가는 한 단체를 만났다. 카티브는 무까우까스의 보호병들을 돌려 보내고, 이 단체에 합류하였다.

카티브 빈 아비 발타아는 메디나로 돌아와 선물들을 가지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앞으로 갔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무까우까스의 선물들을 받아들였다. 카티브 성인이 무까우까스의 편지를 전하고 다녀온 결과를 보고했을 때, 우리의 예언자가 말했다. "나쁜 사람이로다! 그는 통치권을 포기할 수 없었으니, 믿음을 가로막은 그 통치권은 결국 없어질 것을!"

두 여자노예의 이름은 마리야와 시린으로 자매 사이였다. 그들은 메디나로 오는 도중에 카티브의 초대로 무슬림이 되었다. 우리의 예언자는 마리야와 결혼하여 나중에 이브라힘이란 아들을 낳았다. 시린은 예언자의 교우 하산 빈 사빗과 결혼하였다. 노새 2 마리중, 더 훌륭하고 털이 색이 회색에 까까운 노새를 '둘둘'이라 불렀고, 다른 하나는 '우파이르' 또는 '야푸르'라고 불렀다. 그때까지 아라비아에 이렇게 하얀 털의 노새는 둘둘이 처음이었다. 예언자는 크리스탈 물잔으로 물을 마시곤 하였다. 무까우까스는 예언자의 편지를 매우 존중하여 상아로 만든 상자에 넣었다. 상자를 봉하고 도장을 찍어 한 여종에게 맡겼다. (이 편지는 히즈라 1267 년(서기 1850 년)에 이집트의 아민 지역의 옛 회당에서 책자들 사이에서 발견되어 오토만 시절에 술탄, '압둘하미드 한'에 의하여 구입되어, 이스탄불 톱카프 궁전에 '성스러운 유산'으로 소장되고 있다.

압둘라 빈 후자파는 페르시아의 통치자에게 사절로 파견되었다. 압둘라 성인이 우리의 예언자의 편지를 페르시아의 거만한 통치자에게 전달하니 그는 서기로 하여금 그것을 큰소리로 읽게 했다.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후 테알라의 이름으로!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무함마드 알라히살람 로부터 페르시아의 최고 연장자 키스라에게!”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 오만한 왕은 화가 치밀어 올라 편지를 낚아채더니 찢어버렸다. 그는 편지의 서두에 우리의 예언자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을 보고 화를 낸 것이다. 그가 이슬람의 사절 압둘라 성인을 쫓아내려하자 압둘라 성인이 페르시아 왕 및 거기에 모여 있던 불의 숭배자들에게 말했다. “오, 페르시아 민족이여! 당신들은 예언자들을 믿지 않고 성서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꿈속에 살고 있고, 그 유한한 세월들은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스쳐지나갑니다. 왕이시여! 당신 이전에 많은 통치자들이 당신의 옥좌에 앉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명령을 수행한 사람들은 사후 세상에서의 행복을 누리고 있으며,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라후 테알라로부터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가져다 준 그 편지는 실로, 당신에게 크나큰 축복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멸시하였습니다.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컨대 당신이 멸시한 그 종교가 이곳에오게 되면, 당신은 피난처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뒤 압둘라 성인은 왕의 궁전을 떠나 자신의 탈 것에 올라탔다. 그는 재빨리 그곳으로부터 벗어났다. 그가 메디나로 돌아와 예언자에게 다녀온 결과를 보고하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저의 편지를 찢은 것처럼, 그와 그의 왕국을 내 편지와 같이 찢으소서!”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예언자의 탄원을 받아들이시어 어느 날 밤 그 페르시아 왕은 자신의 아들의 칼에 의해 난자당해 죽었다. 우마르 성인의 시대에는 모든 페르시아의 땅이 무슬림들에의해 지배되었다.

슈자 빈 와흐브 성인은 가싼의 통치자 하리스 빈 아비 쉬므르에게 사절로 파견되었다. 슈자 성인은 먼저 그 통치자의 문지기에게 말을 걸어 그를 이슬람으로 초대하였다. 그 문지기는 이슬람을 받아들였으며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정중한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곧바로 슈자 성인과 통치자의 면담을 주선하였다. 하리스 빈 아비 쉬므르는 편지를 읽고 나더니 크게 화를 내며 편지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슈자 성인은 즉시 메디나로 돌아와 자초지종을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보고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편지가 땅에 던져진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였다. 그분이 말했다. “그의 통치가 멸망하기를!” 얼마 지나지 않아 하리스 빈 아비 쉬므르는 죽었고, 그의 왕국은 분산되었다.

살릿 빈 아므르는 야마마의 통치자 하우자 빈 알리에게 사절로 파견되었다. 하우자는 그리스도 교인이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편지는 다음과 같았다.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후 테알라의 이름으로!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심부름꾼 무함마드(알라히살람)로부터 하우자 빈 알

리에게! 진정한 인도자를 따르는 이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슬람은 낙타와 말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확대될 것이며, 모든 종교에 대항하여 승리할 것입니다. 이슬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무슬림이 된다면, 나는 당신의 통치체제를 지금과 같이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야마마의 통치자 하우자는 이 축복에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지배욕에 눈이 멀었다. 온 세상의 귀감으로 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거룩한 왕국도 얻지 못하였다. 이슬람의 사절단 대표인 살릿 빈 아므르 성인은 그를 동정하여 말했다. "오, 야마마의 통치자 하우자여! 당신은 야마마 민족의 연장자입니다. 당신이 위대하다고 여기는 시저도 이미 죽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정으로 강력한 자는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분이 금지한 것을 자제하여 천국으로 갈 자격을 얻는 자입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를 믿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면 당신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사탄을 따르면 지옥에 머물 것입니다. 만약 이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두려워하던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희망하던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니만 이 권고를 거부한다면, 인제 당신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후는 당신들이생각하십시요!"

하우자는 이슬람 사절의 이 이로운 충고를 듣지 않았다. 살릿 성인은 야마마에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음을 알고 즉시 메디나로 귀환하였다. 보고를 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그가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였다. 얼마 후 하우자의 사망소식이 들려왔다. 그의 왕권에 대한 집착은 지옥의 구덩이인 무덤에서 종결되었다.

이리하여 이슬람의 여섯 사절들은 그들의 임무를 완수하여 당시에 존재하던 강대한 국가들 모두에게 이슬람의 존재를 선포하였다.

에티오피아의 통치자 아샤마는 무슬림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 동로마제국의 황제 헤라클리우스와 이집트 왕 무까우까스는 비록 무슬림이 되지는 않았지만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편지에 존경의 태도를 보였고, 정중한 답장과 함께 선물을 보내왔다. 가싼과 페르시아의 통치자는 사절들을 친절하게 접견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야마마의 통치자는 이슬람 사절을

온화하게 대하였다.

영혼들의 소나무, 자비의 장미의 최고 결정을 그리워하니,
보시오, 태양이 빛을 뿜어 당신을 보고자하는 열망으로 타 없어져 가련한 간구는 삶이 끝남에 비탄해하고
당신의 존엄으로 나를 편하게 하옵소서; 나는 불 위에 있나니, 오 예언자여!

나는 고통을 모릅니다, 만약 목마르고 뜨거운 사막에서 죽는다 하여도 나의 가슴은 화산이 되고, 바다의 물도 나를 적시지 못하니
나는 인지를 못합니다, 불덩이가 비처럼 쏟아지고 나에게 닿아도
당신의 존엄으로 나를 편하게 하소서; 나는 불 위에 있나니, 오 예언자여!

카이바르 정복

영광의 땅 메디나에는 무슬림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위선자인 일부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라비드 빈 아삼이라는 마법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다. 유대인들은 그에게 돈을 주며 말했다. "무함마드(알라히살람)가 어떻게 우리 민족을 죽이고 메디나에서 쫓아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 것이오. 그에게 마법을 걸어 그를 처벌하여 주시오." 그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마법을 걸기 위해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의 머리빗에 끼인 머리카락을 얻기로 하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옆에서 시중을 들던 한 유대인 아이를 통하여 마법사 라비드는 마침내 머리카락을 손에 넣었다. 라비드는 머리카락과 머리빗에 실로 열한 개의 매듭을 지우고는 입김을 불어넣고는 우물 속의 돌 밑에 그것을 감추었다. 그 이후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건강을 잃고 앓아누워 며칠씩 일어나지 못했다. 교우들이 병문안을 가보니 병세는 매일 더 심각하게 되어갔다. 교우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하였다. 그러나 위선자들은 마치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기뻐서 날뛰었다.

어느 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아이샤 성인에게 말했다. "오, 아이샤! 당신은 아시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내 병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셨소. 두 사람(천사 지브릴과 미카일)이 내게 와서 한 명은 나의 발 아래에 , 다른 한 명은 머리 위에 앉아 '이 사람은 무슨 병인가?' '그는 마법에 걸려있다.' '누가 마법을 걸었는가?''라비드 빈 아삼이다.' '무엇으로 마법을 걸었는가?' '머리빗과 거기 남은 머리카락이다.'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자르완 우물 속에 있다.'라고 서로 말을 주고 받았소"

자르완은 메디나의 주라이크 부족 정원에 있는 우물이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알리 성인과 주바일, 탈하, 그리고 암마르를 그 우물로 보냈다. 그들은 우물물을 퍼내고 바닥에 있는 돌을 들어내었다. 거기에서 열한 개 매듭이 있는 줄을 발견하였다. 그것을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에게 가져갔다.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매듭은 풀리지 않았다. 지브릴 천사가 곧 '팔라끄 장'과 '나스 장'의 계시를 전해주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열한 개의 구절로 되어있는 이 계시들을 낭송하자 매듭은 하나씩 하나씩 풀려갔다. 매듭이 다 풀렸을 때, 온 세상의 귀감, 예언자는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고 곧 건강을 회복하였다.

유대인 라비드가 체포되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앞으로 끌려왔다. 우리의 예언자가 그에게 말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너의 마법과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셨다. 왜 그런 짓을 했는가?" 그가 대답했다. "황금이 탐나서 그랬습니다." 교우 몇 사람이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허락하신다면 저 유대인의 목을 베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자신 때문에 어느 누구도 처벌하지 않았으며, 마법사에 대한 처형도 허락하지 않으며 말했다. "그가 맞이하게 될 알라후 테알라의 처벌이 보다 더 가혹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추방되었을 때, 그들은 아라비아의 북쪽 지방으로 갔다. 그들 일부는 카이바르에 머물러 그곳에 정착하였으며, 일부는 더 북쪽에 있는 다마스커스로 갔다. 그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그들의 고향에서 쫓겨났었다. 어쨌거나 그들의 무슬림에 대한 미움과 복수의 감정은 시들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 그들은 가능하면 빨리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이슬람 종교를 소멸시키기를 원하였다. 그들의 지도자 몇 사람이 말했다. "가타판 부족을 찾아가 그들의 도움을 구합시다. 그들과 함께 무슬림에 맞서 싸웁시다!"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파다크와 타이마, 그리고 와딜쿠라 유대인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여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무슬림을 쳐들어가 우리의 원수를 갚읍시다."

카이바르의 유대인들은 이 의견을 채택하여 주변의 유대인 부족들과 가타판 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가타판으로부터 많은 숫자의 뛰어난 전사들이 도우러 오자 그들은 카이바르에서 본격적인 전쟁준비를 시작했다.그들이 이러한 준비를 서두르는 동안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유대인들의 움직임을 포착하였다. 그는 곧바로 압둘라 빈 라와하 성인과 세 명의 교우를 카이바르로 보내 현지상황을 파악하게
하였다. 압둘라 일행은 즉시 카이바르로 갔다. 그곳은 여덟 개의 튼튼한 성채를 가진, 비옥하고 넓은 토지의 풍요로운 도시였다. 압둘라 성인은 그의 동료 세 사람을 각각 쉬크 요새, 카티바 요새, 그리고 나탓 요새로 보냈으며, 자신은 다른 요새로 들어갔다. 사흘 동안 그들은 유대인들의 동정과 전쟁준비 상황을 감시하였

다. 사흘 후 그들은 집결지점에서 만나 즉시 메디나로 귀환하였다. 그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유대인의 준비상황을 세밀하게 보고하였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교우들에게 즉시 준비를 갖추라고 명령했다. 예언자는 유대인들이 메디나를 공격하기 전에 카이바르로 진격하기로 결심했다. 메디나의 유대인들은 이 결정을 듣고 공황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무슬림들의 기를 꺾기 위해 말했다. “카이바르의 우람한 성채와 그곳을 지키는 용감한 병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본다면, 맹세컨대 당신들은 거기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거요! 산꼭대기 위에 세워진 높은 탑의 성채는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지키고 있소. 게다가 수천 명의 병사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 와 있소. 카이바르 정복이 가능할 것 같소?” 이에 대해 영웅적인 교우들이 말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카이바르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소.” 그러므로 그들은 조금도 유대인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교우들의 의지에 유대인들을 더욱 커다란 근심과 슬픔으로 몰아넣었다.

위선자들의 우두머리 압둘라 빈 우바이는 카이바르로 급히 전갈을 보냈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 가 작은 부대를 이끌고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고 필수물품을 요새에 쌓아두고 요새 밖으로 나가 그들에 응전하라!”

교우들은 준비를 모두 마치고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한 다음, 우리의 예언자 주위에 집결했다. 2 백 명의 기마병과 1 천 4 백 명의 보병이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모인 것이다. 많은 여성들도 취사 및 부상병 치료를 맡겠다며 지원해 왔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그중 20 명을 선발하여 움무 살라마 성인(예언자의 아내)의 지휘 아래 참여하게 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기파르 부족의 시바 성인을 자신의 대리자로 메디나에 남기고(뉴마이아 빈 압둘라 성인을 남겼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카이바르로 진격할 것을 명령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의 합창으로 행군이 시작되었다. 특별한 사유로 참전의 허락을 받지 못한 연로자와 많은 아이들이 예언자와 영웅의 아버지, 할아버지, 숙부, 형제들을 타크비르와 기도로 환호하였다. 때는 히즈라 7 년이었다. 알리 성인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성스러운 깃발을 들었고, 우마르 성인이 우익을 지휘했다. 행군은 유쾌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시인들은 시를 읊어 알라후 테알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예언자를 찬미하고 교우들을 칭송하였다. 교우들도 축제로 가듯이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유일하시며, 위대하시다!” 라며 온 세상을 뒤 흔들리게 하였다.

오, 예언자여!

오, 예언자여! 당신의 문 앞에 있는 종들은, 문지기는,
발을 닿게 하신 흙에 입을 마추지 않는 자는,
또, 기쁨을 위해 생명을 바치지 않는 자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거짓입니다.

발이 닿은 흙을 머리에 왕관으로 삼아;
입 마추고, 눈에 바르고, 마음의 명약으로 하여
진리의 길을 찾는 등불로 하여
당신의 길로 접어들어, 당신의 열열한 애모자가 되렵니다.

당신으로부터 온 바람의 향기를 맡고,
당신의 향기의 흔적이 있나하여 찾아보고
당신을 위하여 희생하리니, 나의 사람들과 아이들을
어머니, 아버지, 친척들, 더 나아가 수없이 많은 생명을.

마블라나 칼리드가 이르기를, 당신의 충실한 열애자라,
오, 만물의 술탄이시여! 오, 세상의 사랑이시여!
나에게 오로지 하나의 생명이 있어, 이는 당신에게 속하니,
내가 당신에게 이 한 생명을 희생하겠다고 말하지 못하니이다.

당신의 종들, 이마에 표시가 없는 자들은, 사랑의 증표를 목에 걸지 않은 자들은;
당신의 통찰력이 관철하지 않은 자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천삼백 년, 이 세월동안 당신을 칭송하던 자들은 마음을 태우고, 지속적으로 당신을 찬미하던 자들은, 죄를 감해달라고 애원하며 당신의 문에 기댄자들은, 가장 나쁜 종 조차 가장 가련한 희생물이요

이르기를, 알라후 테알라의 사랑인 당신에게 다가가니, 저로하여금 모든 것을 잊고 단지 당신만을 알게하시고. 저로하여금 들판으로 나가 타고 녹아 없어지게 하시어; 항시 당신에게로 향하고, 당신에 대한 사랑과 집착으로

당신에 대한 사랑의 열기로 타버리 입술을,
속이려고 입 맞춤을 해도, 당신을 덮고 있는 곳의 먼지를 그 깨끗한 흙을 입 마추고, 얼굴에 발라,

영혼의 명약이라, 병든 몸의 치유라

당신의 앞에서 두 손을 벌리고 알라후 테알라께 애원하더라도,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도록 그렇게 하더라도, 끊임없이 용서를 간구하고, 끊임없이 살랏34을 읽더라도,고백하건데, 당신의 은혜에 미칠 수 없습니다.

몸이 떨리도록 울어도, 마음을 당신에게 준다해도, 또 타는 듯한 사랑에 눈물을 쏟아도,
눈물이 메마르고, 피가 흐르고, 초가 되어 녹아흘러도 알쉬 보다 더 높은 당신을 묻은 곳에서 생명을 다한다면,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수단이요, 가장 옳은 길잡이요 영원의 기쁨을 오로지 당신만이 보여주십니다;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셀 수 없는 기쁨을 선사하시니,
그 어떤 필구가 이를 적고, 그 어떤 언어가 이를 설명하겠습니까?

간곡히 청하오니, 단 한번이라고 이 불쌍한 자들에게 술탄으로
눈물로 눈이 먼, 야큡에게 온 케난 처럼,
한 밤의 어둠에 하나의 밝은 달 처럼
보십시요; 상처 받은 마음이 한 순간 희망에 찰 것입니다.

모든 숙영지에서 예언자는 "나의 알라후 테알라! 다가올 날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과거의 일로부터 두려워하고, 힘없고 의지를 약하게 하는 것과, 욕심과 겁먹음, 그리고 굽신거리게 하는 빚으로부터, 사악하고 의롭지 못한 자들의 핍박으로부터 당신이 보호하소서!" 라고 기도하였다.

그들이 카이바르에 가까이 갔을 때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교우들을 멈추게 하였다. 그런 뒤 예언자는 팔을 들어 올려 탄원을 시작했다. "오, 하늘과 하늘 아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나의 알라후 테알라! 사탄과 그의 꾀에 넘어간 자들의 주인이신 나의 알라후 테알라! 바람과 바람에 쓰러진 모든 것의 주인이신 나의 알라후 테알라! 우리는 당신에게 이땅의 이익과 선을 또, 이 땅의 사람들의 이익과 선을,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익과 선을 간청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악함으로부터 이 땅의 사람들의 사악함으로부터, 또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사악함으로부터 당신께 피난처를 구합니다." 교우들은 "아민!" 을 합창하였다. 그러자 예언자가 말했다. "비스밀라(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후 테알라의 이름으로)를 외우며전진하라!"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에워싼 교우들은 다시 행진을 시작했다. 그들은 카이바르의 가장 강력한 요새 중 하나인 나탓 성채에 가까이 가서 거기에 지휘소를 세웠다. 밤이 되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평소 습관은 아침에 날이 밝기 전까지는 기습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적과 싸우기 전에 반드시 이슬람으로 초대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우들은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유대인들은 이슬람 군대가온 것을 아무도 몰랐다.

온 세상의 귀감은 아침 예배를 인도하고 난 뒤 마지막 준비를 끝내고 무슬림 전사들을 동원하였다. 2 백의 기마병들과 1 천 4 백의 보병이 나탓 성채로 접근했다. 한편 유대인들은 그들의 농사일을 하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무슬림 병사들을 마주 대하고 깜짝 놀라며 말했다. "이것은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의 정규군이 아닌가!" 그들은 서둘러 도망치기 시작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그들의 상태를 보고 말했다.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 카이바르는 무너졌다!" 그가이 말을 세 번 반복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무슬림이 되든지, 아니면 항복하고 세금을 내든지 택일하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오로지 전쟁과 유혈사태만 있을 뿐이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지도자 살람 빈 미쉬칸에게 가서 상황을 알렸다. 살람은 유대교인들에게 싸우라고 격려하며 말했다. "나는 앞서 무함마드 알라히살람 가 있는 곳으로 진격하자고 말했지만 그대들이 듣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그와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무슬림과 몸을 부딪히며 싸워 죽는 것이 혼자 살아남는 것 보다 더 좋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여자와 어린이들을 카티바 요새로 모은 뒤, 그들의 식량은 나임 요새로, 그들의 병사들은 나탓으로 집결시켰다.
유대인들은 무슬림이 되라는 이슬람 군대의 권유에 화살로 대답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의 명령에 따라 무슬림 전사들도 요새 안의 유대인들에게 활을 쏘기 시작함으로써 전투가 본격화되었다.1 천 6 백 명의 영광스러운 무슬림 전사들을 향해 1 만 명이 넘는 유대인 병사들이 화살을 날리고 있었다. 이슬람 군은 방패로 이를 막았고, 예언자의 지시에 따라 활을 당겨 일시에 성에 있는 적들을 향해 쏘았다.교우들은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 를 외쳤다. 이렇게 하여 전투가 시작되었다. 예언자와 그의 교우들은 이슬람을 전파하고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 싸웠다. 상대편은 권고를 무시하고, 기회마다 무슬림을 공격하는,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유대교인들이었다. 최후의 예언자가 자신들의 종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시기심으로 인하여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유년기때부터 그분의 존재를 없애기 위해 온갖 계략을 꾸며 왔지만, 알라후 테알라의 보호로 어떠한 것도 성공하지 못했다. 천육백명의 교우들에게 만명이 넘는 유대교인들이 활을 쏘아댔다. 끊임없는 활을 교우들은 방패로 막았다. 기회를 보아 땅에 떨어진 활을 주어 적에게 쏘았다. 몇 명의 교우가 부상을 입었다. 합밥 빈 문지르 성인이 때를 보아, 아주 공손한 모습으로 예언자에게 다가가 "당신을 위하여 저의 생명을 바치리니,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지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떨까요?" 예언자는 저녁이 되어야 옮길 수 있다고 하였다. 교우들은 화살 사정권에 들어가 있었고, 유대인들이 쏜 화살은 이슬람 지휘소를 넘어 후방에까지 날라왔다.

그날 전투는 쌍방의 일제 화살사격으로 저녁때까지 계속되었다. 약 50 명의 교우가 화살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 저녁이 되자 무함마드 빈 마슬라마 성인에게 지휘소의 새로운 위치를 찾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그는 '라지'라는 곳을 적합한 곳으로 보고하였고, 이슬람 군대의 지휘소는 즉각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였다. 부상자들도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당신에게로

오, 죄인들의 보호자여, 당신에게로 피했습니다. 많은 잘못을 저질러, 당신께 애원하러 왔습니다.

암흑으로 빠져들어 들고, 퇴폐에 빠졌습니다. 진리의 길을 밝히시는, 빛의 원조에게 왔습니다.

바칠 수 있는 한 목숨이 있나니, 오, 생명들의 생명이여! 말하기가 쑥스럽지만, 내 생명을 바치러 왔습니다.

자비의 문앞에 무엇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밟아서 영광스러워진, 그 흙을 입 마추려 왔습니다.

죄악이 산 처럼 크나크니, 얼굴이 선인처럼 검게되고 이 무겁고 검은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왔습니다.

결단코 지워 주십니다, 축복의 대양에서 단 한 방울로 얼굴처럼 시커먼 선악 기록장을 가져 왔다하더라도,

당신의 문에 얼굴을 부빌 수 있다면, 오 내 생명의 사랑이여 물로 이루지 못한 것이, 그 흙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날 영웅적인 교우들은 나탓 요새 앞에서 저녁때까지 싸웠다. 포위는 셋째 날과 넷째 날, 그리고 닷새째까지 계속되었다. 유대인들은 계속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격심한 두통이 생겨 이틀간 전장에 나가지 못했다. 첫째 날 아부 바크르 성인에게 깃발을 맡겼으며, 둘째 날 우마르 성

인에게 깃발을 맡겼다. 두 사람은 교우들을 책임지고 유대인들과 격렬하게 싸웠으나 요새를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는 사이 어느 정도 용기를 회복한 유대인들은 요새의 성문을 열고 공격을 하였다. 이제 정면대결이 시작되어 전투가 본격화된 것이다. 우리의 교우들은 '알라후 아크바르!'를 합창하며 칼을 빼들고 용감하게 싸웠다. 이 단계에서 무함마드 알라히살람 빈 마슬라마의 형제 마흐무드가 순교했다. 치열한 전투는 저녁때까지 계속 되었다.

그 다음날 카이바르의 유명한 사령관 중 한사람인 마르합이 갑옷을 입은 채 전장에 나타났다. 그는 거인과 같이 장대하고 강력한 사람으로 그때까지 그 누구도 그와 대적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는 무슬림 전사들을 향해 큰소리로 외쳤다. "나는 배짱과 용기로 유명한 마르합이다!" 이때 무슬림 진영에서 한 사람이 뛰쳐나갔다. "나로 말하자면 두려움 없이 무서운 전투에 뛰어드는 아미르이다." 그는 "알라후 아크바르!" 를 외치며 마르합 앞에 섰다. 거인 같은 마르합은 '누구에게 닿던지 파멸시킨다'라고 적힌 칼을 뽑아 아미르 성인에게 내리쳤다. 용감한 아미르 성인은 방패로 즉시 방어하였으며, 칼이 방패에 부딪힐
때, 커다란 충돌 소리가 주위를 울리더니 칼이 아미르 성인의 방패 속에 꽂혀 버렸다.

아미르 성인은 알라후 테알라께 도움을 청하는 "야, 알라!" 를 외치며 칼로 마르합의 갑옷에 싸인 다리를 공격하였다. 칼로 철갑을 때리자 칼이 튕겨 나와 아미르 성인의 다리를 베었다. 그 강력한 반동으로 아미르 성인은 다리 동맥에 중상을 입었다. 교우들이 달려 나가 그를 부축하였으며, 본진으로 데리고와 치료를 하였으나 아미르 성인은 끝내 순교하였다.격렬한 전투가 계속되었다. 저녁때가 되자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다신교도인 가타판 부족에게 이곳을 떠나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했다. 그들은 유대인을 돕기 위해 4 천 명의 병사를 동원해 참전하였다. 예언자는 만약 그들이 철군한다면 카이바르에서 생산되는
1 년분의 대추야자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가타판 부족은 이 제안을 일축했다. 그러자 온 세상의 귀감은 교우들에게 명령하여 가타판 부족이 있는 요새 주위에 밤새 머물도록 했다. 가타판 부족은 무슬림 전사들의 야간공격이 있을까 매우 두려워하였으며, 밤새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날 밤 어디서 나는지 알수가 없는 소리가 '가타판 부족의 땅이 기습을 당해 그들의 가족과 재산이 몽땅 전리품이 되었다'라고 들려왔다. 이러한 소리는 세 번이나 반복되었으며, 가타판 부족은 커다란 공포 속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들의 사령관 우나이나 또한 이 소리를 들었다. 그는 날이 밝기 전에 병력을 모두 수습하여 곧바로 카이바르에서 철수하였다. 그들은 서둘러 자신들의 땅으로 내달렸다. 날이 밝아 아침이 되자 유대인들은 가타판 부족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라진 것을 알고 매우 놀랐다.

그들은 이제 희망을 잃었으며, 가파판 부족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을 후회하였다.

알리 성인의 영웅성

그날도 카이바르 앞에서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요새는 여전히 튼튼하여 점령을 허락하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온 세상의 귀감, 예언자는 기쁜 소식을 전하며 말했다. "나는 내일 이슬람 군의 깃발을 그 누구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는 알라후 테알라와 그분의 사도를 사랑하며, 알라후 테알라와 그분의 사도도 그를 사랑하여, 그의 손으로 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 밤 교우들은 흥분 속에서 아침을 기다렸다. 모두들 자신이 그 깃발을 받을 수 있도록 알라후 테알라께 기도했다. 빌랄 성인이 아침예배 시간을 알리는 아잔을 읊었다. 모두가 흥분과 감동을 만끽했다. 아침예배를 인도한 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일어섰다. 그는 축복받은 이슬람의 깃발을 가져오도록 명령했다. 성스러운 깃발이 운반되는 동안 교우들은 누구의 이름을 예언자가 호명할지 숨을 죽이며 듣고 있었다. 마침내 예언자는 "무함마드(알라히살람)를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로 보내신,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컨데, 나는 이 깃발을 전장에서 물러설 줄 모르는 용사에게 전합니다" 예언자가 교우들을 죽 훑어보며 말했다. "알리는 어디에 있는가?" 교우들이 대답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그는 눈이 아픕니다." 우리의 예언자가 말했다. "그를 불러오라!" 그 당시 알리는 눈병에 걸려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교우들이 가서 알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들은 알리를 부축하여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앞으로 데려왔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우주의 주인이신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알리 성인의 회복을 탄원하였다. 축복받은 손가락에 침을 묻혀 알리 성인의 눈을 쓰다듬었다. 그 순간 알리 성인의 모든 고통은 사라졌다. 우리의 예언자는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다시 기도하였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이 사람에게서 뜨거움과 차가움에서 오는 고통을 없애 주십시요." 그런 뒤 손수 알리 성인에게 갑옷을 입혔으며, 자신의 칼을 알리 성인의 허리에 채워주었다. 예언자는 이슬람의 하얀 깃발을 알리 성인에게 넘겨주며 명령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승리를 허락하실 때까지, 싸워라! 절대로 후퇴하지 말라!" 알리성인이 말했다.

"당신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리니,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나는 그들이 이슬람 종교를 받아들일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예언자도 "진정으로, 그대로 말미암아, 적들 중 한 자라도 알라후 테알라의 진리를 발견한다면, 많은 붉은 털의 낙타을 가진자가 알라후 테알라를 위하여 이 낙타들을 모두 기부한다하여도 그대의 업적에 이르지 못한다." 라 하였다.

알리 성인이 깃발을 들고 성스러운 교우들이 그 뒤를 따라 유대인의 성채를 향해 진군하였다. 무슬림 군대가 유대인 진영에 접근하여 깃발을 어떤 바위 옆에

세웠을 때, 나탓 요새의 성문이 열리고 유대인 강습부대가 공격태세를 갖추고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카이바르의 뛰어난 용사들로 모두가 두 겹의 쇠로된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 중 한사람이 알리 성인 앞으로 걸어 나와 대결을 운하였다. 이 사람은 마르합의 형제 카리스였다.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공격을 가했다. 두 사람의 칼이 부딪치는 소리가 전장을 울리고, 순간 알리의 줄피카르가 갑자기 밑으로 내려오는가 싶더니 카리스의 목이 떨어져 나갔다. 이 순간 "알라후 아크바르!" 의 함성이 하늘까지 울려 퍼졌다.

마르합은 자기 형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병력을 인솔하여 전장으로 나왔다. 그 역시 두 겹의 갑옷을 입고 두 칼을 허리에 차고 거인같은 모습으로 알리 성인의 앞에 섰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민 그는 울부짖었다. "나는 전투가 아주 결렬한 때 이에 뛰어들어 용감하게 싸우는 마르합이다. 나는 성난 사자도 창이나 칼로 동강이를 내는 마르합이다!" 알리 성인이 말했다. "나는 내 어머니가 사자(하이다르)라고 이름 붙인 사람이다. 나는 당당한 사자이다! 너를 일격에 쓰러뜨릴 용사다!" 마르합은 하이다르라는 말을 듣자 겁을 먹었다. 엊저녁 꿈에 그는 사자에 갈가리 찢겼기 때문이다. 그 순간 거인 마르합이 공격을 가했으며, 알리 성인은 방패로 이를 막았다. 알리 성인은 알라후 테알라의 보호를 기원하며 마르합의 머리를 줄피카르로 힘껏 후려쳤다. 마르합이 가리고 있던 방패를 가르고, 쇠투구가 박살이 나면서 그의 머리가 둘로 나뉘어졌다. 줄피카르에서 나온 무서운 소리가 카이바르의 적들에게 까지 울려퍼졌다.

우리의 예언자가 말했다. "기뻐하라! 이제 카이바르 정복이 눈앞에 다가왔다. 교우들은 알리 성인의 용감성을 찬탄했다. '알라후 아크바르!'소리가 하늘에까지 울려 퍼졌으며 전투는 더욱 가열되었다. 가슴과 가슴을 부딪혀 싸우면서, 교우들이 요새의 정문에 이르렀을 때, 한 유대인이 칼로 알리 성인의 방패를 내리치는 바람에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미처 방패를 주울 시간이 없었으며, 유대인은 기회를 놓칠세라 방패 가로채어 도망을 쳤다. 곤경에 처한 알리 성인이 줄피카르로 주위의 적들을 물러나게 한 후, 그는 요새의 정문을 방패로 삼기로 하였다. 그는 '비스밀라'를 외며 거대한 쇠 대문을 잡아당겨 벽에 박힌 갈고리를 뽑아내었다. 알리 성인이 대문을 당겨 뽑는 순간 요새가 흔들렸다. 알리 성인은 이 대문을 방패로 삼아 싸우기 시작했다. 그 대문은 열 사람이 움직여도 꿈적하지 않는 무거운 것이었다.

유대인의 이름난 여섯 전사가 알리 성인을 대적하였으나 알라후 테알라의 도움으로 모두 물리쳤다. 알리 성인은 영웅의 교우들과 함께 요새 안으로 진입했다. 이제 전투는 요새 안에서 전개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슬림 군대는 요새 안을 장악하고 이슬람 깃발을 높이 게양했다. 그리하여 유대인 요새 중 가장 강력했던 나탓요새가 정복되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알리 성인의 눈에 입

을 맞추고 나서 말했다. “그대가 보여준 용감성 때문에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와 그분의 사도가 그대로인하여 기뻐하셨다.”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은 알리 성인은 감격에 겨워 울었다. 예언자께는 “무슨 이유로 우는가?” 하시니 “당신을 위해 생명을 바치리니,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기쁨으로 웁니다. 알라후 테알라와 그분의 사도를 기쁘게 했다니…” 라 대답하여, 예언자는 “단지 나만이 아니다. 지브릴 천사, 미카일 천사와 모든 천사들도 그대로 인하여 기뻐하였다.” 라 하였다. 한편, 다우스 부족으로부터 4 백 명의 무슬림들이 우리의 예언자를 지원하기 위해 왔다. 그리하여 전투가 계속된 끝에 카이바르의 모든 요새가 하나씩 차례로 무슬림들 병력에 의해 정복되었다. 희망을 잃은 유대인들은 대표를 보내 평화협정을 요청해 왔다. 우리의 예언자는 이 제안을 수락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의 합의에 도달했다.

1. 이 전쟁에서 무슬림에 맞서 싸운 유대인들에 대하여 피의 보복을 하지 않는다.
2. 카이바르를 떠나는 유대인들은 단지 어린이들과 낙타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의 간단한 가정필수품을 대동할 수 있다.
3. 나머지 가재도구와 일체의 재산, 갑옷과 칼 등 일체의 무기, 금은보화, 말과 낙타 등 동물은 모두 무슬림들에 귀속한다.
4. 무슬림들에 귀속될 위의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든 감추는 자는 보호에서 제외된다.

이 조건들을 어기고 자신의 보물을 땅 속에 은닉한 키라나 빈 라비는 처벌을 받았다. 전쟁으로 얻은 전리품은 엄청났다. 카이바르의 비옥한 토지와 대추야자 농원은 완전히 이슬람 군대에 귀속되었다.
한편, 고향으로 돌아갔던 가타판 부족은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 카이바르로 돌아왔다. 그들은 우리의 예언자가 카이바르를 정복하여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 우리가 카이바르를 떠나면 대추야자 1 년 수확량을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소. 우리는 약속을 지켰으니,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오!” 우리의 예언자가 말했다. “아무개 산이 너희들 것이 되기 바란다!” 그러자 가타판 부족은 “그렇다면 전쟁을 하겠소.” 하며 위협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대답했다. “부디 싸움장소가 자나파가 되길 바라노라!” 자나파는 가타판 지역 중 한 곳의 이름이었으므로, 그들은 두려움을 안고 카이바르를 떠나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와 그의 영웅적인 교우들은 카이바르 정복으로 인하여 매우 피곤하였다. 그들 중 부상자는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는 휴식을 취하였다. 유대인 저명인사 살람 빈 미쉬칸의 아내 자이납은 우리의 예언자를 독살하려고

계획했다. 이를 위해 그녀는 염소 한 마리를 잡아 고기요리를 만들고,

그 속에 많은 양의 독을 섞었다. 그녀는 그 요리를 우리의 예언자에게 선물로 가지고 가서 바쳤다. 예언자는 이를 받아들인 후 교우들을 초대하였으며, 모두 함께 앉았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비스말라'를 외며 염소 앞다리 고기 한 조각을 떼었다. 그 고기를 몇 번 씹더니 곧 뱉어내며 말했다. "오, 나의 교우들이여! 음식에 손을 데지 마시오. 고기에 독이 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받았소." 교우들은 고기에 손을 대지 않았으나 단 한 사람 비쉬르 빈 바라가 소량을 섭취한 후 몸이 보라색으로 변한 뒤 곧 순교했다. 지브릴 천사가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에게 와서 말하기를, 침속에 들었던 독을 빼내기 위해 예언자 어깨 사이에서 약간의 피를 뽑으면 해독이 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그 고기는 땅에 묻었다. 자이납이 예언자 앞에 끌려왔다. 우리의 예언자가 물었다. "그대가 염소요리에 독을 탔는가?" 그녀가 자백했다. "그렇습니다. 내가 독을 탔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는가?" "당신은 내 남편과 내 아버지와 숙부를 죽였습니다. 나는 마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가 진실한 예언자라면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에게 알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독이 번져 그는 죽을 것이다. 그리되면 우리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요." 교우들은 이 사건으로 매우 슬퍼하며 예언자에게 말했다. "이 여자를 죽일까요?" 자신에 대한 온갖 모욕을 용서했던 온 세상의 귀감은 그녀 또한 용서하였다. 자이납은 이 같은 위대한 자비심에 감복이 되어 즉시 신앙고백을 하고 무슬림이 되었다.
카이바르에서 붙잡힌 포로 중에는 후야이 빈 아크탑의 딸 사피야가 있었는데, 그녀는 우리의 예언자 몫의 전리품으로 배정이 되었다. 예언자는 그녀를 해방시켰으며, 그녀는 이에 감동을 받아 즉시 무슬림이 되었다. 이를 기쁘게 생각한 예언자는 그녀와 결혼함으로써 그녀를 더욱 영예롭게 하였다. 그리하여 사피야 성인은 믿는 자들의 어머니가 되었다. 사흐바라는 곳에서 그녀의 결혼식이 거행되었으며, 결혼음식으로 멜론과 대추야자가 배분되었다.
사피야 성인의 눈 주위에 멍이 들어있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고 묻자 그녀가 말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는데, 달이 내려와 내 가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남편 카나나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하자, 그가 '네가 우리와 맞서기 위해 온 아랍 통치자의 아내가 되기를 바라는구나!'하여 나를 때려 눈에 멍이 들었습니다."

카이바르 정복이 끝난 뒤 유대인들이 우리의 예언자에게 말했다. "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 우리는 카이바르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농사일과 농장관리에 밝습니다. 우리에게 이 풍요로운 토지를 임대해 주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가꾸어 수확량의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와 교우들은 농

사일을 할 겨를이 없었다. 이슬람 지역을 확대하고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길을 전파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예언자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며 말했다. "우리가 원할 때 이를 파기하는 조건으로 토지의 임대를 허락한다."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카이바르의 토지를 가꾸는 일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그녀는 염소 한 마리를 잡아 고기요리를 만들고,

그 속에 많은 양의 독을 섞었다. 그녀는 그 요리를 우리의 예언자에게 선물로 가지고 가서 바쳤다. 예언자는 이를 받아들인 후 교우들을 초대하였으며, 모두 함께 앉았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비스말라'를 외며 염소 앞다리 고기 한 조각을 떼었다. 그 고기를 몇 번 씹더니 곧 뱉어내며 말했다. "오, 나의 교우들이여! 음식에 손을 데지 마시오. 고기에 독이 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받았소." 교우들은 고기에 손을 대지 않았으나 단 한 사람 비쉬르 빈 바라가 소량을 섭취한 후 몸이 보라색으로 변한 뒤 곧 순교했다. 지브릴 천사가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에게 와서 말하기를, 침속에 들었던 독을 빼내기 위해 예언자 어깨 사이에서 약간의 피를 뽑으면 해독이 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그 고기는 땅에 묻었다. 자이납이 예언자 앞에 끌려왔다. 우리의 예언자가 물었다. "그대가 염소요리에 독을 탔는가?" 그녀가 자백했다. "그렇습니다. 내가 독을 탔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는가?" "당신은 내 남편과 내 아버지와 숙부를 죽였습니다. 나는 마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가 진실한 예언자라면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에게 알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독이 번져 그는 죽을 것이다. 그리되면 우리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요." 교우들은 이 사건으로 매우 슬퍼하며 예언자에게 말했다. "이 여자를 죽일까요?" 자신에 대한 온갖 모욕을 용서했던 온 세상의 귀감은 그녀 또한 용서하였다. 자이납은 이 같은 위대한 자비심에 감복이 되어 즉시 신앙고백을 하고 무슬림이 되었다.

카이바르에서 붙잡힌 포로 중에는 후야이 빈 아크탑의 딸 사피야가 있었는데, 그녀는 우리의 예언자 몫의 전리품으로 배정이 되었다. 예언자는 그녀를 해방시켰으며, 그녀는 이에 감동을 받아 즉시 무슬림이 되었다. 이를 기쁘게 생각한 예언자는 그녀와 결혼함으로써 그녀를 더욱 영예롭게 하였다. 그리하여 사피야 성인은 믿는 자들의 어머니가 되었다. 사흐바라는 곳에서 그녀의 결혼식이 거행되었으며, 결혼음식으로 멜론과 대추야자가 배분되었다.

사피야 성인의 눈 주위에 멍이 들어있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고 묻자 그녀가 말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는데, 달이 내려와 내 가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남편 카나나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하자, 그가 '네가 우리와 맞서기 위해 온 아랍 통치자의 아내가 되기를 바라는구나!'하여 나를 때려 눈에 멍이 들었습니다."

카이바르 정복이 끝난 뒤 유대인들이 우리의 예언자에게 말했다. "오, 무함마

드 알라히살람! 우리는 카이바르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농사일과 농장관리에 밝습니다. 우리에게 이 풍요로운 토지를 임대해 주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가꾸어 수확량의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와 교우들은 농사일을 할 겨를이 없었다. 이슬람 지역을 확대하고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길을 전파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예언자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며 말했다. "우리가 원할 때 이를 파기하는 조건으로 토지의 임대를 허락한다."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카이바르의 토지를 가꾸는 일을 시작했다.

우리의 예언자와 그의 교우들은 승리를 자랑하며 메디나로 귀환하였다. 그 사이에 에티오피아로 이주했던 교우들이 자파르 빈 아비 탈립의 지휘 아래 메디나로 돌아와 있었다. 예언자는 자파르 성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그를 포옹하며 따뜻이 환영하며 "내가 카이바르의 승전으로 기뻐할지, 아니면 자파르의 귀국에 기뻐할지 모르겠군. 그대들은 2 번 이주산 셈이다. 한번은 에티오피아, 또 한번의 나의 영토, 메디나로" 라 하였다.
카이바르에서 얻은 전리품들은 후다이비야 평화협정 때 참가했거나 하이바르 전투에 참전한 교우들, 에티오피아에서 귀환한 모든 교우들과 정복에 참가한 다우스 부족에게 골고루 나누어졌다.

카이바르 정복으로 인하여 아라비아의 모든 유대인들이 우리의 예언자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그들은 다신교도들을 지원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주위의 부족과 국가들은 난공불락의 카이바르 성채를 정복한 무슬림 군대의 막강한 위력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슬람 국가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메카 다신교도들은 크나큰 슬픔에 빠졌다. 카이바르 정복후 크고작은 부족들이 메디나에 와서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무슬림이 되는 영예를 누렸다. 심지어 가타판 부족도 그 가운데 포함되었다.

성지순례 원정

후다이비야 평화협정이 있은 그 다음 해였다. 희생제(이드) 한 달 전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성지순례를 위한 준비를 교우들에게 명령했다. 후다이비야에 가서 리드완의 서약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 이미 사망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성지순례에 참가하고자 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2 천 명의 교우들이 준비를 마쳤다. 70 마리의 낙타가 희생용으로 준비되었다. 나지야 빈 준둡과 그의 동료 네 명이 낙타들을 방목하며 메카로 몰고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보다 앞서 무함마드 빈 마슬라마 성인의 지휘 아래 기마병 1 백 명이 갑옷과 창 등 무기를 운반하기 위해 선발대로 출발했다. 다신교도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혹시 공

Τσενέτ-ουλ-Μπάκι
Αμπού Σαΐντ-ι Χούντρι "να έχει το χαιρετισμό του Αλλάχ"
Χαζράτ Φάτιμα Μπίντι Ασάντ "να έχει το χαιρετισμό του Αλλάχ"
Ο Χαράτ 'Οθμάν 'να έχει το χαιρετισμό του Αλλάχ'
Χαλίμε Χατούν (Γάλα Μητέρα του Προφήτη)
Μάρτυρες του Ουχούντ
"να έχει το χαιρετισμό του Αλλάχ"
Χαζράτ Ιμπραήμ "να έχει το χαιρετισμό του Αλλάχ
(γιος του Προφήτη μας)
Ιμάμ αλ-Ναφί
"να έχει το χαιρετισμό του Αλλάχ"
Ιμάμ Μαλίκ
"να έχει το χαιρετισμό του Αλλάχ"
Χαζράτ Σαφίγια και Ατίκε
να έχει το χαιρετισμό του Αλλάχ"
(θείες του Προφήτη μας)
Ουμμου Μπενίν
(μία από τις συζύγους του Αδάμ Αλί)

Ιμάμ Χασάν
Ιμάμ Ζεϊνέλ Αμπιντίν
Ιμάμ Τζα'φαρ Σαντίκ
Ιμάμ Μοχάμεντ Μπακίρ
(να έχει το χαιρετισμό του Αλλάχ)
(Οι σύζυγοι του Προφήτη)
Χαντράτ Αΐσα
Η Χαντράτ Χαφσά
Η Χαζράτ Ζαϊνάμπ μπιντί Τζαχς
Χαζράτ Σεβντά
Χαζράτ Ουμ Σαλάμα
Χαζράτ Ουμ Τζουγουαϊρίγια
Χαζράτ Ζαϊνάμπ Χουντχαϊνά
Ουμμου Χαμπίμπα
Η αδελφή Ζαϊνάμπ
(ακτινοβολία Αλέξανδρος Αλέξανδρος)
Η Χαζράτ Φατίμα
"να έχει το χαιρετισμό
του Αλλάχ``
Ο Αδάμ Αμπάς
"να έχει το χαιρετισμό
του Αλλάχ".
Σούφιαν μπιν Χαρίς
"ραδιγιαλλάχου ανχ"
(Γαλακτοφόρος
αδελφός του Προφήτη)
Άκιλ μπιν Άμπι Ταλίμπ
"να έχει το χαιρετισμό του Αλλάχ"
(αδελφός του Χαντράτ Αλί)
Άλλες κόρες του Προφήτη
Χαζράτ Ουμμου Κούλσουμ
Χαζράτ Ρουκαγιά
Η αδελφή Ζαϊνάμπ
(ακτινοβολία Αλέξανδρος Αλέξανδρος)

격이 필요할 경우에는 무기들이 쓰여 질 것이다. 교우들 일부가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후다이비야 협정에 따르면 우리는 성지순례 때 휴대용 칼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우리는 이 무기들을 성지에까지 가져가지 않고 꾸라이쉬 불신자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옆에 두고 있을 것이다."

아비 자릴 기파리가 예언자의 대리인으로 메디나에 남았다. 아부 류흐뮬 그파리도 함께 남겼놓았다고 전하기도 한다. 2 천의 교우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와 함께 메카로 출발했다. 교우들은 고향 땅과 집을 볼 수 있게 되어 매우 흥분에 들떴다. 그들은 무슬림이 되었지만 협정에 의해 메디나로 올 수 없는 그들의 친척을 만나게 될 것이었다. 오랜 세월동안 눈물 대신에 피을 쏟게한, 핍박 아래서 몸을 떨던, 우상 숭배를 강요하여 형제들을 죽게한 꾸라이쉬 다신교도들에게, 이슬람의 명예와 존엄을 과시하려 하였다. 어쩌면 이를 본 다신교도들이 이슬에 대한 사랑이 싹터, 이슬람이 될지도 모른다…메디나에 남은 교우들은 작별의 언덕까지 예언자를 배웅하며 타크비르를 외쳤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메디나에서 10km 떨어진 줄훌라이파에 당도하여 순례복으로 갈아입었다. 영광스러운 교우들도 그를 따랐다. 모든 사람들이 하얀 순례복을 입고 메카로의 움라 순례을 위해흥분이 되어 길을 떠났다. 이제 "Labbayk! Allahumma Labbayk! Labbayk! La sharika laka Labbayk! Innal hamda wenni'mata laka wal-mulka la sharika lak!" 를 읊자 하늘과 땅이 진동을 했다. 순례을 위한 이 여행은 알라후 테알라에 대한 감사와 애원과 알라후 테알라의 이름을 찬미함으로 인하여 아주 유쾌하게 진행되었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 빈 마슬라마가 지휘하는 선발대가 메카에 접근했을 때, 꾸라이쉬 다신교도들이 그들을 보았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이것이 1 년 전에 맺은 협정에 따른 것이냐며 접근하여 물었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 빈 마슬라마가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답변을 하였다. "이는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기마병들이오. 알라후 테알라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분도 내일 이곳에 당도할 것이오!" 다신교도들은 두려움에 떨며 메카로 돌아가 이 소식을 전하였다. 다신교도들이 말했다. "우리는 협정에 충실하였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 가 왜 우리와 싸우겠는가?" 그들은 즉시 대표단을 보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와 대면을 시도하였다.이때 온 세상의 귀감은 메카를 볼 수 있는 바트니 야자즈라는 곳에 와 있었다. 교우들은 칼을 제외한 모든 무기를 거기에 내려두고 2 백 명의 감시병을 남겨두었다. 이러한 준비가 끝났을 때 꾸라이쉬 대표가 우리의 예언자와의 대화를 요청해 왔다. 발언이 허락되자 그들이 말했다. "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 ! 후다이비야 협정 이후 우리는 그대들에 맞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기들을 가지고 메카에 들어오려 하십니까? 협정에 따르면 칼 이외에 어떤 무기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대답했다. "나

는 어린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성스러운 곳에 칼 이외의 무기를 반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무기를 가까운 곳에 유치하기를 원한다." 메카 대표단은 그들에게 전해진 소식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며 말했다. "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 ! 우리는 당신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메카로 돌아가 꾸라이쉬 다신교도들에게 상황을 알렸으며, 그들 또한 안도감을 느꼈다.

적개심과 질투심 때문에 꾸라이쉬 저명인사들은 우리의주인 예언자와 그 교우들이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메카를 떠나 산 위로 올라갔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먼저 표식이 있는 희생용 낙타들을 '지투와'라는 곳에 선발로 보내고, 교우들과 준비를 마친 다음 성스러운 도시 메카로 진입하였다. 교우들이 둘러싼 가운데 온 세상의 귀감은 자신의 낙타 쿠스와에 올라탄 채 주위를 환히 밝히며 행진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 그분이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오, 그 얼마나 장엄한가요! 입에서는 "랍바익 알라훔마 랍바익! 랍바익! 라 샤리카 라카 랍비익! 인날 함다 와니마타 라카 왈물카 라 사리카 락!" 을 읊어대는 소리가 알라후 테알라와 그분의 사도의 사랑을 얻고 있었다. 그들은 한걸음 한걸음 카바로 다가갔다. 다가갈수록 흥분이 더 심화되었다. 환호성이 온 메카를 진동하였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는 다신교도들도 마음이 수그러 들고, 이슬람의 사랑이 자신의 마음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다. 마침내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은 승리를 안게 된 것이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와 그 교우들은 카바 지역으로 들어갔다. 압둘라 빈 라와하 성인이 예언자의 낙타 고삐를 잡고 있었다. 일부 메카 다신교도들과 여자 및 어린이들이 카바 신전 앞에 줄지어 늘어서서 우리의 예언자와 그 교우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압둘라 빈 라와하 성인이 앞으로 행진하면서 시를 읊어 다신교도들의 머리속에 새겨 넣었으며, 더 나아가 마음 속까지 파고 들게 하였다.

.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예언자의 길에서 비켜나라,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분께 꾸란을 내려주셨노라.

알라후 테알라의 종교에 모든 좋은 것들이 존재하나니, 이러한 종교를 위해 죽는 것이 최선의 죽음이라.
진정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나는 받아들였으니,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에 나는 복종하노라.

불신자들이여! 그대들이 꾸란을 부정하니, 이는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내

려주신 것이니라.

우리는 그 부정을 불시에 들이치니, 그대들의 목을 쳐 그 죄과를 징벌하리라.

그대들이 만약 꾸란의 내용을 믿지 않으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또 다시 얻어맞게 되리라.

알라후 테알라의 축복된 이름으로 다시 이르니, 어떤 종교도 그분의 것보다 참되지 못하노라.

알라후 테알라의 축복된 이름으로 다시 이르니,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은 알라후 테알라의 종이요 그분의 사도니라.”

우마르 성인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오, 라와하! 그대는 예언자 앞에서, 카바에서 어찌 시를 읊으시오?” 라고 충고하자 예언자가 “오, 우마르! 그를 저지하지 마라.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컨데, 그의 말들이 이 꾸라이쉬 다신교도들에게 활을 쏘아대는 것 보다 훨씬 더 빠른 결과를 가져오게 할것이다. 오, 라와하! 계속하라.” 라 하고, 얼마후 “알라후 테알라 외에 섬긴 신은 없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유일하시다. 약속을 이행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병력에게 힘을 주신 분이시다. 운집한 민족을 분산시킨 분도 알라후 테알라께서시다’라고 읊으라”
라와하는,

“알라후 테알라 외에는 없습니다, 더 높은 분이

그분에게 동등한 것이 없습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유일하십니다.

그분은 무슬림 병력에 힘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
그리고 그분은 불신자들을 파멸하고 절망케 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이를 다 같이 합창하였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알라후 테알라의 집으로 들어갈 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면서 말했다. “다신교도들에게 강력함과 원기 왕성함을 보여줄 우리 교우들에게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행운을 주시기를.” 이 말을 들은 교우들은 자신들도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었으며, 모두 함께 카바 주위를 세 번 순회하였다. 그들은 당당하게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예언자와 교우들은 ‘하자룰 아스와드’로 가서 입 맞춤을 하거나, 아니면 뒷전에서 두 팔을 들어 하자룰 아스와드로 향하게 하였다.

다신교도들은 교우들의 장엄하고 화려한 행진을 목격하고 적잖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무슬림들이 허약하며 병들어 있다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런 소문들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이제 그들은 전혀 다른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점점 더 당황스럽게 되었다.
나머지 네 번의 순회도 느린 걸음으로 진행되었다. 순회를 마친 다음 '마카미 이브라힘[36]이라 불리는 곳에서 무슬림들은 두 라카의 예배를 올렸다. 그런 뒤 '사파'와 '마르와'동산 사이를 큰 걸음으로 7 회 왕복하였다. 희생동물이 도살되고 나서 우리의 예언자는 자신의 머리를 밀게 했다. 교우들도 이를 따랐다. 그리하여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1 년 전에 꾼 꿈이 현실화되었다.

성지순례가 완료되고 정오 예배가 시작되었다. 온 세상의 귀감, 예언자는 빌랄 성인에게 카바에서 아잔을 외치도록 명령했다. 빌랄 하바쉬 성인이 즉시 명령을 수행하여 아잔을 외치자 온 메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교우들은 커다란 존경심을 갖고 아잔을 들었으며, 마음 속으로 조용히 아잔을 되풀이하였다. 대중이 회집한 가운데 우리의 예언자가 예배를 인도하였다. 이를 지켜보는 다신교도들은 예배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깊이 심취되었다.

예언자를 위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천막이 '아브타'라는 곳에 설치되었으며, 교우들은 그 주위에 설치된 천막에서 3 일간 머물렀다. 하루에 다섯 번의 예배시간이 되면 그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집에 모여 공동으로 예배를 올렸다. 그 외의 시간에 그들은 친척들을 방문하여 이슬람에서 익힌 아름다운 윤리들을 그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다. 교우들의 아름다운 태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실제로 겪어본 다신교도들은 마음 속으로부터 찬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 3 일 동안, 마치 메카가 내부로부터 정복당한 것과 같았다. 3 일이 경과하여 이제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밤이 다가오자 우리의 예언자가 말했다. "성지순례를 온 모든 무슬림들은 이제 메카에서 밤을 지낼 수 없다. 모두 떠나자!" 모든 사람들이 짐을 꾸리고 메디나를 향해 출발했다.

그 얼마나 은혜로운가, 당신의 길에서 사라지는 것이 나의 몫이 되련가, 당신의 신성한 거처에서의 죽음이 나의 눈이 빛을 잃어, 당신에 대한 그리움으로 죽어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이 타버린 나를 행복하게 하니, 오, 예언자여
지친 나에게 당신은 이를 치유하니, 머리 숙이고,
당신의 발 아래서 당신의 이름을 되새기니, 입술은 불에 타버리고, , 당신을 그리워할 때 마다, 저에게 상을 내리시여,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에 타버린 나를 행복하게 하니, 오, 예언자여

[36]'이브라힘 알라히살람의 바위 또는 거처'. 카바 신전 옆에 위치하고있다.

무타 전투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성지순례를 위해 메카에 갔을 때, 그는 교우인 왈리드 빈 알리드 성인에게 물었다. "칼리드는 어디에 있는가? 그와 같은 사람이 이슬람을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의 모든 노력과 영웅정신이 이슬람의 편에서여, 다신교도들에게 대면하였다면 얼마나 은혜로웠을까!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높이 받들었을 것이다." 왈리드 빈 왈리드는 앞서 몇번이고 그의 형인 칼리드에게 편지를 써서 이슬람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한 바 있었다. 예언자가 한 말을 동생으로 부터 전해 들은 칼리드 빈 왈리드는 갈수록 이슬람에 호의를 품게 되었다.

교우들은 성지순례에서 모두 메디나로 돌아왔다. 시간이 흘러 히즈라 8 년이 되었다. 칼리드는 매우 흥분되었다. 그는 메디나에 가서 예언자 앞에 꿇어앉아 무슬림이 되려고 안절부절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당시를 회상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나에게 예언자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주셨다. 그분은 이슬람의 사랑을 내 마음 속에 심어주셨다.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도록 변화시켰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에 맞서는 모든 전쟁에 다 참가했다. 매번 전쟁을 마치고 후퇴할 때, 나는 나쁜 길로 접어드는 것을 느꼈으며, 그분이 언젠가는 승리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느낄 수 있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후다이비야에 왔을 때, 나는 상대방 기병대의 지휘관이었다. 우스판에서는 내가 무슬림들에게 가까이 접근했을 때, 이를 인지했으면서도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교우들의 오후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다. 우리는 기습공격을 의도하였으나 불가능 하였다. 그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아마도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우리의 마음 속을 알았는지 늦은 오후예배 때는 경계속에서 예배를 올렸다. 이것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나는 속으로 이 사람은 알라후 테알라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정이 복잡하여 그분이 메카에 성지순례를 왔을 때 그분의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분은 내 동생 왈리드와 함께 왔지만, 나를 발견할 수 없었다. 내 동생은 내게

편지 한 통을 남겼다. '비스밀라! 알라후 테알라께 감사와 찬미를,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문안을 전하며, 진정으로 나는 형님이 이슬람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형님은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옳지 않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무지하지 않습니다. 왜, 이성을 되찾지 않나요? 이슬람 같은 종교를 어찌 알고 이해하지 못한다니, 그 얼마나 어리석나요? 우리의 예언자는 형님에 대하여 제게 묻습니다.그가 형님이 이슬람을 알기를 바라며, 형님의 노력과 영웅

적 행동으로 다신교도들에 맞서기를 기대합니다. 형님! 여러 번 기회를 놓쳤으니 더 이상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동생의 편지를 보고 무슬림이 되고자 하는 나의 열망은 더욱 커졌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한 말이 나를 행복하게 했다. 그날 밤, 꿈에서 고통스러운, 비좁은 사막처럼 목마른 곳에서 넓고 환한 초원으로 나갔다. 메디나에 도착하자, 이 꿈을 아부 바크르 성인에게 이야기하여 해몽을 요청하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갈 여행준비를 하면서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생각하였다. 그런 뒤 나는 사프완 빈 우마이야를 우연케 만났다. 나는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그는 나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그런 뒤 이크리마 빈 아부자흘을 만났으나 그 역시 거부하여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말을 타고 우스만 빈 탈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나와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승낙했다. 며칠 뒤 먼동이 터기 전에 우리는 함께 출발했다. 우리가 '핫다'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아므르 빈 아스를 만났다. 그 역시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 메디나로 가고 있는 중이었다.

우리는 메디나에 도착했다. 나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만날 준비를 하였다. 내 동생 왈리드가 와서 말했다. "서두르세요! 우리의 형님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이제 형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서둘러서 위대한 예언자가 있는 곳으로 갔다. 나는 그에게 인사를 올리고 나서 신앙고백을 하였다. 그분이 말했다. "그대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하신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찬미를 올립니다." 나는 예언자에게 내 죄가 사하여지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예언자는 알라후 테알라께 간구하며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이슬람 이전에 저지른 죄들을 사하여 주십니다." 나의 다른 두 친구들도 역시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목표를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메카의 가장 용감한 세 용사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앞에서 교우가 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모든 힘을 다하여 불신을 제거하는데 앞장 설 것이었다. 교우들은 이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인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였다. 모두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를 외치며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히즈라 8 년,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이슬람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부족들과 국가에 사절단을 보냈다. 그중에서 바람직한 결과도 얻었다. 그러나 부스라의 통치자에게 보내진 하리스 빈 우마이르 성인은 다마스커스 근처의 무타라는 마을에서 그리스도교 병사들에게 체포되었다. 하리스 성인은 사절단의 임무를 띠었지만 다마스커스의 통치자 슈라흐빌 빈 아므르에게 압송되어 살해됨으로써 순교자의 대열에 올랐다.

이 사건으로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그의 영웅적인 교우들에게 즉시 집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교우들은 명령을 받자마자 가족들과 작별을 하고, 모두 주르프 사령부로 집결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이른 오후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말했다. "나는 자이드 빈 하리사를 이번 성전의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그가 순교하면 자파르 빈 아비 탈립이 그 임무를 맡게 된다. 그가 숨지게 되면 압둘라 빈 라와하가 그의 자리를 대신한다. 만약 압둘라 빈 라와하가 순교하게 되면 무슬림들이 그들 중에서 적절한 사람을 선택하여 새 사령관으로 뽑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교우들은 거론된 이름의 영웅들이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울면서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우리는 그들이 죽지 않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언자는 어떠한 대답도 없이 침묵을 유지하였다.그곳에 있던 자이드 성인과 자파르, 압둘라 성인도 예언자의 말을 들었으며, 아주 기뻐하였다. 그들의 가장 큰 목표는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종교를 펼치다가 순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무슬림 전사들은 출전준비를 모두 끝내고 그들의 사령관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이슬람의 하얀 깃발을 자이드 빈 하리사 성인에게 넘겨주었다. 예언자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하리스 빈 우마이르가 순교한 곳에 가서 이슬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다. 만약 그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과 싸우라는 명령이었다.

압둘라 빈 라와하 성인은 동료들과 작별인사를 하면서 울었다. 동료들이 물었다. "오, 라와하의 아들이여! 그대는 왜 우는가?" 시인이었던 압둘라 빈 라와하가 다음과 같이 시를 읊어 대답했다.

"내가 이렇게 우는 까닭은,
삶에 대한 애착이 아니로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컨대, 그대들을 그리워함도
아니로다.

그 진정한 이유를 말하자면,
우리의 알라후 테알라께서
공포하신계시의 말씀 꾸란의
구절에이미 이렇게 이르시되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느니
그대들 중에 그 누구라도
지옥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니라.'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낭송할 때 나는 이 구절을
들었나니, 만약 지옥에
들르게 되면

내가 어떻게 그곳에서 견딜 수 있을까?"

그의 동료들은 그를 위해 축복을 간청하였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대를 사랑하는 종복으로 만드시고, 그대를 경건한 자들에 속하도록 하시기를!" 그러자 압둘라 빈 라와하 성인이 말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나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나는 사나운 칼날과 창질로 내 간장이 타올라 순교하기를 바랍니다." 군대의 이동준비가 다 끝났을 때 압둘라 빈 라와하 성인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작별을 고하는 자리에서 물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제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어떤 조언을 주지 않겠습니까?" 예언자가 그에게 명령했다. "내일 그대는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큰 절을 좀처럼 하지 않는 곳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그대의 일반 예배와 의무 예배의 횟수를 늘리도록 하여라." 압둘라 성인이 또 물었다. "더 이상 해 주실 말이 없나요?" 우리의 예언자가 대답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를 끊임없이 생각하라. 그럼으로써 그대는 기대하는 바에 더 쉽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천명의 강력한 이슬람 군대가 '알라후 아크바르!'의 함성 속에 진군을 시작했다. 메디나에 남게 될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와 교우들은 그들을 와다 언덕까지 따라가 배웅하였다. 여기서 온 세상의 귀감은 축복받은 이슬람 군대를 향해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나는 그대들에게 권고하니,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명령을 따르고 그분이 금지한 것을 삼가하라. 옆에 있는 무슬림 동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의 이익을 지켜주기를 권한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길 위에서 투쟁하라. 전리품으로 받은 것들에 착취하지 말고, 약속을 어기지 말라. 어린이를 죽이지 말라! 그리스도 교회 안에는 고독하게 살면서 자신의 삶을 알라후 테알라를 향한 경배에 바친 이들이 있나니, 이들을 해치지 말라. 그들 외에 머리 속이 온통 악마로 물든 자들이 있나니, 이들의 목을 그대들의 칼로 쳐라. 여자와 노인들을 죽이지 말라. 나무를 태우거나 불지르지 말라. 가옥을 파괴하지 말라!" 연설을 마친 뒤 예언자는 무슬림 군대에 작별의 인사를 하였다. 메디나에 남게 될 사람들은 떠나가는 군대를 향해 작별의 손을 흔들었다. 군대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았다.

이슬람 군대는 재빠르게 시리아로 진격하였다. 무슬림 전사들은 가능하면 빨리 적과 마주치고자 하였다. 가장 순교에 열정적인 사람은 압둘라 빈 라와하였다.

사령관 바이드 빈 하리사에게 "다신교도와 대면했을 때, 그들에게 세 길로 초대하라! (만약 무슬림이 된다면)그들을 메디나로의 이주로 초대하고, 이를 받아들인다면, 무하지르들이 누리는 권리를 그들도 누릴 수 있다고 또 무하지르들의 의무도 그들이 수행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라. 만약, 무슬림이 되어 그곳에 머무르길 원한다면, 무슬림으로부터 이주해 나간 아랍인들 처럼 대우 받아, 그들에게 적용하는 법이 저들에게도 적용되리라는 것을, 전리품은 저들에게 배당되지 않으며, 단지 이슬람 편에서 투쟁한 교우들에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라! 만약에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는 방안을 내 놓으라. 이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건들지말고,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알라후 테알라의 이름으로 이들과 싸우라" 예언자의 조언이 끝나자 모두 작별을 하고 타크빌르를 외치며 길을 떠났다. 남은 교우들은 이들에게 손을 흔들며; "알라후 테알라께서 온갖 위험으로부터 당신들을 보호하시어, 다시 건장하게 되돌아 오리라" 라고 기도를 올렸다. 지평선으로 교우들이 사라질 때까지, 눈물에 젖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자이드 빈 하리사의 손에 있는 이슬람 깃발이 휘날렸다. 무하지르 교우들은 알라후 테알라의 종교를 전하기 위해 가도보도 못한 생소한 길로 접어들었다.

교우들을 서둘러 이동했다. 행군은 생각보다 경쾌하였다. 순교을 간절히 원하던 교우들 중에는 압둘라 빈 라와하도 끼여 있었다. 이를 자이드 빈 아르캄이 이렇게 이야기 했다. "나는 압둘라 빈 라와하 아래에서 성장한 외톨이였습니다. 그가 무타 전쟁에 참가시, 나를 낙타의 뒤에 태웠습니다. 얼마간 거리를 간 후에, 그는 아래의 시를 읊었습니다.

내가 약속하니, 결코
다른 여행으로 이끌지 않으리라,
곧, 너는
주인 없는 것이 되리라.

나의 집으로
내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니,
이 전장에서

순교를 하고자 하니,

아, 라와하의 아들,
최종착지에서 그 신앙인들이,
심지어 너의 친척들이
나를 재 빨리 스쳐갔으니,

형제들을 남겨두고
그들은 스쳐갔으니,
그들은 너를 알라후 테알라께
맡기고 그들은 사라졌네.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지,
내가 약속하니, 결코
다른 여행으로 이끌지 않으리라,
곧, 너는
주인 없는 것이 되리라.

나의 집으로
내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니, 이 전장에서
순교를 하고자 하니,

아, 라와하의 아들,
최종착지에서 그 신앙인들이,
심지어 너의 친척들이
나를 재 빨리 스쳐갔으니,

형제들을 남겨두고
그들은 스쳐갔으니,
그들은 너를 알라후 테알라께
맡기고그들은 사라졌네.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지,"

두 번째 의견을 보다 적합하다고 결정하려는 순간, 압둘라 빈 라와하 성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 나의 동포들이여
무엇 때문에 주저하는가?
우리는 순교의 의도를 갖고
여기 싸우러 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수적으로 우세하다면
결코 싸우지도 않았으리라
불신자들을 앞에 두고
어찌 그리 주저하는가?

종교의 권능에 의하여
우리는 지금껏 싸웠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허락
아래 우리는 마치 사자처럼 되었다.

나아가서 싸우라!
무조건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거룩한 일의 결말은
순교이거나 정복일 것이니.

맹세컨대 바드르 전투의 당시에
우리는 말 두 마리 가졌었고,
우후드 때는 말 한 마리였으며
무기 또한 초라했었느니라.

만약 그것이 우리 운명이라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와 그분의
사도가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약속을
파기하지 않도록앞으로
전진하라!
오, 믿는 자들이여.

만약 거룩한 순교가
우리 운명의 일부라면

우리는 형제들을
천국으로 이끌리라.”

압둘라 빈 라와하 성인의 이 말들은 무슬림 전사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들이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컨대, 라와하가 진실을 말했도다.” 이제 결정이 내려졌다. 그들은 순교할 때까지 싸우기로 결심한 것이다. 무슬림 군대가 무타라는 마을에 왔을 때, 로마의 10 만 군대와 마주치게 되었다. 산과 계곡들은 적들로 인해 꽉 메워졌다. 이쪽에서 메디나를 떠나 다마스커로 진군해 온 알라후 테알라의 종교를 전파하기 위하여 3 천명의 이슬람 군이 저편에는 이슬람을 묻어 버리려는 10 만명의 이단교도들이 대적했다. 세력의 불균형이 뚜렷하였다. 무슬림 군사 1 명이 로마군 30 명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상태이었다.

양쪽 진영은 전투대형을 갖추었다. 그러는 사이 예언자의 명령에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이슬람 군대의 대표단이 로마의 군영 앞으로 다가갔다. 이들은 로마군대에 이슬람을 받아들이던지 아니면, 일정의 세금을 내는 것을 선택하라고 통보하였다. 로마군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사령관 자이드 빈 하리사 성인은 이슬람 깃발을 높이 들고 공격을 명령하였다. 이 순간을 기다려온 무슬림 전사들은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위대하시다!’를 외치며 칼을 뽑아들고 적진으로 뛰어들었다. 말이 울부짖는 소리, 칼 부딪치는 소리, 타크비르 소리, 부상자들의 절규가 허공을 가득 채웠다.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전장은 피바다로 변하였다. 영광스러운 교우들이 칼을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적의 머리나 무기가 땅바닥에 내뒹굴었다.

하얀 깃발을 든 자이드 성인은 온통 적에게 포위된 채 칼을 휘둘러 적을 막아내고 있었다. 교우들은 사령관의 영웅적인 투혼을 본받아 적진으로 돌진했다. 얼마 후 자이드 성인은 적의 창에 가슴이 찔렸다. 뒤이어 수많은 창이 그를 찔러 벌집 처럼 만들고 말았다. 마침내 자이드 빈 하리사 성인은 뜨거운 땅에 떨어져 그가 바라던 대로 순교하였다.

자파르 성인이 자이드 빈 하리사의 뒤를 이어 이슬람 깃발을 움켜쥐었다. 적에게 둘러 쌓여 ‘알라후 테알라, 알라후 테알라’이라 부르며 칼을 휘둘렀다. 휘둘러 댄 칼에 적들이 쓰러져 갔다. 사령관의 이 용맹한 모습과 이슬람 깃발이 다시 휘날리는 것을 본 무슬림 전사들은 다시 원기를 회복하여 전투를 계속했다. 한 사람이
30 명을 대적하여 싸우기에 충분하였다. 한 순간, 여러 개가 창이 한꺼번에 하리사 성인의 가슴을 파고 들었다. 뒤쪽에서 창의 공격을 받고 그렇게 원하던, 그 뜨거운 땅위로 쓰러져 순교하였다.

자파르 성인은 즉시, 이슬람 깃발을 주어 들어올렸다. 다시 이슬람 깃발이 휘날리는 것을 본 교우들은 열정을 다하여 싸웠다. 한편으로는 자이드 성인처럼 영웅적으로 싸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료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이 새로운 사령관은 칼을 아주 빨리 사용하여 적에게 틈을 주지 않았다. 격렬한 싸움의 와중에 자파르 성인은 동료들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그는 로마군에 홀로 포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용감하게 말했다. "내 임무는 불신자들을 칼로 치는 것이다!" 자파르 성인은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 이름을 부르며 끊임없이 칼을 휘둘렀다. 마침내 적군의 칼이 자파르 성인의 오른손을 내리쳐 절단시켰다. 자파르 성인은 왼손으로 이슬람의
성스러운 깃발을 움켜쥐었다. 또 다른 칼이 그의 왼손을 절단시켰다. 그는 남은 두팔로 깃발을 가슴에 껴안았으나 사방에서 찔러대는 적군의 칼에 순교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토록 간절하던 순교의 대열에 올라, 축복 받은 그 영혼은 천국의 가장 높은 위치로 올라갔다. 그의 몸에는 칼과 창에 의해 90 여 곳의 상처를 입었다.

영웅적 무슬림 전사들은 사령관의 순교를 보자 땅에 떨어진 이슬람 깃발을 다시 주워 이를 압둘라 빈 라와하 성인에게 전달했다. 압둘라 성인은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며 격렬하게 적과 맞서 싸웠다. 한편으로는 다음을 읊었다.

"나의 욕망이,
내게고개를
숙이고 오늘
순교하리다,
맹서했거늘, 이 전장에서

니가 스스로
내게 순종하던가,
내가 너를 복종하도록
너를 억압하리라.
만약 너를 없애지 못한다면,
야, 너는 이 전쟁에서
절대 죽지 아니하겠는가,
나의 욕망이여, 내게 말해다오.

자파르 빈 아브 탈립과
자이드 빈 하리사의
행적들 따른다면
선행을 한다는 것을 알라.

그들은 순교자가 되었고,
야, 나의 욕망아, 뒤에 있지 말라
이후에 악덕이 될 것이니,
자, 앞으로 전진하라"

압둘라 성인은 "알라후 테알라의 위대하시다!" 라 외치며 적들 사이로 뛰어들어 갖은 애를 썼다. 어느 순간 적군의 칼이 압둘라의 손을 내리쳐 손가락이 끊어져 덜렁거리게 되었다. 그는 즉시 말에서 뛰어내려 덜렁거리는 손가락을 발로 밟고는 "너는 단지, 상처를 입은 손이다. 이 것도 알라후 테알라의 뜻이거늘!" 이라며 손가락을 칼로 끊어버렸다. 전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말에 올라 온 힘을 다해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그는 거침없이 적진으로 돌진하여 적군을 베어 쓰러뜨렸다. 이렇게 열성적으로 싸웠음에도 순교의 영광을 맞이 하지 못하여 스스로 자책을 하였다. 적을 쓰러뜨리고 또 쓰러뜨렸다. 마침내 그는 적군의 창에 맞아 순교하였으며, 그의 축복받은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갔다.

이 순간 그 옆에서 싸우고 있던 아불 유스르 카아브 빈 우마이르가 이슬람 깃발을 수습하였다. 그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성숙한 사람을 교우 중에서 물색하였다. 그는 타빗 빈 아크람을 보자 그에게 깃발을 넘겨주었다. 타빗 성인은 무슬림 전사들 앞에 깃발을 세우고 말했다. "형제들이여! 지금 즉시 여러분 중에서 사령관을 뽑아 그의 명령에 복종토록 합시다."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타빗 성인은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그는 칼리드 빈 왈리드 성인을 쳐다보고 말했다. "오, 술레이만의 아버지여! 이 깃발을 받으시오." 그러나 이제 막 무슬림이 된 칼리드 성인은 이를 사양하면서 말했다.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많고, 바드르 전투에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와 함께 싸웠으니 더 적격입니다." 라 하였다. 시간이 없었다. 주의의 교우들이 어렵게 대적하고 있었다. 십만명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 온힘을 다하고 있었다. 사빗 성인이 다시

"오, 칼리드! 이 깃발을 당신에게 주려고 주웠소. 그대는 전쟁전술이 나 보다 뛰어나오!" 라 하고 무하지르 교우들에게 "오, 형제들이여! 칼리드를 사령관으로 하는 것에 대해 그대들의 의견이 어떠하오?" 교우들은 만장일치로 칼리드 성인을 사령관으로 추대하였다. 칼리드 성인은 존경의 표시로 깃발에 입을 맞춘 후 말에 뛰어올라 적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영웅적인 교우들은 새로운 사령관의 뒤를 따라 돌진했다. 칼리드 성인은 놀라운 용기와 뛰어난 기량으로 자기 앞의 적군을 누구라도 제거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쿠트바 빈 까타다 성인이 적군의 장수 말리크 빈 자필라의 목을 베었다. 로마군의 사기가 한풀 꺾이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이미 늦어 저녁이 되었으며 어둠이 짙어지고 있었다. 밤에 싸우는 것은 매우 위험했으며, 사고로 자신의 동료를 죽일 수 있었다. 양쪽 군대는 자신

의 숙영지로 물러났으며, 부상자들은 치료를 받았다. 칼리드 성인은 전쟁의 최고 장인이었다. 그는 아침이 되면 새로운 전술로써 적군을 혼란시킬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그날 밤 그는 병사들의 위치를 변경시켰다. 오른쪽과 왼쪽을 바꾸고, 전방과 후방의 병사를 서로 교체시켰다.

용감한 무슬림 전사들은 아침이 밝자 다시 공격에 나섰다. 그들은 '알라후 아크바르!'를 연호함으로써 전투를 시작했다. 적군 병사들은 이슬람 병사들이 낯설었다. 어제까지 싸우던 이슬람 병사들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슬람의 새로운 병력이 투입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것은 로마 병사들을 공포에 떨게하고 정신적 사기를 망가지게 하였다. 허둥지둥하였다. 이 기회를 놓칠세라, 칼리드 성인과 교우들을 더욱 맹력한 공격을 가하여 수천명의 적을 지옥으로 떨어뜨렸다. 오늘 칼리드 빈 왈리드 성인의 칼이 9 자루나 부러졌다. 알라후 테알라의 깊은 뜻과 그분의 사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무슬림 용사들은 십만명의 적을 패망시켰다. 이 거대한 전장에서 15 명이 순교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비잔틴 왕국에 교훈을안겨 주고 더 이상 남쪽으로 세력을 확산하는 것을 막았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영광스러운 예언자는 무타에서 승전 소식이 도착하기 전에, 성원에 교우들을 모아놓고 무타에서 벌어진 일들을 알려주었다. 예언자는 자이드와 자파르, 그리고 압둘라 성인의 순교를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칼리드 빈 왈리드가 깃발을 이어받았으며, 전투는 보다 격렬해지고 있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칼리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한 자루의 칼입니다. 그를 도우소서!" 교우들은 예언자가 더 슬퍼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리니! 당신의 이런 슬픈 모습을 보니, 우리의 마음에서는 피 눈물이 흐릅니다. 당신의 슬픔을 오직 하니님께서 헤아리실 겁니다." 예언자는 눈물을 흘리며 "나의 슬픔은, 나를 슬픔에 젖게한 것은 교우들이 순교함이라. 슬픔은 천국을 향한 자리에 앉아있는 형제들을 볼때까지 계속했다. 자이드 빈 하리사, 깃발을 손에 들고 끝내 순교하였다. 그는 지금 천국에 있도다. 이후 자파르 빈 아브 탈립이 깃발을 들었다. 적들이 공격해 왔다. 그도 순교하였다. 그도 천국으로 가서 에메랄드로 된 날개를 달고 날라다니고 있다. 자파르 이후, 압둘라 빈 라와하가 깃발을 들었다. 손에 깃발을 들고도 열심히 싸워 순교하여 천국으로 갔다. 그들은 모두 천국의 황금으로 된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 오, 알라후 테알라! 자이드를 용서하소서! 오, 알라후 테알라! 자파르를 용서하소서! 오, 알라후 테알라! 압둘라 빈 라와하를 용서하소서!" 라 하였다. 예언자의 눈물은 계속해서 흘렀고 이 와중에 "압둘라 빈 라와하 이후에 깃발을 칼리드 빈 왈리드가 이어받았다. 이때, 전쟁이 아주 심화되었다. 오, 알라후 테알라! 왈리드에게 당신의 칼을 내려 그를 도우소서!" 라 하였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허락으로 기적이 일어나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

는1 천 km 넘게 떨어진 곳의 상황을 볼 수 있었으며, 이를 교우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이다. 자파르 성인이 순교한 그 날, 예언자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는 일어서 자파르 성인의 집을 방문했다. 자파르 성인의 부인이 집안일을 마치고 아이들을 씻겨 머리를 다듬고 있었다. 예언자는 “오, 아스마! 자파르이 아들들이 어디있느냐? 그들을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니, 아스마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와 예언자가 그들을 껴안으며 마음껏 입 맞춤을 하고 향기를 맡았다. 예언자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축복 받은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이를 보고 아스마 부인이 “당신을 위해 생명을 바치리니! 당신은 왜 우리 아이들에게 고아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동정하시나요? 아님, 자파르와 그의 교우들에게서
 슬픈 소식이라도 들었나요?” 라며 애원하듯이 물었다. 예언자는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며 “그렇소… 그들은 오늘 순교하였다오.” 라 하니 아스마 성인이 아이들을 끌어 안고 울기 시작했다. 이 모습에 견디지 못하고 예언자는 그 자리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예언자는 부인들에게 “자파르의 가족들에게 음식을 마련하는 것을 잊지마시오.” 라 하였다. 3 일간 순교자 가족들에게 음식을 준비하여 보냈다. 며칠이 지나갔다. 얄라 빈 우마이야 성인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메디나에 전하였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그가 보고하기 전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그에게 말했다. “그대가 원한다면 그대가 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야기 하리라.” 그리고 예언자는 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하였다. 이를 듣고 난 얄라 빈 우마이야가 말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컨대 당신이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예언자가 말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나를 위해 공간의 거리를 없애주셨기에 나는 내 눈으로 직접 싸움터를 볼 수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이슬람 군대가 메디나 가까이에 귀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의 예언자는 교우들과 함께 메디나 교외로 나가 그들을 영접하려 하였다. 저 멀리서 먼지구름이 일어나더니 이슬람의 성스러운 깃발이 휘날리기 시작하였다. 방패와 창의 번쩍임이 거울과 같이 눈부신 가운데 모든 무슬림들은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얼마 후 칼리드 빈 왈리드의 지휘 아래 무슬림 전사들이 메디나로 입성했다.

메카 정복

때는 히즈라 8 년이었다. 후다이비야 평화협정의 한 조항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무슬림 또는 다신교도가 아닌 아랍 부족들은 양측으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자유로이 그들과 연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쿠자아 부족은 무슬림들과 동맹을 맺었으며, 바니 바크르 부족은 다신교도들 편에 서게되었다. 쿠자아 부족과 바니 바크르 부족은 오랫동안 적대관계에 있었다.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서로 공

격을 하였다. 후다이비야 협정에 따라 그들은 잠시 동안 휴전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어쨌거나 바니 바크르 부족은 2 년 동안 이 협정에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바니 바크르 부족의 어떤 사람이 시를 읊어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를 모욕하였고, 쿠자아 부족의 어떤 젊은이가 이를 듣고 격분을 참지 못해 그의 머리에 상처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이 기회를 이용해 평화협정에 명시한 것처럼, 이를 위협으로 간주하여 바니 바크르 부족이 보복을 위해 쿠자아 부족을 급습하였으며, 꾸라이쉬 부족이 이 공격에 사람과 무기를 비밀리에 보내 지원하였다. 그들은 신성한 지역에서 쿠자아 부족 20 여명을 살해하였다. 싸움 도중에 쿠자아 부족의 일부 무슬림들이 우리의 예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들은 꾸라이쉬 부족 사람들이 바니 바크르 사람들 사이에 끼어 싸우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날 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부인, 마이무나 성인 집에 있었다. 예배를 위해 세정의식을 거행할 때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도움으로 메카 무슬림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다. 무의식중에 소리쳤다. "랍바익(내가 도우러 가겠다)!" 마이무나 성인은 예언자가 옆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물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거기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메카에서 일어난 사건과 거기 꾸라이쉬 부족이 개입된 사실들을 이야기 해주었다.

꾸라이쉬 부족은 바니 바크르 부족을 도와 후자아 부족을 기습하여 그들을 살육함으로써 후다이비야 평화협정을 위반하였다. 그런데 꾸라이쉬 지도자 아부 수피얀은 이 사건을 알지 못한 채 다마스커스로 장사 여행을 떠나 있었다. 그가 메카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그에게 사건의 내용을 설명해주며 말했다. "이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문제입니다. 이것을 감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함마드(알라히살람)가 우리를 메카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아부 수피얀이 대답했다. "나는 이 사건을 모르고 있었지만, 이 학살사건의 소식이 메디나에 도착하기 전에 즉시 이 평화문제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이미 이 학살 사건을 알고있었다. 게다가 사건 후 3 일째 되는 날 쿠자아 부족의 아므르 빈 살림이 40 명의 기병을 이끌고 와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에게 사건을 모두 보고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말했다. "만약 내가 쿠자아 형제들을 돕지 않는다면, 나 또한 알라후 테알라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꾸라이쉬 부족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도록 했다.

'당신들은 바니 바크르 부족과의 동맹을 포기하고, 쿠자아 부족의 희생자들에게 대한 마땅한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이 조건들을 충복시키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

들과 싸우겠다!'

꾸라이쉬 다신교도들은 예언자의 이러한 자비심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답장을 보내왔다. '우리는 동맹을 파기하지 않을 것이며, 보상금을 지불할 수도 없다. 우리는 오로지 싸울 뿐이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들은 급히 아부 수피얀을 메디나로 보냈다.

아부 수피얀이 미처 메디나에 도착하기도 전에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그가 올 것이라고 교우들에게 미리 알려주며 말했다. "아부 수피얀이 평화를 새롭게 하고 평화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지금 오고 있다. 그러나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돌아갈 것이다."

아직 무슬림이 되지 않은 아부 수피얀이 메디나에 도착하여 그의 딸 움미 하비바, 즉 예언자의 아내의 집에 왔다. 그는 예언자의 잠자리가 깔려있는 것을 보고 그 위에 앉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움미 하비바는 재빨리 그 침구를 걷어내 치워버렸다. 그의 아버지가 놀라며 말했다. "오, 내 딸아! 이 잠자리를 내게 줄 수 없단 말인가?" 움미 하비바 성인이 그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 침구는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사용하는 잠자리입니다. 다신교도가 그 위에 앉을 수 없지요. 당신은 다신교도이며 청결하지 못하므로 이 침구 위에 앉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아버지는 딸의 이 같은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분노하여 말했다. "집을 떠난 후 니가 참 이상하게 되었구나." 움미 하비바가 "알라후 테알라께 감사드리옵건데, 알라후 테알라께서 나를 이슬람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여태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돌로 만든 우상을 믿습니다. 아버지! 당신처럼 지위가 높고 현명한 사람이 어찌 이슬람을 멀리할 수 있단 말인가요?" 하니, 아버지가 매우 분노하여 "네가 이렇듯 불손하게 나에게 대할 수 있느냐? 그래, 나더러 오랜 세월동안 내려온 조상들의 종교를 포기하고 무함마드(알라히살람)의 종교를 믿으란 말인가!" 라며 자리를 떠났다.

꾸라이쉬 부족의 지도자, 아부 스피얀은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말했다. "나는 후다이비야 평화협정을 갱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협정문안을 서면으로 갱신하기를 희망합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대답했다. "후다이비야 협정을 파기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가! 고칠 필요가 없소." 꾸라이쉬 지도자는 협정의 수정과 연장을 거듭하여 요구하였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꾸라이쉬 지도자는 자신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알고 메카로 돌아가 그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아부

수피얀을 비난했다. "그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왔단 말이오?" 라하며 그들은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카바로 피난하는 자는...

아부 수피얀이 메디나를 떠나자,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메카 정복을 결심하였다. 꾸라이쉬 부족이 약속을 저버리고 평화협정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예언자는 자신의 결심을 비밀로 하였는데, 다신교도들에게 준비할 기회를 주지 않아, 성스러운 곳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메카를 정복하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또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메카가 정복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이 되는 축복을 받을 것이었다.

예언자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아부 바크르 성인 등의 몇몇 지도자 교우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분는 교우들에게 원정 준비에 착수할 것을 명령했으나, 어디로 갈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교우들은 성전의 준비에 착수했다. 예언자는 이웃하고 있는 이슬람 동맹의 아슈자, 후사인, 기파르 등 무슬림 부족들에게 전갈을 보내 성전에 참가하도록 초대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와 사후 세상이 있음을 믿는 이들은 라마단 달 초하루에 메디나로 집결하라!"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기밀이 새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메카로 통하는 길목을 막아 외부와의 연결을 봉쇄토록 하는 임무를 우마르 성인에게 맡겼다. 우마르 성인은 즉시 모든 통로와 산악도로에까지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메카로 갈려는 사람들을 모두 되돌려 보내시오" 라고 명령하였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이 작전을 비밀리에 추진하려고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우리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날 때까지 그들의 첩자나 통신원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장님과 귀머거리로 만들어 주소서. 우리가 그들 앞에 돌연히 나타날 수 있게 하소서!" 라 기도를 하였다.우리의 예언자는 북쪽의 다신교도 또는 비잔틴지역의 다신교도들을 향하여 진격하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아부 카타다 성인이 지휘하는 부대를 이잠 계곡으로 전진시켰다.

한편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의 놀라운 기적에 힘입어 어떤 사람이 메디나의 준비상황을 메카 사람들에게 알리는 편지를 보낸 것을 알게 되었으며, 즉시 알리 성인을 보내 이 편지를 압수하였다.

라마단 달 초이틀까지 이웃 부족들의 지원군이 도착하였으며, 그들은 아부 이바나 우물 주위의 숙영지에 모두 집결하였다. 무슬림 군대의 총 숫자는 1 만 2 천명에 달했다. 그중 4 천 명은 메디나 원주민 출신의 안사르였고, 7 백 명은 메카에서 이주한 무하지르들이었으며, 나머지는 이웃 부족 출신의 무슬림이

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압둘라 빈 움미 마크툼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메디나에 남겼다. 예언자는 주바일 빈 아우왐 성인을 2 백 명의 기병대 지휘관으로 임명하여 전방 정찰의 임무를 맡겨 먼저 출발하게 하였다. 온 세상의 귀감, 예언자는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와 그분의 사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품은 강력한 군대 1 만 2 천을 인솔하여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정복의 진격을 개시했다. 그들은 지금 8 년 전에 고문과 고통에 시달리며 추방되었던 자신들의 고향 메카로 가고 있는 것이다. 우상들의 집으로 변해버린 성스러운

예언자(살랄라후 알라이히와 살람)의 모스크에 있는 "돔이 하드라/그린 돔"의 외부 모습

카바에서 우상들을 제게 하기 위해 가고 있었다. 그들은 좀처럼 완고함을 버리지 않는 다신교도들에게 자신들의 진리와 정의, 그리고 자비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가고 있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종교를 널리 확산하고,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을 펼치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가고 있었다. 오, 알라후 테알라! 이 얼마나 위대한 자비입니까!

이슬람 군대가 줄훌라이파에 당도했을 때, 가족들과 함께 메카를 빠져나온 예언자의 숙부인 압바스 성인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숙부를 만나게 되자 매우 기뻐하며 말하였다. “압바스 숙부! 내가 마지막 예언자이듯이, 숙부는 마지막 이주자이군요.” 그는 압바스의 가족과 재산들을 메디나로 보냈다. 압바스 성인은 예언자와 함께 남아 메카 정복에 동참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메카와 가까운 쿠다이드에 도착했을 때 영광스러운 교우들에게 전투대형을 갖추라고 명령하였다. 각 부족들에게 서로 다른 깃발과 표지를 직접 수여하였다. 메디나로 이주한 무하지르의 깃발들은 알리 성인과 주바일 빈 아우왐, 그리고 사아드 빈 아비 왁카스가 운반하였다. 메디나 원주민인 안사르는 열두 명의 기수를 가졌으며, 아쉬자 족과 술래이만 족은 각 하나의, 뮤자나 족은 세 명의 기수를, 아스람 족은 두 명의 기수를 쥬하이나 족은 네 명의 기수를 가졌다.

메디나를 떠난 지 열흘이 지났다. 저녁이 가까울 무렵 무슬림 군대는 메카에 근접하였으며, 밤 예배 시간에 마루즈 자흐란에 도착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교우들에게 그곳에 멈추라고 명령했다. 우마르 성인에게 명령하여 모든 교우들이 불 하나씩을 피우도록 했다. 1 만 개가 넘는 모닥불이 갑자기 피워지자 온 메카가 밝게 빛났다. 아무 것도 모르고 있던 메카 다신교도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볼 임무를 아부 수피얀에게 맡겼다. 그는 몇 사람을 데리고 몰래 이슬람 군대에 접근하였다. 한편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교우들에게 말했다. “아부 수피얀을 찾아라. 그를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꾸라이쉬의 정찰대는 전진할 수록 점점 놀라움이 커졌으며, 마침내 공포에 빠졌다. 어떻게 이 많은 군사들이 메카 주위에 모일 수 있는가! 이 많은 불은 어떻게 피웠는가! 그들은 이렇게 말을 주고받으며 ‘에락’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한편,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교우들에게 이르길 “아부 수피얀이 지금 에락에 있다. 압바스 성인이 가서 그들을 찾아내어 우리의 예언자 앞으로 데리고 왔다. 도중에 아부 수피얀이 압바스 성인에게 물었다. “무슨 소식이오?” 압바스 성인이 말했다. “오, 아부 수피얀! 부끄러운 줄 아시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당신들이 저항할 수 없는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여기에 왔소. 이제 꾸라이쉬 부족

은 큰 곤란을 겪게 될 것이오. 그대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오." 아부 수피얀과 그를 따른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채 무슬림 전사들 사이를 지나 우리의 예언자 앞으로 갔다. 온 세상의 귀감, 예언자는 그들을 부드럽게 맞이하였다. 메카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보고받았다. 밤늦게까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 예언자는 그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했다. 하킴 빈 히잠과 부다일이 신앙고백을 하고 그
자리에서 무슬림이되었다. 그러나 아부 수피얀의 망설임은 계속되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자비의 바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말했다. "오, 아부 수피얀! 부끄러운 줄 아시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이제 알때가 되지 않았소?" 마침내 아부 수피얀이 입을 열었다.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희생하겠나니! 당신처럼 아름답고 영예스러운 품성과 영예로움을 지니고, 친척들의 권리를 헤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온갖 가혹행위를 저질러도 당신은 아직도 우리를 진리의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너그러운 마음입니까! 나는 알라후 테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믿습니다. 당신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입니다." 그리하여 아부 수피얀은 무슬림 교우들과 합류하였다. 압바스 성인이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아부 수피얀에 대한 메카 사람들의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아부 수피얀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겠습니까?"예언자가 이를 받아들이며 말했다. "누구든지 아부 수피얀의 집에 들어가피난처로 삼는다면 살상으로부터 보호될 것이다." 아부 수피얀이 요청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우리의 예언자가 말했다. "누구든지 카바 성원으로 들어가 그곳을 피난처로 삼는다면그는 보호를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집의 문을 잠그고 자기 집에 머물게 되면그는 보호를 받을 것이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압바스 성인에게 말했다. "그를 계곡으로 데려가 무슬림 군대의 위용을 보게 하라." 예언자는 아부 수피얀에게 무슬림 군대의 엄청난 숫자와 막강한 세력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함으로써 이를 메카 다신교도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려 했던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신교도들이 감히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고, 성스러운 곳에서 유혈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었다. 압바스 성인이 계곡 골짜기로 아부 수피얀을 데리고 갔을 때 무슬림 전사들은 이미 총동원되어 전투대형을 이루고 있었다. 깃발을 펄럭이며 여러 부족들이 오솔길을 통하여 진군하고 있었다. 모든 전사들은 갑옷을 입고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계곡을 지나는 부대들 마다 타크비르를 외쳤다. 아부 수피얀이

그 위용을 보고 놀라서 물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요?" 압바스 성인이 대답했다. "이들은 술래이만 알라히셀람의 자손들이오. 그들의 사령관은 칼리드 빈 왈리드이지요! 저 사람들은 기파르 부족이오. 또 저쪽 사람들은 카아브 부족입니다." 온 천지에 '알라후 아크바르!' 의 타크비르 소리가 진동하였다. 무슬림의

숫자와 그들의 빛나는 무기들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다. 아부 수피얀이 가장 궁금해 했던 것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이끄는 부대였다. 다른 부대와 상의할 것이라는 짐작으로 그는 거듭 물었다. "이들이 모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지휘하는 부대인가요?" 마침내 예언자 중의 으뜸인 온 세상의 귀감이 낙타 쿠스와에 올라탄 채 무하지르와 안사르들에 둘러쌓여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마치 태양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위용을 자랑하였다.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으로 무장하고, 인디안 칼을 두르고, 명마와 희귀종의 낙타를 타고 있었다. 무하지르가 옆으로 지나갈 때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아부 수피얀에게 말했다. "오늘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카바의 명성을 드높일 것이다. 오늘은 알라후 테알라의 집에 장막이 드리워지는 날이 될 것이다. 오늘은 자비의 날이 될 것이다. 오늘은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꾸라이쉬 부족을 이슬람으로 의롭게하는 날이 될 것이다."

아부 수피얀이 보고 들은 것만으로 이미 상황이 충분히 파악되었다. 그가 말했다. "나는 로마 제국과 페르시아제국의 장려함을 모두 보았지만 오늘과 같이 화려한 광경은 여기서 처음 보았습니다. 이 같은 군대나 공동체를 여지껏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러한 군대에 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뒤 그는 메카로 출발했다.

아부 수피얀은 메카에 돌아와서 자신을 목이 빠지라 기다리는 다신교도들에게 자신이 무슬림이 되었음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오, 꾸라이쉬 사람들이여!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여러분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무도 이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헛되이 자신을 속이려들지 마시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슬림이 되시오. 나는 당신들이 보지 못한 것을 모두 보았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용사들과 말들, 그리고 막강한 무기들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아부 수피얀의 집으로 피난하면 보호를 받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카바에 있는

알라후 테알라의 집에 피난처를 구하면 그의 안전은 보장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집의 문을 닫고 그 안에 머물면 마찬가지로 그의 안전은 보장됩니다." 이렇게 되자 일부 흉폭한 다신교도들은 아부 수피얀에 반대하며 그를 모욕하였다. 그들은 심지어 이슬람 군대에 대적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숫자는 아주 적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흉폭한 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모두 자신들의 집으로 달려갔다. 일부 사람들은 카바 성원으로 피난을 갔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와 그의 영광스러운 교우들은 지투와 계곡으로 와서 집결하였다. 온 세상의 귀감은 축복받은 눈으로 교우들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히즈라, 즉 메카를 떠날 때의 일을 상기하였다. 벌써 8 년 전의 일이었다. 다

신교도들이 자신의 집을 포위하였었다. 간신히 탈출하여 아부 바크르 성인과 함께 사우르 동굴에 숨었었다. 메카 경계를 벗어나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했었다. "오, 메카여!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코 너는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창조한 곳 중 가장 훌륭한 지역이다. 만약 그들이 나를 추방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예언자의 슬픔을 지브릴 천사가 '카사스 장' 85절의 계시를 전하시어 '메카로의 귀환'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었다. 자신과 소수의 교우들은 이후 바드르 전투, 우후드 전투, 참호 전투, 카이바르와 무타에서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를 기억했다. 이제 1 만 2 천의 교우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있다. 그들은 지금 메카로의 진격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이 모든 축복을 내려주신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미를 올렸다. 예언자는 겸손하게 알라후 테알라 앞에 큰 절을 올렸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그의 영웅적인 교우들을 네 집단으로 나누었다. 우익 부대의 사령관에는 칼리드 빈 왈리드 성인이 임명되었다. 좌익 부대는 주바일 빈 아우왐이, 보병 부대는 아부 우바이다 빈 자라흐 성인이, 기타 부대는 사아드 빈 우바다가 지휘 책임을 맡았다. 칼리드 성인은 남쪽으로부터 메카에 진입하여 저항하는 다신교도들을 징벌한 뒤 예언자와 사파 언덕에서 합류하기로 했다. 주바일 성인은 북쪽으로부터 메카로 진입하여 하준 지역에 이슬람 깃발을 세운 후 우리의 귀감을 기다리기로 했다. 서쪽으로부터 메카로 진입하는 부대는 사아드 성인이 맡았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사령관들에게 지침을 내렸다. "공격을 받기 전에는 누구와도 전투를 하지 말라. 어느 누구도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미리 지명된 15 명의 다신교도 흉악범들은 비록 카바의 장막 아래 숨어있다고 해도 체포되어 참수될 것이었다.

진리가 도래하고 미신이 멸망하다

라마단 달 13 일 금요일이었다. 칼리드 빈 왈리드 성인은 무슬림 전사들 중 가장 먼저 행동에 착수하였다. 메카 남쪽의 한다마 산 경사면에 도달하자 칼리드 성인은 잔인한 다신교도들이 그들을 향해 화살을 쏘아댔다. 무슬림 전사 두 명이 순교했다. 칼리드 성인은 병사들에게 전투대형을 갖출 것을 명령하며 말했다. "도망치는 사람은 죽이지 말라." 무슬림 군대는 앞으로 돌진하여 순식간에 다신교도들을 격퇴하였다. 이 전투에서 70 명의 다신교도들이 살해되었다. 남은 사람들은 산꼭대기로 도망치거나 자기 집으로 달아났다.
다른 방향에서 메카로 진격한 영광스러운 교우들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았다. 이미 살해명령이 내려진 사람들 중 다섯 사람이 붙잡혀 처벌을 받았다. 나머지는

메카로부터 도망쳤다. 무슬림들은 커다란 흥분속에 '알라후 아크바르!'의 타크비르를 연호하며 물결치듯 메카로 진입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성스러운 도시 메카로 진입하였다. 오늘이 있게 하신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감사하였다. 그들은 메카 정복의 기쁜 소식을 계시한 '파티하 장'을 낭송하고 있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많은 무슬림 교우들을 이끌고 더 할 나위 없는 행복에 잠겨 카바를 향하였다. 그의 오른쪽에는 아부 바크르 성인이, 왼쪽에는 우사이드 빈 후다이르 성인이 각각 수행했다. 예언자는 카바에 접근하여 하자룰 아스와드 일명, 흑석을 방문하고 나서 "랍바익!…" 과 "알라후 아크바르!" 라고 알라후 테알라를 찬미하는 연호를 합창했다. 메카의 하늘은 '알라후 아크바르!'소리로 진동하였다. 무슬림들은 행복의 눈물로 얼굴을 적셨다. 거룩한 성원이나 자기 집에 피난처를 구한 다신교도들은 공포속에서 숨죽이고 기다렸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와 영광스러운 교우들은 카바를 순회하기 시작했다. 일곱 번의 순회를 마친 후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낙타에서 내려 '마카미 이브라힘'라는 곳에서 두 라카의 예배를 올렸다. 그런 뒤 예언자는 압바스 성인이 잠잠 우물에서 길어 온 물을 마셨다. 우리의 귀감은 그 물로 세정을 하고 싶어 했다. 예언자가 세정의식을 거행하는 동안 교우들은 그분의 몸을 적시고 떨어지는 물을 서로 받으려고 애썼다. 이 광경을 본 다신교도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평생에 이 같은 통치자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카바 주위에 있는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모두 부수기를 원하였다. 예언자는 '이스라 장'의 계시를 낭송하였다;
'그리고 이르되 진리가 도래하였으니 미신이 멸망하리라. 실로 미신은 멸망토록 되어 있노라.' (이스라 17:81 의 해석)

예언자는 자신의 지팡이를 우상을 향해 뻗쳤다. 지팡이로 지목한 모든 우상들은 하나씩 하나씩 땅으로 쓰러졌다. 3 백 60 개의 우상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파괴되었다.

정오예배 시간이 되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빌랄 성인에게 명령하여 카바에서 아잔을 낭송하게 하였다. 빌랄 성인은 즉시 자신의 성스러운 의무를 시행하였다. 아잔이 울려 퍼지는 동안 무슬림들의 마음 속에서는 헤아리기 어려운 기쁨이 용솟음쳤고, 다신교도들은 커다란 비애의 고통을 느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카바 신전의 열쇠를 가져오게 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에 있던 그림과 우상들이 깨끗이 치워져 분쇄되었다. 우사마 빈 자이드 성인과 빌랄 성인, 그리고 우스만 빈 탈하 성인이 예언자를 수행하였다. 카바 안에서 카바의 문을 등 뒤로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두 라카의 예배를 거행하였다. 그런 뒤 카아바의 네 귀퉁이를 돌며 "알라후 아크바르!" 라고 연호하고

기도하였다. 칼리드 빈 왈리드 성인이 정문 앞에 서서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드는 것을 막았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카바 양쪽 문의 날개를 잡았다. 모든 꾸라이쉬 사람들이 카바 주위에 몰려들어 우리의 예언자에 대한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예언자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우리의 예언자와 그 교우들을 고문하였었다. 다신교도들은 무슬림들의 목에 밧줄을 묶어 땅에 끌고 다녔었다. 그들은 무슬림들을 불속에 던지기도 했고, 불에 달군 돌을 가슴 위에 얹거나 벌건 쇠막대기로 몸을 쑤시는 고문도 서슴지 않았었다. 3 년 동안 물이 없는 지역에 감금하여 의지할 때가 없게 했었고, 모든 재산을 뺏기도 했었다. 다신교도들은 두 마리 낙타에 무슬림들을 묶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몰아 그들을 찢어죽이기도 했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특히 그들은 무슬림들을 정든 고향에서 추방시켰었다. 그것도 부족해서인지 그들은 무슬림들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수많은 전쟁으로 무슬림의 목숨과 재산을 노렸었다.

그들이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신교도들은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들 앞에 서있는 예언자는 이 세상을 위한 자비로 보내진 동정의 바다였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그들을 한참동안 바라본 뒤에 물었다. “꾸라이쉬 백성들이여!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관대하고 좋은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정복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선처를 기대합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사이의 관계는 예언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한 것과 같다. 나는 요셉이 말한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말한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죄에 대한 불만이나 비난은 없을 것이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기를 바란다. 가라! 여러분은 이제 자유롭다.”

이 위대한 자비는 굳어있던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여 증오를 사랑으로 변화시켰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그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자 그들은 무슬림이 되기 위해 몰려왔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사파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곳은 그분이 예언자임을 꾸라이쉬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을 처음으로 이슬람으로 초대한 곳이었다. 다시 그곳에서 연장자, 연소자, 여자와 남자, 모든 메카 사람들의 충성 서약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꾸라이쉬 사람들은 무슬림이 되는 영광을 안고 교우들의 공동체에 합류하였다.
남자들로부터 약속을 받은 후, 여자들도 다음과 같은 조항의 약속을 하였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에 견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예언자에 대한 불복종

은 없다. 도둑질을 하지 않으며 순결을 보호한다. 딸을 죽이지 않는다. 무슬림이 된 여자들 중에는 살해명령이 떨어진 아부 수피얀의 아내 힌드도 있었다. 그러나 만물의 자비로 보내진,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그녀 또한 용서하였다. 이슬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던 우상들을 파괴하였다. 병사들이 이웃 부족들에게 파견되어 그곳에 있던 우상들도 모두 파괴되었다. 그리하여 진리가 도래하고 미신이 멸망하였다. 용서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아부 자흘의 아들 이크리마와 함자 성인을 순교하게 한 와흐쉬도 있었다. 이들 중에서 이크리마 성인은 야르무크 전투에서 순교자가 되었다. 와흐쉬 성인은 야마마 전투에서 무사이라마툴 캇잡을 죽였다.

자신을 위하지 않고, 단지 알라후 테알라만을 위해서
욕망에 대한 사랑도 증오도 없고, 관용의 원천이여

그는 비웃는자를 비웃지 않으며 비난도하지 않으며
아름다운 말과 웃는 얼굴로, 관용의 원천이여

그는 은혜요, 온화함과 겸손으로 가득하고
불우한자를 외면하지 않고, 관용의 원천이여
그는 가장 정중하게 적들을 용서하고
열망의 최고조라, 관용의 원천이여

후나인 전투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메카 정복의 의도를 갖고 메디나를 떠나올 때 메카 주위에 있던 비교적 큰 규모의 부족, 즉 하와진과 사키프 부족은 무슬림들이 그들을 공격할 것이라 예측하고는 전쟁준비를 시작했다. 그들은 무슬림 군대가 메카를 정복하기 위해 온다는 것을 알고 한동안 안심하였다. 그러나 메카 정복 뒤에는 자신들의 차례가 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맹세컨대 무슬림들은 진짜 훌륭한 용사들이 있는 민족들과 만나보지 못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진격해 오기 전에 우리가 그들에게 진격하여 싸움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자." 그들은 하와진 부족의 수령 말리크 빈 아우프를 사령관으로 하는 2 만명의 군대로 행동을 개시했다. 그들은 병사들의 용기를 북돋고 난관에 봉착했을 때 달아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값진 재물들과 여자와 어린이들을 모아 원정대에 합류시켰다.

이러한 소식은 즉시 무슬림 진영에 전달되었다. 우리의 예언자는 압둘라 빈 아비 하드랏을 하와진 부족에게 파견하여 그 소식의 진위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였다. 압둘라 성인은 변장을 하여 적들 속에 잠입하였다. 그는 적들의 동태와 의도를 파악한 뒤 즉시 그 상황을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에게 보고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곧바로 그의 영광스러운 교우들을 소집하였다. 갓 스무 살이 된 앗탑 빈 아시드를 메카의 대리인으로 남기고 서둘러 출발하였다. 예언자는 1 만 2 천을 거느리고 하와진과 사키프 부족의 군사 주둔지를 급습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알리 성인이 무슬림 전사들의 깃발을 들었으며, 칼리드 빈 왈리드 성인이 전방부대의 사령관을 맡았다. 온 세상의 귀감, 예언자는 둘둘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새를 탔으며, 투구와 이중갑옷을 착용하였다. 사우왈 달 11 일에 그들은 후나인 계곡에 도착했다. 그날 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자신의 군대를 검열하였으며, 전투 대형으로 편성하였다. 아침예배를 인도한 뒤 행동을 개시했다.

다신교도들의 사령관은 밤의 어두움을 이용하여 계곡 양쪽에 매복을 설치하였다. 칼리드 빈 왈리드는 매복을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을 타고 통로에 들어섰다. 여명의 어두움속에서 그들은 적들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갑자기 수천발의 화살이 무슬림 전사들 머리 위에 비 오듯 쏟아졌다. 이슬람 군대는 예상치 못했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퇴각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방향전환은 뒤따라오던 병사들의 대열에 무질서를 초래하였다. 그들 역시 퇴각하기 위해 방향을 전환하였을 때, 2 만 명의 적군이 계곡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다신교도들을 공격하기 위해 혼자서 앞으로 뛰쳐나갔다. 압바스 성인과 아부 바크르 성인, 그리고 약 1 백명의 영웅적인 교우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따라 잡았다. 위기의 순간 그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를 위해 자신들의 몸을 방패로 삼았다. 압바스 성인이 예언자가 탄 노새의 고삐를 잡고, 수피얀 빈 하리스 성인이 노새의 등자를 잡아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적진 속으로 돌진하는 것을 저지하였다. 온 세상의 귀감은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종교가 사라질 것을 슬퍼하여 명령하였다. "오, 압바스! 그들에게 '메디나 용사들이여! 사무라 나무 밑에서 충성을 서약한 교우들이여!'라고 소리쳐라." 압바스 성인은 체구가 장대하고 우람하였다. 그가 고함을 치면 그 목소리가 매우 커서 멀리까지 전달되었다. 그는 온 힘을 다 모아 소리쳤다. "메디나 용사들이여! 사무라 나무 밑에서 우리의 예언자에게 약속한 교우들이여! 흩어지지 마라! 이곳으로 모여라!" 이 소리를 들은 교우들은 방향을 바꾸어 가고자 했다. 그러나 그들이 타고 있던 동물들이 매우 놀라 있어 방향전환이 쉽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탈 것에서 뛰어내려 갑옷과 칼과 창을 챙겨들었다. 그들은 곧바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있는 곳에 도착하였으며 적과의 격렬한 전투를 시작했다. 무슬림들은 "알라후 아크바르!" 라 연호하여 적들을 공포에 질리게 했다. 여러 전투에서 위대한 영웅성을 보인 교우들, 특히 알리 성인과 아부 두자나 성인, 주바일 빈 아우왐 성인은 아주 용맹스럽게 싸워적들을 격퇴하였다.

온 세상의 귀감, 예언자는 교우들의 전투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때 기도소리가 들려왔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당신의 도움을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진실로 당신은 저들이 우리를 이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탄원하는 모래 한 줌을 땅에서 주워 다신교도 쪽으로 날리면서 말했다. "그들의 얼굴이 검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의 기적으로 인해 적군의 병사들 중 눈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 천사들도 무슬림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왔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들을 뿌리 뽑겠다고 약속하셨다." 다신교도들은 흩어져서 도망가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든 교우들이 추격을 하였다. 그들은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재물들을 전장에 버려두고 멀리멀리 도망쳤다. 다신교도들은 70 명의 전사자와 6 천명의 포로, 헤아릴 수 없는 재물들을 전장에 남겨두었다. 탈출에 성공한 자들의 일부는 타이프 요새에 피난처를 구하였다. 일부는 나흘라로 갔고, 또 일부는 아우타스로 갔다. 다신교도의 사령관 말리크 빈 아우프는 타이프에 피난처를 구한 사람 중 하나였다. 교우들은 한동안 그들을 추적하였다. 아우타스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재개되었으나 적군은 격퇴되었다.

이 성전에서 알라후 테알라의 뜻으로 무슬림들은 또 다시 승리를 차지했다. 네 명의 무슬림이 순교하였으며, 일부 교우들이 부상을 당했다. 칼리드 빈 왈리드 성인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그를 찾아가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으며, 그 즉시로 부상이 완쾌되었다.

당신의 길에서 생명을 다하리다,
이름도 얼굴도 아름다운, 무함마드(알라히살람)
중재를 하시니, 죄지은 하인들을
이름도 얼굴도 아름다운, 무함마드(알라히살람)

믿는 자들은 많은 고초를 겪고
저 세상에 그쁨과 행복이 있어
만팔 천의 세상의 무스타파
이름도 얼굴도 아름다운, 무함마드(알라히살람)

일곱 하늘을 살펴보고 알라후
테알라의 경계를 넘어서고
승천하여 백성들을 기원한,
이름도 얼굴도 아름다운, 무함마드(알라히살람)

유누스는 그대없이 무엇하리 이 두 세상을
의심없이 그대는 진리의 예언자,
당신에 복종치 않는 자는 신앙없이 죽고
이름도 얼굴도 아름다운, 무함마드(알라히살람)

타이프 원정

온 세상의 예언자는 타이프 요새로 달아난 적군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원하였다. 메카에서 가까운 이 요새는 불신자들의 마지막이자 가장 견고한 요새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히즈라 이전에 타이프에 와서 한달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이슬람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한 바 있었다. 그러나 타이프 사람들은 그분을 아주 고문하고 핍박하였었다. 심지어 그들은 예언자의 축복받은 발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우리의 예언자와 자이드 빈 하리사 성인은 이곳에서 일생 중에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을 받았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칼리드 빈 왈리드 성인을 먼저 파견하였다.

예언자는 영광스러운 교우들과 함께 타이프 요새 앞으로 전진했다. 사키프 부족은 막대한 양의 식량을 요새 안에 저장해두고 있었다. 그들은 교우들이 온 것을 보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방어전을 시작했다. 그들은 무슬림 전사들이 요새에 접근하면 화살로 응답하였다. 전투는 이런 식으로 계속되었다. 타이프 사람들은 요새를 떠나 들판에서 정면으로 싸우는 것을 회피하였다. 일부 교우들이 투석기를 이용하여 요새 안으로 돌을 던지자고 제안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이를 승인하였으며, 투석기가 만들어졌다. 그는 투석기를 사용하면서 다신 교도들에 대한 포위작전을 계속했다. 교우들은 요새를 빠른 시일 내에 점령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싸웠다. 그러는 동안 열 네 명의 교우가 순교하였다. 요새가 아주 견고했기 때문에 정복이 지연되고 있었다. 포위한지 20 일째 되는 어느 날 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꿈을 꾸었는데, 선물로 받은 버터 한 사발을 수탉이 쪼더니 땅으로 쏟아버리는 것이었다. 이 꿈을 해석하니, 지금은 타이프의 정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본 예언자는 포위를 중지하였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말했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이 산들을 그들의 머리 위에 쏟아지게 하겠습니다.” 예언자는 8 년 전에 타이프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이 세상을 위한 자비로 보내진 몸이다. 나는 단지 이들이 알라후 테알라를 경배하기만 바랄뿐이다.” 그리고 예언자는 다시 알라후 테알라께 탄원하였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사키프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소서. 그들을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해주소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교우들과 함께 타이프를 떠나 후나인에서 얻은 포로들과 전리품들이 모여 있는 지라나에 도착했다. 6 천 명의 포로 외에 2 만 마리의 타는 동물들, 그리고 4 만 마리의 양과 염소,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석들이 전리품으로 수확되었다. 예언자는 그것을 모든 무슬림 전사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였다. 얼마 후 하와진 부족의 대표가 면담을 요청했다는 전갈이 왔다. 허락이 떨어지자 대표단이 와서 모든 하와진 부족이 이슬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온 세상의 귀감, 예언자는 매우 기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은 자신에게 배당된 포로들을 즉각 해방시켰으며 그들을 자기 부족에게 돌려보냈다. 교우들도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를 본받아 자신의 포로들을 풀어주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자비로움으로 인해 6 천 명의 포로가 자유를 찾은 것이다. 이 소식이 타이프에 피신해 있던 하와진 부족의 지도자 말리크 빈 아우프에게 전해지자, 그 또한 예언자를 찾아와 무슬림이 되었다. 우리의 예언자는 그에게도 많은 선물을 주었다.

이제 그곳에서 할 일이 남아있지 않았다. 온 세상의 귀감은 교우들과 함께 메카로 개선하였다. 그분은 메카에 앗탑 빈 아스드를 통치자로, 무아즈 빈 자발 성인을 남겨 종교교육 책임자로 남겼다. 예언자는 교우들과 함께 카바를 순회하고 순례를 한 다음 다시 메디나로 출발하였다.

1 년 뒤에 타이프 사람들은 여섯 명의 대표단을 메디나로 보내 무슬림이 되고자하는 의향을 전해왔다. 1 년 전에 타이프를 떠나오며 올린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이었다. 이제 사키프 부족이 무슬림이 되었다. 예언자는 몇 가지 특전을 주어 그들을 타이프로 보냈으며, 우스만 빈 아빌라스 성인을 그들의 통치자로 임명하였다.

타북 원정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메디나로 돌아온 후 여러 나라에 사절단을 보내 그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였다. 오만과 바레인의 통치자들은 신하들과 함께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영광을 맞이 하였다. 또한 많은 부족들이 메디나로 찾아와 온 세상의 귀감에게 복종하겠다는 선언을 하여 예언자를 기쁘게 하였다.

이제 이슬람은 매우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었다. 이슬람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주변 부족과 주변 국가에 종교학자들과 지도자들이 파견되었다. 히즈라 9 년의 메디나는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무리로 넘쳐났다. 히즈라 9 년 라잡 달(이슬람력)의 어느 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에샵 교우들에게 말했다. "오늘 여러분의 진정한 형제들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그의 장례예배를 거행합시다." 예언자는 몸소 이맘이 되어 사체가 없는 가운데 장례예배를 인도하였다. 그리고는 말했다. "여러분의 형제 에티오피아 왕 아샤마를 위해 우리는 알라후 테알라께 용서를 청하였습니다." 얼마 후 에티오피아로부터 네구스 아샤마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의 사망일은 우리의 예언자가 장례예배를 거행했던 날과 일치하였다.

아라비아 반도에 이슬람이 급속도로 확산되던 히즈라 9 년, 그리스도교 아랍인들이 이슬람 대국을 질시하여 이의 확대를 막고자 비잔틴 황제 헤라클리우스에게 편지를 썼다.
'자신을 예언자라고 주장하던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슬림들은 이제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황제께서 그들을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지금이 바로 좋은 기회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헤라클리우스 황제는 쿠바드의 지휘 아래 4 만 명의 강력한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의 예언자는 에샵교우들을 소집하여 전쟁준비에 착수할 것을 명령했다. 그 해에는 가뭄이 심하여 교우들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다. 오로지 교역 상인들만이 비교적 양호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우리의 예언자는 형편이 나은 교우들에게 전쟁에 참가할 병사들의 장비를 지원해주기를 원하였다. 이에 따라 교우들이 행동에 착수하였다. 모든 교우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놓아 전쟁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우리 예언자와 동굴 속에 함께 피난했던 아부 바크르 성인은 그의 재산 모두를 기부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물었다. "오, 아부 바크르! 당신의 가족들을 위해 무엇을 남겨주었나요?" 그가 대답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와 그의 사도를 남겨주었습니다." 우마르 성인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았다. 우리의 예언자가 물었다. "오, 우마르! 당신 가족을 위해 무엇을 남겼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내가 기부한 것만큼 남겼습니다." 예언자가 말했다. "당신 두 사람의 차이는 두 사람의 말의 차이와 같습니다." 그러자 우마르 성인이 말했다. "오, 아부 바크르! 나의 부모가 당신을 위해 희생되기를! 당신은 선행에 있어 어떤 면에서도 나를 능가합니다. 이제 나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당신을 초월할 수 없다는 것을 잘 깨달았습니다." 라 하며 그를 떠 받들었다.

에샵교우들은 가능한 한 모든 조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위선자들은 그

들을 조롱하며 말했다. "당신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기부하는 것이오." 예언자가 말했다. "오늘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그 행위로 인하여 심판의 날 알라후 테알라 앞에서 자신을 옹호해주는 증인을 얻을지다." 이러한 예언자의 축복받은 말로 인하여 믿는 자들의 지원은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우스만 빈 아판 성인은 군대 장비의 3 분의 1 을 충당하는 거금을 기부하여 무슬림 중에서 가장 협력을 많이 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가죽으로 만든 물주머니를 꿰매기 위한 바늘쌈지까지도 준비하는 완벽한 자세로 군대의 수요에 대응하였다. 그의 이 같은 지원에 대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오늘부터 우스만의 죄악은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형편이 여의치 않은 교우 중의 한 사람은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대추야자 밭에 물을 길러 날랐으며, 댓가로 얻은 대추야자를 우리의 예언자에게 바치며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알라후 테알라의 사랑을 얻기 위해 제가 가진것을 가져왔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무슬림 남자들은

자기 역량에 맞추어 힘을 쏟았으며, 여자들도 지체 없이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했다.
타북 원정의 준비를 하던 그 기간은 무슬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였다. 기근이 아주 극심하여 내놓을 것이 없는 교우들이 우리의 예언자를 찾아와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우리는 탈 것도 먹을 것도 내놓을 것이 없으니 우리는 당신과 함께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여 알라후 테알라로부터 선행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우리의 예언자는 그들에게 타고 갈 동물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번은 살림 빈 우마이르 등 여섯 사람이 예언자를 찾아와 똑같은 요청을 하였다. 우리의 귀감은 슬퍼하면서 그들에게 말했다. "타고 갈 동물을 마련할 방도가 없소." 그들은 성전에 참가할 방법이 없음을 알자 슬픈 심정을 가눌 길 없어 울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타우바 장'의 계시를 내리셨다.

'그들에게는 죄가 없도다. 그들이 그대에게 찾아와 타고 갈 것을 구하나, "너희가 타고 갈 것이 내게 없음이라" 하니, 그들은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슬픔에 잠겨 돌아설 때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더라..' (타우바장 9:92 의 해석)

결국 압바스 성인과 우스만 성인이 그들의 장비 역시 마련해줌으로써 그들은 성전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전쟁 준비가 끝나자 우리의 예언자는 무슬림 전사들을 사니야툴 와다에 집결시켰다.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극소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무함마드 빈 마슬라마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메디나에 남기고 원정을 떠날때 말하길, "여벌의 신발을 준비하라. 그리하면 어려움을 겪지 않을것이다."

군대가 행진을 시작했을 때 위선자들의 우두머리 압둘라 빈 우바이가 무슬림들을 겁주기 위해 터무니없는 말을 내뱉었다. 심지어는 "내가 맹서하건데 그와 그의 교우들이 둘씩 둘씩 밧줄로 묶여 있는 형상이 보인다." 교우들은 이
말에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성전에 참가하는 그들의 열정은 더욱 뜨거웠다. 이를 본 위선자들은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사니야툴 와다에서 타북으로 이동하기 위해 깃발을 펼치고 출발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이끄는 군대의 총 숫자는 3 만 명이었으며, 그중
1 만 명은 기병이었다. 탈하 빈 우바이둘라 성인이 우익 사령관에 임명되었으며, 압둘라흐만 빈 아우프 성인이 좌익을 지휘하였다. 매우 뜨거운 날씨 속에서 무슬림 군대는 행동을 개시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가장 사랑하는 분의 지휘 아래에 있는 한, 음식과 물이 부족하고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적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무슬림 전사들의 용기는 꺾이지 않을 것이었다. 중간 중간 쉬어가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와 용감한 교우들은 행진을 계속했다. 여덟 번째 휴식처는 살리흐 사람들이 전멸된 히즈르였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그들의 예언자에게 복종하지 않은 그들을 우레 같은 소리로 몰살시켰던 것이다.

온 세상의 귀감, 예언자가 교우들에게 말했다. "오늘 밤 맹렬한 폭풍이 우리의 반대 방향에서 불어 올 것이다. 누구든지 옆에 붙잡을 동료가 있지않으면 일어서지 않도록 하라. 모두들 낙타의 무릎을 묶으라. 이곳은 알라후 테알라의 재앙이 내려진 곳이다. 이곳 물은 마시지도 말고 그 물로 씻지도 말라." 모든 사람이 이 명령에 따랐다. 천둥을 동반한 폭풍이 밤중에 시작되어 주위의 모든 것을 뒤집어놓기 시작하였다. 어떤 이가 낙타의 무릎을 묶어놓지 않아 낙타를 찾기 위해 일어섰다. 그는 그만 폭풍에 휩쓸려 타이 산의 경사면으로 내동댕이쳐졌다. 어떤 이는 이곳의 물로 씻다가 후낙이라는 병에 걸렸으나 예언자의 기도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물주머니에는 물이 남아있지 않았다. 전부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다. 위선자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혼란를 부추기려 하였다. "
만약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이 진정한 예언자라면 알라후 테알라께 간구하여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을 텐데." 이 상황이 예언자에게 전달되자 그는 그의 축복받은 손을 올려들고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비를 간청하는 기도를 올렸다. 무덥고 구름 없는 하늘이 갑자기 비구름으로 덮였다. 곧 이어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자신의 물주머니를 가득 채우고 몸을 깨끗이
하였으며, 동물들에게도 물을흡족하게 먹였다. 비가 멎고 구름이 사라졌을 때, 그 비가 오로지 무슬림 군대 위에만 내려진 것을 알게되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와 교우들은 알라후 테알라를 찬미하였다. 그들은 위선자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들은 다른 구실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와 그의 사도를 믿고 진정한 무슬림이 되어라!" 하지만 비열한 위선자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서 어쨌다고? 어쩌다 구름이 지나가다가 비를 뿌리고 그친 것

을."

굶주림 또한 아주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대추야자 한 개를 두 사람이 나누는 형국이었다. 맹렬한 더위와 굶주림과 갈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북에 접근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뜻하시어 그대들은 내일 아침 늦게 타북의 샘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갈 때까지 그 물에 손을 대지 말라." 그 다음날 그들은 그곳에 도착했다. 그 샘의 물은 아주 적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그 샘물을 용기에 담았다. 그런 뒤 자신의 손을 용기에 담고 알라후 테알라께 기도하였다. 그 물을 다시 샘물에 붓더니 샘물이 갑자기 불어나기 시작했다. 3 만 명의 이슬람 군대가 그 물을 마셨지만 물은 줄어들지 않았다. 예언자의 기적인 이 물은 지역 전체를 적셔, 그 땅은 매우 푸르고풍요로운 평야로 변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영웅의 교우들과 함께 타북에 왔을 때, 로마 군대나 아밀라와 라흠 등 그리스도교 아랍 부족이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무타에서 3 천의 무슬림 전사들이 10 만의 로마 군대를 격퇴되는 쓰라림을 맛보았었다. 로마군은 이제 3 만의 무슬림 전사들과 그들의 사령관, 온 세상의 귀감인 우리의 예언자와 맞설 차례였다. 로마군은 그분이 영웅적인 교우전사들을 이끎고 왔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숨을 곳을 찾기에 바빴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교우들과 상의 끝에 타북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는 사이, 그 지역의 여러 부족과 여러 나라들이 이슬람 군대가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언자에게 대표단을 보내 세금을 내겠노라고 제의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그들을

동정하여 그들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들 각각의 집단과 함께 별도의 협정이 맺어졌으며, 그들모두에게 안전이 보장되었음이 통보되었다.

함정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거의 20 일 가까이 적군을 기다렸다. 그 사이에 그는 타북에서 교우들과 은혜로운 담화를 나누며, 교우들의 마음을 의 자신의 빛으로 청결하게 씻어주었다. 예언자는 자신의 가슴에서 뿜어져 나오는 축복과 우월함을 교우들의 가슴에 쏟아 부었다. 그분은 특이한 대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가장 훌륭하고 영예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줄까요?" 교우들은 당연히 "예, 말씀 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언자가 말했다. "사람들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은 말이나 낙타를 타거나 또는 맨발로 최후의 순간까지 지고하

신 알라후 테알라의 길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중 가장 나쁜 사람은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성서를 다 읽고도 유익함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순교에 대하여 묻자 예언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의 존재의 의미이신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컨대, 심판의 날에 순교자들은 칼을 등에 차고 올 것이며, 빛나는 옥좌에 앉을 것이다."

타북에서 메디나로 돌아올 준비를 하는 동안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교우들이 우리의 예언자에게 호소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남아있는 음식을 가죽 깔판에 모두 모으게 하였다. 이 음식들은 고작해야 작은 냄비에 가득찰 정도의 분량밖에 되지 않았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다시 세정의식을 거행하고 두 라카의 예배를 올렸다. 축복받은 손을 내뻗으며 음식의 풍성함을 간원하였다. 그런 뒤 예언자는 교우들에게 각자의 접시를 가져오도록 명령했다. 모든 접시가 음식으로 채워졌다.
빈 접시는 하나도 없었다. 또한 무슬림 전사들이 배가 부르도록 먹어치워도 음식의 양은 줄지 않았다.

무슬림 전사들은 타북을 떠나 메디나를 향하였다. 어느 날 밤 위선자들은 서로 공모하여 군대가 진군하는 좁은 통로에 매복을 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를 살해하기로 했다. 그들은 통로에 숨어서 기다렸다. 암마르 빈 야세르가 예언자 낙타의 고삐를 쥐고 있었으며, 후자이파 빈 예만 성인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지브릴 천사가 와서 위선자들이 암살의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통로 가까이 왔을 때, 이 위선자 무리들은 얼굴에 복면을 쓴 채 습격을 가해왔다.
후자이파 성인이 막대기로 위선자들과 그들이 탄 동물들을 후려치면서 고함을 질렀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고약한 적들아!" 열두 명의 위선자들은 이 소리에 놀라 즉시 병사들 행렬 속으로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우리의 예언자는 후자이파 성인에게 그들의 이름을 알려준 뒤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사건의 소식을 들은 우사이드 빈 후다이르 성인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당신을 위해 생명을 바치리니! 그들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신다면 그들의 목을 베어 바치겠나이다." 그러나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디라르 성원

비잔틴 제국을 놀라게 하고 그들의 저항을 분쇄한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와 그의 영웅적인 교우들은 드디어 메디나 근처에 당도하였다. 온 세상의 귀감은 메디나를 코앞에 둔 지와완이라는 곳에 천막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교우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위선자 몇 명이 와서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에게 디라르 성원에 들러줄 것을 요청하였다.

디라르 성원은 쿠바에 있었다. 그것은 위선자들이 지은 것으로,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메디나로 이주하면서 처음으로 쿠바에 지은 성원의 맞은 편에 건설된 것이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교우들과 함께 타북으로 진군할 때, 위선자들이 다가와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우리는 새로운 성원을 지었습니다. 그곳에 오시어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온 세상의 귀감은 지금 군사원정 중이므로 타북에서 메디나로 귀환할 때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었다.

위선자들의 목적은 무슬림 공동체를 분열시켜 무정부 상태를 조성하고, 서로 반목하여 싸우게 하려는 것이었다. 위선자들은 비잔틴 병사들을 메디나로 불러와 이 성원 안에 무기를 감추어 둘 수 있게 도와줄 계획이었다. 우리의 예언자가 그 곳에서 예배를 올리게 되면 디라르 성원은 성스러운 장소라는 인상을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이 틀림없었다. 그리하여 무슬림들이 앞을 다투어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위선자들이 쳐놓은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위선자들의 초대를 수락하여 그곳에 가기로 결정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타우바 장' 107 절과 108 절의 계시를 내리시어 그 사건의 진실을 전해주었다. 이에 따라 온 세상의 귀감, 예언자는 말리크 빈 두흐숨과 아심 빈 아디이에게 명령했다. "잔인한 자들이 지은 성원으로 가라! 그것을 부숴버리고 불태워라!" 저녁 예배와 밤 예배 사이의 시간에 그들은 디라르 성원으로 가서 그것을 부수고 불태웠다. 위선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의 예언자와 그의 영광스러운 교우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메디나 사람들은 곧바로 모여 그들을 환영하러 나갔다.
타북 원정에서 돌아온 지 두 달 뒤, 위선자들의 우두머리인 압둘라 빈 우바이가 죽었다. 그 뒤로 위선자들의 공동체는 해체되어 사라졌다. 그리하여
위선자들뿐만 아니라 다신교도들과 아라비아의 유대인들의 이슬람에 대한 반대운동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작별의 성지순례

이슬람의 다섯 의무 중 하나인 성지순례(하지)는 히즈라 9 년에 '이므란 장'의 계시를 통해 전달되었다.

'그곳에는 예증으로써 이브라힘의 장소가 있나니, 그곳에 들어간 자는 누구든

안전할 것이며, 능력이 있는 백성에게는 순례를 의무로 하셨노라. 그러나 믿음을 거부한 자에게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만물의 절대자임을 보여 주실 것이라.' (3:97 의 해석)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이 명령을 교우들에게 선포하였다. 그 해에 예언자는 3 백 명의 순례자를 보내며 아부 바크르 성인을 인솔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이 순례행렬에 속한 교우들이 아부 바크르 성인의 지휘 아래 메카로 출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바라아 장'의 첫 구절들이 계시되었다. 계시에는 평화협정에 대한 몇 가지 조건들이 내포되어있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알리 성인을 메카로 보내 그 조건들을 선포하였다.

그 당시에는 아랍의 관습에 따라 어떤 협정이 이뤄지거나 깨어졌을 때 협정 당사자 또는 그 친척들이 서로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었다. 우리의 예언자는 이 임무를 위해 순례자들이 메카로 출발한 뒤 알리 성인을 다시 보낸 것이다. 알리 성인은 순례행렬을 도중에 만나 함께 메카로 진입하였다.
아부 바크르 성인은 예배전 설교를 통해 하지 성지순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교우들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성지순례를 거행하였다. 성지순례를 마친 후 알리 성인은 미나지역의 '자므라 아카바'라는 곳에서 설교를 하였다. 설교 중 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러분! 나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명을 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바라아 장'의 첫 구절을 낭송하였다. 그런 뒤 그는 말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네 가지 사항을 알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네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무슬림이 아닌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2. 올해 이후부터 다신교도는 카바에 접근할 수 없다.
3. 누구든지 알몸으로 카바를 순회할 수 없다.(당시에 다신교도들은 카바 주위를 알몸으로 도는 풍습이 있었다.)
4. 누구든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와 협정을 맺었을 경우에는 그 협정의 만기가 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외의 협정은 4 개월 이후에 모두 실효되며, 어떤 다신교도들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

그날 이후 다신교도들은 카바에 오지 않았으며, 알몸으로 카바 주위를 도는 사람도 없어졌다. 이 선언이 있은 뒤 대부분의 다신교도들은 무슬림이 되었다. 성지순례의 의무를 다한 아부 바크르 성인과 알리 성인, 그리고 교우들은 메디나로 돌아왔다.

히즈라 10 년이 되자 이슬람은 아라비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아라비아 곳곳의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메디나로 와서 무슬림이 되었으며, 알라후 테알라의

끝 없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무슬림에 저항하는 세력은 아라비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이슬람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약간의 유대인과 그리스도 교인들만이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아 있었다.

히즈라 10 년의 해에 우리의 예언자는 칼리드 빈 왈리드 성인의 지휘하에 400 명의 병력을, 예멘의 땅에 살던, 하리스 빈 카압의 자손들에게 이슬람으로 초대하기 위하여 파견하였다. 칼리스 성인은 예언자의 명을 받들어 3 일간 연달아 그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였다. 그들은 초대를 받아들여 무슬림이 되었다. 같은 해, 예언자는 나즈란의 기독교인들과 평화협정을 맺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진하여 무슬림이 되었다. 또 알리 성인이 300 명의 병력을 이끌고, 예멘의 마드라지 족을 이슬람으로 초대하기 위하여 떠났다. 처음에는 대항하였으나 결국에는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그 해에 우리의 예언자는 이슬람이 전파된 모든 지역에 총독 및 관리자들을 보내 희사(자카트)를 하게하였다. 같은 해, 예언자는 성지순례를 위한 준비를 하였으며, 메디나에 있는 무슬림들에게도 성지순례 준비의 명령을 내렸다. 메디나 밖에 사는 무슬림들에게도 이 같은 지시가 하달되었다. 그리하여 수천 명의 무슬림들이 메디나에 집결했다. 준비가 모두 끝나자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질카다 달 25 일 정오예배를 마치고 4 천명의 순례행렬을 인솔하여 메카로 출발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기도를 올렸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저에게 이 성지순례를 허락고 받아들이소서!” 그는 두 장의 하얀 천으로 된 순례복장을 입고, 지브릴 천사가 내려와 지시하는 데로 큰 소리로 알라후 테알라의 영광을 찬미하였다. “랍바익 알라훔마 랍바익! 랍바익! 라 샤리카 라카 랍비익! 인날 함다 와니마타 라카 왈물카 라 사리카 락!” 교우들이 이를 따라 합창을 하여 온 누리에 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리의 예언자는 희생제물로 쓸 낙타 1 백 마리를 준비하였다. 열흘간의 여행 끝에 질힛자 달 4 일 그들은 메카에 도착했다. 예멘과 다른 지역에서 온 무슬림들이 합류하여 성지순례에 참가한 무슬림들의 숫자는 12 만 4 천명을 넘어섰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질힛자 달 8 일 미나에 갔으며, 9 일에는 아라파트에 갔다. 이날 오후 자신의 낙타에 올라타고 아라파트 계곡의 중간에 도착한 예언자는 작별의 설교를 행하였으며, 교우들에게 이별을 고하였다.

고별의 설교

“여러분!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후에 내가 다시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올 수 없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신성한 날들이며 신성한 달입니다. 여러분의 메카는 신성한 도시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과 명예는 신성합니다.

오, 나의 교우들이여! 여러분은 머지않아 알라후 테알라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오늘의 태도와 행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의 하세요. 내가 없더라도 이전의 타락한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서로 죽이지 마세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나의 이 뜻을 여기에 없는 사람들에게 알려 주세요.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에게서전달 받은 사람들이 이를 더 잘 이해하여 보전할 수 있게 하세요.
오, 나의 교우들이여!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위탁을 받은 사람은 그 원래의 소유자에게 그것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어떤 형태이던지 이자는 금지됩니다. 여러분의 부채는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핍박해서도 안되며 피박을 받아서도 안됩니다. 알라후 테알라의 명령으로 이자는 금지되었습니다. 무지의 시대의 나쁜 유산은 발 밑에 묻었습니다. 제일 먼저 내가 이자를 폐지한 것은 압둘 무탈립(숙부)의 이자였습니다.

오, 나의 교우들이여! 무지의 시대에서 내려온, 피에는 피로 보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첫 번째로 금지된 피의 보복은 압둘 무탈립의 아들(사촌), 라비아의 것이었습니다.
오, 나의 교우들이여! 전쟁을 위하여 이를 금지하는 신성한 달을 바꾸는 것은 가장 큰 신앙에서의 이탈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해에 선행이라고 했던 것을 다음 해에 죄악이라 할 것입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허용하신 달과 허용하지 않은 달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전쟁을 허용하는 달과 금지하는 달을 혼동하게 할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시간은 알라후 테알라께서 창조하신 형태로 순서가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오, 나의 교우들이여! 오늘 여러분의 땅에서 사탄은 그의 세력을 영원히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금지한 것 외에, 작은 일로 사탄의 편에 서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사탄은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를 보호하기 위해 이 점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여성들의 권리를 존중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점에서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명예와 순결을 알라후 테알라의 이름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알라후 테알라께 언약을 하고 여성들을 들였습니다. 여러분은 여성에 대한 권리를 가졌으며, 여성 또한 여러분에 대한 권리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여성에 대한 권리는; 가정의 질서를 해하는 당신이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만약 허락하지 않은 사람을 집으로 들인다면, 이들을 약하게 때려서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당신들에 대한 권리는;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온 갖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경건한 자들이여!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유산을 남기려 합니다.

이것을 꼭 껴안는다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유산은 알라후 테알라의 말씀 성서 '꾸란'입니다. (어떤 기록에는 '나의 순낫[37]' 또는 '나의 알이 바이트[38]'로 되어있다)

믿음을 자긴 자들이여! 나의 말을 잘 듣고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무슬림과 무슬림은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슬림은 형제입니다. 종교 형제들에게 속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허용 사항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하시오. 교우들이여! 당신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한 권리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모든 권리 소유자에게 권리(꾸란)를 주었습니다. 따로 유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는 태어난 침구가 누구이 것인지를 보면 됩니다. 불륜을 일으킨 자는 박탈 당합니다. 아버지 외에 다른 이가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남편외에 다른 자에게 눈을 돌리는 맹인은 알라후 테알라의 처벌과 모든 천사들과 무슬림들의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뉘우침을 용서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도 역시 한 명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아담 알라히살람의 자녀입니다. 아담 알라히살람으로 말하자면 흙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알라후 테알라를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아랍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점은 없습니다. 우월함은 알라후 테알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취됩니다.

사람들이여! 저 세상에서 여러분은 나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무어라 말하겠습니까?"
교우들이 대답했다. "당신은 우리에게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종교를 전달해 주었다고 우리는 증언하겠습니다. 당신은 의무를 다하였으며, 우리에게 유익한 충고를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그의 축복받은 집게 손가락을 펴서 군중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증인이 되어주소서!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증인이 되어주소서!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증인이 되어 주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고별 설교를 한 그날 '마이다 장'의 세 번째 구절이 계시되었다.

'오늘 너희를 위해 너희의 종교를 완성했고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였으며 이슬람을 너희의 신앙으로 만족케 하였노라. (5:3 의 해석)

[37] 알라후 테알락서 명령하신, 예언자가 이행했거나 칭찬한 관습, 행동규정
[38] 예언자의 후손들. 손자 하산 성인과 후세인 성인을 호함한 후에 계속된 혈연들.

우리의 예언자가 이 구절을 교우들에게 낭송했을 때, 아부 바크르 성인이 울기 시작했다. 교우들이 그에게 왜 우느냐고 묻자 그가 말했다. “이 구절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서거할 때가 가까워졌음을 가리킨다. 그래서 내가 우는 것이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메카에 열흘간 머물면서 작별의 하지 성지순례로 카바 주위를 순회한 다음 교우들과 함께 메디나로 돌아갔다. 작별 설교 이후 교우들은 자신들의 지역으로 돌아가 예언자의 명령들을 전달하였다.

히즈라 10 년에 일어난 또 다른 특이한 것은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거짓말쟁이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 중 하나는 예멘에 나타난 ‘아스와디 안시’였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의 명령에 따라 그는 예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살해되었다. (또 한 사람은 ‘무사일라마 깟다브’인데, 예언자가 서거한 뒤 아부 바크르 성인이 칼리드 빈 왈리드의 군대를 보내 와흐시가 그를 살해하였다.)

그는 부유함보다 가난함을 선호하였고 이를 자랑하니
그 관대함의 원천은 무력한 이들의 벗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옷을 손수 꿰매었으며 나막신을 신었다
그 관대함의 원천은 병자들을 방문하고 치료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가정을 돌보았으며
그 관대함의 원천은 모든 어려움을 풀어주었다
콩 국물과 보리빵뿐인 식탁에 초대되었을 지라도
그 관대함의 원천은 기꺼이 손님이 되어 주었다

그는 낙타나 말을 탔지만, 때로는 노새와 당나귀도 탔다
그 관대함의 원천은 어떨 때는 걷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예언자의 서거

히즈라 11 년이었다. 지브릴 천사가 와서 꾸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에게 낭송하였다. 그 전까지만 해도 지브릴 천사는 한 해에 한 번 꾸란을 전부 낭송해 주었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꾸란의 마지막 장, ‘나스르 장’의 낭송을 들었다.

‘알라후 테알라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그때에, 떼 지어 알라후 테알라의 종교로 귀의하는 백성들을 그대는 보리니, 알라후 테알라를 찬미하고 알라후 테알라께 관용을 구하라. 실로 그분은 관용으로 충만하시니라.’ (110:1-3 의 해석)

이때 예언자가 말했다. “오, 지브릴!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온 것 같소.” 그러자 지브릴 천사는 ‘두하(Duha) 장’의 구절들을 낭송하였다.
‘실로 그대에게는 사후 세계가 현세보다 더 나으리니,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대가 충만하다고 할 때까지 그대에게 온갖 은혜를 베풀실지라.’ (93: 4-5 의 해석)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메디나에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통지하기를 그날 정오예배 시간에 모두 성원으로 모이라고 전했다. 예배를 인도하고 난 뒤에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설교를 하였다. 그 설교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떨리게 하고 눈물이 쏟아지게 하였다. 예언자가 물었다. “여러분! 예언자인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우들이 대답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알라후 테알라께서 당신에게 큰 축복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당신은 자비로운 아버지이자 형제입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대로 당신은 예언자의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당신은 계시받은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충고하여 알라후 테알라와 이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였습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가장 아름답고 높은 보상을 당신에게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러자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말했다. “믿음이 깊고 경건한 자들이여! 나에게 남아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늦기전에 여기 나와서 받아가시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이 말을 세 번 되풀이하였다. 그러자 ‘우까샤’라고하는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 교우들 중에서 일어섰다. 그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 앞으로 가서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나의 부모가 당신을 위해 희생될 수 있기를! 나는 타북 성전 때 당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타북을 출발했을 때 내 낙타와 당신의 낙타가 나란히 갔지요. 나는 내 낙타에서 내려 당신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나는 당신의 축복받은 몸에 입을 맞추려고 간 것이지요. 그런데 당신은 채찍으로 나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나는 왜 채찍에 맞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예언자가 말했다. “오, 우까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대를 의도적으로 때린 그 채찍으로부터 보호하시기를!” 그리고는 명령했다. “오, 빌랄! 내 딸 파티마의 집에 가서 그 채찍을 내게 가져오라.” 빌랄 성인은 성원 밖으로 나와 손을 머리에 대고 생각에 잠겼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그 노인에게 보복의 기회를 주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다.’ 빌랄 성인이 파티마 성인에

게 가서 "오, 예언자의 딸 이여! 예언자의 채찍을 내어주시요" 하니, 파티마 성인이 "오, 빌랄! 지금은 하지 순례기간도 아니고 전쟁도 없거늘, 채찍으로 무엇을 하려나요?" 하고 물으니, 빌랄 성인이 "그대는 소식을 듣지 못해구려. 예언자에게 보복이 이루어질 것이요." 파티마 성인이 "예언자에게 그 누구가 보복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만은, 그대가 원하니 내어 주겠습니다. 다만, 하산과 후세인에게 전하여, 누가 보복을 하든, 예언자 대신에 이 아이들에게 하도록 해주시요. 절대 예언자에게 해를 주면 안됩니다." 라며 빌랄 성인에게 신신당부를 하였다.

빌랄이 채찍을 가져오자 예언자는 이를 우까샤에 주었다. 아부 바크르 성인과 우마르 성인이 이를 보고 있다가 "오, 우까샤! 우리에게 보복을 하라. 예언자에게 하지말라." 라며 애원했다. 예언자가 "오, 아부 바크르! 비켜나시오.
오, 우마르! 그대도 비키시오. 알라후 테알라께서 당신들의 높은 지위를 알려주셨소." 이번에는 알리 성인이 일어나 "오, 우까샤! 예언자에게 하지말라. 자, 나에게 하시오. 내 등어리에, 내 배에··· 원한다면 100 번이라도 치시오. 예언자에게는 손데면 아니되오." 하니, 예언자가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게.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그대의 높은 뜻을 이미 알고계시도다." 라하였다. 또, 하산과 후세인이 일어서 "오, 우까샤! 그대는 우리가 예언자의 손자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보복을 하세요. 이는 예언자에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언자를 때리지 마세요." 라고 말하니, 예언자는 "오, 나의 기쁨여! 그대들도 자리에 앉거라." 하고는 "오, 우까샤! 와서 때려라" 우까샤가 "오, 예언자여! 당신이 저를 쳤을 때, 저는 벌거숭이였습니다." 라 하니, 예언자는 축복의 등을 내 보이시니, 교우들 사이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고 "오, 우까샤! 예언자의 축복의 등을 치려하는가?" 라며 슬퍼하였다. 우까샤는 예언자의 등어리에 있는 예언자 표식을 보자 "어머니와 아버지를 당신을 위해 희생하리니, 예언자여! 당신의 축복의 등에 보복을 할 힘이 있는 자가, 그런 용기가 있는 자가 없습니다." 라며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의 등어리에 입맞춤을 하였다. 예언자는 "안된다. 때리던지, 아니면 용서를 하여야 한다." 라 말하니, 우까샤가 "당신을 위해 생명을 바치리니, 예언자여! 당신을 용서하였습니다." 라 했다. 우까샤의 원래 의도는 예언자의 몸에 입을 맞추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우까샤 노인을 부러워하며 그의 기지에 찬탄을 보냈다. 예언자는 "그 누가 천국에 있는 나의 친구를 보고자 한다면, 이 늙은이를(우까샤를) 보라" 하니, 교우들이 이를 듣고는 우까샤의 눈에 입맞춤을 하고는 "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우까샤! 예언자와 함께 하여 천국의 높은 지위를 얻었구려." 라며 부러워하였다.
사파르 달이 끝날 무렵 온 세상의 귀감은 북쪽에 있는 비잔틴 제국이 무슬림에 대한 큰 위협 세력이 되기 전에 그들을 다시 한 번 이슬람으로 초대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들이 만약 그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언자는 그들과 싸워 이슬람의 지배권에 넣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분은
교우들에게 비잔틴 제국과의 전쟁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알라후 테알라

의 사도는 우사마 빈 자이드 성인을 불러 그에게 말했다. "오, 우사마!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이름과 축복으로 다마스커스와 발카 국경,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다룸 등 그대의 아버지가 순교한 아주 먼 곳까지 알라후 테알라의 이름으로, 알라후 테알라의 축복으로 가거라. 그대의 말을 타고 그 땅들을 정복하라. 나는 그대를 사령관으로 임명한다. 즉시 우브날로 진격하여 번개처럼 그들을 공격하라. 목적지를 향해 아주 빠르게 이동하여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적들이 우리 소식을 듣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전방의 길잡이와 정찰대를 운용하여 기민하게 움직여라.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승리를 허락하신다면 그들과 함께 단기간 머물러라." 그런 뒤 예언자는 우사마 성인에게 명령하여 주르프에 지휘본부를 세우게 하고 몸소 이슬람의 깃발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우리의 예언자는 성원 안의 설교단에 올라가 말했다. "오, 나의 교우들이여! 우사마의 아버지 자이드는 훌륭한 지휘관으로 나의 사랑을 받았거니와, 그의 아들 우사마 또한 그 뒤를 이어 훌륭한 지휘능력을 갖추었다. 나는 그를 신뢰하고 사랑한다."

우사마 성인의 지휘 아래 전쟁에 참가하는 교우들 중에는 명망이 아주 높은 아부 바크르, 우마르, 아부 우바이다 빈 자라흐, 사아드 빈 왁까스 성인 등이 있었다.

그 다음 날 온 세상의 귀감이 갑자기 병석에 눕게 되었기 때문에 군대의 진격은 연기되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말라리아에 감염되었다. 열은 끊임없이 올라가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다. 어느 날 밤 고통이 약해지자, 그분은 침대에서 나와서 그가 옷을 챙겨 입고 외출준비를 하였다. 아이샤 성인이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예언자에게 물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어디로 가십니까?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대답했다. "바끼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청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분은 아부 무와이힙과 아부 라피를 데리고 공동묘지로 나갔다. 그 곳에서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한참 동안 기도를 올렸으며, 묻혀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줄 것을 간구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와 함께 있던교우들은 예언자의 끊임없는
탄원기도를 들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도 여기에 묻혀있다면 예언자의 탄원에 혜택을 입었을 것이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기도를 마치고 아부 무와이힙을 돌아보며 말했다. "오, 아부 무와이힙! 나는 세속의 보물들과 사후 세계에서의 축복 중 하나를 내 자유의 의지로 선택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또한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네가 원한다면 이 세상에 더 머물고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으며, 지금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와 만나기를 원한다면 곧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하셨다. 나는 알라후 테알라를 빨리 만나는 것을 선택하였다."

다른 어느 날, 예언자는 우후드에 묻혀 있는 순교자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러 갔다. 오랜 시간 동안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순교자들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 그런 뒤에 예언자는 성원으로 돌아와 교우들에게 말했다. "우리 중에 내가 가장 먼저 천국에 있는 카우사르 샘물에 갈 것이며, 거기서 여러분들을 만날 것이다. 나는 내가 가고 난 뒤에 여러분이 다신교로 개종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나는 여러분이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세속의 욕망에 빠지거나 그 때문에 서로 질투하고 서로 죽이는 것을 염려할 뿐이다. 선조들이 죽어 사라진 것처럼, 여러분도 사라질까 염려스럽다." 그리고 예언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다. 그분의 축복받은 아내들은 예언자가 아이샤 성인의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에관하여 다른 아내들이 예언자와 함께하는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다. 우리의 예언자는 아내들의 이러한 자기헌신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며, 남은 시간을 아이샤 성인의 집에서 보내기로 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고열에 더욱 시달렸다. 이 열병의 고통 때문에 우리의 예언자는 침대 위에서 이리저리 몸을 뒤척였다. 교우들이 그분을 방문하여 이 모습을 보고 매우 슬퍼하였다. 아부 사이디 후드리이는 이렇게 술회했다. "예언자에게 병문안을 갔다. 덮고 있던 양단 이불 밖으로 열이 뿜어져 나왔다. 그 열기로 인하여 덮개를 건들지도 못하였다. 놀라고 슬퍼하는 우리에게 예언자는 "가장 커다란 고통은 예언자들에게 주어진다. 이러하니 예언자의 고통은 당신들에게 내린 은혜보다 더한 기쁨이라." 라고 하였다.

움무 비시르 바라가 술회했다. "예언자에게 병문안을 갔을 때, 그분의 몸이 불과 같았다. "당신을 위해 생명을 바치리니! 오, 예언자여! 저는 이렇게 혹독한 병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니, 예언자가 "오, 움무 비시르! 말라리아가 혹독함은 나의 선행이 많음으로 인한 것이다." 나는 카이바르에서 독이 든 고기를 먹었는데, 그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다. 그 독 때문에 나의 대동맥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예언자는 압둘라 빈 마스드를 불러 "병에 걸리지 않는 무슬림은 그의 실수와 죄를 알라후 테알라로부터 사함을 받지못하리다. 무슬림은 마치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사귀 같이…"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다. 교우들은 비통에 잠겼으며, 집에 있어도 불안을 느꼈기 때문에 성원에 모였다.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알리 성인을 예언자의 집으로 보냈다. 그러자 예언자가 물었다. "교우들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알리 성인이 말했다. "그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으며,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우리를 떠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자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격심한 고통을 견뎌내면서 알리 성인과 파들 빈 압바스 성인의 부축을 받으며 성원으로 갔다. 예언자는 설교단에 올라가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를 찬미한 후 교우들에게 말했다. "오, 나의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이 나

의 죽음을 걱정하고 있다고 들었다. 여러분이 나에게 영원히 남아있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어떤 예언자가 그의 공동체에 영원히 남아 있었는가 나는 알라후 테알라를 만나러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조언하니, 교우들 중에서 메디나로 이주해 온 연장자들을 존경하라. 메디나로 이주해온 사람들에게 조언하니, 메디나 원주민들을 선량하게 대하라. 그들은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을 행하였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집을 보호시설로 제공하였다. 그들은 자기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도움을 베풀었다. 그들은 자기 재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다. 만약에 여러분 중 누구든지 그들을 지휘하는 위치에 서게 되면 그들을 잘 보살피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야 할 것이다."

그런 뒤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심정을 울리게 하는 조언들을 해 주면서 말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자신의 종에게 선택권을 주어 이 세상에 머무는 것과 알라후 테알라를 만나는 것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하셨다. 그분의 종은 알라후 테알라의 세계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그분이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임을 표현한 것이었다. 아부 바크르 성인이 이 말의 뜻을 알아차리고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우리의 생명을 당신을 위해 희생하게 하소서!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아부 바크르 성인에게 "울지 말라" 고 하면서 그가 이 시기를 인내하고 견뎌내야 한다고 명령했다. 예언자의 축복받은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분은 선언했다. "오, 나의 교우들이여! 나는 이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아끼지 않은 아부 바크르를 대단히 훌륭하게 평가한다. 만약 세상을 떠나는 길에 친구를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아부 바크르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아부 바크르의 집을 제외하고 성원쪽으로 문이 열려있는 교우들의 모든 집의 문을 닫을 것을 명령했다. 예언자는 설교단에서 내려와 아이샤 성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교우들은 슬픔에 겨워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그 후에도 예언자는 알리 성인 등의 부축을 받으며 다시 한 번 성원에 들러 설교단의 맨아래 계단에서 교우들에게 말했다.

"무하지르여! 안사르여! 어떤 일이 이미 예정이 되었을 때, 그것을 얻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그분의 종들에 관하여 서두르심이 없으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 정하신 운명과 숙명, 그리고 그분의 의지를 바꾸고자 시도한다면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분노로써 그를 멸망시킬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를 속이려 든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일에 대한 통제를 상실할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열정적이었고 자비로웠음을 알라. 여러분은 나를 다시 만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나를 만날 곳은 카우사르 샘물가이다. 누가 천국으로 들어가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근거없는 무지한 이야기를 하지말라. 오, 무슬림들이여! 불신과 범죄는 그 사람의 생명력을 단축시킬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계명에 복종한다면 그들 통치자와 행정관과 지도자들도 백성들에게 자비롭고 친절하게 대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사악하고 무례하며 죄 받을 백성이라면 그들의 지도자가 자비로울 수가 없다. 내 삶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였다면, 나의 죽음 또한 여러분에게 은혜와 열정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만약,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내가 때리거나 나쁜 말을 했다면, 나에게 똑같이 하여 권리를 찾아가고, 여러분의 물건을 합당하지 않게 가져갔다면, 이를 되돌려 줄수 있어 기뻐할 것이다. 권리을 이행함에 준비가 되었다. 이 세상에서 처벌은 사후 세상의 처벌에 비해 아주 가볍워, 여기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이롭다."

이전에 예언자는 아부 바크르 성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표현한 것처럼, 이번에는 우마르 성인에 대한 깊은 사랑을 설교를 통해 밝혔다. "우마르는 나와 함께 있고, 나는 우마르와 함께 있다. 내가 떠난 뒤에 정의는 우마르와 함께 할 것이다."

설교를 마치고 설교단에서 내려와 의무예배를 마치고 그는 다시 설교단 위에 올라와 마지막 자신의 결의와 유언을 밝히고 몇 가지 조언을 곁들이며 말했다. "나는 여러분을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위탁합니다."

어느 날 격렬한 통증으로 괴로운 상태에서 온 세상의 귀감은 권리를 이행하여 이를 떨치고 사후 세상으로 가기위해 빌랄 성인을 불러 명령했다. "사람들을 성원으로 불러라! 나의 마지막 결의와 유언을 그들에게 선언해야겠다." 빌랄 성인은 모든 교우들을 성원으로 집합시켰다. 우리의 예언자는 알리 성인 등의 부축을 받으며 성원에 도착했다. 설교단에 앉아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를찬미한 후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말했다. "오, 나의 교우들이여! 이제 내가가야 할 시간이 임박하였다. 나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사람은 앞으로 나와그것을 요구하라. 아니면 이를 용서하라. 그러면 내가 이
무거운 짐을 벗고알라후 테알라께 갈수 있으리라" 그리고는 설교단에서 내려와 정오예배를 인도하였다.
예배가 끝나자 다시 한 번 설교단에 올라 예배 전에 했던 말을 반복하였다. 예언자가 서거하기 사흘 전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분은 성원으로 가서
예배를 인도할 수 없게 되었다. 대중들 앞에서 거행하지 못한 첫 예배는 밤
예배였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빌랄 성인이 시간에 맞추어 문 앞에서 알렸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예배시간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성원으로 갈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기에 빌랄에게 말했다. "아부 바크르에게 이맘이 되어 교우들의 예배를 인도하라고 전하라." 그러자 아이샤 성인이 예언자에게 말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제 아버지는 마음이 온화하고 약하기 때문에 당신

의 자리에 대신 서서 당신을 보지 못하게 되면 울음 때문에 예배 인도와 꾸란 낭송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우마르에게 맡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예언자는 다시 말했다. “아부 바크르에게 예배를 인도하라고 전하라.” 그리하여 빌랄 성인은 아부 바크르 성인을 찾아가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아부 바크르 성인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회중의 앞에 서 있지 않자 마음의 충격을 받아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었다. 그는 울고 또 울었다. 교우들도 울기 시작했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성원 쪽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대하여 묻자 파티마 성인이 대답했다. “당신과의 이별을 견딜 수 없어 교우들이 울고 있는 소리입니다.”

자비로움의 바다인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비통한 심정이 되었다. 병세가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교우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어렵게 몸을 일으켰다. 알리 성인과 압바스 성인의 도움을 받아 성원에 도착하였다. 예배가 끝난 뒤 예언자가 말했다. “교우들이여! 여러분은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보호 아래 있으며, 나는 여러분을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위탁했다. 신앙의 길에 머물고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를 두려워하라.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의 계명에 복종하고 이를 실행하라. 나는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아브 바크르 성인은 교우들을 위한 이맘으로서 17 회의 예배를 인도하였다. 한 번은 그가 정오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때 몸이 일시적으로 평온을 찾은 예언자가 알리 성인과 압바스 성인의 도움을 받아 성원에 도착하였다. 아부 바크르 성인은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가 그곳에 왔다는 것을 알고 뒤로 물러서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예언자는 그에게 신호를 보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였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는 아부 바크르 성인의 왼쪽에 서서 교우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이맘이 되어 예배를 인도했다.
경제난을 겪고 있었다. 오로지 교역 상인들만이 비교적 양호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우리의 예언자는 형편이 나은 교우들에게 전쟁에 참가할 병사들의 장비를 지원해주기를 원하였다. 이에 따라 교우들이 행동에 착수하였다. 모든 교우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놓아 전쟁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우리 예언자와 동굴 속에 함께 피난했던 아부 바크르 성인은 그의 재산 모두를 기부하였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물었다. “오, 아부 바크르! 당신의 가족들을 위해 무엇을 남겨주었나요?” 그가 대답했다.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와 그의 사도를 남겨주었습니다.” 우마르 성인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았다. 우리의 예언자가 물었다. “오, 우마르! 당신 가족을 위해 무엇을 남겼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내가 기부한 것만큼 남겼습니다.” 예언자가 말했다. “당신 두 사람의 차이는 두 사람의 말의 차이와 같습니다.” 그러자 우마르 성인이 말했다. “오, 아부 바크르! 나의 부모가 당신을 위해 희생되기를! 당신은 선행에 있어 어떤 면에

서도 나를 능가합니다. 이제 나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당신을 초월할 수 없다는 것을 잘 깨달았습니다." 라 하며 그를 떠 받들었다.

에삽교우들은 가능한 한 모든 조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위선자들은 그들을 조롱하며 말했다. "당신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기부하는 것이오." 예언자가 말했다. "오늘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그 행위로 인하여 심판의 날 알라후 테알라 앞에서 자신을 옹호해주는 증인을 얻을지다." 이러한 예언자의 축복받은 말로 인하여 믿는 자들의 지원은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우스만 빈 아판 성인은 군대 장비의 3 분의 1 을 충당하는 거금을 기부하여 무슬림 중에서 가장 협력을 많이 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가죽으로 만든 물주머니를 꿰매기 위한 바늘쌈지까지도 준비하는 완벽한 자세로 군대의 수요에 대응하였다. 그의 이 같은 지원에 대해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말했다. "오늘부터 우스만의 죄악은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형편이 여의치 않은 교우 중의 한 사람은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대추야자 밭에 물을 길러 날랐으며, 댓가로 얻은 대추야자를 우리의 예언자에게 바치며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알라후 테알라의 사랑을 얻기 위해 제가 가진것을 가져왔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무슬림 남자들은 자기 역량에 맞추어 힘을 쏟았으며, 여자들도 지체 없이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했다.

타북 원정의 준비를 하던 그 기간은 무슬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였다. 기근이 아주 극심하여 내놓을 것이 없는 교우들이 우리의 예언자를 찾아와 말했다.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우리는 탈 것도 먹을 것도 내놓을 것이 없으니 우리는 당신과 함께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여 알라후 테알라로부터 선행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우리의 예언자는 그들에게 타고 갈 동물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번은 살림 빈 우마이르 등 여섯 사람이 예언자를 찾아와 똑같은 요청을 하였다. 우리의 귀감은 슬퍼하면서 그들에게 말했다. "타고 갈 동물을 마련할 방도가 없소." 그들은 성전에 참가할 방법이 없음을 알자 슬픈 심정을 가눌 길 없어 울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타우바 장'의 계시를 내리셨다.

'그들에게는 죄가 없도다. 그들이 그대에게 찾아와 타고 갈 것을 구하나, "너희가 타고 갈 것이 내게 없음이라" 하니, 그들은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슬픔에 잠겨 돌아설 때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더라..' (타우바장 9:92 의 해석)

결국 압바스 성인과 우스만 성인이 그들의 장비 역시 마련해줌으로써 그들은 성전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전쟁 준비가 끝나자 우리의 예언자는 무슬림 전사들을 사니야툴 와다에 집결시켰다.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극소수였다. 알

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무함마드 빈 마슬라마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메디나에 남기고 원정을 떠날때 말하길, "여벌의 신발을 준비하라. 그리하면 어려움을 겪지 않을것이다."

군대가 행진을 시작했을 때 위선자들의 우두머리 압둘라 빈 우바이가 무슬림들을 겁주기 위해 터무니없는 말을 내뱉었다. 심지어는 "내가 맹서하건데 그와 그의 교우들이 둘씩 둘씩 밧줄로 묶여 있는 형상이 보인다." 교우들은 이 교우들에게 밖으로 나가라 하였다. 해가 중천에 이르렀고, 그 시각이 다가왔다. 예언자의 축복 받은 머리가 아이샤 성인의 가슴에 안겨져 있었다. 만물의 귀감, 예언자는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 잊지마시오, 데리고 있는 노예들에게도 잘 대해야 하오. 그들에게도 의복을 입히고 배부르게 하시오! 그들에게 부드럽게 명령하시오! 의무 예배를 빠뜨리지 마시오! 부인들과 노예들의 처우에 있어 알라후 테알라를 두려워하여야 하오!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저를 용서하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를 라피키 알라[39]의 높이로 하여 주소서! 라며 말을 연달아 하니, 파티마 성인이 눈물을 쏟으며 심장이 떨리도록 우니, 예언자가 옆에 앉아 "오, 파티마! 나의 영혼이 떠나려 한다. '인날라히 와 인나 일라이히 라준 [40]'이라 읊으라. 오, 파티마! 모든 업적에 대한 보상이 있을지다." 하며 예언자는 잠시 동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말하였다. "이제 너의 아버지로 인한 더 이상의 슬픔이 없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는 고통스러운 곳으로부터, 일시적인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고는 알리 성인에게 "오, 알리! 나의 채무에 어떤 유대인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 군대를 형성하기 위해 내가 빌렸던 것이다. 절대 이것을 잊지말고 갚으라." 사랑하는 파티마 성인이 눈물을 닦았다. "채무를 이행하여 카브사르 샘에서 나와 만날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너로다. 나 이후 너에게 많은 해가 있을지다. 인내하라. 사람들이 이 세상을 선택하더라도 너는 사후 세상을 선택하라." 하였다. 우사마가 오자, 예언자는 "알라후 테알라께서 그대를 도우시리라! 서둘러 전쟁터로 가라." 라 하니, 그가 즉시군대로 돌아가 진격의 명령을 내렸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는 이제 마지막 숨을 내쉬는 듯··· 시간이 임박하였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아지라일 천사에게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온화한 모습으로가라! 그가 허락한다면, 가장 부드럽고 가볍게 그의 영혼을 거두라. 만약 허락치않으면, 되돌아 오라!" 라 명령하셨다. 아지라일 천사는 아주 온화한 얼굴을 하고,사람의 의복을 착용하여 예언자의 축복의 집 앞으로 왔다. "오, 이 축복받은 집의 주인이여!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시나요? 알라후 테알라께로 당신을 데려가도 될지요?" 라 물었다. 아이샤 성인이 예언자 옆에 있던 파티마 성인에게 "저 손님에게 그대가 대답하라." 파티마 성인이 문으로 가서 아주 슬픈 목소리로 "오, 알라후 테알라의 종이여! 지금 예언자

[39] 예언자들과 진정한 무슬림들의 영혼이 모여있는 곳.
[40] '우리는 알라후 테알라로부터 왔고 알라후 테알라께로 돌아간다(바카라 장 156의 해석)

는 자신을 돌보기에 바쁩니다." 라 하였다. 아지라일 천사가 다시 허락을 구하나 똑 같은 대답을 하였다. 세 번째는 큰 소리로 꼭 들어가야 한다고 하자, 예언자가 이 소리를 듣고 "오, 파티마! 문 앞에 누가 왔느냐?" 라 물으니, 파티마 성인이 " 오, 예언자여! 문에서 누가 꼭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여 몇 번 거절하였지만, 3 번째로 그가 다시 요구할 때 그 목소리 때문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예언자가 " 오, 파티마! 그가 누군지 아느냐? 그는 달콤함을 앗아가는, 민중을 기겁하게 만드는, 부인들을 미망인으로 만드는, 아이들을 고아로 만드는, 가정을 깨고, 무덤을 준비하는, 바로 아지라일 천사라. 아지라일! 들어오시오." 이를 듣는 순간, 파티마 성인은 표현할 수 없는 무아지경에 빠져 이렇게 반복했다. "오, 메디나는 망했도다!"

예언자는 사랑하는 파티마 성인의 손을 가슴에 얹고는 눈을 감았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여겼다. 파티마 성인이 참지 못하여 울면서 예언자의 귀에 가슴이 타는 듯한 심정으로 말했다. "오, 아버지여!" 라 부르나 대답이 없자, "당신을 위해 내가 생명을 바치리니! 제발 눈을 뜨시고 제게 한 마디라도 말씀해 보세요." 예언자는 감았던 눈을 뜨고는 그녀에게 이제 작별의 때가 왔다고 알렸다. 파티마 성인이 울면서, 이번에는 "나의 백성들 중에 제일 먼저 니가 내게로 오리라." 라 말하니, 그녀가 이 소식에 기뻐하여 위로를 받았다. 파티마 성인이 "오, 아버지! 오늘이 작별의 날이나, 언제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나요?" 라 하자, 예언자가 "오, 나의 딸이여! 종말의 날에 나를 샘물이 있는 곳에서 만날 것이다. 나의 백성들에게 물을 대접할 것이다." 라 말하자, 파티마 성인이 "만약, 아버지를 그곳에서 찾지 못한다면 어쩌나요?" 하자 예언자가 "미잔[41]이 있는 곳에서 나의 백성들에게 사면을 하고 있으리다." 라
하였다. 파티마 성인이 다시 "거기서도 못찾는다면, 오 예언자여!" 라 하자, 예언자가 "스랏 다리에서 나를 찾을 것이다. 나는 그곳에서 알라후 테알라께 '오, 알라후 테알라! 나의 백성들을 불로부터 보호하소서'라고 애원할 것이다." 라 하였다. 이후에 알리 성인이 다가와 "오, 예언자여! 생명을 거둔 후, 당신을 누가 씻기고 수의를 입히고, 무엇을로 덮나요? 누가 당신을 위해 기도자가 되고, 또 누가 무덤에 안치를 시킬 건가요?" 라 물었다. 예언자는 "오, 알리! 그대가 나를 씻기고, 파딜 빈 압바스가 물을 붓게하라. 지브릴 천사가 제 삼자가 되어 도우리다. 나를 씻긴후, 지브릴 천사가 천국으로부터 가져온 것으로 덮어라. 나를 예배장으로 데려가라. 첫 번째로 지브릴 천사가, 그 다음에는 미카일 천사, 이후에 이스라필 천사가 마지막에는 모든 천사들이 단체로 기도를 수행할 것이다. 이후 모두가 모여서 나의 뒤로 자리잡고 그 어떤 누구도 나의 앞에 서지 않게 하라."

그리고 나서 아지라일 천사에게 물었다. "오, 아지라일! 그대는 나는 방문하러 온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영혼을 데리러 온 것인가?" 아지라일 천사가 "그 두가

[41] 선과 악을 재는 저울.

지 모두가 목적입니다. 당신을 방문하고 또 당신의 영혼을 데리러 왔습니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명하시길, 당신의 허락하에 수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신의 허락하에 당신을 영혼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제가 영혼을 데리고 알라후 테알라께로 가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알라후 테알라께 혼자 돌아가겠습니다." 예언자가 말했다. "오, 아지라일! 지브릴을 어디에 두고 왔소?" 아지라일 천사가 "지브릴을 이 세상의 창공에 남겨 두었습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 천사들이 문상을 오니 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중, 지브릴 천사가 내려왔다. 예언자가 지브릴 천사에게 "오, 형제여! 이제 이주할 때가 왔도다. 이 세상의 창공에 알라후 테알라께서 무엇을 보내셨는가? 나에게 기쁨을 전하시오. 그리하여 내가 평화로운 마음이 되어 나의 알라후 테알라께 그 믿음을 전하겠소." 지브릴 천사가 말하길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랑하는 자여!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내가 떠나왔습니다. 줄을 지은 천사들이 당신의 영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니, 예언자가 "천국은 알라후 테알라의 것일지라!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소! 알라후 테알라 앞에 나를 위하여 무엇들을 준비하였는가?" 라 물으니, 지브릴 천사가 "오, 예언자여! 당신의 영광스러운 도달을 위해 하늘의 문을 열었고, 강물이 흐르고, 나무들이 줄기를 느러뜨리며, 천국의 여인들이 단장을 하였습니다." 라 하였다. 예언자는 또, "감사는 알라후 테알라께 속하는 것이라! 그대는 나에게 다른 기쁜 소식을 전하겠는가? 지브릴!" 하니, 지브릴 천사가 "오, 예언자여! 그대는 심판의 날 첫 번째로 중재를 요청하여 첫 번째로 중재가 받아들여 질 것입니다." 하니, 또 예언자는 "감사는 알라후 테알라께 속하는 것이라! 그대는 나에게 다른 기쁜 소식을 전하겠는가?" 하니, 지브릴 천사가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당신은 무엇을 듣고 싶은가요?" 하니, 예언자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나의 모든 염려와 슬픔은 나 이후의 나의 백성들이다." 라 하였다. 지브릴 천사가 "오, 알라후 테알라의 가장 사랑하는 이여! 지고하신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종말의 날, 그대가 만족할 때까지 그대의 백성들을 용서하실겁니다. 모든 예언자들 보다 더 먼저 그대를, 모든 백성들 중에서 그대의 백성들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하니, 우리의 사랑의 예언자는 "알라후 테알라 앞에서 3 가지 청이 있습니다. 첫째로, 나의 백성들을 중재할 수 있게 하시고, 두번째로, 이 세상에서 저지른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을 처벌치 마시며, 세번째로, 목요일과 월요일에는 나의 백성들의 선악 기록을 나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선악기록이 좋은 쪽이라면 기도하여 알라후 테알라께서 받아들이시라. 만약 나쁜 쪽이라면 사죄 요청을 하여 선악기록을 지워달라 요청하겠습니다.) 지브릴 천사가 이 세가지 청을 알라후 테알라께서 허락하셨다는 소식을 전하여 주었다. 이렇게 하여 예언자는 마음이 편안해 졌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계시하시어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너의 백성들을 그 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누가 주었는고?" 라 물으시니, 예언자가 "나를 창조하시고 가르치신 나의 알라후 테알라께서십니다." 라 답변하였다. 알라후 테알라께서 " 너의 백성에게 나의 관대함과 자비로움은 너의 것의 천배로다. 그들을 나에게 맡

기라." 예언자는 "이제 마음이 평온하니, 아지라일 천사여! 명령 받은 데로 수행하시오!" 라 말하였다. 아지라일 천사가 임무를 수행하고자 예언자 가까이로 다가갔다. 예언자는 축복 받은 손을 뻗어, 물 바가지에 있는 물을 적셔 축복받은 얼굴에 묻혔다. 그리고 "라일라하 일랄라! 오 알라후 테알라, 라피키알라…" 라하였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다하고 그 영혼은 알라후 테알라께로 갔다…

아살라튜 와살라뮤 (평온과 기도가 당신에게 있기를)
알라이카 오 라술룰라흐!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아살라튜 와살라뮤 (평온과 기도가 당신에게 있기를)
알라이카 오 하비불라흐!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랑하는 자여!)아살라튜 와살라뮤 (평온과 기도가 당신에게 있기를)
알라이카 오 사이드알 (오, 알라후 테알라의)
아왈리나 왈아히린! (과거와 현재의 귀감이여!)
세파아트 오 라술룰라흐! (중재해 주세요,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다흐얄크 오 라술룰라흐! (우리의 안식처,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지브릴 천사가 예언자에게 "아살라뮤 알라이큠[42]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당신은 나의 의미이고 목적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에 땅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 말하였다.

예언자의 축복 받은 영혼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파티마 성인과 부인들이 " 라디얄아후 안후마 [43]" 라면서 소리내어 통곡하였다. 이때, 어디선지 알수 없는 소리가 들렸다; "아살라뮤 알라이큠, 오, 백성들이여! 라흐메툴라히 와 바라카튜휴[44]" 라 인사를 하며 "모든 생명들은 죽거늘, 이를 숙지하라! 심판의 날 행동에 대한 보상이 있으리라." 라는 의미의 이므란 장 185 절을 읊었다.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알라후 테알라의 보상과 은혜를 믿으라. 그분에게 매달려 그분에게서 희망을 구하라. 울부짖지 말거라. 진정한
희생자는, 선행을 멀리한 자들이로다." 라며 조언하였다. 이 소리를 모든 사람들이 듣고는 답변 인사를 하였다. 이는 흐즈르 선지자의 목소리였다.

예언자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증표들이 보이자, 움미 아이만은 아들 우사마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우사마 성인은 우마르 성인과 아부 우바이다 성인과 함께 사망의 아픈 소식을 듣고는 군대를 떠나 나비 성원으로 돌아왔다. 아이샤 성인과 다른 아내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성원에 있던 교우들이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였다. 모두들 머리가 멍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알리 성인인 죽은 듯이 서있었다. 우스만 성인은 할 말을 잃었다. 아부

[42] 알라후 테알라의 안부가 그대에게 있기를.
[43] 알라후 테알라의 허락이 있기를.
[44] 알라후 테알라의 안부와 용서와 관용이 있기를.

바크르 성인은 집에서 바쁘게 뛰어왔다. 즉시 예언자에게 갔지만 이미 늦었다. 아부 바크르 성인이 덮게를 열어보니, 축복 받은 얼굴과 몸이 장엄하고 깨끗하며 빛이 났다. 그는 예언자에게 입 맞춤을 하며, "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여!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당신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는 고통으로 인하여 슬피 울면서 다시 덮게를 덮었다. 성원으로 가서 설교단으로 올라가 설교를 하였다. 알라후 테알라께 감사와 찬미를 드렸다.

"누구든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를 믿는 자들은 그분이 사망하였다는 것을 알지다. 누구든 알라후 테알라께 복종 하는 자는 죽지 않으며 영원하리라." 라 말하고는 예언자를 위하여 자비를 구하는 탄원을 한 후에 이므란 장의 144 절을 읊었다.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요. 이전에도 많은 예언자들이 와서 사망하였도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도 사망할지라. 그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대들이 종교를 포기하려는가? 종교에서 타락한다면 알라후 테알라께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 종교를 지키는 자들에게 알라후 테알라께서는 보상을 내리실 것이라." (이므란 장 144 의 해석)

아부 바크르 성인은 이렇게 교우들을 위로하여 진정시켰다. 예언자의 사망 사실을 모두가 받아들이고 슬픔과 시련에 빠졌다. 교우들의 마음은 독이 퍼진 듯이 고통스러웠다. 교우들은 흐느꼈으며, 눈물이 홍수와 같았고, 이 이별은 교우들의 마음을 태웠다.

교우들은 제일 먼저, 일을 수습하고 진행하기 위하여 통치자로 아부 바크르를 선정했다. 그의 명령에 복종하고 임무를 수행하였다.

예언자는 히즈라 11 년 (서기 632 년) 라비울 아왈 달, 월요일에 서거하였다. 그가 월력으로는 63 세, 태양력으로는 61 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알리 성인, 압바스 성인, 파들 빈 압바스 성인, 꾸삼 빈 압바스 성인, 우사마 빈 자이드 성인, 살리 성인 등이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를 씻겼다. 예언자의 몸에서는 여태까지 맡아 보지 못한 사향 냄새가 풍겨져 나왔다. 그 누구도 여태까지 이러한 향을 맡지 못하였다. 그분의 몸이 덮개로 가리워졌다. 그리고는 깔개 위에 눕혀 성원으로 옮겨졌다. 이전에 예언자가 지시한대로, 교우들은 모두 밖으로 나갔고, 천사들이 무리를 지어 예배를 올렸다. 알수 없는 목소리가 "들어오시오!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가 가르쳐준 예배를 올리시오!" 라 하여 교우들이 들어와 예배 인도자 없이 각각 예배를 올렸다. 수요일 저녁이 되어서야 모두 예배를 마칠 수 있었다.

교우들이 예언자의 무덤을 파는 데 있어서, 아부 바크르가 기억해 낸, 하디스 셰리프. '예언자들은, 사망한 곳에 묻힌다.'에 따랐다. 안사르 무슬림, 아부 탈하 성인이 수요일 저녁까지 무덤의 반을 팠다. 압바스 성인의 아들, 꾸삼이 무덤을 완성하고 마지막으로 구덩이에서 나왔다. 그가 말하길 "나는 예언자의 축복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분의 축복받은 입이 움직였고, 나는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분이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나의 백성들을… 오, 나의 알라후 테알라! 나의 백성들을… " 이라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예언자가 세상을 떠난 날, 압둘라 빈 자이드 성인은 "오, 알라후 테알라! 저는 사랑의 예언자를 보기 위해 두 눈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분을 볼 수 없으니. 이제 어찌합니까! 오, 알라후 테알라! 저의 두눈을 거두어 주소서!" 라 기도를 하여 눈이 멀게 되었다.

종교를 배반하는 행동들

온 세상의 귀감, 예언자의 서거 이후, 종교를 배반하려는 움직임이 거대하게 퍼져 나갔다. 아부 바크르 성인은 이를 막기위하여 자신을 바쳤다. 만약에 그처럼 능숙한 사람이 없었다면, 이런한 움직임은 아라비아 전지역으로 확산되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아이샤 성인이 이렇게 술회했다. "예언자가 서거했을 때, 아랍의 위선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아버지에게 내려진 이 무거운 짐이 저 산에 내려졌다면, 산이 산산이 흩어졌으리다!"

아부 후라이라도, "만약, 아부 바크르가 없었다면,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의 서거 이후,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의 백성들은 소멸하였을 것이다!" "유일하신 알라후 테알라께 맹세컨데, 아부 바크르를 통치자로 하지 않았더라면, 높으신 알라후 테알라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세번이나 되풀이 하였다. 아부 라자울 우타리디가 말하기를 "메디나에 왔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이 '그대가 없었더라면, 결코 우리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요." 라며 어떤 사람의 머리에 입을 맞추는 것을 보았다. '입을 맞춘 사람과 입 맞춤을 받은 사람이 누구요?'라 물으니, '배신자들과 대적한 아부 바크르의 머리에 우스만이 입을 맞추었다오.'라 대답하였다."

아이샤 성인은 이렇게 술회하였다. "아버지가 배반자들에게, 칼을 빼어 들고 낙타에 올라 타니, 알리 성인이 다가와 낙타의 고비를 잡고는 "우후드 전투에서

예언자에게 이야기 했던 것을 지금 그대에게 들려줍니다. "칼을 칼집에 넣으시고, 당신을 위험에 빠뜨려 우리를 슬프게 하지 마시라. 진정으로, 그대에게 재앙이 온다면, 당신 이후에 이젠, 이슬람의 초석이 흔들릴진데!" 라 읊었습니다." 예언자의 서거 이후, 많은 아라비아인들이 배반을 하여, 유대교도, 기독교도와

위선자들이 나타났다. 이슬람교도들은 겨울 비를 맞은 양때처럼 되어버렸다. 더욱이, 메카 사람들 대부분이 이슬람을 배반하려 하여, 수하일 빈 아므르, 카바의 문 앞을 지키며 메카 사람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들에게 능숙한 언변으로 의심스러움을 거두고 종교를 지키도록 설득하였다.

이슬람 역사에 따르면, 종교를 배반하였다는 의미로는 '일티자-이전으로의 회귀', 종교를 배반한 자를 '물테지-이전으로 회귀한 자'라는 뜻으로 이 이후에 사용된 단어들이다.

예언자의 서거 이후, 위선자들은 군중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집단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로 되돌리기 시작하였다. 수하일 빈 아므르 성인이 카바에서 한 설득은 이러했다. "오, 메카의 민중들이여! 그대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한 마지막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종교를 배반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진정으로 알라후 테알라와 그분의 사도의 말씀대로, 종교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가 서 있는 이자리에서 나 홀로 있을 때 예언자가 "나와 함께 라일라하 일랄라흐를 읊어, 그대를 본보기로 하여 아랍인들이 무슬림이 되고, 아랍인이 아닌 사람들은 당신들에게 세금을 바치게 할지라! 진정으로 페리시아가 알라후 테알라를 위하여 희생될 것이라." 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희롱하던 자들이 희사를 하고 헌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은 자들도 모두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알고 있으니, 해가 뜨고 지는 한, 이 종교는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들 사이에 들어와 당신들을 현혹시키지 않도록 하시오. 내가 진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심가의 자손들은 질투심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 민중들이여! 나는 꾸라이쉬에서 육지에서 바다에서 가장 많은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명령을 받들고 희사를 하십시요. 만약, 이슬람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들의 희사를 모두 되돌려 줄것입니다." 라면서 울었다. 민중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수하일 성인의 설득력 있는 간청에 메카 사람들은 종교를 배신하는 것을 포기 하였다. 그제서야 메카의 행정관은 민중 앞으로 나왔다. 수하일 성인은 바드르 전투에서 다신교도들 사이에서 싸우다가 포로로 잡혔을 때, 예언자는 우마르 성인에게 "그대를 창피하게 하지 않을, 연설을 할 사람이다." 라는 말로 '기쁨을 선사할 설교'를 지칭한 것은 바로 이 연설이었다. 그가 커다란 업적을 쌓으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우마르
성인은 수하일의 연설을 듣고는, 예언자가 수하일 성인에 대한 표현에 대하여 "내가 맹세하건데, 당신은 알라후 테알라의 사도이십니다." 라며 감동하여 말하였다.

"만약 그대가 없었다면, 나는 이세상 그 어떠한 것도 창조하지 않았으리라."-하디스 쿳시

“예언자(평화가 그분에게 깃들기를) 무덤 안의 그분의 몸에 닿아있는 흙은 천국을 포함한 세상 만물 그 어떤 것보다도 더한 가치가 있다.”-이슬람 학자들.

연대기

571	예언자 무함마드 알라히살람의 출생(라비알라왈 달 12일, 서기 571년 4월 20일) 유모 할리마 부인에게 맡겨짐
574	유모 할리마 부인이 메카로 돌아와 예언자를 어머니 아미나 성인에게 돌려줌
575	어머니의 서거 할아버지 압둘 무탈립에게 맡겨짐
577	할아버지 압둘 무탈립의 죽음 그리고 숙부 아부 탈립의 보호를 받음.
578	숙부 아부 탈립과 함께 시리아로 교역을 떠남
583	숙부 아부 탈립과의 시리아 교역 여행과 수도자 바히라가 최후의 예언자임을 증언함.
588	숙부 주바이르와 함께 예멘으로의 교역 여행
595	카디자 성인의 교역단을 이끎고 다마스커스로의 교역 여행
596	카디자 성인과의 결혼
606	카바를 재건할 때, 현명한 방법으로 하자룰아스와드를 제자리에 놓음
610	히라 동굴에서 첫 계시를 받음
613	3년에 걸친 비밀 포교활동 후, 사파 언덕에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함
615	무슬림들의 에티오피아로의 이주
616	함자 성인의 이슬람으로의 개종 우마르 성인의 이슬람으로의 개종
619	카디자 성인의 서거 아부 탈립의 서거
620	승천 첫 번째 아카바 서약
621	두 번째 아카바 서약
622	메카로부터 메디나로의 이주
623	바드르 전투와 승리 키블라가 마시드 악사에서 카바 신전의 방향으로 바뀜 열악한 환경에 처한 교우들을 위한 '수파'를 만듬 아이샤 성인과의 결혼
624	딸 루키야 성인의 서거 딸 파티마 성인과 알리 성인의 결혼
625	우후드 전투

함자 성인의 순교
손자 하산 성인의 탄생(라마단 달)
손자 후세인 성인의 탄생(샤반 달) 우마르 성인의 딸, 하프사 성인과의 결혼
627 참호전투
628 후다비야 협정
세계 각국에 이슬람으로 초대를 권유하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절단을 파견함 하이바르 정복
629 무타 전투와 승리
630 메카 정복
딸 자이납 성인의 서거 아들 이브라힘 성인의 탄생 아들 이브라힘 성인의 서거 타북 원정
632 고별의 설교로 수천명의 교우들에게 영향을 줌 잔낫툴 바키 묘지를 방문함
서거(6월 8일)

참고 문헌

- 잘리아툴-악다르 (마블라나 칼리디 바그다드)
- 대답하지 못하다 (할풋의 이스-학 에펜디)
- 달라이룬-누부우와 (바이하키)
- 디바니 마블라나 칼리디 바그다드
- 아즈다디 페감베리 (압둘하킴 아르와스)
- 아드-두룰 –만수르 (이맘 수유트)
- 알-바하룰–무힛 [8 볼륨] (아부 하이야 미-엔둘루스)
- 알-하사이술–쿠브라 (이맘 수유트)
- 알-이사바 (이브니 하자리 아스칼라니)
- 알-이스티압 (이브니 압딜바르)
- 알-카밀 핏-타리 (이브눌-아시르)
- 알-마타리불-알리야 (이브니 하자리 아스칼라니)
- 알-무자뭇-사기르 (이맘 타바라니)
- 알-무산나프 (이맘 압두르라작)
- 알-무산나프 (이맘 이브니 아비 샤이바)
- 알-와파비-아흐왈릴-무스타파 (아불-파라즈 이브눌-자우지)
- 안사불-아쉬라프 (발라주리)
- 아사비-키람 (압둘하킴 에펜디)
- 아스-시렌툴-할라비야 (압둘 파라즈 누랕딘 알리 b. 이브라힘 b. 아흐마드 할라비)
- 아스-시렌툰-나바위야 (이브니 히샴, 이브니 카시르)
- 아스-시야룰-카비르 (이맘 무함마드)
- 아쉬아툴-라마아트 (압둘하키미 다흐라위)
- 앗-타바카툴-쿠브라 (압둘와하비 샤라니)
- 파이데리 빌기레리 (A. 자우닷 파샤)
- 파라이둘 파와이드 (카디-자데 아흐마드 에펜디)
- 알-피크훌-악바르 (이맘 아부 하니파)
- 퐛툴 바하리 (이브니 하자리 아스칼라니)
- 푸트훌-불단 (발라주리)
- 도큐먼츠 오브 더 라이트 월드 (수유티)
- 알-하사이술- 쿠브라 (수유티)
- 하쉬야투 샤이흐-자데 아랄-바이다위 [8 볼륨]
- 하쉬야투스-사위 아랄-잘랄라인 [4 볼륨]
- 헤르케세 라즘 올란 이맘 (케마흐르 파이줄라흐)

히르카이 샤리프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살 알라후 알라이히 와 살람'이 베이셀 카라니 '라흐마툴라히 알라이히 와살람' 성하에게 선물한 축복받은 카디건은 라마단 기간 동안 이스탄불/파티흐의 히르카이 샤리프 모스크에서 방문됩니다.

- 힐라툴-아우리야 (아부 누얌)
- 후즈자툴라히 알랄랄라민 (유숩 납하니)
- 알-이크둘-파리드 (하센 슈룬불랄리)
- 이티카드나메 (마울라나 칼리디 바그다드)
- 이히야우 울루미드-딘 (아마니 가잘리)
- 인사눌-우윤 (누루드딘 할라비-이 샤피이)
- 이르샤두스-사리 (쉬하부드딘 카스탈라니)
- 이스바툰-누부우와 (이마미 랍바니)
- 에틱스 오브 이슬람 (일리 빈 암룰라흐, 무함마드 하디미)
- 엔사이클로페디아 오브 이슬라믹 스칼럴스 (위원회)
- 칸줄-움말 (알-무트타키 알-힌디)
- 키사시 안비야 (아흐마드 자우다드 파샤)
- 키야마트 와 아히라트 (이마니 가잘리)
- 키타불-암왈 (아부 아부이드 알-카심 이브니 살람)
- 키타불-하라즈 (이맘 아부 유숩)

- 꾸란 알 카림
- 마알리뭍-탄질 (카디 바이다위) [2 볼륨]
- 트랜스레이션 오브 마아리준-주부와 (알트팔막 무함마드 에펜디)
- 마아리준-누부와 (압둘하키 다흐라위)
- 마가지 (와키디)
- 막투바티 마투미야 (무함마드 마툼 파루키)
- 막투바티 랍바니 (이마미 랍바니)
- 마와히비 라둔니야 (카스탈라니) 엔드 자르카니스 코멘터리
- 마울리디 셰리프 [와실라툰-나자트] (술라이만 첼레비)
- 미라티 카이나트 (니샤지자다 무함마드 에펜디)
- 미라투-하라메인 (에윱 사브리 파샤)
- 미쉬카툴-마사비흐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 타브리지)
- 알-무자무스-사기르 (타바라니)
- 무하다라툴-아브라르 (무히드딘 이브니 아라비)
- 묵타파 피 지크라 파다일릴-무스타파 (이브니 하빕 할라비)
- 알-무산나프 (이븐 아비 샤이바)
- 알- 무와트타 (이맘 말릭)
- 탄위룰 알랄-하왈리크 알랄-무봣타 (수유티 코멘터리)
- 무즈데지 멕툽라르 (이마미 랍바니)
- 알-무스나드 (이맘 아흐마드 빈 한발)
- 알-무스타드락 아라스-사히하인 (하킴)
- 나사비 꾸라이쉬 (주바이르 빈 박카르)
- 누흐바툴-라알리 (무함마드 빈 술라이만)
- 아르-라브둘-운프 (수하일리)
- 레헤베르 엔사이클로페디아 (코미티)
- 리야둔 나시힌 (무함마드 라흐하미)
- 루훌-바얀 (이스마일 학크 부르사위)
- 사히히 부하리 (이마니 부크하리)
- 사히히 부크하리 코멘터리스 [파트훌-바리(아스칼라니), 움다툴-카리(아이니), 이르샤두스-사리(가스탈라니)]
- 사히히 무슬림 (이맘 무슬림)
- 사히히 무슬림 코멘터리스 (나와위)
- 시프루스-사아다
- 스라티 이브니 히샴 (이브니 히샴)
- 스라티 이브니 이샤크 (이브니 이샤크)
- 스라티 이브니 카트히르 (이브니 카트히르)
- 스라툰 나비 (아흐마드 빈 자이니 다흐란)
- 시야리 카비르 (이마미 무함마드) 엔드 코멘터리 (이마미 사라흐시)

- 시야루 알라민-누벨라 (자하비)
- 수불룰-후다 와르-라샤드 (스라티 샤미)
- 수나니 바이하키 (이맘 바이하키)
- 수나니 다라쿳니 (이맘 다라쿳니)
- 수나니 다리미 (이맘 다리미)
- 수나니 아브 다브드 코멘터리스 [마알리무스-수난 와 아브눌-마부드]
- 수나니 이브니 마자 (이맘 마자)
- 수나니 나사이 (이맘 나사이)
- 수나니 티르미지 (이마미 티르미지)
- 수나니 티르미지 코멘터리스 [투흐파툴-아흐와지 와 아리다툴-아흐와지]
- 샤마일리 샤리파 (이마미 티르미지)
- 샤마일루르-라술 (이마미 티르미지)
- 샤르후스-시야릴-카비르 (이마미 사라흐시)
- 샤와히둔-누부우와 (마블라나 압둘라흐만 자미)
- 쉬파이 샤리프 (카디 일야드)
- 타바카티 이브니 샤드
- 탐 일미할 세아데티 에데비예 (엔드리스 블리스) (엠. 스딕 규무쉬)
- 타리훌-하미스 (디야르 바크르)
- 타리훌-이슬람 (이마미 자하비)
- 타리훌-이베르 (이브니 할둔)
- 타리훌-움맘 왈-물룩 (타바리)
- 타프시리 아지지 (압둘-아지지 다흐라위)
- 타프시리 바이다위 (카디 바이다위)
- 타프시라 하진 [7 볼륨 위드 타프시리 바가위]
- 타프시리 후사이니 (마와히비 알리야: in Persian language) [2 볼륨]
- 타프시리 카비르 (마파티훌 가입)(파흐루디니 라지) [10 볼륨]
- 타프시리 쿠르투비 (쿠르투비) [20 볼륨]
- 타프시리 마즈하리 (사나울라히 파니푸니) [10 볼륨]
- 사프시리 타바리 (자미울 바얀) [30 볼륨]
- 타프시리 아부스수우드 (아부스수우드) [9 볼륨]
- 타위라투 아흐리스-순나 (이맘 마투리디)
- 움데툴-카리 (바드루드딘 알-아니니)
- 우유눌 아사르 (이브니 사이딘 나스)
- 우수둘-가베 (이브눌 아시르)
- 와파울-와파 (삼두디)
- 자둘-마시르 (이브눌-자우지)

마스지드 알나비 외부 전경 /사진. /메디나 알 무나와라

마캄 알 이브라힘과 마캄 아스 샤피.

메디나에서 바라본 옛 풍경

메카의 카바

마스지드 알 하람의 입구

메디나 알 무나와라(1890년 잉태)

사파 힐 - 메카

마르와 힐 - 메카

메카의 수레이 후마윤(수레 행렬)

압둘하미드 한 1세가 지은 잠잠 우물

키블라를 마주하고 있는 아라파트의 우측면

미나의 꾸르반 이드

(1880년 11월 13일)

우후드 산에 있는 하드랏 함자(라디 알라후 안)의 무덤과 마스지드

마스지드 알 자발 알 아이니야: 이곳은 하드랏 함자(라디 알라후 안)가 순교한 곳입니다.

목차